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78n1556

建中靖國續燈錄

宋 惟白集

中華電子佛典協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 _1556-A 御製建中靖國續燈錄序〔宋刻〕](#)
 - [正宗門](#)
 - [世尊](#)
 - [摩訶迦葉尊者](#)
 - [阿難尊者](#)
 - [商那和修尊者](#)
 - [優婆鞠多尊者](#)
 - [提多迦尊者](#)
 - [彌遮迦尊者](#)
 - [婆須蜜多尊者](#)
 - [佛陀難提尊者](#)
 - [伏馱蜜多尊者](#)
 - [脇尊者](#)
 - [富那夜奢尊者](#)
 - [馬鳴尊者](#)
 - [迦毗摩羅尊者](#)
 - [龍樹尊者](#)
 - [迦那提婆尊者](#)
 - [羅睺羅多尊者](#)
 - [僧伽難提尊者](#)
 - [伽耶舍多尊者](#)
 - [鳩摩羅多尊者](#)
 - [闍夜多尊者](#)
 - [婆修盤頭尊者](#)
 - [摩拏羅尊者](#)
 - [鶴勒那尊者](#)
 - [師子尊者](#)
 - [婆舍斯多尊者](#)
 - [不如蜜多尊者](#)
 - [般若多羅尊者](#)
 - [唐十初祖菩提達磨尊者](#)
 - [二祖惠可正宗普覺禪師](#)

- [三祖僧璨鏡智禪師](#)
- [四祖道信大醫禪師](#)
- [五祖弘忍大滿禪師](#)
- [六祖慧能大鑑禪師](#)
- [南嶽懷讓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
- [江西道一馬大師](#)
- [南岳石頭希遷禪師](#)
- [洪州百丈懷海大智禪師](#)
- [澧州天皇道悟禪師](#)
- [筠州黃蘗希運禪師](#)
- [澧州龍潭崇信禪師](#)
- [鎮府臨濟義玄禪師](#)
- [鼎州德山宣鑑禪師](#)
- [魏府興化存獎禪師](#)
- [福州雪峰義存禪師](#)
- [汝州寶應南院慧顥禪師](#)
- [韶州雲門文偃禪師](#)
- [汝州風穴延昭禪師](#)
- [汝州首山省念禪師](#)
- [汾州太子院善昭禪師](#)
- [對機門](#)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八世](#)
 - [韶州雲門山文偃匡直禪師法嗣](#)
 - [成都府香林澄遠禪師](#)
 - [饒州薦福承古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九世](#)
 - [成都府香林澄遠禪師法嗣](#)
 - [隋州智門光祚禪師](#)
 - [灌州羅漢禪師](#)
 - [隋州雙泉山瓊山主](#)
 - [饒州薦福承古禪師法嗣](#)
 - [洪州觀音選禪師](#)
 - [和州淨戒守密禪師](#)
 - [潭州開福禪院從受禪師](#)
 - [潞州妙勝臻禪師法嗣](#)
 - [潭州大滄山承禪師](#)
 - [西川雪峰欽山主](#)

- [襄州洞山普樂寺初禪師法嗣](#)
 - [潭州報慈嵩禪師](#)
 - [荊南福昌德賢禪師](#)
 - [蘇州黃梅龍華祥禪師](#)
- [金陵奉先道琛融照禪師法嗣](#)
 - [廬山蓮華峰祥睿主](#)
 - [廬陵西峯豁禪師](#)
 - [江州崇勝卸禪師](#)
- [隋州龍居山明教寬禪師法嗣](#)
 - [桂州壽寧善義禪師](#)
 - [明州岳林賢禪師](#)
 - [邛州西林義琛禪師](#)
- [郢州林溪脫禪師法嗣](#)
 - [西劍州鳳凰山智廣禪師](#)
 - [舒州投子通禪師](#)
- [南嶽般若啟柔禪師法嗣](#)
 - [藍田縣直禪師](#)
- [韶州披雲智寂禪師法嗣](#)
 - [廬山開先照禪師](#)
 - [金陵天寶禪師](#)
- [洪州泐潭山謙禪師法嗣](#)
 - [虔州了山宗盛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世](#)
 - [隋州智門光祚禪師法嗣](#)
 - [明州雪竇山資聖寺明覺禪師](#)
 - [黃州護國院壽禪師](#)
 - [韶州南華寺寶緣慈濟禪師](#)
 - [邵武重靈泉曉禪師](#)
 - [洪州百丈山智映寶月禪師](#)
 - [福州慈雲山紹洗禪師](#)
 - [復州青山好禪師](#)
 - [鄂州黃龍海禪師](#)
 - [桂陽芙蓉山文喜禪師](#)
 - [鼎州德山僧可禪師](#)
 - [鼎州彭法澄泗禪師](#)
 - [澧州藥山宣禪師](#)
 - [明州廣慧清順禪師](#)
 - [筠州九峯勤禪師](#)

- [潭州雲蓋山繼鵬禪師](#)
- [泉州雲臺省因禪師](#)
- [蘇州五祖山師戒禪師法嗣](#)
 - [筠州洞山妙圓禪師](#)
 - [無為軍西禪文岫禪師](#)
 - [蘇州十王懷楚禪師](#)
 - [舒州海會通禪師](#)
 - [蘇州義臺子祥禪師](#)
 - [復州北塔思廣禪師](#)
 - [明州天童山景德懷清禪師](#)
 - [越州寶巖叔芝禪師](#)
 - [蘇州翠峰慧顯禪師](#)
 - [台州瑞巖珪禪師](#)
 - [蘇州五祖山秀禪師](#)
 - [襄州白馬辯禪師](#)
 - [蘇州四祖山端禪師](#)
 - [蘇州定慧道海禪師](#)
 - [韶州舜峯蒙正禪師](#)
 - [溫州雁蕩山靈峯文吉禪師](#)
 - [潭州雲蓋山志顯禪師](#)
 - [隋州水南智昇禪師](#)
- [潭州報慈嵩禪師法嗣](#)
 - [郢州興陽山孫禪師](#)
- [東川乾明居信禪師法嗣](#)
 - [澧州藥山彝肅禪師](#)
 - [益州\[郫- 卑+\(\(白- 日+田\)/丹\)\]縣西禪垂白禪師](#)
- [江陵福昌重善禪師法嗣](#)
 - [鼎州德山文捷禪師](#)
 - [湖州上方齊岳禪師](#)
 - [明州育王山常坦禪師](#)
 - [江陵福昌詢禪師](#)
 - [越州四明小巒禪師](#)
 - [福州靈峰顯英禪師](#)
 - [西劍州元封文政禪師](#)
 - [潤州金山瑞新禪師](#)
- [蘇州北禪廣教懷志禪師法嗣](#)
 - [舒州四面山懷清禪師](#)
- [南嶽福嚴良雅禪師法嗣](#)

- [衡州常寧北禪智賢禪師](#)
- [南嶽衡岳寺振禪師](#)
- [福州衡山禪院了實禪師](#)
- [鼎州德山慧遠禪師法嗣](#)
 - [興元府大中仁辯禪師](#)
 - [益州菩提桂芳禪師](#)
 - [廬山開先善暹禪師](#)
 - [廬陵禾山禪智禪師](#)
 - [秀州資聖院盛勤禪師](#)
 - [潭州鹿苑圭禪師](#)
- [江陵府開福德賢禪師法嗣](#)
 - [郢州太陽山文昇禪師](#)
 - [日芳上座](#)
- [南嶽懷讓禪師第十一世](#)
 - [汾州太子禪院善昭禪師法嗣](#)
 - [潭州興化禪院慈明禪師](#)
 - [筠州太愚山興教守芝禪師](#)
 - [滁州瑯琊山開化廣照禪師](#)
 - [舒州法華禪院齊舉禪師](#)
 - [潭州石霜崇勝院法永禪師](#)
 - [湖州天聖皓太禪師](#)
 - [舒州投子山圓修禪師](#)
 - [唐州龍潭圓禪師](#)
 - [汝州葉縣廣教歸省明壽禪師法嗣](#)
 - [舒州浮山圓鑿禪師](#)
 - [汝州寶應禪院法昭演教禪師](#)
 - [唐州大乘山慧果禪師](#)
 - [襄州石門山蘊聰慈照禪師法嗣](#)
 - [唐州大乘山德遵禪師](#)
 - [湖州景清禪院居素明照禪師](#)
 - [潤州金山達觀禪師](#)
 - [杭州龍華寺齊岳寶覺禪師](#)
 - [蘇州洞庭山慧月禪師](#)
 - [明州杖錫修己禪師](#)
 - [洪州雙林寺己禪師](#)
 - [襄州谷隱山可琮禪師](#)
 - [撫州疎山古禪師](#)
 - [越州雲門山顯欽禪師](#)

- [湖州安吉上方新禪師](#)
- [處州仁壽嗣珍禪師](#)
- [杭州承天辯元禪師](#)
- [蘇州翠峰山普禪師](#)
- [泉州棲隱院自然禪師](#)
- [汝州廣慧院居埤直惠禪師法嗣](#)
 - [東京華嚴院道隆圓明禪師](#)
 - [臨江軍慧力院慧南禪師](#)
 - [汝州廣慧德宣禪師](#)
- [潭州神鼎山鴻譚禪師法嗣](#)
 - [澧州夾山靈泉子英禪師](#)
 - [隋州善光山蘭禪師](#)
 - [天臺妙智寺光雲禪師](#)
 - [潭州龍興禹禪師](#)
 - [江陵開聖院寶情山主](#)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一世](#)
 -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法嗣](#)
 - [越州天衣山義懷禪師](#)
 - [信州廣教景先禪師](#)
 - [饒州妙果院自政禪師](#)
 - [舒州東禪院賢禪師](#)
 - [蘇州薦福知一禪師](#)
 - [越州天衣在和禪師](#)
 - [湖州海會擇芝禪師](#)
 - [越州稱心省倮禪師](#)
 - [明州上山德隆禪師](#)
 - [越州稱心清演禪師](#)
 - [明州岳林藏院宗善禪師](#)
 - [杭州證聖守環禪師](#)
 - [杭州承天傳宗禪師](#)
 - [鼎州乾明知應禪師](#)
 - [天台寶相蘊歡禪師](#)
 - [蘇州萬壽神初惠照禪師](#)
 - [潭州龍興智傳禪師](#)
 - [漢陽軍鳳棲仲卿禪師](#)
 - [溫州平陽寶慶子環禪師](#)
 - [溫州鴈蕩靈巖寺德初禪師](#)
 - [直州長蘆崇福禪院祖印禪師](#)

- [湖州報本有蘭禪師](#)
- [越州稱心守明禪師](#)
- [廬山湯院守恩禪師](#)
- [直州六合香積孜禪師](#)
- [信陽軍乾明則禪師](#)
- [處州南明日慎禪師](#)
- [南嶽雲峰元益首座](#)
- [舒州投子山法宗道者](#)
- [韶州南華寶緣慈濟禪師法嗣](#)
 - [韶州甘露山白緣禪師](#)
 - [廣州興化延慶禪師](#)
 - [韶州永泰宗寶禪師](#)
 - [韶州寶壽行德禪師](#)
 - [韶州白虎山守昇禪師](#)
 - [韶州佛陀山宗欽禪師](#)
 - [韶州雙峰山法崇禪師](#)
 - [韶州樂昌縣寶林山海月禪師](#)
 - [韶州延祥法迎禪師](#)
 - [韶州舜峰惠寶禪師](#)
- [襄州洞山普樂子榮禪師法嗣](#)
 - [廬山圓通祖印禪師](#)
- [洪州百丈山智映寶月禪師法嗣](#)
 - [杭州惠因祥禪師](#)
 - [杭州慧因義寧禪師](#)
- [潭州雲蓋山繼鵬禪師法嗣](#)
 - [越州諸暨鍾山報恩禪院譚禪師](#)
- [筠州洞山曉聰禪師法嗣](#)
 - [雲居曉舜禪師](#)
 - [潭州大瀉山密印寺懷宥禪師](#)
 - [杭州佛日山明教禪師](#)
- [洪州泐潭山寶峰院懷澄禪師法嗣](#)
 - [東京十方淨因禪院大覺禪師](#)
 - [天台赤城山用良禪師](#)
 - [臨江軍有文禪師](#)
 - [福州雪峯象敦禪師](#)
 - [杭州靈隱山雲知慈覺禪師](#)
 - [明州金鵝山靖旻禪師](#)
 - [雲居山守億禪師](#)

- [婺州西塔殊禪師](#)
- [婺州承天惟簡禪師](#)
- [杭州臨安九峰淨土鑿韶禪師](#)
- [洪州壽聖普誦禪師](#)
- [筠州洞山永孚禪師](#)
- [金陵廣慧馮新禪師](#)
- [令滔首座](#)
- [筠州洞山白寶妙圓禪師法嗣](#)
 - [筠州洞山鑿遷禪師](#)
 - [筠州洞山清辯禪師](#)
- [舒州海會通禪師法嗣](#)
 - [隴州水南太平興國文秀禪師](#)
- [復州北塔思廣禪師法嗣](#)
 - [荊門軍當陽縣玉泉景德禪院承皓禪師](#)
- [蘇州翠峯慧顯禪師法嗣](#)
 - [杭州廣果擇能禪師](#)
- [蘄州四祖山端禪師法嗣](#)
 - [福州廣明常季禪師](#)
- [潭州雲蓋山志顯禪師法嗣](#)
 - [雲居山文慶海印禪師](#)
- [明州上方齊岳禪師法嗣](#)
 - [越州東山國慶順宗禪師](#)
- [潤州金山瑞新禪師法嗣](#)
 - [湖州天聖楚祥禪師](#)
 - [溫州極樂用基禪師](#)
 - [湖州天聖守道禪師](#)
- [衡州北禪智賢禪師法嗣](#)
 - [潭州興化崇辯禪師](#)
 - [江州法昌倚馮禪師](#)
- [廬山開先善暹禪師法嗣](#)
 - [雲居山佛印禪師](#)
 - [東京大相國寺智海正覺禪師](#)
 - [廬山萬杉善爽禪師](#)
 - [越州天章寺元楚寶月禪師](#)
 - [洪州壽聖元舜禪師](#)
 - [筠州洞山慧圓禪師](#)
- [廬陵禾山楚才禪師法嗣](#)
 - [衡州北禪慧雲禪院昇禪師](#)

- [澧州報恩禪院紹端禪師](#)
- [撫州曹山寶積院雄禪師](#)
- [澧州欽山悟勤禪師法嗣](#)
 - [鼎州梁山應圓禪師](#)
- [南嶽懷讓禪師第十二世](#)
 - [潭州興化禪院慈明禪師法嗣](#)
 - [洪州黃龍山崇恩惠南禪師](#)
 - [洪州翠巖廣化可直禪師](#)
 - [袁州楊岐山普通禪院方會禪師](#)
 - [潭州道吾山興化悟直禪師](#)
 - [明州天童山清遂禪師](#)
 - [金陵蔣山太平興國寺保心禪師](#)
 - [金陵蔣山覺海禪師](#)
 - [婺州太平興國禪寺載休禪師](#)
 - [筠州武泉山政禪師](#)
 - [明州香山蘊良禪師](#)
 - [蘇州南峰惟廣禪師](#)
 - [湖州報本澄說禪師](#)
 - [杭州淨慈志堅禪師](#)
 - [潭州南嶽雙峯寺省回禪師](#)
 - [洪州兜率道寬禪師](#)
 - [福州古田資福善禪師](#)
 - [潭州大溈山密印寺德乾禪師](#)
 - [全州靈山本言禪師](#)
 - [湖州羅漢居奉禪師](#)
 - [澧州壽聖院景韶禪師](#)
 - [澧州藥山義銑禪師](#)
 - [湖州廣法禪院源禪師](#)
 - [洪州百文惟政禪師](#)
 - [南嶽谷泉大道](#)
 - [滁州瑯琊山惠覺廣照禪師法嗣](#)
 - [洪州泐潭山曉月禪師](#)
 - [蘇州永安定慧院起信海印禪師](#)
 - [福州白鹿山顯端禪師](#)
 - [越州姜山方禪師](#)
 - [杭州天竺智月禪師](#)
 - [證聖禪院良禪師](#)
 - [滁州瑯琊山開化智遷禪師](#)

- [廬山圓通崇勝志珂禪師](#)
- [滁州瑯琊山開化院繼詮海月禪師](#)
- [荊門軍玉泉山務本悟空禪師](#)
- [袁州崇勝文捷禪師](#)
- [江陵公安萬壽子和禪師](#)
- [安州九嶷山圓明仁益禪師](#)
- [泉州涼峯山洞淵禪師](#)
- [直州定山方禪師](#)
- [湖州景清院居素明照禪師法嗣](#)
 - [湖州何山日儉禪師](#)
 - [杭州承天辯岑禪師](#)
 - [興化軍翠峯子淵禪師](#)
 - [杭州承天白能禪師](#)
- [舒州浮山法遠圓鑑禪師法嗣](#)
 - [東京十方淨因禪院淨照禪師](#)
 - [廬州興化仁岳禪師](#)
 - [蘇州白雲山廣教景雲禪師](#)
 - [無為軍廬江西禪繼禪師](#)
 - [宿州定林惠琛禪師](#)
 - [秀州本覺若珠禪師](#)
 - [荊門軍玉泉山景德謂芳禪師](#)
 - [廬山歸宗承天鴻式禪師](#)
 - [東京華嚴普孜禪師](#)
 - [舒州甘露法眼禪師](#)
 - [廬山歸宗承天普安禪師](#)
 - [南康軍南山清隱院惟湜禪師](#)
 - [舒州浮山太平洪璉禪師](#)
 - [潭州南嶽衡嶽寺奉能禪師](#)
- [筠州大愚山興教守芝禪師法嗣](#)
 - [潭州開福守義禪師](#)
 - [南嶽雲峯文悅禪師](#)
 - [饒州承天應禪師](#)
 - [越州大禹山簡南禪師](#)
 - [郢州興陽山啟珊禪師](#)
 - [郢州興陽山慧光院啟舟禪師](#)
 - [筠州洞山子圓禪師](#)
- [潭州石霜山法永禪師法嗣](#)
 - [金陵保寧承泰禪師](#)

- [南嶽福巖保宗禪師](#)
- [南嶽勝業智增禪師](#)
- [郢州太陽山長慶如漢禪師](#)
- [湖州天聖皓太禪師法嗣](#)
 - [湖州西余山寶實禪師](#)
- [汝州寶應法昭禪師法嗣](#)
 - [滁州瑯琊山方銳禪師](#)
 - [郢州興陽山希隱禪師](#)
-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法嗣](#)
 - [湖州上方希元禪師](#)
 - [潤州普慈院崇珍禪師](#)
 - [太平州瑞竹仲和禪師](#)
 - [潤州金山懷賢圓通禪師](#)
 - [太平州隱靜山慧觀禪師](#)
 - [常州南禪福聖白聰禪師](#)
 - [越州新昌石佛顯忠祖印禪師](#)
 - [杭州淨住院居說直淨禪師](#)
 - [宣州廣教院繼直文鑑禪師](#)
 - [湖州西余山拱辰禪師](#)
 - [常州承天了素禪師](#)
 - [越州法性院用章禪師](#)
 - [越州法性紹明禪師](#)
 - [蘇州崑山般若善端禪師](#)
- [蘇州洞庭惠月禪師法嗣](#)
 - [蘇州薦福亮禪師](#)
 - [蘇州瑞元嵩禪師](#)
 - [常州承天世珍禪師](#)
- [明州杖錫修己禪師法嗣](#)
 - [台州黃巖保軒禪師](#)
 - [明州雲巖志禪師](#)
- [明州石門山進禪師法嗣](#)
 - [明州瑞巖山智才禪師](#)
- [杭州龍華齊岳禪師法嗣](#)
 - [湖州吳山淨端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 [越州天衣義懷禪師法嗣](#)
 - [東京大相國寺慧林禪院圓照禪師](#)
 - [東京大相國寺惠林禪院覺海禪師](#)

- [直州長蘆崇福禪院廣照禪師](#)
- [廬山棲賢智遷禪師](#)
- [舒州山谷三祖會禪師](#)
- [無為軍鐵佛因禪師](#)
- [湖州報本法存禪師](#)
- [歙州開化惠圓禪師](#)
- [處州縉雲縣永泰智覺禪師](#)
- [蘇州萬壽和禪師](#)
- [和州開聖禪院棲禪師](#)
- [明州雲巖旌教院洞偕禪師](#)
- [福州衡山惟禮禪師](#)
- [杭州北山顯明院善孜禪師](#)
- [明州啟霞惠安禪師](#)
- [越州雲門山靈侃禪師](#)
- [天台太平元坦禪師](#)
- [杭州佛日文祖禪師](#)
- [蘇州薦福明因禪師](#)
- [沂州望仙山宗禪師](#)
- [岳陽墨山禪院有琦禪師](#)
- [舒州桐城金繩詮禪師](#)
- [筠州五峯淨覺院用機禪師](#)
- [東京法雲寺圓通禪師](#)
- [杭州佛日山智才禪師](#)
- [北京天鉢寺文慧禪師](#)
- [洪州上藍文達禪師](#)
- [洪州觀音啟禪師](#)
- [台州瑞巖子鴻禪師](#)
- [越州天章元善禪師](#)
- [直州長蘆崇福院體明圓鑑禪師](#)
- [杭州龍華文喜禪師](#)
- [處州永泰自仁禪師](#)
- [饒州景德普俊禪師](#)
- [汀州同慶禪院智珣禪師](#)
- [汀州開元智孜禪師](#)
- [泉州資聖捷禪師](#)
- [蘇州澄照慧慈禪師](#)
- [秀州崇德智澄禪師](#)
- [蘇州淨慧可證禪師](#)

- [泉州棲隱有評禪師](#)
- [蘇州定惠雲禪師](#)
- [汀州開元智譚禪師](#)
- [靈峯崇化珣禪師](#)
- [建州乾符大同院旺禪師](#)
- [筠州大愚曉舜禪師法嗣](#)
 - [蔣山佛慧禪師](#)
 - [虔州慈雲院修惠圓照禪師](#)
 - [建州崇梵餘禪師](#)
 - [衡山澄信禪師](#)
 - [杭州南山長耳相子良禪師](#)
 - [建州開元瑩禪師](#)
- [越州天衣山存和禪師法嗣](#)
 - [杭州護國菩提志專禪師](#)
- [饒州安國倞禪師法嗣](#)
 - [彭州慧日彝禪師](#)
- [杭州承天傳宗禪師法嗣](#)
 - [饒州崇福禪院了禪師](#)
 - [杭州承天寺守明禪師](#)
 - [湖州鳳凰山護國仁王有從禪師](#)
 - [鼎州大龍山德全禪師](#)
 - [蘇州崑山慧巖海印禪師](#)
- [直州長蘆智福祖印禪師法嗣](#)
 - [金陵清涼廣惠和禪師](#)
- [湖州報本蘭禪師法嗣](#)
 - [福州中際可遵禪師](#)
- [越州稱心山守明禪師法嗣](#)
 - [洪州承天上藍院光寂禪師](#)
- [潭州大溈山密印宥禪師法嗣](#)
 - [廬山歸宗慧通禪師](#)
 - [安州大安興教慧憲禪師](#)
 - [饒州崇福清雅禪師](#)
- [東京十方淨因懷璉大覺禪師法嗣](#)
 - [杭州臨安徑山維琳無畏禪師](#)
 - [杭州臨平勝因資禪師](#)
 - [杭州佛日淨惠戒弼禪師](#)
 - [福州天宮慎徽禪師](#)
 - [溫州彌陀庵正彥菴主](#)

- [杭州靈隱雲知慈覺禪師法嗣](#)
 - [杭州靈隱山正童圓明禪師](#)
- [婺州寶林顯珠禪師法嗣](#)
 - [婺州寶林用明禪師](#)
- [溫州鴈蕩靈峯文吉禪師法嗣](#)
 - [溫州淨光為覺禪師](#)
- [婺州承天惟簡禪師法嗣](#)
 - [婺州智者山壽聖利元禪師](#)
 - [溫州瑞安壽聖僧印禪師](#)
- [明州九峯韶禪師法嗣](#)
 - [明州大梅山祖鏡禪師](#)
- [越州東山國慶順宗禪師法嗣](#)
 - [建州定峯曉宣禪師](#)
- [荊門玉泉山景德承皓禪師法嗣](#)
 - [郢州林溪興教文慶禪師](#)
- [澧州夾山遵禪師法嗣](#)
 - [江陵福昌寺信禪師](#)
- [雲居山佛印了元禪師法嗣](#)
 - [杭州百丈山慶善院淨悟禪師](#)
 - [常州善權山廣教慧泰禪師](#)
 - [洪州西山翠巖廣化慧空禪師](#)
 - [饒州密巖山淨土德溥禪師](#)
 - [饒州崇福德基禪師](#)
 - [雲居山直如院仲和禪師](#)
 - [廬山同安崇勝幼宗禪師](#)
 - [婺州寶林懷吉直覺禪師](#)
 - [信州鵝湖山仁壽德延禪師](#)
 - [廬山萬杉子章禪師](#)
 - [洪州資福宗誘禪師](#)
 - [袁州龍興山居岳禪師](#)
- [東京智海正覺本逸禪師法嗣](#)
 - [筠州黃蘗山志因禪師](#)
 - [福州大中寺德隆禪師](#)
 - [福州白鹿山伸豫禪師](#)
- [南嶽懷讓禪師十三世](#)
 - [洪州黃龍山慧南禪師法嗣](#)
 - [江州東林興龍禪寺照覺禪師](#)
 - [洪州黃龍山寶覺禪師](#)

- [筠州黃蘗直覺禪師](#)
- [袁州仰山行偉禪師](#)
- [洪州泐潭山寶峯禪院洪英禪師](#)
- [潭州大溈山懷秀禪師](#)
- [南嶽福嚴慈感禪師](#)
- [湖州報本慧元禪師](#)
- [蘇州四祖山法演禪師](#)
- [潭州石霜山崇勝禪院琳禪師](#)
- [蘇州開元琦禪師](#)
- [福州玄沙明惠合文禪師](#)
- [潭州雲蓋山海會寺守智禪師](#)
- [潭州寶蓋山子勤禪師](#)
- [廬山圓通圓璣禪師](#)
- [安州九嶷山圓明院法明禪師](#)
- [桂州登雲山超及禪師](#)
- [福州昇山紹南正覺禪師](#)
- [隋州水南太平興國智秘禪師](#)
- [南嶽勝業寺惟亨禪師](#)
- [遠州清泉崇雅禪師](#)
- [廬山清隱源禪師](#)
- [鼎州彭法禪寺覺言禪師](#)
- [安州興國禪院契雅禪師](#)
- [東京大相國寺慧林禪院佛陀禪師](#)
- [洪州泐潭山寶峯禪院直淨禪師](#)
- [南康軍雲居山真如禪院元祐禪師](#)
- [廬陵仁山降慶禪院慶閑禪師](#)
- [舒州三祖山法宗禪師](#)
- [洪州黃龍山元肅禪師](#)
- [齊州靈巖山重礮正覺禪師](#)
- [潭州大溈山顥詮禪師](#)
- [虔州廉泉禪院曇秀禪師](#)
- [韶州南華清桂禪師](#)
- [南岳高臺寺宣明佛印禪師](#)
- [衡州花光寺元恭禪師](#)
- [楊州建隆禪院昭慶禪師](#)
- [蘇州三角山慧澤禪師](#)
- [蘇州五祖曉常禪師](#)
- [潭州大光應屋禪師](#)

- [洪州興化法澄禪師](#)
- [南嶽法輪文昇禪師](#)
- [郢州芭蕉山仁珂禪師](#)
- [黃蘗積翠永庵主](#)
- [洪州黃龍山白慶禪師](#)
- [信州靈鷲慧覺禪師](#)
- [蘇州石鼓洞珠禪師](#)
- [舒州宿松靈隱寺德滋山主](#)
- [洪州翠巖山可直禪師法嗣](#)
 - [東京大相國寺智海禪院直如禪師](#)
 - [南岳西林崇奧禪師](#)
- [袁州楊岐山方會禪師法嗣](#)
 - [舒州白雲山海會院守端禪師](#)
 - [金陵保寧仁勇禪師](#)
 - [岳州慕阜山長慶顯瓊禪師](#)
 - [岳州君山守巽禪師](#)
 - [澧州欽山乾明智因禪師](#)
 - [潭州石霜山守孫禪師](#)
- [明州天童山清遂禪師法嗣](#)
 - [福州乾元寺了覺禪師](#)
 - [南岳應天萬壽應城禪師](#)
 - [福州大中立誌禪師](#)
- [金陵蔣山贊元覺海禪師法嗣](#)
 - [衢州江山縣石門羅漢禪院雅禪師](#)
 - [信州龜峰瑞相子瓊禪師](#)
 - [金陵蔣山可政禪師](#)
- [潭州開福守義禪師法嗣](#)
 - [廬州澄慧惟昞禪師](#)
- [南岳雲峰文悅禪師法嗣](#)
 - [桂州壽寧齊曉禪師](#)
 - [廬州澄惠咸詡禪師](#)
- [南岳福嚴保宗禪師法嗣](#)
 - [衡州花藥山崇勝義然禪師](#)
 - [南嶽承天智昇禪師](#)
- [東京十方淨因道臻淨照禪師法嗣](#)
 - [福州長慶寺慧暹文慧禪師](#)
 - [福州棲勝繼超禪師](#)
 - [郢州香巖山慧照禪師洞敷](#)

- [西京少林禪院元訓禪師](#)
- [廬州興化院仁岳禪師法嗣](#)
 - [潭州智度山定林景芳禪師](#)
 - [潭州興化紹清禪師](#)
 - [汝州首山乾明處珪禪師](#)
- [荊門軍玉泉韻芳禪師法嗣](#)
 - [安州延福禪院智興禪師](#)
 - [臨江軍惠力善周禪師](#)
 - [韶州六祖南華重辨禪師](#)
 - [福州聖泉寺紹登禪師](#)
- [南岳雙峯省回禪師法嗣](#)
 - [金州靈山彥文禪師](#)
 - [閩州光國文警禪師](#)
- [杭州鹽官菩提用禪師法嗣](#)
 - [杭州臨安淨十善思禪師](#)
- [蘇州定惠超信海印禪師法嗣](#)
 - [杭州南陽山慶善智圓禪師](#)
- [荊門軍玉泉悟空禪師法嗣](#)
 - [江陵護國齊月禪師](#)
- [洪州泐潭寶峯曉月禪師法嗣](#)
 - [洪州上藍居晉禪師](#)
- [汾州太子院同慶禪師法嗣](#)
 - [西京龍門山勝善清照禪師](#)
- [襄州谷隱山德遵禪師法嗣](#)
 - [新州龍山國恩景淨禪師](#)
- [筠州武泉政禪師法嗣](#)
 - [杭州慶善震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 [東京惠林宗本圓照禪師法嗣](#)
 - [東京法雲寺大通禪師](#)
 - [潤州金山龍游寺法印禪師](#)
 - [潤州甘露寺傳祖禪師](#)
 - [福州太平禪師守恩禪師](#)
 - [衢州靈耀寺佛慈禪師](#)
 - [台州瑞巖有居禪師](#)
 - [明州天童山景德寺可齊禪師](#)
 - [秀州資聖崇信禪師](#)
 - [蘇州瑞光守琮直覺禪師](#)

- [蘇州萬壽普勲禪師](#)
- [宣州水西山軻禪師](#)
- [明州香山智度院正覺延泳禪師](#)
- [明州雪竇山資聖寺法藏禪師](#)
- [明州啟霞山崇梵院慧章禪師](#)
- [壽州資壽院圓澄巖禪師](#)
- [睦州廣靈佛印禪師](#)
- [東京褒親旌德院慈濟翹禪師](#)
- [越州石佛寶相寺曉通密印禪師](#)
- [湖州道場山慧印禪師](#)
- [處州南明山仁壽院通禪師](#)
- [杭州西湖妙惠院文義禪師](#)
- [西京韶山杲禪師](#)
- [汝州香山慈壽法書禪師](#)
- [福州靈應嵩禪師](#)
- [處州靈泉山壽寧梵仁禪師](#)
- [秀州福巖仲孚禪師](#)
- [處州靈泉山宗一禪師](#)
- [通州琅山法印禪師](#)
- [南嶽馬祖崇新庵主](#)
- [舒州投子證悟禪師](#)
- [東京十方淨因禪院佛日禪師](#)
- [泗州普照寺直寂禪師](#)
- [太平州隱靜山普慧寺儼禪師](#)
- [蘇州定慧院圓義禪師](#)
- [舒州投子山勝因禪院普聰禪師](#)
- [秀州本覺法直禪師](#)
- [湖州報本禪院常利禪師](#)
- [揚州石塔惠照寺惠禪師](#)
- [杭州南山廣法法光禪師](#)
- [明州瑞巖山永覺禪師](#)
- [睦州資福道芳禪師](#)
- [舒州太平慧登禪師](#)
- [岳州乾明慧覺禪師](#)
- [處州法海禪院世長禪師](#)
- [筠州米山崇僊禪師](#)
- [蘇州寶華妙覺顯禪師](#)
- [明州岳林元亨禪師](#)

- [安州九嶷山圓明著禪師](#)
- [廬州澄慧善珂禪師](#)
- [蘇州寶華山悟本慶禪師](#)
- [饒州蜜巖淨土院惠旻禪師](#)
- [廬州澄慧院暉禪師](#)
- [潭州石霜崇勝寺能禪師](#)
- [汀州同慶院白鑿禪師](#)
- [荊南府萬壽院有琛禪師](#)
- [宣州寶勝永良禪師](#)
- [壽州六安文殊惟湛禪師](#)
- [福州光化梵菴禪師](#)
- [東京法雲圓通禪師法嗣](#)
 - [江寧府蔣山太平興國寺惠炬禪師](#)
 - [廬山開先心印禪師](#)
 - [潭州道林廣慧寺寶琳禪師](#)
 - [江寧府保寧寺子英禪師](#)
 - [撫州明水法潞禪師](#)
 - [興元府慈濟聰禪師](#)
 - [安州白兆山通慧珪禪師](#)
 - [壽州霍丘歸才禪師](#)
 - [廬州長安淨名法因禪師](#)
 - [太平州蕪湖縣吉祥訥禪師](#)
 - [廬州廣惠冲雲禪師](#)
 - [浮槎山福嚴守初禪師](#)
 - [鼎州德山仁繪禪師](#)
 - [澧州聖壽香積用旻禪師](#)
 - [筠州瑞相子來禪師](#)
 - [廬州真空從一禪師](#)
 - [廬州承天資福月禪師](#)
 - [南京寧陵安福子勝禪師](#)
 - [舒州甘露德顯禪師](#)
 - [金陵正覺道清禪師](#)
 - [金陵天禧宗永慧嚴禪師](#)
 - [襄州鳳凰山乾明廣禪師](#)
 - [饒州安國白方禪師](#)
 - [廬州澄慧義端禪師](#)
 - [廬州北天王崇勝益禪師](#)
 - [衛州元豐院宗燈禪師](#)

- [廬山棲賢智柔審主](#)
- [東京法雲禪寺惟白佛國禪師](#)
- [杭州佛日山智才禪師法嗣](#)
 - [澧州夾山靈泉白齡禪師](#)
- [東京惠林禪院若冲覺海禪師法嗣](#)
 - [東京永興華嚴佛慧禪師](#)
 - [常州廣福曇章法照禪師](#)
 - [鎮府水泰智航禪師](#)
 - [常州江陰壽聖子邦圓覺禪師](#)
- [直州長蘆崇福應夫廣昭禪師法嗣](#)
 - [滁州瑯琊山宗初禪師](#)
 - [滁州龍蟠山道成禪師](#)
 - [直定府洪濟禪院宗隨禪師](#)
 - [歙州普滿明禪師](#)
 - [和州褒禪溥禪師](#)
 - [滁州寶林禪院輝禪師](#)
 - [直州靈巖山志願禪師](#)
 - [潭州等覺法思禪師](#)
 - [壽州壽春廣慧法岸禪師](#)
 - [直州定山直如文彥禪師](#)
 - [荊南府護國紹通禪師](#)
 - [南京法寶德一禪師](#)
 - [池州乾明禪院寶慧禪師](#)
- [北京天鉢重元文惠禪師法嗣](#)
 - [衛州元豐院清滿禪師](#)
 - [西京善勝真悟禪師](#)
 - [恩州祖印善不禪師](#)
- [廬山賢棲遷禪師法嗣](#)
 - [杭州南山法雨惟鎮禪師](#)
 - [舒州王屋山崇福燈禪師](#)
 - [潭州東明惠遷禪師](#)
- [和州褒禪冲會圓智禪師法嗣](#)
 - [杭州臨安居潤禪師](#)
- [台州瑞巖子鴻禪師法嗣](#)
 - [台州佛窟昌國可英禪師](#)
 - [明州岳林寺曇振禪師](#)
- [江州開元智潭禪師法嗣](#)
 - [江州開元宗祐禪師](#)

- [虔州慈雲慶瑞禪師法嗣](#)
 - [虔州廣慈道傳禪師](#)
- [金陵蔣山法泉佛慧禪師法嗣](#)
 - [滁州幽谷壽聖寺祐禪師](#)
 - [郢州太平興國法雲禪師](#)
 - [衢州九峰殊甫禪師](#)
- [善果懷演庵主法嗣](#)
 - [潭州玉池光教寺冲儼禪師](#)
- [廬山歸宗通禪師法嗣](#)
 - [襄州資福廣照素月禪師](#)
 - [郢州子陵辯禪師](#)
 - [廬山同安崇勝禪院慶通禪師](#)
- [江陵福昌禪院信禪師法嗣](#)
 - [安州法興期禪師](#)
- [南嶽懷讓禪師第十四世](#)
 - [廬山東林興龍寺常總照覺禪師法嗣](#)
 - [洪州泐潭山寶峯禪院應乾禪師](#)
 - [廬山開先華藏禪院廣鑑禪師](#)
 - [廬山萬杉禪院紹慈禪師](#)
 - [東京褒親旌德禪院佛海禪師](#)
 - [南嶽福嚴寺惟鳳禪師](#)
 - [南嶽衡嶽寺道辨禪師](#)
 - [廬山圓通可僊禪師](#)
 - [臨江軍慧力院可昌禪師](#)
 - [廬陵禾山甘露志傳禪師](#)
 - [黃州栢子山棲真院德嵩禪師](#)
 - [廬山東林思度禪師](#)
 - [蘄州白雲山廣教德方禪師](#)
 - [泉州同安雙林道基禪師](#)
 - [江州德安無相繼才禪師](#)
 - [東京褒親旌德禪院諭禪師](#)
 - [潭州鹿苑景深禪師](#)
 - [饒州妙果院法喜禪師](#)
 - [安州壽寧院成則禪師](#)
 - [明州岳林崇福院圓明禪師](#)
 - [直州資福懷寶禪師](#)
 - [洪州興化院以弼禪師](#)
 - [泉州清化院從璋禪師](#)

- [洪州西山龍泉夔禪師](#)
- [襄州西禪萬壽院智圓禪師](#)
- [建州護國禪院康禪師](#)
- [建州景福院惟潔禪師](#)
- [南康軍兜率院志恩禪師](#)
- [福州興福院康源禪師](#)
- [泉州崇福德徽禪師](#)
- [泉州開元寺直覺大師](#)
- [舒州海會守端禪師法嗣](#)
 - [潭州雲蓋山智本禪師](#)
 - [蘇州五祖演禪師](#)
 - [滁州瑯琊山開化寺永起禪師](#)
 - [英州大溶山保福殊禪師](#)
- [金陵保寧仁勇禪師法嗣](#)
 - [郢州月堂山壽聖智淵禪師](#)
 - [湖州烏墩壽聖楚文禪師](#)
 - [信州靈鷲山寶積宗映禪師](#)
 - [越州寶嚴道倫禪師](#)
 - [洪州景福日餘禪師](#)
 - [湖州上方日益禪師](#)
- [洪州黃龍山祖心寶覺禪師法嗣](#)
 - [洪州黃龍如曉禪師](#)
 - [洪州雙嶺化禪師](#)
 - [泗州龜山水陸禪院曉津禪師](#)
 - [韶州雲門寶宣禪師](#)
 - [澧州夾山靈泉院曉純禪師](#)
 - [鄂州黃龍延禧智融禪師](#)
 - [杭州顯明道昌禪師](#)
 - [漳州淨眾本權禪師](#)
 - [潭州南嶽雙峯景齊禪師](#)
 - [杭州慈雲道清禪師](#)
 - [洪州景德惠英禪師](#)
 - [洪州翠巖廣化悟新禪師](#)
 - [廣州集福寶嚴禪師](#)
 - [舒州太平興國惟清禪師](#)
 - [鄂州黃龍延禧禪院智明禪師](#)
- [雲居山元祐禪師法嗣](#)
 - [東京大相國寺智海禪院佛印禪師](#)

- [廬山羅漢禪院系南禪師](#)
- [潭州慈雲彥隆禪師](#)
- [郢州子陵山白瑜禪師](#)
- [舒州白雲山海會守從禪師](#)
- [洪州東山景福省悅禪師](#)
- [台州天台山寶相元禪師](#)
- [泉州長興德寶禪師](#)
- [泉州南峯永程禪師](#)
- [福州賢沙明惠文禪師法嗣](#)
 - [福州廣慧果禪師](#)
- [湖州報本元禪師法嗣](#)
 - [蘇州承天永安院傳燈禪師](#)
 - [湖州鳳凰山仁王院得亨禪師](#)
- [揚州建隆寺昭慶禪師法嗣](#)
 - [荊門軍玉泉山善超禪師](#)
 - [蘇州報恩泗州院用元禪師](#)
- [洪州黃龍山元肅禪師法嗣](#)
 - [袁州仰山清簡禪師](#)
 - [筠州百丈山維古禪師](#)
- [衢州石門山雅禪師法嗣](#)
 - [衢州璩源山善政禪院普印禪師](#)
- [潭州大溈山密印禪院懷秀禪師法嗣](#)
 - [潭州大溈山祖琇禪師](#)
 - [南岳山福嚴文演禪師](#)
 - [南岳西林院常賢禪師](#)
 - [南岳後洞方廣寺有達禪師](#)
 - [南岳南臺允恭禪師](#)
- [袁州仰山偉禪師法嗣](#)
 - [襄州谷隱山靜顯禪師](#)
 - [潭州龍王山善隨禪師](#)
 - [筠州黃蘗山祇園永泰禪師](#)
 - [廬山慧日明禪師](#)
- [洪州泐潭山洪英禪師法嗣](#)
 - [南嶽法輪院齊添禪師](#)
 - [潭州大溈山齊恂禪師](#)
 - [袁州仰山友恩禪師](#)
 - [南岳方廣懷紀禪師](#)
 - [泉州永春慧明院雲禪師](#)

- [潭州寶蓋山白俊禪師](#)
- [南岳上封行瑜禪師](#)
- [東京智海禪院慕喆直如禪師法嗣](#)
 - [潭州道吾山汝能禪師](#)
 - [興國軍永安院妙喜禪師](#)
 - [潭州中峯山羅浮院希聲禪師](#)
 - [潭州中峰山智源禪師](#)
 - [安州大安山興教惠淳禪師](#)
 - [舒州靈泉普濟道堅禪師](#)
- [廬陵隆慶慶閑禪師法嗣](#)
 - [潭州安化啟寧聞一禪師](#)
- [蘄州開元琦禪師法嗣](#)
 - [饒州薦福道英禪師](#)
 - [廬山雙溪寶巖允光禪師](#)
- [黃蘗積翠永睿主法嗣](#)
 - [廬陵清平楚金禪師](#)
- [南岳高臺佛印禪師法嗣](#)
 - [潭州龍興師定禪師](#)
- [杭州慶善宗震禪師法嗣](#)
 - [杭州慶善普能禪師](#)
- [洪州泐潭山真淨禪師法嗣](#)
 - [洪州分寧兜率從悅禪師](#)
 - [潭州報慈開福進英禪師](#)
 - [桂州壽寧寺善資禪師](#)
 - [永州元豐太平寺安禪師](#)
 - [廬山歸宗杲禪師](#)
 - [南嶽祝融峰上封寺慧和禪師](#)
 - [衢州超化院靜禪師](#)
 - [筠州五峰淨覺院本禪師](#)
- [蘄州五祖常禪師法嗣](#)
 - [蘄州月頂延福寺倫禪師](#)
 - [蘄州南烏崖壽聖楚清禪師](#)
- [江陵護國禪院月禪師法嗣](#)
 - [江陵護國惠本禪師](#)
- [杭州淨土思禪師法嗣](#)
 - [杭州靈鳳山萬壽法詮禪師](#)
 - [杭州慶善守隆禪師](#)
- [潭州石霜山琳禪師法嗣](#)

- [鼎州德山靜照蕃什蕃主](#)
- [南嶽福巖慈感禪師法嗣](#)
 - [明州育王山廣利寺寶鑑禪師](#)
 - [成都府南禪光澡禪師](#)
- [南嶽懷讓禪師第十五世](#)
 - [廬山羅漢寺南禪師法嗣](#)
 - [南岳雲峯景德惠昌禪師](#)
 - [舒州浮山德宣禪師](#)
 - [江陵護國慧本禪師法嗣](#)
 - [岳州君山崇勝普淨禪師](#)
 - [洪州泐潭山乾禪師法嗣](#)
 - [廬州西天王興化可都禪師](#)
 - [潭州道吾山楚方禪師](#)
 - [袁州崇勝密禪師](#)
 - [廬山圓通僊禪師法嗣](#)
 - [溫州永嘉淨居了威佛日禪師](#)
 - [婺州明招山文惠禪師](#)
 - [東京褒親旌德有瑞佛海禪師法嗣](#)
 - [安州應城壽寧道完禪師](#)
 - [潭州雲蓋智本禪師法嗣](#)
 - [潭州南嶽山承天禪院自賢禪師](#)
 - [潭州南嶽承天慧連禪師](#)
 - [廬陵定香山惟德禪師](#)
 - [南嶽草衣巖治平慶時禪師](#)
 - [洪州兜率從悅禪師法嗣](#)
 - [洪州龍安山兜率惠照禪師](#)
 - [袁州楊岐山子圓禪師](#)
 - [黃州栢子山嵩禪師法嗣](#)
 - [黃州東禪惟資禪師](#)
 - [澧州夾山純禪師法嗣](#)
 - [澧州欽山乾明普初禪師](#)
 - [東京智海智清佛印禪師法嗣](#)
 - [蘇州四祖仲宣禪師](#)
 - [泉州乾峯圓慧禪師](#)
 - [臨江軍慧力院可昌禪師法嗣](#)
 - [臨江軍瑞筠山慧力洞源禪師](#)
 - [袁州分官福聖常極禪師](#)
 - [廬山開先行瑛禪師法嗣](#)

- [廬山開先華藏海評禪師](#)
- [洪州上簞希肇禪師法嗣](#)
 - [洪州大寧文廣禪師](#)
- [饒州薦福英禪師法嗣](#)
 - [福州等覺普明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四世](#)
 - [東京法雲禪寺善本大通禪師法嗣](#)
 - [婺州雲黃山寶林寺寶覺禪師](#)
 - [杭州淨慈寶印禪師](#)
 - [越州承天滋須禪師](#)
 - [蘇州吳江聖壽法晏禪師](#)
 - [越州天衣寺惠通禪師](#)
 - [湖州天聖齊月禪師](#)
 - [鄭州資福法明寶月禪師](#)
 - [杭州徑山承天禪院常悟禪師](#)
 - [越州延慶可復禪師](#)
 - [溫州永嘉雙峰山普寂宗達佛海禪師](#)
 - [郴州宣章圓明希禪師](#)
 - [越州五峰山子琪禪師](#)
 - [通州狼山文惠禪師](#)
 - [西京韶山雲門道信禪師](#)
 - [舒州投子山修顯證悟禪師法嗣](#)
 - [壽州資壽灌禪師](#)
 - [西京白馬山崇壽寺江禪師](#)
 - [鄧州香巖長壽知月禪師](#)
 - [潤州金山善寧法印禪師法嗣](#)
 - [秀州禪悅知相禪師](#)
 - [婺州普濟子淳圓濟禪師](#)
 - [秀州鹿苑道齊禪師](#)
 - [廬山開先心印禪師法嗣](#)
 - [廬州延昌寺熙詠禪師](#)
 - [金陵保寧子英禪師法嗣](#)
 - [廬山承天羅漢勒禪師](#)
 - [廬山羅漢善修禪師](#)
 - [秀州本覺法直一禪師法嗣](#)
 - [福州越峰粹珪妙覺禪師](#)
 - [福州壽山本明禪師](#)
 - [睦州廣靈希祖佛印禪師法嗣](#)

- [睦州烏龍山廣堅禪師](#)
- [處州縉雲仙岩懷義禪師](#)
- [睦州清溪西禪智誠禪師](#)
- [壽州資壽圓澄岩禪師法嗣](#)
 - [鼎州武陵彰法嵩禪師](#)
 - [婺州寶山公遠禪師](#)
- [岳州乾明惠覺禪師法嗣](#)
 - [嶽州平江長慶圓禪師](#)
 - [岳州平江寶積清及禪師](#)
- [直定府洪濟滿禪師法嗣](#)
 - [相州長興宗朴禪師](#)
- [東京法雲惟白佛國禪師法嗣](#)
 - [潤州金山龍游寺佛鑑禪師](#)
 - [興元府中梁山乾明禪院永因禪師](#)
 - [婺州智者山壽聖禪寺紹光禪師](#)
 - [泗州大聖普照禪寺法最禪師](#)
 - [和州靈湯惠濟禪院普虔禪師](#)
 - [楚州勝因崇愷禪師](#)
 - [沂州馬鞍山福聖院仲易禪師](#)
 - [磁州二祖元符禪寺璿果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五世](#)
 - [婺州寶林果昌寶覺禪師法嗣](#)
 - [袁州木平山興化德觀禪師](#)
 - [天台護國妙機禪師](#)
 - [杭州淨慈楚明寶印禪師法嗣](#)
 - [溫州靈巖德宗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九世](#)
 - [鄂州太陽山警延明安禪師法嗣](#)
 - [舒州投子山義青禪師](#)
 - [西川雲頂山鵬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世](#)
 - [舒州投子山義青禪師法嗣](#)
 - [鄂州太陽山楷禪師](#)
 - [西京少林恩禪師](#)
 - [滁州龍蟠山壽聖寺廣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一世](#)
 - [鄂州太陽山楷禪師法嗣](#)
 - [西京龍門乾元寺南禪師](#)

- [雲居山道齊禪師法嗣](#)
 - [蘇州翠峰山洪禪師](#)
 - [明州金鵝山虔白禪師](#)
 - [洪州上藍普禪師](#)
 - [杭州承天義海禪師](#)
 - [廬山萬杉院太超廣知禪師](#)
- [南康軍羅漢行林祖印禪師法嗣](#)
 - [福州古田靈峰道誠禪師](#)
 - [直州長蘆贊禪師](#)
 - [袁州崇勝道珍禪師](#)
 - [綿州富樂山智靜禪師](#)
 - [越州天衣山昭愛禪師](#)
 - [袁州仰山太平興國寺擇和禪師](#)
- [廬州棲賢澄謚禪師法嗣](#)
 - [湖州西余山寧化體榮禪師](#)
 - [南嶽福嚴省賢惠照禪師](#)
 - [袁州仰山智齊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 [杭州靈隱文勝禪師法嗣](#)
 - [杭州靈隱山蘊聰惠照禪師](#)
 - [杭州南院清禪師](#)
 - [江寧府保寧宗禪師](#)
 - [江寧府清涼舉內慈化禪師](#)
 - [越州新昌石佛有邦禪師](#)
 - [杭州龍華悟乘禪師法嗣](#)
 - [溫州鴈蕩山靈巖惠瑞宣密禪師](#)
 - [明州瑞巖山義海禪師法嗣](#)
 - [明州大梅文慧禪師](#)
 - [明州翠巖嗣元禪師](#)
 - [明州大梅保福居照禪師法嗣](#)
 - [婺州智者嗣如禪師](#)
 - [洪州章口昭達禪師法嗣](#)
 - [蘇州萬壽守堅法印禪師](#)
-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 [婺州智者山嗣如禪師法嗣](#)
 - [婺州浦江華藏虔外禪師](#)
 - [婺州淨土可嵩禪師](#)
 - [婺州承天澄月禪師](#)

- [廬陵青原山行思禪師第十四世](#)
 - [婺州承天澄月禪師法嗣](#)
 - [婺州承天仲顏禪師](#)
- [拈古門](#)
 -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二十則](#)
 - [洪州黃龍山南禪師二則](#)
 - [東京淨因懷璉大覺禪師三則](#)
 - [滁州瑯琊惠覺廣照禪師四則](#)
 - [雲居山曉舜禪師三則](#)
 - [婺州承天簡禪師五則](#)
 - [洪州翠巖山可直禪師一則](#)
 - [東京智海慕喆直如禪師二則](#)
 - [廬山東林廣惠常總照覺禪師一則](#)
 - [南嶽雲峯文悅禪師五則](#)
 - [潭州大溈懷秀禪師一則](#)
 - [越州天衣義懷禪師三則](#)
 - [廬山開先善暹禪師二則](#)
 - [湖州上方齊岳禪師二則](#)
 - [江寧府蔣山法泉佛惠禪師三則](#)
 - [雲居山了元佛印禪師一則](#)
 - [杭州佛日智才禪師二則](#)
 -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三則](#)
 - [杭州承天傳宗禪師二則](#)
 - [東京慧林德遜佛陀禪師一則](#)
 - [台州瑞巖子鴻禪師二則](#)
 - [東京法雲法秀圓通禪師四則](#)
 - [衛州元豐清滿禪師二則](#)
 - [東京淨因惟岳佛日禪師一則](#)
 - [秀州資聖盛勲禪師二則](#)
 - [廬山栖賢遷禪師三則](#)
 - [江寧府清涼和禪師一則](#)
 - [澧州夾山白齡禪師三則](#)
 - [廬山開先心印禪師一則](#)
- [頌古門](#)
 -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
 - [潭州石霜楚圓慈明禪師](#)
 - [洪州黃龍慧南禪師三則](#)
 - [東京智海慕喆直如禪師](#)

- [筠州洞山直淨文禪師](#)
- [舒州海會守端禪師](#)
- [廬山東林常總照覺禪師](#)
- [江寧府保寧仁勇禪師](#)
- [蘇州定慧超信海印禪師](#)
- [東京慧林德遜佛陀禪師](#)
- [舒州投子山義青禪師](#)
-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
- [太平州隱靜山守儼禪師](#)
- [雲居山了元佛印禪師](#)
- [虔州慈雲圓照禪師](#)
- [東京淨因惟岳佛日禪師](#)
- [福州大中智德禪師](#)
- [岳陽乾明慧覺禪師](#)
- [越州天章元善禪師](#)
- [湖州上方日益禪師](#)
- [偈頌門](#)
 - [蔣山法泉佛惠禪師](#)
 - [釋迦牟尼佛](#)
 - [一祖大迦葉尊者](#)
 - [二祖阿難尊者](#)
 - [三祖商那和修尊者](#)
 - [四祖優波鞠多尊者](#)
 - [五祖提多迦尊者](#)
 - [六祖彌遮迦尊者](#)
 - [七祖婆須密尊者](#)
 - [八祖佛陀難提尊者](#)
 - [九祖伏駄蜜多尊者](#)
 - [十祖脇尊者](#)
 - [十一祖富那夜奢尊者](#)
 - [十二祖馬鳴尊者](#)
 - [十三祖迦毗摩羅尊者](#)
 - [十四祖龍樹尊者](#)
 - [十五祖迦那提婆尊者](#)
 - [十六祖羅睺羅多尊者](#)
 - [十七祖僧伽難提尊者](#)
 - [十八祖伽耶舍多尊者](#)
 - [十九祖鳩摩羅多尊者](#)

- [二十祖闍夜多尊者](#)
- [二十一祖婆修槃頭尊者](#)
- [二十二祖摩拏羅尊者](#)
- [二十三祖鶴勒那尊者](#)
- [二十四祖師子尊者](#)
-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
- [二十六祖不如蜜多尊者](#)
-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 [二十八祖菩提達磨大師](#)
- [二十九祖慧可禪師](#)
- [三十祖僧璨禪師](#)
- [三十一祖道信禪師](#)
- [三十二祖弘忍禪師](#)
- [三十三祖慧能禪師](#)
- [越州天衣義懷禪師](#)
 - [投機](#)
 - [色空](#)
- [東京淨因淨照臻福師](#)
 - [百丈再參](#)
 - [百丈卷席](#)
 - [外道問佛](#)
 - [靈雲悟桃華](#)
 - [趙州勘婆](#)
 - [不見一法是大過患](#)
 - [不見一法即如來](#)
 - [百丈野狐](#)
 - [四賓主](#)
 - [因僧請益三訣以示之](#)
- [舒州浮山法遠圓鑑禪師](#)
 - [禪將交鋒歌](#)
- [福州地藏顯端禪師](#)
 - [玄唱](#)
- [東京法雲法秀圓通禪師](#)
 - [祖意](#)
 - [幻身](#)
 - [心印](#)
- [江寧府蔣山贊元覺海禪師](#)
 - [三要](#)

- [東京法雲善本大通禪師](#)
 - [述旨](#)
- [南岳谷泉大道禪師](#)
 - [大道歌](#)
 - [落魄歌](#)
 - [巴鼻頌](#)
-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祖室聯芳](#)
 - [雞峰至曹谿](#)
 - [靖居思](#)
 - [石頭遷](#)
 - [天皇悟](#)
 - [龍潭信](#)
 - [德山鑑](#)
 - [雪峯存](#)
 - [雲門偈](#)
 - [雙泉郁](#)
 - [德山遠](#)
 - [開先暹](#)
 - [總頌](#)
- [潭州道林智本禪師](#)
 - [快活歌](#)
- [潭州石霜楚圓慈明禪師](#)
 - [三訣](#)
 - [三句](#)
- [蘄州白雲山廣教景雲禪師](#)
 - [曹洞玄旨](#)
- [北禪慧雲昇禪師](#)
- [洪州龍安山兜鑾從悅禪師](#)
 - [歸根](#)
 - [得旨](#)
 - [冥契](#)
 - [寂照](#)
 - [應機](#)
 - [設變](#)
- [廬山萬杉紹慈禪師](#)
 - [通玄頌](#)
- [廬州興化仁岳禪師](#)
 - [深岩藏白額](#)

- [五天銀燭輝](#)
- [金針去復來](#)
- [妙談不干舌](#)
- [秦宮映膽輝](#)
- [鐵鋸吹三臺](#)
- [死蛇驚出草](#)
- [錦帳無夜衾](#)
- [解針枯骨吟](#)
- [袖裏青蛇吼](#)
- [饒州薦福承古禪師](#)
 - [知見謠](#)
- [東京淨因惟嶽佛日禪師](#)
 - [古劍](#)
 - [古琴](#)
 - [古鏡](#)
 - [古澗](#)
- [饒州薦福道英禪師](#)
 - [十要頌](#)
- [秀州資聖盛勲禪師](#)
 - [西來意](#)
-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
 - [宗門五派](#)
- [荊門軍玉泉山承皓禪師](#)
 - [布袋歌](#)
- [婺州寶林果昌寶覺禪師](#)
 - [擔板庵歌](#)
-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
 - [讚佛](#)
 - [讚法](#)
 - [讚僧](#)
 - [兔角拄杖](#)
 - [名實無當](#)
 - [問緣牛義](#)
 - [道貴如愚](#)
 - [大功不宰](#)
 - [至人不器](#)
 - [為道日損](#)
- [廬山東林常總照覺禪師](#)

- [文殊妙智門](#)
- [普賢妙德門](#)
- [觀音妙力門](#)
- [都頌](#)
- [理直事妄](#)
- [違佗認己](#)
- [內心外境](#)
- [心生滅見](#)
- [東京惠林德孫佛陀禪師](#)
 - [物不遷旨](#)
 - [不真空觀](#)
 - [般若無知](#)
 - [涅槃無名](#)
 - [真空妙境](#)
 - [理事無礙](#)
 - [周徧含容](#)
- [泉州資壽捷禪師](#)
 - [華嚴頌](#)
-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
 - [佛教](#)
 - [經](#)
 - [律](#)
 - [論](#)
- [黃龍山祖心寶覺禪師](#)
 - [大藏經](#)
 - [傳燈錄](#)
 - [信心銘](#)
- [蘄州四祖山演禪師](#)
 - [四時般若](#)
- [蘇州崑山元禪師](#)
 - [般若四題](#)
- [東京智海清佛印禪師](#)
 - [華嚴合論](#)
- [益州甘露舒禪師](#)
 - [覺樹](#)
 - [覺花](#)
 - [法鼓](#)
 - [法幢](#)

- [忍草](#)
- [心珠](#)
- [定沼](#)
- [慈航](#)
- [雲居山了元佛印禪師](#)
 - [牧牛](#)
- [安州圓明寺著禪師](#)
 - [廣照空有](#)
 - [離微體淨](#)
 - [本際虐玄](#)
 - [宗本義旨](#)
- [潤州金山瑞新禪師](#)
 - [從直起妄](#)
 - [滅妄歸直](#)
 - [直妄不二](#)
 - [直妄不存](#)
- [劔門關慈雲重謚禪師](#)
 - [衣中寶](#)
- [福州法海明慧禪師](#)
 - [迷](#)
 - [妄](#)
 - [意](#)
 - [識](#)
 - [情](#)
 - [想](#)
 - [智](#)
 - [慧](#)
 - [覺](#)
 - [悟](#)
- [隋州大洪山恩禪師](#)
 - [聲](#)
 - [色](#)
 - [無價香歌](#)
 - [還鄉謠](#)
- [No. _1556-B 上書筍子付受節次附干卷後](#)
 - [上皇帝書](#)
 - [上皇帝筍子](#)
 - [付受次第](#)

- [恭發願文](#)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昔釋迦如來之出世也。受燃燈之記。生淨飯之家。分手指乎天地。而真機已露。遊門觀於生死。而幼緣頓寂。及手倡道鷄園。騰芳鷲嶺。無邊剎境遂現一毫之端。大千經卷畢出微塵之裏。西被竺土。東流震旦。編葉而書。則一時聖教雖傳於慶喜。持花而笑。則正法眼藏已付於飲光。

自達磨西來。寔為初祖。其傳二·三·四·五。而至於曹溪。於是双林之道逾光。一滴之流浸廣。自南嶽·清原而下。分為五宗。各擅家風。應機訓對。雖建立不同。而會歸則一。莫不箭鋒相拄。鞭影齊施。接物利生。啟悟多矣。源派演迤。枝葉扶疎。而雲門·臨濟二宗。遂獨盛於天下。

朕膺天寶命。紹國大統。恭惟藝祖闢度門於縣寓。太宗闡秘義於敷天。章聖傳燈於景德。永昭廣燈於天聖。皆宏暢真風。協助神化。以成無為之治者也。於皇神考。尤鄉空宗。元豐三年。詔於大相國寺。創二禪剎。闢惠林於東序。建智海於右廡。逮壬戌之歲。以今歲國大長公主及集慶軍節度觀察留後駙馬都尉張敦禮之請。復建法雲禪寺於國之南。於是祖席輝光。叢林鼎盛。天下之襲方袍。慕禪悅者。雲集於上都矣。

今敦禮以其寺住持僧佛國禪師惟白所集建中靖國續燈錄三十卷來上。且以序文為請。惟白探最上乘。了第一義。屢入中禁。三登高座。宣揚妙旨。良愜至懷。昔能仁說法華經。放眉間白毫相光。照東方萬八千世界。而彌勒發問。文殊決疑。以謂日月燈明佛。本光瑞如此。持是經者。妙光法師。得其證者。普明如來。今續燈之名。蓋燈燈相續。光光涉入。義有在於是矣。

噫。圓澄覺海。本含裹於十方。生滅空漚。遂沉淪於三有。因明立所。由塵發知。織妄相成。轉入諸趣。良可悲也。若迴光內照。發真歸元。則是錄也。直指性宗。單傳心印。可得於眉睫。可薦於言前。舉手而擎妙喜之世界。彈指以現莊嚴之樓閣。神通運用。真不可得而思議哉。嘉與有眾。締此勝緣。俱離迷津。偕之覺路。斯朕之志已。建中靖國元年八月十五日賜序。

No. 1556

建中靖國續燈錄卷第一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正宗門

爾時世尊。種智圓成。熏修示迹。悲深願廣。應現受生。性
潔霜花。心馳雪嶺。逾城午夜。習想六年。沐尼連河。詣菩提樹。
陞金剛座。敷吉祥茅。諸定遍修。明星現悟。頓成正覺。等念含
生。四十九年。三乘顯著。拈花普示。微笑初傳。對大眾前印正法
眼。囑行教外。別付上根。蓮目普觀。華偈親說。

法本法無法 無法法亦法
今付無法時 法法何曾法

爾時摩訶迦葉尊者。分坐傳衣。因花悟道。巖間石室。演法
度生。世尊示滅。結集聖教。斥出阿難。未盡諸漏。畢鉢巖前。磐
陀石上。坐至中夜。便證道果。即現神通。透石而入。於是迦葉付
正法眼。而說偈言。

法法本來法 無法無非法
何於一法中 有法有不法

爾時阿難尊者。坐石悟道。結集聖言。一唱我聞。三疑頓
息。大事既辦。將求宗嗣。詣常水河。化為金地。集諸聖眾。顧得
道弟子商那和修。付正法眼。而說偈言。

本來付有法 付了言無法
各各須自悟 悟了無無法

爾時商那和修尊者。著自然衣。而為示生。作大商主。忽悟
無常。聞佛入滅。投阿難出家而證道果。

一日。見長者子優婆塞多而問曰。汝年幾耶。

叟多曰。我年十七。

師曰。汝身十七。汝性十七。

叟多視師。問曰。師髮白耶。心白耶。

和修曰。我但髮白。非心白耳。

叟多曰。我身十七。非性十七。

和修遂與授戒。傳正法眼藏。而說偈言。

非法亦非心 無心亦無法
說是心法時 是法非心法

爾時優婆塞多尊者。十七出家。二十證果。廣度有情。籌盈
石室。

有長者子。名曰香象。投師出家。師乃問曰。汝身出家。汝心出
家。

答曰。我所出家。非為身心。

師曰。不為身心。復誰出家。

答曰。夫出家者。無我我故。心不生滅。心不生滅。即是常道。既
是常故。諸佛亦常。本來心相。其體亦然。

師曰。汝今大悟。心自明了。豁然頓證。易名提多迦。付正法眼藏。而說偈言。

心自本來心 本心非有法
有法本有心 非心非本法

爾時提多迦尊者。金日出照。甘泉泛涌。應瑞而生。實亦希有。出家得道。傳法度人。

有彌遮迦尊者。見師慈相。便省夙因。棄本仙術而求聖果。殷懃問曰。我於仙道。更無進趣。唯守虛靜。不達至理。

師曰。佛言。修仙敬學小道似繩牽。汝可自知之。若棄小流。頓歸佛法大海。便證無生。

彌遮迦聞語。頓證妙道。即付正法眼藏。而說偈言。

通達本法心 無法無非法
悟了同未悟 無心亦無法

爾時彌遮迦尊者。棄仙投佛。出家悟道。行化北天。祥雲現相。

有婆須蜜多者。身體嚴淨。手執酒器。而問師曰。何方而來。欲往何所。

師曰。從自心來。欲往無處。

曰。識我手中物否。

師曰。此是觸器而負淨者。

曰。還識我否。

師曰。我即不識。識即非我。汝當稱名。吾即知矣。

曰。姓頗羅墮。名婆須蜜。

師曰。佛記於汝。當紹禪祖。

即捨酒器。頓悟夙因。出家受具。深入覺道。彌遮迦付正法眼藏。而說偈言。

無心無可得 說得不名法
若了心非心 始解心心法

爾時婆須蜜多尊者。自省夙緣。置器出家。遊行諸國。廣作佛事。

有佛陀難提曰。我今欲與尊者諸義。

師曰。義即不論。論即不義。若擬論義。終非義論。

難提即自悟心。便即敬伏。求師出家。願可濟度。師知傳法時至。付正法眼藏。而說偈言。

心同虛空界 示等虛空法
證得虛空時 無是無非法

爾時佛陀難提尊者。頂有肉珠。光明瑩徹。智慧淵冲。辯捷無礙。

有伏馱蜜多而問曰。父母非我親。誰是最親者。諸佛非我道。誰是最道者。

師曰。汝言與心親。父母非可比。汝行與道合。諸佛心即是。外求有相佛。與汝不相似。欲識汝本心。非合亦非離。

伏馱聞是妙偈。頓入佛道。五體投地。深自慶躍。即與剃度。付正法眼藏。而說偈言。

虛空無內外 心外亦如此

若了虛空故 是達真如理

爾時伏馱蜜多尊者。生五十年。唯坐一床。口不曾言。足不履地。聞偈得道。傳法利人。

有難生者。求師出家。即與剃度。羯磨之際。祥光上燭。仍感舍利。顯為瑞應。長坐不臥。習常精進。通達法性。便證道果。付正法眼藏。而說偈言。

真理本無名 因名顯真理

受得真實法 非真亦非偽

爾時脇尊者。處胎六十年。神珠夢應。而遂誕生。滿室光明。非謂凡兆。既得道果。利物為先。至一林中。地變金色。

有富那夜奢至師前合掌而立。師問曰。汝從何來。

答曰。我心非往。

問曰。汝何處住。

答曰。我心非止。

問曰。汝不定耶。

答曰。諸佛亦然。

問曰。汝非諸佛。

答曰。諸佛亦非。

師知是法器。傳正法眼藏。而說偈言。

真體自然真 因真說有理

領得真真法 無行亦無止

爾時富那夜奢尊者。心明博達。性無所求。遇脇尊者得法。化導游行。

有馬鳴大士問曰。我欲識佛。何者即是。

師曰。汝欲識佛。不識者是。

曰。佛既不識。焉知是乎。

師曰。汝既不識。焉知不是。

曰。此是鋸義。

師曰。彼是木義。曰。鋸義者何。

曰。與汝平出。曰。木義者何。

師曰。汝被我解。

馬鳴豁然開悟。因付正法眼藏。而說偈言。

迷故如隱顯 明暗不相離

今付隱顯法 非一亦非二

爾時馬鳴尊者。以有作無作諸功德勝。聞木義得法。轉妙法輪。

有大魔王與師掙力。即現本身。禮拜悔過。

師曰。汝名誰耶。

答曰。我名迦毗摩羅。

師曰。盡汝神力。變化若何。

曰。我化大海。不足為難。

師曰。汝化性海得否。

答曰。何謂性海。我未曾知。

師曰。性海者。山河大地。皆依建立。三昧六通。由茲發現。

迦毗摩羅聞言。忽然悟入性海。遂付正法眼藏。而說偈言。

隱顯即本法 明暗元不二

今付了悟法 非取亦非離

爾時迦毗摩羅尊者。本習外道。歸心佛乘。游西印土。

至一深山。有龍樹尊者出迎。問曰。深山孤寂。龍麟所居。大德至聖。何枉神足。

師曰。我非至聖。來訪賢者。

龍樹默念曰。此師得決定性明道眼否。是大聖繼真乘否。

師曰。汝雖心語。吾已意知。但辦出家。何慮不聖。

龍樹聞已。悔謝。即與度脫。付正法眼藏。而說偈言。

非隱非顯法 說是真實際

悟此隱顯法 非愚亦非智

爾時龍樹尊者。具大智見。無所不通。弘闡宗教。古今希有。

一日。提婆相訪。師令侍者將滿鉢水示之。提婆投一針。欣然契會師意。即延語道。又現圓月相示之。復契妙旨。付正法眼藏。而說偈言。

為明隱顯法 方說解脫理

於法心不證 無瞋亦無喜

爾時迦那提婆尊者。幼而博識。才辯縱橫。遐邇名播。諸國所推。自顧胸懷。殊無所愧。投針契道。廣利群生。

有羅睺羅多者。以木耳因緣問師。師以頌示之。感悟前因。投師出家。即證道果。付正法眼藏。而說偈言。

本對傳法人 為說解脫理

於法實無證 無終亦無始

爾時羅睺羅多尊者。出家傳法。隨處利生。至室羅筏城金水河上。

有僧伽難提安然入定。伺候七日。方從定起。師問曰。汝身定耶。心定耶。

曰。身心俱定。

師曰。身心俱定。何有出入。

曰。雖有出入。不失定相。

師曰。既不失定相。何物動靜。

曰。動靜非物。物非動靜。

師曰。此義不然。

往反徵問。詞折義屈。心意豁然。稽首歸依。頓領玄旨。因付正法眼藏。而說偈言。

於法實無證 不取亦不離

法非有無相 內外云何起

爾時僧伽難提尊者。寶莊嚴王子也。生而能言。常讚佛事。令母信向。後習禪定。繼祖時至。遂傳心印。廣化眾生。

有一童子手持寶鏡。投師出家。俾為給侍。因風吹殿上銅鈴響。師問曰。風鳴耶。鈴鳴耶。

曰。非風鈴鳴。我心鳴耳。

師曰。心復誰乎。

曰。俱寂靜故。

師曰。善哉。善哉。真達佛理。遂付正法眼藏。而說偈言。

心地本無生 因地從緣起

緣種不相妨 華果亦復爾

爾時伽耶舍多尊者。持鏡出家。聞鈴證道。遂游諸國。觀氣求嗣。

有鳩摩羅多見而問曰。師是何人。

師曰。我佛弟子。羅多聞語。神識悚然。却復還家。閉于門戶。

師即徐至扣門。羅多應曰。此舍無人。

師曰。道無者誰。

羅多忽悟必是智人。開門禮敬。辨狗驗金。遂得道果。付正法眼藏。而說偈言。

有種有心地 因緣能發萌

於緣不相礙 當生生不生

爾時鳩摩羅多尊者。為自在天。聞法利根。繼祖時至。降生人間。驗金得果。濟度群品。

有闍夜多問曰。我家信佛。常縈疾苦。隣舍旃陀。所作如意。彼何幸。而我何辜。

師曰。何足疑乎。且善惡報應。有三世焉。見仁夭暴壽。逆吉義凶。便亡因喪果。虛招罪咎。殊不知影響相應。毫釐靡忒。經百千劫。亦不磨滅。

闍夜多聞語。頓釋所疑。深悟業理。志求出家。於寶塔前剃髮授戒。佛放光明。即付正法眼藏。而說偈言。

性上本無生 為對求人說
於法既無得 何懷決不決

爾時闍夜多尊者。智慧淵沖。化導無量。羅閱城中廣興佛事。

有婆修盤頭。常一食不臥。六時禮誦。師見而問曰。汝如此精進。與道遠矣。設經塵劫。皆虛妄本。

曰。師蘊何德而譏於我。

師曰。我不求道。亦不顛倒。我不禮佛。亦不輕慢。我不長坐。亦不懈怠。我不一食。亦不雜食。我不知足。亦不貪欲。心無所希。故名曰道。

婆修聞師示誨。發無漏智。敘陳夙因。傳正法眼藏。而說偈言。

言下合無生 同於法界性
若能如此解 通達事理竟

爾時婆修盤頭尊者。在胎遇記。必為世燈。生長苦行。而獲道果。遊行至那提國。國王子摩拏羅投師出家。得大神力。頓悟心宗。當紹祖位。傳正法眼藏。而說偈言。

泡幻同無礙 如何不了悟
達法在其中 非今亦非古

爾時摩拏羅尊者。捨王宮樂。出家證道。信香為瑞。往月氏國。

有鶴勒那問。龍子何聰。鶴眾何感。

師論其夙因。心即開悟。

又復問曰。我今當修何業。令鶴眾轉得人身。

師曰。佛有無上法寶。展轉相傳。我今付囑。汝宜信受。無令斷絕。廣度有情。

鶴眾因此而得解脫。付正法眼藏。而說偈言。

心隨萬境轉 轉處實難幽
隨流認得性 無喜亦無憂

爾時鶴勒那尊者。生時天花散綵。金錢布地。收養王宮。廣現神變。後出家傳法。隨處指迷。

有師子比丘問曰。我欲求道。當何用心。

師曰。汝若求道。無所用心。

師子曰。既無用心。誰作佛事。

師曰。若有用心。即非功德。若無用心。即是佛事。

師子聞說。心即開悟。付正法眼藏。而說偈言。

認得心性時 可說不思議

了了無可得 得時不說知

爾時師子尊者。問道傳法。開誘五眾。名聞遐邇。人天欽服。

有長者携一子。拳一手而禮拜。師問曰。可還我珠。其子即開子獻珠。眾皆驚異。

師具說前因。即度出家。名婆舍斯多。師將還夙債。預付正法眼藏。而說偈言。

正說知見時 知見俱是心

當心即知見 知見即于今

爾時婆舍斯多尊者。母夢神劍。即覺有孕。既誕。遇師子尊者。顯發夙因。密傳心印。至南天竺國。摧伏外道。

國王太子不如蜜多投師出家。師問曰。汝欲出家。當為何事。

太子曰。我今出家。不為其事。

師曰。不為其事。因何出家。

太子曰。我所出家。即為佛事。

師曰。若為佛事。當何所作。

太子曰。無所作者。即真佛事。

師嘆曰。太子智慧天至。必諸聖降迹。即與授具。大地震動。靈異頗多。付正法眼藏。而說偈言。

聖人說知見 當境無是非

我今悟真性 無道亦無理

爾時不如蜜多尊者。捨太子位。投尊者出家。傳法利生。至東印土。

有婆羅門子街巷游行無定。師問曰。汝行何急。

答曰。師行何緩。

師曰。汝今何姓。

答曰。與師同姓。

師曰。汝憶前事否。

答曰。我念遠劫與師同居。

師曰。共為何事。

答曰。師演摩訶般若。我轉甚深修多羅。

師曰。今日所談。深契夙因。

即度出家。名般若多羅。付正法眼藏。而說偈言。

真性心地藏 無頭亦無尾

應緣而化物 方便呼為智

爾時般若多羅尊者。既得法已。行化南印。國玉太子共所欽敬。

因以寶珠為施。師復示問。各陳所見。唯菩提多羅曰。此是世寶。未足為上。於諸寶中。法寶為上。此是世光。未足為上。於諸光中。智光為上。此是世明。未足為上。於諸明中。心明為上。此是世珠。未定為上。於諸珠中。心珠為上。師有其道。其寶即現。

師復問曰。於諸物中。何物為相。

答曰。於諸物中。不起無相。

師曰。於諸物中。何物最高。

答曰。於諸物中。人我最高。

師曰。於諸物中。何物最大。

答曰。於諸物中。法性最大。

既見問答精妙。即與落髮。感白日月現。地三震動。便證聖果。付正法眼藏。而說而偈言。

心地生諸種 因事復因理
果滿菩提圓 花開世界起

爾時唐土初祖菩提達磨尊者。南天竺國王第三太子也。施珠辨義。發明心地。於諸法性。頓得通量。傳法時至。遠來此土。梁帝不契。面壁少林。

有神光法師。立雪斷臂。堅求諸佛要道。師為易名慧可。一日。問曰。諸佛法印。可得聞乎。

師曰。諸佛法印。匪從人得。

可曰。乞師安心。

師曰。將心來。與汝安。

可曰。覓心不可得。

師曰。與汝安心竟。師又誨曰。汝可內息諸慮。外息諸緣。

可忽頓證而告曰。弟子已息諸緣。

師曰。莫落空否。

可曰。不落空。

師曰。以何所證。言不落空。

可曰。明明了了。無覺無知。

師曰。如是。如是。

師將歸西天。示門人曰。汝等各陳所見。吾欲付西天衣鉢。以為表證。

道副曰。如我所見。不執文字。不離文字。而為道用。

師曰。汝得吾皮。

尼總持曰。如我所見。如慶喜見阿閼佛國。一見更不再見。

師曰。汝得吾肉。

道育曰。如我所見。四大本空。五蘊非有。無一法可得。

師曰。汝得吾骨。

慧可最後禮三拜。依位而立。師曰。汝得吾髓。遂付正法眼藏。而說偈言。

吾本來茲土 傳法救迷情

一花開五葉 結果自然成

爾時二祖惠可正宗普覺禪師。立雪斷臂。傳鉢授衣。繼闡玄風。博求法嗣。

有一居士。聿來說禮。問曰。弟子久纏風恙。乞師懺罪。

師曰。將罪來。與汝懺。

居士良久曰。覓罪性不可得。

師曰。與汝懺罪竟。宜依佛法僧住。

居士曰。今日已知是僧。未審何名佛法。

師曰。是心是佛。是心是法。法佛無二。僧寶亦然。

居士曰。弟子始知罪性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如其心然。佛法無二也。

師深器之。曰。汝是吾寶也。宜名僧璨。即與落髮。付正法眼藏。而說偈言。

本來緣有地 因地種花生

本來無有種 花亦不曾生

爾時三祖僧璨鏡智禪師。懺罪得道。落髮傳衣。任緣利人。居無常處。

有沙彌道信見師。問曰。乞與解脫法門。

師曰。誰縛汝。

答曰。無人縛。

師曰。既無人縛。何求解脫。

信於言下大悟。侍奉九載。付正法眼藏。而說偈言。

花種雖因地 從地種花生

若無人下種 花地盡無生

爾時四祖道信大醫禪師。生而超異。頓悟空宗。入解脫門。宛如夙習。既續祖風。將求嗣法。

於黃梅路上見一小兒。骨相奇秀。異乎常童。師見問曰。汝何姓。

答曰。姓即有。不是常姓。

師曰。是何姓。

答曰。是佛性。

師曰。汝無佛性。

答曰。佛性空故。所以言無。

師識其法器。俾為侍者。後付正法眼藏。而說偈言。

花種有生性 因地花生生
大緣與性合 當生生不生

爾時五祖弘忍大滿禪師。童兒得道。乃栽松道者後身。居黃梅東山。大振玄風。

有盧居士遠來。師曰。汝什麼處來。

答曰。嶺南來。

師曰。來作什麼。

答曰。來求作佛。

師曰。汝嶺南人無佛性。

答曰。人有南北。佛性豈有南北。

師叱曰。着槽廠去。

即入碓坊。服勞杵曰。腰間墜石。晝夜不息。傳衣時至。遂命入室。乃謂曰。諸佛出世。為一大事。無上妙法。真實圓明。今付於汝。汝善護持。無令斷絕。而說偈言。

有情本下種 因地果還生
無情既無種 無性亦無生

爾時六祖慧能大鑑禪師。賣樵聞經。頓悟心印。遠至黃梅。求其密證。遂傳衣鉢。隱于懷集。因辨風幡。發揚大事。道俗皈依。龍天瞻仰。演無上乘。度無量眾。當機開悟。密契潛符。猶如時雨。普潤一切。

將欲歸真。遂告眾曰。汝等信根純熟。決定無疑。衣鉢不傳。各任大事。依吾行者。定證聖果。普告大眾。而說偈言。

心地含諸種 普雨悉皆萌
頓悟花情已 菩提果自成

南嶽懷讓禪師

師到曹溪。祖師問曰。從什麼處來。

師曰。從嵩山安國師處來。

祖曰。什麼物與麼來。

師八年後。一日忽省。而告祖師曰。說似一物即不中。

祖曰。還假修證否。

師曰。修證即不無。只是不污染。

祖曰。只遮不污染。諸佛所護念。汝今如是。吾亦如是。西天二十八祖亦如是。唐土六祖亦如是。般若多羅識汝足下出一馬駒子。踏殺天下人去在。汝善護持。

後居南嶽。傳正法眼。

廬陵清原山行思禪師

師到曹溪。參禮祖師。問曰。當何所務即得不落階級。
祖師曰。汝曾作什麼來。
師曰。聖諦亦不為。
祖曰。落何階級。
師曰。聖諦尚不為。何階級之有。
祖曰。如是。如是。汝善護持。
曹溪學眾雖多。師居第一。後歸清原山弘揚此事。傳正法眼。

江西道一馬大師

在菴中坐次。讓和尚問曰。在遮裏作什麼。
師曰。坐禪。
讓曰。坐禪圖什麼。
師曰。圓作佛。
讓有問取甆於庵前磨。師曰。磨甆作什麼。
讓曰。磨甆作鏡。
師曰。磨甆豈得成鏡。
讓曰。磨甆既不成鏡。汝坐禪豈得成佛。
師悚然起立。問曰。如何即是。
讓曰。汝若坐禪。禪非坐臥。汝若坐佛。佛非定相。譬人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
師忽頓悟。侍奉十年。日益微奧。後在江西。隨處傳正法眼。

南岳石頭希遷禪師

投六祖落髮。稟旨尋思三年。方悟其意。逕往清原。思和尚問曰。
子什麼處來。
師曰。曹溪來。
思曰。汝到曹溪得箇什麼。
師曰。未到曹溪亦不曾失。
思曰。若恁麼。何用到曹溪。
師曰。若不到曹溪。爭知不失。
思曰。象角雖多。一麟足矣。
後居南岳。傳正法眼。

洪州百丈懷海大智禪師

一日。隨馬大師遊田中。見野鴨子。大師問。是什麼。
師云。野鴨子。
少須。鴨子飛去。大師云。什麼處去也。
師云。飛過去也。大師扭師鼻。師作忍痛聲。
大師云。又道飛過去。師因有省。
後住百丈。傳正法眼。

澧州天皇道悟禪師

初參徑山國一禪師。次至馬大師宗席。皆契心要。後到石頭。問曰。離却定慧。以何法示人。
石頭曰。我遮裏無奴婢。離箇什麼。
師曰。如何明得。
石頭曰。汝撮得虛空麼。
師曰。恁麼即不從今日去也。
石頭曰。汝早晚從那邊來。
師曰。道悟不是那邊人。
石頭曰。我已知汝來處。
師曰。何以賊誣於人。
石頭曰。汝身見在。
師曰。雖然如此。畢竟如何示於後人。
石頭曰。誰是後人。師從茲頓悟。
後住天皇。傳正法眼。

筠州黃蘗希運禪師

初參百丈。問曰。師參馬祖。有何因緣。
百丈舉再參因緣。師不覺吐舌。百丈云。作什麼。
師云。今日因師見馬大師大機之用。
百丈云。子已後莫承嗣馬大師麼。
師云。我不識馬大師。我若嗣他。恐喪我兒孫。
百丈曰。如是。如是。
後師資機感非一。住黃蘗山。傳正法眼。

澧州龍潭崇信禪師

一日。問天皇和尚曰。弟子久事於師。未蒙指示。
天皇曰。每日無不指示。

師曰。什麼處是指示。
天皇曰。汝擎茶來。吾為汝受。汝若和南。吾便起手。師因開悟。
後住龍潭。傳正法眼。

鎮府臨濟義玄禪師

初參黃檗。問佛法的的大意。三度發問。黃檗打六十拄杖。
至大愚。舉此因緣。愚云。黃檗得恁麼老婆心。師忽頓悟。便歸侍
奉黃檗。
後往河北闡化。傳正法眼。

鼎州德山宣鑑禪師

侍立龍潭。夜深下去。既黑。龍潭點紙燭與師。師纔接。潭即吹
滅。師忽大悟。作禮。
龍潭曰。子見什麼道理。
師曰。從今日已去。不疑天下老和尚舌頭。
龍潭次辰示眾曰。可中有箇漢。牙如利劍。眼似流星。口若血盆。
面生黑漆。一棒打不回頭。他時後日向孤峰頂上盤結草庵。呵佛罵
祖去在。師即焚却文字便行。
後住德山。傳正法眼。

魏府興化存獎禪師

初參臨濟發明。後遇大覺。打二十棒。因悟臨濟參黃檗因緣。後出
世住興化。繼嗣臨濟。傳正法眼。

福州雪峯義存禪師

九上洞山。三到投子。尋到德山。師資緣契。一日。問曰。從上諸
聖以何法示人。
山打一棒云。道什麼。師忽悟。如桶底脫。
因至鰲山。巖頭作證。自己衲襟流出。可以蓋天蓋地。後歸雪峯。
傳正法眼。

汝州寶應南院慧顥禪師

參興化和尚。大悟玄旨。密契宗風。啐啄應機。主賓互換。當鋒訓敵。獨冠諸方。居南院道場。傳正法眼。

韶州雲門文偃禪師

初參睦州陳尊宿。發明心地。尋入嶺。參雪峰。一日。遇陞堂。僧問。如何是佛。峰云。蒼天。蒼天。師聞。忽釋所疑。契會宗要。後廣主劉氏請居雲門。傳正法眼。

汝州風穴延昭禪師

初參鏡清。發明祖意。後參南院。師纔至門。院云。入門須辨主。師云。端的請師分。院以左手拍膝。師便喝。院以右手拍膝。師又喝。院舉左手云。遮裏即從汝。舉右手云。那裏作麼生。師云。瞎。院拈拄杖。師云。奪却拄杖打和尚。莫言不道。院云。三十年住持。今日被黃面浙子鈍致。師云。和尚大似持鉢不得。詐道不飢。院云。曾到此間否。師云。是何言歟。院云。端的問汝。師云。也不得放過。院云。且坐喫茶。師即展禮。後嗣宗風。應為仰懸記。大振祖機。傳正法眼。

汝州首山省念禪師

遍參知識。常誦法華經。到風穴會中。一日。遇陞堂。風穴示眾云。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良久。便下座。師曰。此頓悟心宗。遂入室。具陳所證。風穴再問曰。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汝作麼生會。師曰。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風穴然之。後住首山。傳正法眼。

汾州太子院善昭禪師

太原人也。積習熏聞。孤標異俗。去飾受具。杖策遊方。所至少留。隨機扣問。歷參知識七十餘員。最後受印汝州念禪師。由是名聲頗聞。緇素嚮慕。前後八請。皆不一諾。

淳化四年。道俗千人迎至西河。方止斯院。門庭峻捷。玄機莫湊。所印可者皆為道器。德譽洋洋。名播上國。都尉李侯請居潞府承天。彼方士民。灑涕遮留。師謂專使曰。暫赴廚饌。食畢取書。既而詣之。不起于座。已趣圓寂。闔維後。收舍利起塔。

師平生閱大藏經六遍。提綱宗要一十策。其餘應物機緣具如本傳。問。心地未安時如何。

師曰。誰亂爾。

僧曰。爭奈這箇何。

師云。自作自受。

問。學人未悟時如何。

師云。誰言未悟。

僧曰。悟後如何。

師云。莫詐明頭。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巖高松冷健。澗曲水流遲。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青絹扇子足風涼。

問。如何是學人著力處。

師云。嘉州打大像。

問。如何是學人轉身處。

師云。陝府灌鐵牛。

問。如何是學人親切處。

師云。河西弄師子。

問。如何是第一玄。

師云。親囑飲光前。

僧曰。如何是第二玄。

師云。絕相離言詮。

僧曰。如何是第三玄。

師云。明鑑照無偏。

僧曰。恁麼則三玄已超今古外。九天皆唱太平歌。

師云。杲日舒光無不照。幽冥盡耀豁乾坤。

上堂云。夫參學者。須具本分眼目。臨機別取邪正。不受人謾。不被佛祖所滯。不隨言語所轉。不被諸法所惑。不依一切神妙解會。凡有來者盡皆驗破。何故。伊倚會解。展弄機鋒。求覓知見。問佛問祖。向上向下。自意祖意。皆可打伊。直饒一切不依。恰好點

罰。萬水千山。恰好喫棒。到恁麼時。是箇漢始得。凡有編辟言句。或蓋或覆。將來辨主眼目。或呈知見。擎頭戴角。一識得。盡好打也。或只當面識破。或則貶之辱之。狀似軒鏡臨台。有何[(魅-未+夭)-厶]魅可現乎。何故。狐狸能隱本狀者也。珍重。
建中靖國續燈錄卷第一

福州等覺禪院住持傳法沙門普明收印經板頭錢。恭為今上皇帝祝延聖壽。闔郡官僚同資祿位。彫造續燈錄印板一部。計三函。時崇寧二年十月 日謹題。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八世

韶州雲門山文偃匡真禪師法嗣

成都府香林澄遠禪師

姓上官氏。漢州緜竹人也。投成都真相院出家。十六歲圓具。後離蜀入秦。登青峰。躡子陵。旋之荆湘。參後龍牙。有發機之地。尋過嶺。摠衣雲門匡真禪師。請益祖意。大豁所疑。侍奉十有八載。日探玄旨。

復歸成都。請住導江水請宮吳將軍院。甲子歲。嘉王奏請師住香林禪院。雍熙四年丁亥二月。知府密學宋公璫。請至普安院安下。十二日。徧辭眾官曰。老僧行脚去。

通判曰。遮僧風狂。八十歲行去那裏。

密學曰。大善知識。去住自在。

至十三日。示眾云。老僧四十年來。不能打得成一片。言訖坐逝。

府主為師作喪主。十六日。歸葬香林院方丈之北烏。

問。法身極則處。請師一言。

師曰。出入自在。

僧曰。未審如何保任。

師云。親自聞知。

問。師子窟中無異獸。香林密意付何人。

師云。此之一問。闔國盡知。

問。如何是毗盧師。法身主。

師云。為象竭力。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闍梨還記得麼。

僧曰。適來已祇對和尚了也。

師云。禍出私門。

問。如何是無縫塔。

師云。合掌當胸。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露也。
問。大道真源。如何得到。
師云。問者是誰。
僧曰。作何道業。即得與道相應。
師云。無爾用心處。
問。三乘十二分教即不問。如何是宗門中事。
師云。檀特·羅浮。
僧曰。學人未省。乞師垂示。
師云。幸不去遠。
問。大肯底人更有疑也無。
師云。冥冥獨語。
問。大了底人如何決擇。
師云。驀過多少。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覲面相呈。更無餘事。
僧曰。十二時中如何履踐。
師云。不用氣力。
問。如何是三身佛。
師云。狐非師子類。
僧曰。如何是三身中人。
師云。燈非日月明。
問。佛法兩字為什麼轉說轉新。
師云。與天下人作榜樣。
僧曰。直得句下無私時如何。
師云。進道有門。
問。滅音王已前是什麼人先悟。
師云。名流天地。
問。如何是西來的的意。
師云。坐久成勞。
僧曰。便回轉時如何。
師云。墮落深坑。
問。如何是地獄中人。
師云。瞥然多劫。
僧曰。修何行業。即得如是。
師云。不改舊時容。
僧曰。畢竟如何。
師云。千里不同頭。
問。如何是祖意。

師云。靈機自照。
僧曰。如何是教意。
師云。遮裏是什麼所在。
僧曰。祖意與教意。相去多少。
師云。速禮三拜。
問。生死海中出頭不得者。如何提接。
師云。酌然不虛。
問。教法未來時如何。
師云。閻羅天子。
僧曰。來後如何。
師云。大宋國裏。
問。不出門而知天下時如何。
師云。大海裏藏身。
問。不犯日前事。來機何辨的。
師云。十字路頭華表柱。
問。一舉便及第時如何。
師云。[跳-兆+孛]跳上天。走過東海。
僧曰。恁麼則撒手那邊去也。
師云。蝦跳不出斗。
問。如何是心出家。
師云。牛頭梅檀。
僧曰。意旨如何。
師云。熏天炙地。
問。如何是諸佛心。
師云。妄想中注脚。
僧曰。如何是和尚心。
師云。向闍梨道什麼。
問。三界茫茫。如何止息。
師云。妙機在掌。
僧曰。更有用心處也無。
師云。事不重言。
問。諸佛從何證得。
師云。莫虛此問。
僧曰。得證後如何。
師云。百草頭上。
問。真妄俱泯時如何。
師云。闍梨善。
問。香林善對。

僧曰。還得祖意也無。
師云。適來問什麼。
問。本來無一物。將何指示人。
師云。黑底黑。白底白。
僧曰。意旨如何。
師云。一人纔了一人來。
問。起坐相隨。為什麼不覩其容。
師云。圖他一粒米。
問。如何是和尚方便門。
師云。更無別說。
僧曰。便與麼去。還合道否。
師云。千江萬水。
問。如何是諸佛本源。
師云。所問端的。
僧曰。究竟如何。
師云。前後際斷。
問。一子出家。九族解脫。目連為什麼母入地獄。
師云。確。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清機不在掌。
僧曰。磨後如何。
師云。歷歷在當人。
問。如何是平常心。
師云。早朝不審。晚後珍重。
問。一塵含法界。九世剎那分。未審一塵從何起。
師云。起也。
問。格外之談。什麼人得聞。
師云。須彌山。
問。抱璞投師。請師一鑑。
師云。靈龜曳尾。
僧曰。未審是真是假。
師云。劄利者可知。
師云。是汝諸人盡是擔鉢囊向外行脚。還識得性也未。若識得。試出來道看。爾若識不得。祇是被人熱瞞將去。且問爾諸人。是爾參學。日夕用心。掃地煎茶。遊山翫水。爾且釘釘喚什麼作自性。諸人且道始終不變不異。無高無下。無好無醜。不生不滅。究竟歸於何處。諸人還知得下落所在也未。若於這裏知得所在。是諸佛解脫法門。悟道見性。始終不疑不慮。一任橫行。一切人不奈爾何。

出言吐氣。實有來處。收得元本契書。如人買田。尚乃須得元本契書。若不得他元本契書。終是不穩。遮莫經官判狀。亦是不得。其奈不收得元本契書。終是被奪却。爾等諸人參禪學道。亦復如是。還有人收得元本契書麼。試拈出看。爾且喚什麼作元本契書。諸人試道看。若是劄利底。纔聞與麼說著。便知去處。若不知去處。向外邊學得千般巧妙。記持解會。口似傾河。終不究竟。與爾自己天地差別。且去衣鉢下。體當尋覓看。若有箇見處。上來這裏。老僧與爾證明。若覓不得去。且依行隊。

上堂云。諸上坐。古往今來祇是一箇無事人。不造作。不攀緣。無所得。一念相應。不受後有。不見病惱逼迫。四大本空。五蘊虛假。起心動念。有少疑慮。盡屬魔民。皆落妄想。若得實地。順逆皆通。實際理地。無法當情。凡有施設。不住前塵。物物當體。都無所得。本來解脫。不假功成。故曰一切法常住。且無爾加減處。盡十方法界。一塵一剎。頭頭並是一真人體。皆是受由門庭。若離此外。別有何見。並是捏目生花。三頭二首。外道邪魔。鬼神群隊。且不編入本性。與爾自己了無交涉。

上堂云。諸人還見有眾生界麼。還見有上來下去麼。還見有諸佛境界麼。還見有世間。出世間麼。還見有苦樂貴賤麼。還見有生死去來種種等事麼。且爾諸人妄認凡夫。爾還實識得凡夫性麼。你一箇身。假借父母胞胎。地水火風。五穀氣味資持。隨陰陽成長。有一箇形體。百年。五十年。還歸四大去。什麼處是爾凡夫性。又作麼生知道聖人自別將片身心擬入聖位。爾作麼生入。什麼處是爾去處。還實有來去麼。還實有捨凡夫位。入聖人位麼。若言實有。頭上安頭。若言實無。斬頭覓活。

爾箇箇出來。言語分明。叉手並足。不可是精魅鬼神來助。爾各各好生體取。莫憨癡。雲門先師道。我舉一則語。教爾直下承當。早是撒屎著。爾頭上直饒拈一毫頭。盡大地一齊明得去。也是剝肉作瘡。然雖如是。亦須到這田地始得。莫掠虛。每日祇為爾諸人心不休歇。切切為爾。祇教爾自省去。算爾不是別人。受屈作麼。香林且不嫌你諸人。實無法傳授與你。亦不曾說著一字。信即便信。不信。自家停騰。莫向這裏看。老僧口為爾得徹困。猶自不用心。且莫帶我。

上堂云。悟了底人。見一切境各不別。竹是竹。木是木。山河大地不礙眼睛。爾諸人還見拂子麼。眾無語。便下座。

饒州薦福承古禪師

操行高潔。稟性虛明。參大光敬玄禪師。乃曰。祇是箇草裡漢。

遂參福嚴雅禪師。乃曰。祇是箇脫洒衲僧。
由是終日默然。深探先德洪規。一日。覽雲門禪師對機。忽然發悟。乃曰。却較此子。自此韜藏。不求名聞。栖止雲居山弘覺禪師塔中。四方學者奔湊。因曰古塔主也。
景祐四年冬。范公仲淹出守鄱陽。聞師道德。遣使請居薦福。開闡宗風。慶曆五年仲冬四日。陞堂說偈云。
天地本同根。鳥飛空有跡。
雪伴老僧行。須彌撼金錫。
乙酉冬至四。靈光一点赤。
珍重會中人。般若彼羅蜜。
言畢坐逝。
開堂日。上首白搥罷。師云。適來如是咨白。大眾還甘也無。若據大眾分上。假饒諸佛出世。猶是自謾。祖師西來。誑惑庸小。自餘之輩。不在形言。若也談禪說要。大似含血喫人。問答往來。如同魔燒。禪德。大眾面前作麼生下口。雖然如是。事無一向。理出百途。曲為下機。有疑請問。
問。如何是薦福境。
師云。莫。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莫。
僧曰。和尚豈無方便。
師云。莫。
問。大善知識將何為人。
師云。莫。
僧曰。恁麼則有問有答去也。
師云。莫。
有僧纔擬伸問。
師云。問話且止。直饒問得答得。與道差殊。大眾。以此問話數箇闍梨。總未有箇出家眼目。一萬里外有善知識出世。洗耳攢眉。拂袖遠去。爭肯來遮裏五體投地。問箇如何若何。仁者。還知大眾各各自己分上是箇什麼門風。是箇什麼體格。直得諸佛仰望不及。天下祖師鎖口有分。若能如是明得見得。佛之與祖。如同夢幻空華。聞甚深法門。也似風聲谷響。自己穎脫獨拔。猶閑法界有情。齊成正覺。豈不是丈夫漢。真出家兒。將此開堂所生鈞社。上祝 今上皇帝。山嶽為壽。日月齊明。珍重。
問。青青翠竹盡是真如。鬱鬱黃花無非般若。如何是般若。

師云。黃泉無老少。
僧曰。春來草自青。
師云。聲名不朽。
僧曰。若然者。碧眼胡僧也皺眉。
師云。退後三步。
僧曰。若。
師云。咩。咩。
問。臨濟舉拂。學人起拳。是同是別師云。訛言亂眾。
僧曰。恁麼則依令而行也。
師云。天涯海角。
問。曲調已成。還許學人繼和也無。
師云。官不容針。
僧曰。果是伯牙。
師云。自家看。僧拊掌三下。
師云。三十棒。
問。學人上來。請師垂示。
師云。金剛草鞋。
僧曰。恁麼則退後三步。
師云。酌然千萬里。
問。天人交集。四眾臻臨。如何是和尚為人底句。
師云。淥泛清波。
僧曰。點。
師云。過。僧拊掌。
師云。退。
問。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此意如何。
師云。乾柴濕爇。僧便喝。
師云。紅燄炎天。
上堂云。雲門匡真大師。如今現在。諸人還見麼。若也見得。便是山僧同參。見麼。見麼。此事直須諦聽始得。不可自謾。且如往古黃蘗聞百丈和尚舉馬大師下喝因緣。他因大省。百丈問。子向後莫承嗣大師否。黃蘗云。某雖識大師。要且不見大師。若承嗣大師。恐喪我兒孫。大眾。當時馬大師遷化未得五年。黃蘗自言不見。當知黃蘗見處不圓。要且祇具一隻眼。山僧即不然。識得雲門大師。亦見得雲門大師。方可承嗣雲門大師。祇如雲門入滅已得一百餘年。如今作麼生說箇親見底道理。會麼。通人達士方可證明。眇之徒心生疑劣謗。見得。不在言之。未見者。如今看取。不請久立。珍重。

上堂云。夫出家為無為法。無為法中無利益。無功德。近來出家人貪著福慧。與道全乖。若為福慧。須到明心。若要達道。無爾用心處。所以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休心。利根者晝時解脫。鈍根者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與爾入拔舌地獄。參。上堂云。行脚人面前說箇什麼即得。何以十語九中。不如一默。然雖恁麼道。大似斧斫了手摩挲。若更待山僧開口。可謂灸瘡癩上更著艾炷。各自下去。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九世

成都府香林澄遠禪師法嗣

隨州智門光祚禪師

久參香林。大悟心印。出為師表。緇素咸宗。啐啄迅機。應訓飛辨。門下嗣法。悉世宗匠。都尉李侯奏賜章服。坐滅雖遠。道風益揚。法子法孫。愈久愈盛。

上堂。良久。云。莫有作家禪客。出來。雖然如是。風不來。樹不動。

時有僧問。如何是佛。

師云。抱贓叫屈。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山雲野雉。

問。如何是禪。

師云。最苦是黃連。

問。如何是道。

師云。甜底是甘草。

問。蓮花未出水時如何。

師云。蓮花。

僧曰。出水後如何。

師云。荷葉。

問。師子返躑即不問。虎頭生角時如何。

師云。生得幾箇。

僧曰。恁麼則退身三步也。

師云。龍頭虵尾。

問。古人拈起拄杖。意旨如何。

師云。看樓打樓。

僧曰。放下拄杖。意旨如何。

師云。百雜碎。
問。魚游陸地時如何。
師云。取死不遲。
僧曰。却下碧潭時如何。
師云。鑽泥刺土。
問。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時如何。
師云。好箇問頭。
僧曰。恁麼則普天匝地。
師云。更是一堆。
問。如何是無縫塔。
師云。四楞著地。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鼻孔三斤稱不起。
問。威音王已前。是什麼人先悟。
師云。何不問露柱。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二頭三手。
問。大用現前。不存軌則時如何。
師云。爾為什麼趯破脚指頭。
問。金剛眼中著得箇什麼。
師云。一把沙。
僧曰。為什麼如此。
師云。非公境界。
問。絕功勳處。如何履踐。
師云。更買兩緇草鞋。
僧曰。恁麼則退步也。
師云。太少在。
問。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
師云。憐兒不覺醜。
僧曰。國師孤負侍者。意旨如何。
師云。美食不中飽人飡。
僧曰。侍者孤負國師。意旨如何。
師云。粉骨碎身未足酬。
問。三身中。那身說法。
師云。闍梨鼻孔捨。
僧曰。因什麼如此。
師云。謗斯經故。獲罪如是。
問。作麼生是和尚歇人一句。

師云。闍梨不恁麼來即得。
僧曰。祇如恁麼來。還得休歇也未。
師云。驢年。
問。盡大地人各置一問。問問各別。未審和尚如何祇對。師彈指一下。
僧曰。未審還副他問也無。
師云。隨州紙貴。
問。如何是不變異句。
師云。變也。
僧曰。畢竟如何。
師云。鳧脚長。鶴脚短。
問。如何是般若體。
師云。蚌含明月。
僧曰。如何是般若用。
師云。兔子懷胎。
問。未有世界時。還有佛法也無。
師云。少一時不生。剩一時不死。
問。如何是透法身句。
師云。猢猻繫露柱。
問。空王殿主以何為侍者。
師云。樓至佛。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滿眼是塵埃。
問。如何是色空。
師云。薤園裏賣葱。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也祇是箇銅片。
僧曰。磨後如何。
師云。且收取。
問。學人有一問。未審還答也無。
師云。南地鷓。如地狐。
僧曰。意旨如何。
師云。三身裏看。
師云。汝若進一步。即迷其理。若退一步。又失其事。若也寂然。又同無性。作麼生免得此過。所以古人道。明知恁麼故不犯。正當恁麼時。切忌傾朴著。
上堂云。諸上坐。還有疑情。出來對眾。大家共你商量。理長處就。所以趙州八十尚自行脚。祇是要飽叢林。又且不擔板。若有作

者。但請對眾施呈。忽有岐[跳-兆+羊]察辨。呈中藏鋒。忽棒忽喝。或施圓相。或象王回施。師子返擲。或拗折拄杖。或推倒禪床。但請施呈。還有麼。眾無對。

又云。若是宗門中兒孫。須瞻祖師機。方可是祖師苗裔。不可喫却祖師飯。著却祖師衣。趁讚(古困切)過日。便道我是行脚僧。遮箇祇喚作名字比丘。徒消信施。閻羅王久後索爾草鞋錢有日在。莫道我得便宜。忽然一日眼光落地。入地獄如箭。又圖箇什麼。各自著便宜。又不是憨漢也。久立。

示眾云。山僧記得在母胎中有一則語。今日舉示大眾。諸人不得作道理商量。還有人商量得麼。若商量不得。三十年後不得錯舉。

灌州羅漢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牛頭阿房。

僧曰。如何是法。

師云。劍樹刀山。

問。剎竿頭上風車子。意旨如何。

師云。不撥自轉。

問。臘月火燒山。意旨如何。

師云。寸草不生。

問。如何是道。

師云。家家門口通長安。

問。如何是本來心。

師云。路過了也。

問。如何是為人一句。

師云。拖泥帶水。

僧曰。意旨如何。

師云。郎當不少。

隨州雙泉山瓊山主

上堂云。欲識雙泉道。縱橫迴自幽。山連韶石峻。水接蜀江流。北顧平原淺。南瞻岐路稠。審思真諦理。月照叩峰頭。

饒州薦福承古禪師法嗣

洪州觀音選禪師

問。朝蓋親臨於法會。請師提唱答 皇恩。
師云。雲卷星當漢。
僧曰。猶是學人疑處。
師云。風停月在池。
僧曰。恁麼則風雲會處千尋直。日月中時八面明。
師云。莫錯認。
問。千聖共傳無底鉢。師今得法嗣何人。
師云。壁立千萬仞。花開三四枝。
僧曰。恁麼則古師嫡子。雲門兒孫。
師云。劊利人難得。
問。如何是觀音境。
師云。煙篆透出碧霄去。青山螺髻隔江來。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金仙扶寶位。鉄柱鎖蛟龍。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靜。
僧曰。出世後如何。
師云。風。
僧曰。何異孟春猶寒。
師云。打折驢腰。
僧曰。路逢劍客須呈劍也。
師云。猶自。猶自。
上堂云。擬而不擬。挂人唇齒。瞪目長江。徧觀海水。寒山道兮不知底。寒山性兮天下美。坐枯木兮有終有始。似孩童兮降伏魔鬼。入市忘歸兮清風自起。擬寒山兮白雲千里萬里。
上堂。拈拄杖云。山僧一條拄杖。卓在孤峰頂上。採來摩捋多時。曲直自有模樣。拈起橫亘十方。放下群魔膽喪。說甚古佛釋迦。擬議也須喫棒。擊禪牀一下。

和州淨戒守密禪師

問。揚眉瞬目。早是紛紜。不涉言詮。請師答話。
師云。肯認鷺鷥為野鶴。難將楊柳比青松。
僧曰。漁翁歌 帝德。樵父樂昇平。
師云。定州梨子江南價。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青蓮華香。
僧曰。如何是法身向上事。

師云。白蓮華香。
問。如何是佛。
師云。稽首。稽首。
僧云。學人有分也無。
師云。頓首。頓首。僧作舞而去。
師云。似即恰似。是即不是。
上堂云。祖師心印。無痕無狀。歷劫分明。未嘗間斷。拈輕負重。處處無妨。退後進前。亦不欠少。然雖如是。有意即錯。無言即差。況諸佛天真之性。天真之道。本來清淨。與虛空同壽。
上堂云。大道廓然。本無迷悟。不落是非。聖凡同路。若言即心即佛。如鬼有角。若言非心非佛。如羊無角。上士聞之。一悟千悟。下士聞之。如痴如啞。何故如此。譬如醍醐上味。為世所珍。遇斯之人。應難信受。久立。

潭州開福禪院從受禪師

示眾云。少室尤年不可論。無風特地起波痕。西來的旨不能慎。直到如今累子孫。

潞州妙勝臻禪師法嗣

潭州大瀉山承禪師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浮雲籠太嶽。
僧曰。來後如何。
師云。明月落千溪。
問。梁王為什麼不識達磨。
師云。彼彼丈夫。
問。九年面壁。意旨如何。
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問。如何是古佛家風。
師云。蒲團草座。
僧曰。若遇客來。將何祇對。
師云。喫茶去。
僧曰。昔日趙州。今日和尚。
師云。錯。
問。如何是無底篋子。

師云。少人用得。
問。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如何是一花。
師云。芬芳直至今。

西川雪峰欽山主

上堂云。昨日一。今日二。不用思量。快須瞥地。不瞥地。蹉過平生勿巴鼻。咄。

襄州洞山普樂寺初禪師法嗣

潭州報慈嵩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頭戴天。腳踏地。
問。北斗藏身。意旨如何。
師云。百歲老人入漆甕。

荊南福昌德賢禪師

問。去離不得時如何。
師云。子承父業。
僧曰。如何是衲僧活計。
師云。甘裡種田。
問。如何是古佛心。
師云。蒺藜花簇錦。
問。承師有言。隔河招手。意旨如何。
師云。被裡張帆。
僧曰。恁麼則南山起雲。北山下雨也。
師云。蹈不著。

蘄州黃梅龍華祥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銀鬃朱尾。
僧曰。學人不會。
師云。兩眼似鑿鈴。

金陵奉先道琛融照禪師法嗣

廬山蓮華峰祥庵主

問。如何是雪嶺泥牛吼。

師云。聽僧曰。如何是雲門木馬嘶。

師云。響。

師臨示疾時。舉拄杖問眾云。汝道古佛到遮裡。為什麼不肯住。眾無對。

師云。為他途路不得力。復云。作麼生得力去。乃橫肩拄杖云。柳[木*栗]橫擔不顧人。却入千峯萬峰去。言畢圓寂。

廬陵西峯豁禪師

問。金烏未出時如何。

師云。東西不辨。南北不分。

僧曰。出後如何。

師云。好醜難逃。

問。和風習習。春日遲遲。學人上來。願聞法要。

師云。隨分有春色。一枝三四花。

僧曰。百紅千紫纔觀了。不羨靈雲老古錐。

師云。爾具什麼眼。

僧曰。一枝巖畔笑春風。

師云。也祇道得一半。

江州崇勝卸禪師

問。羚羊未掛角時如何。

師云。尋溪過澗。

僧曰。挂角後如何。

師云。鼻孔遼天。

問。如何是學人受用三昧。

師云。橫擔拄杖。

僧曰。意旨如何。

師云。步步踏實。

上堂云。寒時寒。熱時熱。古德重重成漏泄。智者無榮名不遷。迷者翻云底時節。底時節。真不徹。時寒。各請歸堂歇。

隨州龍居山明教寬禪師法嗣

桂州壽寧善義禪師

一日。去辭寬禪師。寬問。甚麼處去。
師云。大安山去。
寬云。不涉途程。道將一句來。
師云。九九八十一。
寬喝云。亂走作麼。師乃有省。
上堂。良久。舉拂子示眾云。祇麼會得。不妨省力。雖然如是。比上不足。比下有餘。
時有僧問。鼓聲纔罷人皆聽。未審如何密領之。
師云。祇恐闍梨不問。
僧曰。此問還當否。
師云。靜處薩婆訶。

明州岳林賢禪師

本住洪州香城。引退後。遊山至泐潭。禮馬祖禪師真。忽然悟道。乃曰。今年五十五。遊山見馬祖。低頭禮三拜。目前無可覩。自此稱為水牯牛。往諸方索鬪。遂徧遊禪席。勘諸知識。皇祐初。入京謁都尉李侯。請相見。即便坐逝。

邛州西林義琛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井中紅焰。月裏浮漚。
問。如何是古鏡。
師云。老僧怕他。
僧曰。為什麼怕他。
師云。慚惶。慚惶。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風調雨順。
僧曰。出世後如何。
師云。國泰民安。
問。如何是大道。
師云。不障往來人。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要作什麼。

問。如何是向上事。

師云。黃鶯樹上一枝華。

師於明道二年五月望日辭眾。至十八日。沐浴端坐而逝。荼毗。收舍利。建塔于鶴山之北。

郢州林溪脫禪師法嗣

西劍州鳳凰山智廣禪師

問。萬法本閑。時人自鬧。如何是萬法。

師云。剎剎塵塵。

問。靈松無異色時如何。

師云。方顯歲寒心。

問。如何是學人一卷經。

師云。說因說果。

上堂云。秋山疊疊。秋水澄澄。秋風凜凜。秋月亭亭。此時獨倚高樓望。拊掌臨風笑數聲。

舒州投子通禪師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兩岸唱漁歌。

僧曰。來後如何。

師云。大海涌風波。

問。般若是經。金剛是喻。學人上來。請師垂示。

師云。一槌兩當。蓋覆將來。

僧曰。謝師指示。

師云。爾作麼生會。

僧曰。一槌兩當。蓋覆將來。

師云。學語之流。

問。如何是孤峰頂上節操長松。

師云。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

問。如何是和尚遮裏佛法。

師云。東壁打西壁。

師云。早是老婆心也。雖然如是。也不易會。祇如達磨未來。且道此土還有也無。若有。何用更來此土。上坐且作麼生理論有無。且

道達磨甚麼時來。而今又向何處去也。遮裡若有箇省覺。許上坐具一隻眼。若也未會。久立。

上堂云。朝朝相似。日日一般。更有新奇也拈不出。至於諸聖出來。且不敢誑於上坐。因甚如此。蓋為上坐是行腳人。如今共上坐在遮裏。聚集少時。早是欺屈諸人了也。更若停騰。是非鋒起。不如且歇。珍重。

南嶽般若啟柔禪師法嗣

藍田縣真禪師

問。如何是竺土大仙心。

師云。是誰傳來。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莫教喫人苗稼。

問。如何是無情說法。

師云。還見香臺麼。

問。如何是不二法門。

師云。一亦不是。

問。如何是大定門。

師云。拈柴擇菜。

問。如何是千年石上古人蹤。

師云。移易不得。

問。如石含玉時如何。

師云。合如是。

問。求之不得時如何。

師云。用求作麼。

僧曰。如何即得。

師云。幾時失來。

問。諸佛未出世時如何。

師云。爾問我答。

僧曰。出世後如何。

師云。我問爾答。

問。如何是向上關捩子。

師云。蹈不著。

僧曰。未審蹈著後如何。

師云。賺却人。

師云。成山假就於始簣。脩途託至於初步。上坐適來從地爐邊來。還與初步同。別。若言同。即不會不遷。若言別。亦不會不遷。上坐作麼生會。還會麼。遮裡不是那裡。那裡不是遮裏。且道是一處兩處。是遷不遷。是來去不是來去。若於此顯明得。便乃古今一如。初終自爾。念念無常。心心永滅。所以道。觀方知彼去。去者不至方。上坐適來恁麼來。却請恁麼去。參。

韶州披雲智寂禪師法嗣

廬山開先照禪師

問。向上宗乘。乞師垂示。
師云。白雲斷處見明月。
僧曰。猶是學人疑處。
師云。黃葉落時聞搗衣。
問。如何是禪。
師云。十語九中。不如一默。
僧曰。恁麼則少林曾面壁。千古播徽猷。
師云。爾分上又作麼生。
僧曰。相對無言好消息。不須更去問南能。
師云。莫亂統。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一條寒澗木。得力勝兒孫。
僧曰。用者如何。
師云。百雜碎。
上堂云。叢林規矩。古佛家風。一參一請。一粥一飯。且道明得箇甚事。祇為諸人心心不停。念念不住。若能不停處停。念處無念。自合無生之理。與麼說話。笑破他人口。參。

金陵天寶禪師

問。當機不薦時如何。
師云。鈍。
僧曰。薦得後如何。
師云。快。
問。白雲抱幽石時如何。
師云。非公境界。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裂半作三。
僧曰。學人未曉。
師云。鼻孔針筒。

洪州泐潭山謙禪師法嗣

虔州了山宗盛禪師

問。古人面壁。意旨如何。
師云。為爾要問。
問。如何是衣裡明珠。
師云。切宜保借。
問。如何是沙門端的事。
師云。不要問別人。
問。如何是解脫門。
師云。從遮裏入。
上堂云。鐘聲清。鼓聲響。早晚相聞休忘想。薦得徒勞別問津。莫道山僧無伎倆。咄。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世

隨州智門光祚禪師法嗣

明州雪竇山資聖寺明覺禪師

諱重顯。姓李氏。遂州大寂九世之孫也。興國五年四月八日生。始誕。旦夕瞑目若寐。幼即異常。不慕遊戲。或見沙門。挽衣大喜。長依普安院仁銑上人出家。受具之後。橫經講席。究理窮玄。詰問鋒馳。機辯無敵。咸知法器。僉指南遊。

一造智門。即伸問曰。不起一念。云何有過。

門召近前。師即趨進。門以拂子擊之曰。會麼。師欲對次。門又擊之。豁然開悟。情量穎脫。

次涉江湘。道業益著。宗匠器重。緇徒悚服。演法洞庭。學者雲集。學士曾公會。欽其德望。召居雪竇。大啟祖闡。洞示玄奧。都尉李侯遵勗特奏章服。侍中賈公昌朝尋乞美號。由是四方翹楚皆臻法席。陞堂入室。悉馳道譽。

化緣將畢。一日遊山。四顧周覽。謂侍者曰。何日復來於此。

者哀乞道偈。師曰。平生唯患語之多矣。

翌日。出杖屨衣盂。散及徒眾。乃曰。七月七日。復相見耳。盥沐攝衣。北首而逝。

雲門讖曰。二百年後。吾道重顯。即師之名也。豈虛然哉。

開堂日。於法座前顧視大眾。乃云。若論本分相見。不必高陞法座。遂以手指云。無量佛土一時現前。各各子細觀瞻。其或涯際未知。不免拖泥帶水。便陞座。

上首白槌罷。有僧方出。師乃約住云。如來正法眼藏。委在今日。放開則瓦礫生光。把住則真金失色。權柄在手。殺活臨時。其有作家。共相證據。

問。遠離翠峯祖席。已臨雪竇道場。是一是二。

師云。馬無千里謾追風。

僧曰。恁麼則雲散家家月。

師云。龍頭蛇尾。

問。德山· 臨濟棒喝已彰。和尚如何為人。
師云。放過一著。僧擬議。師便喝。
僧曰。恁麼則別有在。
師云。射虎不真。徒勞沒羽。
問。次大法螺。擊大法鼓。朝宰臨筵。如何即是。
師云。清風來未休。
僧曰。恁麼則得遇於師也。
師云。一言已出。駟馬難追。
師復顧大眾云。人天普集。合發明箇甚事。焉可互分賓主。馳騁問答。便當宗乘。此門廣大。威德自在。輝騰今古。把定乾坤。千聖祇言自知。五乘莫能建立。所以聲前悟旨。猶迷顧鑑之端。言下知宗。尚味識情之表。諸人要知真實相為麼。但以上無攀仰。下絕已躬。自然常光現前。箇箇壁立千仞。還辨明得也無。未辨辨取。未明明取。既辨明得。便能截生死流。踞祖佛位。妙圓超悟。正在茲時。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珍重。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祥雲五色。
僧曰。學人不會。
師云。頭上漫漫。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猿啼古木。
僧曰。來後如何。
師云。鶴唳青霄。
僧曰。即今事作麼生。
師云。一不成。二不是。
有僧出禮拜。起云。請師答話。師便棒。
僧曰。豈無方便。
師云。罪不重科。
復有一僧出禮拜。起云。請師答話。
師云。兩重公案。
僧曰。請師不答話。師亦棒。
問。古人道。北斗裏藏身。意旨如何。
師云。千聞不如一見。
僧曰。此話盛行。
師云。老鼠嚙鐵。
問。古人道。皎皎地絕一絲頭。祇如山河大地又且如何。
師云。面赤不如語直。
僧曰。學人未曉。

師云。徧問諸方。
問。如何是實學底事。
師云。針筭不入。
僧曰。乞師方便。
師云。水到渠成。
問。如何是教外別傳一句。
師云。看看臘月盡。
僧曰。恁麼則流芳去也。
師云。瘧子喫瓜。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乘槎斫額。
僧曰。莫祗遮便是。
師云。浪死虛生。
問。如何是緣生義。
師云。金剛鑄鐵券。
僧曰。學人不會。
師云。鬧市裏牌。
僧曰。恁麼則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
師云。列下。
問。四十九年說不盡底。請師說。
師云。爭之不足。
僧曰。謝師答話。
師云。鐵棒自看。
問。如何是把定乾坤眼。
師云。拈却鼻孔。
僧曰。學人不會。
師云。一喜一悲。僧擬議。
師云。苦。
問。如何是脫珍御服。挂弊垢衣。
師云。垂手不垂手。
僧曰。乞師方便。
師云。左眼挑筋。右眼抉肉。
問。龍門爭進舉。那箇是登科。
師云。重遭點額。
僧曰。學人不會。
師云。退水藏鱗。
問。學人乍入叢林。諸事不會。還拯濟也無。
師云。蘇州紙貴。

僧曰。和尚豈無方便。
師云。腦後拔櫛。
問。寂寂忘言。誰是得者。
師云。卸帽穿雲去。
僧曰。如何領會。
師云。披蓑帶雨歸。
僧曰。三十年後此話盛行。
師云。一場酸澁。
問。坐斷毗盧底人。師還接否。
師云。殷勤送別瀟湘岸。
僧曰。恁麼則學人罪過也。
師云。天寬地窄太愁人。
問。生死到來。如何回避。
師云。定花板上。
僧曰。莫便是他安身立命處也無。
師云。符到奉行。
師云。大眾前共相誦唱。也須是箇漢始得。若也未有奔流度刃底眼。不勞拈出。所以道。如大火聚。近著則燎却面門。亦如按太阿寶劍。衝前則喪身失命。乃云。太阿橫按祖堂寒。千里應須息萬端。莫待冷光輕閃爍。復云。看看。便下座。
上堂。問。如何是維摩一默。
師云。寒山訪拾得。
僧曰。恁麼則入不二之門。
師云。噓。復云。維摩大士去何從。千古今人望莫窮。不二法門休更問。夜來明月上孤峯。上堂云。大眾。遮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爾諸人四至界畔。猶未識在。若要中心樹子。我也不惜。良久。云。為祥為瑞。
師云。兩重公按。復云。雪覆蘆花欲暮天。謝家人不在漁船。白牛放却無尋處。空把山童贈鐵鞭。

黃州護國院壽禪師

問。如何是一路涅槃門。
師云。寒松青有千年色。一徑風飄四季香。
問。如何是靈山一會。
師云。如來纔一顧。迦葉便低眉。

韶州南華寺寶緣慈濟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青山淥水。

僧曰。未來時還有意也無。

師云。高者高。低者低。

上堂。舉拄杖云。拈起也。峯巒失色。放下也。祖佛迷蹤。作者當頭。光臨背上。猶是買帽相頭。看風使帆。若向衲僧門下。千山萬水。

邵武軍靈泉曉禪師

問。如何是西來意。

師云。第一到屯門。

僧曰。學人不會。

師云。末後藏熊耳。

洪州百丈山智映寶月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窣堵那叱掌上擎。

僧曰。恁麼則北塔嫡子。韶石兒孫。

師云。斫額望新羅。

問。如何是佛。

師云。梵王前引。帝釋後隨。

僧曰。謝師答話。

師云。龍蛇易辨。衲子難謾。

福州慈雲山紹洗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額頭上汗出。

問。如何是慈雲山。

師云。徒勞仰面看。

僧曰。如何是慈雲水。

師云。急。

復州青山好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昔日靈山親授記。今朝汶水令方行。
僧曰。恁麼則雷布雲門洞。雨灑景陵城去也。
師云。九宮八卦。

鄂州黃龍海禪師

問。如何是黃龍家風。
師云。看。
僧曰。忽遇客來。如何祇待。師以拄杖點之。
問。如何是最初一句。
師云。掘地討天。

桂陽芙蓉山文喜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從地涌出。
僧曰。畢竟是誰家之子。
師云。特地罔措。

鼎州德山僧可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頭長面短。
僧曰。意旨如何。
師云。手纖脚大。

鼎州彰法澄泗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多少人摸不著。
僧曰。忽然摸著看又作麼生。
師云。堪作什麼。

澧州藥山宣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東西南北。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有貴有賤。

明州廣慧清順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不可埋沒人。

僧曰。恁麼則北塔嫡子。

師云。牆壁有耳。

問。如何是佛。

師云。水到渠成。

僧曰。爭柰不會。

師云。却較些子。

筠州九峯勤禪師

問。如何是道。

師云。逢春無綠草。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南來北往。

問。方便門中。請師垂示。

師云。佛不奪眾生願。

僧曰。恁麼則謝師方便。

師云。却須喫棒。

上堂云。口羅舌沸。千喚萬喚。露柱因什麼不回頭。良久。云。美食不中飽人喫。便下座。

潭州雲蓋山繼鵬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舌頭無骨。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湯瓶火裏煨。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天。

僧曰。出世後如何。

師云。地。

上堂云。高不在絕頂。富不在福巖。樂不在天堂。苦不在地獄。良久。云。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泉州雲臺省因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嗔拳不打笑面。

僧曰。如何施設。

師云。天台則有。南嶽則無。

問。如何是佛。

師云。月不破五。

僧曰。意旨如何。

師云。初三十一。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今日好曬麥。

僧曰。意旨如何。

師云。問取磨頭。

問。如何是佛。

師云。眼大鼻頭尖。

上堂云。菩薩子。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且道落在什麼處。

良久。云。南瞻部州。北鬱單越。

蘄州五祖山師戒禪師法嗣

筠州洞山妙圓禪師

諱自寶。壽州人也。峽石寺受業。頭陀苦行。糲食垢衣。參戒禪師發明心地。天人密護。神鬼莫測。所至叢林。推為導首。出世三十年。居四大刹。道風遐布。朝野欽聞。都尉李侯遵勗特奏章服。師名。以嘉德望。

問。如何是佛。

師云。頭腦相似。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言猶在耳。

僧曰。恁麼則五祖嫡子。雲門兒孫。

師云。日馳五百。

無為軍西禪文岫禪師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

師云。路逢劒客須呈劒。

僧曰。學人未會。
師云。不是詩人莫獻詩。

蘄州十王懷楚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巍巍堂堂。
問。如何是透法身句。
師云。大有人問了。
僧曰。意旨如何。
師云。靜處薩婆訶。

舒州海會通禪師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
師云。清光滿目。
僧曰。學人不會。
師云。茶灰抹土。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柿桶蓋巖笠。
僧曰。學人不曉。
師云。行時頭頂戴。坐則掛高閣。

蘄州義臺子祥禪師

問。如何是義臺境。
師云。路不拾遺。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桀犬吠堯。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曾問幾人來。
僧曰。即今問和尚。
師云。且莫當頭。

復州北塔思廣禪師

問。如何是衲僧變通事。
師云。東涌西沒。

僧曰。變通後如何。
師云。地肥茄子嫩。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左手書右字。
僧曰。學人不會。
師云。歐頭拗脚。

明州天童山景德懷清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眼裏不著沙。
僧曰。如何領會。
師云。耳裏不著水。
僧曰。恁麼則禮拜也。
師云。東家點燈。西家暗坐。
上堂云。西湖隱出山峰秀。樓櫓參差若畫成。禪流共在祇園住。莫教虛度一生。便下座。

越州寶嚴叔芝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土身木骨。
僧曰。意旨如何。
師云。五彩金裝。
僧曰。恁麼則頂禮去也。
師云。天台柳[木*栗]。

蘇州翠峰慧顯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門開東嶺上。
僧曰。恁麼則五祖嫡子也。
師云。猿嘯老松枝。

台州瑞巖珪禪師

問。祖印即提於此日。未審宗風嗣阿誰。
師云。黃梅東嶺山偏秀。白蓮池畔水分流。

僧曰。恁麼則蓮峯親授旨。瑞嶺繼敷揚。
師云。依稀南嶽。髣髴天台。

蘄州五祖山秀禪師

問。無法可說。是名說法。既是無法可說。又將何說。
師云。霜寒地凍。
僧曰。空生不解巖中坐。惹得天花動地來。
師云。日出冰消。僧擬議。
師云。何不進語。僧又無語。
師云。車不橫推。理不曲斷。

襄州白馬辯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水來河漲。
僧曰。如何是法。
師云。風來樹動。

蘄州四祖山端禪師

法身頌云。
燈心刺著石人脚。火急去請周醫博。
路逢龐公相借問。六月日頭乾曬却。

蘇州定慧道海禪師

問。諸佛出世。已涉繁辭。作麼生是的旨。
師云。逢人不得錯舉。
僧曰。不因一事。不長一智。
師云。怪之不及。

韶州舜峯蒙正禪師

問。師唱誰家曲。
師云。孫賓長嘯。
僧曰。五祖嫡嗣。
師云。一任針鋒。

溫州鴈蕩山靈峯文吉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無角鉄牛眠少室。生兒石女老黃梅。
僧曰。恁麼則韶陽兒孫。祖峯嫡子。
師云。鴈蕩天台。
僧曰。祖意已蒙師指示。為人一句又如何。
師云。兩重公案。
問。昔日靈山分半座。飲光對面被茶糊。今朝此席亦如是。還有完全句也無。
師云。一步兩步。
僧曰。金風吹落葉。玉露滴青松。
師云。緊悄草鞋。
僧曰。一回舉著一回新。師便打。

潭州雲蓋山志顛禪師

問。豹巖霧卷。鳥道雲開。海眾咸臻。潮音願振。
師云。月映千江白。
僧曰。恁麼則五雲嶺秀。三井風清。
師云。雲開萬里新。
問。如何是雲蓋境。
師云。山角金屏掩。松蘿玉帳垂。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紫袍公子少。雪頂野僧多。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古寺碑難讀。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讀者盡攢眉。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遮天蓋地。
僧曰。忽遇客來。如何祇待。
師云。趙州道底。師顧視大眾。喝一喝。云。諸禪德。莫是賓主歷然麼。莫是先照後用麼。莫是照用同時麼。若恁麼會。臨濟宗風。平沉苦海。既不恁麼會。作麼生商量。良久。喝一喝。拍繩牀一下。
上堂云。昨日三。今日四。把斷要津。放開捏聚。無限禪徒。特地罔措。咄。

隨州水南智昱禪師

上堂云。欲識解脫道。今日參較早。唯念路行難。水深魚不少。參。

上堂云。欲識解脫道。鷄鳴已天曉。趙州庭前栢。打落青州棗。咄。

潭州報慈嵩禪師法嗣

郢州興陽山遜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髮白面皺。

僧曰。如何是法。

師云。寒來暑往。

問。如何是三界外事。

師云。洛陽千里餘。不得舊時書。

東川乾明居信禪師法嗣

澧州藥山彝肅禪師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大樹大皮裹。

僧曰。出世後如何。

師云。小樹小皮纏。

問。如何是不動尊。

師云。四王擡不起。

益州[郫-卑+((白-日+田)/升)]縣西禪垂白禪師

問。香煙纔起。大眾雲臻。祖師西來。請師垂示。

師云。心光自照。

僧曰。恁麼則一句於師親領得。永鎮[郫-卑+((白-日+田)/升)]城萬古傳。

師云。是人分。

江陵福昌重善禪師法嗣

鼎州德山文捷禪師

問。盡令提綱。人亡海竭。一棒一喝。猶落化門。學人上來。請師舉唱。

師云。禮拜頭著地。

僧曰。恁麼則吉日良時。

師云。兩脚向空。

湖州上方齊岳禪師

問。如何是上方境。

師云。碎雲點出千峰秀。迸石泉流萬古清。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紅蓮座上江南客。白玉池邊碧眼胡。

僧曰。人境已蒙師指示。臨機一句又如何。

師云。葛藤休得也未。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應是乾坤惜。不教容易開。

僧曰。出水後如何。

師云。香透碧波敷水面。葉鋪金沼覆鴛鴦。

問。牛頭未見四祖。為什麼百鳥啣花獻。

師云。從苗辨地。因語識人。

僧曰。更有向上事也無。

師云。有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在舍只言為容易。臨筌方覺取魚難。

問。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春英紅爛熳。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孟女泣長城。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水長船高。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少林空夜月。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誰聽老猿啼。

問。如何是學人一卷經。

師云。甚處得來。

僧曰。如何受持。

師云。胡人不點頭。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花須連夜發。
僧曰。出後如何。
師云。莫待曉風吹。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枯澹傳千古。
僧曰。若遇客來。將何祇待。
師云。精羸隨眾等。
問。如何是菩提。
師云。甌頭瓦子。
僧曰。意旨如何。
師云。苦。
問。如何是諸佛本源。
師云。深。
僧曰。如何是深。
師云。淺。
問。如何是奪人不奪境。
師云。永夜明堂空有月。
僧曰。如何是奪境不奪人。
師云。詞清越席談今古。
僧曰。如何是人境俱奪。
師云。山河萬類沉滄海。
僧曰。如何是人境俱不奪。
師云。少年公子捲珠簾。
僧曰。人境已蒙師見答。更有尖新意也無。
師云。平原青草合。富貴幾人休。
問。如何是先照後用。
師云。臨濟先鋒。德山殿後。
僧曰。如何是先用後照。
師云。德山先鋒。臨濟殿後。
僧曰。如何是照用同時。
師云。臨濟德山歸貉齒。
僧曰。如何是照用不同時。
師云。君向瀟湘我向秦。
僧曰。離四照用外。還有奇特事也無。
師云。年高春睡晚。病久出山遲。

師云。人境照用是臨濟家風。算來吾門祖道。甚處有多般。先人格調。粗有所歸。凡百應用。事在當人。善知識無問不從。無機不應。若不是。上方也大難祇當。何故如此。諸人總是外方降不下底禪客。便到遮裏側聆。若也一句參差。宗門喪矣。然雖如此。爾遮一隊漆桶。予眼中滴血有日去在。

上堂云。山青水碧。頗稱修真。白雲澹泞。實堪養道。遮裏若能了得。是汝善知識。儻若未能明得。也不易消遣。何故如此。每日見山被山闕。見水被水流。直饒一句下承當。也是三家村裏漢。久立。

上堂云。旋收黃葉燒青煙。竹榻和衣半夜眠。粥後放參三下鼓。孰能更話祖師禪。便下座。

上堂云。恁麼貼貼地。多少次第。多少或現。未開口已前。光明動地。何不回顧些子。須要三箇五箇近前。問一兩則話。待老和尚開兩片皮。一時近前。聽佛聽法。到恁麼時。是非競起。葛藤滿地。堪作什麼。諸仁者。若據宗乘理論。直是三世諸佛到遮裏。頭破作七分。然雖如此。水長即船高。擊禪牀。下座。

明州育王山常坦禪師

問。如何是有中有。

師云。金河峰上。

僧曰。如何是無中無。

師云。般若堂前。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千年松柏下。

僧曰。磨後如何。

師云。一年一度春。

問。如何是文殊。

師云。木馬嘶空人不顧。鐵牛東畔笑呵呵。

僧曰。如何是普賢。

師云。隱隱玉樓紅日照。巍巍金殿白雲封。

問。如何是諸佛機。

師云。羣魔外道不能移。

僧曰。如何是諸佛用。

師云。萬象森羅非別共。

僧曰。機用相去多少。

師云。十萬八千。

問。如何是諸佛出身處。

師云。來年開選場。

僧曰。不會。

師云。五月裏看取。

上堂云。千花競發。百鳥啼春。是向上句。諸佛出世。知識興慈。是向下句。作麼生是不涉二途句。若識得。頂門上出氣。若識不得。土牛耕石田。以拄杖擊禪床。下座。

江陵福昌詢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華開金谷暖。柳拂玉墀香。

僧曰。恁麼則春令既行。萬方道泰。

師云。開口迷全體。無言露半身。

越州四明小贊禪師

問。萬水朝宗即不問。直截根源事若何。

師云。水急如箭。

僧曰。意旨如何。

師云。風雪滿衣。僧禮拜。

師云。頭上戴天華。側耳尋岐路。

福州靈峰顯英禪師

問。如何是諸佛向上人。

師云。白雲覆青山。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

師云。淙沼從長渠。

西劍州元封文政禪師

問。萬法歸一。一歸何所。

師良久云。會麼。僧無語。

師云。兩箇也。

潤州金山瑞新禪師

問。梵王請佛。蓋為群生。學士請師。復談何事。

師云。泥牛飲盡三江水。木馬寒嘶一夜風。
僧曰。更有向上事也無。
師云。佳人雖解能言語。聽不分明一似空。
僧曰。三十年後。專為流通。
師云。到老惺惺。
問。如何是佛。
師云。面黃不貼金。
僧曰。意旨如何。
師云。八風吹不動。

蘄州北禪廣教懷志禪師法嗣

舒州四面山懷清禪師

初往蘄口興化。問。臨濟三玄。似石女向波中作舞。雲門關棧閃爍。如鷓子過新羅。去此二途。興化當行何令。
師云。道什麼。
僧曰。恁麼則和尚與古人出氣。
師云。再犯不容。
僧應爾。師以拄杖打禪床云。若不點破。將謂山僧瞌睡。

南嶽福嚴良雅禪師法嗣

衡州常寧北禪智賢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擲鉢峰巒秀。名高海外傳。
僧曰。昔日福嚴親得旨。今朝此地化迷徒。
師云。終是飽叢林。
問。如何是佛。
師云。匙挑不起。
僧曰。如何是道。
師云。嶮路架橋。
上堂云。年窮臘盡。無可與大眾分歲。老僧烹一頭露地白牛。炊土田米飯。煮野菜羹。燒楮火。大眾圍爐。唱村田樂。何以如此。免見倚他門戶傍他牆。致使時人喚作郎。珍重。
上堂。良久。云。冤苦冤苦作什麼。百丈不在。老僧今日困。下座。

上堂。呵呵大笑云。爭怪得老僧。便下座。

南嶽衡岳寺振禪師

示眾云。阿呵呵。瘦松寒竹鎖清波。有時獨坐磐陀上。無人共唱太平歌。朝看白雲生洞口。暮觀明月照娑婆。有人問我居山事。三尺杖子攪黃河。

福州衡山禪院了實禪師

問。權機棒喝。且放一邊。不耻家風。便請相見。
師云。禮拜頭著地。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
師云。點。

鼎州德山慧遠禪師法嗣

興元府大中仁辯禪師

問。如何是焦崖境。
師云。庭前寒松老。祖意不西來。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胡僧碧眼深。跣足躡階行。

益州菩提桂芳禪師

問。諸佛出世。梵王前引。帝釋後隨。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三春物象妍。
僧曰。學人未曉。
師云。溪花紅似錦。岸柳翠如藍。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未曾騎竹馬。切忌跨金龍。

廬山開先善暹禪師

臨江軍人也。操行清苦。知識明悟。徧參宗匠。機辯迅捷。禪林目曰海上橫行道者。一日。遠禪師陞堂。顧視大眾云。師子嘯呻。象王回顧。師忽有省。入室陳解。

遠曰。子作麼生會。

師回顧云。後園驢喫草。遠然之。自此道風愈播。

後出世開先。住十八年。大振祖風。聯其芳者。名耀一時。

開堂日。上省白槌罷。師云。千聖出來。也祇是稽首讚歎。諸代祖師提挈不起。是故始從迦葉。迄至山僧。二千餘年。月燭慧燈。星排道樹。人天普照。凡聖齊榮。且道承甚麼人恩力。老胡也祇道。明星出現時。我與大地有情同時成道。如是則彼既丈夫。我亦爾。孰為不可。良由諸人不肯承當。自生退屈。所以便推排一人半箇先達出來。遞相開發。也祇是與諸人作箇證明。今日人天會上。莫有久遊赤水。夙在荆山。懷袖有珍。頂門有眼。到處踐踏覺場底衲僧麼。却請為新出世長老作箇證明。還有麼。時有僧出。

師云。象駕崢嶸漫進途。誰信螳螂能拒轍。

問。靈山一會。何異今日。

師云。莫妄想。

僧曰。作家宗師。

師云。三十年後。自有人知。

問。說佛說祖。雪上加霜。如何是默默之機。

師云。口邊喫棒。僧擬議。師便喝。

問。一棒一喝。猶是葛藤。瞬目揚眉。拖泥帶水。如何是直截根源。

師云。速。

僧曰。恁麼則祖師正宗。和尚把定。

師云。野渡無人舟自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洛陽城古。

僧曰。學人不會。

師云。少室山高。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清貧長樂。

僧曰。來後如何。

師云。濁富多憂。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瞎。

問。妙峰頂上即不問。半山相見事如何。

師云。把手過江來。

僧曰。高步出長安。

師云。脚下一句作麼生道。僧便喝。

師云。山腰裏走。

問。一雨所潤。為什麼萬木不同。師云。羊羹雖美。眾口難調。
問。年窮歲盡時如何。
師云。依舊孟春猶寒。
問。更深夜靜時如何。
師云。老鼠入燈籠。
問。瞥嗔瞥喜時如何。
師云。適來菩薩面。如今夜叉頭。
師云。選佛選祖。今正是時。莫祇恁麼懷疑終日。如似有解。已過平生。幸逢勝集。對眾決擇。然則此事亦非在爭鋒脣舌。所以道。屏却咽喉脣吻道將來。如此則便可以忘懷自得。取定方寸。自然常光現前。各各孤運其照。山河大地。不礙見聞。萬象森羅。尋常顯還。當有於此承當得底麼。既然各自孤運。更教阿誰承當。草衣輸野客。木食屬山人。珍重。
上堂云。一若是。二即非。東西南北人不知。休話指天兼指地。青山白雲徒爾為。以拄杖擊香臺一下。

廬陵禾山禪智禪師

諱楚才。臨江軍人也。僧儀挺拔。蘊德異常。心契德山。名聞江國。大丞相劉公沅一見問道。遂有發明。為方外交。敬以師禮。請居禾山。兼住顯親。特奏章服。師號。仍不許別遷法席。聖旨批允。崇重若此。
問。佛令祖令。諸方並行。未審和尚如何。
師云。山僧退後。
僧曰。恁麼則諸方不別也。
師云。伏惟。伏惟。
問。如何是道。
師云。十字街頭看。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南頭賣貴。此頭買賤。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乾坤藏不得。
僧曰。磨後如何。
師云。照破萬家門。
問。如何是離凡聖底句。
師云。山河安掌上。
僧曰。恁麼則迥超今古外。
師云。展縮在當人。

問。一毫未發時如何。
師云。海晏河清。
僧曰。發後如何。
師云。徧界無知己。
問。如何是和尚說法底口。
師云。放一線道。
問。抱璞投師。請師雕琢。
師云。不琢。
僧曰。為什麼不琢。
師云。弄巧翻成拙。
問。如何是無縫塔。
師云。須彌頂上。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梵王。帝釋。
上堂云。太虛無繫。任運昇騰。古鏡當臺。不言自顯。群生迷妄。逐境千差。取捨難忘。於斯遠矣。要得省力麼。情忘所覺。見絕功勳。體露真常。即如如佛。禾山恁麼道。笑殺眾中衲僧。雖然如是。若解笑我者。共我同參。且道參見什麼人。珍重。
上堂云。禾山家風。諸方奚同。言食無味。觸處皆通。不把格尺。遇緣即宗。十方刹土。普印其中。禪徒買賣。豈在忽忽。擊香臺。下座。

秀州資聖院盛勤禪師

問。法會光揚於此日。師今得法嗣何人。
師云。逢人莫錯舉。
僧曰。未審如何舉似。
師云。自然春到來。
問。如何是正法眼。
師云。山青水淥。
問。如何是佛。
師云。泥龕塑像。
僧曰。如何是法。
師云。春寒秋熱。
問。機鋒轉處。作者猶迷。學人上來。乞師垂示。
師云。南有雪峯。北有趙州。
僧曰。恁麼則澄江流皓月。江流月不流。
師云。雲在青天水在餅。

問。如何是為人一句。
師云。人泥入水。
僧曰。莫便是也無。
師云。孤負殺人。
問。世尊拈花。迦葉微笑。意旨如何。
師云。當陽花易發。背日雪難消。
僧曰。雪峰毳毬。玄沙斫碑。又且如何。
師云。春深日漸暖。人多跣足行。
問。四威儀中。如何履踐。
師云。鷺鷥立雪。
僧曰。恁麼則聞鐘持鉢。日上欄干。
師云。魚躍千江水。龍騰萬里雲。
僧曰。畢竟又如何。
師云。山中逢猛獸。天上見文星。
上堂云。多生覺悟非干衲。一點分明不在燈。拈拄杖云。拄杖頭上祖師。燈籠脚下彌勒。須彌山腰鼓細即不問爾。作麼生是分明一點。爾若道得。無邊剎境總在爾眉毛上。爾若道不得。作麼生遇得羅剎橋。良久。云。水流千派月。山鎖一谿雲。卓一下。
上堂云。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還同魔說。既然如是。衲僧家十二時中以何為據。拈拄杖云。為山笠子。志公席帽。擊香卓。下座。
上堂云。諸佛說教。說文顯理。指色明空。語必徇俗。理必明真。或權或實。應人天機。若向衲僧分上。又隔一重山。久立。

潭州鹿苑圭禪師

桂州臨桂人也。姓熊氏。幼年穎悟。志趣異常。投西峰山蒙禪師出家。府帥宋公一見異之。策經得度。便慕參尋。內外該博。至德山遠禪師法席。命為侍者。大悟心宗。丞相劉公洗見如夙契。請住鹿苑。大振祖風。後與時忤。遂隱 京都。
問。如何是禪。
師云。餐風飲露。
僧曰。意旨如何。
師云。諦聽。諦聽。
問。如何是道。
師云。吳頭楚尾。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騎馬踏鐙。不如步行。

問。朕兆未分時如何。
師云。庭草深三尺。
僧曰。分後如何。
師云。清溪釣明月。
僧曰。如何是向上一路。
師云。波旬仰面看。
問。如何是佛。
師云。頂上放毫光。
問。如何是第一義諦。
師云。胡人讀漢書。
上堂云。凡有因緣。須曉其宗。若曉其宗。無是無不是。用則波騰海沸。全真體以運行。體則鏡靜水澄。舉隨緣而會寂。且道兜率天宮幾人行。幾人坐。若向遮裏辨得清濁。許爾諸人東西南北。如雲似鶴。於此不明。踏破草鞋。未有日在。參。
上堂云。雲門抽顧。衲僧罔措。月落星沉。茫茫無數。釋迦當關。然燈回路。市地風雲。悉唎蘇嚧。
上堂。拈拄杖云。斷崖抹處鬼神號。出雲便指南山高。橫按膝上異吹毛。敢待諸方擁毳袍。卓一下。下座。

江陵府開福德賢禪師法嗣

鄂州大陽山文昱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額廣平正。
僧曰。恁麼則瞻禮有分。
師云。鼻聳圓長。

日芳上座

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舉拄杖。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橫按拄杖。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擲下拄杖。
僧曰。三句外。請師道。師便起。
讚賢禪師真。清儀瘦兮可瞻可仰。仰之非親。妙筆圖兮可擬可像。像之非真。非親非真。秋月盈輪。有言無味兮的中的。既往如在兮覓焉覓。當機隱顯兮絲髮覈訛。金烏卓牛兮迅風霹靂。
建中靖國續燈錄卷第三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一世

汾州太子禪院善昭禪師法嗣

潭州興化禪院慈明禪師

諱楚圓。姓李氏。全州人也。童稚神悟。迥與眾殊。依隱靜寺出家受具。攝衣遊方。徧參知識。最後訪汾陽昭禪師。昭預謂首座曰。非久當有異僧至。傳持吾道。

一日。遂率首座遊山。座曰。何往。

昭曰。接待者去。

座曰。老和尚顛倒作什麼。

昭曰。但去遊山。遂步林間。果逢師至。乃曰。此真吾侍者矣。

即與同歸。令造丈室。一言玄契。洞徹心源。執持巾瓶。經于一紀。後欲辭行。昭乃謂曰。子之法器。吾已久知。吾在首山先師處親證三昧王。研窮的要。今付於汝。汝善護持。宜往南方。大興吾道。

師受囑已。徑造江西筠州洞山寶禪師法席。終日壁坐。寶即異之。下而問曰。達磨九年面壁。意旨如何。

師云。空腹高心。

翌日。寶陞座。推為導首。

師出世四十年。五坐道場。都尉李侯遵勗奏賜章服。師號。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會麼。昔曼殊大士於靈山會上。十萬眾前。將末後一槌以為第一義句。今日上首倒行此令。且道與昔是同是別。若乃斷得。不用揚眉。其或未明。有疑請問。

問。郡侯勤重請。法駕渡湘江。擲鉢峰前事。請師為舉揚。

師云。風不來。樹不動。

僧曰。忽遇作家。祇與麼還當不當。師便喝。

僧曰。氣急殺人。

師云。三十年後來。與爾二十棒。

問。如何是難思之法。

師云。山僧今日敗闕。

僧曰。與麼則昔日五千增上慢。今朝大眾息疑情。
師云。被此一問。直得冰消瓦解。
僧曰。學人罪過。
師云。知過必改。
問。如何是奪人不奪境。
師云。神會曾磨普寂碑。
僧曰。如何是奪境不奪人。
師云。須信壺中別有天。
僧曰。如何是人境兩俱奪。
師云。寰中天子。塞外將軍。
僧曰。如何是人境俱不奪。
師云。明月清風任去來。
問。如何是佛。
師云。面如滿月。目如蓮。天上人間咸恭敬。
問。古人面壁。意旨如何。
師云。有年無德。
問。師登四處花王座。隻履西歸事若何。
師云。虛空無障礙。南北任昇騰。
僧曰。謝和尚答話。
師云。閑者閑兮忙者忙。
問。三門不閉即不問。枯木堂前事若何。
師云。也好消息。
僧曰。一人有慶。兆民賴之。
師云。千古有知音。僧禮拜。師便喝。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有錫降龍虎。
僧曰。忽遇上上人來又如何。
師云。無心伏鬼神。
問。海上雲遊時如何。
師云。苦。
師云。五峰岌岌。獨露太虛之中。布水滔滔。冷瀉碧霄巖畔。龍潭幽僻。遊魚透即無門。天柱山高。水雲進而無路。垂鈎四海。少遇寧龍。一句當鋒。罕逢知己。所以三玄權設。應病施方。四揀開遮。觀根逗誘。過去諸佛。悲願難窮。西祖東流。不忘付囑。河沙知識。善巧多方。萬派同源。皆歸大海。且道水不洗水一句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試出來道看。設爾道得。個儻分別。也未夢見衲僧脚跟。卓拄杖。下座。

上堂云。諸佛放光明。助發實相義。拈拄杖云。遮箇是南源拄杖子。阿那箇是實相義。爾若見去。被見聞所轉。若也不見。行脚眼在什麼處。喝一喝。下座。

上堂。良久。云。有時先照後用。有時先用後照。有時照用同時。有時照用不同時。所以道。有明有暗。有起有倒。乃喝云。且道是照是用。還有人緇素得麼。若有。試出來呈醜拙看。若無。山僧今日失利。

上堂云。摩竭提國。水泄不通。少室峰前。親行此令。作麼生是此令。還有道得底麼。和泥合水道將來。有麼。良久。云。遊子乍聞征袖濕。佳人纔唱翠眉低。一喝。

上堂云。說佛說祖。和泥合水。向上向下。衲僧破草鞋。總不恁麼。無繩自縛。且道獨脫一句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試對眾道將一句來。有麼。有麼。良久。云。塚上更加泥。喝一喝。

上堂云。吾有一言。絕慮忘緣。巧說不得。祇要心傳。更有一語。無過直舉。且道作麼生是直舉一句。良久。以拄杖畫一畫。喝一喝。

上堂云。靈山一會。千聖共臻。釋主瞬眸。飲光微笑。衲僧門下。猶在半途。且道全提一句作麼生道。良久。云。憐兒不覺醜。卓拄杖一下。

上堂云。昨日作嬰孩。今朝年已老。未明三八九。難踏古皇道。手掩黃河乾。脚趂須彌倒。浮生夢幻身。人命夕難保。天堂與地獄。皆由心所造。南山北嶺松。北嶺南山草。一雨潤無邊。根苗壯枯橋。五湖參禪人。可問虛空討。死脫夏天衫。生披冬月襖。分明無事人。特地生煩惱。唱一喝。

上堂云。萬機遊刃。終日弘道。豬肉按頭事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若也道得。倒道將一句來。良久云。金鎖連環。刀挑不出。喝一喝。

上堂云。昨夜漫天總雪。大地一時皎潔。今朝庭際無人。莫道山僧不說。

上堂云。鉢盂羸。鑊(許運切)子細。匙筯短長無一截。有時應供與誰論。嗟嘆文殊與彌勒。久立聖眾。珍重。

上堂云。太陽昇。南北走。夜月圓。天未曉。鼻孔裡藏身一句即不問。爾諸人脚跟下一句作麼生道。還有道得底麼。良久。云。相識滿天下。知心有幾人。喝一喝。

師室中插劍一口。以草鞋一對。水一盆。置在劍邊。每見入室。即云。看看。有至劍邊擬議者。師云。嶮。喪身失命了也。便喝出。

筠州太愚山興教守芝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天寒日短。
問。馬師未見讓師時如何。
師云。緊。
僧曰。見後如何。
師云。切。
問。如何是洪州境。
師云。藤王閣下千江秀。孺子庭前薄霧生。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出入敲金鏡。朱衣對錦屏。
問。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真實事。請師舉。
師云。兩段不同。向下文長。
問。滿身是眼。口在什麼處。
師云。三跳不過。
僧曰。學人不會。特伸請益。
師云。章底詞秋罷。歌韻向春生。
上堂云。翠巖路嶮巖。舉步涉千溪。更有洪源水。滔滔在嶺西。擊禪床一下云。久立。珍重。
上堂云。槌鍾擊鼓。聚集禪徒。上來下去。子承父業。賺多少人。擊禪床一下。
上堂云。端然踞坐。度脚買鞋。左顧右視。不準一錢。打禪牀云。珍重。
上堂云。火生於木。非自佗來。青出於藍。不同受染。人人共喫一莖齏。若更覓一莖喫。入地獄如箭射。
上堂云。法鼓纔動。大眾雲集。三世諸佛。二十八祖還來參麼。如有一人不到。各與二十棒。何故如是。得人一牛。還人一馬。
上堂。大眾集定。師云。現成公按也是打撲不辨。擊禪牀。下座。
上堂。擎起香合。示眾云。明頭合。暗頭合。道得。一任橫行。道不得。且合却。便下座。
上堂云。沙裏無油事可哀。翠巖嚼飯餒嬰孩。佗時好要智端的。始覺從前滿面灰。珍重。
上堂云。雲收霧卷。江山皎日。擬話多途。又拈不出。打禪牀。下座。
上堂云。十地心驚。二乘罔測。衲僧門下。銅頭鐵額。擊禪牀。下座。
上堂云。大洋海底排班位。從頭第二鬢毛斑。為甚不到第一鬢毛斑。要會麼。金蘂銀絲成玉露。高僧不坐鳳凰臺。擊禪牀。下座。

上堂云。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翠巖即不然。三門前好與三十棒。何謂如此。棒喝齊施已早賒。古今皆贊絕周遮。二途不涉憑何說。南海波斯進象牙。擊禪牀云。珍重。

滁州瑯琊山開化廣照禪師

諱惠覺。西洛人也。父為衡陽太守。因疾傾喪。師扶襯歸洛。過澧陽藥山古剎。宛若夙居。緣此出家。遊方參問。得法汾陽。應緣滁水。與雪竇明覺同時唱道。四方皆謂二甘露門也。迨今淮南遺化如在。

問。如何是佛。

師云。銅頭鐵額。

僧曰。意旨如何。

師云。烏觜魚腮。

問。阿難結集即不問。迦葉微笑事如何。

師云。剋時剋節。

僧曰。自從靈鷲分燈後。直至支那耀古今。

師云。點朱點漆。

問。如何是賓中賓。

師云。手攜書劍謁明君。

僧曰。如何是賓中主。

師云。捲起珠簾無可覩。

僧曰。如何是主中賓。

師云。三更過孟津。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獨坐鎮寰宇。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貓鼠戴紙帽。

僧曰。出水後如何。

師云。狗子著鞵行。

問。如何是無縫塔。

師云。永鎮紅霞裏。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常伴白雲眠。

問。一塵纔起。大地全收時如何。

師云。李廣射落雲中鴈。

僧曰。龍吟霧起。虎嘯風生。

師云。驚得胡兒走似煙。

問。拈槌舉拂即不問。瞬目揚眉事若何。
師云。趙州曾見南泉來。
僧曰。學人未曉。
師云。今冬多雨雪。貧家爭奈何。
問。如何是沙門行。
師云。左手畫方。右手畫圓。
僧曰。天台石橋窄。南嶽坐具寬。
師云。背上負七星。口裏念真言。
上堂云。欲知常住身。當觀爛壞體。欲知常住性。當觀拄杖子。拄杖子吞却須彌。須彌吞却拄杖子。衲僧到遮裏若也擬議。劔梁落膊輸降款。鐵作胸襟到海隅。擊禪牀一下。
上堂云。奇哉十方佛。元是眼中花。欲識眼中花。元是十方佛。欲識十方佛。不是眼中花。欲識眼中花。不是十方佛。於此明得。過在十方佛。於此未明。聲聞起舞。獨覺臨粧。珍重。
上堂云。見聞覺知。俱為生死之因。見聞覺知。正是解脫之本。譬如師子返躑。南北東西且無定止。汝等諸人若也不會。且莫孤負釋迦老子。咄。
上堂云。山僧今日為汝諸人說破。明眼衲僧莫去泥裡打坐。珍重。
上堂云。天高莫測。地厚寧知。白雲片片嶺頭飛。淥水潺潺澗下急。東涌西沒一句即不問爾。生前殺後一句作麼生道。良久云。時寒。喫茶去。
上堂云。林間鳥叫。嶺上猿啼。萬法凝然。將何顯露。良久。云。擬議更思量。箭過新羅國。
上堂。拈拄杖云。三世諸佛在火燄裏轉大法輪。天下老和尚在百草頭上轉大法輪。山僧在拄杖頭上轉大法輪。還會麼。若也未會。拄杖子重說偈言去也。擊禪牀一下。
上堂云。阿呵呵。是什麼。開口是。合口過。輕舟短棹泛波心。蓑衣箬笠從佗破。咦。
上堂云。十方諸佛是箇爛木椽。三賢十聖是箇第溷頭籌子。汝等諸人來到遮裏作麼。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舒州法華禪院齊舉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藏頭白。海頭黑。
僧曰。汾陽嫡子。
師云。莫亂針錐。
問。如何是佛。

師云。蘆芽穿膝。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脣紅齒白。
問。如何是奪人不奪境。
師云。白菊作開紅日暖。百年翁子不逢春。
僧曰。如何是奪境不奪人。
師云。大地絕消息。倏然獨任真。
僧曰。如何是人境兩俱奪。
師云。草荒人變色。凡聖兩齊空。
僧曰。如何是人境俱不奪。
師云。清風與明月。野老笑相親。

潭州石霜崇勝院法永禪師

問。六國未寧時如何。
師云。銅柱永標蠻子國。
僧曰。寧後如何。
師云。鐵旗吹盡未灰心。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摘破香囊熏大國。鑿開天竅吼真風。
問。如何是佛。
師云。臂長衫袖短。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布袴膝頭穿。
上堂云。霜華臺上。翠色回環。枯木堂前。猿啼虎嘯。諸人到遮裏。立地觀取。便好休去歇去。其或疑情未息。狂解崢嶸。更看山僧遮一解。以拄杖卓一下。

湖州天聖皓太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黑漆聖僧。
僧曰。如何是佛法大意。
師云。看牆似土色。
問。寶劍未出匣時如何。
師云。寒光輝北斗。
僧曰。出匣後如何。
師云。群魔萬里摧。

舒州投子山圓修禪師

問。曹溪一曲師親唱。藥忌相投事若何。

師云。快人一言。快馬一鞭。

僧曰。此話三十年後盛行。

師云。莫亂統。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出口入耳。

僧曰。來後如何。

師云。叉手並足。

唐州龍潭圓禪師

師辭汾陽。汾陽云。別無送路。與子一條拄杖。一條手巾。

師云。手巾與和尚受用。拄杖不用得。

昭云。但將去。有用處在。師便收。

昭云。又道不用。師喝一喝。便下去。

昭云。已後不讓臨濟。

師云。正令已行。

昭來日送出三門。云。汝介丘逢尉遲時如何。

師云。一刀兩段。

昭云。被現那吒又怎生。師便拽拄杖。

昭喝云。遮回全體分付。

問。如何是介山境。

師云。七賢行得穩。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稚子昔遭傷。

問。昔日窮經。今日參禪。此理如何。

師云。兩彩一賽。

僧曰。作麼生領會。

師云。去後不留蹤。

僧曰。如何是佛。

師云。火燒不然。

問。古殿無佛時如何。

師云。三門前合掌。

汝州葉縣廣教歸省明壽禪師法嗣

舒州浮山圓鑒禪師

諱法遠。鄭州人也。投三交嵩禪師出家。幼為沙彌。見僧入室請問趙州庭栢因緣。嵩詰其僧。師傍有省。

後遊諸方。遍歷叢席。知識堂奧。步武軒昂。禪林命曰遠公虎子。葉縣省老。汾陽昭師。大陽明安。瑯琊廣昭。悉延前席。為眾領袖。開堂拈香語云。汝海枯木上生花。別迎春色。由是道風大扇。德望愈馳。祖印高提。黠慧資俗。因又目之錄公名耳。緣盡化終。坐滅本山。

開堂日。示眾云。看風使帆即不可。若教山僧舉揚宗旨。據令全提。三世諸佛盡乃平沈。法堂階前草深一丈。然雖如是。且向建化門中。事無一向。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八十翁翁輓繡毬。

僧曰。一句迴然開祖胄。三玄戈甲振叢林。

師云。李陵元是漢朝臣。

問。大善知識須具出人眼。如何是出人底眼。

師云。黃河九曲。

僧曰。真善知識。

師云。陝府鐵牛。

僧曰。如何是清淨法身。

師云。寸絲不掛。

問。如何是佛。

師云。大者如兄。小者如弟。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平地起骨堆。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焦輒打著連底凍。

僧曰。出水時如何。

師云。洋瀾左裡。無風浪起。

問。周行七步。猶涉繁詞。指天指地。意在於何。

師云。當鋒不點的。旌旗兩路分。

僧曰。法海之中。自得其用。

師云。不因子置問。憶得富樓那。

問。祖師門下。壁立千仞。正令當行。十方坐斷。和尚將何表示。

師云。寒猫不捉鼠。

僧曰。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波斯不繫腰。

問。新歲已臨。舊歲何往。
師云。目前無異怪。不用貼鍾馗。
僧曰。畢竟事如何。
師云。將謂目前無。
僧以手畫云。爭奈遮箇何。師便打。
師與待制王公論道。畫一圓相。問曰。一不得匹馬單槍。二不得衣錦還鄉。鵠不必喜。鴉不必歿。速道。速道。公罔措。
師云。勘破了也。
上堂云。昨日拈香。擬為汾陽和尚。又緣孤佗葉縣老人。既為葉縣老人。又乃孤負佗汾陽和尚。然雖如是。一客不煩兩主。一鳥不棲二林。於此二途。須至一決。何故。成山假就於始簣。脩途託至於初步。如斯更不向汾陽浪裏競棹孤舟。却向汝海枯木上生花。別迎春色。
上堂云。靈山會上盡被欺謾。少室峯前知而故犯。胡言易會。漢語難明。澤廣藏山。理能伏豹。且道不負時機作麼生道。拈拄杖云。星河秋一鴈。砧杵夜千家。
上堂云。更莫論古話今。祇據面前事。與爾諸人定奪區分。
僧便問。如何是目前事。
師云。鼻孔。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眼睛。
師云。若是論宗舉要。須是本色衲僧始得。其或皮肉之流。心眉之侶。身遭影射。病在藥端。迹浪分岐。難諧湊泊。何謂也。龍象蹴蹋。非驢騾所堪。然雖如是。大樹大皮裹。小樹小皮纏。
上堂云。若論此事。如兩家著碁相似。何謂。敵手知音。當機不讓。若是綴五饒三。又通一路始得。有一般底。祇解閉門作活。不會奪角衝關。硬節與虎口齊彰。[戶@句]破後。徒勞綽幹。所以道。肥邊易得。瘦肚難求。私行而往往失黏。心羸而時時投撞。休誇國手。謾說神仙。羸[戶@句]輸籌即不問。且道黑白未分時。一著落在甚處。良久。拈拄杖云。從前十九路。迷悟幾多人。
上堂。大眾纔集。師云。不鼓自鳴。好與三十棒。
上堂云。我有一句子。待無舌人問。我即道。下座。
上堂云。闍梨知有處。老僧道不得。老僧知有處。闍梨道不得。良久。云。道不得處。切須道取。臘月三十日。憑爾鴈南飛。珍重。
上堂云。未徹底人。參句不如參意。大徹底人。得意不如得句。以拄杖一卓。下座。

汝州寶應禪院法昭演教禪師

問。如何是人法本來齊。
師云。白牛耕大地。觸目是全真。
問。如何是趙州東院西。
師云。超然無間斷。密印付長空。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虛空無筋骨。
僧曰。佛出世後如何。
師云。大地起紅塵。
問。如何是大自在正眼。
師云。大洋海內獨橫身。
僧曰。恁麼則知難而退。
師云。禍福無門人自召。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燈和夜月連天照。
僧曰。意旨如何。
師云。火飛嶽面紅塵起。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少林巖畔千峰秀。
僧曰。如何委悉。
師云。汝海東流耀古今。
問。如何是法王法。
師云。長三尺。
僧曰。用者如何。
師云。鬧市看青天。
問。如何是本來心。
師云。頭大尾小。
僧曰。如何得見。
師云。地深三尺餘。
問。如何是隨色摩尼珠。
師云。逢場作戲。
僧曰。作家相見時如何。
師云。換手槌胸。
問。如何是古佛心。
師云。殺人放火。
問。本自湛然時如何。
師云。喫棒。
僧曰。未審過在甚處。
師云。再犯不容。

問。如何是和尚妙用底心。

師云。踏地槌胸。

僧曰。不會。請師別道。

師云。大眾齊合掌。一時念彌陀。

問。達磨面壁九年。意旨如何。

師云。大地白如銀。

僧曰。恁麼則觸處罷真空。

師云。汝海任東流。

問。師子吼時全意氣。文殊仗劍意如何。

師云。三春花爛熳。萬古看巖崖。

僧曰。塵劫永罷。

師云。巧說千般計。一失更難回。

問。文殊贊善財即不問。維摩默然事如何。師槌胸三下。

僧曰。向上事如何。

師云。休鬼語。

問。擬伸一問。即為影草時如何。

師云。截舌三分。

僧曰。意旨如何。

師云。莫遣異人聞。

問。一言合道時如何。

師云。七顛八倒。

僧曰。學人禮拜。

師云。教休不肯休。直待雨霖頭。

上堂云。湛寂之機。超然物外。達本無生。含融萬有。靈山會上。事已周遮。寶應今朝。為蛇畫足。禪德。爾若信得徹去。便超凡越聖。與祖佛同途。爾若覓言覓句。覓佛覓祖。展轉勿交涉。賺爾。珍重。

上堂云。寒松千尺。瑞鶴難棲。月冷潭澄。遊魚不現。若到寶應門下。直須具眼。定動之間。喪却身命。見箇甚麼。參。

上堂云。十二時中許爾一時絕學。即是學佛法。不見阿難多聞第一。却被迦葉擯出。不得結集。方知聰明博學。記持憶想。向外馳求。與靈覺心轉勿交涉。五蘊殼中透脫不過。順情生喜。違情生怒。蓋覆深厚。自纏自縛。無有解脫。流浪生死。六根為患。眾苦所逼。無自由分。而被妄心於中主宰。大丈夫兒。早構取好。喝一喝云。參。

上堂。良久。云。無事不要生事。冬寒夏熱。參。

上堂云。若論此事。從古至今未曾有人舉唱得。若有舉唱得。盡大地人失却性命。如無孔鐵鎚相似。一時亡鋒結舌去。猶較些子。會

麼。我若假立箇賓主。動遮兩片皮。舉指頭。拈拂子。顛倒順爾。便教爾有箇問處。遇明眼人前。拈掇不出。見佗魯祖和尚。纔見僧來便面壁。被長慶道。恁麼接人。驢年也接箇不得。我如今看魯祖。祇是箇不識羞漢。諸人行脚。合自肯重取好。

唐州大乘山慧果禪師

問。如何是道。
師云。寬處寬。窄處窄。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苦處苦。樂處樂。
僧曰。道與道中人相去多少。
師云。十萬八千。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天晴日出。
僧曰。意旨如何。
師云。雨下雲生。

襄州石門山蘊聰慈照禪師法嗣

唐州大乘山德遵禪師

問慈照。古人索火。意旨如何。
照云。任佗滅。
師云。滅後如何。
照云。初三十一。
師云。正好時節。
照云。見什麼道理。
師云。今日好困。因而有頌。
索火之機實快哉。藏鋒妙用少人猜。
要會我師親的旨。紅爐火盡不添柴。
問。如何是佛。
師云。及時供養。
僧曰。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鼻大口方。
師云。上來又不問。下去又不疑。不知是不是。是即也大奇。良久云。參。

湖州景清禪院居素明照禪師

問。即此見聞非見聞。為什麼法身有三種病。二種光。

師云。填凹就缺。

問。如何是觀音入理之門。

師云。鴉鳴鵲噪。

問。見聞覺知曾受用。為什麼無眼症人却不肯。

師云。堪笑胡僧暗點頭。

潤州金山達觀禪師

諱曇穎。錢唐人也。姓丘氏。於龍興寺投師出家受具。通貫竺書。博涉儒典。復參知識。體究真乘。後依慈照禪師法席。密契宗旨。三十餘年。五遷大刹。道譽益崇。縑素忻仰。亟相王文康公曙。夏文莊公竦。節度使李公端懿。端愿。咸扣玄關。敬以師禮。時錄其語。目曰登門集。嘉祐五年正月旦日。陞堂辭眾。復歸丈室。趺坐而滅。

開堂日。有僧出眾擬欲伸問。師喝云。汝擬奪我法席那。僧擬議。師云。出去。良久。云。重開佛日。再扇祖風。還有不落照臨者。致將一問來。

問。優曇花易見。善知識難逢。朝宰親臨。請師提唱。

師云。當初比望釣靈鼈。今日何期得跛鼈。

僧曰。且請領話。

師云。俊鷄已過海。鈍鳥猶挨籬。

僧曰。當機一句。迴然峭拔。

師拍手云。叱。叱。

問。塞却咽喉唇吻。請師道。

師云。是我咽喉唇吻。汝作麼生塞得。

僧曰。恁麼則學人罪過。

師喝云。若不是藏院和尚在此。爛槌一頓。

問。經文最初兩字是什麼字。

師云。以字。

僧曰。有什麼交涉。

師云。八字。

僧曰。好賺人。

師云。謗此經故。獲罪如是。

問。一百二十斤鐵枷教阿誰擔。

師云。老僧。

僧曰。自作自受。
師云。苦。苦。
問。和尚還曾念佛也無。
師云。不曾念佛。
僧曰。為什麼不曾念。
師云。怕污人口。
問。馬大師一喝。百丈三日耳聾。意旨如何。
師云。我一生不曾著人喝。一生耳聾。
僧曰。如何領會。
師云。近來又眼暗。僧禮拜。
師云。眼昏書字大。耳重語聲高。
問。淨地上死人即不問。荊棘林過後又如何。
師云。波斯合梵讚。
僧曰。善法堂前也要問過。
師云。契丹舞番曲。
僧曰。待將達觀今朝語。舉向諸方作者看。
師云。此地無通事。終須問大鄉。
僧出禮拜。師云。遮僧却曾同參來。僧無語。
師云。若不同床臥。爭知被裏穿。
上堂云。纔涉唇吻。便落意思。並是死門。故非活路。直饒透脫。猶在沈淪。莫教孤負平生。虛度此世。要得不孤負平生麼。拈拄杖云。須是莫被拄杖謾始得。看看。拄杖子穿過汝諸人鬪體。踣跳入鼻孔裏去也。卓一下。
上堂。眾集定。首座出禮拜。師云。好好問著。
首座低頭問話次。師云。今日不答話。便歸方丈。
上堂云。山僧門庭別。已改諸方轍。為文殊拔出眼裏楔。教普賢休嚼口中鐵。勸人放開髻(枯駕切)蛇手。與汝斫却繫驢橛。駐意擬思量。喝云。捏。捏。參。
上堂云。山僧平生意好相撲。祇是無人搭對。今日且共首座搭對。捲起袈裟下座。索首座相撲。
首座纔出。師云。平地上喫交。便歸方丈。
上堂云。三世諸佛是奴婢。一大藏教是涕唾。良久。云。且道三世諸佛是誰奴婢。乃將拂子畫一畫。云。三世諸佛過遮邊。且道一大藏教是誰涕唾。師乃自唾一唾。
上堂云。秤槌井底忽然浮。老鼠多年變作牛。惠空見了拍手笑。三脚獼猴差異猴。
上堂云。五千教典。諸佛常談。八萬塵勞。眾生妙用。猶未是金剛眼睛在。如何是金剛眼睛。良久云。瞎。

上堂。大眾集定。有僧纔出禮拜。師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

僧便問。如何是時節因緣。師便下座。

杭州龍華寺齊岳寶覺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鳳凰當丙案。漢水向東流。

僧曰。谷隱嫡子。臨濟兒孫。

師云。白雲橫谷口。樵子問蹤由。

問。如何是佛。

師云。鼻修額廣。

僧曰。意旨如何。

師云。柳目楊眉。

蘇州洞庭山慧月禪師

問。如何是翠峯境。

師云。山高月先照。湖近水浮光。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凭欄看遠棹。策杖指前峯。

問。俱胝一指意如何。

師云。月落三更穿市過。

明州杖錫修己禪師

問。如何是無縫塔。

師云。四楞著地。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高枕無憂。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舶船過海。赤脚回鄉。

洪州雙林寺己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鳳凰林下好商量。

僧曰。恁麼則汝水東流。臨濟宗派。

師云。咫尺隔天涯。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青松相對起悲風。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人平不語。水平不流。
問。如何是雙林境。
師云。紅霞生碧嶠。綠竹引清風。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前三三。後三三。
問。單刀直入時如何。
師云。據令而行。僧應諾。師便打。

襄州谷隱山可琮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山連嵩嶽秀。水接漢江流。
問。如何是佛。
師云。積薪放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日出東方。光臨西戶。

撫州疎山古禪師

問。師今登寶座。祖道嗣何人。
師云。獨秀山高。鳳凰嶺峻。
僧曰。恁麼則石門嫡子。臨濟兒孫。
師云。一手不獨拍。

越州雲門山顯欽禪師

上堂。良久云。好箇話頭。若到諸方。不得錯舉。便下座。

湖州安吉上方新禪師

問。色心不二。彼我無差。離此二途。師意如何。
師云。廓落無依青嶂外。
僧曰。未曉端的。
師云。白雲不到紫霄峰。

僧曰。恁麼則見月休觀指。
師云。作麼生是月。僧擬議。師便喝。

處州仁壽嗣珍禪師

問。知師已得禪中旨。當場一句為誰宣。
師云。土鷄瓦犬。
僧曰。如何領會。
師云。門前不與山童掃。任意拙釵滿路岐。
問。如何是南明境。
師云。亭臺千界月。花木四時春。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身披穿破衲。背負斷絃琴。
上堂云。明明無悟。有法即迷。日上無雲。麗天普照。眼中無翳。空本無花。無智人前。不得錯舉。良久。云。但恁麼。

杭州承天辯元禪師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水底不見。
僧曰。出水後如何。
師云。馨香滿路。
上堂云。春風膏雨霽。寒食四隣清。若話西來意。迢迢十萬程。

蘇州翠峰山普禪師

問。昔日梵王請佛。蓋為群生。今朝王臣請師。如何為眾。
師云。言前道斷無方外。意外全提有象先。
僧曰。大眾證明。學人有賴。
師云。莫謂壺中別有天。

泉州棲隱院自然禪師

問。老胡出世。目顧四方。和尚出世。如何表示。
師云。清氣為天。濁氣為地。
僧曰。恁麼則信手拈來草。
師云。有甚交涉。

汝州廣慧院居璉真惠禪師法嗣

東京華嚴院道隆圓明禪師

問。有情之本。依智海以為源。含識之流。總法身而為體。離此二途。請師別道。

師云。木馬晝嘶。泥牛夜吼。

僧曰。恁麼則一言纔出。四眾霑恩。

師云。莫埋沒大眾。

問。如何是道。

師云。高高低低。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脚瘦草鞋寬。

師云。有問還遭點。無言又被呵。再為通消息。蟾桂葉婆娑。蓋為眾生浩浩。逐本末以何歸。處世茫茫。據生死而何託。自是業塵繫絆。意網蒙遮。不能反己回光。心源自照。名相分別。與道差殊。建立乖真。非干造化。若乃盡令提綱。真金也須失色。久立。珍重。

臨江軍慧力院慧南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鐵牛不喫欄邊草。直上須彌頂上眠。

僧曰。恁麼則昔向汝陽親得旨。臨江今日大敷揚。

師云。禮拜了退。

問。如何是佛。

師云。頭大尾小。

僧曰。學人未曉。

師云。眉長三尺二。

僧曰。人人皆頂戴。見者盡攢眉。師長噓一聲。僧拍手一下。便禮拜。

師云。一任[跳-兆+孛]跳。

汝州廣慧德宣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仲氏吹壎。(吁圓反)伯氏吹簫。(除奇切)。

僧曰。恁麼則廣慧嫡子。首山之孫。

師云。切莫錯商量。

潭州神鼎山鴻謹禪師法嗣

澧州夾山靈泉子英禪師

問。如何是夾山境。

師云。舉世盡聞猿抱子。有誰曾見鳥銜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牧童歌曠野。樵父笑深雲。

問。久負沒絃琴。請師彈一曲。

師云。擔版漢。

僧曰。一堂風冷澹。千古意分明。

師云。是什麼曲調。

問。如何是正法眼。

師云。日出扶桑照大千。

上堂云。梅天霖雨任沉暝。困倦難教味鶴形。不睡眠開心不異。非聞朝暮更惺惺。大眾。睡底自有睡底道理。不睡自有不睡底道理。

忽有人出問。如何是不睡底眼。

良久。云。日月不行忉利天。下座。

隨州善光山蘭禪師

問。玄機歷掌人皆嚮。今日當筵願指南。

師云。海門橫鐵柱。

僧曰。恁麼則神鋒不露頂。

師云。陸地釣魚舟。

僧曰。且禮三拜。師便打。

師云。一見一切見。處處皆成現。龍門透過時。口裏無釣線。參。

天臺妙智寺光雲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東籬黃菊。

僧曰。意旨如何。

師云。九月重陽。

上堂。拈拄杖云。看看。祖師來也。汝等諸人於此薦取。若薦得。便請丹霄獨步。若薦不得。不免少林冷坐。卓一下。

潭州龍興禹禪師

問。郡僚僉請師登座。為人一句望宣揚。

師云。海晏河清。

僧曰。玄關已剖人皆聳。物外高奇鳥道分。

師云。四海歌謠賀太平。

上堂云。大道不遠。至理非遙。動靜卷舒。無非佛事。恁麼說話。笑殺傍觀。且道如何得相應去。良久。云。千言萬語無人會。又逐流鶯過短牆。咄。

江陵開聖院寶情山主

問。如何是開聖境。

師云。三鳥引路。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二虎巡山。

建中靖國續燈錄卷第四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一世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法嗣

越州天衣山義懷禪師

姓陳氏。溫州樂清人。母因夢星殞于庭。祥光滿室。已而誕。師幼寡言笑。出語異眾。投誠出家。其受業師預夢神人告曰。明日法王來也。翌旦師至。即異待之。受具後。聞講經云應無所住而生其心。微有省悟。發問誥難。眾莫能對。

及遊諸方。徧參知識。印可雖眾。未罄宗旨。後抵都下。遇言法華。拊師背曰。雲門。臨濟也。遂造蘇州翠峰明覺禪師法席。因汲水次。擔墮于地。豁然大悟。顯即印可。後住鐵佛。投子。柁林。廣教。景德。杉山。天衣。薦福。道化盛行。嗣法者悉世龍象。學士蘇澥。吏部蘇注。皆以師敬。

問。如何是佛。

師云。布髮掩泥。橫身臥地。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任是波旬也皺眉。

僧曰。恁麼則謝師指示。

師云。西天此土。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泛杯千頃浪。登嶺萬重山。

問。如何是不動尊。

師云。一手提不起。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進上 聖明君。

問。門庭肅靜。賓主歷然。不落化門。請師便道。

師云。陽氣發時無硬地。

僧曰。猶是建化門中。請師別道。

師云。枯木無花莫怨春。

問。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作麼生是難思底句。

師云。與人作榜樣。
僧曰。恁麼則人天奔浪也。
師云。爾到他處作麼生舉。
僧曰。大家要分明。
師云。德山。臨濟權且寄庫。
問。投子下禪床。意旨如何。
師云。前頭是三門。中間是佛殿。
僧曰。忽遇客來。如何看待。
師云。水到渠成。隨後便打。
問。一言相契時如何。
師云。喫棒了退。
僧曰。三十年後。不忘師恩。師打一棒。
問。學人上來。請師說法。
師云。林間鳥噪。水底魚行。
問。三界無家。師歸何處。
師云。竹密不妨流水過。山高豈礙白雲飛。
僧曰。莫便是和尚安身處也。
師云。日出東方夜落西。
問。舊店新開時如何。
師云。汝不是南番舶主。
僧曰。開後如何。
師云。還我話頭來。
僧曰。遇舶主來時如何。
師云。想君不是金牙作。僧擬議。師便喝。僧亦喝。
師云。齊後鍾。
上堂云。雲生谷口。水滴懸崖。猿嘯孤峯。鴈橫碧落。眼睛定動。鼻孔遼天。箭發離絃。新羅國裏。便下座。
上堂。良久。云。物境蕭條。寒風刮地。渡水胡僧。泛杯道士。築著磕著。稽首不審。若問彼彼來由。各各隨浪逐浪。
上堂云。闍王殺父。圓悟無生。善星出家。生陷地獄。彼亦丈夫。各自退屈。通身是眼。見處偏枯。截斷眾流。正是隨波逐浪。諸仁者要會麼。冬瓜長籠侗。瓠子曲彎彎。
上堂云。波澄鏡靜。魚龍可觀。手內絲綸。復將何用。東西浩渺。南北茫然。一笛橫吹。長天萬里。
上堂云。須彌頂上不扣金鐘。畢鉢巖中無人聚會。山僧倒騎佛殿。諸人反著草鞋。朝遊檀特。暮到羅浮。拄杖針筒。自家收取。
上堂云。衲僧橫說豎說。未知有頂門上眼。
時有僧問。如何是頂門上眼。

師云。衣穿瘦骨露。屋破看星眠。

問。如何是古佛機。

師云。得。僧無語。

師云。盡乾坤大地人。總解書。總識字。且道是那箇得字。試定當看。若定當得。許爾具正法眼。

上堂云。林間翠竹。陌上黃花。主伴交參。共談斯事。不用南詢諸友。東見文殊。一時向目前參取。行脚事畢。

上堂。大眾集定。云。上來打箇不審。能消萬兩黃金。下去打箇珍重。亦消得四天下供養。若作佛法話會。滴水難消。若作無事商量。眼中著屑。且作麼生即是。良久。云。還會麼。珍重。

上堂云。夫為宗師。須是奪耕人之牛。飢人之食。遇賤即貴。遇貴即賤。奪耕人之牛。令他苗稼豐登。奪飢人之食。令他永絕飢渴。遇賤即貴。握土成金。遇貴即賤。變金成土。老僧亦不奪耕人之牛。飢人之食。何謂。耕人之牛。我復何用。飢人之食。我復何餐。我也不握土成金。也不變金作土。何也。金是金。土是土。玉是玉。石是石。僧是僧。俗是俗。古今天地。古今人倫。古今日月。雖然如此。打破大散關。幾箇迷逢達磨。

上堂云。一鉗一鎚。抽釘拔楔。大唐鼓鞞。新羅打鐵。諸仁者。盡乾坤大地是箇槌。且道栖在什麼處。若更問爾麼鉗。與山僧一時敗關。參。

上堂云。鴈過長空。影沈寒水。水無沈影之心。鴈無遺蹤之意。若能如是。方解向異類中行。不用續覺截鶴。夷嶽盃壑。放行也。百醜千拙。收來也。攣攣拳拳。用之。則敢與八大龍王鬪富。不用。都來不直半分錢。參。

上堂云。觸體常干世界。鼻孔摩觸家風。芭蕉聞雷開。葵花隨日轉。諸仁者。芭蕉聞雷開。還有耳麼。葵花隨日轉。還有眼麼。若也會得。西天即是此土。若也不會。七九六十三。收。

上堂云。雲籠古殿。迦葉攢眉。露滴堦墀。空生淚泣。森羅舉唱。孰是知音。水乳難分。鵝王善別。忽然頂門眼開。莫道山僧壓良為賤。下座。

上堂云。夫宗師提談祖道。有自受用三昧。他受用三昧。若論自受用三昧。三世諸佛立在下風。文殊提鞋。普賢挈杖。未為分外。放一線道。說他受用三昧。一塵一佛土。一葉一釋迦。重重樓閣。無盡善財。眼底是眼底彌勒。立底是立底釋迦。所以病有千差。藥興萬種。

二千年前。靈山會上有五百比丘得四禪定。具五神通。以宿命智各各見過去殺父。殺母。殺阿羅漢及諸重罪。於自心內各懷疑怖。於是文殊手握利劍。以逼如來。世尊謂文殊曰。住。住。不應作逆。

句得害我。我必被害。為善被害。文殊師利。從本已來。無有我人。但以內心見有我人。內心起時。我必被害。即名為害。於是五百比丘各各自悟本心。如夢如幻。於夢幻中無有父母。能生。所生。乃至殺阿羅漢等。五百比丘異口同音。乃讚文殊云。文殊大智士。深達法源底。自手握利劍。持逼如來身。如劍佛亦爾。一相無有二。無相無所生。是中云何殺。諸仁者。作麼生說箇如劍佛亦爾。

拈拄杖云。看看。文殊菩薩變作柳[木*栗]拄杖。在山僧手裏。良久。云。爾若近前。却變作金剛寶劍。爾若退後。却變作德山。臨濟。蔡州箇箇瓦解冰消。擊禪床。下座。

上堂云。靈源絕跡。普現色身。法離斷常。有無堪示。所以道。塵塵不見佛。剎剎不聞經。要會靈山親授記。晝見日。夜見星。良久。云。若到諸方。不得錯舉。參。

信州廣教景先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
僧曰。不覩雲中鴈。焉知沙塞寒。
師云。胡言易會。漢語難明。

饒州妙果院自政禪師

問。香風滿路人皆委。一朵蓮開事若何。
師云。相識滿天下。
僧曰。一堂風冷澹。千古意分明。
師云。祇恐不是玉。
僧曰。適來已蒙師指示。人天一會盡霑恩。
師云。切忌盈虛。

舒州東禪院賢禪師

問。說佛說祖。魔魅家風。演妙談真。未為極則。去此二途。請師別道。
師云。放汝三十棒。僧便喝。
師云。罪不重科。僧以手畫一畫。
師云。野狐精。
僧曰。且禮和尚三拜。

師云。一任[跳-兆+孛]跳。

蘇州薦福知一禪師

問。知師久唱韶陽曲。北斗藏身事若何。

師云。片帆離古岸。

僧曰。恁麼則雲門重孫。雪竇嫡子。

師云。風送過滄洲。

上堂云。雪嶺泥牛吼。雲門木馬嘶。巨靈分大華。巖子隱深谿。

越州天衣在和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人將語試。水將杖探。

僧曰。廓周沙界。

師云。一夜歌開盡。百花猶未知。

湖州海會擇芝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寶鏡當臺。

僧曰。恁麼則雪竇嫡子。

師云。窺天鑿地。

越州稱心省倥禪師

問。已赴稱心。將離雙澗。如何是不動尊。

師云。上馬見路。

僧曰。恁麼則動而常寂。

師云。千里萬里。

問。五葉香風清宇宙。師今得法嗣何人。

師云。言前打當。句後分明。

僧曰。恁麼則黃河清有日。雪嶺木人懼。

師云。且喜勿交涉。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行人念路。

僧曰。學人不會。

師云。繫帛草鞋。

問。學人未識佛性。乞師指箇入頭。
師云。一雨普霑。千山秀色。
僧曰。未審如何保任。
師云。退身三步。
問。如何是道。
師云。縱橫十字。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相逢不下馬。各自有前程。
上堂云。佛種從緣起。是故說一乘。拈拄杖云。拄杖是緣。那箇是佛種。拄杖是一乘法。那箇是緣。遮裡參見釋迦老子了。却買草鞋行脚。不得向衲僧門下過。打折汝腰。且道衲僧據箇什麼。良久。云。三十年後莫孤負人。卓一下。

明州上山德隆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有時直上孤峰頂。月下披雲嘯一聲。
僧曰。乳峰一枝。此日獨秀。
師云。龍蛇易辨。衲子難瞞。
僧曰。謝師方便。
師云。一撥便轉。

越州稱心清演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紅日一輪。
僧曰。學人不會。
師云。清風四起。
僧曰。恁麼則雪竇嫡子。
師云。莫亂道。

明州岳林藏院宗善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深耕淺種。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田舍奴。
問。如何是末上消息。

師云。獨掌不浪鳴。僧禮拜。師便打。

杭州證聖守環禪師

問。金輪示跡。玉鬣垂芳。古路坦然。如何舉唱。

師云。千年常住一朝僧。

僧曰。恁麼則雲生嶺上。

師云。更有奇特麼。僧便喝。師亦喝。

僧曰。兩重公案。師噓一聲。

杭州承天傳宗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機輪纔轉。千眼頓開。智刃一揮。十方肅靜。有何俊士。不避死生。剔起眉毛。出眾相見。

問。如何是諸佛本源。

師云。千江流白月。

僧曰。如何領會。

師云。三十年後。

問。如我按指。海印發光時如何。

師云。平地起波瀾。

僧曰。請師按指。

師云。風前聲已急。一曲過楊州。

問。如何是宗門中事。

師云。文殊有勅。

僧曰。學人請益。

師云。西天令嚴。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胡馬嘶北風。越鳥巢南枝。

問。如何是鳳凰家風。

師云。龍行虎步。

僧曰。客來將何祇待。

師云。盤裡明珠。

問。遠遠相投。請師一接。

師云。碧波千萬丈。

僧曰。乞師方便。

師云。直釣巨鼇歸。

問。久負勿絃琴。請師彈一曲。

師云。徒勞側耳。

僧曰。與麼則得聞於未聞。
師云。又被風吹別調中。
問。大用現前。不存軌則時如何。
師云。承天今日高豎降旗。僧便喝。
師云。臨濟兒孫。僧又喝。師便打。
問。如何是般若體。
師云。雲籠碧嶠。
僧曰。如何是般若用。
師云。月在清池。
師云。人天普集。賓主交馳。問者雄辯滔滔。若百川之流水。答者峻機疊疊。若圓器之傾珠。去古佛廟前。總使不著。何謂廣大門風。威德自在。不用彈指。樓閣門開。便見祖風與堯風並扇。佛日與舜日齊明。截生死流。踞祖佛位。還會麼。久立。珍重。
上堂云。上青水碧。文殊常現於目前。雨灑雲舒。普賢周徧於法界。風鳴鳥語。觀音時演於圓通。葉落花开。毗盧全示於真要。忽若騎驢入爾鼻孔裏。牽牛入爾眼睛中。又作麼生商量。參。
上堂云。聞聲悟道。猶是聽響之流。見色明心。何異眼中著屑。真如佛性。要且未出苦源。行布圓融。恰似無繩自縛。若是衲僧家。喝散白雲。衝開碧落。橫身三界。獨步大方。若不如是。徒為丈夫。喝一喝。下座。
上堂云。春風[飈-台+弗][飈-台+弗]。春鳥啾啾。綠柳溪邊半舞。桃華嶺上鬪開。翻思昔日靈雲老。直至如今不見來。拈拄杖云。來也。來也。與他穿過鼻孔。
上堂云。大眾前出來相見。也須是箇本分作家始得。應時如鋒。應機如電。點著不來。新羅國裏。珍重。
上堂云。衲僧門下。不在多端。達士相逢。非存目擊。始知拈槌舉拂。眼裏塵沙。瞬目揚眉。猶是鈍漢。直下明得。無孔鐵鎚。擬欲尋思。千里萬里。卓拄杖一下。

鼎州乾明知應禪師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撐天拄地。
僧曰。出水後如何。
師云。填溝塞壑。
上堂云。馬祖陞堂。百丈捲席。火動煙生。雲擎雨色。覲面相呈。一何輕擲。重賞三千。輕酬八百。參。

天台寶相蘊歡禪師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曾問幾人來。

問。如何是佛。

師云。堂堂八尺餘。

蘇州萬壽神初惠照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乳竇峰高翠倚天。

僧曰。恁麼則雪竇嫡子也。

師云。休向水中撈寶月。且於身上認衣珠。

潭州龍興智傳禪師

桂州陽朔人也。姓莫氏。圓頂遊方。久參雪竇。出世三湘。道歸四眾。治平中示滅。平生行住坐臥處悉涌舍利。禪徒唱得衣物者。至今舍利日生。有於真前志誠求者。隨心示應。

問。久處湖湘。擬伸一問。師還答否。

師云。何得拖泥帶水。僧便喝。

師云。一陣雨。一陣涼。僧禮拜。

師云。有頭無尾。

漢陽軍鳳棲仲卿禪師

道性超拔。學行和光。唱導鳳棲。嗣法雪竇。嘉祐中。以大藏經因緣。入京謁諸朝士。相國韓魏公頗深器之。由是翕然而就。

問。古佛出世。為大事因緣。和尚出世。當為何事。師張口吐舌。

僧曰。祇遮箇。別更有在。

師云。朝三千。暮八百。

問。百骸俱潰散。一物鎮長靈。如何是一物。

師云。苦哉佛陀耶。

僧曰。和尚還有為人處也無。

師云。弄精魂漢。

僧曰。何必如此。

師云。諱人道著。

上堂云。道無前後。達者由人。雖然根性利鈍差殊。究實元無有異。所以三乘教法。接引迷途。執相滯名。卒難造入。是故過去諸佛於此涅槃。現在諸佛於此成道。未來諸佛於此修行。不見達磨大師道。吾本來茲土。傳法救迷情。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拈拄杖云。會麼。彼一時。此一時。嵩山果熟也。一任諸人採摘。卓拄杖一下。

上堂云。巍巍堂堂。三界無雙。磊磊落落。十方寥廓。擬議則喪身失命。思量則千錯萬錯。喝一喝。下座。

溫州平陽寶慶子環禪師

問。大施門開。請師一決。

師云。風行草偃。

僧曰。一句截流又作麼生。

師云。水到渠成。

僧曰。華蓋山上雲。慎江江裏水。

師云。郎中在此。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清風來不盡。

僧曰。磨後如何。

師云。明月照重城。

僧曰。太守臨筵。請師一照。

師云。是何面孔。

僧曰。三十年後。

師云。賺殺人。師拈拄杖云。朝到西天。暮歸東土即且致。把斷要津一句作麼生道。若也道得。不出門知天下。若道不得。拄杖子笑爾。擊禪牀一下。

溫州鴈蕩靈巖寺德初禪師

問。大眾臨筵。如何舉唱。

師云。謝塘青草年年長。甌浦潮來日日新。

僧曰。莫便是為人處。

師云。且莫錯認。

問。棒喝齊收。請師相見。

師云。老僧不如汝。

僧曰。專為流通。

師云。堪作什麼。

問。心生種種法生。如何是種種法生。

師云。我與汝葛藤。

僧曰。今日已見於師也。

師云。且喜勿交涉。僧禮拜。

師云。孤負殺人。

師云。問得須彌岌峩。海水騰波。祖道門中未有少分。何故。從門入者。不是家珍。本自圓融。何須特地。便乃人人踞妙峰孤頂。箇箇徹諸法根源。不假慈氏閣中。今日一時明取。還明得也無。若也明得。故號丈夫。不孤千聖深恩。亦答 國王大化。珍重。

真州長蘆崇福禪院祖印禪師

諱智福。江州人。夏文莊之系族也。出家圓具。遂參雪竇。發明祖意。道行才智。灑然超邁。四處住持。勝緣畢集。三十年間。眾盈五百。豫章郡王宗諤。稔聞道風。遙伸師禮。奏賜章服。師名。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適來槌下。早落第二義門。敢問大眾。作麼生是第一義諦。儻或緇素未明。却請當場問過。

問。如何是教外別傳一句。

師云。問不著。

僧曰。為什麼問不著。

師云。白雲千萬里。

僧曰。學人退身三步。

師云。更待何時。

問。寶劍未出匣時如何。

師云。澁。

僧曰。出後如何。

師云。利。

問。如何是第一機。

師曰。不為鼯鼠。

僧曰。豈無方便。

師云。靜處薩婆訶。

師云。問在答處。答在問宗。一任諸人點頭。忽若問不在答處。答不在問宗。又且作麼生摸[打-丁+索]。乃展手云。無遺絲髮。一時分付。請諸人各各仔細觀瞻。甚生門風。甚生標格。儻一念回光。千聖共徹。不歷僧祇。豈勞修證。截生死河。踞祖佛位。便乃高超三界。永出四流。萬德圓明。十方獨步。可不同酬佛恩。共顯 王化。

湖州報本有蘭禪師

問。道無橫徑。立者皆危。如何是道。

師云。日耀祥光澹。

僧曰。意旨如何。

師云。風搖瑞色濃。僧禮拜。

師云。猶欠一著。

問。撥塵見佛即不問。寶劍揮空事若何。

師云。脚下看。

僧曰。脚下且致。向上事又且如何。

師云。天晴日出。雨下雲興。

問。法本無說。當說何明。

師云。水中鹽味。色裏膠青。

僧曰。便怎麼時如何。

師云。三十年後。

師云。衣中至寶。何假披沙。各自持來。復將何用。交光互入。不隱不彰。達磨九年。不敢動著。恐屈兒孫。報本不惜眉毛。普示大眾。拈起拄杖。大眾擬議。一時打殺。

上堂云。大無方。小無所。半合半開。未可相許。嶺梅初拆眾花榮。微雨微晴春力普。春力普。到頭莫問曹溪祖。

上堂云。法無有爾。理見非常。至道無當。剎塵應物。直得風行草偃。響順聲和。無纖芥可齊。是卓牌鬧市。要得不傷和氣。閑與露柱商量。苟能自契點頭。莫謂山僧多口。便下座。

越州稱心守明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道什麼。

僧曰。如何是法。

師云。道什麼。

僧曰。如何是僧。

師曰。道什麼。

僧曰。謝師重重相為。

師云。道什麼。

廬山湯院守恩禪師

問。學人上來。請師說法。

師云。花開媚景。
僧曰。恁麼則言不虛發。
師云。玉葉芬芳。

真州六合香積菟禪師

問。四山相逼則不問。六合門開事若何。
師云。七通八達。
僧曰。恁麼則妙用任縱橫。
師云。三脚蝦蟆跳上天。
問。如何是坐禪僧。
師云。萬事總無能。
僧曰。如何是入定僧。
師云。四海本澄澄。
僧曰。如何是行道僧。
師云。六合勢騰騰。
僧曰。如何是應供僧。
師云。三輪等性空。
上堂云。菩薩之道不可圖度。萬法本無。四空寧有。假無為為宗。無相為本。量包沙界。德洽乾坤。或演一乘。或垂三句。或令悟本。悉使返源。究竟之中。必無是事。了得本心心了了。山河大地亦閑閑。
上堂云。本有之心。絲毫不隔。因茲錯念。遂致邪非。垢盡遇人。使明己見。作麼生是己見。四海洪波靜。一輪天地明。

信陽軍乾明則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片雲生海嶠。一鴈過寒空。
僧曰。與麼則雪竇嫡子也。
師云。一嶺英英。六花皎皎。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清風生碧落。
僧曰。意旨如何。
師云。明月映長江。
問。如何是海印三昧。
師云。但向己求。
僧曰。學人不會。

師云。莫從他覓。
問。如何是日用道。
師云。一箭到西天。
僧云。到後如何。
師云。周徧法界。

處州南明日慎禪師

問。師子未出窟時如何。
師云。清風滿地。
僧曰。出窟後如何。
師云。群狐腦裂。
問。祖意與教意。是同是別。
師云。水天影交碧。
僧曰。畢竟是同是別。
師云。松竹聲相寒。
師云。設使問似傾湫倒嶽。東西踞地。南北知方。逆順無拘。出沒自在。盡大地草木叢林悉為智刃。且於建化門中。猶較些子。若據本分相見。可謂十萬八千。

南嶽雲峰元益首座

李林宗居士問。意欲出塵今未出。請師今日決疑情。
座云。作麼生是出塵意。士惘然。
座云。還會麼。
士忽然省悟。有頌云。
心鏡從來瑩。洪河本自深。祇因師問後。沙石化為金。
座云。正趨地獄。
士曰。人我無相。胡為地獄。
座云。汝今何在。
士曰。見今對答。
座曰。祇此是黃金。

舒州投子山法宗道者

問。如何是道者家風。
者云。袈裟裹草鞋。
僧曰。意旨如何。

者云。亦脚下桐城。

韶州南華寶緣慈濟禪師法嗣

韶州甘露山自緣禪師

問。祖意西來。乞師垂示。

師云。青山綠水長相對。

僧曰。畢竟如何。

師云。還我話頭來。

廣州興化延慶禪師

上堂云。言前薦得。孤負平生。句後投機。全乖道體。離此二途。祖宗門下又且如何。良久云。眼裏瞳兒吹木笛。

韶州永泰宗寶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千年松柏。

僧曰。忽遇容來。將何祇待。

師云。萬載一條新。

韶州寶壽行德禪師

在南華受請。恰遇新冬。師示眾云。新冬新寶壽。言是舊時言。若會西來意。波斯上舶船。

上堂云。雲散長空。月生天際。有眼者辨取。

韶州白虎山守昇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有眼無鼻孔。

韶州佛陀山宗欽禪師

問。如何是和尚直截為人一句。

師打一拂子云。會麼。

僧云。不會。
師云。逢人莫錯舉。

韶州雙峰山法崇禪師

問。不露圭角句。未語先分付。如何是先分付。
師云。道什麼。
僧曰。恁麼則謝師指示。
師云。汝作麼生會。僧無對。
師云。賺却人。

韶州樂昌縣寶林山海月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十相具足。
僧曰。莫祇遮便是。
師云。少一不可。

韶州延祥法迎禪師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拄杖拂子。
僧曰。見後如何。師便打。
僧曰。今日親見和尚。
師云。再犯不容。

韶州舜峰惠寶禪師

問。步步登高時如何。
師云。嶮。
僧曰。不進不退時如何。
師云。喪。
僧曰。如何即是。
師云。蘇噓蘇噓。

襄州洞山普樂子榮禪師法嗣

廬山圓通祖印禪師

諱居訥。漢州蹇氏子也。十三受具。十五開講。一揮談麈。千人而坐。器宇冰清。心源海湛。敏惠冠絕。行解超倫。出語成章。落筆盈卷。忽捨所學。遠參禪宗。見榮禪師。頓悟祖意。後出世住歸宗。未幾遷上圓通。又移四祖。後還圓通。鷗陽文忠公修一見。深仰風規。每問南來士人。曾見訥禪師否。由是朝野望重。皇祐中仁宗皇帝詔居京城淨因。堅讓不赴。就賜章服。師號。熙寧三年中。一日。辭江牧劉公述及諸僚屬。歸院沐浴。端坐示滅。劉公率緇俗數千。送至茶毗。燄中白氣。上貫太陽。眾皆驚仰。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紫霄峰畔歸宗寺。

僧曰。忽遇客來。將何祇待。

師云。遊山翫水。

問。祖刹重興時如何。

師云。人在破頭山。

僧曰。一朝權在手。師便打。

師云。三乘十二分教還曾道著麼。良久。云。喫茶去。

洪州百丈山智映寶月禪師法嗣

杭州惠因祥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天圓地方。

僧曰。端的請師一言。

師云。若到諸方。分明舉似。

師云。南山高。北山低。日出東方夜落西。白牛上樹覓不得。烏鷄入水大家知。且道覓得後又如何。良久。云。堪作什麼。

杭州慧因義寧禪師

問。佛未出時如何。

師云。摩耶夫人。

僧曰。出世後如何。

師云。悉達太子。

上堂云。澄停識浪。水清影現。悟無念體。寂滅現前。東弗于代。西瞿耶尼。許汝恁麼會。三十年後且莫顛預。參。

潭州雲蓋山繼鵬禪師法嗣

越州諸暨鍾山報恩禪院譚禪師

問。善法堂中師子吼。利人一句又如何。

師云。重疊關山路。

僧曰。與麼則紫隣巖畔千花秀。白玉堂前萬姓歌。

師云。念話杜家。

問。至道無難。唯嫌揀擇。如何是不揀擇。

師云。作日初三。今日初四。

僧曰。此猶是揀擇。

師云。龍蛇易辨。衲子難滿。

問。一問一答。猶落建化門庭。未審第一義中如何舉唱。

師云。簷前雨滴。雪滿長空。

僧曰。若然者。到頭霜夜月。任運落前谿。

師云。作家禪客。

僧曰。和尚莫瞞人好。

師云。却是爾瞞我。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隻履已歸葱嶺久。而今休更問來端。

僧曰。得與麼去時如何。

師云。南山起雲。北山下雨。

問。杖錫已居於此日。請師一句利人天。

師云。鼻孔大頭向下。

僧曰。向上還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欲窮千里目。更上一層樓。

上堂云。法身無象。應物現形。諸禪德。作麼生說箇應物現形底道理。拈拄杖示眾云。世尊身長丈六。遮箇拄杖子亦長丈六。彌勒身長千尺。遮箇拄杖子亦長千尺。方圓任器。隱顯從他。大包天地。細入塵蘆。如驢覷井。如井覷驢。得之者。運籌帷幄。把斷要津。失之者。杳杳忽忽。虛生浪死。得失二途。一時放却。敢問諸人。且道山僧拄杖子畢竟長多少。良久。云。笑指客從何處來。擊香臺一下。

上堂。顧視大眾云。若未能如是。且須俗機宜。所以仲冬嚴寒。人人盡賀。日南長至。禪人到此。直須眨上眉毛。莫學東村王老。夜來失了巴鼻。參。

筠州洞山曉聰禪師法嗣

雲居曉舜禪師

筠陽人也。少年羸猛。忽悟浮幻。投師出家。乃修細行。參聰禪師。一日入室。聰問云。古鏡未磨時如何。曰。黑似漆。聰云。磨後如何。曰。照天照地。聰云。我即不恁麼。師便問。古鏡未磨時如何。曰。此去朗州不遠。師云。磨後如何。曰。黃鶴樓前鸚鵡洲。師忽有省。由是道譽遠布。禪徒依之。後住筠州大愚廬山棲賢。治平中。一日。召大眾云。本來無事。臨行何語。片時片時。便去便去。言畢而逝。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雲有出山勢。水無投澗聲。僧曰。新豐一箭。直射大愚。師云。今日幾遭雨水。問。如何是為人一句。師云。晴天日出。僧曰。與麼則從此無疑。師云。雨下雲陰。問。千里特來即不問。舊店新開事若何。師云。爾要買箇甚麼。僧提起坐具云。還有遮箇麼。師云。東行不見西行利。僧曰。有錢堪作好兒郎。師云。咩。爾謔我。問。承師有言。不談玄。不說妙。去此二途。如何指示。師云。蝦蟇趕鷓子。僧曰。全因此問。師云。老鼠弄猴獠。上堂云。唯一堅密身。一切塵中現。蝦蟇蚯蚓各有窟穴。烏鵲鳩鴿亦有窠巢。正當與麼時。為甚麼人說法。良久。云。方以類聚。物以群分。

上堂云。學道莫生分別。分別便成解會。但信自心是佛。歷劫更無迷昧。久立。

上堂云。三峽道無別。朝朝祇麼說。僧繇會寫真。鎮府出鑛鐵。珍重。

上堂云。不長不短。不小不大。此箇道理是誰境界。咄。

上堂云。盡力提不起。放下絕無蹤。借問諸禪者。此理若為通。

上堂云。言不假繁。道不假修。若人會得。任性隨流。久立。

潭州大瀉山密印寺懷宥禪師

問。人將語試。金將火試。未審衲僧將什麼試。

師云。拄杖子。

僧曰。畢竟如何。

師云。退後著。僧應喏。

師便打云。教休不肯休。直待雨霖頭。

杭州佛日山明教禪師

諱契嵩。藤州東山人也。俗姓李氏。七歲出家。十三得度。十九遊方。徧參知識。得法于洞山聰禪師。常居永安蘭若。披尋內外典籍。樂於著撰。力扶宗教。嘉祐中。以所述禪門傳法正宗記。定祖圖。輔教編。上進 仁宗皇帝。勅頒天下。附入大藏。賜號明教。熙寧四年六月四日。示滅於靈隱寺。壽六十有六。是月八日荼毗。眼。舌。男三根不壞。頂骨上出舍利。紅白晶瑩。師平生頂戴觀音。口誦名號。木榧數珠亦燒不壞。其如解行高潔。性智虛明。宋代高僧鮮有如師。具在陳賢良行業記。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五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一世

洪州泐潭山寶峰院懷澄禪師法嗣

東京十方淨因禪院大覺禪師

諱懷璉。姓陳氏。漳州龍溪縣人也。誕生之夕。夢僧伽降室。因小字泗州。既有異兆。僉知祥應。齟齬出家。卍角圓頂。督志道學。寢食無廢。一日洗面。潑水于地。微有省發。即慕參尋。遠造泐潭澄禪師法席。投機印可。

次歷叢林。眾嚮道譽。年過不惑。名動 仁御。奉 詔住淨因禪院。三 宣內苑。對 聖敷揚。開悅 宸衷。賜號大覺。并製讚頌。須許賡誦。 天眷日深。頗若師友。其磨衲·金鉢·寶珠。皆 上旨批賜。晚以高年。乞身林下。 勅從所請。隨意住持。因止育王山。雲徒復湊。道合 聖心。名重當世。本朝宗匠。未如榮幸。

師皇祐二年十二月十九日。仁宗皇帝宣入後苑化成殿。令一依開堂時儀範。陞座說法。宣左街副僧錄慈雲大師清滿啟白。清滿謝 恩罷。乃曰。 帝苑春光。皇家啟會。萬乘既登於 舜殿。兩街獲奉於堯眉。爰當和育之辰。正是闡揚之日。宜談祖道。上副 宸衷。謹白。

師遂陞座。拈香祝 聖畢。敷坐。華嚴禪師白槌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

師云。適來白槌。甚好消息。還有證據者麼。出來對聖人前試通吐看。

時有宣教大師問。滿目盡觀銀世界。未審普賢在什麼處。

師云。猶似對面不識。

僧曰。六牙白象空中立。 萬乘君王坐寶臺。

師云。帝網重重向此開。

師復云。古佛堂中。曾無異說。流通句內。誠有多談。得之。妙用無虧。失之。觸途成滯。所以溪山雲月。且處處以同風。水鳥樹林。亦頭頭而顯道。若於迦葉門下。直得堯風蕩蕩。舜日明明。野

老謳謔。漁人鼓舞。當此時節。純樂無為。久瀆 聖聰。伏惟珍重。

問。諸佛出世。利濟群生。猊座師登。將何拯濟。

師云。山高海闊。

僧曰。花發無根樹。魚跳萬仞峰。

師云。新羅國裏。

僧曰。慈舟不棹清波上。劔峽徒勞放木鵝。

師曰。脫却衣裳臥荊棘。

僧曰。人將語試。

師云。慣得其便。僧拊掌。

師云。更[跳-兆+孛]跳。

問。艣棹不停時如何。

師云。清波箭急。

僧曰。恁麼則移舟諳水勢。舉棹別波瀾。

師云。濟水過新羅。

僧曰。古佛位中留不住。夜來依舊宿蘆花。

師云。兒童不識十字街。

問。聖君御頌親頒賜。和尚將何報此恩。

師云。兩手托地。

僧曰。恁麼則一人有慶。兆民賴之。

師云。半尋拄杖攪黃河。

問。坐斷毗盧頂。不稟釋迦文。猶未是學人行業。如何是學人行業。

師云。斫額望明月。僧以手便拂。

師曰。作什麼。僧忙然。

師云。賺却一船人。

師云。若論佛法兩字。是加增之辭。廉纖之說。諸人向遮裏承當得。盡是二頭三手。譬如金屑雖貴。眼中著一點不得。若是本分衲僧。纔聞舉著此事。便一擺擺斷。不受纖塵。獨脫自在。最為親的。然後便能在天同天。在人同人。在僧同僧。在俗同俗。在凡同凡。在聖同聖。一切處出沒自在。並拘檢佗不得。名邈佗不得。何也。為渠能建立一切法故。一切法要且不是渠。渠既無背面。第一不用妄與安排。但知十二時中。平常飲啄。快樂無憂。祇此相期。更無別事。所以古人云。放曠長如癡兀人。佗家自有通人愛。

上堂云。文殊寶劔。得者為尊。乃拈拄杖云。淨因今日恁麼。直得千聖路絕。雖然如是。猶是矛盾相攻。不犯鋒鋌。如何運用。良久。云。野蒿自發空臨水。江鷺初歸不見人。參。

上堂云。太陽東昇。爍破大千之暗。諸人若向明中立。猶是影響相馳。若向暗中立。也是藏頭露影漢。到遮裏。作麼生吐露。良久云。逢人祇可三分語。未可全拋一片心。參。

上堂云。世法裏面迷却多少人。佛法裏面醉却多少人。祇如不迷不醉。是什麼人分上事。

上堂云。言鋒纔擊。義海交深。若要徑截一路。各請歸堂。

上堂云。應物現形。如水中月。遂拈起拄杖云。遮箇不是物。即今現形也。且道月在甚麼處。良久。云。長空有路還須透。潭底無蹤不用尋。擊香臺一下。

上堂云。白日東上。白日西落。急如投壺閃寥廓。神龍一舉透無邊。纖鱗猶向泥中躍。靈燄中。休湊泊。三歲孩童鬚四角。參。

上堂。良久。舉起拳頭云。握拳則五嶽倒卓。展手則五指參差。有時把定佛祖關。有時托開千聖宅。今日遮裏相呈。且道作何使用。拍禪牀一下。云。向下文長。付在來日。

天台赤城山用良禪師

問。三門與自己。是同是別。

師云。八兩移作半斤。

僧曰。恁麼則秋水泛漁舟。

師云。東家點燈。西家覓油。

僧曰。山高月上遲。

師云。道什麼。

僧曰。莫瞌睡。

師云。入水見長人。

臨江軍有文禪師

上堂云。建山寂寞。坐倚城郭。無味之談。七零八落。以拄杖敲香臺。下座。

福州雪峯象敦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火照魚行。

僧曰。如何是法。

師云。唐人譯不出。

僧曰。佛法已蒙師指示。未審畢竟又如何。

師云。臘月三十日。

杭州靈隱山雲知慈覺禪師

問。一佛出世。各坐一華。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白雲橫谷口。

僧曰。光前絕後。

師云。錯。

僧曰。大眾證明。

師云。點。

問。如何是道。

師云。什麼道。

僧曰。大道。

師云。欲行千里。一步為初。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西天駐泊。此土都監。僧禮拜。

師云。咩。咩。

問。如何是佛。

師云。筇州九節杖。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向上即且致。佛話作麼生會。僧擬議。

師云。幾合放過。

上堂云。日月雲霞為天標。山川草木為地標。招賢納士為德標。閑居趣寂為道標。乃拈拄杖云。且道遮箇是什麼標。會麼。拈起則有文有彩。放下則糲糲磕磕。直得不拈不放。又作麼生。良久。云。扶過斷橋水。伴歸明月村。

上堂云。秋風起。庭梧墜。衲子紛紛看祥瑞。張三李四賣囂。捨得寒山爭賤貴。覲面相訓。更無難易。四衢道中。棚欄瓦市。畚塞虛空。普天市地。任是臨濟赤肉團上。雪老南山鼈鼻。玄沙見虎。俱抵舉指。一時拈來。當面布施。更若擬議。千山萬水。復云。過。

明州金鵝山靖旻禪師

問。禪客相逢。合談何事。

師云。德山令行。

僧曰。早知今日事。悔不慎當初。

師云。人無遠慮。

雲居山守億禪師

上堂云。馬祖纔陞堂。雄峰便卷席。春風一陣來。滿地花狼藉。

婺州西塔殊禪師

問。知師已受請。家風略借看。

師云。風搖寒木。

僧曰。恁麼則石上橫筇坐。茶餘看日低。

師云。葉落秋江。

婺州承天惟簡禪師

問。佛與眾生。是一是二。

師云。花開滿木紅。花落萬枝空。

僧曰。畢竟是一是二。

師云。唯餘一朵在。明日恐隨風。

問。如何是吹毛劍。

師云。星多不當月。

僧曰。用者如何。

師云。落。

僧云。落後如何。

師云。觀世音菩薩。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理長即就。

僧曰。如何領會。

師云。繪雉不成鷄。

問。開口即失。閉口即喪。未審如何說。

師云。舌頭無骨。

僧曰。不會。

師云。對牛彈琴。

問。山河大地與自己。同。別。

師云。灸病不得穴。

僧曰。畢竟是同是別。

師云。買帽相頭。

師云。夫遮那之境界。眾妙之玄門。知識說之而莫窮。善財酌之而不竭。文殊體之而寂寂。普賢證之以重重。若也隨其法性。如雲收碧漢。本無一物。若也隨其知用。似花開春谷。應用無邊。雖說偏

恒沙。乃同遵一道。且問諸人。作麼生是一道。良久。云。白雲斷處見明月。黃葉落時聞擣衣。參。

上堂云。頭不戴天。足不履地。鼻不嗅香。舌不了味。塞却咽喉。何處出氣。良久。云。寒來向火困來眠。誰言總別兼同異。參。

上堂云。莫離蓋纏。莫求佛祖。去此二途。以何依怙。江淹夢筆。天龍見虎。古老相傳。月不跨五。參。

上堂云。一刀兩段。埋沒宗風。師子翻身。拖泥帶水。直饒坐斷十方。不通凡聖。脚跟下好與二十拄杖。

上堂云。拈一放一。妙用縱橫。去解除玄。收凡破聖。若望本分草料。大似磨甑作鏡。衲僧家合作麼生。良久云。寔。

上堂云。順也是。逆也是。逆順交參真至理。若人於此擬休功。猶指化城為寶地。參。

杭州臨安九峰淨土鑒韶禪師

問。承聞和尚是泐潭嫡子。是否。

師云。是。

僧云。還記得當時得力句麼。

師云。記得。

僧曰。請舉看。

師云。左手握拳。右手把筆。

問。承師有言。君子可八。意旨如何。

師云。披衣入市去。剃髮上山來。

問。羚羊未挂角時如何。

師云。雄喚雌鳴。

僧曰。挂角後如何。

師云。一文兩箇。

僧曰。此莫是和尚見處也無。

師云。不用禮拜。

問。藥山不許看經。意旨如何。

師云。夜半點燈毬。

上堂云。山僧說禪。恰似蚝蜃吐油。捏著便出。若不捏著。一滴也無。何以故。祇為不曾看讀得古今因緣。及預先排疊勝妙見知。等候陞堂。便磨脣縮觜。將粥飯氣熏炙諸人。凡有一問一答。蓋不得已。豈獨山僧。看佗大通智勝如來。默坐十劫。無開口處。後因諸天梵天及十六王子再三勤請。方始說之。却不是秘惜。祇為不敢埋沒諸人。山僧既不埋沒諸人。不得道山僧會陞座。參。

洪州壽聖普謫禪師

問。朝蓋已臨於法會。還有西來意也無。

師云。上土由山水。

問。說佛說法。殃及兒孫。演妙談玄。野狐群隊。離此二途。如何為人。

師云。一箇不得。兩箇又多。

僧曰。一葉落。天下秋。

師云。谷秀花鋪錦。

僧曰。不因舉棹。爭見漁人。

師云。將謂胡鬚赤。

筠州洞山永孚禪師

上堂云。棒頭挑日月。木馬夜嘶鳴。拈拄杖云。雲門大師來也。卓一下。云。炊砂作飯。看井作袴。

金陵廣慧遇新禪師

問。師是誰家嫡子。甚處兒孫。

師云。將謂是仙陀。

僧曰。親見泐潭來。

師云。更請問傍人。

問。如何是道者家風。

師云。看樓打樓。

僧曰。為什麼東行不見西行利。

師云。拈頭作尾。拈尾作頭。還我第三段來。僧禮拜。

師云。吽。吽。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脚前脚後。

僧曰。出世後如何。

師云。恰似不齊。

令滔首座

參泐潭懷澄禪師。澄一日問。祖師西來。單傳心印。直指人心。見性成佛。子作麼生會。

滔云。某甲不會。

澄却問。子未出家時作箇什麼。
滔曰。牧牛。
澄曰。作麼生牧。
滔曰。早朝騎出去。晚後復騎歸。
澄曰。子大好不會。
滔於言下忽然大悟。遂成頌云。
放却牛繩便出家。剃除鬚髮著袈裟。
有人問我西來意。拄杖頭挑蘇哩囉。

筠州洞山自寶妙圓禪師法嗣

筠州洞山鑿遷禪師

問。如何是新豐一曲。
師云。自歌自詠深雲裏。
僧曰。誰是知音。
師云。閑坐閑行古洞中。
問。王侯請而不去。和尚去時如何。
師云。官差不自由。
僧曰。終是涉廉纖。
師云。棒頭有眼。
僧曰。便請。
師云。慣釣長鯨。耻看跛鼈。

筠州洞山清辯禪師

問。百丈得大機。黃蘗得大用。未審和尚得箇什麼。師便喝。僧亦喝。師便打。
僧曰。爭奈大眾眼何。便歸眾。師噓噓。

舒州海會通禪師法嗣

隨州水南太平興國文秀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拄杖子。
問。如何是水南境。
師云。隨峯山色秀。遍地百花開。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迦葉擎拳。阿難合掌。

復州北塔思廣禪師法嗣

荊門軍當陽縣玉泉景德禪院承皓禪師

姓王氏。眉州丹稜人也。依大力院出家登具。遊方。參復州北塔廣禪師。發明心要。得大自在三昧。製赤犢鼻。書歷代祖師名而服之。曰。唯有文殊。普賢猶較些子。且書於帶上。自是諸方曰皓布裩。初住郢州大陽。師在谷隱。受大陽請。上堂云。山僧在谷隱十年。不曾飲谷隱一滴水。嚼谷隱一粒米。汝若不會來。大陽與汝說。攜拄杖下座。

僧入室次。狗子在室中。師叱一聲。狗子出去。師云。狗却會。爾不會。

問。如何是佛。

師云。截斷脚跟。

僧曰。如何是法。

師云。掀爾腦蓋。

師云。晷運推移。布裩赫赤。莫怪不洗。無來替換。下座。

上堂云。粥稀後坐。牀窄先臥。耳聾愛聲高。眼昏宜字大。珍重。師於元祐六年十二月二十八日示寂。門人圍遶。師笑曰。吾年八十一。老死昇屍出。兒郎齊著力。一年三百六十日。言畢而逝。

蘇州翠峯慧顯禪師法嗣

杭州廣果擇能禪師

問。師是誰家嫡子。甚處兒孫。

師云。適來拈香了也。

僧曰。恁麼則親見翠峯來。

師云。相悉人難得。

蘄州四祖山端禪師法嗣

福州廣明常委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看。

師云。看。
僧曰。恁麼則謝師指示。
師云。等閑垂一釣。容易上釣來。

潭州雲蓋山志顛禪師法嗣

雲居山文慶海印禪師

問。雲門一曲師親唱。北斗藏身事若何。

師云。險。

僧曰。學人未曉。請師再指。

師云。仰面看青天。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少林一隻履。

問。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合。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闊。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窄。

問。佛意祖意即不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上拄天。下拄地。

僧曰。莫_祇遮便是麼。

師云。錯。

上堂云。隨波逐浪。舉世皆是知音。截斷眾流。天下罕逢作者。遂拈拄杖。擊香臺一下。云。大眾還會麼。若向遮裏透得。石壁山河不相隔礙。十方剎土廓爾皆通。舉目則覩破三十三天。颯然粉碎。動步則踏翻金剛水際。涓滴不留。向葛藤窠裏橫身。且無繫絆。於荊棘林中擺手。不挂鋒鋌。叱起_陝府鐵牛。耕破坤維大地。喚取嘉州大像。把住日月星辰。輾轉太虛。橫鋪世界。以東為西。將南作北。釋迦性命尚自不存。祖師眼睛那堪更用。如今忽有箇衲僧出來。驀口一擲。掀倒禪牀。爾道雲居還肯佗也無。肯與不肯。一切分付德山。臨濟。遂喝一喝。以拄杖卓一下。

上堂云。道本無為。法非延促。一念萬年。千古在目。月白風恬。山青水淥。法法現前。頭頭具足。祖意教意。非直非曲。要識廬陵米價。會取山前麥熟。以拂子擊禪牀。下座。

上堂云。馬師即心即佛。大似埋椿釘橛。牛頭橫說豎說。宛如枝上生節。欲識佛祖性義。會取春寒秋熱。拍繩牀。下座。

明州上方齊岳禪師法嗣

越州東山國慶順宗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僧曰。恁麼則大梅嫡子也。

師云。重言不當吃。

師云。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拈起拄杖云。此箇是法。那箇是滅底心。若人道得。許爾頂門上具眼。其或不然。雲暗不知天早晚。雪深難辨路高低。參。

潤州金山瑞新禪師法嗣

湖州天聖楚祥禪師

問。芙蓉堂上。已焚海岸之香。師子座前。願聽胡家之曲。

師云。風來金殿冷。

僧曰。今日得聞於未聞。

師云。雪覆玉堦寒。

僧曰。恁麼則淵明空負勿絃琴。宋玉徒勞誇白雪。

師云。休言千歲竹。將比萬年松。

師云。天地為橐籥。動而有應。故春則和融。夏則煩熱。秋則微涼。冬則凝結。以至群類人倫。各徇其性。蓋一氣之所致。然雖如此。賢者太賢。愚者愚。

溫州極樂用基禪師

問。如何是太平境。

師云。幾竿翠竹侵雲漢。一派清流入慎江。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左眼半斤。右眼八兩。

湖州天聖守道禪師

問。騎虎頭。把虎尾。中間事作麼生。

師云。喫棒。

僧曰。三十年後有人舉著在。

師云。鈍致殺人。

師云。日月繞須彌。人間分晝夜。南閻浮提人祇被明暗色空留礙。且道不落明暗一句作麼生道。良久。云。柳色黃金嫩。梨花白雪香。參。

衡州北禪智賢禪師法嗣

潭州興化崇辯禪師

諱紹銑。泉州人也。生有奇相。遂捨出家。受具。遊方。徧趨禪室。罷歷江表。遠入湘川。參北禪賢禪師。深蒙印決。一住興化。四十餘年。提唱祖道。建立佛事。海量包納。大度規模。福慧兼濟。近世希有。大丞相章公惇。昔安撫荊湖。見師器重。特奏神宗皇帝。賜椹服。師名及隨身度牒。其旌異如此。

問。如何是瀟湘境。

師云。會春園裏遊春會。明月池邊玩月明。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錦袍公子猶嫌冷。更有樵夫跣足行。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勸君不用鑄頑石。路上行人口似碑。

師拈拄杖云。一大藏教。是拭不淨故紙。超佛越祖之談。是誑謔閻閻漢。若論衲僧門下。一點也用不得。作麼生是衲僧門下事。良久云。多虛不如少實。擊香臺一下。

江州法昌倚遇禪師

黃龍南禪師經過。師上堂。拈拄杖示眾云。若向遮裏會去。是頭上安頭。若也不會。又是斬頭覓活。汝等諸人且作麼生承當。雖然如是。法昌今日恁麼舉唱。也是看人祇揖。覩馬提鞭。本分宗匠面前。是何言歟。且道本分宗匠具何高見。良久。云。雲開山色秀。雨過澗流清。

廬山開先善暹禪師法嗣

雲居山佛印禪師

諱了元。姓林氏。饒州浮梁人也。至道壬申六月六日誕生。祥光上燭。鬚髮爪齒。宛然具體。風骨爽拔。孩孺異常。發言成章。語合

經史。閩里先生稱曰神童。年將頂角。博覽典墳。卷不再舒。洞明今古。才思俊邁。風韻飄然。志慕空宗。投師出家。試經圓具。感悟夙習。

即徧參尋。遠造廬山開先暹禪師法席。投機印可。叢林拔萃。出為宗匠。三十餘年。九坐道場。四眾傾向。搢紳碩儒咸欽道望。名動朝野。神宗皇帝宣賜高麗磨衲。金鉢。以旌師德。

元符元年元正七日。寫偈坐滅本山。餘如知院大尉蔣公之奇塔記。問。祖意教意即不問。靈山微笑意如何。

師云。知時別宜。

僧曰。恁麼則國清才子貴。家富小兒嬌。

師云。因逢桃李樹。憶著故園春。

僧曰。不因漁父引。爭得見波濤。

師云。且莫錯會。

問。如何是諸佛說不到底法。

師云。蟻子解尋腥處走。蒼蠅偏向鼻邊飛。

僧曰。學人未曉。請師再指。

師云。九萬里鵬從海出。一千年鶴遼天歸。

問。如何是佛。

師云。木頭雕不就。

僧曰。恁麼則皆是虛妄也。

師云。梵音深遠。令人樂聞。

問。如何是城裏佛。

師云。倚門倚戶。

僧曰。如何是村裏佛。

師云。食麻食麥。

僧曰。如何是山裏佛。

師云。依草附木。

問。如何是祖師的的意。

師云。不出此問。

問。如何是不方不圓底句。

師云。上不到天。下不到地。

僧曰。如何是句中玄。

師云。村人弄駱駝。

僧曰。如何是意中玄。

師云。唯佛與佛乃能知之。

僧曰。如何是用中玄。師便打。

問。達磨九年面壁。意旨如何。

師云。閉口深藏舌。

僧曰。學人未曉。
師云。一言已出。駟馬難追。
無畏居士問師借楞伽經。師云。經涉文字。不如一棒一喝便了去好。
士云。雖然棒喝。猶是第二月。
師云。今日遭人點檢。
問。大修行人還入地獄也無。
師云。在裏許。
僧曰。大作業人還上天堂也無。
師云。鯁跳不出斗。
僧曰。恁麼則鑊湯爐炭吹教滅。劒樹刀山喝使摧。
師云。自作自受。
師云。適來禪客出眾禮拜。各以無量珍寶布施大眾。又於面門上放大光明。照耀乾坤。令諸人普得相見。於此明得。可謂十方諸佛各坐其前。常為勞生演說大法。豈假山僧重重注破。如或未然。不免橫身徇物。乃按拄杖云。萬般草木根苗異。一得春風盡放花。
上堂云。徧十方。周法界。無相光中常自在。更無絲髮可商量。彌勒文殊閑買賣。釋迦憊。迦葉富。黃金白玉如泥土。善財不識樓閣門。忽拈拄杖云。撞著燈籠兼露柱。擊禪牀。下座。
上堂云。人間寒食。洞裏花開。遊蜂與胡蝶爭飛。鷺子共黃鸝對語。玄沙老漢却道深談實相。善說法要。好熱杜撰。雲居則不然。一翳在目。空花亂墜。久立。
上堂云。時當孟夏。節屆朱明。山花結子似垂珠。巖樹成陰張翠幄。鸞狂陌上。斷送殘春。鷺語梁間。留連過客。是田父移苗之日。乃禪流禁足之辰。休將拄杖向肩挑。盡把鉢囊高挂起。而況閻浮路上。須知生死劫長。天宮快樂易輪迴。地獄煎熬多苦楚。筭來萬事。祇在寸心。今日與諸人一時休歇。作麼生是上座休歇處。良久。云。雲滿諸峯雨未收。牧童吹笛倒騎牛。曲中便是昇平樂。世上千般逐水流。
上堂云。江湖本靜。因風而波浪俄生。日月長存。觸霧而光明遂昧。諸人欲得風恬水湛。霧卷天空。各請歸堂。不用久立。
上堂云。寒。寒。風撼竹聲乾。水凍魚行澁。林疎鳥宿難。早是嚴霜威重。那堪行客衣單。休思紫陌山千朵。且擁紅爐火一攢。放下茱萸空中竹櫬。倒却迦葉門前剎竿。直下更云不會。筭來也大無端。參。

東京大相國寺智海正覺禪師

諱本逸。姓彭氏。福州人也。九歲出家。遇普度不受。後比試為僧。

志慕游方。即造開先暹禪師法席。入室。暹舉達磨傳法偈。因而開悟。初住饒州薦福。雲徒臻集。神宗皇帝詔住智海。賜號正覺。朝中搢紳益欽道望。

開堂日。神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聖壽罷。乃敷坐。淨因淨照禪師白槌竟。師普視大眾云。龍樓與鳳闕巍峨。瑞氣同祥雲鬣鬣。於是觀得十方佛土不行而至。百千三昧無作而成。苟不然也。有疑請問。

問。慧林纔盛。帀地垂陰。智海既通。將何接引。

師云。言猶在耳。

僧曰。爭奈學人未曉。

師云。不妨劊利。

問。入門問諱即且致。入國觀光事若何。

師云。一逢天子聖。總是太平年。

僧曰。太平後如何。

師云。梯山航海。納壁獻琛。

僧曰。皇風蕩蕩。帝道平平。

師云。老僧不如上座。

問。三千里外蒙丹詔。未審將何報國恩。

師云。作驢作馬。

僧曰。粉骨碎身未足酬。一句了然超百億。

師云。牽犁拽杷。

僧曰。石人嶺上呵呵笑。木女谿邊屢點頭。

師云。不知是不是。若是也大奇。

師云。諸菩薩子。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何也。和風習習。揭開細柳之眉。春日遲遲。烘轉黃鸝之舌。庭花似錦。汀草如茵。蝶舞蜂吟。漁歌樵唱。鐘梵與管絃合雜。儒流同釋子相參。古今一致。左右逢原。如是則窺一塵而十方俱現。聆一音而沙界齊聞。談玄演妙而靡異凡倫。千變萬化而不離真際。頭頭有據。物物無私。不假躊躇。炳然自著。直饒於斯見得個儻分明。如晝見日。若向衲僧門下。天地懸殊。所以道。不要三乘要祖宗。三乘不要為君通。君今要出三乘學。後夜猿啼在眾峯。臣僧奉勅開堂。舉揚宗旨。伏願皇帝陛下位齊北極。壽比南山。邦歌有道之君。民賀無私之化。久立眾慈。伏惟珍重。

問。如何是佛。

師云。東涌西沒。

僧曰。如何是道。

師云。七顛八倒。
僧曰。如何是法。
師云。爾問我答。
僧曰。如何是禪。
師云。不方不圓。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劊利人難得。
問。祖意西來。如何舉唱。
師云。風吹黃葉落。片片覆庭莎。
僧曰。竹密不妨流水過。山高豈礙白雲飛。
師云。反蟻難尋穴。歸禽易見窠。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鷓子過新羅。
問。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如何是無為。
師云。飢嗔飽喜。
僧曰。遮箇是有為。
師云。山僧年邁。
僧曰。也有些子。
師云。喏。喏。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鹿野苑中談四諦。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末頭先度五俱輪。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青青河畔草。
僧曰。磨後如何。
師云。鬱鬱園中柳。
僧曰。磨與未磨。是同是別。
師云。同別且致。還我鏡來。僧擬議。師便喝。
師云。開口是。合口是。眼下無妨更著鼻。開口錯。合口錯。眼與鼻孔都拈却。佛也打。祖也打。真人面前不說假。佛也安。祖也安。衲僧肚皮似海寬。此乃一出一入。半合半開。是山僧尋常用底。敢問諸禪德。剎竿因甚頭指天。力士何故揜起拳。良久云。參上堂云。我有遮一著。人人口裏嚼。嚼得破者。速須吐却。嚼不破者。翻成毒藥。乃召。諸禪德。作甚滋味。試請道看。良久。云。醫王不是無方義。千里酥香象不回。
上堂云。春雨微微。繼日以時。庭花欲發未發。原草將披未披。嶺上泥牛頻吼。林間木馬長嘶。堪笑老盧無志氣。貪佗衣鉢夜奔馳。

自從龍朔星霜後。殃及兒孫知不知。喝一喝。下座。
上堂云。翻手為文。覆手為武。且執單刀。堦墀伏事。不翻不覆。
文武雙全。坐籌帷幄之間。決勝千里之外。無明羅刹活捉生擒。生
死魔軍冰消瓦解。直得 皇風蕩蕩。 帝道平平。統三界以為家。
作四生之恃怙。正當此時。且道功歸何處。良久云。大勳不立賞。
柴扉草自深。

上堂。拈拄杖云。遮拄杖。在天也。與日月並明。在地也。與山河
同固。在王侯也。以代蒲鞭。在百姓也。防身禦惡。在衲僧也。晝
橫肩上。度水穿雲。夜宿旅亭。撐門拄戶。且道在山僧手裏用作何
為。要會麼。有時放步東湖上。與僧遙指遠山青。擊繩牀。下座。

廬山萬杉善爽禪師

問。如何是萬杉境。
師云。萬株杉下千尋竹。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老僧叉手對闍黎。
問。佛法大意。請師指示。
師云。崑崙頭戴華山尖。
師云。古即今。今即古。家家窻下有諸祖。文殊示現滿山川。自是
時人不能悟。大眾。且道悟箇什麼。咄。
晚參。侍者度拂子與師。師云。百丈昔因拈起悟。始覺蒸餲是麪
做。禪人到此莫商量。向道僧堂對厨庫。復云。經有經師。論有論
師。律有律師。教老僧說箇什麼。良久。云。春因歸堂打睡。

越州天章寺元楚寶月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番人不著袴。
僧曰。學人未曉。
師云。道士却簪冠。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月似彎弓。少雨多風。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南人性獠。
僧曰。意旨如何。

師云。北海浪麤。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一年三百六十日。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迢迢十萬不足遠。
僧曰。畢竟如何。
師云。飯來開口困展脚。
問。祖師西來即不問。蠟人輕重事如何。
師云。八兩依前是半斤。
僧曰。學人未審以何為驗。
師云。瞎。
師云。煥然善法堂。巍然師子座。或問天章。具什麼眼便踞此位。
天章答曰。無佗也。三十年前向無寸草處逢箇無舌底漢。授得一無
生寶丹。大包天地。細入無間。雖有离婁之明。視之不能見其形。
雖有師曠之聰聽之。不能聞其聲。嗅之莫辨其香。舐之莫識其味。
半合半開。成團成塊。一吞于腹。亦三十年。不歷漸次。不由地
位。直坐毗盧之頂。下視十方國土。若菴摩勒果。指于掌中。更說
什麼善法之堂。師子之座可不可乎。然雖如此。猶是建化門庭。若
據衲僧門下。一點也用不著。且道衲僧有什麼長處。良久。云。臘
雪消未盡。春風依舊來。
上堂云。鼓聲錯落。山色崔嵬。本既不有。甚處得來。良久。云。
高著眼。

洪州壽聖元舜禪師

問。魚未成龍時如何。
師云。生風起浪。
僧曰。成龍後如何。
師云。興雲致雨。
僧曰。般若無根。如何掘鑿。
師云。鐵樹生花。

筠州洞山慧圓禪師

問。遠離廬阜。將屆新豐。不涉程途。請師便道。
師云。山僧今日倦。
僧曰。知識方便在什麼處。
師云。瞎。僧便喝。

師云。猶未省在。

師云。學非稽古。道媿當時。俛仰無門。乃隨眾意。古人道。無事上山行一轉。借問時人會也無。祇如老僧與諸人從廬阜來。遇夜便宿。逢曉便行。直至此間。一脚在前。一脚在後。如今各各高挂鉢囊。閣却拄杖。更有什麼事可會。然雖如是。若不登樓望。焉知滄海深。

廬陵禾山楚才禪師法嗣

衡州北禪慧雲禪院昇禪師

問。四眾已臨申請命。願師為眾便敷揚。

師云。道什麼。

僧曰。得遇作家。

師云。山僧未曾答話。僧噓噓。

師云。龍蛇易辨。衲子難瞞。

問。師離顯親蘭若。來居北禪道場。如何是不動尊。

師云。今日行十五里。

僧曰。恁麼則三轉法輪。

師云。有什麼交涉。

僧曰。畢竟如何。

師云。繫帔草鞋。僧禮拜。

師云。真師子兒。

師云。三伏炎炎杲日輝。少林密意露囊錐。於茲未曉重提掇。鷲雀梁間語細微。此意知音同道契。汭流禪客若為知。山僧如此葛藤語。碧眼胡僧笑皺眉。參。

上堂云。猿啼碧嶂。雀噪簷間。秋風乍扇於長天。暑氣漸消於郊野。庭莎露滴。溪草含煙。堯年而禾稼豐登。野老而相逢共唱。諸高德。既然如是。山僧更不可重說偈言。

上堂。咄。超佛祖。拈禪牀一下。云。聖凡絕。與麼會。猶未徹。大眾畢竟如何。三冬將欲盡。未若有霜雪。參。

澧州報恩禪院紹端禪師

問。如何是禪。

師云。一。

僧曰。百丈巖前還有路也無。

師云。有。

僧曰。蒙師指示。
師云。雲生嶺上。
師云。若論祖師玄旨。可謂平地起堆。更問如何。箭過新羅。久立。

撫州曹山寶積院雄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寒猫不捉鼠。
問。一塵一佛國。一葉一釋迦。學人如何下足。
師云。大地草漫漫。
僧曰。謝師答話。
師云。明眼人難瞞。
僧曰。大眾一時記取。
師云。曹山今日失利。
問。法雷一震。龍象四來。如何行令。
師云。清風不會農家意。吹散白雲撩亂飛。
僧曰。學人還有安身立命處也無。
師云。腳踏實地。
上堂云。善應群方。萬機叢湊。相逢相見即不問爾。拈匙把筯為什麼道不得。良久。云。曹山今日失利。
上堂云。山不青。水不淥。南北東西無下足。白雲片片嶺頭飛。夜來却入蘆花宿。參。
上堂云。千江競湊。萬派同源。寶月騰輝。光分沙界。山河大地。明暗自殊。坐臥經行。何人分上。其中莫有言語道斷。函蓋相應底衲僧麼。出來與曹山相見。
時有僧出。方禮拜次。師云。大眾分明記取話頭。

澧州欽山悟勤禪師法嗣

鼎州梁山應圓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寸步千里。
僧曰。便與麼時如何。
師云。江山重疊。
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
師云。喫粥喫飯。

建中靖國續燈錄卷第六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二世

潭州興化禪院慈明禪師法嗣

洪州黃龍山崇恩惠南禪師

姓章氏。信州玉山縣人也。生而神異。童稚不群。道蘊夙機。發言駭眾。長依懷玉寺出家受具。徧歷叢林。皆推上首。雲徒仰慕。領眾遊方。晚造慈明禪師法席。投誠入室。明拒之三四。方諾咨參。遂問。十二時中喫粥喫飯即不問汝。拈匙把筯一句作麼生道。師即語對。不契其旨。明遂喝出。師擬跨門。豁然大悟。尋以趙州勘婆子因緣成頌呈明。明為印證。益契玄旨。請住同安。歸宗。黃檗。黃龍。臨濟宗枝大盛。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噫。好箇第一義。幸自完全剛。被維那打作兩橛。有人接得麼。顧視大眾云。若接不得。山僧拈頭作尾。切須著眼。

問。寶座已登於鳳嶺。宗風演唱嗣何人。師畫一圓相。

僧曰。石霜一派。流入江西。

師云。杲日當天。盲人摸地。

問。如何是同安境。

師云。看不得。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無面目。

問。作家不啐啄。啐啄不作家。大眾臨筵。請師作家相見。師垂一足。

僧曰。燄裏尋冰雪。水下火燒天。師乃收足。

僧曰。大眾證明。真善知識。

師云。同安不著便。闍梨不著便。

僧曰。此猶是兩家共用。掣鼓奪旗事作麼生。師擲下拂子。

僧曰。同安今日瓦解冰消。

師呵呵大笑云。有輸有贏。

問。如何是佛。

師云。向汝道。汝不信。
僧曰。請師指示。
師云。合取狗口。
問。不求諸聖。不重己靈。未是衲僧分上事。如何是衲僧分上事。
師云。三十年來罕逢此問。
僧曰。孤負諸聖去也。
師云。話也未答。何言孤負。僧拊掌一下。
師叫。放過即不可。
問。儂家自有同風事。如何是同風事。師良久。
僧曰。恁麼則起動和尚去也。
師云。劊利人難得。
有僧纔出禮拜。師云。未得問話。其僧乃退。
師云。將謂是打陳將軍。元來是行間小卒。不見爾過。好好問來。
問。無為無事人。猶是金鎖難。未審有什麼過。
師云。一字入公門。九牛拔不出。
僧曰。學人未曉。乞師方便。
師云。大庾嶺頭。笑却成哭。
問。滴水滴凍時如何。
師云。未是衲僧分上事。
僧曰。如何是衲僧分上事。
師云。滴水滴凍。
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百鳥銜花獻。
師云。釘根桑樹。闊角水牛。
僧曰。見後為甚麼不銜花。
師云。裊無襠。袴無口。
師云。未登此座。一事也無。纔登此座。便有許多問答。敢問大眾。一問一答。還當宗乘也無。答言當去。一大藏教豈無問答。為什麼教外別行。傳上根輩。若言不當。適來許多問答。圖箇什麼。行脚人當自開眼。勿使後悔。若論此事。非神通修證之能到。非多聞智慧之所談。三世諸佛祇言自知。一大藏教詮註不及。是故靈山百千萬眾。獨許迦葉親聞。黃梅七百高僧。衣鉢分付行者。豈是汝等貪淫愚執勝負為能。夫出家者。須秉丈夫決烈之志。截斷兩頭。歸家穩坐。大開門戶。運出己家財。接待往來。賑濟孤露。方有少分報佛恩德。若不然者。無有是處。以拂子擊禪牀。下座。
上堂云。橫吞巨海。倒卓須彌。衲僧面前也是尋常茶飯。行脚人須是荊棘林內坐大道場。向和泥合水處認取本來面目。且作麼生見得。遂拈拄杖云。直饒見得。未免山僧拄杖。

上堂云。擬心即差。動念即乖。不擬不動。土木無殊。行脚人須得轉身一路。遂拈拂子云。遮箇是山僧拂子。汝等諸人作麼生轉。若也轉得。一為無量。無量為一。若轉不得。布袋裏老鴉。雖活如死。

上堂云。未到鷲峯。一事全無。泊到鷲峯。便有進前捋虎鬚之客。退後把虎尾之人。殊不曉未行已行之令。故大覺禪師唯得徧行一著。臨濟·德山祇是互用二機。便云法道周流。大似拗曲作直。所謂棒喝截斷。猶若以金博鍤。直饒東注要流。南唱北和。亘古亘今。且未有當頭道著。作麼生是當頭一句。良久。云。箇。

上堂云。山僧有時正路行。或時草裏走。汝等諸人莫見錐頭利。失却鑿頭方。不見古者道。開不能遮。勾賊破家。當斷不斷。返遭其亂。

上堂云。聖凡情盡。體露真常。拈起拂子云。拂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扭脫帝釋鼻孔。驢脣先生拊掌大笑道。盡十方世界覓箇識好惡底人。萬中無一。擊禪牀一下。

上堂云。山僧今日在汝諸人眉毛上坐。轉大法輪。還有人見麼。見與不見。是什麼說話。好好參堂去。莫築著露柱。

上堂。拈拄杖云。橫拈倒用。撥開彌勒眼睛。明去暗來。敲落祖師鼻孔。當是時也。目連·鷲子飲氣吞聲。臨濟·德山呵呵大笑。且道笑箇什麼。咄。

上堂云。洪波浩渺。白浪滔天。截流到岸之人。端然忘慮。短棹孤舟之客。進退攢眉。且道風恬浪靜一句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若無人道得。山僧布施爾諸人。良久。云。漁人閑自唱。樵者獨高歌。

上堂。眾集。乃喝一喝。良久。云。一事也無。喝箇什麼。又喝一喝。云。一喝兩喝後作麼生。以拂子向空書一畫。云。百丈耳聾猶自可。三聖瞎驢愁殺人。擊拂子一下師室中常問僧出家所以。鄉關來歷。復扣云。人人盡有生緣處。那箇是上座生緣處。又復當機問答。正馳鋒辯。却復伸手云。我手何似佛手。又問諸方參請宗師所得。却復垂脚云。我脚何似驢脚。三十餘年示此三問。往往學者多不湊機。叢林共目為三關。

師於熙寧二年己酉二月十六日上堂辭眾。云。山僧才輕德薄。豈堪人師。蓋不昧本心。不欺諸聖。未免生死。今免生死。未出輪回。今出輪回。未得解脫。今得解脫。未得自在。今得自在。所以大覺世尊於然燈佛所無一法可得。六祖夜半於黃梅又傳箇什麼。乃示偈曰。

得不得。傳不傳。歸根得旨復何言。
憶得首山曾漏泄。新婦騎驢阿家牽。

至十七日午時。端坐示寂。闍維。得五色舍利。以石塔窆之。

洪州翠巖廣化可真禪師

在歸宗南禪師堂中為座元。南問。首座常將女子出定話為人。是否。

真云。無。

南云。奢而不儉。儉而不奢。為甚道無。

真云。若是本分衲僧。也少鹽醬不得。

南喚侍者。報典座。來日祇煮白粥。

問。我寧不說法。疾入於涅槃。朝宰臨筵。師說何法。

師云。雲卷長空千里靜。日輪當午八方明。

僧曰。大眾霑恩也。

師云。知心能幾人。

問。學人上來。請師一接。

師云。花甌藥草。

僧曰。若不上來伸此問。焉知明月照乾坤。

師云。不謾道。僧擬議。師便喝。

問。如何是佛。

師云。同坑無異土。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深耕淺種。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五通賢聖。

僧曰。學人不會。

師云。舌至梵天。

問。如何是學人轉身處。

師云。一堵牆。百堵調。

僧曰。如何是學人著力處。

師云。千日斫柴一日燒。

僧曰。如何是學人親切處。

師云。渾家送上渡頭船。

問。機鋒纔展。四海來投。向上宗乘。請師舉唱。

師曰。西天此土。

僧曰。學人未曉。

師云。爾著甚來由。

僧曰。花發山前路。鳥過北巖棲。

師云。脚跟下看。

問。利人一句。請師垂示。
師云。兩脚蝦蟇飛上天。
僧曰。前村深雪裏。昨夜一枝開。
師云。飢逢王饍不能餐。
問。如何是道。
師云。出門便見。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擔枷過狀。
師云。先德道。此事如爆龜文。爆即成兆。不爆成鈍。爆與不爆。直下便捏。上藍即不然。無固無必。虛空走馬。旱地行船。南山起雲。北山下雨。遂拈拄杖云。拄杖子變作天大將軍。巡歷四天下。有守節不守節。有戒行無戒行。一時奏與天帝釋。乃喝一喝。云。丈夫自有衝天氣。莫向如來行處行。卓一下。
上堂云。捫空無迹。追響無聞。釋迦· 達磨謫向他方。文殊· 普賢權為小使。汝等諸人向甚麼處安身立命。所以道。也有權。也有要。也有明。也有暗。也有照。也有用。也有賓。也有主。放過一著。何不道取。乃喝一喝。卓拄杖一下。
上堂云。臨陣抗敵。不懼生死者。將軍之勇也。入山不懼兇虎者。獵人之勇也。入水不懼蛟龍者。漁人之勇也。作麼生是衲僧勇。拈拄杖云。遮箇是拄杖子。拈得· 把得· 動得。觀音· 勢至一時搖動。若拈不得· 把不得· 動不得。文殊自文殊。解脫自解脫。參。

袁州楊岐山普通禪院方會禪師

袁州宜春人。姓冷氏。落髮於潭州瀏陽道吾山。參慈明禪師。頓悟祖意。出世楊岐。次遷雲蓋。大振臨濟宗風。
切授法衣。乃拈起示眾云。會麼。若也未會。今日無端走入水牯牛隊裏去也。還知麼。筠陽九岫。萍實楊岐。便陞座。
時有僧出。師云。漁翁未擲釣。錦鱗衝浪來。僧便喝。
師云。不信道。僧拊掌歸眾。
師云。消得龍王多少風。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大眾落二落三了也。諸人何不負丈夫志氣。若不然者。有疑請問。
問。如何是佛。
師云。三脚驢子弄蹄行。
僧曰。莫祇遮便是。
師云。湖南長老。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隔江打鼓不曾聞。
僧曰。興化嫡子。臨濟兒孫。
師云。因齋慶讚。
問。欲免心中鬧。應須看古教。如何是古教。
師云。乾坤月明。碧海波澄。
僧曰。未審作麼生看。
師云。脚跟下。
僧曰。忽遇洪波浩渺時如何。
師云。十字縱橫。僧便喝。拊掌一下。
師云。看遮一員禪客。
僧曰。打草蛇驚。
師云。也要大家知。
問。人法俱遣。未是衲僧極則。佛祖雙亡。猶是學人疑處。未審和尚如何為人。
師云。祇要勘破新長老。
僧曰。恁麼則旋斫生柴帶葉燒。
師云。七九六十三。
問。古人面壁。意旨如何。
師云。西天人不會唐言。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人心隔肚。鉢口向天。
上堂云。霧罩長空。風生大野。百草枯木作師子吼。演說摩訶大般若。三世諸佛在爾諸人脚跟下轉大法輪。若也會得。功不浪施。若也不會。莫道楊岐山勢險。前頭更有最高峯。
上堂云。春雨普潤。滴滴不落別處。拈拄杖。卓一下。云。會麼。九年空面壁。年老轉心孤。
上堂云。不見一法是大過患。遂拈拄杖云。穿却釋迦老子鼻孔。作麼生道得脫身一句。良久。云。向道莫行山下路。果聞猿叫斷腸聲。
上堂云。舉古人一轉公案布施大眾。良久云。口祇堪喫飯。
上堂云。拍禪牀一下。云。祇箇心心是佛。十方世界最靈物。釋迦老子說夢。三世諸佛說夢。天下老和尚說夢。且問諸人還曾作夢麼。若也作夢。向半夜裏道將一句來。良久。云。人間縱有真消息。偷向楊岐說夢看。
上堂云。阿呵呵。是甚麼。僧堂裏喫茶去。
上堂云。踏著稱鎚硬似鐵。啞子得夢向誰說。須彌頂上浪滔天。大洋海裏遭火爇。參。

上堂云。楊岐一要。千聖同妙。布施大眾。拍禪牀一下。云。果然失照。參。

上堂云。楊岐一言。隨方就圓。若也擬議。十萬八千。

上堂云。楊岐一語。呵佛叱祖。明眼人前。不得錯舉。

上堂云。楊岐一句。急著眼觀。長連牀上。拈匙把筯。

上堂云。楊岐無旨的。種田博飯喫。說夢老瞿曇。何處覓蹤跡。喝一喝。拍禪牀一下。

潭州道吾山興化悟真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洞庭無蓋。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夜行人更多。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天曉路旁邊。

師云。山前麥熟。廬陵米價。鎮州蘿蔔。更有一般。良久。云。時挑野菜和根煮。旋斫生柴帶葉燒。

明州天童山清遂禪師

問。叢林振響。久仰師名。祖裔西來。何人門下。

師云。霜花披石秀。

僧曰。昔日霜峯。今朝鳳嶺。

師云。別是一家春。

僧曰。謝師指示。

師云。一言已出。

金陵蔣山太平興國寺保心禪師

問。月未圓時如何。

師云。順數將去。

僧曰。圓後如何。

師云。倒數將來。

問。如何是吹毛劍。

師云。黑漆露柱。

問。聲色兩字如何透得。

師云。一手吹。一手拍。

問。如何是道。
師云。穿山驀嶺。
問。如何是密室。
師云。四通八達。
僧曰。如何是密室中人。
師云。南來北往。
上堂云。夫鐘阜名墟。龍蟠勝槩。平川一帶。游客尚迷。絕壑千尋。時人罕到。若也到得去。坐斷毗盧頂。不稟釋迦文。若也未到。一任爾天台。南嶽。空腹高心。喝一喝。下座。
上堂云。火裏蓮生。海中塵起。維摩默然。文殊歡喜。惹得天花徧地來。空生淨處彈指。卓拄杖一下。

金陵蔣山覺海禪師

諱贊元。婺州義烏縣傅氏子。乃傅大士之裔也。夙修種智。隨願示生。父母感祥。閭里稱異。頂角受具。冠歲遊方。遠造石霜。陞於丈室。慈明一見。云。好好著槽廠。師遂作驢鳴。
慈明曰。真法器耳。
俾為侍者。二十年中。運水般柴。不憚寒暑。悉已躬親。求道事師。少有如此。
後出世蘇臺。天峯。龍華。白雲。府帥請居志公道場。提綱宗要。機鋒迅敏。解行相應。諸方推伏。大丞相王公安石重師德望。特奏章服。師名。及有俸餘。悉置物產。供給禪眾。公又堅辭鼎席。樂遊鍾山。約師蕭散林下。清談終日。此亦明世希有事也。坐滅本山。
問。大事顯揚於此日。師將何物報君恩。
師云。玉樹果香千載端。金輪光燭萬年輝。
僧曰。不虛出世也。
師云。青山饒得白雲多。
問。如何是道。
師云。南通州。北入縣。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驢前馬後。
問。如何是佛。
師云。眼皮拖地。
僧曰。如何是諸佛出身處。
師云。驢胎馬腹。
問。離却咽喉唇吻。請師道。

師云。波斯鼻孔不通風。
問。魯祖面壁。意旨如何。
師云。住持事繁。
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未審將什麼對。
師云。前三後四。
問。如何是大善知識。
師云。屠牛剝羊。
僧曰。為甚麼如此。
師云。業在其中。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東壁打西壁。
僧曰。客來如何祇待。
師云。山上樵。井中水。
問。摩騰西來即不問。少林面壁意如何。
師云。火中巢翡翠。水上畫丹青。
僧曰。還有向上事也無。
師云。萬年松色轉宜霜。
上堂云。雲鎖千岑。樵子迷出身之路。風颺四海。漁人尋回棹之津。鴈過吳天。遠人來信。猿啼巴峽。遊侶何傷。而今勿謂行路難。雪上加霜君好看。咄。
上堂云。久默斯要。不務速說。釋迦老子不惜手脚。山僧擬欲說破。筭來家配不可外揚。
上堂云。般若玄妙。本自無生。大用現前。不論時節。昨夜露柱現三頭六臂。拈了須彌。踏翻大海。四天門王走向諸人眼睫裏藏身。還知麼。若也知去。正是瞌睡知解。若也不知。拄杖子平生熱肺腸。為爾點開不睡底眼。卓一下。
上堂云。瑠璃殿上。唱出彌高。碼碯堦前。和來彌寡。豈免舟橫野水。棹發孤煙。雲月古今共同。溪山南北各異。是知雲門·臨濟·法眼·洞山。放去。疆界皎然。收來。絕無矛盾。頂門之眼。切莫遲遲。差之毫釐。龍華會裏。喝一喝。
上堂云。遮箇若是。如虎戴角。遮箇若不是。喚作什麼。良久。
云。餒驢餒馬。珍重。
上堂云。風息浪平。雨餘山翠。樵歌越嶺。漁唱湘灣。聲聲互答韻清閑。一曲中含千古意。拍手一下。
大丞相荊國公讚師真。賢哉人也。行厲而容寂。知言而能默。譽榮弗喜。辱毀弗戚。弗矜弗克。人自稱德。有緇有白。來自南北。弗勾弗逆。弗抗弗抑。弗觀汝華。唯食己實。孰其嗣之。我有遺則。

婺州大平興國禪寺載休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理長即就。

僧曰。恁麼則石霜嫡子。

師云。且低聲。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問。如何是道。

師云。朝看東南。暮看西北。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兩兩三三。

筠州武泉山政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槍刺不入。

僧曰。如何是佛法大意。

師云。衣成人。水成田。

問。如何是前照後用。師便喝。

僧曰。如何是前用後照。師亦喝。

僧曰。如何是照用同時。師又喝。

僧曰。如何是照用不同時。師隨後便打。

師云。黃梅席上。海眾千人。付法傳衣。確坊行者。是則紅日西昇。非則月輪東上。參。

明州香山蘊良禪師

問。馬祖陞堂。百丈捲席。意旨如何。

師云。蚊子上鉄牛。

僧曰。畢竟如何。

師云。烏龜倒上樹。

僧曰。古之。今之。

師云。放爾三十棒。

問。如何是佛。

師云。面赤不如語直。

問。如何是透法身句。

師云。刹竿頭上舞三臺。

僧曰。如何是接初機句。
師云。上大人。
僧曰。如何是末後句。
師云。雙林樹下。
問。垂絲千尺。意在深潭。離鈎三寸。請師速道。
師云。我道不得。
僧曰。為甚麼道不得。
師云。謝子證明。
僧曰。早知今日事。悔不慎當初。
師云。龍生龍子。
問。百年暗室。一燈能破時如何。
師云。撞牆撞壁。
僧曰。豈無方便。
師云。透七透八。
問。兩陣交鋒時如何。
師云。一得一失。
問。如何是學人轉身處。
師云。磨坊裏。
師云。曹溪浩渺。魚龍無處優游。多子峰高。鳥獸不能棲泊。且向江西路上兩兩三三。韶石門前出口入耳。不免分張遐邇。適莫親疎。可其旨者。麟角猶稀。乖其事者。稻麻非眾。到遮裏。便是氣衝牛斗。眼放電光。也是秦時[車*度]轆鑽。咄。
上堂。良久。呵呵大笑云。笑箇甚麼。笑佗鴻鵠沖天飛。烏龜水底逐魚兒。三箇老婆六隻孌。金剛背上爛如泥。阿呵呵。知不知。東村陳大耆。參。
上堂云。清淨法身無定度。走入蘆花深處去。箇中遇著王老師。無問無答亦無據。參。

蘇州南峰惟廣禪師

問。如何是南峰境。
師云。嵯峨出群嶽。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分明領話。
僧曰。便是為人處也無。
師云。弄潮須是弄潮人。
師云。一問一答。如鐘含響。似谷應聲。蓋為事不獲已。且於建化門中放一線道。若據衲僧門下。天地懸殊。且道衲僧有甚麼長處。

良久。云。盡日覓不得。有時還自來。咄。

湖州報本澄說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石鼓振時天地響。

僧曰。英靈之者。已曉師機。昧識之流。如何領會。

師云。玉峰危聳碧霄間。

僧曰。恁麼則霜溪嫡子。汾陽玄孫。

師云。人無遠慮。必有近憂。

問。如何是佛。

師云。寶殿豁開全體現。

僧曰。如何領會。

師云。玉爐香起大家看。

杭州淨慈志堅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慧日峯高。

問。向上一路。千聖不傳。達磨西來。當為何事。

師云。為不會者。

僧曰。恁麼則今日小出大遇。

師云。果然。

潭州南嶽雙峯寺省回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鳥道人歸後。雲生雨過時。

僧曰。今日親見雙峰。

師云。特地一場愁。僧退身。拍一拍。

師云。記取話頭。

師云。青山疊疊。綠水滔滔。入理深談。如何話會。良久。云。伯牙雖會彈。須是子期聽。拍一拍。

上堂云。寒山把糞箕。拾得拈掃帚。寺主不知機。豐干笑破口。大眾還會麼。見月休觀指。歸家罷問程。拍禪牀。下座。

上堂云。南番人泛船。塞北人搖艫。波斯入大唐。須彌山作舞。是甚麼說話。

師元豐六年九月十七日。沐浴淨髮。辭眾寫偈云。

九十二光陰。分明對眾說。
遠洞散寒雲。幽窗度殘月。
言訖坐逝。焚化。齒·頂皆不壞。上有五色異光。

洪州兜率道寬禪師

問。平常心是道。如何是平常心師云。左出右入。
僧曰。為什麼人人不曉。
師云。旋風千帀。尚有不周。
僧曰。周遍本然。為什麼不周。
師云。日月雖明。不照覆盆之下。
問。如何是前三三。後三三。
師云。數九不到九。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點茶須是百沸湯。
僧曰。意旨如何。
師云。喫盡莫留滓。
問。一塵纔起。大地全收。如何是一塵。
師云。水不洗水。
問。眾生本來成佛。為什麼有煩惱菩提。
師云。甘草甜。黃連苦。
僧曰。却成兩段。
師云。不妨會得好。
問。既是一真法界。為什麼有千差萬別。
師云。根深葉盛。
僧打圓相。云。出得遮箇也無。
師云。弄巧成拙。
問。有相身中無相身。如何是無相身。
師云。舌不出口。
問。如何是無明路上無生路。
師云。鬧市裏打磬。
僧曰。教中為什麼道永斷無明。方成佛道。
師云。方入圓。圓入方。
師云。向上提綱。盡轉無盡。向下舉唱。事屬多端。覲面相呈。何人知有。若向遮裏透得。七通八達。自在遨遊。若透不得。滿目青山。自生障礙。喝一喝。
上堂云。少林妙訣。古佛家風。應用隨機。卷舒自在。如拳作掌。開合有時。似水成漚。起滅無定。動靜俱顯。語默全彰。萬用自

然。不勞心力。到遮裏。喚作順水放船。且道逆風舉棹。誰是好手。良久。云。弄潮須是弄潮人。喝一喝。云。珍重。
上堂云。法不可說。言語道斷。有念乖真。用心失本。倚天神劍。光燦四方。日月讓明。雲霞散彩。正當與麼時。祖佛出來。也須乞命。良久。喝一喝。
上堂云。山高水冷。松老雲閑。枕石漱流。隈巖養性。塵機自盡。佛事長新。彌勒釋迦。時時出現。大眾且道什麼處出現。良久云。石頭大底大。小底小。喝一喝。

福州古田資福善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腳踏實地。
僧曰。意旨如何。
師云。仰面看天。

潭州大瀉山密印寺德乾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水從山上出。
僧曰。意旨如何。
師云。溪澗豈能留。
問。如何是佛。
師云。身長丈六。
僧曰。意旨如何。
師云。足襯雙蓮。
師云。山花似錦。文殊撞著眼睛。幽鳥綿蠻。觀音塞却耳際。諸仁者。更思量箇甚麼。昨夜三更睡不著。翻身捉得普賢。貶向無生國裏。一覺直至天明。今朝又得與諸人相見說夢。噫。是甚麼說話。以拄杖卓一下。

全州靈山本言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誰教爾恁麼問。
僧曰。今日起動和尚也。
師云。謝訪及。

師云。不用愛聖。聖是虛名。不用厭凡。凡是妄立。若得聖凡情盡。便乃大智現前。即如如佛。還信得及麼。若信得及去。與釋迦不別。若信不及。且止宿草庵。三十年後。鼻孔遼天。不得錯怪人。拂子擊禪牀一下。

湖州羅漢居奉禪師

問。如何是最初一句。

師云。未問已前。

僧曰。如何是末後一句。

師云。一言已出。

師云。最初末後句。衲僧皆罔措。更擬問如何。嚴冬發和氣。卓拄杖。

澧州壽聖院景韶禪師

問。師登丈室。如何指南。

師云。上來下去。

僧曰。流通於世也。師喝一喝。僧禮拜。

師云。靜處薩婆訶。

上堂云。法本無涯際。毫端現十方。直饒玄會得。未免雪加霜。喝一喝。

澧州藥山義銑禪師

問。擬心即差。動念即乖。如何即是。

師云。兵隨印轉。將逐符行。

問。文殊問疾。維摩默然。意旨如何。

師云。鼻孔遼天。

問。八風吹不動。底人是何境界。

師云。須彌山。

上堂云。山僧活計。日日一般。雲橫碧岫。松柏崢嶸。清風滿戶。明月盈堂。有眼者辨取。無眼者顛預。且道不落見聞一句作麼生道。良久。云。木人夜半穿鞋去。石女天明戴帽歸。咄。

湖州廣法禪院源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甌頭瓦片。
問。如何是佛。
師云。火燄裏出頭。
僧曰。意旨如何。
師云。頭紅面赤。
問。行脚不逢人時如何。
師云。千年桃核。
僧曰。逢人時如何。
師云。根生土長。
問。如何是無縫塔。
師云。掘不得。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無面目。
問。鬧市取靜時如何。
師云。冤不可結。
僧曰。如何是吹毛劍。
師云。竹片。
問。師子未出窟時如何。
師云。事持牙爪。
僧曰。出後如何。
師云。抖擻衣毛。
僧曰。謝師答話。
師云。撥不轉。
問。塵中如何辨主。
師云。短簷帽子。長脚幞頭。
問。如何是正法眼。
師云。眉毛下。
僧曰。便與麼會時如何。
師云。瞳兒笑點頭。
問。如何是向上事。
師云。日月星辰。
僧曰。如何是向下事。
師云。地獄鑊湯。
問。如何是究竟事。
師云。秋風黃葉落。
僧曰。莫便是和尚見處。
師云。春來依舊生。
問。萬里無雲時如何。

師云。獼猴忍餓。
僧曰。乞師拯濟。
師云。什麼火色。
問。古人拈槌舉拂。意旨如何。
師云。白日無閑人。
僧曰。如何承當。
師云。如風過耳。
問。握劍當霄時如何。
師云。老鴉成隊。
僧曰。正是和尚見處。
師云。蛇穿鼻孔。僧拂袖便出。
師云。大眾相送。
問。從上諸聖向什麼處行履。
師云。十字街頭。
僧曰。與麼則敗闕也。
師云。知爾不到遮田地。
僧曰。到後如何。
師云。家常茶飲。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乾薑附子。
僧曰。與麼則不同也。
師云。冰片雲團。
上堂云。春雨微微。簷頭水滴。聞聲不悟。歸堂面壁。
上堂云。若論大道。直教杼山無開口處。爾諸人試開口看。
僧便問。如何是大道。
師云。擔不起。
僧曰。為什麼擔不起。
師云。大道。
師云。若論此事。切莫道著。道著即頭角生。
有僧出眾云。頭角生也。
師云。禍事。
僧曰。某甲罪過。
師云。龍頭蛇尾。伏惟珍重。
師壽八十一歲。元豐八年十月十二日晚。無疾。淨髮沐浴。書偈云。
雪鬢霜髭九九年。半肩毳衲書諸緣。
廓然笑指浮雲散。玉兔流光照大千。
擲筆。趺坐而逝。

洪州百文惟政禪師

開堂日。陞座拈香云。大眾會麼。南源嶺上石筍抽條。枯木堂前霜花吐蘂。非常之事。豈敢囊藏。學無常師。理長即就。遂跌坐。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已在言前。

僧曰。恁麼則臨濟兒孫。石霜嫡子。

師云。莫亂卜度。

僧曰。爭柰石筍抽條。霜花吐蘂。

師云。一任流通。

南嶽谷泉大道

師參慈明。纔至寢堂。慈明問曰。白雲橫谷口。遊人何處來。

師顧視左右云。夜來何處火。燒出古人墳。

慈明曰。未在。更道。師作虎聲。慈明打一坐具。師接住。推向禪牀上。慈明却作虎聲。師呵呵大笑。

慈明揖云。且坐喫茶。

師乃云。吾參七十一員善知識。唯師有巴鼻。臨濟一宗。在師行矣。

滁州瑯琊山惠覺廣照禪師法嗣

洪州泐潭山曉月禪師

豫章人也。性若天資。聰如神授。六經百子。三藏五乘。凡一舒卷。洞明淵奧。參瑯琊廣照。密傳心印。五百雲眾。推為上首。後出世四十餘年。每日三時發揮宗教。略無少怠。其訓學徒若此。坐滅道濟庵。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望月臺前雲冪冪。白龍泉畔水潺潺。

僧曰。與麼則瑯琊嫡子。臨濟兒孫。

師云。聽事不真。喚鍾作甕。

問。修多羅教如標月指。未審指箇什麼。

師云。請高著眼。

僧曰。曙色未分人盡望。及乎天曉也尋常。

師云。年衰鬼弄人。

蘇州永安定慧院起信海印禪師

問。如何是佛法的大意。

師云。湘源斑竹杖。

僧曰。不會。

師云。枝枝帶淚痕。

問。如何是平常句。

師云。三脚蝦蟆背巨鼈。

僧曰。如何是玄妙無私句。

師云。白雲覆青山。

僧曰。如何是體明無盡句。

師云。須彌頂上浪滔天。

僧曰。三句外。還有向上事也無。

師云。天台。南嶽。

問。覲面相呈時如何。

師云。好箇問頭。

僧曰。何不領話。

師云。我不識爾話頭。

問。如何是第一句。

師云。那吒忿怒。

僧曰。如何是第二句。

師云。衲僧罔措。

僧曰。如何是第三句。

師云。西天此土。

上堂云。摩竭掩室。計校未成。毗耶杜詞。伎倆俱盡。一棒一喝。未稱衲僧。舉拂揚眉。殘羹餽飯。諸仁者。山僧與麼說話。為佗閑事長無明。且道不傷物義句作麼生道。良久。云。常愛嶺南深臘裏。雪中初綻一枝梅。

上堂云。春風乍回。春景相催。枯夢欲發未發。柳眼似開不開。堪羨漁家江上景。數峯如畫碧崔嵬。諸仁者。且道於佛法中是何時節。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上堂云。泥蛇齧石鼈。露柱啾啾叫。須彌打一棒。閻老呵呵笑。參。

上堂云。若識般若。即被般若縛。若不識般若。亦是般若縛。識與不識。拈放一邊。却問諸人。如何是般若體。參堂去。

上堂云。有時一喝。壁立千仞。有時一喝。四楞搭地。遂喝一喝。云。且道落在什麼處。爾若辨得。也好與一喝。拍禪牀一下。

上堂云。鶯聲闌。蟬聲急。入水烏龜頭不濕。鷺鷥飛入蘆花叢。雪月交輝俱不及。咄。

福州白鹿山顯端禪師

姓周氏。本州閩清縣人也。受具之後。遊歷江淮。始到廬山祖印林禪師法席。迨餘一紀。未息疑情。晚扣滁陽廣照禪師之室。一見動容。即悟其旨。後歸止甌閩。命住地藏。道行大播。知府密學蔡侯聞師德譽。遷居白鹿。兩住大剎四十六年。壽八十四。

元豐七載七月十二日。集眾說偈云。

來說生兮去說滅。二人證龜成一鼈。

悟心禪客若為論。水裏銀蟾天上月。

言畢而逝。

問。佛佛授手。祖祖相傳。傳得底事。請師指示。

師云。家有千金之籌。不自知非。

僧曰。也知師得親承旨。還許學人授也無。

師云。車無一尺之輪。焉能到遠。

問。如何是教意。

師云。楞伽會上。

僧曰。如何是祖意。

師云。熊耳山前。

僧曰。祖意教意。相去幾何。

師云。寒松連翠竹。秋水對紅蓮。

問。如何是不動尊。

師云。長安路上。來往憧憧。

僧曰。猶是動底。

師云。徒消人食。浪費人衣。

問。魯祖面壁。意旨如何。

師云。睡不著。

問。如何是道。

師云。九州百越。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乘肥衣錦。

問。如何是大善知識。

師云。持刀按劍。

僧曰。為什麼如此。

師云。禮防君子。

問。如何是異類。

師云。鴉巢生鳳。
問。寒暑到來。如何回避。
師云。千株松下。
僧曰。意旨何如。
師云。倒臥橫眠。
問。如何是佛。
師云。商州客。
問。如何是祖。
師云。嶺南僧。
僧曰。如何是法。
師云。村歌社舞。
僧曰。如何是學人行履處。
師云。左脚踏衡山。右脚踏北海。
上堂云。摩騰入漢。肉上剜瘡。僧會來吳。眼中添屑。達磨九年面壁。鬼魅之由。二祖立雪求心。翻成不肖。汝等諸人到遮裏。如何吐露。若也道得。海上橫行。若道不得。林間獨臥。以拄杖擊禪牀一下。

越州姜山方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鐵牛背上書千字。
僧曰。瑯琊嫡子也。
師云。彌勒堂中畫普賢。
僧曰。三十年後此話盛行。
師云。馬到江邊。船行千里。
問。如何是佛。
師云。留髭表丈夫。
上堂云。金苞乍吐籬邊菊。玉露初垂葉上珠。祇此明明箇消息。不須南北問真虛。良久云。好。

杭州天竺智月禪師

問。摩竭陀國。水泄不通。鹿野苑中。如何垂示。
師云。棒打石人開鐵眼。
僧曰。一句流通也。
師云。劒揮牛斗動金星。
僧曰。謝師方便。

師云。晴乾不肯去。

證聖禪院良禪師

問。寶座既登。將何指示。

師云。嶺上梅方拆。

僧曰。恁麼則徧天徧地。

師云。堤邊柳漸榮。

上堂云。若論此事。如鴻鍾待扣。聲應長空。若寶鑑當臺。影臨萬象。天不能蓋。地不能載。賢愚共處。聖凡同之。不得與麼道。大有人笑去在。佗笑我笑。誰知此竅。三十年後。更笑一笑。

滁州瑯琊山開化智遷禪師

問。如何是瑯琊境。

師云。松因有限蕭疎老。花為無情取次開。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髮長僧貌醜。

問。如何是和尚為人句。

師云。眼前三尺雪。

僧曰。莫便是也無。

師云。腦後一枝花。

上堂云。慧山屹屹高。則有頂難量。法海滔滔深。則無涯莫測。故我祖師西邁。禪祖東流。一燈始耀於曹溪。六葉徧芳於蘭若。撮其樞要。直了心源。出沒卷舒。縱橫妙用。備均奧旨。頓見如來。達境智以雙亡。了是非而俱泯。所以前不接後。後不別前。前後續斷。中間自孤。當體湛然。應時消滅。既如是矣。亦有何事。隨時應用。野老謳歌。四海晏清。八方無事。堯風遠扇。舜日高明。且道恁時上將軍在什麼處。良久。云。不許將軍見太平。

廬山圓通崇勝志珂禪師

問。德山棒。臨濟喝。未審崇勝如何。

師云。五老雲開。千峯聳翠。

僧曰。還許學人通一線道也無。

師云。作麼生。僧便喝。

師云。作家。僧擬議。師却喝。

上堂云。上不在天。下不在地。中不在人。不在外。不在中間。二邊俱不立。中道不須安。三箇合頭語。聞者自家看。山僧今日和泥合水。且恁麼。三十年後莫顛預。喝一喝。

滁州瑯琊山開化院繼詮海月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志公剪刀。

僧曰。巖花爭競發。澗水淥如藍。

師云。黃蘗拂子。

問。拈槌舉拂即不問。瞬目揚眉事若何。

師云。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

僧曰。學人不會。

師云。大海雖然闊。不宿死人屍。

僧曰。畢竟如何。

師云。禮拜了去。

上堂云。瑯琊峯上。嵯峨山色如藍。庶子泉中。瀲灩水澄如鏡。遂使汾陽慧炬烜赫而橫徧十方。臨濟玄風壁立而上窮三際。泥中哮吼。木馬嘶鳴。大用現前。徒勞佇思。箭穿黃葉。誰敢當鋒。有不惜身命者。試出來看。良久。云。三十年弄馬騎。今日却被驢子撲。

荊門軍玉泉山務本悟空禪師

問。如何是玉泉境。

師云。前臨紫蓋。後枕清溪。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脚踏海眼。身坐覆船。

僧曰。學人今日得遇於師。

師云。去。

袁州崇勝文捷禪師

問。如何是諸佛出身處。

師云。長連牀上。

僧曰。未審如何履踐。

師云。飢餐渴飲。

問。和尚見瑯琊時得箇甚麼。

師云。不欠少。

僧曰。不藉師承去也。

師云。老僧今年七十。

上堂云。因來即睡飯來餐。貴賤賢愚總一般。要會祖師端的旨。寒山拾得禮豐干。諸仁者。千般求法。莫若求心。萬種多知。不知禁口。百不知。百不會。誰知自得真三昧。一任傍人笑道癡。却笑傍人無見解。山僧今日漏泄。拖泥帶水。總為說了也。還委悉麼。良久。喝一喝。

江陵公安萬壽子和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燒香瞻仰。

上堂云。將領雄兵出塞行。匣中寶劍迴光生。有人若問家風事。荊水滔滔已太平。

師忽一日召眾喫茶。眾未散。端然示化。茶毗。獲五色舍利千餘粒。

安州九巖山圓明仁益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祇爾是。

僧曰。不會。

師云。會取不會底。

上堂云。若論此事。如鍾含響。扣即發聲。似谷藏音。呼之必應。向微塵裏坐大道場。於一毛頭演無量義。十二時中無一絲毫間隔。言談戲論。行住坐臥。於此會得。不妨省力。然雖如是。未免為蛇畫足。且作麼生得脫灑去。良久。云。前村深雪裏。昨夜一枝開。

泉州涼峯山洞淵禪師

問。如何是涅槃。

師云。刀斫斧劈。

僧曰。如何是解脫。

師云。衫長袴短。

問。諸聖不到處。師還知也無。

師云。老來無力下禪牀。

問。離四句。絕百非時如何。

師云。柴門草自深。
問。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松直棘曲。
問。如何是佛。
師云。金沙照影。
問。如何是道。
師云。玉女拋梭。
僧曰。佛與道相去幾何。
師云。龜毛長一丈。兔角長八尺。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水草不曾虧。
僧曰。還守護也無。
師咄云。阿誰守護汝。
問。如何是真實相。
師云。石不藏玉。
僧曰。如何是方便門。
師云。泥裏洗土。
僧曰。謝師方便。
師云。迴頭看不見。
問。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如何是心。
師云。古渡無人過。孤舟終日橫。
僧曰。如何是種種法。
師云。汝適來問箇什麼。
上堂云。幸自非言。何須筍[口*質]。若是鑽天鷄子。身帶網羅。
若是透網金鱗。眼看波浪。裁長補短。未稱衲僧。平高就低。未是好手。到遮裏。作麼生。涼峯今日不可壓良為賤。以拄杖卓一下。

真州定山方禪師

參瑯琊廣照禪師。唯看栢樹子話。每入室陳其所見。不容措詞。常被喝出。忽一日大悟。直入方丈云。我會也。
廣照曰。汝作麼生會。
云。夜來牀薦暖。一覺到天明。廣照可之。由是道望傳播諸方。
上堂云。今日與眾評章。共立叢林保社。入門須辨主賓。起坐常存高下。寮舍語笑低聲。佗家筆硯莫把。點茶喫了添湯。田地污須掃灑。萬事一切尋常。不用彊生苟且。吾門無種不有。切莫傳歸俗舍。是非長短誰無。信士聞以為差。如來大藏教言。好向人前說打。待伊懽喜上心。萬種千般肯捨。得了修造供僧。福利全歸施

者。輒莫別作閑緣。果報牽犁拽把。三塗地獄辛酸。莫待臨時懼怕。此乃略說大綱。看者莫生驚訝。不信但看古伽藍。堂堂粉壁分明畫。

湖州景清院居素明照禪師法嗣

湖州何山日儉禪師

問。達磨西來人盡委。未審向上事如何。
師云。空中種竹猶自可。石上栽蓮物外鮮。
僧曰。恁麼則謝師指示。
師云。汝道我意如何。
僧曰。白雲綻處瑞花開。
師云。靜處薩婆訶。

杭州承天辯岑禪師

問。鳳凰山迥秀。摘出一枝新。不問三玄旨。得法嗣何人。
師云。雲藏巖竇窄。水闊玉峯低。
僧曰。恁麼則鎮府宗枝。
師云。一任鑽龜打瓦。
問。如何是道。
師云。稱尺斗量。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蘆葦花邊。蓼叢岸下。

興化軍翠峯子淵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海雲生嶽面。山月落堦前。
僧曰。恁麼則承天嫡子。
師云。孫賓恰在市。

杭州承天自能禪師

問。倚天長劔即不問。袖裏藏鋒事若何。
師云。看。
僧以手畫一畫云。遮裏作麼生。

師云。收。僧拊掌。師彈指一下。
建中靖國續燈錄卷第七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二世

舒州浮山法遠圓鑑禪師法嗣

東京十方淨因禪院淨照禪師

諱道臻。福州古田人也。俗姓載氏。父夢偉冠裳者導從至舍。母黃氏遂妊。復夢幢幡梵唄引厖眉碧眼僧至。乃誕生也。十四歲。投上生院出家。持頭陀行。十九落髮。粗習經論。後遂遊方。參諸知識。道契圓鑑禪師。

出世開堂 英宗皇帝遣使降香。繼而苗貴妃奏賜椹袍。都知蘭元振又奏賜覺照師名。周國大主表乞禪號。 神宗皇帝宣諭執政曰。道臻素有名德。宜擇一美號進呈。乃賜淨照禪師。京城創諸禪刹。選請宗匠。皆出師舉。悉稱 詔旨。

元祐八年八月十七日。陞堂辭眾。寫偈坐滅。

元豐三年春 慈聖光獻皇后上仙。百日建齋于慶壽殿。會千法師。

是日 神宗皇帝賜坐 宣問。長老將何追薦 太皇。

師對曰。臣僧得面 天顏。即 詔陞座。

時有僧問 太皇仙遊。今在何處。

師云。月落不離天。

問。飈駕既遠。仁孝何追。祖意西來。乞師方便。

師云。軒輝雖掩北。風教自存南。

僧曰 聖君詞句宣傳去。寰海烝民捧誦來。

師曰。劄利衲僧。

問 勅宣千法師入 內。並賜椹袍。未審得何福報。

師云。水長船高。

僧曰 皇圖永固。長興不二之門。

師云。淨因道處。不及闍梨。

僧曰。三邊肅靜民安泰。五穀豐登賀太平。

師云。不妨道著。

僧曰。聖人當殿。對答分明。三十年後。此話盛行。

師云。恰是。

問 天賜六銖師已掛。將何報答 我皇恩。

師云。雪峯道底。
僧曰。睿澤已蒙師指示。太皇仙馭往何方。
師曰。天濶地濶。
僧曰。一旦功成去。三祇果已圓。
師云。真師子兒。
僧云。恁麼則可謂師子窟中師子。
師曰。不得鈍致山僧。
師云。至道本無言說。何須問答去來。蓋為太皇太后。感一人之至德。集萬善之鴻因。式薦仙遊。證無生理。敢問諸人。今日種種佛事。時人道得。更有末後一句。還有人道得也無。良久。云。一人有慶。兆民賴之。切念臣山野常僧。行業無取。此日伏蒙聖慈。特賜舉揚宗旨。言詞荒拙。冒犯天威。但臣仰荷宸恩。無任驚悚。久瀆聖聰。伏惟珍重。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有錢使錢。無錢守貧。
僧曰。月華嫡子。臨濟兒孫。
師曰。放爾三十棒。
問。如何是淨因境。
師云。法廣殿牌。仁宗親寫。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六代祖師天下聞。
問。如何是道。
師云。古今行不盡。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萬家烟火外。一枕水雲間。
問。如何是佛。
師云。朝粧香。暮換水。
問。如何是觀音妙智力。
師云。河南犬吠。河北驢鳴。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拄杖橫擔不到肩。
僧曰。謝師答話。
師云。錯認定盤星。
師云。一問一答。無有盡時。古人呼作無盡藏海。亦呼為方便門。於衲僧面前。遠之遠矣。何故。權柄在手。縱奪自由。坐斷毗盧。壁立千仞。善財樓閣。孰肯優遊。華藏琅函。未之足拾。丈夫猛利。本合如然。過後思量。成第二月。除茲投機徇器。止宿草庵。

就下平高。曲成萬物。周流無滯。觸處皆通。苟不盡毫毛。自取其咎。如斯談說。笑殺衲僧。且道誰是解笑者。良久云。看。
上堂。拈拄杖云。柳[木*栗]木杖子。善能談佛祖。聾人既得聞。啞人亦解語。指白石為玉。點黃金為土。便恁麼會去。他家未相許。不相許。莫莽鹵。南街打鼓北街舞。

廬州興化仁岳禪師

泉南人也。挺秀江淮禪林。拔萃圓鑒宗席。首演說法於龍舒。後傳燈於淝水。熙寧十年秋。一日。書頌云。
金雞抱玉卵。玉兔長鳳兒。
舉頭南瞻部。飛過西耶尼。
遂趺坐而逝。荼毗。獲舍利千餘。建塔于郡西。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河裡木頭船。
問。鼓聲纔罷。猊座高登。朝蓋臨筵。合談何事。
師云。天清地寧。
僧曰。大眾證明。
師云。寒山拊掌。拾得呵呵。
問。和尚如何為人。師舉拂子。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曲[糸*頁]禪床。
僧曰。客來如何祇待。
師云。拄杖子。
問。如何是佛。
師云。頂上螺紋。
問。昔日祖師伸三拜。歸位端然事如何。
師云。金剛朝合掌。泥人夜點頭。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十五十六。日月相逐。
僧曰。更深方見把針人。
師云。且莫錯認。
問。如何是大道之原。
師云。黃河輓底流。
僧曰。學人未曉。
師云。貫注新羅國。
問。不看澄潭月。不守枯木巖。是什麼人。
師云。潦倒漁翁。躑躅樵子。

僧曰。究竟如何。
師云。相逢鼓腹。拍手謳謔。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臨濟問黃蘗。
僧曰。學人不會。
師云。三回喫棒來。
問。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如何是那一花。
師云。不堪供養佛。
僧曰。摘向什麼處。
師云。十字糞堆頭。
問。一大藏教。盡是名言。離此名言。如何指示。
師云。癩馬揩枯柳。
僧曰。學人不會。
師云。駱[馬*色]好喫鹽。
僧曰。畢竟如何。
師云。鐵鞭指處馬空嘶。
問。佛處深宮時如何。
師云。著珍御服。
僧曰。踰城出家時如何。
師云。掛弊垢衣。
僧曰。不出不處時如何。
師云。一刀兩段。
上堂云。當今一句。已在言前。未舉先聞。早彰醜陋。更待捋腰捺膝。跬步向前。擬動舌端。紛然失緒。若據衲僧分上。豈落今時。建立宗乘。隨機應副。所以拈鎚舉拂。瞬目揚眉。談古陳今。一斯方便。更乃看風辨的。照冉當懷。棒喝全提。豈同容易。蓋是事不獲已。曲為今時。到遮裡。若是久曾淘汰。回首高流。歷涉長波。自知冷暖。若遇初機禪客。緇素未分。權展機鋒。豁明大智。要伊回光自照。直於指外明機。返本歸源。莫向途中受用。變通衲子。不用踟躕。關捩動時。新羅激海。久立。珍重。

蘄州白雲山廣教景雲禪師

陝府夏縣人也。姓李氏。生不葷茹。親族異之。投西京靈山院臻上人出家。二十五落髮。遊方參問。得法於圓鑑禪師。後蘄守喬侯聞師道譽。命住是山。
問。如何是佛法的的大意。
師云。棒打石人開鉄眼。

僧曰。即此便是也。
師云。有甚交涉。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須彌頂上撞金鐘。
問。如何是無縫塔。
師云。任是僧繇誇好手。教君圖繪也無門。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揚眉招手喚。對面少人逢。
許內翰問。如何是廣教境。
師云。一片白雲橫嶽頂。
翰曰。如何是境中人。
師云。今日尊官入院。
上堂云。雲籠玉殿。風掃金沙。靈苗得地。徧野開花。遊人賞玩。禪子嘆嗟。咄。不悟少林真端的。背却彌陀討釋迦。
上堂云。紅爐焰上。金雪花開。白雲堂中。木人拊掌。直得天垂甘露。地涌珊瑚。無情日夜談真諦。不知誰是契如如。擊禪牀一下。
上堂云。道。道。箇中無紫皂。禪。禪。門與白雲連。向上一路。千聖不傳。胡家曲子如何唱。會麼。清風明月夜。浪打釣魚船。咄。
上堂云。了。了。人人道好。妙。妙。馨香誰曉。曉兮獲圓通。好兮談妙道。無限清風座下生。身中悟得無生老。無生老。報君知。一片無瑕萬古輝。咄。

無為軍廬江西禪繼禪師

師。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枯木巖前。
僧云。意旨如何。
師云。抽條石筍。
上堂云。青山青鬱鬱。淥水淥依依。物物尚如此。禪人作麼知。若乃知得。觸目而真。更無別事。一一法上一如來。一一塵中一彌勒。若也不知。且向三條椽下六尺單前。快須究取。良久。云。自是心源不調伏。祖師元是世間人。喝一喝。

宿州定林惠琛禪師

問。千百億化身。未審那箇是如來身。
師云。應物現形。

僧曰。恁麼則普現群生前。
師云。倒退三千。
問。如何是道。
師云。祇在目前。
僧曰。為什麼不見。
師云。瞎。

秀州本覺若珠禪師

福州人也。姓卓氏。母懷妊時。常感異夢。及生。祥光照室。七歲出家。恩度受具。後慕遊方。到蘇州天平圓鑑禪師法席。鑒問。父母未生時。那箇是汝本來面目。師於言下忽然有省。遂執侍巾瓶。至舒州浮山。每入室時。運石一轉。自後遁迹。日誦蓮經三帙。常坐不臥。後住[橋-矛+佳]城。法道大播。
元祐元年十月十日。命元照律師結大界相畢。翌日。沐浴淨髮。召眾曰。吾世緣將謝。汝善護持。言畢。趺坐而逝。七日身不傾側。茶毗。得五色舍利。塔葬本山。
問。如何是道。師舉起拳。
僧曰。不會。
師云。拳頭也不識。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一音剖出塵沙界。豁達靈通副萬機。
僧曰。恁麼則葉縣親孫。浮山嫡子。
師云。何不領話。
僧曰。話道什麼。
師云。十萬八千。
上堂云。說佛說祖。埋沒宗乘。舉古談今。淹留衲子。撥開上路。誰敢當頭。齊立下風。不勞拈出。無星稱子。如何辨得斤兩。若也辨得。須彌_抵重半銖。若辨不得。拗折秤衡。向日本國裡與諸人相見。

荊門軍玉泉山景德調芳禪師

問。從上諸聖。以何示人。師拈起拄杖。
僧曰。學人不會。
師云。兩手分付。僧擬議。師便打。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針鋒頭上翻筋斗。

僧曰。意旨如何。

師云。紅爐焰上碧瑠璃。

問。如何是一乘法。

師云。的當塵毛現。

上堂云。天駒未運。賓主照用齊行。毒鼓一鳴。瞎祖盲賢失宗旨。或高提神杖。或副類千端。影草竿頭火炬輝。寶劍刃中金毛吼。在主。則離南坎北。據賓。乃卯東西西。風雲合會。交光八面全收。應用同時。函蓋陣圖齊剪。雙開雙掩。令在當人。正按正提。藏鋒出袖。他亡此滅。猶懷組繡香囊。獲印回戈。始見文班武列。須分勝敗。豈許東西。火燄七星光射。須知百花競發。金針未舉。鋒露山河。玉印未開。光舒大野。曉色纖毫不犯。暗中眉目須分。白牛巖下非藏。金鳳幽庭豈鎖。君臣合會。舞蹈無門。浩意融懷。蜜移一步。頭角未現。布異類以周流。玉線關開。盡屬利生遮畔。大地都盧無的止。萬古澄潭月耀騰。荒田野戰眉不開。午夜陣圓宜豹變。正則龍銜異寶。偏乃鶴宿銀籠。正偏巨意若支離。失曉手中珠落地。異中見異。猶尺璧而胡分。出語不曉。似空中而赴倒。敲則大夜消忘。唱乃長天免運。放曠淋漓雨不傷。猶是夜明簾外客。

師一日沐浴淨髮。書頌云。

三更打破無巴鼻。午夜敲開大道機。

二千年前石人髓。不以露布報人知。

乃擲筆。安坐而逝。

廬山歸宗承天鴻式禪師

問。如何是歸宗境。

師云。右軍墨池。

僧曰。若不張帆。焉知海濶。

師云。想汝不知落處。

師於熙寧二年七月十九日上堂辭眾。云。須彌倒卓。海水逆流。石人破浪棹孤舟。拍手呵呵誰是侶。大千沙界任遨遊。咄。言畢。趺坐而逝。

東京華嚴普孜禪師

建州建陽謝氏子也。幼習儒老。復看佛經。至識自心源。夙根啟發。遂投太平興國西律院僧可崇出家得度。具戒。遊方參道。詣龍舒浮山圓鑑禪師法席。入室扣請。頓悟祖意。舒人請居甘露。太平二剎。道譽大播。

後退居淨因。元豐五年。左右街僧錄定居華嚴。再整禪規。京城內外。翕然歸向。八年四月十日 詔入 禁中說法 天子錫賚甚厚。是月十四日。辭眾坐逝。茶毗斂骨。塔于開封林家村。師性澄止水。語灑寒冰。解達宗乘。見超情識。繼唱臨濟三玄九帶。深造曹洞五位十玄。故湊泊者望其津涯而已。

問。如何是賓中賓。

師云。客路似天遠。

僧曰。如何是賓中主。

師云。侯門似海深。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寰中天子勅。

僧曰。如何是主中賓。

師云。塞外將軍令。

師云。賓中問主。互換機鋒。主中問賓。同生同死。主中辨主。飲氣吞聲。賓中覓賓。白雲萬里。故句中無意。意在句中。於斯明得。一雙孤鴈撲地高飛。於斯未明。一對鴛鴦溪邊獨立。知音禪客。相共證明。彰響異流。切須子細。良久。云。若是陶淵明。攢眉却歸去。

舒州甘露法眼禪師

諱慶餘。姓黃氏。建州建安人也。本州大中寺出家。試經得度。遊歷江淮宗席。參圓鑑禪師。投機印可。出世甘露。人天瞻仰。退居京師華嚴。王公貴人皆來諮道。都尉曹公見謂。此真吾師也。朝夕扣請。奏賜章服。師名。

元豐六年八月五日。示眾云。浮世幻身。安能久寄。索筆書頌。投毫而逝。

問。如何是意中玄。

師云。千思萬想。

僧曰。如何是句中玄。

師云。七步成章。

僧曰。如何是玄中玄。

師云。百發百中。

師云。三玄三要。大道直衝。活捉生擒。奪人奪境。直得把斷要津。聖凡路絕。一似倚天長劍。誰敢當頭。擬議之間。喪身失命。正當恁麼時。何人出來定當。良久。云。須是王索仙陀婆始得。

廬山歸宗承天普安禪師

問。學人上來。請師一接。
師云。陽氣發時無硬地。
僧曰。莫便是為人處也。
師云。卞和之璧。難遇良工。
僧曰。不因一事。不長一智。
師云。賣金難遇買金人。
上堂云。金風乍扇。黃菊初開。泉鳴山谷。月照樓臺。門門顯煥。物物全彰。還有薦得者麼。良久。云。令人轉憶龐居士。天上人間不可陪。
上堂云。桃花紅。李花白。堪羨靈雲最高格。覲面相逢頃刻間。鷓子已過新羅國。

南康軍南山清隱院惟湜禪師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三更月到窓。
僧曰。來後如何。
師云。平旦日頭出。
僧曰。還有西來意也無。
師云。一片海雲遮不得。舒光直透水晶宮。
問。如何是佛。
師云。罵著不嗔。
僧曰。如何是法。
師云。喚著不應。
僧曰。佛法兩字。如何理論。
師云。我不喜聞。
問。諸聖說不及處。請師說。
師云。暗裡皺眉。
僧曰。大眾側聆也。
師云。天明合掌。僧呵呵大笑。
師云。切忌。切忌。
問。如何是道。
師云。斜街曲巷。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百藝百窮。
上堂云。南山峭峻。登者還稀。後靠萬丈洪涯。猿鳥不絕。前臨千尺洪波。舟楫難渡。中流渺漠。休駐蘭舸。彼此岸頭。不須繫纜。且道向什麼處安泊。良久。云。有時因好月。特地過滄洲。

上堂云。一念不生。伎倆俱盡。一法未有。計較不成。便請高掛鉢囊。橫擔拄杖。出一叢林。入一法席。踏著稱槌硬似鐵。豈是古佛心。青絹扇子足風涼。不是西來意。一任驢鳴狗吠。風吹日炙。

舒州浮山太平洪璉禪師

問。楞伽四卷從何得。莫是當初錯下言。

師云。蔣白元來是秀才。

問。達磨西來。教外別傳。為什麼將往隨後。

師云。錦上添花。

師云。教外別傳。直指人心。見性成佛。敢問諸人。作麼生說箇見性底道理。良久。云。遠觀山有色。近聽水無聲。

潭州南嶽衡嶽寺奉能禪師

上堂云。宗風纔舉。萬里雲收。法令若行。千峯寒色。須彌頂上。白浪滔天。大海波中。紅塵滿地。應思黃梅昔日。少室當年。不能退已讓人。遂使椿糠答志。斷臂酬心。何以衡嶽這裡。山畚粟米飯。一桶勿鹽羹。苦樂共住。隨高就低。且不是南頭買貴。北頭賣賤。直教文殊稽首。迦葉攢眉。龍樹馬鳴吞聲飲氣。目連鷲子且不能為。為什麼如此。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

筠州大愚山興教守芝禪師法嗣

潭州開福守義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撲不破。

僧曰。秋來黃葉落。

師云。速禮三拜。

上堂云。瀟湘岸上。總似今日風恬浪靜。是人過得。不妨奇特。忽遇蓮花潭內洪波浩渺。白浪滔天。又作麼生過。良久。云。行船由在把梢人。

南嶽雲峯文悅禪師

洪州人也。少出家圓具。參大愚芝禪師。頓悟心印。遂徧歷禪室。到泐潭澄禪師法席。遇南禪師。遂為道契。

一日。謂南曰。觀吾師法器異常。何滯於此。南不喜師語。
師從容曰。吾師若去參慈明。他日必為臨濟下宗主也。
南遂諾之。遙往慈明。果然發悟。南師出世同安。師即領眾助揚宗風。
後洪帥請居西山翠巖。次移南嶽法輪雲峯。治平中。坐滅龕中。常涌舍利。
問。如何是道。
師云。路不拾遺。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草賊大敗。僧禮拜。師噓一聲。
問。萬法歸一。一歸何處。
師云。黃河九曲。
僧曰。如何是第一句。
師云。垂手過膝。
僧曰。如何是第二句。
師云。萬里崖州。
僧曰。如何是第三句。
師云。冀箕掃箒。
問。如何是深山巖崖佛法。
師云。獼獼倒上樹。
問。如何是無縫塔。
師云。四楞著地。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香風吹菱花。更雨新好者。
問。如何是衲衣下事。
師云。皮裹骨。
問。不涉廉纖。請師速道。
師云。須彌山。
問。如何是般若體。
師云。箭穿楊葉。
僧曰。如何是般若用。
師云。蛇穿鼠穴。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柴場荻草。
上堂云。諸佛出世。平地陷人。祖師西來。承虛接響。一大藏教。誑謔閭閻。明眼衲僧。自救不了。諸人到遮裡。憑何話會。良久。云。為眾竭力。禍出私門。擊禪牀一下。
上堂云。聲色不到處。病在見聞。言詮不及處。過在唇吻。離却咽喉一句作麼生道。若道得。坐斷天下人舌頭。若道不得。法輪門下

有粥有飯。

上堂云。語不離窠窟。焉能出蓋纏。片雲橫谷口。迷却幾人源。所以道。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汝等諸人到這裡。憑何話會。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饒州承天應禪師

問。如何是芝山境。

師云。三月野花遊不厭。更深猶插滿頭歸。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五湖雲水客。到此罷追尋。

越州大禹山簡南禪師

上堂云。湖邊山邊太平道。馬公賀公前後意。青山屹屹變洪波。洪波渺渺成平地。不是邀君傲名利。盡為蒼生垂巨庇。萬頃良田千古中。兒孫不識法王記。其中有剎崇來久。雪庭籌室誰知有。翠竹黃花歲已深。陶令遠師空執手。昨夜南星回北斗。良久。云。看。

鄧州興陽山啟珊禪師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百尺竿頭開口笑。

僧曰。風高月冷乾坤靜。直下無私暢殺人。

師云。謠謠滿路。僧禮拜。師便打。

上堂云。霧籠山色。雨灑長空。日月雖昇。遊人不見。這箇葛藤且致。泥水不分一句作麼生道。良久云。為爾諸人注破。以拄杖擊一下。

鄧州興陽山慧光院啟舟禪師

上堂云。遠山岌岌。春夏如然。涓水滔滔。四時無間。平川眺望。廓落乾坤。坐對孤峯。咫尺日月。觀此時景。便合歇去。說箇什麼天台。南嶽。峩眉。五臺盡是塵。是未妄向他人人口中作則。既不如如此。又作麼生商量。良久。云。睫在目前長不見。道非物外更何求。

筠州洞山子圓禪師

上堂。有僧出。拋下坐具。師云。一釣便上。僧拈起坐具。
師云。弄巧成拙。
僧曰。自古無生曲。須是遇知音。
師云。波斯入唐土。上僧大笑。歸眾。

潭州石霜山法永禪師法嗣

金陵保寧承泰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無角鐵牛生意氣。
僧曰。未審的嗣何人。
師云。瀟湘月上碧天明。

南嶽福嚴保宗禪師

上堂云。世尊周行七步。舉足全乖。目顧四方。觸途成滯。全禰授去。殃及兒孫。玉偈傳來。掛人唇吻。風幡悟性。未離色塵。鉢水投針。全成管見。祖師九年面壁。不見纖毫。盧公六代傳衣。圖他小利。江西一喝。不解護初。德嶠全施。未知護末。南山鼈鼻。謾指蹤由。北院枯松。徒彰風彩。雲門顧鑒。落二落三。臨濟全提。錯七錯八。若說君臣五位。直如紙馬過江。更推賓主交參。恰似泥人澡洗。獨超象外。且非捉兔之鷹。混跡塵中。未是齧豬之狗。何異越坑墮壑。正是避溺投宜。如斯之解。正在常途。出格道人如何話會。豈不見陶潛俗子。尚自覩事見機。而今祖室子孫。不可皮下無血。喝一喝。

南嶽勝業智增禪師

問。如何是南嶽境。
師云。音聲鳥。娑羅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山間坐。林下行。
僧曰。向上事又作麼生。
師云。萬年松色拂雲高。

鄂州大陽山長慶如漢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未離兜率天。波旬眼滴血。
僧曰。畢竟成得什麼邊事。
師云。後生雖可畏。年老得人嫌。
問。如何是敲磕底句。
師云。檻外竹搖風。驚起幽人睡。
僧曰。觀音門大啟也。
師云。師子齧人。
上堂云。聞聲悟道。失却觀音眼睛。見色明心。昧了文殊巴鼻。一出入。半開半合。泥牛昨夜遊滄海。直至如今不見回。咄。

湖州天聖皓太禪師法嗣

湖州西余山寶實禪師

問。世尊道。我四十九年不曾說一字法。和尚因何列眾陞堂。
師云。不容我~~祇~~對。僧擬進語。
師云。十萬八千。
上堂云。無風起浪。井底烟生。劄利衲僧。切忌蹉過。參。

汝州寶應法昭禪師法嗣

滁州瑯琊山方銳禪師

問。一佛出世。各坐一花。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月中仙桂生林野。海底珊瑚秀碧峯。
僧曰。恁麼則紫金剛座重新出。優鉢羅花依舊開。
師云。玉鳳夜銜花。不許時人得。
僧曰。不因水漲。不見船高。
師云。放過一著。
上堂云。造化無生物之心。而物物自成。雨露非潤物之意。而靈苗自榮。所以藥劑不食。而病自損。良師不親。而心自明。故知妙慧靈光。不從緣得。到這裡。方許爾進步。瑯琊與爾別作箇相見。還有麼。若無。不可厭良為賤。

鄂州興陽山希隱禪師

問。如何是懸崖撒手底句。

師云。明月照幽谷。
僧曰。如何是末後再蘇底句。
師云。白雲生太虛。
僧曰。恁麼則樵夫出林丘。處處歌春色。
師云。是人道得。
上堂云。了見不見。見了未了。路上行人。林間宿鳥。月裡塔高十二層。天外星纏五百杪。要會麼。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參。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法嗣

湖州上方希元禪師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富嫌千口少。
僧曰。見後如何。
師云。貧恨一身多。

潤州普慈院崇珍禪師

問。如何是普慈境。
師云。出門便見鶴林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入門便見珍長老。

太平州瑞竹仲和禪師

問。得坐披衣人盡委。向上宗乘事如何。
師云。但知冰是水。
僧曰。更有事也無。
師云。休問水成冰。
僧曰。弄潮須是弄潮人。
師云。這僧從浙中來。

潤州金山懷賢圓通禪師

問。師揚宗旨。得法何人。師拈起拂子。
僧曰。鐵甕城頭曾印證。碧溪崖畔祖燈輝。
師拂一拂云。聽事不真。喚鐘作甕。

太平州隱靜山慧觀禪師

問。如何是隱靜境。

師云。千尺長松臨古路。一條寒澗截中峰。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巖前枯木啼黃鳥。林下僧居半白頭。

僧曰。祖意西來又作麼生。

師云。五峯高不下。萬木幾回秋。

常州南禪福聖自聰禪師

問。諸佛出世。天雨四花。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清風滿地。

僧曰。恁麼則法界霑恩。

師云。杲日當空。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水因有月方知淨。天為無雲始見高。

越州新昌石佛顯忠祖印禪師

問。如何是不動尊。

師云。熱鑿上獼猴。

僧曰。如何是千百億化身。

師云。添香換水。點燈掃地。

僧曰。如何是毗盧師。法身主。

師云。繫馬柱。

僧曰。有什麼交涉。

師云。縛殺這漢。

問。會殺佛祖底。始是作家。如何是殺佛祖底劍。

師云。不斬死漢。

僧曰。如何是和尚劍。

師云。令不重行。

問。古人道。一大藏教盡是魔說。作麼生是佛說。

師云。是佛則不說。

僧曰。爭奈五千卷何。

師云。不是汝分上事。

僧曰。未審是誰分上事。

師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
問。如何是相生。
師云。山河大地。
僧曰。如何是想生。
師云。兔子望月。
僧曰。如何是流注生。
師云。無間斷。
僧曰。如何是色空。
師云。五彩屏風。
上堂云。咄。咄。咄。海底魚龍盡枯渴。三脚蝦蟆飛上天。脫殼烏龜火中活。
上堂云。點時不到。皂白未分。到時不點。和泥合水。露柱[跳-兆+孛]跳入燈籠裡即且從他。汝眉毛因什麼却拖在脚跟下。直饒於此明得。也是獼猴戴席帽。於此未明。何異蚰[(乏-之+虫)*善]穿靴。然雖如此。笑我者多。哂我者少。

杭州淨住院居說真淨禪師

師參達觀。遂問云。某甲經論粗明。禪直不信。願師決疑。
觀云。既不信禪。豈可明經。禪是經綱。經為禪網。提綱正網。了禪見經。
師云。為某甲說禪看。
觀云。向下文長。
師云。若恁麼。經與禪乃一體。
觀云。佛及祖非二心。如手搦拳。如拳搦手。
師因而有省。乃成頌云。
二十餘年用意猜。幾番曾把此心灰。
而今潦倒逢知己。蔣白元來最秀才。

宣州廣教院繼真文鑑禪師

師參達觀。遂問云。某甲自講說外。究尋諸佛所說廣大。如何得見邊際去。
觀云。子尋常憑何講說。
師云。依教解義。
觀云。依教解義。三世佛怨。
師云。離教一字。如同魔說。
觀云。不問子教義。講說者何人。

師云。但見動靜語言。不可觀其形相。

觀云。祇此無形相。便是廣大。若悟此心。便見邊際。師自此有省。

上堂云。夫欲為宗師。須了明暗句。半夜裏貼眼。渾成空路布。多事釋迦文。生時強四顧。點胸獨稱尊。又周行七步。明復阿誰知。暗使何人悟。自後百千年。屈指河沙數。一盲引眾盲。眾盲相扶舉。他日見閻老。努目空相覷。是時休叫道。鑊湯無冷處。休空腹高心。但回盤轉筋。寄語後世人。莫被徐六語。

湖州西余山拱辰禪師

問。四眾雲臻於此日。請師方便展家風。

師云。語不虛發。

僧曰。全因此日。

師云。功不浪施。

問。如何是向上事。

師云。赫日高懸。僧展兩手。

師云。作麼生。僧禮拜。

師云。猶較三十棒。

上堂云。靈雲見花。眼中著翳。玄沙蹙指。體上遭迍。不如且恁麼過時。自然身心安樂。

上堂云。理因事有。心逐境生。事境俱忘。千山萬水。作麼生得恰好去。良久。云。且莫剗肉成瘡。

上堂云。登高萬丈。先以一步為初。窮海千尋。實乃一滴為本。若也如此。從微至著。以淺涉深。超越門風。斷定可便起。

常州承天了素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語言鶩子怕。動靜馬鳴驚。

僧曰。達觀之道。從此盛行。

師云。說箇什麼無著與天親。

師舉拂子云。諸仁者。且道這箇還有法嗣也無。眾無對。

師云。披衣過孟津。擊禪床。下座。

越州法性院用章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金烏出海人皆仰。
僧曰。達觀嫡子。慈照兒孫。
師云。已是昇天際。流光散百川。
僧曰。浩瀚法才驚四眾。群賢皆羨震雷音。
師云。歡君休舉目。射汝髑髏乾。

越州法性紹明禪師

問。如何是法性境。
師云。海潮生戶外。寶塔聳雲中。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半凡半聖。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六六三十六。

蘇州崑山般若善端禪師

問。有生有滅。盡是常儀。無生無滅時如何。
師云。崑崙著靴空中立。
僧云。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石女簪花火裡眠。
僧曰。大眾證明。
師云。更看泥牛鬥入海。

蘇州洞庭惠月禪師法嗣

蘇州薦福亮禪師

問。不假言詮。請師示誨。
師云。大眾總見汝恁麼問。
僧曰。莫祇這便是也無。
師云。罕逢穿耳客。
上堂云。雲収天際。日到階前。景色如斯。禪流著眼。參。

蘇州瑞元嵩禪師

問。明月當天。為什麼不臨暗室。
師云。爭奈何。

僧曰。慈悲何在。

師云。用不得。

上堂云。三度喫棒。卒無一言。累他子孫分疎不下。直道過在什麼處。試請辨看。參。

常州承天世珍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一輪皎潔輝沙界。萬仞青山壓太湖。

僧曰。恁麼則洞庭嫡子。

師云。一任杓卜。

問。如何是佛。

師云。印手分明。

僧曰。言顯理幽。乞師方便。

師云。人人合掌。

明州杖錫修己禪師法嗣

台州黃巖保軒禪師

問。佛如何是佛法大意。

師云。千日斫柴一夜燒。

問。不欲無言。略憑施設時如何。

師云。知而故犯。僧禮拜。師便打。

明州雲巖志禪師

問。有問有答。蓋是尋常。無問無答時如何。

師云。貪觀白浪。失却手橈。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前頭猶自可。

明州石門山進禪師法嗣

明州瑞巖山智才禪師

問。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好。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隨。

僧曰。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合。

僧曰。三句蒙師指。如何辨古今。

師云。向後不得錯舉。

師云。適來遮僧所問因緣。也須是箇荷負重擔底漢始得。不可鬪如花似錦言句以當宗乘。若如是者。直饒學到拂石劫盡。也未有了日。何故。豈不見古人道。兩口一無舌。即是吾宗旨。諸禪者。還會麼。不是詩人莫獻詩。

上堂云。天平等故常覆。地平等故常載。日月平等故四時常明。涅槃平等故凡聖不二。人心平等故高低無諍。拈拄杖。卓一下。云。諸禪者。這拄杖子晝夜為諸人說平等法門。還聞麼。若聞去。敢保諸人行脚事畢。若言不聞。亦許諸人頂門上眼正。何故。是法平等。無有高下。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良久。笑云。向下文長。

杭州龍華齊岳禪師法嗣

湖州吳山淨端禪師

本州人也。一參宗匠。頓悟全機。解不存玄。見量穎脫。三遷法席。眾少投機。退隱本山。

上堂云。吳山山裡師子。却來雲間哮吼。別無佛法商量。不如打箇筋斗。便趺下法座。

建中靖國續燈錄卷第八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越州天衣義懷禪師法嗣

東京大相國寺慧林禪院圓照禪師

諱宗本。姓管氏。常州無錫人也。依蘇州永安禪院昇上人出家。披剃具戒。即慕參遊。詣池州景德懷禪師法席。入室扣請。示以。彌勒內宮說什麼法。云。說遮箇法。曉夕心無間念。體究未明。偶於境中見高木上有一黃梅。而智士原曰。五月梅子熟時。當有發明如斯。忽然頓悟心印。洞入微奧。服勤十餘載。日探玄旨。

後出世蘇州瑞光。次遷淨慈。學眾常盈半千。尋奉 詔住慧林

神宗皇帝召對。賜圓照禪號。未幾。乞歸靈巖。

元符二年十二月二十八日。沐浴更衣。召門人付囑歸逝。門人曰。既不住世。何不留偈。

師曰。吾四十年。無時不說。何必今日重說偈言。遂端坐委化。

次年正月盡日。全身塔于本山。世壽八十。僧臘五十有三。四十年垂手。三住大剎。嗣法傳道者。不可窮數。名揚一時者。百有餘人。

開堂日 神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 聖壽罷。乃敷坐。淨因淨照禪師白槌竟。師云。還有五湖上士。達法高流。出眾當前。共揚佛事。

問。昔日靈山勝集。隨機大轉法輪。今朝選佛場開。垂手願揚佛事。

師云。爐煙起處。大眾同觀。

僧云。法雨普霑沙界潤。群生皆賴一人恩。

師云。向後不得錯舉。

僧曰。可謂得聞於未聞也。

師云。聞底事作麼生。

僧曰。憑師一滴曹溪水。四海為霖報 我皇。

師云。伶俐衲僧。

問。聖皇垂拱巖廊上。憶得靈山佛囑時。今日 詔師揚般若。願開方便釋群疑。

師云。截流之句。祇麼分付。

僧曰。一言迴出威音外。翹足徒勞贊底沙。

師云。三十年後不得錯會。

問。昔為林下客。今作帝都人。未審是同是別。

師云。一月在天。影含眾水。

僧曰。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

師云。真不掩偽。曲不藏直。問。九重城裏。無非觸處菩提。明月堂前。已現龍華之相。不昧當時。請師一接。

師云。六街鐘鼓韻鞦韆。即處鋪金世界中。

僧曰。更不覺城東畔始發初心。

師云。爐煙透處。帀地風生。

僧曰。可謂 聖恩霑萬里。喜氣動千門。

師云。禮拜了退。

僧曰。也知上苑花難採。不得馨香未肯休。

師云。道了也。

問。葱葱嘉氣黃金闕。拂拂霜風玉露秋。正當恁麼時。禪客相逢如何話會。

師云。師子嘯呻。象王哮吼。

僧曰。龍樓鳳閣。觸目光輝。寶鐸金鍾。咸歌 帝德。

師云。大施門開。一時參取。

僧曰。恩大不知何以報。一爐香篆祝 堯年。

師云。且聽說看。

師云。濫承聖旨。來踞慧林。遠涉長途。三千餘里。既到 皇都。精神豁爾。何也。樓臺聳翠。殿塔交光。廣陌通衢。朱門華宇。不異善財登慈氏閣。滿目殊勝。徧處莊嚴。華藏圓明。交羅主伴。塵沙法門。一毫頓證。無邊剎境。驗在目前。敢問諸禪德。目前事作麼生。乃顧大眾云。還會麼。若也於此明得。相共證明。若也未知涯際。正法眼藏覲面分付。良久。云。雞足峯前路不遙。飲光得底在今朝。

開堂演法。上祝 皇帝陛下聖躬萬歲。伏願 堯天永覆。舜日崇明。福海等於滄溟。壽山高於嵩華。護持三寶。安御萬方。彌增玉葉之昌。益廣蘿圖之茂。久立眾慈。伏惟珍重。

問。牛頭未見四祖時。為什麼百鳥銜花獻。

師云。六六三十六。

僧曰。見後為什麼不銜花。

師云。六六三十六。

僧曰。非師不委。
師云。西天此土。
問。古人道。捲簾除却障。閉戶生得礙。未審意旨如何。
師云。蹈著稱鎚硬似鐵。
僧曰。便與麼去時如何。
師云。錯。僧便喝。師便打。
問。古者道。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和尚如何為人。
師云。金烏急。玉兔速。
僧曰。便與麼去時如何。
師云。後五日看。
師云。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衲僧到此。又且奚為。何如戴箬笠。披蓑衣。垂直釣。泛輕舟。訪尋知識未能休。自從猿子皈青嶂。拋却釣。覆却舟。從教湘水幾清秋。咄。
上堂云。洪音一剖。該羅八紘。一令施行。清風萬里。豁開宗要。廣演門風。撤向目前。光流大海。威擁三界。德被四方。高聳人天。虛懷應物。無內無外。洞徹十方。圓通現前。縱橫佛事。簷頭水滴。觀音妙門。雨灑長空。文殊境界。休問補陀近遠。覺城東際。樓閣門開。請高著眼。咄。
上堂云。好諸禪德。一問一答。俊哉。快哉。問處如石裏迸出。答處似青天霹靂。忽然而有。瞥爾而亡。若非頂門具爍迦羅眼底衲僧。到遮裡。不免拈頭作尾。所以道。汝生我亦生。汝殺我亦殺。生殺輪王機。交馳如電掣。
上堂云。頭圓象天。足方似地。古貌稜層。丈夫意氣。趨倒須彌。蹈翻海水。帝釋與龍王無著身處。乃拈拄杖云。却來拄杖上回避。咄。任汝神通變化。究竟須遮裏。以拄杖卓一下。
上堂云。姑蘇臺畔。不話春秋。衲僧面前。豈論玄妙。祇可著衣喫飯。翫水看山。夜見星。晝見日。兩手扶犁水過膝。靈山授記祇如斯。塵劫何曾異今日。
上堂云。一句截流。萬機頓削。得失是非。一時放却。與麼會得。便請歸堂。
上堂云。看看。爍爍瑞光。照大千界百億微塵國土。百億大海。百億須彌山。百億日月。百億四天下。乃至微塵刹土。皆於光中一時發現。諸仁者。還見麼。若也見得。許汝親在瑞光。若也不見。莫道瑞光不照好。參。
上堂云。於一毫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拈起拄杖云。拄杖子是塵。作麼生說箇轉法輪底道理。山僧今日不惜眉毛。與汝諸人說破。拈起也。海水騰波。須彌岌岌。放下也。四海晏清。乾坤

肅靜。敢問諸人。且道拈起即是。放下即是。當斷不斷。兩重公案。以拄杖擊禪床一下。

上堂云。千般樣都來。祇在絲頭上。乃拈起拄杖云。還會麼。一為無量。無量為一。十方如來。同此超出。若也會得。參學事畢。若更不會。何必自抑。擊禪床。

上堂云。涼風吹。紅日照。一境蕭然誰不要。觀音大士為宣揚。九衢賣買爭頭叫。脚不住。手不停。毗盧界內用分明。千聖從來祇遮是。莫生退屈自相輕。參。

上堂云。季冬寒節。去來無別。千山萬山。唯積殘雪。禪客相逢。將何演說。各請歸堂。隨緣憩歇。若作迷逢達磨。大似眼中添屑。

東京大相國寺惠林禪院覺海禪師

諱若冲。姓鍾氏。江寧府句容人也。母初娠師。屢夢一僧端坐于寢。遂不葷茹。其父固問。即告以夢。父曰。若果生男。當捨為僧。

及卅歲。母攜至鍾山。禮志公像。師即涕泣。不肯歸去。母悟前事。乃許就寺僧懷義上人出家。後依保心禪師圓具。即造池陽懷禪師法席。令看情未生時因緣。乃獲開悟。巾侍數年。深達玄旨。初住常州薦福。次住宜興善權。又還薦福。後住北京福勝。西京法王。相國韓公絳。太師文公彥博。嘗加師仰。晚奉 詔住慧林。開堂日 哲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 聖壽罷。乃敷坐。法雲圓通禪師白槌竟。師云。一人人面面對。大似少林看壁。一箇箇眼眼相顧。何異靈山囑付。諸仁者。實為密密堂堂。昭然獨露。會中莫有證據底衲僧麼。

時有僧出問。為 國開堂。願聞法要。

師云。三乘光佛祖。一句定乾坤。

僧曰。麗天杲日當軒。市地清風滿座。

師云。目前無異草。不礙往來觀。

僧曰。若非頂門眼開。誰知此恩難報。

師云。酌然。

問。鷲嶺傳芳東震。雲門列派 皇都。今朝大啟覺場。請師再垂方便。

師云。上機言下悟。大道目前觀。

僧曰。與麼則圓照始離金色界。相藍又見覺花開。

師云。不得錯看。

問。如何是皇都境。

師云。巍巍雙闕侵霄漢。拂拂祥雲罩九重。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兩宮無事安磐石。萬國歸心有老臣。

問。祖闡宏啟。大集群賢。法令既行。請師一振。

師云。匣裡青蛇吼。

僧曰。學人退身即是也。

師云。天際白虹高。

師云。詔令臣僧為國開堂。流通至道。開發人天。夫至道者。不可以思而測。不可以想而求。精勤者未能見之。辯慧者酌然不識。若也明得。方知佛佛道同。古今不異。何是何非。孰邪孰正。不有而示有。杳若夢存。無成而似成。倏如幻住。依空源而起盡。法法無知。隨化海以分形。緣緣絕待。如是會得。堪報不報之恩。用助無為之化。諸仁者。無為之化。闔國知聞。且如何是報恩底句。良久。云。三乘有旨難彰則。一句無私賀太平。此日流通般若。普集妙善。上祝皇帝陛下聖躬。伏願寶圖永固。鳳曆長新。同日月照臨。若乾坤覆載。位隆北極。壽等南山。伏惟珍重。

上堂云。碧落淨無雲。秋空明有月。長江瑩如練。清風來不歇。林下道人幽。相看情共悅。諸仁者。適來道箇清風明月。猶是建化門中事。作麼生是道人分上事。良久。云。閑來石上觀流水。欲洗禪衣未有塵。參。

上堂云。無邊義海。咸歸顧眄之中。萬象形容。盡入照臨之內。爾諸人築著磕著。因什麼却不知。良久。云。莫怪山僧太多事。光陰如箭急相催。珍重。

上堂云。日出連山。月圓當戶。不是無言。不欲全露。乃云。遮裡莫有全露底麼。良久。眾無語。乃拈拄杖云。擬議則穿腮過。擊香臺。下座。

上堂。良久。云。萬機喪盡體何如。一點靈光混太虛。塵劫未曾經變易。禪人休枉廢工夫。却召大眾云。省力處道將一句來。眾無語。

師云。歸堂喫茶去。

上堂。良久。云。淨地上切忌拋沙撒土。金屑雖貴。爭柰眼裏著不得。還知麼。直饒解齊龍樹。辯若馬鳴。智過鶩子。到遮裡一點用不著。何故如此。卞玉本無瑕。相如誑秦王。參。

上堂。橫按拄杖云。摩竭迦文親行是令。山僧今朝不可更向土上加泥也。擊香臺。下座。

上堂云。日淨青蓮。光含白玉。若向遮裡參得。不若神珠四照。洞徹十方。寶鑿無私。媿妍自異。然雖如是。龍蛇易辨。衲子難瞞。

上堂。良久。云。還委悉麼。嘉雨時來暑氣收。禪堂宴坐恰如秋。勞生心火何時息。祇向無心便好休。

上堂云。神機迅發。覲面相呈。電光難趁。石火莫停。恁麼薦得。未是英靈。以拄杖畫一畫。云。天下衲僧。倒退八百。擬議之徒。看燎著面門。擊香臺一下。

真州長蘆崇福禪院廣照禪師

諱應夫。姓蔣氏。滁州清流人也。依江寧府保寧禪院承泰禪師出家圓具。遠造天衣山懷禪師法席。入室開悟。深造宗旨。初住潤州甘露。次移長蘆。晚奉 詔旨住智海禪院。堅辭弗受。

問。如來禪即許老兄會。祖師禪未夢見在。未審如來禪與祖師禪。是同是別。

師云。一箭過新羅。僧擬議。師便喝。

問。識得衣中寶時如何。

師云。爾試拈出看。僧展一手。

師云。不用指東畫西。寶在什麼處。

僧曰。爭柰學人用得。

師云。爾試用看。僧拂坐具一下。

師云。大眾笑爾。

僧問。如何是佛。

師云。面如滿月。

僧曰。意旨如何。

師云。徧照寰中。

問。如何是隨處道場。

師云。性似白雲舒復卷。縱橫應物不能羈。

僧曰。恁麼則澗松清冷澹。曉月照長川。

師云。心到靜中千慮息。性澄方外一燈明。僧擬議。

師云。迢迢十萬餘。

上堂云。握驪珠於掌上。納萬彙於胸襟。全法界於目前。指大千於身際。混融一體。圓鑑無窮。包括二儀。含容萬有。如斯之法。窮之則妙。究之則玄。玄妙之理現前。凡聖之情頓泯。圓融無礙。洞耀無私。倜儻分明。古今無間。任是然燈先聖。大覺能仁。說法利生。難忘斯旨。如斯話會。埋沒宗風。何謂也。直須南山起雲。北山下雨。

上堂云。雲卷千山。塵清萬里。長空獨露。法界洞然。諸人還見麼。如實未到。且莫羸心。忽若頂門放光。方信普通年遠事。不從葱嶺付將來。珍重。

上堂。召大眾云。至道蕩蕩。無徧無黨。或卷或舒。或指或掌。放曠任緣。靈明獨朗。普覆河沙。光含萬象。乃顧大眾云。千聖靈

蹤。後人標榜。

上堂。召大眾云。江山遶檻。宛如水墨屏風。殿閣凌空。麗若神仙洞府。森羅萬象。海印交參。一道神光。更無遮障。諸人還會麼。良久。云。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參。

上堂。顧大眾云。遮箇為什麼擁不聚。撥不散。風吹不入。水洒不著。火燒不得。刀斫不斷。是箇什麼。眾中莫有釘觜鐵舌底衲僧。試為山僧定當看。還有麼。良久。云。若無。山僧今日失利。久立。

廬山棲賢智遷禪師

姓高氏。錢唐人也。性純志澹。心敏言訥。參天衣懷禪師。一日。見匠者拽木喝聲。因而開悟。遂獲印可。出世龍舒法華。次移棲賢。於元祐元年正月十九日辭眾。沐浴更衣坐化。獲舍利五色。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

師云。好。

僧曰。謝師指示。

師云。且道我答汝話也無。

僧曰。專為流通。師噓一聲。

問。一問一答。盡是建化門庭。未審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雲從龍。風從虎。

僧曰。恁麼則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色轉威寧。

師云。興雲致雨又作麼生。僧即喝。

師云。莫更有在。僧擬議。

師咄云。念話杜家。

問。如何是本來心。

師云。折東籬。補西壁。

僧曰。恁麼則今日齋晏。

師云。退后著。

問。天衣一曲師親唱。未審何人和得齊。

師云。颯颯霜風緊。看看冬到來。

僧曰。恁麼則寒山拊掌。拾得呵呵。

師云。普賢化錦水。文殊旺五臺。

僧曰。好事不如無。

師云。打折驢腰。

上堂云。山僧無佛法。任運且延時。朝朝日東出。夜夜轉山西。雲收山谷靜。雨過遠峯低。三年逢一[門@王]。鷄到五更啼。參。

上堂云。聞佛法二字。早是污我耳目。諸人未跨法堂門。脚跟下好與三十棒。雖然如是。山僧今日也是為眾竭力。珍重。

上堂云。拈提要妙。露柱皺眉。出格之談。烏龜向火。平實無事。褒貶古今。豈能自救。諸禪德。離此外。還別有商量麼。離此。作麼生是商量。莫是三年逢一閏。九月重陽麼。莫是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麼。莫是春來草白青麼。若如斯見解。棲賢門下喚作驢前馬後漢。參。

上堂云。是什麼物得恁頑頑嚚嚚。覩覩睨睨。拊掌呵呵大笑云。今朝巴鼻。直是黃面瞿曇通身是口。也分疎不下。久立。

上堂云。山僧久不與大眾道話。何故。幸有佛殿三門。溪山松竹。每日喃喃地為汝說破了也。山僧贏得作無事人。說即說了。且道遮箇是什麼法。已後忽有人問。且莫落七落八。

上堂云。井底紅塵生。高峯起波浪。石女生石兒。龜毛寸寸長。若欲學菩提。看取此榜樣。參。

上堂云。德山道。與爾脫却籠頭。卸却角駝。教爾作箇好人去。三界不收。六道不攝。爾諸方學得底。豈不是籠頭角駝。德山棒。臨濟喝。豈不是籠頭角駝。爾諸人被諸方老楫槌教壞了也。學得一堆骨董。蘊在胸襟。便道我會禪。爾皮下還有血麼。被他熱謾了也。山僧今日與麼道。也似為佗閑事長無明。珍重。

舒州山谷三祖會禪師

錢塘臨安。師之生緣也。山谷褒山。師之住處也。沖會。師之法名也。圓智。師之禪號也。天衣老懷。師之嗣法師也。超悟猛利。師之妙性也。直語拂情。師之為人也。圓照。圓通。師之道友也。如此。則師之道可知也。吏部侍郎賈公易以師禮敬之。年七十餘。灑然真隱。

開堂日。問。如何是第一義諦。

師云。百雜碎。

僧曰。恁麼則褒禪一會。不異靈山。

師云。將糞箕掃帚來。

問。師登寶座。壁立千仞。正令當行。十方坐斷。未審將何為人。

師云。千鈞之弩。

僧曰。大眾承恩。

師云。量才補職。

問。未見天衣時如何。

師云。聞名不如見面。
僧曰。見與不見。是同是別。
師云。西天此土。
問。理雖頓悟。事假漸除。漸除即不問。如何是頓悟底道理。
師云。言中有響。
僧曰。便恁麼又且如何。
師云。金毛師子。
問。如何是佛。
師云。描不就。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任是僧繇也皴眉。
問。住相布施即不問。如何是無為實相門。
師云。開眼覷不見。
僧曰。為什麼如此。
師云。東西不辨。
僧曰。畢竟如何。
師云。墮坑落漚。
問。生也猶如著衫。死也還同脫袴。未審意旨如何。
師云。譬如閑。
僧曰。為什麼如此。
師云。因行不妨掉臂。
問。如何是天堂。
師云。大遠在。
僧曰。如何是地獄。
師云。放爾不得。
僧曰。天堂地獄。相去多少。
師云。七零八落。
問。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海晏河清。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摩斯吒落水。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水泄不通。
問。如何是透脫一路。
師云。上是天。下是地。
僧曰。恁麼則明月堂堂。清風皎皎。
師云。且緩緩。
問。白雲綻處。樓閣門開。善財為什麼從外而入。

師云。開眼即瞎。
僧曰。未審落在什麼處。
師云。填溝塞壑。
問。如何是不動尊。
師云。寸步千里。
上堂云。無常變易。遷謝不停。正眼纔觀。纖毫不易。諸禪德。作麼生說箇纖毫不易底道理。良久云。金烏東出。玉兔西沈。參。
上堂。顧視大眾云。智周不鑑。塵累何容。舉目千山。迢迢萬頃。清風樓上赴官齋即不問爾。捲起簾來且放一邊。靈雲在什麼處藏身露影。良久。云。心不負人。面無慚色。
上堂云。青山隱隱。極目遼遼。浪靜風恬。漁舟舉棹。森羅海印。帝網交光。主伴互分。重重無盡。但效普賢。一時參畢。狂心頓息。不用巡遊。既不如然。付與龍華樹下。參。
上堂云。大隱居廬。小隱居山。去聖逾遠。切莫攀緣。皆明道眼。俱出心源。苦海之中。撈攬迷魂。報佛恩德。各無間然。驀拈拄杖云。諸禪德。作麼生是無間然底道理。良久。云。時時示時人。時人俱不識。參。
上堂云。雪。雪。應時應節。大地山河。盡皆銀屑。拾得當前。動步成拙。杲日處空。寒山欣悅。忽爾消鎔。川流不絕。法爾常規。孫賓善別。若便恁麼。西天相接。下座。

無為軍鐵佛因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一尋寒木自為隣。三事秋雲更誰識。
僧曰。和尚家風蒙指示。為人消息又如何。
師云。新月有圓夜。人心無滿時。
問。取不得。捨不得。不可得中祇麼得。未審得箇什麼。師展兩手。僧禮拜。
師云。不要詐明頭。

湖州報本法存禪師

杭州巨豪陸氏子也。生而明敏。博覽群籍。雅為篇章。尤樂至道。因閱華嚴。發悟智性。遽捨塵累。斂身緇門。欽慕祖風。遠依宗席。天衣懷禪師深為印可。初住蘇州吳江壽聖。問。一佛出世。諸佛讚揚。和尚出世。什麼人讚揚。

師云。九天垂雨露。萬物盡霑恩。
僧曰。祇遮便是讚揚也無。
師云。枯木不抽條。莫怨陽和力。
僧曰。大眾證明。
師云。惱亂春風卒未休。
問。無味之談。塞斷人口。作麼生是塞人口底句。師以拄杖便打。
僧曰。恁麼則一句流通。人天聳耳。
師云。祇恐不是玉。是玉也太奇。
僧曰。專為流通。
師云。一任亂道。
師在天衣受請。上堂云。吳江壽聖。見召住持。進退不遑。且隨緣分。此皆堂頭和尚提耳訓育。終始獎諭。若據今日。正令當行。便好一棒打殺。那堪更容立在座前。雖然如是。養子方見父慈。下座。

歙州開化惠圓禪師

問。成山假就於始簣。修途託至於初步。未審如何是初步。
師云。攜錫下孤峯。
僧曰。恁麼則松江一派入新安也。
師云。莫錯認定盤星。
僧曰。人天有賴。
師云。十萬八千。

處州縉雲縣永泰智覺禪師

問。少林一去無消息。今日殷勤為舉揚。
師云。月華自照三千界。雲水空隨十萬程。
僧曰。九年面壁。當為何事。
師云。還提隻履自西歸。
上堂云。金風淅瀝。玉露淒清。菊解香苞。稻懸嘉穗。時清物泰。野老謳謠。處處登高。人人歡樂。諸禪德。祇如林間衲子。豈不知時。若也燕嘿忘形。昧佗光景。翠微深處。不逐四時。一炷梅檀。無恩不報。拍禪牀。下座。

蘇州萬壽和禪師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象戀藏牙浦。人負賣子鄉。
僧曰。出世后如何。
師云。一不成。二不是。
僧曰。出與未出。又作麼生。
師云。同道方知。
僧曰。堤邊柳綻。嶺上花開。
師云。句裡明機。
問。不著佛求。不著法求。相去幾何。
師云。失錢遭罪。
僧曰。草賊大敗。
師云。放爾三十棒。僧便喝。
師云。作家。僧禮拜。師更打。
上堂云。聲前密布。句後全收。同死同生。雙明雙暗。不是俊流。
若為湊泊。宗乘舉唱。契理忘言。不是神通。無非智達。三賢尚
昧。十聖猶疑。釋迦已往。彌勒未生。正當今日。未免隨時說佛說
祖。所以向大眾前權行正令。拈拄杖云。諸人眼在山僧拄杖頭上。
良久云。盡法無民。

和州開聖禪院棲禪師

開堂日。示眾云。選佛場開。人天普會。莫有久歷覺場。罷參禪
客。出來相見。時有僧出。
師云。作家。作家。
僧曰。莫著忙。
師云。元來不是作家。
僧提起坐具云。看看。摩竭陀國親行此令。
師云。即今作麼生。僧禮拜。
師云。龍頭蛇尾。
問。世尊善說般若。和尚提唱宗風。未審是同是別。
師云。皇天無親。唯德是輔。
僧曰。今日得聞於未聞也。
師云。聞底事作麼生。
僧曰。曲終人不見。江上數峯青。
師云。猶較些子。
問。靈山一會。迦葉親聞。開聖一會。什麼人得聞。
師云。進前三步。
僧曰。進前三步又作麼生。
師云。退後三步。

問。韶陽曲調人皆委。祖令當行又若何。
師云。西天斬頭截臂。遮裏自領出去。
僧曰。忽若泥牛哮吼。木馬嘶鳴。又作麼生。
師云。罕逢穿耳客。多是刻舟人。
問。東西不辨。南北不分。學人上來。乞師一接。
師云。不接。
僧曰。為什麼不接。
師云。為爾東西不辨。南北不分。
僧曰。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
師云。蘇嚧蘇嚧。
問。如何是道。
師云。放汝三十棒。
僧曰。為什麼如是。
師云。殺人可恕。無禮難容。
上堂云。道不浪堦。隨功涉位。拈拄杖云。或七尺。或丈二。握在手中添意氣。有時用。有時致。魍魎邪魔絕妖氣。海晏河清歸去來。家家樂業民皆喜。卓一下。
上堂云。好風飄飄淖金鐸。好鳥關關啼寶閣。數片閑雲海上來。一卮流水天邊落。參。
上堂。拈拄杖云。大眾。急著眼看。須彌山畫一畫。百雜碎。南瞻部洲打一棒。東傾西側。不免且收在開聖手中。教伊出氣不得。卓一下。

明州雲巖旌教院洞偕禪師

前住江陰壽聖。一日云。兩處住持。實四十年。凡陞堂語句。都無一箇元字脚。十二時中但以波羅羯諦菩提薩婆訶以為常課。別無所長。珍重。坐逝。

福州衡山惟禮禪師

問。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和尚出世。如何為人。
師云。古之今之。
僧云。便恁麼承當去時如何。
師云。伶俐人難得。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穿雲渡水。
問。如何是佛。

師云。眼放電光。
僧曰。意旨如何。
師云。照天照地。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
師云。一二三四五六。
僧曰。意旨如何。
師云。碧眼胡僧數不足。
上堂云。若論此事。直下難明。三賢罔測。十聖不知。到遮裏。須高提祖令。橫按鎚鎚。佛尚不存。纖塵何立。直教須彌粉碎。大海焦枯。放一線道與諸人商量。且道商量箇什麼。良久。云。鹽貴米賤。下座。

杭州北山顯明院善孜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九年空面壁。憊憊又西歸。
僧曰。為什麼如此。
師云。美食不中飽人喫。
問。如何是無情說法。
師云。燈籠掛露柱。
僧曰。什麼人得聞。
師云。牆壁有耳。

明州啟霞惠安禪師

問。諸佛出世。蓋為群生。和尚出世。當為何人。
師云。不為闍梨。
僧曰。恁麼則潭深波浪靜。學廣語聲低。
師云。捧上不成龍。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任汝歌揚。
僧曰。天衣嫡子也。
師云。速退。速退。
僧曰。為什麼如此。
師云。養子方知父慈。

越州雲門山靈侃禪師

問。諸佛出世。當表何事。

師云。白雲覆幽谷。

僧曰。如何領會。

師云。紅日正當天。

問。諸方法道何似遮裏。

師云。處處人風好。山山折野花。

問。十二時中如何用心。

師云。佛殿裏裝香。

僧曰。學人不會。

師云。三門頭合掌。

上堂云。塵勞未破。觸境千差。心鑑圓明。絲毫不立。靈老皎皎。獨露現前。今古兩亡。凡聖路絕。到遮裏。始能卷舒自在。應用無虧。出沒往還。人間天上。大眾。雖然如是。忽被人把住問。且道拄杖子放什麼處著。又如何祇對即是。還有人道得麼。出來道看。眾無對。拍禪床一下。

天台太平元坦禪師

問。法本無相。如何甄別。

師云。流水盡歸東海去。

僧曰。學人不會。

師云。白雲長向嶽前來。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錯。

師云。是法無宗。隨緣建立。聲色動靜。不昧見聞。舉用千差。如鐘待扣。向此薦得。且隨時著衣喫飯。若是德山·臨濟。更須打草鞋行脚。參。

杭州佛日文祖禪師

問。峭峻之機。請師垂示。

師云。十字街頭八字立。

僧曰。祇如大洋海底行船。須彌山上走馬。又作麼生。

師云。烏龜向火。

僧曰。恁麼則能騎虎頭。善把虎尾。

師以拄杖點一下。云。禮拜著。

蘇州薦福明因禪師

問。一點分明不是燈。祇如一點未明時如何。
師云。爭怪得老僧。
僧曰。明後如何。
師云。輝天爍地。
僧曰。未審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天上有星。

沂州望仙山宗禪師

問。四時八節即不問。平常一句事如何。
師云。禾山打鼓。
僧曰。莫是學人著力處也無。
師云。歸宗拽石。僧無語。
師云。真箇衲僧。
問。如何是不生不滅。
師云。長河凍結。
僧云。如何是不生不滅。
師云。兩重公案。
問。如何是世間相。
師云。進前退後。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口裏喃喃道不著。
問。三乘十二分教即不問。如何是般若一句。
師云。喚又喚不得。
僧曰。莫祇遮便是也無。
師云。教歸不肯歸。
問。如何是真經。
師云。露柱放光。
僧曰。恁麼則日日看讀。
師云。不得思量。
問。韶湯一句即不問。如何是和尚一句。
師云。千光那照。
僧曰。還許學人趣向也無。
師云。許。
僧曰。恁麼則飢來喫飯。寒來向火。
師云。且莫亂統。

問。如何是親切處。
師云。會則不非。
僧曰。進前退後莫是否。
師云。非即不會。
問。禪林振響。久嚮師名。上上之機。請師指示。
師云。不是峯前客。
僧曰。莫壓良為賤。
師云。多是莫徭人。
問。如何是生老病死苦。
師云。都道了也。
僧曰。如何是學人下手處。
師云。黃檗未是苦。
問。湛水澄波即不問。覲面相呈事若何。
師云。見麼。
僧曰。青山隱隱。
師云。何曾覲面。
上堂云。南北東西。四維上下。虛空為體。法王為身。既是虛空為體。大眾向什麼處安身立命。還道得麼。道得。出來對眾商量。若道不得。各自歸堂。參。
上堂云。南台烏藥。北海天麻。新羅附子。神錦朱砂。良久。云。大眾會麼。久立。
上堂云。諸佛到處。還有道無道。大眾現前。還有祖無祖。老僧即不然。良久。云。露柱喜笑。燈籠惡發。諸人會麼。會則對面商量。不會則歸堂向火。珍重上堂云。爾等諸人。還肯放下麼。若不放下。且擔取去。下座。

岳陽墨山禪院有琦禪師

問。師登祖席。願發潮音。
師云。華嶽三峯雲澹澹。
僧曰。學人未曉。
師云。黃河九曲浪滔滔。
問。古佛家風即不問。途中一句事如何。
師云。春來和氣暖。
僧曰。專為流通也。
師云。脚跟下一句又作麼生。
僧曰。點。
師云。果然蹈不著。

師云。宗師路陌。莫問東西。剔起眉毛。祇在遮裡。更若周遮。迢迢十萬。

舒州桐城金繩詮禪師

問。垂鈎三尺。意在深潭。離鈎三寸。師意如何。

師云。清平世界。

僧曰。也要問過。

師云。有頭無尾。

筠州五峯淨覺院用機禪師

問。如何是道。

師云。十字街頭踏不著。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且緩緩。

上堂云。清平過水。投子賣油。一年三百六十日。不須頻向數中求。擊拂子一下。

建中靖國續燈錄卷第九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越州天衣山義懷禪師法嗣

東京法雲寺圓通禪師

諱法秀。秦州隴城人。本姓辛氏。母夢麥積山誦經老僧至舍。即誕生也。應乾寺魯大師者。夙受訓曰。竹鋪坂下相尋。既聞斯異。即住視之。覩神骨挺特。收養俗舍。三歲攜歸出家。遂從師姓。曰魯氏也。十九試經圓具。勵志講肆。習因明·唯識·百法·金剛·圓覺·華嚴。妙入精義。為眾發揮。

因聞南宗傳心印法。逕造天衣懷禪師法席。天衣問曰。座主講什麼經論。

曰。華嚴經。

天衣曰。華嚴以何為宗。

曰。法界為宗。

天衣曰。法界以何為宗。

曰。以心為宗。

天衣曰。心以何為宗。師遂無語。

天衣曰。毫釐有差。天地懸隔。汝當自看。必有發明。

後十七日。聞僧舉。白兆參報慈。情未生時如何。曰。隔。師忽大悟。直詣方丈。陳其所證。

天衣曰。汝真法器。吾宗異日在汝行矣。

後遊江淮。住龍舒四面。移居廬山棲賢。相國王公安石聞師道風。請居鍾山。又遷鳳臺保寧。尋奉 詔住長蘆崇福。元豐甲子。越國大長公主·太尉張候敦禮奏請居法雲寺。為第一祖。神宗皇帝上仙。兩宮 宣就 神御前說法。賜圓通禪號。

開堂日。神宗皇帝遣中使降香。并賜磨衲袈裟。仍傳 聖語云。物雖微。表重法故。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 聖壽罷。是日荊國大王親侍法筵。

淨因淨照禪師白槌竟。師云。還會麼。遮箇是諸方事例。今古同儀。諸人若也於此不明。便見落二落三。且道第一義諦在什麼處。久參上士。必共證明。晚學初機。有疑請問。

問。世尊出世。梵王前引。和尚開堂。大王侍座。是同是別。

師云。不得鑽龜打尾。
僧曰。恁麼則祥雲生宇宙。瑞氣滿乾坤。
師云。法雲即得。衲僧分上有恁麼光輝。
僧曰。且待別時舉似和尚。
師云。咩。咩。
問。法雲初建當明代。磨衲高提荷 聖恩時如何。
師提起衲衣角云。還見麼。
僧曰。忽遇銅頭鐵額。眼放電光底人來。又作麼生。
師云。祇得瞻之仰之。
僧曰。吹毛匣裏冷光生。外道羣魔皆斷首。
師云。惜取好。
僧曰。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漫追風。
師云。倒退三千即不無。進前一句作麼生道。
僧曰。且待別時。
師云。同坑無異土。
問 我皇御宇。德合乾坤。遊刃萬機。護道終日。未審還有佛法道理也無。
師云。大似不曾將得問來。
僧曰。恁麼則心隨萬境轉。轉處實能幽。
師云。須彌山在爾頭上。
僧曰。深領和尚此語。
師云。識甚輕重。
僧曰。知恩方解報恩。
師云。果然轉不得。
師云。問得亦好。不問最親。何也。道出古今。非言所及。設使問處如普慧雲興。答處若普賢餅瀉。祇益多聞。於道轉遠。況諸人分上。各各總有遮一段事。可謂輝天鑑地。耀古騰今。設使祖佛齊興。焉敢錯誤。而今前佛已去。後佛未生。正當空劫。六合冥然。荷 聖主賢臣。令山僧為法雲宗主。且道山僧似何為主。
驀拈拄杖云。還會麼。放行把住總由遮裏。放行也。八面風生。把住也。羣魔失色。敢問諸人。放行好。把住好。還有人斷得麼。非但德山。臨濟不肯。便是法雲拄杖子也自未甘。且道法雲拄杖子有甚麼長處。
擊禪床一下。云。即此舉揚。上扶 帝祚。仰冀 聰明元首。芬芳萬國之春。忠節股肱。弼輔千年之運。伏惟珍重。
師於元豐八年四月初十日。宣入 神宗皇帝靈駕前陞座。師拈香云。還會麼。天高地厚。時人知有。且道遮箇甚麼處得來。識得辨得。已報 皇恩。其或未然。不得錯怪臣僧。乃燒香。陞座。

問。昔日靈山勝會。今日 帝苑法筵。未審是同是別。
師云。龍樓鳳閣。寶鐸金鈴。
僧曰。恁麼則靈山一會宛爾而存。
師曰。眼見耳聞。有誰通曉。
僧曰。恩深轉無語。懷抱自分明。
師云。爾將甚報恩。
僧曰。唯焚香篆祝堯年。
師云。大少在。僧禮拜。
師云。莫孤負人好。
問。中天降旨。御藥領符。大施門開。當為何事。
師云。天高不可問。地厚不可陳。
僧曰。恁麼則上嚴先帝超三界。次祝今 皇壽萬春。
師云。真不掩偽。曲不藏直。
僧曰。唯將一摘曹溪水。四海為霖報 我皇。
師云。休要隨波逐浪。
僧以手面前畫一畫。云。爭奈路頭在遮裏。
師云。若不是老僧。幾被子惑。便喝。
師云。休。休。諸佛子。遊涉聖門。勿妄宣傳。苟能心契宗乘。何必要於言說。故知此事。理越常情。亘古亘今。欲人自信。直饒微塵諸佛。諸大祖師競出頭來。各各異口同音。縱歷長劫讚歎也讚歎不及。便是山河大地。草木叢林盡作邪魔外道。邪見之人毀滅也毀滅不得。且道是何道理。向遮裏明得。未有衲僧氣息。直饒德山棒似兩點。爭如鬪賓國王一刀兩段。而今莫有效古者麼。若有。法雲性命難存。良久。云。臣僧早竊傳燈。今蒙 睿旨。陞此廣座。舉揚般若。上嚴 神宗皇帝仙駕。伏願 神遊淨域。不昧正因。為帝為王。隨方化物。久瀆 聖聰。伏惟珍重。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蹈著稱鎚硬似鐵。僧無語。
師云。咩。賺殺人。
問。不離生死而得涅槃。不出魔界而入佛界。此理如何。
師云。赤土茶牛爛。
僧曰。謝師答話。
師云。爾話頭道什麼。僧擬議。師便喝。
問。陽春二三月。萬物盡生芽。未審道芽還增長也無。
師云。自家看取。
僧曰。莫便是指示處麼。
師云。芭蕉高多少。
僧曰。野火燒不盡。春風吹又生。

師云。遮箇是白公底。爾又作麼生。
僧曰。且待別時。
師云。看爾道不出。
問。久嚮法雲。法即不問。如何是雲。
師云。蓋覆一切。
僧曰。普為霖雨去也。
師云。來風深辨。
上堂云。看風使帆。正是隨波逐浪。截斷眾流。未免依前滲漏。量才補職。寧越短長。買帽相頭。難得恰好。直饒上不見天。下不見地。東西不辨。南北不分。有什麼用處。任是純剛打就。生鐵鑄成。也須額頭汗出。總不恁麼。如何商量。良久。云。赤心片片誰知得。笑殺黃梅石女兒。參。
上堂云。山僧不會巧說。大都應箇時節。相喚喫椀茶湯。亦無祖師妙訣。禪人若也未相諳。踏著稱鎚硬似鐵。參。
上堂云。山僧葛藤甚多。攔路絆倒禪和。大都田地未穩。到頭總不柰何。良久。云。慚惶殺人。
上堂云。說得盛水不漏。未免衲僧取笑。向上更有一竅。無孔鐵鎚不到。良久。云。為什麼不到。可知禮也。
上堂云。分明好箇消息。祇是口吐不出。擬欲舉似諸人。恐使傍觀氣急。且道是什麼消息。良久。云。龍頭蛇尾去也。
上堂云。山僧為人。渾無巴鼻。四海禪人。盡參不入。銅頭鐵額有誰知。且聽籥頭吹簞簞。吹簞簞。吹得十聲九不出。縱然吹得一聲出。不如吹不出。何故如此。知音者少。參。
上堂云。秋雲秋水。青山滿目。遮裏明得。千足萬足。其或未然。道士倒騎牛。參。
上堂云。寒雨細。朔風高。吹沙走石。拔木鳴條。諸人盡知有。且道風作何色。若識得去。許爾是眼。若又不識。莫怪相瞞。參。
上堂云。少林九年冷坐。却被神光覷破。如今玉石難分。祇得麻纏紙裹。還會麼。笑我者多。哂我者少。
師於庚午歲八月二十九日謂門人曰。老僧六處住持。有煩諸知事。首座。大眾。今來四大不堅。火風將散。各宜以道自安。無違吾囑。乃云。來時無物去時空。南北東西事一同。六處住持無所補。師良久。監寺僧惠當進云。和尚何不道末後句。
師云。珍重。珍重。端坐而逝。

杭州佛日山智才禪師

台州人也。竹馬辭俗。金園投師。既已具戒。稟儀異常。聽習台教。深達觀旨。尋慕參遊。徧扣禪叢。至天衣懷禪師法席。入室陳解。未蒙印可。懷知法器。不以常待。設其異見。執以為得。懷拈棒打出。師忽大悟。懷曰。棒頭薦得。是真悟道。由是見量超卓。問。優曇花開。大眾同觀。學人上來。請師垂示。

師云。知音者少。

僧曰。古人方便又作麼生。

師云。量才補職。

僧曰。泥牛哮吼滄溟上。石鼓喧轟透碧霄。

師云。爍爍龍門過不得。依前和雨落滄溟。

問。如何是佛日境。

師云。山高水冷。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虎嘯風生。

問。三乘十二分教即不問。如何是衲僧家事。

師云。逢人不得錯舉。

僧曰。古之今之。

師云。汝是師子身中蟲。何故食師子身中肉。

僧云。和尚幸是大人。

師云。又不得放過。

問。文殊仗劍。擬殺何人。

師云。打水魚驚。

僧曰。有損有益。

師云。風寒徹骨。

問。如何是道。

師云。水冷生冰。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春雪易消。

僧曰。如何談論。師鳴指一下。

問。如何是無為。

師云。山前雪半消。

僧曰。請師方便。

師云。水聲轉鳴噎。

問。千峯寒色即不問。雨滴龍華事若何。

師云。荒地生青草。

僧云。恁麼則龍吟霧起。虎嘯風生。

師云。滴滴在眼前。

僧曰。碧眼胡僧笑點頭。

師云。記取問話。
問。敲空作響。擊木無聲。學人上來。請師敲擊。
師云。春霜損百花。
僧曰。若然者。百發百中。
師云。退身三步。
僧曰。大眾證明。謝師敲擊。
師云。逢著衲僧。分明舉似。
問。東西密相付。為什麼諸人皆知。
師云。春無三日晴。
僧曰。特伸請益。
師云。拖泥帶水。
僧曰。學人到遮裏却不會。
師云。賊身已露。
上堂云。城市喧繁。空山寂靜。然雖如是。動靜一如。死生不二。四時輪轉。物理湛然。夏不去而秋自來。風不涼而人自爽。今也古也。不改絲毫。誰少誰多。身無二用。諸禪德。既身無二用。為什麼龍女現十八變。君不見弄潮須是弄潮人。珍重。
上堂云。風雨蕭騷。塞汝耳根。落葉交加。塞汝眼根。香臭叢雜。塞汝鼻根。冷熱甘甜。塞汝舌根。衣綿溫冷。塞汝身根。顛倒妄想。塞汝意根。諸禪德。直饒汝翻得轉。也是平地骨堆。參。
上堂云。一錐一筩。心眼琢磨。把定商量。便知死活。死之者。依諸法智。逼塞心間。不能灑落。活之者。出人眼目。獨耀無私。似日輪卓午。洒落者。如中秋月夜。羣星掩色。百界分明。禪德。恁麼時節。輸佗收釣者。載取月明歸。久立。
上堂云。黃金殿上。少遇知音。地獄天堂。隨處會合。雖新明鏡當臺。要且胡漢不來。直饒鑑象分明。也是漚生漚滅。參。
上堂云。嚴風刮地。大野清寒。萬里草離衰。千山樹黯黯。蒼鷹得勢。俊鶻橫飛。頗稱衲僧。鉢囊高掛。獨步遐方。似猛將出荒郊。臨機須扣敵。今日還有麼。良久。云。匣中寶劍。袖裏金槌。幸遇太平。挂向壁上。參。
上堂云。諸禪德。還知麼。山僧生身父母一時喪了。直是無依倚處。以手槌胸云。蒼天。蒼天。復顧大眾。良久。云。爾等諸人也是鉄打心肝。參。
上堂云。雨洒羣芳。雲披樹蔭。聖凡不到。亘古亘今。乃顧大眾云。好諸禪德。可惜善財守樓閣開。身逢聖境。眼染塵埃。苦哉。苦哉。出來。出來。拈起拄杖云。與汝拄杖子。四維上下。南岳天台。擲下云。參。

上堂云。秋風緊。秋雲陰。一溪秋水碧沉沉。自是絲綸不到底。莫怨金鱗泊處深。

上堂云。山堂涼冷。頗會禪流。彼既丈夫。山僧也不相違背。直須坐却報化佛頭。截斷釋迦語路。提唱也。法震人天。舉動也。道芳諸聖。若能如是。且向如來行處行。參。

北京天鉢寺文慧禪師

諱重元。姓孫氏。青州千乘人。母夢於像前吞一金果。後乃誕。師相儀殊特。迥異群童。十七出家。冠歲圓具。初遊講肆。頗達教宗。嘗宴坐於古窯。忽聞空中有告。師學上乘者。驚駭出視。杳無人迹。翌日。客至。出寒山集。師一覽之。即慕參玄。至天衣懷禪師法席。遇眾請益。豁然大悟。懷為陞堂舉揚。印可歎曰。此吾家千里駒也。

清獻公趙抃參師。聞雷悟道。諫議劉公請主仰天。紫微曾公鞏命徙靈岩。資政陳公升之移之廣濟。太師文公彥博召居天鉢。凡四住名藍。十方仰重。河朔宗乘。由斯再振。

緣終示滅。正盛暑中。清風透室。異香馥郁。茶毗。烟燄若鎔白鐵。舍利五色。焦樹芬芳。太師文公以上賜白瑠璃瓶貯之。藉以錦褥。躬葬于塔。居士何震所獲額骨。牙齒舍利。別剏浮圖。

問。如何是佛。

師云。迦葉擎拳。

僧曰。如何是法。

師云。唵[口*部]唸囉。

僧曰。如何是僧。

師云。口念彌陀。

僧曰。謝師答話。

師云。不天堂。入地獄。

問。如何是禪。

師云。入籠入檻。僧拊掌。

師云。跳得出是好手。僧擬議。

師云。了。

問。如何是觸目之機。

師云。摩斯吒落水。

僧曰。謝答話。

師云。鼻孔不存。

問。如何是教外別傳底句。

師云。聽。

僧曰。學人未會。
師云。鈍。
問。如何是道。
師云。不道。
僧曰。因什麼不道。
師云。為是私商客。僧便喝。
師云。山僧被汝一喝。僧擬議。師便打。
問。如何是透法身句。
師云。上是天。下是地。
問。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一漚虛後眾漚虛。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金粟對文殊。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昨夜打出三門去。
問。父母未生時如何。
師云。尼乾不歷。
僧曰。生後如何。
師云。孫賓皺眉。
僧曰。畢竟如何。
師云。三十年後。
問。昨夜雨。今日晴。於曹溪路上成得什麼邊事。
師云。昨日雨。今日晴。
問。半滿之教即不問。如何是觸目菩提。
師云。觸目菩提即且致。爾作麼生會半滿之教。
僧曰。須還和尚始得。
師云。為什麼亂走。
僧曰。諱人道著。
師云。情知汝不會。
僧曰。幸得不會。
師云。有什麼救處。
師云。若據宗乘正令。莫不動用全威。如聖王輪寶劍飛空。誰是不賓之者。是以王道平平。和風扇物。使群邦貢獻。萬里梯航。六合澄清。狼烟永息。於是四魔絕跡。九類亡機。且作麼生說箇動用全威底道理。驀拈拄杖橫按云。休。休。動不如靜。靠却拄杖。便起。
上堂云。多時寒。近方暖。伶俐衲僧高著眼。直得通身是眼。鼻孔遼天。驀拈起拄杖云。不消一穿。擊香臺。下座。

上堂云。冬不受寒。夏不受熱。身上衣。口中食。應時應節。既非天然自然。盡是人人膏血。諸禪德。山僧恁麼說話。為是世法。為是佛法。若也擇得分明。萬兩黃金亦消得。喝一喝。

上堂。良久。云。看看。照也功成萬德。寂也蕩無纖塵。遮裏薦得。獨露圓明。衲僧聞舉。掩耳退身。總似遮一般底。直須喚回來打。參。

上堂云。福勝一片地。行也任爾行。住也任爾住。步步踏著。始知落處。若未然者。直須退步。脚下看取。叱。

洪州上藍文達禪師

本州人也。道性淳和。德行脩潔。久參天衣懷禪師。發明宗眼。給事程公師孟請居上藍。一住十年。道行大播。熙寧元年。辭眾坐滅。焚化。及收舍利。目睛宛然如生。今塑本院。郡人傾仰。

問。如何是豫章境。

師云。落霞孤鶩飛。秋水長天色。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徐孺亭前月。陳蕃榻下明。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人心難滿。溝壑易填。

問。如何是心。

師云。心。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風吹不入。

僧曰。恁麼則把定乾坤眼。綿綿不漏絲。

師云。水洒不著。

問。麈鹿成羣。如何射得。

師云。看箭。

洪州觀音啟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水聲爭瀉碧。

僧曰。學人不會。

師云。山色亂堆青。

問。如何是無縫塔。

師云。不曾動著。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灰頭土面。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松長栢短。
僧曰。意旨如何。
師云。葉落歸根。

台州瑞巖子鴻禪師

姓吳氏。本州人也。受業于情峯資聖院。初住太平。瑞巖二剎。晚退老息庵。問法者愈於曩日。兜率寺革律為禪。堅命師主云。不數年間。復謀退隱。德行孤高。始終如一。

問。如何是道。
師云。開眼覷不見。
問。如何是祖師初來意。
師云。拂衣瞻漢月。飛錫遠中天。
僧曰。意旨如何。
師云。熊耳崔嵬千古色。少林蒼翠幾流芳。
僧曰。謝師答話。
師云。師子齧人。韓獹逐塊。隨後便打。
問。如何是垂手底句。
師云。不得春風花不開。
僧曰。如何是不垂手底句。
師云。花開又被風吹落。
僧曰。離此二途。如何是學人轉身處。
師云。背斗望南星。僧擬議。
師云。彈琴須對賞音人。
問。法爾不爾。如何指南。
師云。話墮也。
僧曰。乞師指示。師呵呵大笑。
問。如何是真實體。
師云。針筭不入。
僧曰。如何是真實用。
師云。清風在掌。
僧曰。離此二途。如何是向上一路。
師云。欠汝一問。
問。月圓當午時如何。
師云。千里同風。
僧曰。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師云。千里不同風。
問。如何是瑞巖。
師云。千峰環列翠。
僧曰。觀者如何。
師云。舉目即遺蹤。
僧曰。還許學人登也無。
師云。地平宜進步。壁峻莫回頭。
僧曰。方便門中。更乞指南。
師云。鶴鳴雲外樹。瀑瀉枕前聲。僧禮拜。
師云。路遙知馬力。歲久見人心。
問。普通已後。人人知有。普通已前。如何剖路。
師云。穿得胡僧鼻。
僧曰。若與麼。不從人得也。
師云。南雪峯。北趙州。
僧曰。何得龍頭蛇尾。
師云。拄杖教誰喫。
僧曰。學人遭貶剝。
師云。酌海持蠡。一場困苦。
上堂云。法爾不爾。建立乖宗。堂堂現前。雕琢成偽。妙圓越悟。頭上安頭。頓獲法身。枷上添杻。若不爾。則靈山畫餅。曹溪指梅。過犯彌天。放過則不可。更有一箇。誰檢點得出。驀拈拄杖云。今日不著便。下座。
上堂云。一不守。二不向。上下四維無等量。大洋海底飛鉄船。須彌頂上翻鯨浪。臨濟縮却舌頭。德山閣却拄杖。千古萬古獨巍巍。留與衲僧作榜樣。急著眼。
上堂云。夜來好雨。點點是衲子眼睛。衲子不惜。分付與春風吹散。普滋三草二木。悉得敷榮。若是敗種。各須自甘。莫道春風不著力好。
上堂云。瑞岩是巖。四面凝嵐。花開幽徑。水瀉寒潭。牧童更歌。樵客孰諳。相呼相喚。溪畔掬流戲沙共笑。山鳥底事喃喃。或云。瑞巖非巖。惟寂惟寞。無禪與君參。無道與君學。來者無拘。去者非縛。唯有門前千朵萬朵山。帶月和雲倚寥廓。師於紹聖三年八月示疾。十五日寫遺戒付囑弟子。後六日復留頌云。
志公釣得鼈。僧伽手烹戮。
寒山不知味。拾得飽盈腹。
木人惆悵弔又歌。石女懽忻慰復哭。
言畢。危坐而逝。

越州天章元善禪師

問。大無外。小無內。既無內外。畢竟是什麼物。

師云。開口見膽。

僧曰。學人未曉。

師云。苦中苦。

僧曰。無眾竭力。禍出私門。

師云。教休不肯休。須待雨霖頭。便打。

問。古人橫說豎說。知有向上關楨子也無。

師云。何不向下問將來。

僧曰。學人不會。特伸請益。

師云。向下不會。說什麼向上關楨子。

僧曰。大眾霑恩。

師云。難。

上堂云。把定也。滴水滴凍。江河絕流。放行也。日暖風和。山川競秀。且道把定好。放行好。把定放行盡在遮裏。若也把定。直須佛來祖來。喪身失命。若也放行。七縱八橫。蝦蟇蚯蚓。同死同生。

上堂云。霜鋪四野。同居銀色光中。鴈叫長天。共在補陀影下。高高處坦然平正。低低處孤迥巍巍。塵刹徧遊。不離足下。普門大啟。祇在目前。平原列朵朵之山。曲澗流清清之水。登山者。誰知紫胡為意。臨水者。誰知船子用心。投綸擲線則且致。離鈎三寸。道將一句來。以拄杖擊禪床。下座。

上堂云。夜雨初霽。燒雲四開。水聲滴瀝。山色崔嵬。可憐無限迷途者。背却文殊禮五臺。參。

真州長蘆崇福院體明圓鑑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顧視大眾云。槌聲未作。玄路早彰。更顯鋒鋌。離牙劈齒。到遮裏。直得懸崖撒手。便肯承當。猶是藉草眠雲。更須知有八面當風。千波競涌。截生死流。離斷常見。縱橫三界。出沒卷舒。應用無虧。兵隨印轉。然雖如是。未入虎口。焉得虎牙。先達之者。非在於斯。後學初機。有疑請問。

問。昔日世尊善說般若。帝釋為啟請之人。今朝師演宗乘。府主是證明之者。未審是同是別。

師云。木鷄向曉啼殘月。

僧曰。恁麼則靈山一會儼然存也。

師云。儼然一句作麼生道。

僧曰。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師云。非公境界。
問。聖朝太后崇因地。法王真諦若為宣。
師云。此問不虛。
僧曰。憑師一句玄中妙。上祝 丕圖萬萬年。
師云。謝汝證明。
問。府命開堂於此日。師將何法報 君恩。
師云。將此身心奉塵刹。是即名為報 我皇。
僧曰。報恩既乃若斯。祖令又如何話會。
師云。臨濟· 德山。權且鎮庫。
僧曰。慈雲普潤。法雨遐霑。
師云。閑言語。
問。世尊出世。三轉法輪。師今出生。當為何事。
師云。一天初過雨。萬里始歸雲。
僧曰。一法徧含春雨潤。羣生皆悟海潮音。
師云。念得不濟事。
上堂。顧視左邊云。師子之狀。豈免噸坤。顧右邊云。象王之儀。寧忘回顧。取此逃彼。上士奚堪。識變知機。野狐窠窟。到遮裏。須知有凡聖不歷處。古今不到處。且道是什麼人行履。良久。云。丈夫自有衝天志。莫向如來行處行。
上堂云。上士相逢。休論目擊。祖佛門中。如何受用。古往今來。新新無間。雖然如是。猶在荊棘林中。衲僧家須向鑊湯爐炭上成等正覺。刀山劍樹上說法度人。方有少分相應。良久云。茯苓_祇在松根下。用意追尋事轉遙。

杭州龍華文喜禪師

後住陸蓮菴。
問。如何是陸蓮境。
師云。一徑階前草。數株霜後松。
僧云。如何是境中人。
師云。拏開凡聖路。踏破畫門來。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一條柳[木*栗]杖。萬里作風威。
師云。諸仁者。且道答伊境。不答伊境。若道答伊境。山僧眼在什麼處。若道不答伊境。又道一徑階前草。數株霜後松。還相委悉麼。良久。云。時時明祖意。日日起清風。珍重。

處州永泰自仁禪師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大難看守。

僧曰。看守即易。未審將何為用。

師云。得用即用。

僧曰。學人借用得也無。

師云。直饒用得。也是別人底。

師云。松風凜凜。敗葉紛紛。柳帶衰顏。猿啼遠岫。若也善觀時節。方與諸聖相隣。未出得衲僧活計。諸仁者。當此之際。正好橫擔拄杖。高掛鉢囊。到處撞開方丈門。且與老胡相見。若也一言不契。坐具拂開便行。豈不快哉。山僧自行脚已來。未曾逢著一箇半箇。何故如此。良久。云。土曠人稀。相逢者少。珍重。

上堂云。金風乍扇。松竹交陰。水月分明。遊人罔措。還會麼。若有人會。出來通箇消息。山僧為爾證據。良久云。布袋裡錐子。不出頭者是好手。下座。

師世壽八十四。僧臘六十一。於元符元年六月初九日澡浴更衣。辭眾而趺坐逝。

饒州景德普俊禪師

問。諸佛出世。蓋為群生。太守請師。當為何事。

師云。尊官在此。

僧曰。一雨所滋。羣生普潤。

師云。欠少什麼。

問。如何是主人公。

師云。一朝權在手。看取令行時。

僧曰。若不上來。焉得如是。

師云。將謂衲僧。

問。依稀似半月。傍像若三星。乾坤收不得。師於何處明。

師云。人人具足。

僧曰。學人便恁麼時如何。

師云。箭發離絃。新羅國裏。

汀州同慶禪院智珣禪師

上堂云。法無別法。心即此心。直下承當。不為分外。更若別求巧妙。鬪釘語言。於達磨西來。天地遼遠。何也。幸自可憐生。何勞

強雕琢。參。

汀州開元智孜禪師

開堂日。陞座云。黃金為地。白玉為城。十方繚繞。百寶莊嚴。大眾還見麼。還信麼。若也信得。人人分上。各各如斯。十方國土。不隔毫端。亘古亘今。都在一念。塵沙諸佛。同此一途。從上祖師。更無別路。若信未及。有疑請問。

問。學人上來。請師說法。

師云。嶺上白雲閑蕩蕩。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

師云。澗中流水急茫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明眼人前莫錯舉。

僧曰。天衣的旨師親唱。雲門祖派轉光輝。

師云。聽事不真。喚鍾作甕。

師云。諸佛不出世。擾擾世界無依怙。祖師不西來。茫茫眾生無本據。諸佛出世祖師來。遂使人人皆得所。上則見皇天。下則履厚土。君聖臣賢。十方得路。父慈子孝。尊卑有序。衲僧要去便去。要住便住。大眾。此猶是世諦之談。出世間一句作麼生道。良久云。雲橫疊嶂。月上晴空。

上堂云。衲僧家向針眼裏藏身稍寬。大海中走馬甚窄。將軍不上便橋。勇士徒勞掛甲。晝行三千。夜行八百即不問。不動步一句作麼生道。若也道得。觀音· 勢至· 文殊· 普賢祇在目前。若道不得。直須撩起布裙。緊峭草鞋。參。

上堂云。雲行蕩蕩。鳥語嚶嚶。頭頭垂示。非色非聲。便恁麼會。落漚墮坑。不恁麼會。孤負平生。閉門造車。出門合轍。人人知有。觸龍鱗。履虎尾。大眾作麼生體會。若體會得。便能光輝日月。閃爍星辰。若未能體會。僧堂中有粥有飯。夏月日長。林下取涼。珍重。

上堂云。寒空落落。大地漫漫。雲生洞口。水出高原。若也把定。即十方世界恍然。若也放行。即東西南北坦然。茫茫宇宙人無數。一箇箇鼻孔遼天。且問諸人。把定即是。放行即是。還有人斷得麼。若無人斷得。三門外有兩箇大漢。一箇張眉握劍。一箇努目揮拳。參。

泉州資聖捷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鉄牛生石卵。
問。如何是接人句。
師云。三門頭合掌。
問。如何是大用句。
師云。腦門著地。
問。如何是無事句。
師云。橫眠大道。
問。如何是出三界句。
師云。野狐窟裏。
問。如何是奇特句。
師云。的。
問。如何是平實句。
師云。泥中洗土。

蘇州澄照慧慈禪師

問。了然無所得。為什麼天高地濶。
師云。窄。
問。如何是佛。
師云。巍巍堂堂。
問。如何是道。
師云。目前看取。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七零八落。
上堂云。若論此事。眨上眉毛。早是蹉過。那堪進步向前。更要山僧說破。而今說破了也。還會麼。昨日雨。今日晴。

秀州崇德智澄禪師

上堂云。覲面相呈。更無餘事。若也如是。豈不俊哉。山僧蓋不得已。曲為諸人。若向衲僧面前。一點也著不得。諸禪德。且道衲僧面前說箇什麼即得。良久云。深秋簾幕千家雨。落日樓臺一笛風。下座。

蘇州淨慧可證禪師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天涯地角。
僧曰。來後如何。
師云。四海五湖。
師云。龍宮海藏。盡屬葛藤。教外別傳。起模畫樣。當人分上。平地風波。若到遮裏。如何得出。乃云。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參堂去。

泉州棲隱有評禪師

問。如何是平常道。
師云。和尚合掌。道士擎拳。
問。如何是無位真人。
師云。渠無面目。
問。十二時中如何趣向。
師云。著衣喫飯。
僧曰。別還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齋餘更請一甌茶。
上堂云。為體也。鏡淨水澄。為用也。光生滿目。十二時中有何妨礙。恁麼說話。笑破人口。

蘇州定惠雲禪師

問。如何是為人一句。
師云。見之不取。
僧曰。學人未曉。
師云。思之千里。
問。學人上來。乞師一接。
師云。雲開月白。雨後山青。
僧曰。學人今日功不浪施也。
師云。更須子細。
問。如何是親切為人處。
師云。縮却舌頭。
僧曰。學人便恁麼會去也。
師云。切莫草草。
問。如何是向上為人。
師云。脚下看取。

僧曰。如何是向下為人。
師云。腦門著地。

汀州開元智譚禪師

問。如何是無私底句。
師云。片月流輝。光含萬象。
僧曰。謝師指示。
師云。指示箇什麼。
僧曰。爭奈言猶在耳。
師云。是什麼言。
僧曰。片月流輝。光含萬象。
師云。學語之流。
問。如何是道。
師云。亘古亘今。
僧曰。目前無異路。達者共同途。
師云。爾作麼生會。
僧曰。踏著稱鎚硬似鍊。
師云。猶較些子。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春寒秋熱。
僧曰。學人不會。
師云。秋熱春寒。
問。如何是古佛家風。
師云。讚歎不及。
問。如何是無縫塔。
師云。風吹不入。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鼻孔大頭向下。
上堂云。物我冥契。顯露真機。法法靈通。心心獨耀。卷舒自在。隱顯無拘。有時闐爾無縱。有時廓周沙界。般若光中。悉皆應現。塵塵既爾。念念皆如。說什麼目連。鷲子具大神通。到遮裏。作麼生摸[打-丁+索]。參。

靈峯崇化珣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人逢好事精神出。馬遇寒霜氣力生。

問。如何佛法大意。

師云。山深水凍。

僧曰。如何趣向。

師云。雪冷霜寒。

問。驗人端的處。下口便知音。學人上來。請師不悞。

師云。好事不出門。

建州乾符大同院旺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鐵牛橫渡海。

僧曰。恁麼則天衣嫡子。乳竇兒孫。

師云。石角夜穿山。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入市烏龜。

僧曰。意旨如何。

師云。得縮頭時且縮頭。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山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筠州大愚曉舜禪師法嗣

蔣山佛慧禪師

諱法泉。姓時氏。隨州隨縣人也。少嘗業儒。才器明敏。金依龍居山智門院信_玘禪師出家。_玘預夢法堂泉涌。翌日師至。因而名之。後習經業。比試圓具。遠造雲居舜禪師法席。因示二祖禮拜因緣。擬答次。舜掩師口。從茲頓悟。

初住大明·千頃·靈巖·南明·蔣山五刹。左丞蔡卞·承旨蔡京。景仰問道。晚奉詔旨住大相國寺智海禪院。師問眾曰。赴智海。留蔣山。去就孰是。眾皆無對。師乃索筆為偈云。

非佛非心徒擬議。得皮得髓謾商量。

臨行珍重諸禪侶。門外千山正夕陽。

書畢坐逝。

問。達磨九年冷坐。未遇智音。和尚今日開堂。當為何事。

師云。雲生嶺上。

僧曰。學人未曉。

師云。杲日當天。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丫角女子戴席帽。

僧曰。恁麼則雲居嫡子。韶石兒孫。

師云。多將甕響作鐘聲。

問。古人道。日面佛·月面佛。意旨如何。

師云。馬祖在江西。

僧曰。若不上來。焉知如是。

師云。麤餐易飽。僧展兩手。

師云。弄影藏頭。

問。三級浪高。如何一透。

師云。莫遭點額。

僧曰。恁麼則風雷連四海。

師云。浪裏看桃花。

問。古人說不到處。請師說。
師云。夫子入太廟。
僧曰。學人未曉。
師云。春暖柳條青。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山前栢子吾親種。
僧曰。恁麼則雲散家家月。春來處處花。
師云。嶺上樵人跣足行。
問。如何是西來的的意。
師云。揭衣過水。
僧曰。學人未會。
師云。拄扶橫擔。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一倒一起。
僧曰。莫祇遮箇便是也無。
師云。大眾笑爾。
問。祖師未來時如何。
師云。月明東嶺上。
僧曰。來後如何。
師云。黃河輓底流。
問。祖師面壁。意旨如何。
師云。撐天拄地。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落七落八。
問。如何是賓中賓。
師云。去魏來秦。
僧曰。如何是賓中主。
師云。更無伴侶。
僧曰。如何是主中賓。
師云。少喜多嗔。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放過一著。
問。二祖立雪。意旨如何。
師云。三年逢一閏。
僧曰。為甚付法傳衣。
師云。村酒足人沽。
問。停橈罷棹時如何。
師云。寒沙翹白鷺。

僧曰。到岸後如何。

師云。辱水潑鴛鴦。

問。如何是道。

師云。不道。

僧曰。為什麼不道。

師云。恐爾會去。

僧曰。是何心行。師呵呵大笑。

問。如何是諸佛本源。

師云。金鞭敲玉鐙。

問。如何是佛。

師云。眉目分明。

問。如何是急切一句。

師云。火燒眉毛。

問。如何是不犯鋒銚句。

師云。秤鎚落井。

師云。諸仁者。問話住得也。相挨相拶。進前退後。口裡喃喃地圖箇甚麼。將謂宗門合有恁麼事。諸人敗闕猶可。帶累山僧亦無分雪處。何故。諸人未發問時。猶較些子。纔始出來。便知勿交涉。不見摩竭國內。土曠人稀。少室巖前。風高月冷。到遮裏。豈假三寸。方解辨明。所以道。諸佛不出世。祖師不西來。龍樹馬鳴不敢論量。海藏龍宮不能詮註。雖然如是。若是明眼漢。一點也瞞他不得。後學初心。卒難摸[打-丁+索]。今日幸因判府侍郎為佛法主。山僧得與諸人相見。大眾。如今忽有人問相見底事。向他道什麼。若有道得底。出來吐露箇消息看。山僧為爾證明。若也未知。今日已是藏隱不得。為諸人一時說破。乃擘開胸云。分明記取。

上堂云。春雪晴。春山青。白雲散處。啼鳥數聲。諸禪德還知麼。聽著則塞却爾耳朵。覷著則瞎却爾眼睛。莫怪蔣山無意智。大家林下過餘生。

上堂云。來不來。去不去。脚下須彌山。腦后擎天柱。大藏不能宣。佛眼不敢覷。諸高德。漸老逢春解惜春。昨夜飛花落無數。

上堂。畫一圓相。以手托起云。諸仁者。還見麼。迢迢從海出。漸漸入雲衢。諸人若也未見。莫道南明長老措大相。却於寶花王座上念中秋月詩。若也見得。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

上堂。顧左右云。南天台。北五臺。莫錯會。

上堂云。要去不得去。要住不得住。打破大散關。脫却孃生袴。諸仁者。若到臘月三十日。且道用箇什麼。良久。云。柳絮隨風。自西自東。

虔州慈雲院修惠圓照禪師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青山藏不得。

僧曰。見後如何。

師云。明月合相容。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分明雖對容。

僧曰。磨後如何。

師云。好醜不藏人。

問。上根人來。師還接否。

師云。接。

僧曰。未審如何接。

師云。教伊為下下根人。

僧曰。為什麼如是。

師云。量才補職。

僧曰。如何是為人一句。

師云。無言不當啞。

問。如何是和尚接人一句。

師云。真金不混水。

僧曰。乞師再接。

師云。展手即迷源。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海深龍臥穩。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桐長鳳巢高。

上堂。良久。云。若論此事。唯佛與佛乃能知之。諸人還知麼。慈雲今日為爾諸人開大智門。入總持藏。示爾諸人無價珍。諸人還識麼。遂拈拄杖云。遮箇豈不是無價珍。一人有一箇。自是諸人不肯承當。若承當得去。頭頭應用。取捨由己。十二時中使之不竭。用之不盡。若也用之不得。一任懷寶迷邦。向外馳求。蹈破草鞋。虜生浪死。卓一下。

上堂云。上士一決一切了。中下多聞多不信。大眾。上士一決。決箇什麼。中下不信。不信箇什麼。不須信。不須決。今朝又是季秋月。看看籬下菊花黃。待到重陽與君折。碾山茶。大家啜。何須更要趙州說。久立。

上堂。良久。云。大眾會麼。五月十五日即不問爾。且道葫蘆裡走馬一句作麼生道。直饒道得。也是渴鹿逐陽燄。

上堂云。菩提達磨。口能招禍。聖諦議中。梁王勘破。皈到少林。九年壁坐。退已讓人。萬無一箇。珍重。

上堂云。片月浸寒潭。微雲滿空碧。若於達道人。好箇真消息。還有達道人麼。微雲穿過爾髑髏。片月觸著爾鼻孔。珍重。

建州崇梵餘禪師

先住郭巖。問。臨濟喝。少遇智音。德山棒。難逢作者。和尚今日作麼生。

師云。山僧被爾一問。直得退身三步。脊背汗流。

僧曰。作家宗師。今日遭遇。

師云。一語傷人。千刀攪腹。

僧以手畫一畫。云。爭奈遮箇何。

師云。草賊大敗。

問。恁麼來底人。師還接否。

師云。孤峯無宿客。

僧曰。不恁麼底人來。師還接否。

師云。灘峻不留船。

僧曰。恁麼不恁麼則且致。穿過髑髏一句作麼生。

師云。堪笑亦堪悲。

問。如何是郭巖家風。

師云。密室寂寥無一物。生涯祇在鉢盂中。

僧曰。忽遇客來。如何祇待。

師云。百味珍羞。無過一飽。

僧曰。大眾承師供養也。

師云。食飽傷心。

師云。老僧尋常與諸人說禪說道。說佛說祖。祇有末後一句。從來不曾動著。今日不惜兩莖眉毛。為諸人舉。良久。云。大眾。鷓子已過新羅。荒草覓甚猷鳩。

上堂云。直須向黑豆未生芽時搆取。良久。召大眾云。劔去遠矣。

上堂云。煙雲澹蕩。草木蕭疎。白蓮已謝寒塘。紅蓼正開古岸。籬邊黃菊。白露凝珠。巖桂飄香。清風雨地。諸人到遮裡。且作麼生商量。良久。云。高著眼。

衡山澄信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甚處得此消息。

僧曰。接賢一箭。直射衡山。
師云。飽叢林。

杭州南山長耳相子良禪師

問。六門休歇時如何。
師云。坐家致仕。
僧曰。忽遇客來。如何祇待。
師云。爛嚼清風。細餐明月。
僧曰。學人有分也無。
師云。無下口處。
師云。鶯啼綠柳。鵲喜花枝。於斯薦得。觸處光輝。更有一般道理。防萌杜漸。居安慮危。咄。是何言歟。

建州開元瑩禪師

上堂云。有一面鏡。到處懸挂。凡聖不來。誰上誰下。遂拈拄杖云。遮箇是拄杖子。那箇是鏡。良久。云。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
上堂云。倏倏忽忽。東涌西沒。無害無傷。穿皮透骨。平等應用。非心非佛。拶破面門。箇是何物。古人無端。謂遼天鷲。具眼者看取。力□希咄咄。以拂子擊禪床。下座。

越州天衣山在和禪師法嗣

杭州護國菩提志專禪師

問。遠離嘉禾勝境。已屆海昌道場。如何是不動尊。
師云。此去嘉禾不遠。
僧曰。恁麼則往復無際。
師云。劄利衲僧。僧便喝。
師云。捧上不成龍。
問。朝蓋已臨於法座。請師直下演吾宗。
師云。平田萬頃當春色。
僧曰。學人未曉。
師云。野老謳歌正好聽。
僧曰。聽後如何。
師云。領前話。

上堂云。說即天地懸殊。不說即眼睫裡藏身。眉毛上[跳-兆+孛]跳。說與不說。拈放一邊。舉起拄杖云。且道遮箇是什麼。良久。云。畫月冷光現。卓地計初成。卓一下。下座。

饒州安國倥禪師法嗣

彭州慧日堯禪師

問。如何是第一義。
師云。祇爾問底。
僧曰。了了了時無可了。
師云。更說什麼。
僧曰。不虛此問。
師云。師子齧人。
問。如何是如來禪。
師云。海日輝光。
僧曰。如何是和尚禪。
師云。且領前話。
問。古者道。我有一句。待無舌人來。即向汝道。未審意旨如何。
師云。無影樹下好商量。僧禮拜。
師云。瓦解冰消。
師云。松風颯颯。細雨微微。紅日銜山。冰輪出海。照古照今。未嘗有間。目前無法。日用分明。法爾熾然。絲毫不立。人人具足。各各圓明。向諸人前。更說箇什麼即得。良久云。參。
師於元祐七年十二月十七日示眾曰。祇恁麼。祇恁麼。好時節。言畢。趺坐而逝。荼毗。悉聞異香。斂骨得舍利五色。舌根不壞。

杭州承天傳宗禪師法嗣

饒州崇福禪院了禪師

問。大眾雲臻。請師說法。
師云。青蓮不惜親分付。罕遇知音會破顏。
僧曰。一句無私。群心有賴。
師云。箇中端的旨。沙界共流通。
僧曰。若不臨滄海。焉知波浪寬。
師云。一派曹源水。時人被陸沈。

上堂云。遲日和風。柳皺桃綻。萬物發生之際。是般若流運之時。草木芬芳。園林秀媚。且道無影樹子抽條也未。遂拈拄杖云。看看。築著梵王鼻孔。拶破帝釋眼睛。盡大地全是山僧。諸人無分。若也薦得。盡大地全是諸人。山僧無分。如或未然。打鼓普請看。上堂云。雲擁奇峯。水盈巨壑。橫扁舟於古岸。釣皓月於波心。紅尾錦鱗。農家末事。驪珠荊璞。未足為珍。直饒撮土為金。何似轉凡成聖。大眾。凡聖賢愚。古今條例。作麼生轉。良久。云。瑠璃盞子人皆有。無著當時_祇為麤。

杭州承天寺守明禪師

問。布鼓當軒擊。家風略借看師云。眨上眉毛。
僧曰。與麼則展陣開旗。
師云。伏惟。伏惟。
師云。劔輪飛處。好定綱宗。石火電光。眼中著屑。所以曹溪拈拂。_已涉痕瑕。雪嶺毬毬。急須著眼。若是行脚上士。本分禪流。縱教喝散白雲。衝開碧落。如斯受用。又屬建化門中。若也正令提綱。任是三頭六臂底出來。也須倒退三千里。參。

湖州鳳凰山護國仁王有從禪師

問。曇花_已現人天仰。願開金口副羣機。
師云。白雲垂碧落。無處不為霖。
僧曰。便與麼會時如何。
師云。裂轉鼻孔。
僧曰。不因伸請問。爭辨我師機。
師曰。用不著。
問。箭鋒相拄。笑殺衲僧。啐啄同時。千山萬水。不涉程途。請師速道。
師云。一二三四五。
僧曰。便是和尚為人處也。
師云。隨坑落壑。
僧曰。作家宗師。
師云。放爾三十棒。
問。師今_已受公侯命。知將何法報君恩。
師云。南山雲。北山雨。
僧曰。金枝永茂千年葉。寶祚長興萬萬春。
師云。買石得雲饒。

師云。宗乘一舉。海辯難詮。祖令當行。要津無路。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涅槃。並為增語。據此誠實之言。還可舉揚也無。既陞此座。不可徒然。方便門中放一線道與諸人商量。且道十二時中如何趣向。若向遮裡薦得。行住坐臥。任運施為。見聞覺知。隨緣應用。塵塵彌勒。剎剎善財。山河大地。自己家風。妙明真心。非增非減。若能如是。方稱丈夫。久立。

鼎州大龍山德全禪師

問。如何是法身。
師云。聲前柏不散。
僧曰。學人便恁麼時如何。
師云。句後覓無蹤。

蘇州崑山慧巖海印禪師

問。柳垂堤畔。花發林間。如何顯道。
師云。兩彩一賽。
僧曰。自從一見桃花後。直至而今更不疑。
師云。爾向什麼處見靈雲。
僧曰。花開樹滿。花落枝空。
師云。放爾三十棒。

真州長蘆智福祖印禪師法嗣

金陵清涼廣惠和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須彌山北。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鐵圍山南。
問。如何是學人親切處。
師云。黑處看曆日。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須彌頂上擊金鎚。
問。如何是活人句。
師云。馬角換牛角。
僧曰。學人不會。

師云。牛蹄似馬蹄。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白玉池邊金色花。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鑊子兩頭搖。
問。祖祖相傳傳祖令。師今得法嗣何人。
師云。孔子元來是仲尼。
問。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如何是無為法。
師云。今日有風兼有雨。
僧曰。如何是有為法。
師云。一年還有一年春。
問。霜風乍扇。祖令當行。當此之時。合談何事。
師云。翠竹竿竿翠。
僧曰。一句已分於黑白。祖令如何和得齊。
師云。青山點點青。
上堂云。達磨大師無端將一杓惡水潑在天下老宿頭上。直得天下老和尚說禪說道。南北紛紜。續燄聯芳。亘今亘古。山僧今日親遭一杓。陞于此座。擺脫無門。揚千古之玄風。振一時之今範。良久。云。看看。山僧將一杓惡水潑向諸人頭上去也。還覺也無。如或不知。更看一杓。祖佛家風孰與知。西來消息若何為。殷勤為報未歸客。月滿秋天霜冷時。參。
上堂云。一日復一日。日日催人老。寒則且圍爐。困乃和衣倒。奉報往來人。家中元有寶。家內不曾尋。拄棒緣門討。任使討過年。辛苦生煩惱。不如歸去來。去却門前草。復云。諸禪德。盡十方世界是草。作麼生去。皈堂喫茶。
上堂云。多日天晴。今朝下雨。大地山河。無不皆普。三時打鐘。二時打鼓。處處分明。頭頭薦取。復拈拄杖云。諸禪德。還會麼。三世諸佛盡在裡許。拍禪牀一下。

湖州報本蘭禪師法嗣

福州中際可遵禪師

示眾云。禾山普化忽顛狂。打鼓搖鈴戲一場。劫火洞然宜煑茗。嵐風大作好乘涼。四虵同篋看他弄。二鼠侵藤不自量。滄海月明何處去。廣寒金殿白銀牀。咄。下座。
上堂云。昨夜依稀春夢中。可遵慧可忽相逢。臂疼脚冷雙眉皺。遂喝云。山僧夢見祖師。過犯彌天。汝等諸人還曾夢見麼。又喝一

喝。便下座。

上堂云。咄。咄。咄。井底啾啾是何物。直饒三千大千。也祇是箇鬼窟。咄。

上堂云。昨夜四更起來。呵呵大笑不歇。幸然好一覺睡。霜鐘撞作兩橛。

越州稱心山守明禪師法嗣

洪州承天上藍院光寂禪師

問。為 國開堂。有何施設。

師云。梅檀林秀。蒼蘊花香。

僧曰。雷音一震。萬物生芽。

師云。飽足觀光。

上堂。橫按拄杖云。大眾還識上藍老漢麼。眼似木[木*突]。口如扁擔。無問精羸。不知鹹澹。與麼住持。百千過犯。諸禪德。眾中還有人為山僧懺悔底麼。良久。云。氣急殺人。卓拄杖。下座。

潭州大漉山密印宥禪師法嗣

廬山歸宗慧通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今日新授請。

僧曰。畢竟如何。師便打。

問。如何是函蓋乾坤句。

師云。日出東方夜落西。

僧曰。如何是截斷眾流句。

師云。鐵山橫在路。

僧曰。如何是隨波逐浪句。

師云。船子下揚州。

問。如何是塵塵三昧。

師云。灰飛火亂。

僧曰。如何是佛法大意。

師云。黃河水出崑崙背。

問。十二時中如何履踐。

師云。鐵牛步春草。

問。隻履西歸。當為何事。

師云。為緣生處樂。不是厭他鄉。
僧曰。如何是當面事。
師云。眼下鼻頭垂。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過後思君子。
師云。心隨相起。見自塵生。了見本心。知心無相。即十方剎海。念念圓明。無量法門。心心周匝。夫如是者。何假覺城東際。參見文殊。樓閣門開。方親彌勒。所以道。一切法門無盡海。同會一法道場中。拈起拄杖云。遮箇是一法。那箇是道場。遮箇是道場。那箇是一法。良久。云。看看。拄杖子穿過諸人髑髏。須彌山拶破諸人鼻孔。擊香臺一下。云。且向遮裡會取。
上堂云。從無人有易。從有人無難。有無俱盡處。且莫自顛頂。不顛頂。舉來看。寒山拾得禮豐干。珍重。
上堂云。鐘鼓聲不到。不到聲不知。不知聲不會。不會不思議。
上堂云。春雲黯黯。春雨霖霖。沼沚陂池。悉皆盈滿。泝流者少。隨浪者多。萬派千江。奔歸大海。且道作麼生是大海。白云。不讓眾流。為什麼不讓眾流。復云。深。

安州大安興教慧憲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雲團石筍峯前。水瀉香巖溪畔。
僧曰。恁麼則瀉山嫡子也。
師云。湖南一水向西流。
問。今日陞堂。願聞舉唱。
師云。細柳迎風舞。巖花向日開。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十萬八千。
上堂云。我有一條拄杖。尋常將何比況。採來不在南山。亦非崑崙西嶂。拈起。滿目光生。放下。驪龍縮項。同徒若也借看。卓出人中之上。擊香臺一下。
師臨遷化。辭眾云。衲僧家生死事大。去來是常。去去實不去。途中好善為。來來實不來。路上莫虧危。無縫合子盛將去。無底籃子盛將來。頭不用剃。身不用浴。脚下盤旋二七宿。大唐撒向掌中擎。鐵牛夜透新羅國。杲日當空掣電機。雲愁霧慘是常儀。言畢。趺坐而逝。

饒州崇福清雅禪師

問。如何是崇福境。
師云。磬敲寒月夜。香爇白雲朝。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僧是僧。俗是俗。
僧曰。向上更有奇特事也無。
師云。毗盧頂上金冠子。
僧曰。重重蒙指示。千古為流芳。
師云。笑殺傍觀。

東京十方淨因懷璉大覺禪師法嗣

杭州臨安徑山維琳無畏禪師

初住大明。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不在然燈前。亦非釋迦後。
僧曰。莫便是育王兒孫也無。
師云。神岳風高。滉[泳-永+閩]水急。
問。如何是大明家風。
師云。神鸞頂上軒眉坐。黃鵠岫中昂首行。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會即便會。覓甚意旨。僧珍重便去。
師云。聽取一偈。楫拙火殘飛白灰。老僧身上白如雪。地爐冥坐人不知。蒼狖山西叫明月。久立。

杭州臨平勝因資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看。
師云。方圓無內外。醜拙任君嫌。
僧曰。心月孤圓。光含萬象。
師云。莫將黃葉作真金。
問。菩提不可以心得。未審和尚從何而得。
師云。齷漢。
師云。若論此事。譬如日月麗天。八方普照。盲者不見。盆下不知。非日月不明。乃當人障隔。若據祖師正令。擬議千差。直須打透金鎖玄關。一任縱橫妙用。久立。

杭州佛日淨惠戒弼禪師

問。如何是毗盧印。
師云。草鞋踏雪。
僧曰。學人不會。
師云。步步成蹤。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疥癩癰疽。
僧曰。意旨如何。
師云。不可道三身四智。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韶石木分千界月。鄮峯花發一枝春。
僧曰。恁麼則大覺嫡子也。
師云。千聞不如一見。
僧曰。專為流通。
師云。一任摸[打-丁+索]。
師云。祖宗門下。水泄不通。放去收來。隨機應用。把定則綿綿不漏。放行則兩驟雲奔。若向本分事中。未曾動著絲毫。且問諸人。作麼生是本分事。良久。顧視大眾云。高著眼。

福州天宮慎徽禪師

問。故歲已去。新歲到來。還有不受歲底也無。
師云。有。
僧曰。未審是什麼人。
師云。門外金剛。
問。如何是古佛家風。
師云。鐘鳴鼓響。
僧曰。便是也。
師云。朝三千。暮八百。
問。如何是佛。
師云。九竅常流。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色香味觸。
問。如何是琴臺一曲。
師云。木人臺畔立。囉哩不曾聞。
師云。五四三二一。胡僧數不出。泥牛笑點頭。木馬生啾唧。何也。桃花紅。李花白。春山疊亂青。春水涵虛碧。相逢休問趙州關。水裏金烏天上日。

師云。八萬四千波羅蜜門。門門長開。三千大千微塵諸佛。佛佛說法。不說有。不說無。不說非有非無。不說亦有亦無。何也。離四句。絕百非。相逢舉目少人知。昨夜霜風漏消息。梅花依舊綴寒枝。

溫州彌陀庵正彥菴主

一日。禮拜雪竇良禪師。師云。爾是有主沙彌。無主沙彌。
主云。有無且致。和尚是有主禪師。無主禪師。
師云。却被胡蘆倒繞藤。
主云。道什麼。
師擬議。主拂袖出云。見面不如聞名。師呵呵大笑。
至晚入室。師不允。主乃有頌。
金刀剃落青絲髮。求佛求法亦非真。
黃梅分付盧行者。師今授手與何人。

杭州靈隱雲知慈覺禪師法嗣

杭州靈隱山正童圓明禪師

問。皇風蕩蕩。帝道平平。為國開堂。將何祝聖。
師云。無出此問。
僧曰。學人叉手當胸。退身三步。
師云。不知何處謝無私。僧禮拜。
師云。知恩者少。
問。如何是道。
師云。夜行莫蹈白。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黃張三。黑李四。

婺州寶林顯珠禪師法嗣

婺州寶林用明禪師

問。世尊三昧。迦葉不知。和尚三昧。什麼人知。
師云。泥牛穿海去。木馬透雲歸。
僧曰。恁麼則學人請益。
師云。未敢相許。僧無語。

師云。真箇衲僧。

溫州鴈蕩靈峯文吉禪師法嗣

溫州淨光為覺禪師

問。雲門一曲師親唱。未審西來意若何。

師云。道什麼。

僧曰。恁麼則便是和尚為人處師云。錯。

師云。淨光紺字。古佛祇園。聞名者塵心頓息。目覩者宛若昇天。面臨郭郭。背靠林泉。處處盡歌 皇化。何須演妙談玄。向上一竅。千聖不傳。敢問諸人。作麼生是向上一竅。驀拈拄杖。卓一下云。鴛鴦繡了從君看。莫把金針度與人。

婺州承天惟簡禪師法嗣

婺州智者山壽聖利元禪師

問。如何是佛。

師云。三人證龜成鼈。

僧曰。意旨如何。

師云。身貧方覺濟人難。

師拈拄杖云。大用現前。不存軌則。東方一指。乾坤肅靜。西方一指。瓦解冰消。南方一指。南斗作竄。北方一指。北斗潛藏。上方一指。築著帝釋鼻孔。下方一指。穿過金剛水際。諸人面前一指。成得什麼邊事。良久。卓一下。云。路上指奔鹿。門前打犬兒。

溫州瑞安壽聖僧印禪師

問。如何是法身。

師云。頭長耳小。

僧曰。如何是法身用。

師云。南原耕罷者。牽犢負樵歸。

僧曰。恁麼則三身不分也。

師云。大蟲看水磨。

師云。將心問佛如天遠。以佛求心道轉賒。若遇雲門行正令。須教棒下識龍蛇。良久。云。具眼者辨取。

師於熙寧十年九月十三日沐浴更衣。留偈云。

倚空靈劍冷光浮。佛祖魔兵一刃收。
帶月吼風歸寶匣。鐵牛驚散曲江頭。
言畢。跌坐而逝。茶毗斂骨。獲舍利五色。

明州九峯韶禪師法嗣

明州大梅山祖鏡禪師

諱法英。姓張氏。本州鄞縣人也。投師出家。十三圓具。威儀清雅。性介不群。博究古今。樂乎述作。學問超卓。見量穎悟。參九峰韶禪師。頓悟宗旨。初住襄陽白馬。次居大梅。判宗留後仲爰一見道契。奏賜椹服。師名。

開堂日。問。徧知已具今成佛。賢宰殷勤請住持。住持即不問。徧知事若何。

師云。舉起分明。

僧曰。恁麼則不惜祖燈長夜照。奉酬明主太平時。

師云。賊是小人。

僧曰。真師子兒。作師子吼。

師云。兩重公案。

問。昔日靈山一會。今朝白馬。是同是別。

師云。分明更舉。僧拍一拍。

師云。作什麼。

僧曰。未審意旨如何。師便打。

僧曰。如何是和尚家風。

師云。猶自口喃喃。

師云。至道無在。豈無在也。至言無窮。豈無窮也。得之則皎若目前。失之則毫釐有隔。是故雖一大藏教。不為多言。一默毗耶。豈曰無語。須知佛祖人天殊非本有。好惡長短亦非本無。直下薦得。猶在半途。遮箇事須遇明眼人證據。貧道今日可謂功不浪施。將此舉揚。上祝皇風。情與無情。得無生忍。

上堂云。春山笋蕨正蒙茸。好把黃梁徹曉舂。莫謂西來無此意。祖師渾在鉢盂中。參。

上堂云。祖師不會禪。諸佛不會道。學道與學禪。諸方鬧浩浩。或以玉為塵。或認石為寶。參得一肚皮。特地生煩惱。不煩惱。解會那如入荒草。寄語參禪學道人。頭邊白髮年年新。何如來與大梅相共開田博飯喫。一生參學事畢。珍重。

上堂云。末後一句。如藤倚樹。向上一竅。演若失照。細大法門。是何緊要。為君唱箇菩薩蠻。也是人間閑曲調。參。

上堂云。三十六句之始。七十二候之初。末後句則且致。祇如當頭一句又作麼生道。拈拄杖云。歲朝把筆。萬事皆吉。急急如律令。大眾。山僧恁麼提唱。且道還有祖師意也無。良久。云。記得東村黑李四。年年親寫在門前。卓拄杖。下座。

越州東山國慶順宗禪師法嗣

建州定峯曉宣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雲收千嶽翠。
僧曰。如何領會。
師云。雨洗百花鮮。
問。學人上來。請師垂示。
師云。江澄秋夜月。風掃曉天霞。
僧曰。一句纔聞。流通萬古。
師云。爾作麼生會。僧便喝。師便打。

荊門玉泉山景德承皓禪師法嗣

郢州林溪興教文慶禪師

一日云。六六三十六。東方甲乙木。嘉州大像出關來。陝府鐵牛入西蜀。參。

澧州夾山遵禪師法嗣

江陵福昌寺信禪師

問。一花開五葉。如何是第一葉。師提起坐具。
僧曰。雲生片片。雨點霏霏。
師云。不痛不知傷。
僧曰。遮箇猶是風生雨意。如何是第一葉。師將坐具[打-丁+感]。
一[打-丁+感]僧拍掌。
師云。一任[跳-兆+孛]跳。
問。師子未出窟時如何。
師云。更問看。
僧曰。出窟後如何。

師云。齟齬露齒。
問。達麼未來時如何。
師云。大地盡漫漫。
僧曰。來後如何。
師云。雲散家家月。
問。如何是佛。
師云。東家兒郎。西家織女。
僧曰。學人不會。
師云。擲筆拋梭。
問。如何是道。
師云。天蓋地載。
僧曰。恁麼則盡在裏許也。
師云。阿唧唧。阿唧唧。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在爾腦後。
僧曰。某甲不會。
師云。好彩汝不會。若教會去。帶累老僧。
上堂云。時寒。起動大眾。不爾者。法席有踈。宗風何振。三門草深。往還絕跡。不如且與諸人作箇素筵。宰露地白牛供養諸人。大家圍爐唱無生曲子。良久。云。諦聽。諦聽。
上堂云。大眾。大眾舉頭。
師云。南山風色緊。便下座。
上堂云。朝登猊座。蓋為尋醫。禪人上來。盡被鼓聲吞了也。還有識病者麼。良久。云。豈不是患聾。即今汝各歸堂。聲消病瘥。

雲居山佛印了元禪師法嗣

杭州百丈山慶善院淨悟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問誰。
僧曰。特問和尚。
師云。鷓子過新羅。
問。如何是新年朝佛法。
師云。問著便知。
僧曰。上大人從頭起也。
師云。陽氣發時無硬地。
僧曰。有信來還去。無私古到今。

師云。大家回首謝東君。
問。古佛與露柱相交是第幾機師云。韶陽老漢也曾說著。
僧曰。學人今日有分也。
師云。大似勞而無功。
上堂云。說則搖脣。行則動脚。直饒不說不行時。錯。錯。拍禪牀一下。
上堂云。因果一言。到處隨緣。若人卜度。十萬八千。參。

常州善權山廣教慧泰禪師

問。供養百千諸佛。不如供養一無心道人。百千諸佛有甚過。無心道人有何福。
師云。花從愛惜落。草逐棄嫌生。
僧曰。未審是一是二。
師云。一二且致。鼻孔因什麼在老僧手裏。僧擬議。
師云。蒼天。蒼天。
師云。諸佛出世。廣演三乘。達麼西來。密傳大事。上根之者。言下頓超。中下之流。須當漸次發明心地。或一言唱道。或三句敷揚。或善巧應機。遂成多義。撮其樞要。總是空花。一句窮源。沈埋祖道。敢問諸人。作麼生是依時及節底句。良久。云。微雲澹河漢。踈雨滴梧桐。參。

洪州西山翠巖廣化慧空禪師

問。如何是道。
師云。荒田不揀。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麼。
師云。量才補職。
師云。昨日雨霖霖。今朝日杲杲。文殊與普賢。全身入荒草。賴得王老師。夜來遣出早。拈起拄杖云。來也。來也。不見道。春無三日晴。下座。

饒州密巖山淨土德溥禪師

問。如何是密巖境。
師云。芙蓉頂上清風起。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雨露壇前野老歌。

問。向上宗乘。如何指示。
師云。新聲調古曲。那箇是知音。

饒州崇福德基禪師

問。向上宗乘。請師舉唱。
師云。多少分明。
僧曰。更垂方便。
師云。來風深辨。
僧曰。學人禮謝。
師云。不得錯會。
師云。若於遮裏會得。便能入一佛國。坐一道場。水鳥樹林共談斯要。樓臺殿閣同演真乘。續千聖不盡之燈。照八面無私之燄。所以道。在天同天。在人同人。還有知音者麼。良久。云。水底金烏天上日。眼中瞳子面前人。

雲居山真如院仲和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問處分明。
僧曰。夜來松竹起清風。吹散白雲三兩片。
師云。且莫磕著露柱。僧禮拜歸眾。師噓噓。

廬山同安崇勝幼宗禪師

上堂。拈拄杖。召大眾云。拄杖子是體。擊禪牀云。遮箇是用。直得高低普見。遠近皆聞。正當恁麼時。且道是分不分。良久。云。榔橫橫挑華藏界。維摩掌上未為多。

婺州寶林懷吉真覺禪師

問。德山棒。臨濟喝。未審是同是別。
師云。將諸是衲僧。
僧曰。學人未曉。特伸請益。
師云。不妨劊利。
問。如何是和尚為人句。
師云。有問有答。
僧曰。得聞於未聞也。

師云。聞底事作麼生。

僧曰。六耳不同謀。

師云。也是。

師云。善慧遺風五百年。雲黃山色祇依然。而今祖令重行也。一句流通徧大千。大眾且道是什麼句。莫是函蓋乾坤。截斷眾流。隨波逐浪底麼。吽。有甚交涉。自從有佛祖已來。未曾動著。今日不可漏泄真機去也。顧視大眾云。若到諸方。不得錯舉。

信州鵝湖山仁壽德延禪師

問。如何是鵝湖境。

師云。一泓湖水春來淥。數隻仙鵝天外歸。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松聲來客座。山翠上人衣。

師云。眾口咸來發問端。當空一點欲訓難。而今大義重宣也。剔起眉毛覲面看。久立。

廬山萬杉子章禪師

問。道泰不傳天子令。時清盡唱太平歌。如何是太平歌。

師云。雲盡日月正。雪消天地春。

僧曰。恁麼則雨灑千峯秀。風動萬年枝。

師云。星江水闊連天碧。五老山橫宇宙寬。

問。師資未相見時如何。

師云。定光金地遙招手。智者江陵暗點頭。

僧曰。見後如何。

師云。父子親其居。尊卑異其位。

洪州資福宗誘禪師

上堂云。唱彌高。和彌寡。九載少林。有口如啞。眨上眉毛。蹉過了也。山僧今日從空放下。為什麼如此。盡法無民。

上堂云。龍泉今日與諸人說些葛藤。良久。云。枝蔓上更生枝蔓。

袁州龍興山居岳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自從達磨分流後。萬派都歸是一家。

僧曰。學人未曉。請師直指。
師云。集雲峯下四藤條。

東京智海正覺本逸禪師法嗣

筠州黃蘗山志因禪師

問。不如坐禪人。一念超佛地。如何是佛地。
師云。舍衛國中。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側布黃金。
問。如何是得力句。
師云。脚。
僧曰。學人不會。
師云。一步進一步。
師云。靈鷲峰前。杉松滴翠。雲霞影裏。水石清虛。盡是古來門館。舊日家風。何故道無避寒暑處。良久。云。爭怪得別人。
上堂云。歸根得旨。隨照失宗。東是厨庫。西是僧堂。皆是隨照。歸根得旨一句作麼生道。良久云。參。
上堂云。四十九年說。恩潤禽魚。十萬程途來。警悟人天。遮二老漢各人好與三十棒。何故。一箇說長說短。一箇胡言漢語。雖然如是。且放過一著。

福州大中寺德隆禪師

圓具遊方。參逸禪師。深悟宗趣。溫公左丞堅請師出世。入室摳衣。徒眾八百。
開堂日。示眾云。摩竭陀國。水泄不通。毗耶離城。親行此令。豎窮三際。橫亘十方。坐斷報化佛頭。畫斷自佗世界。是以如來大師二千年外。乘悲願力。示現受生。降誕王宮。修行雪嶺。成等正覺。轉大法輪。離文字語言。人心直旨。古今一致。殊途同歸。乃顧左右云。人天交接。賓主歷然。復召大眾。何似生。舉不顧。即差互。擬思量。何劫悟。久立。珍重。

福州白鹿山伸豫禪師

師初開堂日。上首白槌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

師云。華嶽三峰。黃河九流。還有人於此觀得麼。若此觀得。何假
芻題萬字。足步祥蓮。菩提場中。始成正覺。然此事。莫非知方之
者。共相證明。晚進初機。有疑請問。

僧問。師登高廣座。乞示少林機。

答云。紅霞穿碧漢。白日遶須彌。

進云。恁麼則人天盡側聆也。

答云。徒勞佇思。

進云。誰知遠煙浪。別有好思量。

答云。閑言語。

僧問。雲馭既登於法席。曇華一句請師宣。

答云。金風朝布野。玉露夜垂珠。

進云。恁麼則龍吟霧起。虎嘯風生。

答云。天高難側耳。

進云。若不登樓。焉知海闊。

答云。何曾夢見。

師乃云。問話且止。設使言中辨的。句裏藏機。意思交馳。並同流
浪。何故。吾祖之道。豈其然乎。若是上根作者。獨步丹霄。臨機
大用。把住則涓滴不漏。放開乃浪湧千江。踞地全威。壁立千仞。
得不英靈自己。荷負宗門。直饒恁麼。未稱衲僧。且道衲僧有甚奇
特。良久。云。深秋簾幕千冢雨。落日樓臺一笛風。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一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十三世

洪州黃龍山慧南禪師法嗣

江州東林興龍禪寺照覺禪師

諱常總。姓施氏。延平人也。母夢梵僧授白蓮華。因而誕生。長依寶雲寺出家受具。遊方造南師法席。三扣其室。南師乃問。是何宗旨。豁然大悟。服勤數載。推為導首。

初住泐潭。次遷東林。應遠公懸記。眾盈五百。

神宗皇帝詔住大相國寺智海禪院。堅讓不赴。得請林下。徐國大王特奏賜照覺禪號。緣盡坐滅。全身瘞于鴈門塔左。

開堂日。上首白槌罷。師左各顧視。良久。云。槌聲未落。祖令已行。何況擊動槌椎。告眾云。觀。早落第二。上根之者。如日晴虛。中下之流。有疑請問。

問。為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報君恩。

師云。白雲封嶽頂。明月映天心。

僧曰。帝王之恩師已報。祖意西來事若何。

師云。休於言下覓。莫向意中求。

僧曰。方信如來曾有語。黃梅今日始知心。

師云。誰不承恩力。

問。移風易俗即不問。祖宗門下以何為極則。

師云。橫按鎊鄒全體露。

僧曰。此猶是侗儻之詞。當頭一句。請師速道。

師云。箇中誰是出頭人。

僧曰。真善知識。

師云。別處即不放過。

僧曰。是何言歟。

師云。正令已行。

問。祖意西來即不問。改律為禪事若何。

師云。壺中日月。物外山川。

僧曰。遠師不虛授記。

師云。若是陶淵明。攢眉却歸去。
僧曰。泊不問過。
師云。齋後鐘。
問。寶堂擊動承天鼓。請師為唱太平詞。
師云。香煙起處清風引。
僧曰。四眾盡聞於高韻。不知誰是和歌人。
師云。翻使胡人笑更新。
僧曰。猶是第二機。
師云。那箇是第一機。
僧曰。錯。
師云。大眾有眼。
僧出眾。便提起坐具曰。請師話答。
師云。放下著。僧又作展勢。
師云。収。
僧曰。昔年尋劍客。今朝遇作家。
師云。遮裏是什麼所在。僧便喝。
師云。喝老僧那。僧又喝。
師云。放過又爭得。便打。
問。不於句後明玄旨。休向言前定祖宗。少室九年端的處。神光三拜若為通。
師云。大地載不起。
僧曰。祇如細泉通海脉。高檜入雲層又作麼生。
師云。別是一家春。
問。如何是不動尊。
師云。下坡不走。快便難逢。
問。無生曲調即不問。勿絃琴韻請師彈。
師云。指閑湘水遠。孤月夜堂深。
僧曰。一堂風冷淡。千古意分明。
師云。又被風吹別調中。
問。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如何是寶。
師云。白月現。黑月隱。
僧曰。非但聞名。今日親見。
師云。且道寶在什麼處。
僧曰。古殿戶開光燦爛。白蓮池畔社中人。
師云。別寶還他碧眼胡。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風吹日炙。
僧曰。且禮三拜。

師云。莫動著。

師云。問得亦妙。不問更奇。直饒問極西旨之源。答盡南宗之要。猶是化門。未為臻極。何謂至道淵曠。大法冲虛。非言象之所詮。非文墨之能解。彌綸三有。囊括大千。性一切心。印諸法相。蓋眾生迷不自覺。至人愍此。出興于世。張皇教網。四十九年。三藏圓修。五乘頓備。功成果滿。欲致言詮。乃告人天大眾云。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付囑摩訶迦葉。後五百歲。西天二十八祖。唐土六祖。佛佛授手。祖祖傳燈。曹溪老盧法道盛行天下。遂有五宗之說。若乃統宗會元。飲光悟拈花而微笑。慶喜倒剎竿以忘言。神光斷臂傳心。盧老舂糠為道。蓋投機自得。遇緣即宗。殃及子孫。迄今扶持不已。便謂道無南北。法非古今。正令全提。殊忘凡聖。如李相國遇藥山。明佛祖向上事。裴左丞逢斷際。見父母未生前。始得方忘已解。然妙則妙已。未免挂人齒牙。殊不知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且道向上一路是什麼人行履。若也見得。今日人天一會不異靈山。若也未明。玄關從此更重遊。

復顧大眾云。古今禪律一兼該。豈謂伊予應識來。先覺權輿真佛祖。後賢更始必劉雷。皇書已降輝千嶂。法令當行振九垓。欲識此時香社意。昔年池藕白蓮開。

上堂云。乾坤大地。常演圓音。日月星辰。每談實相。翻憶先黃龍道。秋雨霖灑。連宵徹曙。點點無私。不落別處。復云。滴穿汝眼睛。浸爛汝鼻孔。東林老漢即不然。終歸大海作波濤。擊禪牀一下。

上堂云。高高山上雲。豈為閑極。悠悠澗下水。未是清流。豈不見雪山衲子。祖室禪人。用則毗盧頂上高揖釋迦。不拜彌勒。不用則德山。臨濟是什麼閑家具。且道畢竟成得什麼邊事。良久云。一鉢千家飯。孤身萬里遊。

上堂云。老盧不識字。頓明佛意。佛意離文墨故。白兆不識書。圓悟宗乘。宗乘非言詮故。如此老婆心。分明入泥水。今時人猶尚抱橋柱澡洗。把纜放船。良久。云。爭怪得老僧。

上堂云。太平 聖世。有道明時。蕩蕩 皇風。遲遲春日。可謂香嚴竹綠。靈雲花紅。甚是親切。何曾蓋覆。誰不分明。誰不曉了。若也如是。方信雪嶺泥牛夜夜吼月。雲門木馬日日嘶風。且道德山。臨濟又作麼生。咄。

上堂云。天啟 聖嗣。祥開慶時。紫蓋盈庭。神光照室。見感真人之應運。爰丁 大聖以臨民。數越堯年。道光舜日。萬邦樂業。四海詞謠。此乃十地滿心大乘菩薩之所應現。為 人王帝王之寶位。且道有何表證。良久。云。是處山呼萬歲聲。

上堂云。筍。德山臨濟何敲磕。咦。文殊普賢弄土泥。佛祖病。急須醫。無情解說不思議。咄。是什麼識見。
師於元祐六年九月晦日鳴鼓集眾。趺坐。說偈曰。
北斗藏身未是真。泥牛入海何奇特。箇中消息報君知。撲落虛空收不得。
言畢而逝。

洪州黃龍山寶覺禪師

諱祖心。俗姓鄔氏。南雄州人。受具後。遍歷諸方。參尋知識。末後到黃蘗。扣南禪師法席。乃屢陳己見。南皆不諾。云。子且去。將來須會。

一日傾湯。誤滴于手。忽然驚省。求其印證。南纔見入門。便云。汝會也。南後示滅。令續住持。道化普洽。都尉王詵敬以師禮。開堂日。大眾集定。良久。微笑云。便恁麼休去。己是欺謾。還相委悉麼。有則便好乘時。如無。且莫錯向水中拈月。遂趺坐。拈起拂子云。若喚作拂子。達磨一宗拂土而盡。不喚作拂子。平地生波瀾。到遮裏。一似倚天長劍。誰敢當鋒。擬議即喪身失命。而今還有擊不碎底漢麼。

時有僧出禮拜。師云。不知是不是。

僧曰。也不得放過。

師云。不信道。

問。草偃風行即不問。法身向上事如何。

師云。鳥啼無淚濕。花笑不聞聲。

僧曰。一句迥起千古外。

師云。須是眼中聞。

僧曰。文殊不坐金臺殿。自有逍遙九萬程。

師云。言多道遠。

問。達磨九年面壁。意旨如何。

師云。身貧無被蓋。

僧曰。莫孤負他先聖也無。

師云。闍梨見處又作麼生。僧打一圓相。

師云。鷲雀不離窠。僧禮拜。

師云。更深猶自可。午後始愁人。

問。言詮不到處。請師垂示。

師云。雲盡日月正。雪晴天地春。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落在什麼處。僧提起袈裟角。

師云。放過一著。
問。但得本。莫愁末。如何是本。
師云。但識琴中趣。不勞絃上尋。
僧曰。如何是末。
師云。青山不礙白雲飛。
僧曰。本末祇如是。宗乘事若何。
師云。夜深方見把針人。
上堂云。虎頭生角人難措。石火電光須密布。假饒烈士也應難。矇底那能善回互。手擎日月。背負須彌。擲向他方。其中眾生不覺不知。其中眾生騎驢入諸人眼裏。諸人亦不覺不知。會麼。良久。
云。鐵牛吼處三冬暖。木馬嘶時九夏寒。
上堂云。愚人除境不除心。智者忘心不忘境。不知心境本如如。觸目遇緣無障礙。遂舉拂子云。看拂子走過西天。却來新羅國裏。知我者。為我拖泥帶水。不知我者。贏得一場怪誕。
上堂云。敲空作響。誰是知音。擊物無聲。徒勞側耳。不是目前法。莫生種種心。起滅不相知。箇中無背面。象王行處。狐兔絕蹤。水月現時。風雲自異。到遮裏。乾坤收不得。宇宙不知名。千聖立下風。誰敢當頭道。諸仁者。應是從前活計。所作施為。會與不會。一時掃却。不如策杖歸山去。長嘯一聲煙霧深。

筠州黃蘗真覺禪師

諱惟勝。俗姓羅氏。梓州中江人也。十五歲落髮。即趨講席。推為翹楚。一日。因將扇子戲歷牕櫺。砉然作聲。遂即省悟。頓捨舊習。即慕參尋。到南禪師法席。呈昔所見。即為印之。推為上首。後繼住黃蘗。道行大播。因遊輦下。駙馬都尉王詵咨問法要。敬以師禮。遂還蜀中。坐滅于雲頂山。
問。明鏡高懸於此日。願灑醍醐壯祖宗。師據坐。
僧曰。八方誦道泰。一國賀無私。
師云。重言不當吃。
問。大眾盡臨於座側。真乘一句請師宣。
師云。白雲橫谷口。
僧曰。如何趣向。
師云。淶水迸清流。
僧曰。若不上來伸此問。焉知明月掌中觀。
師云。我早入荒草。子又踏蒺藜。
問。一塵纔起。大地全收。未是衲僧極則。如何是衲僧極則事。
師云。老僧到遮裏却不會。

僧曰。學人更不會。
師云。爾不妨會得好。
問。不用拈槌舉拂。瞬目揚眉。離却咽喉脣吻。請師速道。
師云。道不得。
僧曰。恁麼則截斷千古路。無人敢出頭。
師云。是。
僧曰。劔閣路巖嶮。夜行人更多。
師云。轉遠也。
問。久嚮黃蘗事作麼生。
師云。嶮岨地。
僧曰。露柱證明。
師云。大眾笑爾。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高臺無古鏡。冀裏有真珠。
問。文殊即不問。觀音在什麼處。
師云。聞鼓聲麼。僧禮拜。
師云。遮聾漢。
上堂云。羅漢書字。仰山白槌。禾山打鼓。清平蹈泥。四老人祇管一向婆母。不知泄漏真機。然雖泄漏真機。要且後人不知。良久。云。選佛須是英靈漢。敵祖還他師子兒。
上堂云。臨濟喝。德山棒。留與禪作人模範。歸宗磨。雪峯毬。此箇門庭接上流。若是黃蘗即不然。也無喝。也無棒。亦不推磨。亦不鞣毬。前面是案山。背後是主山。塞却爾眼睛。拶破爾面門。於此見得。得不退轉地。盡未來際。不向他求。若見不得。醞醐上味翻成毒藥。
上堂云。寂兮寥兮。蟾蜍皎皎下空谷。寬兮廓兮。曦光赫赫流四海。曹溪路上。勦絕人行。多子塔前。駢闐如市。直饒遮裏薦得個儻分明。未是衲僧活計。大丈夫漢須是向黑闇獄中敲枷打鎖。餓鬼隊裏放火奪漿。推倒慈氏樓。折却空王殿。靈苗瑞草和根拔。任他滿地生荊棘。

袁州仰山行偉禪師

河朔人也。東京大佛寺受具。聽習圓覺。微有所疑。挈囊遊方。專扣祖意。至南禪師法席。六遷星序。一日扣請。尋蒙喝出。足擬跨門。頓省玄旨。出世仰山。道風大著。
問。如何是密密意。
師云。爾問不密。

僧曰。如何是出現身。
師云。更添一重。
問。毗盧藏中有大教典。如何是教典。
師云。在爾面前。
僧曰。莫_祇遮便是也無。
師云。錯。
僧曰。如何得不錯。
師云。重言不當吃。
問。釋迦掩室。淨名默然。未審和尚如何說。
師云。少人聽。
僧曰。唯佛與佛乃能知之。師便喝。
上堂云。大眾會麼。古今事掩不得。日用事藏不得。既藏掩不得。則日月現前。且問諸人。現前事作麼生。參。
上堂云。大眾見麼。開眼則普觀十方。合眼則包含萬有。不開不合是何模樣。還見模樣麼。久參高德。舉處便曉。後進初機。識取模樣。莫_祇管貪睡。睡時眼見箇什麼。若道不見。與死人何別。直饒丹青處士筆頭上畫出青山綠水。夾竹桃花。祇是相似模樣。設使石匠錐頭鑽出群羊走獸。也祇是似模樣。若是真模樣。任爾處土石匠。無爾下手處。諸人要見。須是著眼始得。良久。云。廣則一線道。狹則一寸半。以拂子擊禪牀。
上堂云。鼓聲纔動。大眾雲臻。諸人上觀。山僧下覷。上觀觀箇什麼。下覷覷箇什麼。良久。云。對面不相識。

洪州泐潭山寶峯禪院洪英禪師

俗姓陳氏。邵武人也。頂角自誓出家。父母不能奪志。圓具後。遊歷宗席。至南禪師會中。累入室。未契其旨。一日。因取經函。忽失手響聲。遂有發悟。逕造方丈。陳其所解。南曰。汝乃我家英雄。具正眼者。由是禪眾奔湊。
問。逢場作戲時如何。
師云。紅爐爆出鐵烏龜。
僧曰。當軒布鼓師親擊。百丈竿頭事如何。
師云。山僧不信遮活計。僧擬議。
師云。不唧[口*留]漢。
僧禮拜起。便垂下袈裟角曰。脫衣卸甲時如何。
師云。喜得狼煙息。弓弜壁上懸。
僧却攬上袈裟云。重整衣甲時如何。
師云。不到烏江畔。知君未肯休。僧便喝。

師云。驚殺我。僧拍一拍。
師云。也是死中得活。
問。黃龍一曲師親唱。佛寺驢脚略借看。
師云。腦後三斤鐵。僧便喝。
師云。驚殺老僧。僧拍一拍。
師云。老僧打退鼓。僧禮拜。
師云。龍頭蛇尾。
問。臨濟栽松即不問。百丈開田事若何。
師云。深著鋤頭。
僧曰。古人猶在。
師云。更添鋤頭。僧禮拜。師扣禪床一下。
師顧視大眾云。青山重疊疊。淶水響潺潺。遂拈拄杖云。未到懸崖處。擡頭子細看。卓一下。
上堂云。寶峯高。土罕到。巖前雪厭枯松倒。嶺前嶺後野猿啼。一條古路清風掃。禪德。雖然如是。且道山僧拄杖子長多少。遂拈起云。長者隨長使。短者隨短用。卓一下。
上堂。良久。顧視大眾云。石門巖嶮鐵關牢。舉目重重萬仞高。無角鐵牛衝得破。毗盧海內作波濤。且道不涉波濤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句不遑無著問。迄今猶作野盤僧。

潭州大瀉山懷秀禪師

信州貴溪人。姓應氏。仕儒族也。聰明穎悟。出世弘揚。
問。昔日瀉山水牯牛。自從放去絕蹤由。今朝幸遇師登座。未審時人何處求。
師云。不得犯人苗稼。
僧曰。頭角已分。
師云。空把山童贈鐵鞭。
問。莫將佛法以當人情。人情即不問。佛法請師舉唱。
師云。不可更作人情。
僧曰。大哉宗匠。宛爾不同。
師云。徒勞讚歎。
問。如何是瀉山境。
師云。鳳凰展翅煙霄外。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大底大。小底小。
師云。佛祖心印。唯證乃知。靈山嘉會。聖眾雲臻。法付王臣護持。心傳最上根輩。直至如今。二千餘載。真風不墜。祖道聯綿。

幸遇 聖朝。遭逢 明世。正是王臣護法。滄山出世敷揚。且道敷揚什麼法。遂拈袈裟角示眾云。即此薦得。慶快平生。皇恩佛恩一時報足。輒莫依他作解。終是塵緣。絲髮未忘。結成生死。勞他河沙佛祖出來東道西說。搖唇鼓舌。今朝山僧與諸人決破。還信得及麼。休去得麼。如今休去便休去。若覓了時無了時。是什麼說話。喝一喝。下座。

南嶽福嚴慈感禪師

梓州杜氏子。乃讓禪師宗裔也。儀相挺特。意氣高閑。人所見者。莫不驚異。得法黃龍南禪師。出世于江州承天。德風大扇。勵節遠聞。潭帥請居嶽頂大寺。潛韜密行。殊應頗多。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鷲峯山畔。澗水東流。

僧曰。畢竟黃龍之子。汾陽之孫。

師云。看取令行時。

問。人天高座說法。當途如何遊戲。

師云。逢人舉似。

僧曰。未審如何為人。

師云。買帽相頭。

僧曰。恁麼則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師云。且莫錯認。

僧曰。真善知識。

師云。遮賊。

上堂云。擲鉢峯前。春風浩浩。湘江水裏。白浪滔滔。是法無私顯露。動著不然而然。邂逅指南不遇。祇管鼻孔遼天。南泉頭頭垂示。大顛默爾無言。毗耶長啟一室。誰人敢共齊眉。咄。以拂子擊禪床云。參。

上堂云。古佛心。祇如今。若不會。苦沈吟。秋雨微微。秋風颯颯。乍此乍彼。若為訓答。沙岸蘆花。青黃交雜。禪者何依。良久。云。筍。

湖州報本慧元禪師

湖州倪氏子。比試得度。遊方參道。至南禪師法席。一言相契。侍奉七年。出世于蘇臺吳江聖壽。次遷崑山惠嚴城中萬壽。後移報本。

元豐中。一日。沐浴畢。陞堂。告眾云。五十五年夢幻身。東西南北孰相親。白雲散盡千山外。萬里秋空片月新。言畢而逝。肉身不壞。見存本院。

問。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今日意作麼生。

師云。守株待兔。枉用心神。

僧曰。向上之機蒙師指。中下之流又如何。

師云。祇聞人作鬼。不見鶴成仙。

僧曰。不因入水。爭見長人。

師云。未問已前猶較些子。

問。如何是西來意。

師云。天輪左轉。地軸右旋。

問。文殊請不二之門。維摩默然而對。此理如何。

師云。昔年座主。今日禪人。

問。黑白未分時如何。

師云。天高地厚。

僧曰。分後如何。

師云。日暖月涼。

僧曰。便恁麼會。還得也無。

師云。須彌山倒卓。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昨日立春今日暖。百花未綻柳先開。

僧曰。如何是教意。

師云。自家飛絮猶無定。休把長條絆別人。

問。諸佛不出世。達磨不西來。正當恁麼時。未審來不來。

師云。撞著爾鼻孔。

僧出禮拜。曰。學人有一問。和尚還答否。

師云。昨日答汝了也。

僧曰。今日作麼生。

師云。明日來。

又僧出禮拜。起曰。請和尚答話。

師云。答話了也。

僧曰。再請。

師云。記取話頭。

僧曰。話頭道什麼。

師云。念汝是初機。

師云。白雲消散。紅日東昇。仰面看天。低頭覷地。東西南北。一任觀光。達磨眼睛。斗量不盡。演若何曾認影。善財不往南方。衲僧鼻孔遼天。到此一時穿却。

上堂云。擊大法鼓。演大法義。未打鼓已前。文殊大士向諸人眉毛眼睫上出沒卷舒。作大佛事。及至擊動法鼓。觀音菩薩又向諸人耳上轉妙法輪。諸人還聞麼。直饒見得聞得。早是不著便。若也真箇不知。自是無枝葉。莫怨太陽春。咄。

上堂云。般若無知。無所不知。作麼生說箇無知道理。若謂杜絕視聽。何異斷見外道。其或忘知遺照。正是背境凡夫。諸人還知麼。釋迦老子終日向燈籠露柱隨有道有。隨無道無。雖不即於有無。亦不離於有無。如斯話會。鈍致祖師。明眼衲僧輒他冷笑。且問爾笑箇什麼。喝一喝。

蘄州四祖山法演禪師

桂州人也。受業本州永寧寺。少年受具。壯歲遊方。湘楚叢林。江淮禪席。所至知識。無不異待。道契南師。他遊遂息。一住四祖三十餘年。行解堅密。人天景仰。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咩。誰敢措口。更談何事。諸人還知麼。

問。如何是第一義。

師云。雙峯粗識好惡。

僧曰。和尚豈無方便。

師云。幸自可憐生。

僧曰。當陽一句蒙師指。謝家人本在漁船。

師云。放過即不可。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飢嗔飽喜。

問。如何是心相。

師云。山河大地。

僧曰。如何是心體。

師云。汝喚什麼作山河大地。

上堂云。雲颺颺。雨瀝瀝。盡是諸人日用力。直饒於此便明得。二十拄杖教誰喫。

上堂云。葉辭柯。秋已暮。參玄人。須警悟。莫謂來年更有春。等閑蹉了巖前路。且道作麼生是巖前路。良久。云。嶮。

上堂云。主山吞却案山。尋常言論。拄杖子普該塵刹。未足為奇。光景兩亡。復是何物。良久。云。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中。

上堂云。佛祖之道。壁立千仞。擬議馳求。還同點額。識不能識。智不能知。古聖到遮裏。垂一言半句。要爾諸人有箇入處。所以

道。低頭不見地。仰面不見天。欲識白牛處。但看觸體前。如今頭上是屋。脚下是地。面前是佛殿。且道白牛在什麼處。乃召大眾。眾舉頭。師叱之。

潭州石霜山崇勝禪院琳禪師

問。拈槌舉拂拈放一邊。請師答話。

師云。高著眼。

僧曰。作家宗師。

師云。脚下蹉過。僧以坐具畫一畫。

師云。自領出去。

問。法王出世。請施法令。

師云。一二三四五。

僧曰。法令施行。

師云。瀟湘船子。

問。慈雲靄靄。惠日輝輝。大眾欣然。乞師一接。

師云。好。

僧曰。不言含有象。何處謝無私。

師云。石女溪邊笑點頭。

問。石霜枯木重生時如何。

師云。海底金龜走。天邊玉兔明。

僧曰。恁麼則覺花開有地。果熟自然香。

師云。須彌頂上面南行。

上堂云。霜花一境。極目蕭然。枯木堂前。風行草偃。淥水滔滔無盡。白雲合而還開。往來禪客飽足觀光。林下相逢呵呵大笑。且道笑箇什麼。良久。云。煙村三四月。別是一家春。

上堂云。或談玄。或說妙。德山臨濟把手笑。更言無說是菩提。多年梁上生芝草。咦。

師元豐七年三月初八日淨髮沐浴。至夜。小參云。平生行脚。方始見人。平生參禪。始終得力。成佛作祖。不離方寸。鑊湯爐炭。祇在而今。遮箇消息。如人飲水。冷暖自知。聽吾一頌。大幻一段。見明燦爛。苦惱眾生。早晚分散。夜半。端然示寂。闍維。得舍利。葬于本山。

蘄州開元琦禪師

問。芥子納須彌即不問。微塵裏轉大法輪時如何。

師云。一步進一步。

僧曰。恁麼則朝到西天。暮歸唐土。
師云。作客不如歸家。
僧曰。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又作麼生。
師云。人心似等閑。
問。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離此二途。請師直道。
師云。但得雪消去。自然春到來。
僧曰。恁麼則截斷兩頭。歸家穩坐。
師云。不動一句又作麼生。
僧曰。大羅山頂依青嶂。挂月峯前看白雲。
師云。心不負人。面無慚色。
問。久嚮道風。請師相見。
師云。雲月是同。溪山各異。
上堂云。文彩未生。一物也無。文彩既生。萬事縱橫。明來暗謝。
暗去明來。樓閣門開。誰覩善財。喝一喝。拍一拍。下座。
上堂云。虛空無內外。事理有短長。順則成菩提。逆則成煩惱。燈籠常瞌睡。露柱亦懊惱。大道在目前。更去何處討。擊禪床一下。
上堂云。四面亦無門。十方無壁落。頭鬢髮。耳卓朔。箇箇男兒大丈夫。何得無繩而自縛。且道透脫一句作麼生道。良久。云。踏破草鞋赤脚走。
上堂。以拂子擊禪床一下。云。作什麼。良久。云。因風吹火。用力不多。

福州玄沙明惠合文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舌不從口出。
僧曰。從什麼處出。
師云。切忌耳根尋。
僧曰。[口*佗]。
師云。鈍致殺人。
問。如何是正眼。
師云。銀盤著火煮。
問。如何是道。
師云。私通車馬。
僧進一步。師云。官不容針。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九峯藏夏雪。
僧曰。乞師方便。

師云。一洞起清風。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五里三歇。
僧曰。意旨如何。
師云。飲雪吞霜。
問。驪珠未見時如何。
師云。泥餅藏水馬。
僧曰。見後如何。
師云。菜飯祭狸奴。
問。十里松聲。如何浪響。
師云。耳裏遭釘。
僧曰。乞師答話。
師云。眼中添屑。
問。從上諸聖以心傳心。未審和尚如何為人。
師云。泉聲含太古。
問。頂門無照。心外有心。如何是心外心。
師云。問取路行人。
僧曰。如何是心內心。
師云。金剛提不起。
上堂云。滄海闊。青山高。兔無角。龜無毛。向此薦得。鷄子過新羅。若有方便門路。一任來來去去。石門難掩通南北。一路樵歌兩岸山。咄。
上堂云。恁麼恁麼。脚跟難踏。萬寺千僧。三山七塔。玉露草頭垂。金風天下雨。更上一層樓。朝雲開未合。向此不明。翻成搯[打-丁+(天/韭)](上音鞞下音鞞)。
上堂云。春山春水。春雨春風。蝶舞花紅。鶯啼柳綠。又道魚蹤鳥跡。兔角龜毛。火裏蜚螻。竿頭進步。當恁麼時。應現法門。宣無盡意。咄。是底物撿點得來。鰕為子屈。
上堂云。三五十五。滄山水牯。二六十二。雪峰鼈鼻。雖是向上關楨。誰到恁麼田地。更有絕品醍醐。誰識舌頭滋味。智不到處。切忌切忌。為報南閩諸大士。鼻孔近來多失利。咄。
上堂云。雲橫天際。雨出龍心。草木承恩。山川得主。樵者唱兮汝打鼓。漁者謠兮汝作舞。夜來天地動春風。笑問春風一無語。擊禪床一下。

潭州雲蓋山海會寺守智禪師

問。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如何是一法。

師云。拈三放一。
僧曰。某甲鼻孔在什麼處。
師云。雲蓋無鼻孔。
問。法爾不爾。如何契得。
師云。露柱挂燈籠。
僧曰。少遇知音。
師云。三門頭合掌。
問。鼓聲纔罷。大眾臨筵。祖意西來。請師舉唱。
師云。雨過路頭乾。
僧曰。祖意既如是。家風事若何。
師云。腦後合掌。
僧曰。全因今日。
師云。謝汝到來。
問。大海有珠。如何取得。
師云。無心者得。
僧曰。到處有明月。在處有清風。
師云。祇為爾有心。
僧曰。別寶須還碧眼胡。
師云。少賣弄。
問。遠別五峯即不問。近居靈蓋事如何。
師云。門外三虵井。孤峯五色雲。
僧曰。恁麼則千星中一月。
師云。鈍致殺人。
上堂云。雲蓋並無長處。二時粥飯。略以相待。同時喫粥。同時喫飯。同坐喫茶。是事相隨。更覓什麼奇特事。若要奇特事。除是西來達磨。伏惟珍重。
上堂云。昨日高山看釣魚。步行騎馬失却驢。有人拾得駱[駱-口+巴]去。重賞千金一也無。乃云。若向遮裏薦得不著。還草鞋錢。咩。參。
上堂云。把斷命根。拽脫舌頭。翻身倒坐。走馬騎牛。若也不會。隨流入流。喝一喝。

潭州寶蓋山子勤禪師

問。師今已唱胡家曲。更將何法示來徒。
師云。一字兩頭垂。
僧曰。威光分此夜。照用出何門。
師云。頭上光明烜赫。脚下黑漆顛預。

僧曰。入水見長人。

師云。傍觀者醜。

上堂云。溪山雖異。雲月是同。順應方圓。任自西東。大眾。法不離色。響不離聲。到遮裏。明明聲色顯露。如何透得。還有透得底麼。良久。云。鐘鳴鼓響相交應。青山不礙白雲飛。咄。

廬山圓通圓璣禪師

問。更深夜靜。正好商量。且道商量箇什麼。

師云。達磨西來底。

僧曰。的有商量底道理也無。

師云。千江有水千江月。萬里孤舟萬里身。

問。生死到來。如何迴避。

師云。堂中瞌睡。寮裏抽解。

僧曰。便恁麼時如何。

師云。須知有轉身一路。

僧曰。如何是轉身一路。

師云。傾出爾腦髓。拽脫爾鼻孔。

僧曰。便從今日無疑去也。

師云。作麼生會。

僧曰。但知行好事。不用問前程。

師云。須是恁麼。

問。一問一答。盡落言詮。不涉言詮。請師速道。

師云。縮却舌頭。

僧曰。幾合一生疑著。

師云。碧眼胡僧。

上堂云。春雨微微。百事皆宜。禾苗發秀。蔬菜得時。阿難如合掌。迦葉亦攢眉。直饒靈山會上拈花微笑。筭來猶涉離微。爭似三家村裏老翁深耕淺種。各知其時。有事當面便說。誰管瞬目揚眉。更有一般奇特事。末後一著更須知。擊拂子。下座。

上堂云。雲生嶺上。為瑞為祥。月落寒潭。有明有暗。千丈瀑布。舉世皆知。華藏玄關。何人會得。良久。云。善財不彈指。彌勒自門開。參。

安州九嶷山圓明院法明禪師

問。寶座既登於此日。請師一句露尖新。

師云。言中有響。

僧曰。臯鶴連天叫。金烏遶木飛。

師云。識取話頭。

問。得到寶山空手回時如何。

師云。用力者失。

僧曰。途中用盡意。懨懨却回歸。

師云。切忌道著。

上堂云。心本絕塵。眾生自昧。猶如澄清大海。浪起風生。亦如皎潔太虛。雲興雨作。諸仁者。風未興。雲未起。寒山拾得賀太平。九峻山嶺松高翠。寺前流水古今清。明眼衲僧須子細。乃笑云。久立。珍重。

桂州登雲山超及禪師

問。未審雲如何登。

師云。柳[木*栗]橫擔不顧人。

僧曰。山高巖嶮如何上。

師云。直往千峯萬峯去。

僧曰。便是為人處也。

師云。看脚下。

僧曰。謝師指示。

師云。嶮。

師云。登雲山巖嶮。良久。云。山僧今日平地上喫交。下座。

福州昇山紹南正覺禪師

上堂。拈拄杖云。荷擔如來。盛作吾宗。嫡裔捨著。攪大海兮魚龍奔騰。指長天兮星辰交錯。履昏衢兮為炬為明。治疾苦兮為良為藥。於父子兮如龍如鳳。處昆仲兮如棣如萼。思少林兮徹皮徹髓。憶黃梅兮胡穿亂鑿。不見進人以禮。退人以禮。春風和暢。巖泉清泚。鄉雲澹蕩。幽蘭旖旎。花開花合。龍眠龍起。金毛出林。靈龜曳尾。隱顯齊彰。各得其旨。琴不張絃。曲調高流。入千人萬人耳。大眾。更有一著。還知落處麼。以拄杖卓一下。云。穿開幽鳥道。敲遍野僧門。

隨州水南太平興國智秘禪師

問。如何是水南境。

師云。檜栢與翠竹交參。山色共野花鬪彩。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對面不相識。

上堂云。朝朝相似。日日一般。上來下去。應用無虧。泊乎說著佛法。又却特地多端。諸人到遮裏。如何說得箇平常底道理。良久。云。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參。

南嶽勝業寺惟亨禪師

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示。

師云。欲行千里。一步為初。

僧曰。十二時中如何履踐。

師云。白雲無心。青天有日。

上堂云。有利無利。莫離行市。王老師賣身即不問。且道廬陵米有人酬價麼。若無人。老僧自買自賣去。良久。云。東行不見西行利。以拄杖卓一下。

遠州清泉崇雅禪師

問。如何是清泉。

師云。一滴也無。

僧曰。還有龍也無。

師云。有。

僧曰。忽有金翅鳥時如何。

師云。無下觜處。僧擬議。

師云。酌然。

廬山清隱源禪師

問。向上宗乘。請師指示。

師云。僧是僧。俗是俗。

僧曰。如何趣向。

師云。遇茶喫茶。遇飯喫飯。

僧曰。便是為人處也無。

師云。是。

上堂云。寒風激水成冰。杲日照冰成水。冰水本自無情。各各應時而至。世間萬猶如然。不用強生擬議。以拂子擊禪床。

鼎州彰法禪寺覺言禪師

上堂。譙居士問。長老年多少。

師云。與太虛同壽。

居士云。好好借問。

師云。來風深辨。居士呵呵大笑。

師云。知。

上堂云。無弦有韻孰知音。朗月虛堂一片心。太古莫言非祖意。正聲寥廓至而今。且道是何曲調。咄。

安州興國禪院契雅禪師

問。請師不於語默裏答話。師以拄杖卓一下。

僧曰。和尚莫草草忽忽。

師云。西天斬頭截臂。僧禮拜。

師云。墮也。墮也。

上堂云。心如朗月連天靜。遂打一圓相。云。寒山子。爾性似寒潭徹底清。是何境界。良久。云。無價夜光人不識。識得又堪作什麼。凡夫虛度幾千春。乃呵呵大笑云。爭如獨坐明窓下。花落花開自有時。下座。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二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三世

洪州黃龍山慧南禪師法嗣

東京大相國寺慧林禪院佛陀禪師

諱德遜。姓楊氏。福州候官人也。少習儒業。學問該博。忽厭塵紛。乃慕入道。長依東京天清寺慧照上人出家。試經披剃。徧扣知識。遠造南禪師法席。投機開悟。復遊講席。聽習大經。首住汾陽淨土。次遷太原白雲。常坐不臥。緇素欽服。齒臘彌高。道行益固。晚奉 詔旨住慧林。 哲宗皇帝百日入內。特賜佛陀禪號。師於建中靖國元年二月十七日 大行皇太后五七。奉 聖旨就慈德殿陞座。師拈香云。此一瓣香。恭為 大行皇太后。上薦 仙游。願早登正覺。便敷座。

褒親旌德禪院佛海禪師白槌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顧視左右云。二月桃花依舊開。於此觀得。龍樓鳳閣崢嶸。玉殿金門^烜赫。塵塵剝剝盡是不思議境界。若觀不得。有疑請問。

問。一大藏教。盡涉言詮。教外別傳。請師舉唱。

師云。水底黃金鏡。天中素月輪。

僧曰。一音普演周沙界。無限勞生盡得聞。

師云。爾聞底事作麼生。

僧曰。處處彌陀佛。家家觀世音。

師云。休於言下覓。莫向句中求。

僧曰。劔閣路雖嶮。夜行人更多。

師云。莫便是闍黎安身立命處麼。

僧曰。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師云。商量即錯。

僧曰。恁麼則學人退身禮拜去也。

師云。禮拜即得。

問。但離妄緣。即如如佛。未審佛在什麼處。

師云。 萬乘登龍座。千官列寶階。

僧曰。學人今日得聞於未聞也。

師云。汝聞底事作麼生。

僧曰。 仁孝之君。道齊堯舜。

師云。路上行人口似碑。
僧曰。九州和氣如三月。四海歡呼似一家。
師云。逢人不得錯舉。
問。臨濟宗風。龍山大布。三關壁立。願師垂示。
師云。大海纖塵起。紅爐片雪飛。
僧曰。汾陽浪裏。競棹孤舟。枯木生花。別迎春色。
師云。罕逢穿耳客。多是刻舟人。
僧曰。宗旨已蒙師指示。祇如 大行皇太后即今仙馭生何佛土。
師云。花開花合分晝夜。龍眠龍起定春秋。
僧曰。恁麼則却歸兜率陀天上。慈氏宮中快樂人。
師云。却被闍黎道著。
問 慈德殿上。般若門開。 聖主簾前。願聞法要。
師云。雨晴金殿冷。風暖帝城春。
僧曰。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
師云。塞北千人帳。江南萬斛舟。
僧曰。若然者。 皇恩佛恩一時報了。
師云。定光金地遙招手。智者江陵便點頭。
僧曰。祇如 皇太后即今在什麼處。
師云。紫蓮臺上瞻毫相。白藕花心聽妙音。
僧曰。已得真人好消息。人間天上更無疑。
師云。不如速禮拜。
師云。一問一答。一敲一唱。要且未為究竟。假使普惠雲興二百
問。普賢瓶瀉二千訓。到遮裏。也用一點不著。然雖如是。於建化
門中。事無一向。是故惠林今日不說重說偈言。諸仁者。靈山一
會。宛若今日。今即是古。古即是今。古今通始終同。上至 聖天
子。下至宰輔。文武百官。長者。居士。庶民等。亦復如是。雖富
貴貧賤之有殊。而嗜欲好惡之無異。無異之性。即是佛性。在聖賢
而不增。在凡夫而不減。不增不減。性相如如。如即無生。如即無
滅。如即無去。如即無來。所以去來者。乃是緣會緣離之一時耳。
恭惟 大行皇太后母儀天下。子育萬方。扶持 社稷之靈。裨贊
聖明之化。故得閨門肅睦。中外叶和。本謂日月齊明。山河等固。
何期電光不久。薤露非堅。華胥一夢何長。蓬嶋三山莫問。流光不
住。五七斯臨。徒增風木之悲。難報丘山之重。是日 皇帝陛下祥
延毳侶。共就 靈幃作諸種種佛事。及令臣僧德遜。四禪長老陞
座。舉揚般若。集此殊因。上資 仙馭皇太后。伏願 鳳輦凌虛。
上昇於兜率。金蓮映水。坐證於菩提。 今上皇帝陛下孝思在念
仁愛不忘。修德以來遠人。垂衣而安萬國。慈悲喜捨。方便權輿。
利益安樂一切眾生。不令一物失所。乃至海隅蠻貊之邦。咸受其

賜。豈不謂之 仁君也。然而幻化無常。有生必滅。此古今之常理。陛下初登寶位。纔及周星。方撒去於凶幃。又復丁於憂惱。更冀 自勉。少抑哀懷。以存禮制。設 號天扣地 苦 己勞神。而無益於生死者。唯是 存心妙道。護念宗乘。使法輪再轉於閻浮。道光重映於千載。如是功德。不可以世求。亡者乘此善緣。得生勝處。此乃為至孝也。

自古 帝王明王。無不歸崇三寶。若三寶興隆。即 皇基永固 帝祚綿長。茲為至禱。即將此日無盡功德。並用回向 今上皇常陛下。伏願 金輪統御。踵三代之淳風。寶曆開祥。享萬年之景運。 皇太妃 皇后。 皇太子殿下。 諸王。 闔宮天眷。並願輔翼 皇家。冥符佛記。壽椿永秀。並月桂以聯芳。福海彌深。與天源而益濬。臣僧德遜。叨蒙 聖旨。特賜舉揚。退省庸虛。實增感愧。臣無任瞻 天荷 聖。激切之至。塵黷 聖聰。伏惟珍重。開堂日 哲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 恩畢。登座拈香。祝延 聖壽罷。乃敷坐。法雲大通禪師白槌竟。師顧視大眾云。金爐香裏。寶殿風清。如是觀得。處處彌陀佛。家家觀世音。若觀不得。有疑請問。

問。覺花纔綻。瑞氣凝空。為 國開堂。願聞法要。

師云。天寒日短。露冷風高。

僧曰。一句迥超千古外。人天無不盡霑恩。

師云。情知爾與麼會。

僧曰。觸目對揚真般若。山河共顯法王機。

師云。不得錯舉。

問。宸恩 已降。選佛場開。學人上來。請垂科目。

師云。點。

僧曰。不折月中桂。心空及第歸。

師云。是什麼科目。

僧曰。絕妙好辭。難以加此。

師云。習氣不除。

問。王舍城中說法。 仁王特降寶香。今日達士相逢。未審如何舉唱。師畫一圓相。

僧曰。是何宗旨。

師云。多少分明。

僧曰。憑師一句曹溪旨。上祝 吾皇萬萬年。

師云。謝汝證明。

師云。傳持此事。豈以搖唇鼓舌。馳騁言鋒。而可議哉。然於方便門中。事無一向。是故文殊以無住為本。曹溪以無念為宗。無念之宗。為萬法之宗。無住之本。為萬法之本。眾生棄本逐末。背覺合

塵。一失其源。迷而不復。故我祖師西來。不立文字。特唱宗乘。祇教諸人明見自性。與佛同儔。歇則菩提。不從人得。佛言。我於然燈佛所。無一法可得。然燈方與我授記。若有一法可得。然燈佛即不與我授記。如是舉唱。猶是化門。且道不落化門一句作麼生道。冬無寒。臘下看。

諸仁者。道非隱顯。遇緣即宗。法無去來。因時而會。若緣時之未會。雖佛祖亦何為。且恢張祖席。創立叢林。豈一僧之能耳。必假國王大檀越與之護助。佛日乃可光揚。自昔京城未聞是道。適因先帝首建法幢。延四海之高流。為一時之大事。故今日如此之盛。皇帝陛下少踐丕圖。早聞妙法。不忘佛記。克紹前芳。遂令山野之人獲預朝廷之命。得不夙興夜寐。補報恩休。即將此日開堂少善。上祝皇帝陛下。伏願舜日與佛日高明。堯風共祖風並扇。萬方無事。時當熙盛之年。四海晏清。人樂昇平之化。久立。珍重。

洪州泐潭山寶峯禪院真淨禪師

諱克文。關右人也。受業于復州北塔院。性行敏實。儀相淳古。聽教造義。參禪穎悟。黃龍南禪師昔所印可。筠陽出世。道價遠聞。相國王公安石延居報寧。奏章服師名。

開堂日。上首白槌罷。師良久云。會麼。少室峯前曾示此。高安灘上復誰傳。會中若有仙陀客。莫學神光廢九年。咄。有疑請問。問。有一人欲出長安。有一人欲入長安。未審那箇先。

師云。多少人疑著。

僧曰。不許夜行。

師云。蚊子咬鐵牛。

僧曰。山頂老猿啼古木。渡頭新鴈下平沙。

師云。長安人已入。爾合作麼生。

僧曰。春日華山青。

師云。遮僧雖後生。却可商量。

問。新豐古剎。古佛道場。侯伯請師。願垂方便。

師云。耀古騰今。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

師云。將謂古佛道中人。

僧曰。洞山境色重添翠。悟本玄風復振請。

師云。有甚了期。

問。江西佛手驢脚接人。和尚如何接人。

師云。鮎魚上竹竿。

僧曰。全因今日。
師云。烏龜入水。
問。聲前薦得。未是作家。喝下承當。猶為鈍漢。學人上來。請師相見。
師云。家富小兒嬌。
僧曰。也是說道理。
師云。與爾一文錢。
僧曰。今日不著便。
師云。養子之緣。
問。鐘聲纔動。大眾臨筵。禁足已臨。如何指示。
師云。大家在遮裏。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
師云。多是言中轉却。
僧曰。一堂風冷澹。千古意分明。
師云。莫亂道。
問。如何是佛。師呵呵大笑。
僧曰。何哂之有。
師云。笑爾隨語生解。
僧曰。偶然失利。
師云。不要禮拜。僧便歸眾。
師復笑云。果然。
問。如何是趙州關。
師云。過。
問。前三三即不問。如何是後三三。
師云。的。
僧曰。進前三步。
師云。關。
問。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如何是不離底事。
師云。傾心吐腹。
師云。大眾。今日一會要知麼。是大眾成佛時節。淨緣濟會。大丞相荊國公及判府左丞。施宅捨園林。為佛刹禪門。故請山僧闡揚西來祖意。諸人還會麼。直指大眾。即心見性成佛。大眾信得及麼。若自信得及。即知自性本來成佛。縱有未信。亦當成佛。但為迷來日久。一乍聞說。誠難取信。以至古今天下善知識。一切禪道。一切語言。亦是善知識自佛性中流出建立。而流出者是末。佛性是本。近代佛法可傷。多棄本逐末。背正投邪。但認古人言句為禪為道。有甚干涉。直是達磨西來。亦無禪可說。祇要大眾自悟自成佛。自建立一切禪道。況神通變化。眾生本自具足。不假外求。如

今人多是外求。蓋根本自無所悟。一向客作。數佗珍寶。都是虛妄。不免生死流轉。

大眾。今二相公特建此大道場。作大佛事。出大眾生死流轉。況此事本來廣大。寂滅妙心。開發本來神通大光明正法眼藏。但迷則長居凡下。悟則即今聖賢。大眾。言多去道轉遠。笑佗明眼道人。眾中莫有明眼者麼。今時佛法渾濫。要分邪正。使大眾不隨邪見。作人天正眼。有麼。良久。云。我終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下座。

上堂云。洞山門下。八凹九凸。交交加加。屈屈曲曲。崎崎嶇嶇。嶠嶠(午結切)岬岬。水雲掩映。煙嵐重疊。一道直路。觀者遊者。十人九人。舉步早是迷却路頭也。其中莫有不迷者麼。咄。且道路頭在什麼處。

上堂云。佛法二字。不用道著。道著則頭角生。古人祇解殺人。不解活人。何不道佛法二字一一現成。諸仁者。欲知佛麼。祇諸人是。欲知法麼。祇諸人日用者是。是不是。是即也大奇。不是也大奇。殺也活也。一處不通。兩處失功。兩處不通。觸途成滯。

上堂云。好諸禪德。也無禪。也無道。也無玄。也無妙。快活當明遮一竅。一竅不明愁殺人。動即依佗和屎合尿。

南康軍雲居山真如禪院元祐禪師

姓王氏。信州上饒人也。夙稟道氣。動靜異俗。十三歲。依本州博山承天院齊晟上人出家。比試披緇。徧參知識。造南禪師法席。契悟祖意。服勤數載。眾推導首。命住湘西道林。次移廬山羅漢。晚遷雲居。徐國大王嚮師聲望。奏降椹服。確志林下。竟辭弗受。因馳道譽。遐邇益欽。

開堂日。上首白槌罷。師顧視云。八字打開。便請相見。

問。千佛出世。發願同時。和尚出世。與何人同時。

師云。文殊眼睛裏。長得現全身。

僧曰。已得燃燈親授記。真風不墮至如今。

師云。妙光童子。

僧曰。是何言歟。

師云。老僧失利。

問。竺乾啟運。震旦聯芳。向上宗乘。請師垂示。

師云。新官不理舊事。

僧曰。今日得聞於未聞。

師云。一氣無私。萬靈合湊。

僧曰。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師云。一任敲輒打瓦。
問。如何是道林的旨。
師云。筭。
僧曰。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
師云。汝皮袋重多少。
僧曰。高著眼看。
師云。自領出去。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胡天雪馱玉麒麟。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一客不煩兩主人。
僧曰。學人未曉。
師云。老僧被汝勘破。
問。莓苔滿室即不問。祖月高輝事若何。
師云。號令德山。喝起臨濟。
僧曰。羅漢門下。水泄不通。
師云。再犯不容。
僧曰。忽遇鐵牛之機又作麼生。
師云。正好和泥合水。
僧曰。今日快便難逢。
師云。齧鏃火輪迸。
問。如龜藏六時如何。
師云。文彩已彰。
僧曰。處處無蹤跡。
師云。拖泥帶水。
僧曰。與麼去時如何。
師云。果然。
師云。新啟法筵。人天會集。稀逢難遇。正在此時。還更有乘時適變底衲僧麼。出來。為汝證據。良久。云。不出頭者是好手。雖然如是。道林今日已向平地上喫咬了也。賴遇金粟大士有不二法門。放一線道。道林方敢解開布袋頭。足可以施展家風。向無佛處稱尊。便乃指點三界。目視四維。偃仰堯天。高譟舜日。舉威音三調。唱菩薩蠻。奏勿絃琴。含太古意。當是時。文殊休悵惘。普賢謾沈吟。任是千聖出頭來。異口同音。也不消一筭。久立。珍重。上堂云。達磨九年面壁。二祖斷臂得安心法。洎後花開五葉。今古異同。便有德山棒。臨濟喝。龍潭吹燈。鳥窠布毛。五位君臣。三玄三要。盡是古人用不盡底殘羹剩飯。道林都不拈動。恐壞佗人腸。

肚。且道尋常將什麼供養十方聖眾。四海禪流。直須自有現前三昧。驀召大眾云。茶堂內喫茶去。
上堂云。道林一語。千聖齊舉。字字無差。不敢相許。正當劫火洞然。但看鵝王擇乳。
上堂云。凡見聖見。春雲掣電。真說妄說。空花水月。翻憶長髭見石頭。解道紅爐一點雪。擊禪牀。下座。
上堂云。天色晴乾。曬眼皮草。若言見山是山。山不自山。見水是水。水不自水。見僧是僧。僧不自僧。見俗是俗。俗不自俗。是故聽不出聲。見不超色。便向日本國裏著衣。香積界中喫飯。擊禪牀。下座。
師於壬申年七月七日夜子時方丈敷坐。示眾云。三處住持。不傳一法。火風聚散。物理常情。吾滅後。不得隨世禮厚葬。縗經哭泣。當稟我佛西竺法。火化歸塔。遂示偈云。
今年六十六。三處因緣足。
夜半火燒山。跳入火中浴。
言畢示寂。闍維。得五色舍利。塔建于雲居山。

廬陵仁山隆慶禪院慶閑禪師

姓卓氏。福州古田人也。母夢胡僧授以明珠。覺即有孕。誕時白光照室。親戚驚異。長依建州昇山慶禪師出家。圓具。未幾。乃慕參遊。投機黃龍南師法席。遂獲開悟。行解堅密。操蘊自如。唱道一時。心歸四眾。
元豐五年十一月內。沐浴淨髮。寫偈云。
露質浮生。掩質浮滅。
五十三歲。六七八月。
南岳天台。松風澗雪。
珍重知音。紅爐優鉢。
言畢。趺坐而逝。茶毗。煙飛四十里內。草木砂礫皆獲舍利。舌目數珠晶瑩如故。塔于仁山。
師再參黃龍南禪師。侍立次。南問。向後得坐披衣。如何為人。
師云。遇方即方。遇圓即圓。
南云。爾恁麼說話。尚挂人脣齒在。
師云。慶閑祇恁麼。和尚如何。
南云。近前來。向汝子細說。
師拊掌云。三十年用底。今日捉敗。
南呵呵大笑云。一等是精靈。師拂袖而去。
問。鋪席新開。不可放過。

師云。記取話頭。
僧曰。請師高著眼。
師云。蹉過了也。
問。達磨西來。單傳心印。印即且致。如何是心。
師云。長者長。短者短。
僧曰。如何是印。
師云。白者黑。赤者黃。
師云。拋輕負重。脫珍御服。著弊垢衣。笑破衲僧口。然雖如是。靈龜未兆之際。萌芽未發已前。若有人道得。可謂無師智。自然智。若道不得。便乃舉古舉今。盡是滅胡種族。且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諸仁者。但自回光。無第二著。舉措施為。不虧實相。噫。與麼說話。或有明眼高流。跳上禪牀。拽翻地下。爛槌一頓。喝一喝。云。為什麼向人天眾前謗佛謗祖。也許伊具半隻眼。如今恁麼遞相鈍致。有什麼了期。喝一喝。云。且莫錯笑人好。
上堂云。夫行脚人。大凡擇師求友。須遇奇人始得。若遇本分師匠。終是不費心力。若不遇人。臘月二十五。贏得鬚頭光。咄。

舒州三祖山法宗禪師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節氣未至。
僧曰。出水後如何。
師云。去年相似。
問。如何是善知識所為底心。
師云。十字街頭一片輒。
僧曰。如何是十字街頭一片輒。
師云。不知。
僧曰。既不知。却恁地說。
師云。無人蹈著。
問。優曇花出。大眾同觀。學人上來。請師直指。
師云。水不離濕。
僧曰。恁麼則雲開日月正。雪消天地春。
師云。吾猶昔人。
僧曰。一種勿絃琴。唯師彈得妙。
師云。水上卓紅旗。
問。身生智昧時如何。
師云。山僧被闍梨一句道盡。

僧曰。是何言歟。
師云。斯言不妄。
問。如何是佛。
師云。喫鹽添得渴。
問。如何是禪。
師云。少叢林。
問。如何是無縫塔。
師云。十字街頭。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勾三攬四。
問。如何是道。
師云。十里雙牌。五里單埃。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少避長。賤避貴。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臨河不買水。
僧曰。意旨如何。
師云。恃聾作啞。
師云。五五二十五。時人盡解數。倒拈第二籌。茫茫者無據。為什麼無據。愛佗一縷。失却一端。
上堂云。明晃晃。活鱗鱗。十方世界一毫末。拋向面前知不知。莫向意根上拈掇。拍一拍。
上堂云。舉道須是決烈。憎愛是非徒絕。生佛任自紛紜。虛空如何著楔。

洪州黃龍山元肅禪師

問。祖意西來。誰家嫡嗣。
師云。面南觀北斗。
僧曰。黃龍密印親傳得。百丈今朝一派流。
師云。聽事不真。喚鐘作甕。
僧曰。人天有賴。
師云。七穿八穴。
問。祖意西來。願垂開示。
師云。泥牛吞巨浪。
僧曰。中下之機如何體究。
師云。木馬踐紅塵。
僧曰。恁麼則法輪再轉。祖道重光。

師云。土上加泥。

上堂云。文殊在諸人眼睫上放光。普賢在脚跟下走過。且道觀音大士在什麼處行履。夜聞風水響。日見嶺猿啼。

上堂云。春去秋來始復終。花開花謝幾時窮。唯餘林下探玄者。了得無常性自通。復云。亘古邁今。包天括地。豈去來之所易。何新舊之所遷。嶺梅發泄。岸柳含煙。榮衰互換。前後交參。諸禪者。會麼。法爾非爾。不然而然。

上堂云。道源不遠。性海非遙。但向己求。莫從他覓。大眾。既向己求。又作麼生求。不可向思量計較中求得麼。不可向心想分別中求得麼。不可向文字語言上求得麼。不可守空閑坐求得麼。不可造作施為求得麼。既恁麼求不得。又作麼生求。遂拈拄杖云。雄峯有箇拄杖子布施諸人。擲下云。一任途中受用。

上堂云。動則應用無窮。靜則虛明寥廓。動靜無二。物我如如。出家人到遮裏。阿誰無分。雖然如是。苦瓠連根苦。甜瓜徹蒂甜。

齊州靈巖山重確正覺禪師

先住善光。次住黃蘗。後住靈巖。奉 聖旨就十方淨因院開堂。

問 聖上降香於此日。利人一句請師宣。

師云 彩鳳翱翔下九霄。台星影散臨清汴。

僧曰。恩深轉無語。

師云。報人須報徹。

僧曰。若不上來伸此問。焉知師答 我皇恩。

師云。誰把千鈞背手彎。

問。諸佛出世。為一大事。和尚陞堂。此意如何。

師云。王法無親。

僧曰。可能同出四生。共超三界。

師云。和我不惺惺。

僧曰。若然者。地無私載。

師云。又須焦輒打著連底凍。僧無語。

師云。向道不惺惺。

師云。問傾巨海。答出奔星。祇恐時人明辨不破。大眾。見須實見。悟須實悟。若言百味般般。爭似麤餐一飽。何也。實際理地。纖芥不存。真微妙門。言詮何立。是以布慈雲而潤物。揭智炬以燭幽。示忘言之言。為無說之說。恁麼說話。祇知淚出痛腸。不覺舌在口外。若是摩竭令行。難通不犯。良久。云。國清才子貴。家富小兒嬌。拍禪牀一下。臣僧今日舉唱。恭為 皇帝陛下。曩承佛

記。示作 人王。化被無疆。功歸有截。明明舜日。常法覺海之昏。浩浩堯風。每濟慈航之便。久立眾慈。伏惟珍重。
上堂云。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針挑不出。匙挑不上。過在阿誰。綠雖千種草。香祇一株蘭。
上堂云。不方不圓。不上不下。驢鳴狗吠。十方無價。拍禪牀。下座。
上堂云。此方真教體。清淨在音聞。街頭人叫吉州針。無人還價至如今。蝦蟇蚯蚓向春歌。衲子茫茫錯會多。

潭州大漚山穎詮禪師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黑漫漫地。
僧曰。磨後如何。
師云。爍破頂門。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廣州上船。
僧曰。意旨如何。
師云。少林面壁。
僧曰。學人不會。
師云。歸去西天。
上堂云。山高水冷。游人罕到。牧牛坡下。禪客縱橫。出出入入。莫教落草。恁麼說話。還有佛法道理也無。良久。云。却憶仰山曾有語。一回入草一回牽。咩。

虔州廉泉禪院曇秀禪師

問。法筵大啟於斯日。正令提綱事若何。
師云。兩條章貢水。風起浪如山。
僧曰。見聞無不荷師恩。
師云。船子下楊州。
問。如何是玄妙之機。
師云。羊頭車子到長安。
僧曰。某亦如是去時如何。
師云。爾草鞋跟斷。
問。千醜百拙時如何。
師云。去道不遠。
僧曰。今日得遇和尚也。

師云。鼻孔遼天。
問。如何是佛。
師云。席帽峯何高。
問。如何是道。
師云。水透三江。
問。年窮歲盡時如何。
師云。凍把城根雪。
問。滿口道不得時如何。
師云。話墮也。
問。不與萬法為侶時如何。
師云。自家肚皮自家畫。
問。如何是學人轉身處。
師云。掃地澆花。
僧曰。如何是學人親切處。
師云。高枕枕頭。
僧曰。總不恁麼時如何。
師云。鶯啼嶺上。花發巖前。
問。如何是微妙之機。
師云。隔嶺聞猿叫。
問。今古不墜時如何。
師云。如石落落。如玉瑤瑤。
問。如何是廉泉一曲。
師云。緊緩相和。
問。如何是衲僧口。
師云。殺人不用刀。
問。如何是苦切之言。
師云。銅舌鐵觜。
上堂云。亦無難。亦無易。行盡天涯無處避。百衲禪僧走似烟。到頭不離舊行市。三文買箇大饅頭。兩人一箇。不得擘破。
上堂云。無孔笛。無鼻牛。阿誰放。阿誰收。良久。云。定光金地遙招手。智者江陵暗點頭。
上堂云。鶯啼嶺上。花發岩前。漁舟放溜。牧笛高吹。達磨無成。摩羅西歸。師乃呵呵大笑云。懵懂禪翁。更道失却鈎錐。
上堂云。廉泉一脉。百味具足。若人不會。山青水淥。

韶州南華清桂禪師

問。一大藏教。打頭一句如何。

師云。如是我聞。
僧曰。末尾一句如何。
師云。信受奉行。
師良久云。會麼。
僧曰。不會。師便下座。無疾而逝。

南岳高臺寺宣明佛印禪師

問。正法眼藏。涅槃妙心。便請拈出。師直上觀。
僧曰。人天有賴。
師云。金屑雖貴。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杖林山下水。多愛鞦韆底流。
僧曰。學人不會。
師云。九月是重陽。
師云。動則隨波逐浪。不離步步道場。靜則把定封疆。未有慈悲之手。二邊不涉。正在鬧林。到此進則是。退則是。良久。云。竹影掃堦塵不動。月輪穿海浪無痕。

衡州花光寺元恭禪師

問。如何是道。
師云。通身無障礙。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來往任縱橫。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枝葉甚分明。
僧曰。出水後如何。
師云。一任眾人觀。
僧曰。天地若教出。地塘焉敢藏。
師云。莫妄想。
問。兆象未生時如何。
師云。波斯讀梵書。
僧曰。生後如何。
師云。胡僧笑點頭。
僧曰。欲生未生時如何。
師云。洗足上漁船。
僧曰。全因今日也。

師云。梳頭不洗面。

楊州建隆禪院昭慶禪師

上堂云。臨濟於東勝身洲喝一喝。直至西衢耶尼人頭痛腦裂。東勝身洲人不知不覺。德山於南瞻部洲棒一棒。直至北鬱單越人渾身痛癢。南瞻部洲人不知不覺。何故如此。臨濟之喝太速。德山之棒太長。遂拈拄杖云。且道山僧拄杖子長多少。試請定當看。

上堂云。始見新歲倏忽。早是二月初一。天氣濃淡。百物和融。也擬舉箇時節因緣與諸人商量。却被帝釋與梵王在門外柳眼中努出頭來。先說偈言。裊裊颺輕絮。且逐風來去。相次走綿毬。休言道我絮。當時撞著阿修羅。把住云。任爾絮忽逢西風吹渭水。落葉滿長安一句作麼生道。於是帝釋縮頭。入柳眼中。良久。云。參。

蘄州三角山慧澤禪師

問。師登寶座。大眾側聆。師卓拄杖一下。

僧云。答即便答。又卓箇什麼。

師云。百雜碎。

蘄州五祖曉常禪師

問。如何是宗乘中事。

師云。動唇吻得麼。

問。如何是正法眼。

師云。揀擇得麼。

問。如何是法身。

師云。道汝不會。得麼。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看不見。

僧曰。出水後如何。

師云。清香滿路。

上堂云。一念信心一念佛。念念更非是別物。六門出入豈神通。一道光明無軌則。行亦行。坐亦坐。或語或笑非兩箇。目下若也認得渠。青山萬里無寸草。

潭州大光應犀禪師

問。學人擬展拏雲手。未審師還許也無。
師云。清風搖翠栢。綠柳撼階前。
僧曰。若然者。千山鎖夜月。照破萬家門。
師云。明眼衲僧。
僧曰。打麪還佗州土麥。唱謔須是帝鄉人。
師云。分明記取。
僧曰。放過一著。
師云。吽。

洪州興化法澄禪師

上堂云。雲籠碧嶂。雨灑長空。百草鬪青。千山競翠。遮那境界。華藏門開。處處善財。重重彌勒。交參主伴。更互敷揚。大悲無窮。度生不倦。大眾。還見彌勒麼。良久。云。長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

南嶽法輪文昱禪師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兩脚踏地。
僧曰。意旨如何。
師云。是爾自己。僧禮拜。
師云。令人疑著。
上堂。以拄杖卓一卓。喝一喝。云。雪上加霜。眼中添屑。若也不會。北鬱單越。

郢州芭蕉山仁珂禪師

上堂。拈拄杖云。凜凜威風。誰敢正覷。畫斷葛藤。向什麼處出氣。到遮裏。放開捏聚。把定放行。說什麼德山。臨濟。直教齊立下風。若是影響異流。且去尋言逐句。終無了日。眾中莫有知音者麼。出來證據。若無。看山僧遮一解。遂拋下拄杖。

黃蘗積翠永庵主

示眾云。山僧住此庵來。無禪可說。無法可傳。亦無差珍異寶。祇收得續火柴頭一箇。留與後人。令他烟燄不絕。火光長明。遂以拂子擲下。時有僧就地拈來。向口邊吹一吹。

師便喝云。誰知續火柴頭從遮漢邊煙消火滅去。乃拂袖歸庵。僧吐舌而去。

洪州黃龍山自慶禪師

問。深臥白雲即不問。祖意西來事若何。

師云。昨日今朝事不同。

僧曰。今朝得聞於未聞。

師云。語是心苗。

問。臨濟行喝。德山行棒。和尚如何。

師云。二俱不用。

僧曰。龍得水時添意氣。

師云。透龍門事作麼生。

僧曰。虎逢山色長威獰。師便喝。

信州靈鷲慧覺禪師

問。禪客相逢祇彈指。此心能有幾人知。如何是此心。

師云。誰教恁麼問。

僧曰。新長老不可莽鹵。

師云。放爾三十棒。

問。如何是桃花境。

師云。石上仙蹤千古在。檻前山水四時流。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羽客不知何處去。靈雲依舊獨徘徊。

師云。大眾。百千三昧。無量妙義。盡在諸人脚跟下。各請自家回互取。會麼。回互不回互。認取歸家路。智慧為橋梁。柔和作依怙。居安則慮危。在樂須知苦。君不見龐居士黃金拋却如糞土。父子團圓頭。共說無生語。無生語。仍記取。九夏雪花飛。三冬汗如雨。

蘄州石鼓洞珠禪師

上堂云。問答既多。去道轉遠。何也。道不屬知。知是妄覺。道不屬見。見是眼睛。眼睛不明。觸事崢嶸。聯環不斷。為生死根。若不直向太虛之外。自然情念頓忘。真心獨露。如斯說話。俯為下根。道友相逢。無可不可。坐則十方俱隱。行則六趣隨緣。語則出

口成言。默則三灾不撓。然雖如是。須知有轉身一路。眾中莫有轉得身者麼。出來證據。若無。山僧今日失利。

舒州宿松靈隱寺德滋山主

蜀人也。自住院二十年。每日獨自上堂云。朝朝相似。日日一般。祇遮便是。更莫別求。

元豐六年十月四日。陞堂集眾。良久。云。會麼。眾無語。師儼然而逝。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三

都勾當藏主沙門 靈肇。

都勸首住持傳法沙門 普明。

同勾當住聖泉寺傳法沙門 紹登。

勸首應賢良方正能直言極諫科陽暘。

朝請丈夫知福州軍州兼管內勸農事。

兌福建路丘馬鈴轄柱國借柴王祖道。

請主參知政事元絳。

證會 靈應侯王。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岳懷讓禪師第十三世

洪州翠巖山可真禪師法嗣

東京大相國寺智海禪院真如禪師

諱慕喆。姓聞氏。撫州臨川人也。齟齬依建昌軍永安院圓覺大師出家受具。後弊衣糲食。介然不群。勵志遊方。遍參宗匠。晚造翠巖真禪師法席。投機去契。推為上首。始住岳麓大瀉。晚奉詔旨住智海禪院。

開堂日 哲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 恩畢。登座。拈香祝延聖壽罷。乃敷坐。法雲大通禪師白槌竟。師召大眾云。龍樓鳳閣。瑞氣凝空。五路三街。和風習習。如未相悉。流布去也。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況在會四眾盡是祖師指出底人。還信得及麼。若信得及。天上天下隨處建立。隨處利生。出沒卷舒。縱橫應用。其或未然。何妨致問。

問。香煙馥郁。海眾雲致。為 國開堂。如何舉唱。

師云。 皇風蕩蕩。

僧曰。青山藏不得。明月却相容。

師云。 帝道平平。

僧曰。憑師一滴曹溪水。四海為霖報 我皇。

師云。真箇。

問。大法從來倚 聖明。此日遭逢有道君。如何是有道君。

師云。坐致太平。

僧曰。八方無一事。四海有謠謠。

師云。不妨道著。

問。太平一曲。四海咸聞。不落宮商。如何舉唱。

師云。一二三四五。

僧曰。木人嶺上輕吹處。石女溪邊暗點頭。

師云。罕遇知音。

僧曰。爭柰瑞氣流沙界。和風滿 帝城。

師云。劄利衲僧。

師云。若論此事。豈在如斯一問一答以順機器。諸祖妙道即不然也。何故。輝騰世界。迥絕見知。函蓋相應。絲毫不漏。當人分上。各自圓成。亘古亘今。無增無減。有佛無佛。性相常如。以此舉揚。上答 皇恩。久立眾慈。伏惟珍重。

問。趙州庭栢。意旨如何。

師云。夜來風色緊。孤客已先寒。

僧曰。先師無此語。又作麼生。

師云。行人始知苦。

僧曰。十載走紅塵。今朝獨露身。

師云。雪上加霜。

問。如何是城裏佛。

師云。萬人叢裏不插標。

僧曰。如何是村裏佛。

師云。泥猪疥狗。

僧曰。如何是山裏佛。

師云。絕人往還。

僧曰。如何是教外別傳。

師云。翻譯不出。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寒毛卓豎。

僧曰。見後如何。

師云。額頭汗出。

上堂。拈拄杖云。智海拄杖。或作金剛王寶劍。或作踞地師子。或作探竿影草。或不作拄杖用。諸人還相委悉麼。若也悉去。如龍得水。似虎靠山。出沒卷舒。縱橫應用。如未相悉。大似日中逃影。

上堂云。捫空追響。勞汝心神。夢覺覺非。竟有何事。德山老人在爾諸人眉毛眼睫上。諸人還覺麼。若也覺去。夢覺覺非。若也未覺。捫空追響。終無了日。直饒向遮裏個儻分明。猶是梯山入貢。還有獨遊方外者麼。良久。云。且莫詐明頭。參。

上堂云。山僧本無積畜。且得粥足飯足。困來即便打睡。一任東卜西卜。

上堂云。看風使帆。諸人盡知。斬釘截鐵。要在當機。且道不傷物義一句作麼生道。良久。云。舉頭天外看。誰是箇中人。參。

師於紹聖二年十月初八日寫偈云。

昨夜三更。風雷忽作。

雲散長空。前溪月落。

偈畢。坐逝。茶毗燼餘。睛目爪齒堅然如故。分葬于京譚二塔。餘如大丞相曾公布塔銘。

南岳西林崇奧禪師

問。一問一答。賓主歷然。不問不答。如何辨別。

師云。坐底坐。立底立。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舌拄齶。僧禮拜。

師云。不得諱却。

師云。南斗六。北斗七。波斯眼睛黑似漆。堪笑峰前檜與松。被風吹動鳴颼颼。更有一灣流水清。接竹引來鬧啾啾。鬧啾啾。觀音普賢共相揖。共相揖。日日日從東畔出。因。是什麼說話。良久。云。波斯鼻孔長三尺。

袁州楊岐山方會禪師法嗣

舒州白雲山海會院守端禪師

衡陽周氏子也。生而異相。遂捨出家。篤志參玄。勤詢學問。法悟楊岐。名播宗席。語要頌古。諸方盛傳。今也雖亡。道風益扇。開堂日。上首白槌竟。師顧視左右云。便恁麼散去。自古自今如麻似粟。若言更有如何若何。曹溪一路平沉。從上諸聖皆向火焰裏垂手。祇要諸人眼橫鼻直。眾中莫有垂手者麼。出來辨看。

問。欲行千里。一步為初。如何是最初一步。

師云。過遮邊來。

僧曰。謂言侵早起。更有夜行人。

師云。未敢相許。僧便喝。

師云。咦。

問。二師相見。合談何事。

師云。六耳不同謀。

僧曰。謝師答話。

師云。聽事不真。

上堂云。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遮箇是把纜放船手脚。且道衲僧分上又作麼生。良久。云。掀翻大海求知己。道合乾坤見太平。上堂云。運用與去來。何曾有間隔。山僧數日出山行履。每日折旋俯仰。瞞諸人一點不得。諸人在院折旋俯仰。瞞山僧一點不得。山僧為什麼見似不見。要會麼。是處有芳草。何山無白雲。咄。

金陵保寧仁勇禪師

俗姓竺氏。明州人也。受具遊方。始參泐潭。迨逾一紀。疑情未息。次扣雲蓋會禪師。發明心印。出世保寧。二十餘年唱揚祖道。問。如何是佛。

師云。鐵鎚無孔。

問。如何是道。

師云。泥裏有刺。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切忌蹈著。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雪上加霜。

問。知師解把無星稱。無角鐵牛重幾多。

師云。頭輕尾重。

僧曰。此猶是對面相瞞。

師云。與天下人作榜樣。

僧曰。恁麼則人平不語。水平不流。

師云。猶較些子。

問。靈山如指月。曹溪如話月。未審保寧門下如何。

師云。嘎。

僧曰。有花當面貼。師便喝。

問。摘葉尋枝即不問。如何是直截根源。

師云。蚊子上鐵牛。

僧曰。直截根源人已曉。中下之流如何指示。

師云。石人脊。汗通流。

問。如何是塵中自在底人。

師云。因行不妨掉臂。

僧曰。如何是佛法大意。

師云。鑊湯無冷處。

上堂云。釋迦出世。弄假像真。達磨西來。將長就短。德山棒。臨濟喝。陽燄充飢。梅林止渴。清平世界不妨夜行。如今莫有吞却佛祖。打破化城者麼。良久。云。今日被大眾勘破。

上堂云。來也。來也。良久云。去也。去也。

上堂云。滿口是舌。都不能說。碧眼老胡。當門齒缺。

上堂云。看看。山僧入拔舌地獄去也。以手拽舌云。阿啞。阿啞。

上堂云。相罵無好言。相打無好拳。大眾。直須恁麼。始得一句句切害。一拳拳著實。忽然打著箇無面目漢。也不妨暢快殺人。

上堂。侍者燒香罷。師指侍者云。侍者已為諸人說法了也。

上堂云。百川異流。同歸於海。萬途差別。皆入此宗。卓拄杖云。醫得眼下瘡。剗却心頭肉。

上堂云。曹溪路上。野老謳謠。古佛堂前。行人舞袖。腳踏實地。天下人知。鼻孔遼天。作麼生辨。乃云。無孔笛吹玄外曲。五湖何處覓知音。乃拍一下。

上堂云。山僧二十餘年挑囊負鉢。向寰海之內參善知識十數餘人。自家並無箇見處。有若頑石相似。參底尊宿亦無長處可相利益。自此。一生祇作箇百無所解底人。幸自可憐生。忽然被業風吹到江寧府。無端被人上當推向十字路頭。住箇破院子。作粥飯主人。接待南北。事不獲已。隨分有鹽有醋。粥足飯足。且與麼過時。若是佛法。不曾夢見。

岳州幕阜山長慶顯瓊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泥龕塑像。
僧曰。如何是法。
師云。黃卷赤軸。
僧曰。如何是僧。
師云。更問阿誰。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幕阜山高。
僧曰。畢竟如何。
師云。高繫布裙。

岳州君山守巽禪師

問。山高水深即不問。如何是君山境。
師云。山高水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漁翁鼓棹。
僧曰。宗乘事若何。
師云。岳陽樓望洞庭湖。

澧州欽山乾明智因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步步踏著。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眼眼相覷。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錦繡銀香囊。
僧曰。客來如何祇待。
師云。硬餬餅。爛飢飪。
僧曰。佛法事如何。
師云。人情濃厚道情微。

潭州石霜山守孫禪師

問。生也不道。死也不道。為什麼不道。
師云。一言已出。
僧曰。從東過西又作麼生。
師云。駟馬難追。
僧曰。學人總不與麼。
師云。易開終始口。難保歲寒心。
師云。秋風颯颯。秋雨微微。敗葉紛飛。嶺雲繚繞。於此明得。善財入彌勒樓閣。帝網重重。互相涉入。於此未明。且莫迷頭認影。止宿草庵。如斯話會。曲為初機。明眼高流。共相證據。噫。什麼說話。良久。云。雲在嶺頭閑不徹。水流澗下太忙生。參。

明州天童山清遂禪師法嗣

福州乾元寺了覺禪師

開堂日。上首白槌竟。師良久云。直饒阿那律天眼。未解諦觀。便是千手大悲。焉能提掇。眾中莫有不甘者麼。出來掀倒禪床。約散大眾。然雖如是。未是作家。且於第二門中與衲僧出氣。
問。少林九年垂一語。直至如今賺舉。欲得不賺。便請師舉。
師云。噯。
僧曰。摩嚩哩伽。摩嚩哩智又作麼生。
師云。放爾三十棒。
問。尊者證果。超越聖流。不涉重修。請師速道。
師云。落花簷外朵。青柳檻前梢。
僧曰。一雨周沙界。群心永夜穌。
師云。水不洗水一句作麼生道。
僧曰。應知松柏操。不改歲寒心。
師云。且信一半。
問。未離兜率。已降王宮。未審是什麼人。

師云。牛頭出。馬頭回。
僧曰。未審是法身。報身。

師云。牽犁拽杷。

師顧視大眾云。還相委悉麼。若不相悉。山僧今日指鹿為馬。唱九作十。瞞諸人去也。摩竭正令。水泄不通。少室真規。風吹不入。聖凡情盡。體露真常。迥絕見知。輝騰今古。良由情存聖量。隨在見知。所以聽不出聲。見不超色。縱滅一切見聞覺知。內守幽閑。猶為法塵分別影事。造種種業。輪回異趣。往而不返。真可悲哉。若能回光返照。有何佛道可成。眾生可度。便能向火燄裏藏身。東涌西沒。於微塵上走馬。同死同生。若向遮裡見得徹。參得透。切忌認驢鞍橋作阿爺下頷。

南岳應天萬壽應城禪師

師初參淨慈遂禪師。遂問。上人從何而來。

師云。毗陵來。

遂云。我聞毗陵出好草蟲扇子。帶得來否。師作一圓相。

師云。大善知識又要遮箇作什麼。

遂云。祇遮箇。此間亦要得。師於言下大悟。

上堂云。山花狼藉。孤負空生。山草離披。拈起室利。驚得岳神稽首。土地和南。陝府鐵牛無放處。嘉州石像露全身。如斯說話。錯會者多。敢問諸人。不涉春緣一句作麼生道。良久。云。不得春風花不開。花開又被風吹落。咄。

福州大中立誌禪師

問。握驪珠於掌上。鑿十方於目前。學人上來。請一師鑒。

師云。草賊大敗。

僧云。學人今日失利。

師云。自知較一半。僧便喝。

師云。彊惺惺。

問。遠趨丈室。仰慕宗風。學人上來。請師一接。

師云。高挂鉢囊。

僧曰。便是為人處也無。

師云。盲人摸地。

僧曰。莫厭良為賤。

師云。短販樵人。徒誇書劍。

問。馬祖陞堂。百丈捲席。未審古人意旨如何。

師云。官馬相踏。
僧云。學人今日小出大遇。
師云。拄杖未曾拈著。
上堂云。猿嘯烏山之畔。眾獸潛藏。雲生螺渚之間。群峰失色。太阿寶劍。耀日爭輝。樵父船柴。醫王辨價。還有不顧賓主者。出來道看。良久。云。水凍魚難躍。天寒草發遲。以拄杖打香臺一下。
上堂云。法不見法。法不行法。法不知法。大眾。遮箇是香爐子。如何是不見。不行。不知。百億恒沙世界諸佛盡在香爐上放光動地。說法度人。諸人還見麼。直饒見得。也涉踟躕。咄。
師於紹聖元年三月十一日集眾。沐浴淨髮。寫偈云。
麒麟掣斷黃金鎖。玉兔衝開白玉關。
好是無雲中夜後。一輪明月照踵山。
偈畢。趺坐而逝。荼毗。獲舍利。塔葬本山。

金陵蔣山贊元覺海禪師法嗣

衢州江山縣石門羅漢禪院雅禪師

問。雷音一震。龍象咸臻。學人上來。請師舉喝。
師云。蓮日瞬時千界靜。金顏笑處一花新。
僧曰。人天盡入羅峰境。今日親聞端的音。
師云。百萬茫茫人不知。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東宮玉殿無遺影。
僧曰。出世後如何。
師云。毗藍園畔雨天花。
僧曰。與麼則逾春城於八夜。棲雪嶺於六年。
師云。威音王已前作麼生。
僧曰。且待別時。師便打。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熊耳塔開空寂寂。唯留隻履冒輕埃。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一條筇竹杖。三事衲鬘衣。
僧曰。客來將何祇待。
師云。酌泉釀點祖師茶。
上堂云。茱萸鮮嫩菊花香。暢殺陶家醉酒郎。我輩泛觴雖絕分。東籬閑翫也無妨。大眾。閑翫即不無。且道眼在什麼處。知有底。眉

毛眼上橫。未諳者。紅黃裏亂走。阿呵呵。今日元來九月九。咄。
下座。

信州龜峰瑞相子瓊禪師

問。如何是博山境。
師云。澗流淥水。路出松門。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身著紅綃衣。肚中黑如漆。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剎竿頭指天。
問。青春已過。夏景暄繁。時節因緣。請師為說師云。臘月二十五。未是拜年時。
僧曰。學人未曉。乞師再指。
師云。石人身上不生毛。

金陵蔣山可政禪師

問。如何是道。
師云。不許夜行。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投明須到。
問。如何是向上事。
師云。一人泉在最高峰。

潭州開福守義禪師法嗣

廬州澄慧惟昞禪師

問。向上宗乘。請師舉唱。
師云。有問有答。
僧曰。如同昔日空生問。一似當初善逝訓。
師云。無問無答。
僧曰。一句蒙師指。三拜謝師恩。
師云。靜處薩婆訶。
問。蹈破澄潭月。穿開碧落天。不顧危亡。乞師指示。
師云。齋後鐘。
僧曰。青山無異路。智辨在當人。

師云。直須子細。僧應喏。

師云。[跳-兆+孛]跳。

南岳雲峰文悅禪師法嗣

桂州壽寧齊曉禪師

問。大眾雲臻。合談何事。

師云。波斯入鬧市。

僧曰。恁麼則草偃風行。

師云。萬里望鄉關。

問。如何是佛。

師云。著衣喫飯。

僧曰。叉手當胸。退身三步。

師曰。醉後漆盃。

上堂云。觸目不會道。猶較些子。運足焉知路。錯下名言。諸仁者。山僧今日將錯就錯。汝等諸人見有眼。聞有耳。齷有鼻。味有舌。因什麼却不會。良久。云。武帝求仙不得仙。王喬端坐却昇天。咄。

廬州澄惠咸詡禪師

問。德山入門便棒。萬古宗風。臨濟入門便喝。古今榜樣。去此二途。請師拈掇。

師云。我總不與麼。

僧曰。一言啟口。別是家風。

師云。賴遇拄杖不在手。

問。有問有答。善巧分張。向上宗乘。請師別道。

師云。闍梨問得最親。

僧曰。學人會也。

師云。會箇什麼。僧舉起坐具。

師云。畢竟作麼生。僧便喝。

師云。作家。僧禮拜。師便喝。

師云。如來秘旨。豈涉辭鋒。祖師心印。徒勞穿鑿。若舉宗乘一字。海水逆流。須彌倒卓。若說佛說祖。三界平沉。四生何有。若向下商量。枯木生花。寒灰發燄。然雖如是。若向衲僧門下。白雲千里萬里。且道衲僧有什麼長處。良久。云。更有一般堪羨處。長連牀上帶刀眠。

南岳福嚴保宗禪師法嗣

衡州花藥山崇勝義然禪師

問。臨濟血脉。請師直道。
師云。虛空裏揚眉。默地裏點頭。
僧曰。莫祇遮便是。
師云。是即是。作麼生會。僧却點頭。
師云。遮賊好喫棒。
僧連聲道。賊。賊。歸眾。
師云。三十棒也較不得。
上堂云。心心心。青山綠水深。若人識得遮山水。相對事法總平沉。是爾諸人總識得。為什麼七十二峯儼然依舊。試為說看。若說不出。大似不曾行脚。參。

南嶽承天智昱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髮長僧貌醜。
僧曰。意旨如何。
師云。腦門後合掌。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石廩峰高。
僧曰。意旨如何。
師云。遊人罕到。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紙帳禪林。
僧曰。客來如何祇待。
師云。山中石耳。
師於元豐八年四月內沐浴淨髮。趺坐而逝。茶毗。齒舌眼睛不壞。

東京十方淨因道臻淨照禪師法嗣

福州長慶寺慧暹文慧禪師

問。離上生之寶剎。登延聖之道場。如何是不動尊。
師云。孤舟載明月。
僧曰。忽遇艫棹俱停又作麼生。

師云。漁人偏愛宿蘆花。
問。長期進道。西天以臘人為驗。未審此間以何為驗。
師云。鐵彈子。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大底大。小底小。
問。德山臨濟即不問。傳衣付法事如何。
師云。爾向什麼處見德山臨濟。僧便喝。
師云。還曾夢見也未。僧拊掌入眾。
師云。果然。果然。
師云。坐斷要津時。見處黑如漆。放開一線道。處處見彌勒。而今放則放了也。且道彌勒在什麼處。眾中還有見得者麼。便請出來。對眾道看。良久云。有麼。有麼。善財不知何處去。樓閣門開獨往還。喝云。各請歸堂。

福州棲勝繼超禪師

上堂。拈拄杖。良久。云。三世諸佛盡在遮裏[跳-兆+孛]跳。大眾還會麼。過去諸佛說了。未來諸佛未說。現在諸佛今說。敢問諸人。作麼生是說底事。卓一下。云。蘇嚧。蘇嚧。

鄧州香巖山慧照禪師洞敷

本福州人。生於范氏。幼而氣韻清敏。長慕空宗。依東京景惠寺圓明大師為師。試經落髮。愛具後。遍參江淮叢席。迨見淨因淨照臻禪師。一言頓契。如箭鋒直。加以學談今古。名動京師。遂膺朝旨。住鄧之香巖幾十載。次旋故里。受請龜山·壽山·神光。凡更三剎。皆閩中上游。厥後又未可量也。
師初開堂日。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海底泥牛吼。雲中木馬嘶。
僧曰。學人未曉。乞師再指。
師云。一聲聲徹九重天。
問。朝命既臨於此日。師將何法報君恩。
師云。皇天無親。唯德是輔。
僧曰。如何是德。
師云。一人歌有道。萬姓樂無私。
問。祖意與教意。是同是別。
師云。鳳闕摩空。汴河瀉碧。

師復云。西乾四七。道絕語言。東土二三。法無文字。唯傳一印。直指人心。心了則天地全該。印定則絲毫不漏。塵塵絕待。法法融虛。方乃契聖根源。始曰入佛知見。如斯薦得。落二落三。本色衲僧如何話會。還道得麼。箇中消息若為傳。鳳闕龍樓峭倚天。要會覺城東際事。寥寥千古尚依然。

僧問。遠辭香嚴丈室。近屆龜山道場。如何是不動尊。

師云。千手大悲提不起。

僧曰。如何是動尊。

師云。玉殿曾遊歷。金門屢往還。

問。如何是龜山境。

師云。千峰來有路。八極淨無塵。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有時開眼有時合。

問。如何是佛法的大意。

師云。山寒露骨。水淺見沙。

師云。窮經窮論。正如入海算沙。覓法覓心。大似捫空求響。故我佛出世。為一大事因緣。洎諸祖傳衣。亦乃廣開方便。發揮教外之正法。指示涅槃之妙心。作筏度人。應病與藥。故善說法者。說無所說。而善傳心者。傳無所傳。縱饒一棒一條痕。一搥一手血。未見拖泥帶水。豈能點瓦成金。大眾。祇如今日為國開堂。還有奇特底事也無。良久。云。疊疊青山與流水。舊時顏色舊時聲。

上堂云。春無三日晴。風雨時時作。巖下見蟠桃。自開還自落。翻憶靈雲得處親。迄今底事何蕭索。非蕭索。春山春水四寥廓。鷓鴣啼處百花香。好薦聲前這一著。咄。

上堂云。炎風雨地。畏日流空。奇雲當戶任長舒。白藕飄香來不斷。林間達士。了無寒暑之變遷。塵裏游人。但見光陰之迅速。直得燈籠合掌。露柱攢眉。一年又將半。幾箇知音知。知不知。路上行人口是碑。

西京少林禪院元訓禪師

問。囊錘已露。至寶難藏。海眾臨筵。請師一接。

師云。嵯峨疊萬仞。

僧曰。學人不會。

師云。水出鳳嶺關。

問。達磨西來。為接群迷。和尚出世。當為何事。

師云。祇有照壁月。

僧曰。學人便恁麼時如何。

師云。更無更吹葉風。

上堂云。隨機設教。應病與藥。百千妙門。不離方寸。有病無病。病瘥即除。州南州北月團圓。廣教一眾都無分。咄。趙州石橋。思量好笑。近來學得筭子法。兩箇九百是千八。以拂子擊禪牀一下。

廬州興化院仁岳禪師法嗣

潭州智度山定林景芳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初出紅爐金彈子。

僧曰。還許學人接也無。

師云。筵破闍梨鐵面皮。

問。七十二峰即不問。如何是法輪境。

師云。[山/句]婁峰尖神禹碑。

僧曰。還許學人識也。無。

師云。石青字赤形模奇。

僧曰。今日得過去也。

師云。吏部當時尚莫窺。

僧曰。端的在什麼處。

師云。何時得汝不狐疑。

潭州興化紹清禪師

問。不觸波瀾。如何趣向。

師云。得宜須舉棹。莫待打頭風。

僧曰。猶是湛水之波。忽遇拏雲騰霧又且如何。

師云。道泰不傳天子令。

師云。問來答去。祇益繁詞。於道則遠之遠矣。祖令既行。要津坐斷。十方諸佛。瓦解冰消。三藏教乘。掃土而盡。到遮裡。誰敢正眼覷著。所以釋迦有竭世之樞機。尚掩室於摩竭。淨名騁窮天之詞辯。猶杜口於毗耶。豈況小根小智者哉。何也。龍象蹴踏。非驢騾所堪。

上堂云。祖師門下。佛法不存。善法堂前。仁義休說。然雖如是。事無一向。竊聞哀哀父母。生我劬勞。欲報深恩。昊天罔極。髮膚身體。弗敢毀傷。此曾仲尼之孝也。輪轉三界中。恩愛不能脫。棄恩入無為。真實報恩者。故我大覺世尊。雪山苦行。摩竭成道。往忉利天為母說法。此釋迦之孝也。得大解脫。運大神通。手擎金

錫。掌托龍盂詣地獄門。卓然尋省。見其慈母。悲泣無量。此日連之孝也。作麼生是興化之孝。良久。云。興化今日不上天堂。不入地獄。於善法堂中登王座上。為母說法。以答劬勞。且道我母祇今在什麼處。

乃云。我母生前足善緣。無勞問佛定生天。人間上壽古今少。九十春秋減一年。下座敢煩大眾燒一炷香。以助山僧報孝。既是山僧之母。為什麼却煩諸人燒香。不見道。東家人死。西家助哀。以手槌胸云。蒼天。蒼天。

汝州首山乾明處珪禪師

問。如何是首山境。

師云。白雲片片時來往。汝水潺潺流向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寒山逢拾得。拍手笑呵呵。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虛空藏鳥迹。風過樹頭鳴。

僧曰。便是為人處也。

師云。曹溪水急。

荊門軍玉泉調芳禪師法嗣

安州延福禪院智興禪師

西川人。出家受具。後即造玉泉芳禪師法席。豁然大悟。初住漸源。次遷黃梅龍華。晚住延福。師語不談玄。行不修潔。身不稟儀。眾不喜見。逝後應報有徵。緇素追仰。遺體塑飾。祈禱尤盛。

臨江軍惠力善周禪師

上堂云。遼天鷗。萬重雲。祇一突。是什麼。咄。

師於元祐元年十二月望日沐浴淨髮。說偈云。

山僧住瑞筠。未嘗形言句。

七十三年來。七十三年去。

言畢。趺坐而逝。三日後。鬢髮再生。

韶州六祖南華重辨禪師

問。祖意西來即不問。最初一句請師宣。
師云。龍啣黑寶離滄海。鶴側霜領下玉堦。
僧曰。一輪明月照。四海盡分明。
師云。夜半拆開無縫塔。天明智積抱頭回。
師云。會麼。五大未明。二儀無跡。威音王覩不見。大悲手摸無蹤。且道為復神通妙用。為復法爾如然。於斯明得。便乃高步毗盧頂上。坐斷報化佛頭。於斯未明。祇知事逐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咦。

福州聖泉寺紹登禪師

本郡古田縣臨水人也。俗姓陳。母李氏。一夕。夢神僧入奧。授以明珠。覺而有娠。降誕之辰。異香滿室。紫帽覆首。幼不葷茹。乃七歲。資性英敏。自厭塵坌。喜觀佛事。好聽佛書。十歲辭親出家。往禮潭州開福寺璠長老為師。精通法華。試經應度。受具之後。瓶錫遊方。造于調芳禪師法席。一見。針水相投。筌蹄頓忘。水月孤瑩。遂還鄉。晦迹林泉。郡牧丁公嚮師道德。請住陀嶺塔院。緇素皈敬。

忽一日。索浴更衣。鳴鼓昇座。四方檀信。湊集如市。師迺舉頌云。

吾年五十三。去住本無貪。

臨行事若何。不用口喃喃。

冥目兩宵。儼然如示寂。偶聞鐘聲。忽然而醒。四大輕安。續後舍利。身常頻現。

元豐中。本郡大旱。府主孫公嚮師道德。請而祈雨。次日甘澤大霽。孫公欽仰。遷住文殊。前後郡邑亢旱。府主許公。察院王公。左司葉公累請祈雨。有應。察院王公遷住聖泉。師住三道場。隨剎革故而新矣。

上堂。僧問。如何是聖泉境。

師云。目前無異草。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往來無罣礙。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驢事未去。馬事到來。

師復云。般若門中。縱說百千妙義。不增一毫。直饒結舌銚鋒。豈減少分。若論玄中又玄。終非妙門。鳥道魚蹤。早傷途轍。何也。蓋為出此入彼。去者不至其方。來者不到其所。舉一明三。莫窮幽

趣。更不用續鳧截鶴。夷岳盈壑。霄壤相望。去道轉遠。正當與麼時。衲僧門下作麼生商量。良久。云。昨夜三更月到窓。參。

南岳雙峯省回禪師法嗣

金州靈山彥文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缺齒胡僧笑不言。
僧曰。學人不會。
師云。隻履返西天。
問。如何是佛。
師云。問得最親。
上堂云。山青青。水綠綠。風吹南嶺雲。露滴東籬菊。更添松竹歲寒聲。盡是無絃琴上曲。琴上曲。碧眼胡僧拍不足。拍不足。一二三四五六。咦。拍一拍。下座。

闍州光國文贊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禍不單行。
問。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猊座既登。師如何說。
師云。因風吹火。用力不多。
僧曰。恁麼則佛佛道同。
師云。貓兒戴紙帽。
問。不二之法。請師速道。
師云。領。
僧曰。恁麼則人人有分也。
師云。了。
僧曰。錦屏天下少。光國世間稀。
師云。退。

杭州鹽官菩提用禪師法嗣

杭州臨安淨土善思禪師

上堂云。咄。咄。咄。臨濟德山盡該抹。棒頭薦得不作家。喝下承當未奇絕。野僧宗旨不恁麼。覲面相呈辨賢哲。聲前一句早遲疑。

語後持來底時節。勸禪人。休饒舌。神龍尚自不知源。豈況盲龜敵跛鼈。不看神光傳祖位。纔見老胡心便歇。真妙訣。堂堂自己可憐生。直下承當第二月。大丈夫。須勦絕。見成公案早多端。莫學癡人被摩捋。傷嗟末法有多途。邪黨成群安可遏。初機入門并道眼。佛手生緣徒施設。禪流學得遍狂遊。問著元來打不迭。古人開口便知音。尚言弄巧翻成拙。那堪看話得心通。正是虛空裏釘橛。自慚道薄整頽綱。飲氣吞聲共誰說。特將鄙句報同風。本分禪人能辨別。大地山河盡放光。南無觀世音菩薩。

蘇州定惠超信海印禪師法嗣

杭州南陽山慶善智圓禪師

問。如何是玄中玄。
師云。兩箇圈攣一串穿。
僧曰。如何是妙中妙。
師云。鷹生三子一名鷄。
僧曰。如何是要中要。
師云。寒山逢拾得。拊掌呵呵笑。
僧曰。謝師答話。
師云。今日失利。

荊門軍玉泉悟空禪師法嗣

江陵護國齊月禪師

問。壁立千仞。水泄不通。還許學人請益也無。
師云。汝待問什麼。
僧曰。向上事。
師云。維那不在。
僧曰。觸忤和尚。
師云。正令已行。
上堂云。窮外無方。究內非裏。應用萬般。無可比擬。分明向汝諸人道。佛性精魂總不是。

洪州泐潭寶峯曉月禪師法嗣

洪州上藍居晉禪師

上堂。有二僧出禮拜。一僧拜起。問。奪人不奪境。即今事如何。
師云。金燈當面照。須在敏手者。
僧曰。不因一事。不長一智。
師云。君子三思。再斯可矣。一僧禮拜了。便歸眾。
師云。是則也大奇。

汾州太子院同廣禪師法嗣

西京龍門山勝善清照禪師

問。變凡作聖即不問。點鐵成金事若何。
師云。直下無私處。觸目盡光輝。
僧曰。清光生掌上。喜氣發眉間。
師云。既能知此理。何用苦切切。
問。天高地厚。萬物皆從。未審和尚從與不從。
師云。春來爛熳。
僧曰。金鷄迴立。兔走長空。
師云。同道方知。
僧曰。學人今日承恩。
師云。且莫錯認。

襄州谷隱山德遵禪師法嗣

新州龍山國恩景淨禪師

問。臥龍山上千花秀。師子巖前萬里燈時如何。
師云。靈鷲昔年親得旨。臥龍今日遇知音。
僧曰。四百餘年選佛場。金毛師子又當揚。
師云。不妨道著。
僧曰。一炷清香資大國。優鉢羅花物外春。
師云。雪堦立久心無倦。籌室內茲道轉光。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黃蘗山中心未惺。大愚肋下築三拳。
僧曰。與麼則臨濟重興。
師云。也須子細。
師云。新開爐冶世應知。烹鍊身心絕是非。幸有法財堪取採。禪人到此莫空歸。直是敲空作響。扣寂知音。知其妙理。何勞作十地之因。悟此玄門。不假證三身之果。超聖要路。成佛頓門。總慈悲

心。攝顛倒想。如斯話會。正落教乘。且道教外別傳一句又作麼
生。良久。云。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筠州武泉政禪師法嗣

杭州慶善震禪師

師於熙寧五年八月十一日集眾云。我佛世尊。示化將終。有正法眼
藏。涅槃妙心。付摩訶迦葉。自茲祖祖相傳。分枝列派。至于今
日。吾今世緣將謝。聽吾偈曰。諸法本無生。皆隨信心起。千聖密
相傳。展轉無終始。
言畢。趺坐而逝。壽八十七。茶毗。収舍利。舌根不壞。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四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東京惠林宗本圓照禪師法嗣

東京法雲寺大通禪師

諱善本。姓董氏。潁州人也。白衣素行。清修勵節。聽習大經。頓入妙義。遂依東京顯聖寺輯上人山家。試經披荆。尋慕祖風。造蘇州瑞光寺圓照禪師法席。照預感夢。見即器之。入室扣發。豁然契悟。道如夙蘊。性若天資。徧歷江淮。益廣宗趣。

初住務州雙林。次遷杭州淨慈。奉 詔旨住東京法雲。越國大長公主奏賜大通禪號。三住大刹。眾盈七百。道化廣洽。緇素蟻慕。今退老於杭州南山。

開堂日。哲宗皇帝遣中使降香。并賜磨衲袈裟。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 聖壽罷。乃敷坐。慧林覺海禪師白槌竟。師良久云。還觀得麼。適來白槌告報。已是周遮。更若論量。千里萬里。雖然如是。不可徒然。今日大施門開。有疑請問。

問。寶香天降。瑞氣凝空。睿旨既臨。法輪當轉。

師云。分明記取。

僧曰。金色頭陀笑更新。萬古山河共晴日。

師云。謝汝證據。

僧曰。四海晏清時雨足。何妨野老賀昇平。

師云。不用忉忉。

問。鷲峯九會。大轉法輪。為 國開堂。願聞舉唱。

師云。滿庭嘉氣合。市地覺花開。

僧曰。若然者。爐爇寶香凝瑞刹。祝延 睿筭等南山。

師云。百千年後與人看。

僧曰。國清民肅歸 皇化。佛道昭隆繼我師。

師云。却信得及。

問。名傳清禁。恩降九重。磨衲既披。將何報答。

師云。天高不可極。

僧曰。帝網重重無間斷。交光全布目前機。

師云。地厚載無窮。

師云。達磨西來。傳最上乘。言中便薦。不假思惟。句下該明。頓超情識。得之則頭頭有據。昧之則句句成非。大用現前。風行草偃。所以上根之士。目擊知機。中下之流。卒難構及。軒皇鑑內。不立纖塵。迦葉峯前。徒煩指注。放行則風清萬字。月印千溪。剎剎塵塵。輝騰無盡。把定則二乘罔措。三藏絕詮。獨脫無私。超然世表。如斯理論。猶涉言詮。苟能一念回光。始信不從人得。恭惟國家承平既遠。美化方隆。普率群機。大興三教。所以甚深般若。久住於斯。金口誠言。故不誣矣。即將開堂少善。上福皇基。所冀玉葉金枝。共協無為大化。珍重。

問。寶塔元無縫。如何指示人。

師云。煙霞生背面。星月繞簷楹。

僧曰。如何是塔中人。

師云。竟日不干清世事。長年占斷白雲鄉。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太無厭生。

問。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未審如何是道。

師云。膏雨未抽新歲筍。和風先拆舊時花。

僧曰。學人恁麼會時如何。

師云。也須子細。

問。若論此事。譬如兩家看碁。學人上來。請師一著。

師云。早見輸了也。

僧曰。錯。

師云。是。

僧曰。進前無路也。

師卓柱杖一下。云。爭柰遮箇何。

僧曰。祇如黑白未分時又作麼生。

師云。且饒一著。

問。如何是空手把鋤頭。

師云。霜風飄巨野。

僧曰。如何是步行騎水牛。

師云。凍木鎖寒雲。僧便喝。

師云。蝦蟆叫。

問。涅槃心易曉。差別智難論。如何是差別智。

師云。燈籠吞露柱。

僧曰。學人未委。

師云。佛殿出三門。

問。如何是末後句。

師云。適來却道得。
僧曰。即今事如何。
師云。問取露柱好。
問。法王法令。請師速道。師便喝。
僧曰。莫便是否。
師云。瓦解冰消。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爾行脚來圖箇什麼。
僧曰。學人不會。
師云。且待驢年。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雲收三島淨。
僧曰。來後如何。
師云。雨過百花鮮。
僧曰。來與未來相去幾何。
師云。掉穿輕靄去。帆逐暮煙歸。
問。百尺竿頭。如何進步。
師云。嶮。
僧曰。便恁麼去又作麼生。
師云。百雜碎。
問。三乘秘藏人皆委。祖意西來事若何。
師云。金錫不搖葱嶠月。蘭舟獨泛海門風。
僧曰。既欲拯物導迷。為什麼九年冷坐。
師云。守株延歲月。千古累兒孫。
問。把定乾坤眼。綿綿不漏絲毫。未審此理如何。
師云。舌根裏藏身。
僧曰。謝師指示。
師云。也好露箇消息。
僧曰。無人知此意。令我憶南泉。
師云。幾合放過。
問。如何是道。
師云。進前三步。
僧曰。恁麼則分明在目前。
師云。莫教落井。
問。如何是般若體。
師云。合。
僧曰。如何是般若用。
師云。有問有答。

上堂。顧左右云。洪機未剖。觸處彌綸。朕兆纔生。翻成特地。若據祖宗正令。豈有多途。直下無私。輝騰今古。若也心光未透。見惑仍存。縱饒辯瀉懸河。辭同炙輶。句句風馳電卷。言言玉轉珠回。到此門中。皆為戲論。何也。且聲前一路。已涉塵蹤。句後千差。復成何事。是以少林九年冷坐。始遇知音。欲得萬古流芳。真風不墮。今日人天而坐盡是知音。且道什麼處是不墜處。若也道得。便乃親見碧眼胡僧。如或落辭。不免為蛇畫足。良久。云。瓊林凝瑞氣。寶剎鎖飛煙。

上堂云。上士聽法以神聽。中士聽法以心聽。下士聽法以耳聽。且道更有一人來。將什麼聽。乃拈拄杖。卓禪牀一下。云。高也著。低也著。落落圓音徧寥廓。十方內外更無他。不用無繩而自縛。上堂云。案山說法主山聽。主山說法案山聽。案山主山一時說。且道教什麼聽。諸人若也善聽。三世諸佛所說妙法皆悉現前。還有麼。鐵鎚無孔猶閑事。笑殺毗耶老古錐。

上堂云。納僧見處。逆順難該。翛然獨往。應物還來。或高栖於世表。或抗迹於塵埃。把定。則冰生水面。放行也。錦上花開。盧老不知何處去。白雲影裏笑哈哈。喝一喝。下座。

上堂云。花心未放。柳眼初開。鴈回嗚咽之聲。水瀉潺湲之響。森羅舉唱。法爾常規。更言縛脫同源。大似龍頭蛇尾。

上堂。良久。云。會麼。祖佛妙旨。祇在目前。慧日峰前。雲生足下。澄湖浪闊。迴接遙天。晚唱漁舟。夜泛蒹葭之月。歡遊畫舫。時聞絲竹之音。更說聞聲悟道。見色明心。大似拋却甜桃樹。尋山摘醋梨。

潤州金山龍游寺法印禪師

諱善寧。江州人也。甘露院受業。挈囊遊方。徧參祖室。志氣高邁。性行耿介。至圓照法席。師資機感。緣如夙契。勩力贊弼。以揚法化。出世萬壽。規制嚴肅。躬己力行。眾無不稟。百丈禪式。近世遵承。在師振領。

問。天皇也恁麼道。龍潭也恁麼道。未審和尚作麼生道。

師云。手握白玉鞭。驪珠盡擊碎。

僧曰。退身有分。

師云。知過必改。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稱尾無星。

僧曰。未審此意如何。

師云。斗方有底。

問。如何是佛。
師云。眉如初月。眼似流星。
僧曰。如何是法。
師云。義列交羅。星分大野。
僧曰。如何是僧。
師云。古貌稜層。丈夫意氣。
問。竿木隨身。逢場作戲。今朝選佛場開。請師方便。
師云。文不加點。
僧曰。可謂今古罕聞。
師云。且道是什麼題目。僧擬議。師便打。
上堂。顧視左右云。古人道。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談論。在身覺觸。在意攀緣。雖然如是。祇見錐頭利。不見鑿頭方。若是萬壽即不然。有眼覷不見。有耳聽不聞。有鼻不知香。有舌不談論。有身不覺觸。有意絕攀緣。一念相應。六根解脫。敢問諸禪德。且道與前來是同是別。莫有具眼底衲僧出來通箇消息。若無。復為諸人重重注破。放開則私通車馬。捏聚則毫末不存。若是飽戰作家。一任是非貶剝。
上堂云。撮玄機於掌上。挂古鑑於臺前。有何妖孽。誰敢當禦。可謂昭昭法界。自佗而境智全收。歷歷真源。彼此而聖凡俱寂。以此而推。僧堂佛殿。對現色身。厨庫三門。共揚斯事。但請拗折拄杖。向目前參取。
上堂云。若也談禪說道。便見有生有滅。更乃舉揚今古。大似不觀時節。昨夜風雨蕭蕭。今朝頓除煩熱。到此善能參詳。達磨迷時不別。
上堂云。盡大地未嘗有一人真正舉揚宗教。若有一人舉揚宗教。盡大地人並須銚鋒結舌。莫是教諸人杜絕見聞。契合斯道也無。如此見解。譬如聚火燒須彌山。經塵沙劫終不能著。殊不知古聖垂示。祇要後人眼正。達者實謂。今古罕聞。光前絕後。放行。言言見諦。句句明宗。収來。眼眼從方。明明側立。向什麼處見古人。良久。云。須知海岳皈明主。未信乾坤別有天。

潤州甘露寺傳祖禪師

諱仲宣。姑蘇謝氏子也。幼歲辭親。投師受具。深稟律儀。聽習經要。風姿肅雅。容止異常。參圓照禪師。發明祖意。
問。佛放眉間光。現諸希有事。如何是希有事。
師云。和風[颭-台+弗][颭-台+弗]。春日遲遲。
僧曰。學人便恁麼會時如何。

師云。日月易流。
僧曰。一言當宇宙。千古播清聲。
師云。來年更有新條在。
問。設華王座。談不二門。大眾側聆。願垂指示。
師云。青山遙對日。
僧曰。學人未曉。
師云。芳草綠如茵。
僧曰。一句無私。應之萬里。
師云。作麼生是無私句。
僧曰。堪對暮雲歸未合。遠山無限碧層層。
師云。猶較些子。
問。不涉廉纖。請師指示。
師云。一字不著畫。
上堂云。建立宗乘。群魔屏迹。播揚大事。三藏忘言。況阿逸多未離兜率。黃面老已滅拘尸。大唐國裡無禪師。天下衲僧味糟粕。眾中莫有英靈衲子。變豹作家。出來掀倒禪床。喝散大眾。豈不快哉。良久。云。瑞獸藏頭角。珍禽惜羽翰。
上堂云。雨過山青。雲橫水碧。寶陀巖上。瑞草將敷。王舍城中。幽花欲綻。空生宴坐。帝釋奔馳。彼此一時。今古易異。良久。云。萬般施設不如常。
上堂云。住。住。百千妙門。同歸一路。青山常在。知識難逢。爭如識取主人公。高聲召云。主人公。復云。今日自買自賣。
上堂。顧視云。楊子江心。無風起浪。石公山畔。平地骨堆。會得左右逢原。爭似寂然不動。良久。云。堪笑寒山忘却歸。十年不識來時道。

福州太平禪師守恩禪師

本州福清人也。姓丘氏。受圓照禪師心印。初出世住地藏。提刑程公遵彥嚮師道風。移住龜山。師堅辭不受。復請主太平禪剎。師乃隨緣赴感。大振宗乘。學者摳衣。常滿數百餘人。由是四方歸仰。德望益隆。凡兩處住持。皆重建寺宇一新。其功績不可勝紀。
問。庵內人為什麼不見庵外事。
師云。却許闍梨具眼。
僧曰。久嚮和尚。
師云。暗中捋繩。誰辨曲直。
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
師云。三日一風。五日一雨。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月明三島靜。樵子大平歌。
師乃豎起拳。復開云。或時為拳。或時為掌。若遇衲僧。有功者賞。遂放下云。直是土曠人稀。相逢者少。
上堂云。雨後鳩鳴。山前麥熟。何處牧童兒。騎牛笑相逐。更把短笛橫吹。風前一曲兩曲。參。
上堂云。山僧今日略通一線。不用狐疑。麥中有麩。
上堂云。青青翠竹搖風。當檻一聲幽鳥。敢問明眼諸禪人。祖師鼻孔重多少。
上堂云。雲岩弄師子。普化打筋斗。叢林將為向上關。未免笑破衲僧口。休。休。沒來由。却是象骨古錐能輓毬。
上堂云。衲僧現前三昧。釋迦老子不會。住世四十九年。說得天花亂墜。爭似飢飡渴飲。展脚堂中打睡。
上堂。拈拄杖。擊禪床一下云。有智若聞則能信解。無智疑悔則為永失。三十年後。不得道山僧今日上堂祇念法華經。參。
問。如何是古佛心。
師云。鶯啼處處同。
僧曰。學人不會。
師云。牛羊自傍山。
問。如何是沙門行。
師云。多虛少實。
僧曰。和尚何得謾人。
師云。實無諱處。
問。如何是本來人。
師云。皮枯骨瘦。
僧曰。中下之機如何體悉。
師云。豎臥橫眠。
僧曰。古佛今佛皆無別理。
師云。更夢見什麼。
師乃云。諸人知處。山僧盡知。山僧知處。諸人不知。今日不免布施諸人。良久。云。頭上是天。脚下是地。參。

衢州靈耀寺佛慈禪師

諱辯良。姓吳氏。饒州人也。幼習儒學。就試輦下。將戰文圍。乃厭塵紛。即依景德寺無惑大師出家。圓具遊方。參圓照禪師。發明心地。乃述投機頌曰。
祇遮一箇。文殊罔測。

眨起眉毛。百千萬億。
即蒙印可。清猷少保趙公拊重師道行。請為宗師。住越州福果。衢
州超化。海會。靈耀四剎。
問。三變禪林。四回出世。於和尚分上成得什麼邊事。
師云。鉢盂口向天。
僧曰。三十年來關楨子。而今流落五湖傳。
師云。那箇是山僧關楨子。
僧曰。一言超影象。不墜古人風。
師云。惜取眉毛。
問。靈山一會。分付飲光。今日法筵。當為何事。
師云。畫地為牢。
僧曰。直得學人進退無門。
師云。軒鑑分輝。
僧曰。百千年後。如何舉得。
師云。拔山力盡。
問。不施寸刃。建立太平時如何。
師云。皇天無親。
僧曰。一人有慶也。
師云。知恩報恩。僧展兩手。師拍膝一下。
問。如何是衢州境。
師云。桑榆影占柯山野。絃管聲調激水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謝安無箇事。聊起為蒼生。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急著眼。
僧曰。截斷眾流也。
師云。山疊不知重。
上堂云。大眾。知則同知。見則同見。毫釐絲髮。不相謾昧。且道
不謾昧箇什麼。乃以拄杖指云。風柯月渚。並傳本心。煙島雲林。
皆提妙印。然雖如是。也似鏡盤上痕生。且道陽鳥未啼一句作麼
生。良久。云。好攜紫煙策。共倚南山暉。
上堂。師卓拄杖云。鷺池鷺嶺。海甸菴園。三百餘會。也無遮消
息。放過一著。與諸人共遊華藏。復指云。看看。陌上桃花。朵朵
現彌陀實相。庭前翠竹。枝枝為甘露法門。菩提樹林。寶陀境界。
一時頓現。山僧今日撒沙向諸人眼裏。且道迦葉門下事作麼生。良
久。云。若不得流水。還應過別山。
上堂云。不知時分之延促。不知日月之大小。灰頭土面。且與麼
過。山僧每遇月朔。特地鬪釘家風。抑揚答問。一場笑具。雖然如

是。因風撒土。借水獻花。有箇葛藤路布與諸人共相解摘看。驀拈拄杖。擊香臺一下。云。參堂去。

台州瑞巖有居禪師

上堂云。採得葛藤成路布。縱橫十字上高機。通身是眼無人識。唯有山僧識得伊。良久。云。今日呈似大眾。且道何似趙州底。還相委悉麼。袖頭打領。

明州天童山景德寺可齊禪師

姓應氏。台州人也。依天台國清寺道才上人出家圓具。初遊講肆。晚造瑞光圓照禪師法席。即獲開悟。請住安樂山。晚遷天童。

問。寶花王座。今日師登。祖意西來。如何垂示。

師云。花開巖畔千枝秀。

僧曰。便是和尚為人處也。

師云。水瀉簷前一樣清。

僧曰。空生不解巖中坐。惹得天花動地來。

師云。笑破佗人口。

僧曰。晚來雲散後。不見別山高。

師云。咩。咩。

問。如何是道。

師云。蹈不著。

僧曰。蹈著後如。

師云。七穿八穴。

師云。一問一答。一拶一捺。千眼頓開。澄潭皎月。隨機施設。縱奪臨時。縱之。則句句攢花簇錦。處處釋迦道場。奪之。則一法不留。千聖絕迹。雖然如是。須知有向上一竅。還會麼。良久。云。莫謂春殘花落盡。峯前昨夜一枝開。

秀州資聖崇信禪師

廬州慎縣人。姓高氏。十三依本州承天用成上人為師。二十受具。策錫南遊。造杭州淨慈圓照禪師法席。投機印證。

問。如何是道。

師云。家家門底通長安。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上座自何來。

僧曰。莫祇遮箇便是也無。

師云。碧眼胡僧笑點頭。

僧曰。畢竟如何。

師云。禮拜了退。

上堂云。淒清大野。物景蕭條。露滴枯枝。煙籠遠墅。長天極目。列萬象以昭然。霜月流輝。映千江而普現。如斯舉唱。帶水拖泥。若也盡令提綱。直須祖佛側立。放過一著。別有清規。咄。

蘇州瑞光守琮真覺禪師

姓顧氏。本州人也。依圓照禪師削染。復悟宗猷。乃獲印可。出世闡揚。為眾所仰。

問。作是思惟。十方佛現。今思惟了。佛在甚麼處。

師云。當風一句。起自何來。

僧曰。恁麼則頭頭撞著彌勒。步步蹈著釋迦。

師云。西天與此土不同。

上堂云。宗門妙訣。豈在多說。一言括盡。便須頓歇。明眼衲僧祇自知。金色頭陀善分別。冬去春來夏有熱。若遇寒山拾得時。傳語豐干莫饒舌。

蘇州萬壽普勲禪師

姓施氏。婺州人也。依本州開元寺岳上人出家圓具。首習教觀。深造淵微。晚至圓照法席。投機印可。

問。為 國開堂。願聞舉唱。

師云。爐爇寶香凝瑞剎。祝延 睿筭等南山。

僧曰。祇如滿筵嘉氣合。徧地覺花開又作麼生。

師云。好音在耳人皆委。

僧曰。恁麼則有意氣時添意氣。

師云。放過一著。

問。學人上來。請師說法。

師云。清風滿座。

僧曰。高峯日月充寰宇。大振洪音唱祖歌。

師云。脚跟下看。

僧曰。門前流水朝滄海。檻外孤峯走太虛。

師云。兩重公案。

僧曰。觸目對揚真般若。山河重顯法王機。

師云。莫妨別人問上堂云。物外無堪老便休。乾城夢質兩悠悠。如何幻事臨相逼。却使閑身不自由。然則出家之士。利物為初。稟先祖之洪規。續惠燈於千古。唯一心法。號總持門。得之者。不歷階梯。頓齊諸聖。失之者。塵劫不復。徒自勞形。或得失兩忘。凡聖情盡。正當恁麼時。不是心。不是佛。不是物。敢問諸禪德。且道畢竟是箇什麼。若向遮裏個儻分明。便能獨步大方。橫身三界。握金剛寶劍。破生死魔軍。良久。云。筭。

宣州水西山軻禪師

問。我手佛手。是同是別。

師云。人人有分。

僧曰。任有千般巧。終無兩樣風。

師云。且莫錯認。

問。真金須假爐中試。一鎚便成時如何。

師云。切忌道著。僧便喝。

師云。遮漆桶。

上堂云。憶得靈山會上末後句。今日舉似諸人。良久。云。會麼。任是飲光出來。有理也無伸處。參。

上堂云。雷聲遠震。廣布慈雲。甘澤纔晴。普天春色。柳開青眼。花吐芳容。鳥噪幽林。魚遊水面。更說迷逢達磨。大似剜肉作瘡。若言法本如斯。正是天然外道。恁麼說話。傍若無人。明眼衲僧。一任檢點。參。

明州香山智度院正覺延泳禪師

問。祖意西來即不問。和尚家風事若何。

師云。眼深鼻大。

僧曰。學人便恁麼履踐時如何。

師云。手長袖短。

師云。心隨境現。境逐心生。心境兩忘。是箇什麼。拈起拄杖云。且道遮箇甚處得來。若道是拄杖。瞎却汝眼。若道不是拄杖。眼在什麼處。是與不是。一時拈却。且騎拄杖出三門去也。

明州雪竇山資聖寺法藏禪師

諱守卓。姓李氏。姑蘇人也。依圓照禪師出家。入室投機。遂蒙印可。宗猷博達。道譽遠聞。

問。如何是賓中主。
師云。進前無路。
僧曰。如何是主中賓。
師云。退不容身。
僧曰。如何是賓中賓師云。對面是何人。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有理無說處。
僧曰。賓主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仰面貪看鳥。回頭錯應人。
師云。好大眾。龍種上尊王佛為諸人現銀色世界。瓊林玉宇。剎剎交光。寶殿銀城。輝輝相映。又色即是空。空即是色。色空空色休擬議。空色色空成智慧。耳聞眼見徧河沙。盡是如來真實地。不得已向諸人道。生是苦。受是業。滅可證。道可修。以四諦十二因緣知苦斷集。證滅修道。
復云。有生可知。有業可斷。有滅可證。有道可修。皆是謗佛謗法。盡同魔說。正當恁麼時。且作麼生會。雪竇不免與諸人說破。千峯積寒雪。萬徑人跡絕。壞衲擁枯槎。是說如何說。參。
上堂云。陽回幾次到新冬。衲壞爐寒世不同。白日靜馳天外影。紅顏偷送耳邊風。是非未起名何在。物我兼忘景自空。記取雪巖巖上語。莫教孤負主人公。咄。

明州啟霞山崇梵院慧章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爾問我。
僧曰。如何是法。
師云。我答爾。
僧曰。如何是僧。
師云。方袍圓頂。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且待別時。
僧曰。即今便請。
師云。蹉過也。

壽州資壽院圓澄巖禪師

問。大藏教中還有奇特事也無。
師云。祇恐汝不信。

僧曰。如何即是。

師云。黑底是墨。黃底是紙。

僧曰。謝答話。

師云。領取鈎頭意。莫認定盤星。

師乃云。雲生谷口。月滿長川。樵父斫深園。漁翁釣沙島。到遮裏。便是吳道子。張僧繇。無爾下手處。良久。云。歸堂問取聖僧。參。

上堂云。乾坤肅靜。海晏河清。風不鳴條。雨不破塊。春生夏長。秋收冬藏。遮箇是世間法。作麼生是佛法。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珍重。

上堂。良久。云。宗乘妙訣。即今為說。山高水深。寒風凜冽。祖師西來。道箇休歇。敢問諸人。作麼生是休歇處。還會麼。寒則圍爐坐。閑餘任性眠。

睦州廣靈佛印禪師

諱希祖。姓周氏。處州人也。年將卅歲。便陟霜臺。志學有方。慕道無廢。參圓照禪師。了明己見。出世弘揚。遂彰道譽。

問。登法空座。演海潮音。大眾寂然。願聞舉唱。

師云。日月光天德。山河壯帝居。

僧曰。恁麼則得聞於未聞也。

師云。一人歌有道。天下樂無為。

問。如何是睦州境。

師云。越嶂遠分丁字水。臘梅遲見二年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面帶七星人不識。芒鞋高掛少知音。

師乃云。靈光鑑徹。物我全收。體照獨存。前後自絕。由是無為變化。應量千差。托質殊分。混同一性。故我元首明哉。股肱良哉。法以時遇。道在中興。建大法幢。作大佛事。足可稱揚。所以正觀絕迹。名相互分。寂聽非聞。圓音普應。霜鐘金鼓。主伴交參。寶殿瓊臺。聽說斯顯。六街三市。徧處莊嚴。陌巷康衢。寅昏佛事。聖凡交會。土庶鏘鏘。帝網圓融。鑑燈互照。何必南方獨邁。徧扣諸門。歷涉艱辛。是非未決。而今重重華藏。無盡法門。觸目見成。何須擬議。然雖如是。鈍致祖風。良久。云。九年少室誰知己。一句流通萬古傳。

上堂云。嚴陵臺畔。七里龍淵。直須釣鼈釣鯨。豈止撈蝦攬蜆。隨流放曠。任性漂浮。停舟月上波心。舉棹風生水面。敢問大眾。不

觸波瀾作麼生會。良久。云。時人祇看絲綸上。不見蘆花對蓼紅。參。

東京褒親旌德院慈濟翱禪師

上堂云。梅花新綻。柳眼初開。雪散長空。風恬浪靜。文殊性海。普賢行門。直下分明。更無餘事。還會麼。良久。云。莫錯認。

越州石佛寶相寺曉通密印禪師

問。如何是石佛。

師云。頭戴天。腳踏地。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任經霜與雪。不改舊時容。

師乃云。至道冲虛。萬物何宰。真空絕迹。法界如如。若能對境無心。觸目無非是道。良久。云。晝夜舒光照有無。癡人喚作波羅蜜。

湖州道場山慧印禪師

示眾云。若論此事。如王按劍。把定乾坤。俠客縱多。誰當出手。

問。劍即不問。如何是此事。

師云。點。

僧曰。恁麼則欲來衝雪刃。不免露鋒鋌。

師云。拽。

僧以手一畫。云。爭柰遮箇何。

師云。泥人眨眼。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鼻孔遼天。

僧曰。來後如何。

師云。頂門著地。

僧曰。畢竟如何。

師云。九年人不識。幾度過流沙。

上堂云。韶石渡頭。舟橫野水。汾陽浪裏。掉撥孤煙。雲月無私。溪山豈異。一言合轍。千里同風。敢問諸人。作麼生是同風底句。良久。云。八千子弟今何在。萬里山河屬帝家。

處州南明山仁壽院通禪師

問。如何是南明境。
師云。泉飛一道帶。峯出半天雲。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策筇看鶴舞。坐石見雲歸。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登山千里月。渡水一帆風。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言前有路。句下無私。
問。龍未出洞時如何。
師云。佛眼覷不見。
僧曰。出洞後如何。
師云。興雲吐霧。

杭州西湖妙惠院文義禪師

上堂云。隨機設化。大闡宗風。截斷眾流。不留朕跡。人一乘之闡域。踐向上之玄關。方便門開。分明看取。咄。
上堂云。會麼。已被熱謾了也。今早起來。無教可說。下牀著鞋。後架洗面。堂內展鉢喫粥。粥後打睡。睡起喫茶。見客相喚。齋時喫飯。日日相似。有什麼過。然雖如是。更有一般令我笑。金剛倒地一堆泥。拍禪床一下。

西京韶山杲禪師

問。祖意西來。未審傳箇什麼。師拈起拄杖。
僧曰。恁麼則心外有法也。
師云。心外心內即且致。汝喚什麼作法。
僧曰。天台柳[木*栗]木。
師云。也是第二月。
上堂云。七月孟秋猶熱。古往今來時節。若作佛法商量。正是弄巧成拙。若作無事話會。又與外道何別。直饒總不如斯。敢保老兄未徹。如來言。祖師訣。無孔鐵鎚重下楔。自家心地亂如麻。却把指頭喚作月。莫思量。休解說。千年枯骨休齧齧。從佗兔走鳥飛。飢來喫飯困來歇。

汝州香山慈壽法晝禪師

姓徐氏。杭州人也。長依明智寺元湛上人出家。圓具。聽習經論。後造瑞光圓照禪師法席。投機開悟。先住北京天鉢。次遷香山。問。天恩忽降。請住香山。國重師名。將何祝 聖。
師云。香煙起處。大眾同觀。
僧曰。如何領會。
師云。重言不當吃。
僧曰。早知今日事。悔不慎當初。
師云。禮拜了退。
問。山巖水壑。盡是舊日家風。拄杖淨瓶。拈起新來活計。古殿重開。願聞舉要。
師云。擊大法鼓。演大法義。
僧曰。恁麼則彌勒門開心頓曉。德雲峯峻道何藏。
師云。爾向什麼處見彌勒。
僧曰。雲散長天星斗現。月明沙界物難藏。
師云。休要費力。
師顧視大眾云。皇都禪刹。惠林道場。今日暫借卑僧陞陟。實愧非材。於明眼人前提綱佛祖。銜耀見知。直饒說得天雨四花。地搖六震。一點也用不著。蓋為各各威光動地。人人不欠絲毫。然雖如是。更有向上一竅。三世諸佛不能宣。六代祖師提不起。且道是什麼物得恁麼奇恠。還薦得麼。良久。云。曹溪路坦平。休彊生荊棘。久立。

福州靈應嵩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好諸仁者。第一諦甚可憐生。祇麼會得。同匣有餘。眾中莫有聞一以知十底衲僧麼。出來相見。
問。德山棒。臨濟喝。直至如今少人拈。今日幸遇場開。請師拈看。
師云。一朝權在手。看取令行時。
僧曰。一雨普滋沙界外。群靈無不盡霑恩。
師云。霑恩底事作麼生。
僧提起座具云。爭柰遮箇何。
師云。殘羹餽飯。不勞拈出。
僧曰。若不上來。焉知如是。
師云。彼此不著便。乃云。正法眼藏。普被含情。上至諸聖。下及群迷。一一情中。具同斯事。蓋由一念有異。迷悟岐分。逐浪忘源。去而莫返。不見道。我佛如來。初成正覺。嘆曰。奇哉。我今普見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或開

張教綱。或直指人心。令息妄緣。見性成佛。自後燈燈續燄。祖祖傳心。利物無窮。法門無盡。既到遮裏。事合如何。祖令在手。須至提攜。正法既行。明當舉唱。廓一塵而遍周沙界。攝萬法而歸一毫端。縱奪卷舒。不離於此。雖然如是。盡乃諸人日之常分。應非別有玄微。若也情塵頓解。靈智當前。現大威光。快須薦取。珍重。

處州靈泉山壽寧梵仁禪師

問。不問有言。不問無言。請師速道。

師云。話墮也。

僧曰。人天交集。乞師垂示。

師云。不如禮拜。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雪霜凋不得。

僧曰。出水後如何。

師云。天地放教開。

上堂云。天真靈徹。即今一譯。上下四維。清風明月。寒則任寒。熱則任熱。也不休。也不歇。飯則餐。渴則啜。不見神光三拜依位立。燈燈續燄未嘗絕。鼻孔遼天任辨別。

秀州福嚴仲孚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看。

師云。覲面相呈。

僧曰。下坡不走。快便難逢。

師云。未欲行令。

師乃云。問者如蛟龍戲於滄海。答者似彩鳳舞於長天。一合一開。一舒一卷。縱橫應用。啐啄同時。若遇本分衲僧。直須倒退三千里。參。

處州靈泉山宗一禪師

問。鎮州蘿蔔即不問。廬陵米作麼價。

師云。可貴可賤。

僧曰。小出大遇也。

師云。君子愛財。取之有道。

僧曰。大眾霑恩。

師云。有人索汝米錢在。師乃云。美玉藏頑石。蓮華出淤泥。須知煩惱處。悟得即菩提。咄。

通州琅山法印禪師

諱載儀。福州賢泥受業。禮戒珠和尚為師。十八策試登具。預遊江浙。聽習經論。晚詣圓照禪師。大悟玄機。

問。祥雲布處。現千朵之危峯。紈扇搖時。去九旬之炎熱。正當恁麼時。如何是到地頭一句。

師云。一雨普潤。

僧曰。未審如何履踐。

師云。射虎須當機。

僧曰。快便難逢。

師云。要棒喫那。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觀。

師云。莫是南番真舶主。

僧曰。不獨學人有賴。大眾亦乃霑恩。

師云。元來祇是杜波斯。

師顧視大眾。乃云。好。好。可謂幽顯朗照。物理虛通。為森羅之寶印。作萬象之真宗。其為也形。其寂也冥。本淨非瑩。法爾圓成。所以道。如何以無價之寶。隱在陰入之坑。大眾。山僧今日敢對眾前特地拈出。

乃畫一圓相。擎示眾云。遮裏既放憨去。亦要大家精鑑。莫謂連城之價。可以並輝。徑寸之圓。堪同其美。直與龍女爭鋒。無垢世界。未當正覺。縱使金輪獨步。立功勳者。權為重賞。且道是什麼寶得恁麼殊異。良久。云。鬼神知貴不知價。留與人間光照夜。

南嶽馬祖崇新庵主

一日。語直庵人云。今日齋時不用打食。

人曰。為甚麼不打食。

主云。吾報緣將盡。

或人問曰。主既臨行。有何言句。

主乃拍手一下。長嘯一聲。山僧今日珍重諸人。言訖而逝。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五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東京惠林宗本圓照禪師法嗣

舒州投子證悟禪師

諱脩顯。姓梁氏。晉州趙城人也。幼同父不拜鄉祠。不受書訓。俄曰。當為人天師。安慕此耶。尋依本州霍山文廣上人出家。圓具。橫經講席。洞曉佛意。華嚴九會。敷演三四。遠造蘇州瑞光圓照禪師法席。扣問禪宗。因舉無著問天親。彌勒說什麼法。說遮箇法。即悟其旨。

初住壽州資壽。西京少林。舒州投子。道譽大播。京洛宗乘。蓋師首唱。大丞相富公弼敬以師禮。一日。陞堂。時有僧出。師云。錯。

僧曰。什麼處是錯。

師云。不信道。

問。是法平等。無有高下。為什麼趙州三等接人。

師云。入水見長人。

僧曰。爭柰學人未會。

師云。喚不回頭爭柰何。

問。如何是祖祖相傳底心師云。三星繞月宮。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伯樂暫垂鞭。駑駘誇八駿。

問。如何是第一義。

師云。百雜碎。

師云。楞伽峰頂。誰能措足。少室巖前。水泄不通。正當恁麼時。黃頭老子張得口。碧眼胡僧開得眼。雖然如是。事無一向。先聖幸有第二義門。足可共諸人東說西話。所以道。春生夏長。秋落冬枯。四時遷改。輪轉長途。愚者心生彼此。達者一味無殊。良久。云。陝府鐵牛吞大象。嘉州佛向藕絲藏。

上堂云。春風鳴古木。曉露鎖寒波。頭頭皆顯露。顯露又殺訛。看看。直下是。怎柰何。明眼漢。沒白窠。吐不得。嚼不破。咄。

上堂云。巍巍少室。永鎮群峰。有時雲中捧出。有時霧罩無蹤。有時突在目前。有口道不得。被人喚作壁觀胡僧。諸仁者。作麼生免

得此過。休。休。不如且持課。良久。云。一元和。二彌陀。三釋迦。自餘是什麼碗躡丘。參。

上堂云。露滴庭莎。風鳴古檜。皓月瀉千家寒色。清淮流萬頃波瀾。此時薦得。與諸人截斷眾流。若也未然。不免隨波逐浪。譬如河中水湍。流競奔逝。各各不相知。諸法亦如是。遂拈拄杖云。拄杖子是諸法。是相知。不相知。若相知。早被知縛。若不相知。憑何指註。卓一下。云。知之一字。眾妙之門。復云。錯。

東京十方淨因禪院佛日禪師

諱惟岳。福州長溪陳氏子也。七歲投西林院徹和尚出家受具。習楞嚴諸教。洞曉其旨。性行剛直。俊慧爽拔。遊涉禪林。遍扣知識。參圓照禪師。因侍立次。舉劫火洞然因緣。豁然有省。後出世常州承天。次住東京華嚴。復遷淨因。宮保李侯端愿薦以章服。荊國大王奏賜法雨師名。哲宗皇帝百日入內。特賜佛日禪號。

師於建中靖國元年二月十七日。大行皇太后五七。奉聖旨就慈德殿陞座。師拈香云。率土之土。莫非王土。且道此一瓣香。產何土宜。若也道得。白石有消日。氤氳無盡年。盡虛空。徧法界。為雲為蓋。應現無窮。上薦仙游。徑生佛國。遂斂衣坐。云。見義不為。無勇也。莫有勇底衲僧。出來相見。時有僧出眾。提起坐具云。明鏡當臺。請師一鑒。

師云。記取話頭。

僧曰。莫便是和尚為人處也無。

師云。蹉過了也。

僧曰。曹溪一派。水石生光。

師云。酌然。酌然。

問。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王宮則不問。如何是度人一句。

師云。千江有水千江月。

僧曰。恁麼則帝釋鏡中親得旨。靈山法會宛然存。

師云。龍華三會。猶是後時。

僧曰。可謂龍樓鳳閣祥烟起。玉殿金階瑞氣生。

師云。逢人不得錯舉。

僧曰。四海盡霑天子澤。師將何法報皇恩。

師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

僧曰。長將日月為天眼。共指須彌作壽山。

師云。已在言前。

僧曰。作家宗師。天然猶在。
師云。若不在此。三十棒一棒也較不得。
問。法無定相。隨緣構集。有佛世界。以光明為佛事。有佛世界。
以莊嚴為佛事。未審此佛世界以何為佛事。
師云。坐朝問道。垂拱平章。
僧曰。一人有慶。萬民賴之。
師云。萬靈何處謝無私。
僧曰。粉骨碎身未足酬。一句了然超百億。
師云。作麼生是一句。
僧曰。芥城劫石猶非筭。坐斷乾坤日月新。
師云。金毛師子。
問。圓照昔年光宇宙。今朝佛日又騰輝。學人上來。請師鑑照。師
畫一圓相。
僧曰。萬丈白雲藏不得。一輪光透照無私。
師云。也是太陽門下。全借餘輝。
僧曰。既然摩耶佛母生兜率。大行太后在何方。
師云。花分晝夜。水遶棟梁。
僧曰。古佛堂前同已證。瑠璃殿上演真空。
師云。重說偈言。
問。昔日 慈聖太皇。月落不離天。淨照親承寵澤。今朝 大行皇
太后。水流元在海。未審意旨如何。
師云。滄溟浩渺孤帆小。消得長天幾許風。
僧曰。千般有解終難到。一念無心在處同。
師云。龍蛇易辨。衲子難瞞。
僧曰。若然者。罷希運之開田。笑空生之持鉢。
師云。誰言寸草心。報得三春輝。
僧曰。且道今日資薦 皇太后。畢竟居何報土。
師云。雲屯雲散天長淨。漚滅漚生水本清。
僧曰。已得真人好消息。人間天上更無疑。
師云。不妨劄利。
問。佛佛授手則不問。葉葉相承事若何。
師云。龍生龍子。龍長龍孫。
僧曰。恁麼則千子常圍遶。金輪御大千。
師云。漁翁鼓舞。野老謳歌。
僧曰。慶雲翔而和氣流。芝草生而嘉禾秀。
師云。正好讚歎。
師云。最初說法者。不知末後句。末後說法者。不知最初句。最
初。末後句。適來惠林禪師已為諸人說則說了。且如何說。若約三

乘十二分教。偏圓頓漸。半滿一音。不免執指為月。入海筭沙。直似澄潭月影。後夜鐘聲。隨扣擊以發音。逐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故乃菩提達磨觀象。神州有大乘器。所以泛杯千頃浪。登嶺萬重山。首造于梁。梁以因果有為之法而垂問。達磨揭聖諦第一義而奉答。梁王未契。遂之嵩少。九年面壁。不立文字。迥出三乘。直指人心。見性成佛。當時神光二祖立雪斷臂。得髓明心。一花五葉。結果自成。六代傳衣。後人得道。自此東華方信有正法眼藏。涅槃妙心。中下隨根。迷悟相半。

故我大宋真宗皇帝頌不云乎。初祖安禪在少林。不傳教法祇傳心。後人要悟真如性。密印由來妙理深。大矣哉。真如妙理。至幽至深。非大機大器不能領悟。何以故。見聞覺知是法。法離見聞覺知。便乃火聚當岐。鐵山在路。自然少室峰前壁立千仞。曹溪路上水泄不通。於其中間。祖風不無陵遲。頹綱亦將委地。雖然如是。法無定相。道假時彰。建大法幢。演大法義。興此一大事因緣。利樂有情。不在佗時。所謂際會大聖人而知之。出現于世。廣大流布。廓周沙界。實千載之一遇哉。至若堯·舜·禹·湯。端拱垂衣。無為之化。不為不至。

若以開方便門。示真實相。十方嘉會。四眾同筵。闢古佛之家風。發含生之大本。未可與今日同時而語哉。何謂也。釋提桓與善現發明般若。唯止真空。波斯匿為慶喜特指不遷。猶存俗諦。特此教外別傳。向上一著。彰顯當今。豈非希有之緣。應乎昭且者也。然溪山各異。雲月是同。同聲相應。同氣相求。方知此事無古無今。無彼無此。高而無上。廣不可極。淵而無下。深不可測。毛吞巨海。芥納須彌。在天同天。在人同人。在天則為日為月。為照為明。在人則為君為臣。為忠為孝。以此而推。百億日月。萬億須彌山。百億四大海。根身器界。情與無情。同一體性。莫不仁者見之謂之仁。智者見之為之智。百姓日用而不知。其能會萬物為己者。其唯聖人乎。由是燈燈續燄。葉葉相承。百千世而月點真燈。光融三界。十萬里星排祖幹。涼蔭四生。是知法輪再轉於支那。帝日長輝於震旦。若然者。物無大小。法無適莫。皆被其光。皆蒙其澤。以至草木禽魚。無遠不及。祇如舍衛國王欲往靈山見佛。勅諸臣僚。山河大地。草木叢林。並須同去見佛。若一草一木不去。吾則不得見佛。

大眾。祇今乾坤之內。宇宙之間。山河大地。草木叢林。去亦不去。來亦不來。湛湛無私。巍巍不動。乃文乃武。乃禪乃律。同在九重天上。慈德殿前。同時見佛。諸仁者。見則不無。且作麼生見。

良久。云。重瞳日月明無盡。隆準山河秀有餘。臣僧惟岳。伏奉聖旨。今陞座舉揚般若。奉為 大行皇太后此土緣終。佗方報勝。屈于五七。上薦 仙遊。恭以 皇太后淨惠本然。至神獨運。來示 母儀之迹。德贊 三朝。去酬法界之因。果圓十地。伏願 兜率天宮陪摩耶佛母一處逍遙。無垢世界共娑竭龍女同成正覺。回耀休光。昌明 宗社。竊以釋迦如來臨般涅槃。以佛法奉囑 萬乘聖主。啟日月光明。永垂外護。廓天地覆載。長賜流通。臣等沙門慶幸得近冀階。般若敷宣。莊嚴 國祚。恭惟 今上皇帝陛下。承 祧 七聖。天下鼓舞於唐虞。明道 萬機。教外播揚於佛祖。此蓋伏遇 皇帝陛下夙泛般若之神舟。慣遊覺海。今揭軒皇之寶鑑。圓照禪叢。集此鴻因。上祝 今上皇帝陛下聖躬。萬歲。萬歲。萬萬歲。伏願 福若大梵王。 壽同天帝釋。 金輪御三千大千之世界。 玉曆紀百億萬億之年華。兩順風調。民安國泰。 皇太妃。 皇后。 皇太子。伏願 福海壽山。增千千之載。金枝玉葉。長榮萬萬之春。 親王國族。 天眷宮嬪。萬善同資。千祥併集。不敢久瀆 聖聽。伏惟 珍重。

開堂日。師登座拈香。祝延 聖壽罷。乃敷坐。智海佛印禪師白槌竟。師云。堯天舜日。鳳閣龍樓。妙高孤峰。浮幢香海。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主伴同時。一多無礙。具眼衲僧。出來觀看。問。為國開堂。請師祝。

聖。

師云。雲破鼇峰。月生鯨海。

僧曰。璇璣盤磚三千界 睿筭延鴻十萬春。

師云。祇道得一半。

僧曰。打麵還佗州土麥。唱歌須是帝鄉人。

師云。金毛師子。

問。世尊出世。為大事因緣。和尚今朝。當為何事。

師云。瑞雪滿長安。

僧曰。一人增壽筭。萬里盡詞謠。

師云。風行草偃。

僧曰。斬釘截鐵。須還本分鉗鎚。

師云。也不消得。

問。蓮花未出水時如何。

師云。清波無透路。

僧曰。出水後如何。

師云。目前無異草。

僧曰。恁麼則馨香滿大唐。

師云。非公境界。

師云。此箇法門。不在筌蹄。豈干問答。直饒盡十方剝土未為微塵。一一微塵盡為衲僧。各如滿慈。鶩子。窮天玄辯。竭世樞機。到遮裏。一點用不著。何以故。生佛圓融。自佗平等。人人鼻孔遼天。各各壁立千仞。

蓋不知真隨妄轉。法逐緣遷。自昧靈光。枉投異趣。所以破有法王。運無緣慈。駕三乘舟楫。渡五性波瀾。翻戀澄潭月影。靜夜鐘聲。故使懷州牛喫禾。廬陵米價長。又不免勞佗初祖達磨逗器支那。教外菱花。不磨甄鏡。衣中驪頷。不數佗珍。未挂古帆。見成公案。由是悟取無悟底面目。迷取不迷底鄉關。三際無私。十方同暢。

自家田地。枯木生花。古廟香爐。寒灰再燄。莫不一切語言文字。資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若然者。無影樹下同船。漁翁鼓舞。中有黃金一國。野老謳謠。共樂昇平。同躋壽域。大眾。同躋壽域。自是地久天長。且道共樂昇平作麼生樂。良久。云。羅浮打鼓韶州舞。久立。珍重。

泗州普照寺真寂禪師

諱處輝。滁州清流人也。姓趙氏。依江寧府保寧勇禪師出家得度。紹聖四年。朝旨住持。開堂日。問。世尊出世。地涌金蓮。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掃却門前雪。

太平州隱靜山普慧寺儼禪師

問。摩騰入漢。藏教分明。達磨西來。有何意旨。

師云。我法妙難思。龍天盡歸向。

僧曰。未審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兩彩一賽。

僧曰。一言歸有道。萬象自無心。

師云。猶較些子。

問。達士相逢。如何話會。

師云。罕遇作家。

僧曰。若非朝宰知音。和尚焉肯拈出。

師云。金鎚影動。寶劍光寒。

師云。一法不通。萬緣方透。若也於斯明得。眼睛穿過鐵圍山。一口吸盡大海水。乃唱云。大海水已吸盡了也。魚龍向什麼處安身立命。眾中若有興慈運悲底衲僧。出來救取龍王。苟若不能。氣急殺

人。雖然如是。事無一向。山僧不免為諸人說道理。不見先聖云。究竟涅槃。常寂滅相。終歸於空。一翳在眼。空花遍界。翳若不消。不出門知天下事。翳若消盡。始知庵內人不見庵外事。若能如是。方解穩坐地。十二時中一任受用。如或未知。久立。珍重。上堂云。春雲春雨。萬物敷榮。暖日和風。巖花競秀。青山疊疊。澗水澄澄。達磨迷途。切忌說破。復云。若人撿點得出。山僧今日話墮。以拄杖擊禪牀。下座。

蘇州定慧院圓義禪師

諱遵式。姓顧氏。姑蘇人也。童稚異眾。慕道出家具戒。未幾。首學毗尼。次習大經。洞明淵奧。緣契圓照。傳道印心。行解冰霜。宗教兼濟。三遷叢席。四眾歸依。師範有規。訓學無倦。都尉張侯敦禮奏以師號。

問。南泉斬猫兒。意旨如何。師便打。

僧曰。猶是學人疑處。

師云。十萬八千。

僧曰。忽遇趙州時如何。

師云。賣金須是買金人。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萬水千山。

僧曰。便與麼去時如何。

師云。千山萬水。

僧曰。專為流通。

師云。南北行人口似碑。

問。如何是衲僧眼。

師云。針筭不入。

僧曰。何故如此。

師云。向道衲僧眼。

師云。若夫宗旨。豈在言詮。況疊嶂巍峩。層巖峭峻。湖澄淥水。風掃白雲。松竹蕭蕭。不若妙峰頂上。烟雲杳杳。何殊鷄足巖前。到此各自回光。不勞指注。多言喪道。多岐亡羊。若是本分之人。便乃息肩倚杖。越聖超凡。出入生死。縱橫聲色。果能如是。方可續佛壽命。報佛深恩。無盡法門。目前觀取。珍重。

上堂云。我有真機。絕毫絕釐。明暗上下。南北東西。言之不及。思之不知。會麼。東弗于逮。西衢耶尼。

上堂云。一月初圓。百川沈影。一燈發彩。萬炷流輝。月無留影之心。燈無傳輝之念。若得如是。可以處于誼譁。入于塵俗。運大悲

光於沙界。開普門眼於生靈。豈唯觀音大士三十二種妙應無方。具縛凡夫。一一皆能開正法眼。然雖如是。也須是斬釘截鐵漢始得。其或不然。靜處薩婆訶。

上堂云。青山鬱鬱水滔滔。萬浪千波接海濤。提得絲綸漾舟去。鈎頭須要釣鯨鰲。拈拄杖云。負命者上鈎來。參。

上堂云。睡來合眼飯來餐。佛祖從教說易難。若問安心有何法。太湖長浸洞庭山。衲僧家人人盡道。我八面四方。縱橫無闕。龍濟為什麼道。卷簾除却障。閉戶生得闕。若人辨得。許汝向衣鉢下穩坐地。

上堂云。天兮何高。地兮何厚。海潮之音。師子哮吼。瞻之不見其前。迎之罔眺其首。還會麼。七七四十九。

上堂云。我有一句。祇今分付。玉軸琅函。同時頓具。不用思量。重重顯露。優曇鉢華。火中開悟。參。

舒州投子山勝因禪院普聰禪師

上堂云。寂住峰頂。葉落歸根。明月堂前。金風玉露。且道深秋一句作麼生。良久。云。古往不知何處去。後夜依前月到窓。

秀州本覺法真禪師

諱守一。姓沈氏。江陰人也。生而祥異。性敏才逸。齒未及冠。頓慕緇門。謝俗瑞光。投師圓照。巾侍扣問。更不它遊。眾推明悟。唱道檣城。

問。選佛選官應在我。祖席登科事若何。

師云。大鵬展翼天路遙。巨鼈轉身海水窄。

僧曰。夫子家聲遺舊業。法王基緒得中興。

師云。後五日看。

僧曰。且道昔日今時。是同是別。

師云。一言已出。

問。春氣已隨紅雨散。熏風初度綠陰涼。學人借問西來意。乞師方便為敷揚。

師云。分明舉似大眾。

僧曰。可謂一句截流。萬機頓削。

師云。築著磕著作麼生道。

僧曰。落落清規今古同。相逢會有知音舉。

師云。不妨劔利。

問。離群師子。踞地全威。不露爪牙。願聞哮吼。

師云。大家著力。
僧曰。當年盧老曾饒舌。今日親聞第一機。
師云。脚跟下事作麼生。
僧曰。寶杖撥開千聖眼。當場辨取火中蓮。
師云。果然作家。
師云。此一法印。非有所傳。曠劫佩持。不從人得。包六虛而無外。混十世以同時。全提則佛祖蹤沈。放下則聖凡文起。昭昭日用。森羅頓現於靈光。蕩蕩目前。彼此無分於實際。雖廓然泯迹。流通於無量義門。闡爾無依。迥超於一切智地。非文字相。離見聞緣。諸乘由是莫能詮。列祖於斯提不起。此日人天既集。不可徒然。略於建化門中普示諸人。各請端心正視。乃顧左右云。還見麼。若恁麼承當得。便乃機衡在握。全歸闔外之權。剎海澄波。共助寰中之化。珍重。
上堂云。諸人知有道不得。山僧道得不知有。且道此兩語。是一理。是二義。若人定當得出。許爾頂門眼正。參。
上堂云。本分相見。不在如何。撩起便行。猶為鈍漢。若也分賓分主。俱為念話杜家。更乃說妙談玄。不當宗門苗裔。山僧恁麼道。已是雪上加霜。爾等諸人更擬覓箇什麼。以拄杖一時趁下。
上堂云。山僧一無所解。祇是叢林冤害。選甚南來北來。誰能上載下載。一味拔楔抽釘。與爾平生慶快。冷然作活自由。蕩蕩無拘無礙。隨緣任運騰騰。從爾九旬結制。雖然放曠不羈。亦要時中管帶。良久。云。會麼。此時若不究根源。直待龍華第三會。
上堂云。折半列三。人人道得。去一拄七。亦要商量。正當今日。雲門道底不要別。作麼生露得箇消息。良久。云。日月易流。
上堂云。化城不止。寶所非安。直饒蹈著本地風光。便好拗折拄杖。雖然如是。忽然問爾索著線袋針筒。莫道不知落處。

湖州報本禪院常利禪師

姓卓氏。福州古田人也。總角之歲。圓頂披緇。即慕參遊。問心有得。大卿呂公請師出世。提唱祖風。道望益著。
問。如何是大人相。
師云。披毛戴角。
僧曰。學人不會。
師云。紫磨金容。
問。如何得作佛去。
師云。煩惱裏薦取。
僧曰。如何得離煩惱。

師云。對面菩提。
問。如何是無相佛。
師云。影臨四海。
僧曰。如何是有相佛。
師云。體絕毫釐。
僧曰。畢竟是有是無。
師云。常憶當年尋海客。一聲羌笛過山南。
僧曰。和尚不近道理。
師云。從來祇與麼。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照。
僧曰。磨後如何。
師云。黑。
僧曰。既是磨後。為什麼黑。
師云。為汝要磨。
問。如何是無為。
師云。有作。
僧曰。如何是有作。
師云。無為。僧擬議。
師云。漆桶。遮裏不是無為。
上堂云。尋常不欲與諸人枝蔓。今日未免枝蔓。罪過彌天。還有點檢得出底麼。若點檢得出。管取至道無難。若點檢不出。莫道無事好。
上堂云。今日月望。打箇餠餅供養大眾。拈拄杖。作圓相云。還識此餅麼。不但供養一人。百千萬億人祇是一箇。細嚼飽餐。不得齧破。然雖如是。切忌麪生。參。
上堂云。大眾。有一人無形無相。無學無名。不動人情。能為變化。該羅群象。洞攝大千。截生死流。居涅槃岸。或諸佛菩薩。乃至人與非人。見今坐斷毗盧。直至一生補處。還識此人麼。若識得伊。共為洪範。若不識伊。常為冤對。快識取好。參。

楊州石塔惠照寺惠禪師

問。世尊出世。地涌金蓮。和尚開堂。有何祥瑞。
師云。雪滿長空。
僧曰。纖塵不立。
師云。剎利衲僧。

杭州南山廣法法光禪師

問。雪峰三上投子。九到洞山。為什麼倒戈卸甲。

師云。理長即就。

僧曰。未審雪峰得箇什麼。

師云。一棒一條痕。

問。臘月火燒山。意旨如何。

師云。若不得流水。還應過別山。

僧曰。學人未曉。

師云。春來草又生。

師云。主賓問答。未當宗乘。建化門中。一期施設。使言言相副。句句投機。於衲僧分上。遠之遠矣。而今日明雲晴。山高水深。且作麼生會舉揚底道理。還會麼。山僧不免土上加泥。更為通箇消息。高低巖岫現重重。樓閣門開處處通。要會此中端的意。威光燦燦徧長空。伏惟珍重。

明州瑞巖山永覺禪師

問。久得韶陽旨。門中試為通。

師云。聲前如迸鏃。句後若流星。

僧曰。古殿豁開光燦爛。水精宮裏[殺/米]真珠。

師云。點。

師云。若據衲僧分上。四時不別。八節安知。高棲巖上。出沒卷舒。一任桑田海變。從佗兔走烏飛。布衾暖處始知春。黃葉飄堦委秋色。如斯境界。方稱道懷。若據順俗之談。須知遮箇消息。乃顧大眾云。且道即今是什麼時節。還知麼。玉漏聲將促。金烏影漸長。須與春色裏。又見百花香。久立。

睦州資福道芳禪師

問。德山·臨濟。以棒喝接人。和尚出世。將何垂示。

師云。山僧無氣力。

僧曰。和尚豈無方便。

師云。大眾笑爾。

有僧出禮拜。起云。請師答話。

師云。蹉過了也。

僧曰。甚麼處是蹉過。

師云。五里復五里。

師云。秋風清。秋水淥。白鷺立寒汀。秋蟬噪幽谷。金風扇白蘋。玉露滋黃菊。流水奏伯牙之琴。涼颺動子猷之竹。聽也聽不盡。觀也觀不足。且作麼生會箇佛性義。良久。云。解空不在離聲色。愛聽孤猿嶺上啼。

舒州太平慧登禪師

問。如何是太平境。

師云。多年三級塔。未老萬株松。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一似不曾齋。

師云。太平知見。麥裏有麪。厨屋對僧堂。三門對佛殿。咄。

岳州乾明慧覺禪師

問。如何是乾明境。

師云。脩竹四圍繞。凌松一帶寒。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手拈湘竹杖。目視楚山雲。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綠竹滿軒庭。微雲生嶽面。

問。寶劍未出匣時如何。

師云。冷光生。

僧曰。出匣後如何。

師云。猶嫌鈍。

問。如何是諸佛本源。

師云。野鶴連天叫。

僧曰。意旨如何。

師云。通宵徹夜聞。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泥人合掌禮西方。

問。如何是佛。

師云。老僧不妄語。

師云。濛濛微雨。滴滴階墀。萬木正秋色。歸根葉落時。唳。清颺吹散斷山雲。孤月遼天說向誰。參。

上堂云。寒風響。雁聲急。大啟圓通何不入。雪月交光冷相照。鷺鷥飛向蘆花立。休使空生雙淚泣。

上堂云。內視於心。心無其心。外視於形。形無其形。遠視於物。物無其物。良久。云。三際求心心不得。元來祇遮古今人。咄。上堂云。三界無家此箇人。十方周徧露全身。有時對面難尋覓。忽爾相逢又却親。若要親。山河大地絕纖塵。久立。上堂。拈拄杖云。諸禪德會麼。山僧兩手分付與爾諸人。尚不能會。放下拄杖。云。吽。吽。驢年夢見。參。

處州法海禪院世長禪師

問。法身三種病。二種光。如何透得。
師云。畫地為牢。
僧曰。和尚透得也。
師云。退身無路。
僧曰。自起自倒。
師云。腦門著地。
問。如何是諸法實相。
師云。更舉一遍。
僧曰。三世諸佛吐不出。六代祖師吞不下。
師云。言猶在耳。
師云。城市喧繁。空山寂靜。雖然如是。動靜一如。彼我不二。四時輪轉。物理湛然。夏不去而冬自來。風不寒而冰自冷。今也古也。不假絲毫。誰少誰多。身無二用。諸禪德。既是身無二用。為甚麼龍女現十八變。君不見弄潮須是弄潮人。卓拄杖。下座。

筠州米山崇僊禪師

上堂。顧視大眾云。山河大地被山僧撮來。搗羅為末。煉蜜為丸。以淡薑湯吞却了也。何處更有一絲毫。若道是有。即為謗法。諸人到遮裏。合作麼生話會。良久云。參。

蘇州寶華妙覺顯禪師

問。機輪曾未轉。轉處實能幽。如何是轉處實能幽。
師云。白雲遶空谷。清風拂太虛。
僧曰。意旨如何。
師云。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中。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霜風落林葉。

僧曰。霜風落林葉。意旨何如。
師云。逢春又却生。
問。久雨不晴時如何。
師云。綠毛龜出水。
僧曰。晴後如何。
師云。得縮頭時須縮頭。
師顧視大眾云。日如箭。月如梭。靈源本來瑩淨。何須特地揩磨。
如今要得無餘事。學取城東黑老婆。參。
上堂云。我眼本正。因師故邪。毗耶城老亦周遮。浮雲收碧落兮自寬廓。黑豆逢水土兮自生芽。恁麼會得。也好與三十棒。
上堂云。涼飈生後夜。萬木盡驚秋。金風碎剪白雲浮。莫問韶陽端的處。姮娥新琢玉為鈎。

明州岳林元亨禪師

上堂云。雲依依。日遲遲。柳開河岸。花發高枝。靈雲今日向什麼處安身立命。驀拈拄杖云。看看。莫顛預。久參高士。舉目知歸。晚進之流。新羅國裏。珍重。

安州九巖山圓明著禪師

問。大藏教中還有奇特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曰。展軸光千界。開函萬國春。
問。作家不啐啄。啐啄不作家。學人上來。請師作家相見。
師云。袖裏青蛇吼。
僧曰。學人不會。
師云。腦後冷光生。
僧曰。錯。
師云。識甚痛痒。
師云。烟凝葦岸。黃葉飄空。燕去雁來。古今常定。說生說滅。未為極則之談。遣有排空。豈是格外之語。黃梅半夜。少室九年。直顯真機。更無別理。所以道。直截根源佛所印。摘葉尋枝我不能。敢問諸人。作麼生會箇直顯真機底道理。良久云。參。
上堂云。雲起高峰。水流澗下。喬松烟鎖。古檜風生。且道衲僧分上成得什麼邊事。良久。云。孫賓門下。切忌鑽龜。

廬州澄慧善珂禪師

問。如何是澄惠境。

師云。千里清風歸野外。一輪明月上波心。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肩橫柳[木*栗]。目視烟霄。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葛藤得也未。

師云。若論此事。高超三界。獨步大方。截生死流。踞涅槃岸。演無上法。使靈苗異葉。處處騰芳。鸞鳳麒麟。聲聲相應。可謂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諸高德。如斯舉唱。未免周遮。若是出格道流。且待別相見。參。

蘇州寶華山悟本慶禪師

問。久居巖谷即不問。入廬垂手事如何。

師云。弄花香滿手。穿竹粉盈衣。

僧曰。便是為人處也。

師云。兩眼已隨青嶂合。雙眉猶帶野花鬢。僧出眾。提起坐具。師便喝。僧亦喝。師又喝。僧禮拜。師便打。

問。休去。歇去。古廟香爐去。未審意旨如何。

師云。有耳鐵牛穿半夜。無條石馬走春風。

僧曰。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風急浪開魚自現。金鱗透入碧波中。

師顧視云。看看。桃花亂落如紅雨。風撼梨花白雪香。鸞囀玉琴細。柳垂金線長。古佛家風在。頭頭示顯揚。恁麼說話。也是事隨物運。法逐時遷。若是格外頓根。不干文墨。直見自心。大用繁興。無非佛事。良久。云。大眾。參堂去。

饒州蜜巖淨土院惠旻禪師

上堂云。道無動靜。法本隨緣。立處皆真。隨方作主。在天地則覆載。在日月則照臨。在君臣則移風易俗。在釋氏則興慈運悲。且道衲僧分上又作麼生。良久。云。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參。

廬州澄慧院冕禪師

問。如何是澄慧境。

師云。前臨金斗城。後枕藏舟浦。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歡愁語盡江山窄。名利忘來天地寬。
師云。萬法縱然。何須自昧。大眾還見麼。風高凜冽正嚴凝。瑞氣祥光滿寺庭。祖令已行高著眼。寒光爍爍射文星。久立。

潭州石霜崇勝寺能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看。
師云。兩手分付。
僧曰。小出大遇。
師云。回眸子細看。

汀州同慶院自鑒禪師

上堂云。釋迦密印。不出乎心。達磨真機。豈離當體。於茲見得。暢快平生。更若紛紜。自家埋沒。雖然如是。七穿八穴一句又作麼生。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

荊南府萬壽院有琛禪師

問。上上之機。請師垂示。
師云。鐵牛哮吼。木馬嘶鳴。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未敢相許。

宣州寶勝永良禪師

問。道非物外。物外非道。如何是物外道。
師云。目前可驗。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對面同千里。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勘破了也。
師乃云。大道舒光。十方周徧。及乞根源。了無所得。然雖如是。不出金峰窠裏。到遮裏。合作麼生。良久。喝一喝。下座。

壽州六安文殊惟湛禪師

問。目前無法。意在目前時如何。
師云。看。
僧曰。片雲生脫谷。孤鶴下遙天。
師云。莫錯認。
師乃云。春至花開。秋來葉落。法法見前。不須穿鑿。咄。

福州光化楚萇禪師

開堂日。示眾生。昔年靈山會上。黃面老人四十九年三百餘會。該羅不著底事。山僧今日普示諸人。良久云。依稀越國。髣髴揚州。
僧問。皇道與佛道相去幾何。
師云。但請知時。
僧曰。學人未曉玄言。
師云。雷鳴天鼓震。聖語勅文行。
僧曰。混然先天地。迥出希夷間。
師云。寰中日應萬機巧。海外風光一樣清。
僧曰。是一是二。
師云。俯為葛藤。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胡風扇漢。祖月耀梁。
僧曰。靈山印本。不用揩磨。
師云。也是欺我唐土兒孫。
僧曰。古今通途去也。
師云。路出千山。水分八字。乃云。非君所議以當宗乘。亦非寂寥徒為向上。何也。言無差別。句乃橫該。就馳言句。面目換了。是以參玄上士仍當薦取。方解異類。共物推移。若不如此。未免情存取捨。境緣好醜。迭遞更遷。威光失色。頭頭顯示。率爾嗟噓。於是從上賢者。為物之故。抑而為之。互為賓主。激揚斯旨。人天眼目。悟則為準。
上堂。顧視大眾。還相委悉麼。良久。云。從來風采。理冠真乘。不涉程途。非爾自然。人人己分。實乃無虧。箇箇英靈。奇特現矣。是以諸門互顯。捷應無私。以無私之妙體。返照朗然之無窮。思盡還源。不真何待。諸禪德。還會麼。久遠與麼。今日如是。遵此法令。施行無畏。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六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東京法雲圓通禪師法嗣

江寧府蔣山太平興國寺惠炬禪師

諱良策。福州人也。比試圓頂。遊方參尋。首見六合孜禪師。微有發明。詣圓通禪師席下。頓釋疑滯。既蒙印證。為眾領袖。出世華藏。大揚祖意。次遷鍾山。左丞蔡公卞奏以章服。師名。

問。諸佛出世。普為群生。和尚出世。又且如何。

師云。拄杖未曾拈著。

僧曰。與麼則人天獲利。

師云。好領前話。

僧曰。喏。喏。

師云。遮箇衲僧猶較些子。

上堂云。秋風索寞。秋景蕭條。鴈過長空。燕離大廈。遊方禪客。

卜處安居。腰束輕囊。手攜短錫。水邊松際。去住無拘。雖然如是。忽有人問。作麼生是行脚底事。明眼人前如何祇對。若是所得之者。萬一無疑。後學初心亦須子細。還會麼。要知江上路。須問渡頭人。參。

上堂云。雪將殘。分外寒。向火容易。涉道艱難。好是和衣打睡。任佗日上欄干。祖師沒腰斷臂。吾徒莫作等閑。光陰荏苒。人事多端。遮邊淥水。那裡青山。難。難。百年三萬六千日。看看便見鬢毛斑。山僧與麼說話。拖泥滯水不少。然雖如是。養子方知父慈。

廬山開先心印禪師

諱智珣。饒州人也。策試得度。便慕宗風。參圓通禪師。發悟心要。頓息佗遊。推為師表。請居合肥延昌。次遷開先。佛國禪師回奏簾賜章服。都尉張侯敦禮奏以心印師名。

問。和尚出世。將何為人。

師云。山形拄杖子。

僧曰。刁刀相似。魚魯參差。

師云。朝三千。暮八百。
問。趙州三等接人。未審和尚幾等接人。
師云。隨家豐儉。
僧曰。向上之機雖已曉。中下之根又若何。
師云。領取鈎頭意。莫認定盤星。
問。須菩提唱無說而顯道。未審和尚以何顯道。
師云。山僧口似鐵。
上堂云。擊鼓上來。大家覩見。法法現前。不勞鍛鍊。諸禪德。為什麼如此。彼彼大丈夫。為君通一線。
上堂云。動靜不禪。去來常定。萬派同源。海雲自異。可謂心境一如。有何不可。然雖如是。且道衲僧分上還得也無。良久云。天台柳[木*栗]木。南嶽萬歲藤。
上堂云。極目青天無片雲。萬象森羅全體露。若也擬議更商量。終是翻成箇路布。不煩久立。歸堂喫茶去。
上堂云。握須彌於掌內。鑑十方於目前。且道是什麼人分上事。所以雲門大師云。三藏聖教在汝舌頭上。微塵諸佛在汝脚跟下。不如悟去好。忽若築著磕著。東西不辨。南北不分底。又作麼生。良久。云。存得五湖明月在。不愁無處下金鈎。
上堂云。平旦寅。扶桑日出照何人。箇中未了奔南北。孰知大地一微塵。雖然如是。會得甚奇特。不會亦最親。
上堂云。一法不通。萬緣方透。山河無隔礙。靈光觸處明。且道眼為甚麼不見眉毛。祇為住處大近。未免衲僧取笑。既不恁麼。又作麼生。鉢盂無底尋常事。面無鼻孔笑殺人。

潭州道林廣慧寺寶琳禪師

蘇州人也。東禪院受具。少習經論。妙通精義。遂扣禪室。發明祖意。圓通禪師常所印可。大丞相王公安石亦深器重。出世廣德興教。次移池陽景德。廬山萬杉。潭師請居道林。學者歸仰。都尉張侯敦禮奏以章服。
問。德山棒。臨濟喝。未審和尚如何為人。
師云。總不恁麼。
僧曰。又作麼生。
師云。自領出去。僧便喝。
師云。遮聾漢。僧無語。
師云。非但患聾。亦乃患啞。
問。淺聞深悟。深聞不悟。雲門道了。和尚作麼生。
師云。頭戴天。腳踏地。

僧曰。學人未曉。
師云。有口不可閑却。
僧曰。若然者。飢來喫飯困來眠。
師云。不妨會得好。
師云。揚眉瞬目。不當宗乘。舉古提今。殘羹餽飯。一棒一喝。未稱衲僧。踞坐思量。傍觀者醜。且道作麼生是衲僧本分事。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
上堂云。近日稍春寒。寥寥宇宙寬。山河無隔礙。世界掌中觀。無口盧行者。饒舌是豐干。三日不相見。莫作舊時看。拈拄杖云。會麼。棒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裏看。
上堂云。今朝五月五。百草靈苗誰不覩。善財採藥與文殊。殺活臨機互為主。禪家流。莫莽鹵。眨上眉毛好看取。信手拈來知不知。甜者甜兮苦者苦。
上堂云。雲收嶽面。日上扶桑。颯颯寒風。紛紛敗葉。瀟湘江內。白浪滔天。廣惠門前。地平如掌。若也知有底衲僧。穩坐太平。其或未然。不免撈天摸地。

江寧府保寧寺子英禪師

錢唐人也。稟性介潔。儀範清肅。撥草瞻風。尋師擇友。詣圓通禪師法席。師資緣契。針水相投。遂歷湘·沅·荊·楚。所至叢林。雲徒蟻慕。請居夾山。次移二聖·廬山羅漢·太平隱靜·金陵鳳臺。都尉張侯敦禮聞師道風。奏賜章服。
問。如何是夾山境。
師云。疊疊好山來不盡。滔滔泉水濟無窮。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柳[木*栗]慣將衝鳥道。衲衣常挂五雲濃。
僧曰。祇如宗乘。若何指示。
師云。鐵牛耕大地。
問。如何是第一句。
師云。俊鶻趁不及。
僧曰。如何是第二句。
師云。橫身該宇宙。
僧曰。如何是第三句。
師云。撈天摸地。
僧曰。三句已蒙師指示。目前一句又如何。
師云。孟夏漸熱。
問。山河大地不作眼見耳聞時如何。

師云。祇恐不與麼。
僧曰。便與麼時如何。
師云。山高水深。僧無語。
師云。幸自可憐生。剛被佗謾却。
師云。有大曠宅。不居門戶。靈靈常在。今古無虧。不問路頭。誰人得入。善於中止。受用無窮。獲大安隱。周遊無際。雖然如是。更須知有水不洗水一句。參。
上堂云。有一人攪長河為酥酪。變大地作黃金。握驪珠於掌中。縱遊戲於目際。此人堪受四事供養。有一人奪飢人之食。驅耕夫之牛。然後見山是山。見水是水。此人亦堪瞻之仰之。有一人片帆不挂。棹艫俱停。獨宿沙洲。月明四海。此人亦堪頂戴奉行。一人在前。一人在後。一人居中。透關者。試請辨看。
上堂。拈拄杖云。日月不能並明。河海不能競深。須彌不能同高。乾坤不能同固。聖凡智慧不及。且道遮箇有什麼長處。良久。云。節目分明。生來條直。冰雪敲開片片分。白雪點處承伊力。擊禪牀。下座。

撫州明水法遜禪師

問。向上宗乘即不問。明水波濤事若何。
師云。探珠宜浪靜。
僧曰。未審如何趣向。
師云。一任摸[打-丁+索]。
問。如何是明水境。
師云。石門路嶮。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口方四字。
僧曰。未審更有事也無。
師云。遊子不知春已去。誤聽黃鸝作杜鵑。
師云。萬法萬形。皆逐心成。孤光一照。萬慮俱清。隨方任器。逐晦隨明。芥納須彌無寬窄。毛吞巨海不虧盈。參。
上堂云。妙覺非遙。能仁不遠。出入不離。相隨動轉。若於今日識渠。不在當時鹿苑。參。
上堂云。沙門上士。道眼為先。窮本明心。方為究竟。森羅萬象。本有同源。廓落太虛。誰云有滯。塵劫來事。祇在如今。蓋是心迹不通。識情所礙。所以三世諸佛盡在目前。諸人還見麼。良久。云。一二三四五。各各面相覩。參。

興元府慈濟聰禪師

問。騎牛覓牛即不問。天然脫灑意如何。
師云。卸却[(虺- 兀+元)- 虫+骨]臭布衫。
僧曰。布衫已卸了也。
師云。脫灑事即不問。牛在什麼處。
僧曰。咩。咩。
師云。幾乎放過。
問。如何是道。
師云。此去長安三十七程。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撞頭磕額。
問。不是風動。不是幡動。未審是什麼動。
師云。低聲。低聲。
問。如何是隨色摩尼珠。
師云。青青翠竹。鬱鬱黃花。
僧曰。如何是正色。
師云。退後。退後。
問。釋迦已滅。彌勒未生。未審誰為導首。
師云。鐵牛也須汗出。
僧曰。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細看前話。
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
師云。陝府鐵牛。
師云。三乘教典。不是真詮。直指本心。未為極則。若遇通心上士。脫灑高流。出來相見。乃顧視大眾云。休。
上堂云。終日孜孜相為。恰似牽牛上壁。大眾。何故如此。貪生逐日驅驅去。喚不迴頭爭奈何。
上堂云。一即一。二即二。把定要津。何處出氣。乃拈拄杖云。彼自無瘡。勿傷之也。卓一下。

安州白兆山通慧珪禪師

問。諸佛出世。建立法門。和尚出世。以何垂示。
師云。雲收千嶂碧。雲霽八方明。
僧曰。朝遊羅浮。暮歸檀特。
師云。脚跟下事作麼生。僧拊掌一下。
師云。作家禪客。

僧曰。也不消得。
師云。山僧失利。
問。收來放去即不問。古佛家風事若何。
師云。一回舉著一回新。
僧曰。和尚豈無方便。
師云。自是蒲繩短。休嫌古井深。
師云。幸逢嘉會。須採異聞。既遇寶山。莫令空手。不可佗時後日。門扇後壁角頭。自說大話。也無利益。然則此事。問與不問。亦無得失。何也。窮天地。亘古今。即是當人一箇自性。於是中間更無佗物。
諸人每日行時行著。臥時臥著。坐時坐著。祇對語言時。滿口道著。以至揚眉瞬目。瞋喜愛憎。寂默遊戲。未嘗間斷。因甚麼不肯承當。自家歇去。良由無量劫來。愛欲情重。生死路長。背覺合塵。自生疑惑。譬如空中飛鳥。不知空是家鄉。水裏遊魚。忘却水為性命。何得自抑。却問傍人。大似捧飯稱飢。臨河叫渴。
諸人要得休去麼。各請立地。定著精神。一念回光。豁然自照。何異空中紅日。獨運無私。盤裏明珠。不撥自轉。然雖如是。祇為初機。向上機關未曾踏著。且道作麼生是向上機關。良久。云。仰面看天不見天。

壽州霍丘歸才禪師

問。如何是祖師密密意。
師云。佛眼覷不見。
僧曰。為什麼覷不見。
師云。密密意。
問。一言相契時如何。
師云。丹霄顯露。
僧曰。不假一言時如何。
師云。帶水拖泥。
問。撥塵見佛時如何。
師云。眉長三尺。
師云。若於遮裏悟去。迴脫根塵。不拘文字。便乃坐機報化佛頭。高步毗盧頂上。頓超三界物類。無拘妙用也。變作金毛師子。向須彌山頂哮吼一聲。群魔膽裂。驀拈拄杖云。休向清涼山裏墜根。且在霍丘城下拈出。還見麼。若也以見見之。為常見。若也無見見之。為斷見。前來葛藤一時畫斷。見即不見。還見麼。良久。云。前村深雪裏。昨夜一枝開。

廬州長安淨名法因禪師

問。祖意西來即不問。法令當行事若何。

師云。拄杖點頭。

僧曰。要用即用。

師云。非公境界。

師云。天上月圓。人間月半。七八是數。事却難筭。隱顯不辨即且致。黑白未分一句作麼生道。良久。云。相逢秋色裡。共語月明中。參。

上堂云。祖師妙訣。別無可說。直饒釘觜鐵舌。未免弄巧成拙。淨名已把天機泄。珍重。

太平州蕪湖縣吉祥訥禪師

問。昔日鳳凰臺畔。已得圓通之機。今朝坐斷要津。願唱西來之曲。

師云。日出卯。用處不須生善巧。

僧曰。學人今日得聞於未聞去也。

師云。心不負人。面無慙色。

僧曰。可謂清音通碧漢。古曲盡咸聞。

師云。逢人但恁麼流通。

師云。諸佛不出世。亦無有涅槃。祖師不西來。亦無所傳授。若一向恁麼去。釋迦老子飲氣吞聲。放一線道。過遮邊來。便見有佛有祖。有師有承。山僧到遮裡。進前不得。退後無門。不免露箇消息。也要大家知委。還相悉麼。良久。云。霹靂一聲驚宇宙。幾人猶在夢魂中。

師到隱淨。上堂云。五峯影裏。雙澗聲中。草木青葱。烟雲澹泞。風光溢目。觸處可觀。然雖如是。祇如撞著道伴一句作麼生道。還知落處麼。良久。云。玲瓏八面自回合。峭峻一方誰敢窺。復云。嘯月吟風水石間。忘機贏得此心閑。無端打破空狼籍。羞對白雲歸舊山。

廬州廣惠冲雲禪師

問。如何是廣惠境。

師云。古栢含烟翠。喬松帶雪寒。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一瓶淨水一籠燭。童子念經僧坐禪。

師云。法界性海。非三界可觀。解脫法門。絕一塵可示。蓋由性靈不等。根器差殊。故諸佛出興。隨緣設教。或茶坊酒肆。徇器投機。或柳巷長街。優游自在。種種施為。盡入薩婆若海。恁麼說話。耻佗先聖。不見古人道。赤肉團上。壁立千仞。百尺竿頭。如何進步。良久。云。搬手到家人不識。更無一物獻尊堂。珍重。

浮槎山福嚴守初禪師

問。如何是受用三昧。

師云。拈匙放筯。

問。如何是正直一路。

師云。踏不著。

僧曰。踏著後如何。

師云。四方八面。

問。學人便恁麼會時如何。

師云。錯。

僧曰。如何得不錯。

師云。且看前話。

師云。若論此事。放行。則曹溪路上月白風清。把定。則少室峯前雲收霧卷。如斯語論。已涉多途。但由一念相應。方信不從人得。大眾。且道從什麼處得。良久。云。水流元在海。月落不離天。上堂云。即性之相。一片晴空。即相之性。千波競起。若徹來源。清流無阻。所以舉一念而塵沙法門頓顯。拈一毫而無邊剎境齊彰。且道文殊。普賢即今在什麼處。下坡不走。快便難逢。便下座。

鼎州德山仁繪禪師

問。如何是不動尊。

師云。來千去萬。

僧曰。恁麼則脚跟不點地。

師云。却是汝會。

師云。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山僧即不然。至道最難。須是揀擇。若無憎愛。爭見明白。

澧州聖壽香積用旻禪師

上堂云。木馬衝開千騎路。鐵牛透過萬重關。木馬鐵牛即今在什麼處。良久。云。驚起暮天沙上鴈。海門斜去兩三行。

筠州瑞相子來禪師

師顧視云。夫為宗匠。隨處提綱。應機問答。殺活臨時。心眼精明。那容妖怪。若也棒頭取正。喝下承當。埋沒宗風。耻佗先作。轉身一路。不在遲疑。一息不來。還同死漢。大眾。直饒到遮田地。猶是句語埋藏。未有透脫一路。敢問諸人。作麼生是透脫一路。還有人道得麼。若無人道得。山僧不免與諸人說破。良久。云。玉離荊岫寒光動。劍出豐城紫氣橫。

廬州真空從一禪師

問。一請便來時如何。

師云。快便難逢。

僧曰。昨朝衲子。今日禪師。

師云。兩彩一賽。

僧曰。雲門道。南山起雲。北山下雨。意旨如何。

師云。非公境界。僧擬議。師便喝。

師云。心鏡明鑒無礙。遂拈起拄杖云。喚遮箇作拄杖。即是礙。不喚作拄杖。亦是礙。離此之外。畢竟如何。要會麼。礙不礙。誰為對。大地山河。廓然粉碎。

廬州承天資福月禪師

問。如何是廬州境。

師云。千里風威肅。重城角韻清。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歌廉雖起袴襦詠。借劍難留柱石材。

師云。信知此事。西竺首傳迦葉。域中祖令剛行。東土後付盧公。教外真風不墜。分燈列派。徇器投機。自古及今。聖賢間出。豈可以小根小智而能紹續祖宗。發顯真猷。稱揚斯事。然雖如是。事無一向。豈不見先德道。最初說法者。不知有末後句。末後說法者。不知有最初句。最初句即且致。作麼生是末後一句。還有人道得麼。良久。云。珍重。

南京寧陵安福子勝禪師

問。妙峯頂上即不問。半山相見事如何。

師云。草裡漢。

問。若立一塵。家國興盛。不立一塵時如何。
師云。有眼無耳朵。六月火邊坐。僧便歸眾。
師云。三十六計。走為上計。隨後便打。
師云。問處風馳電卷。答處海納眾流。檢點將來。有甚用處。何也。且大道虛曠。孰以言宣。法無去來。本非出沒。自古自今。何曾有異。靈光不昧。體露真常。心本空寂。境自不生。境既不生。性本常住。可謂一切諸法皆悉圓成。是故先覺有言。法本法無法。無法法亦法。今付無法時。法法何曾法。
諸仁者。佗既恁麼告報。諸人何不直下承當。若也承當得去。能於般若光中遊華藏世界。縱橫自在。妙用無邊。擬議思量。翻成路布。毫釐情念。事相不忘。往復輪迴。何有休息。殊不知凡之與聖皆是虛名。異相種形。本來幻色。若能自信。曠劫塵勞。冰消瓦解。如是則十方世界一口吞盡。何處更有一[糸*系]毫為隔為礙。雖然如是。敢問諸人。祇如達磨西來。九年冷坐。徒箇什麼。良久。云。不要疑著。
上堂云。萬木蕭疎。群峯葉落。巖松古栢。四季長青。林下相逢。更說什麼。若也揚眉瞬目。又是鬼弄精魂。更或拈拂敲牀。大似隔鞦抓痒。築著磕著。頭漲面赤。到遮裏。如何得恰好。良久。云。借居一片閑田地。獨對高峯為舉揚。參。

舒州甘露德顯禪師

問。知師已得圓通旨。未番如何指示人。
師云。晝見日。
僧曰。學人不會。
師云。夜見星。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詞須搖頭。哭須皺眉。
問。如何是最初一句。
師云。梁王不識。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獨自悽悽。
師云。梅檀林中更非佗木。並是根生土長。出現世間。花果枝條。悉皆茂盛。優鉢羅花。時一現耳。直得聖凡聚首。遠近同觀。觀則不無。且道承誰覆蔭。良久。云。南山起雲。北山下雨。
上堂云。早朝擊鼓。勞動諸人。古佛叢林。事不獲已。直饒德山一棒。似倚天長劍。臨濟一喝。如旱地爆雷。盡是倚勢欺人。無風起浪。山僧今日過犯彌天。留與諸方檢點。

金陵正覺道清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倉陳米飯淡黃齏。

問。如何是切急處。

師云。庫宇半成。方丈基足。

金陵天禧宗永慧巖禪師

問。九年面壁。圖箇什麼。

師云。天蓋地載。

僧曰。昔時達磨。今日天禧。

師云。多年曆日。

問。正當恁麼時。佛法在什麼處。

師云。爾鼻孔裏。

僧曰。恁麼則氣急殺人。

師云。也有些子。

襄州鳳凰山乾明廣禪師

上堂云。日頭東畔出。月向西邊沒。來去急如梭。催人成白骨。山僧有一法。堪為保命術。生死不相干。打破精靈窟。咄。咄。是何物。不是眾生不是佛。參。

上堂云。今日中秋夜月。不是衲僧時節。雖然十分圓明。來朝依舊還闕。人人有面古鏡。照天照地無別。從來一向圓明。且道是誰家風月。禪人若暫回頭。演惹達多心自歇。參。

饒州安國自方禪師

上堂。普視大眾云。還會麼。一切見成。不用絲毫心力。但盡凡心。別無聖解。所以道。觀身實相。觀佛亦然。前際不來。後際不去。今則無住。無住之本。流出萬端。萬象森羅。一時驗取。

廬州澄慧義端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泥捏金裝。

僧曰。如何是法。

師云。海口難宣。
僧曰。如何是僧。
師云。剃頭洗鉢。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不妨惺惺。
師云。春山青。春水碧。隨波逐浪成虛擲。若能返究本來源。萬派分流聲瀝瀝。問爾諸人識不識。忽若識。免效當年空面壁。

廬州北天王崇勝益禪師

上堂云。宗門祖令。徒自緘言。坐斷妙峯。一口吞盡。黃河倒瀉。崑崙鐵牛。橫身宇宙。到遮裏。却須有出身一路。良久。云。玉馬嘶時金斗轉。金雞啼處日光生。參。
上堂云。靈源湛寂。動靜一如。萬法本空。隨緣而照。方圓任器。應用無私。亘古亘今。了然自在。所以在天旋之不動。在江注之不流。寂而不凝。動而不亂。運用千般。隱無滯礙。然雖如是。爭柰祖宗門下總不用著。敢問諸人。且道衲僧家有什麼奇特處。乃拈拄杖橫按膝上。云。會麼。七星光燦爛。舉動耀乾坤。卓一下。

衛州元豐院宗燈禪師

開堂日。問。梵王請佛。蓋為群生。府主請師。當為何事。
師云。知恩方解報恩。
僧曰。金粟不知何處去。裴公今日入山來。
師舉拂子云。還見麼。
問。選佛場開。如何顯道。
師云。雲離山勢聳。
僧曰。學人未曉。
師云。雷出地聲高。
僧曰。更有奇特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三尺冷光輝夜月。一條流水迸人寒。

廬山棲賢智柔庵主

投機頌曰。
二十年來行脚。走盡東京西洛。

如今却到棲賢。一步不曾移著。

東京法雲禪寺惟白佛國禪師(向下語句已曾 進上)

元符三年二月十六日 哲宗皇帝五七。奉 聖旨就 福寧殿陞座。
拈香罷。問 大行皇帝上仙。未審即今居何報土。
師云。不居兜率陀天上。便在蓮花世界中。
僧曰。恁則麼靈然一句超群象。迥出三乘不假修。
師云。須是恁麼人。方能恁麼去。
僧曰。還許學人露箇消息也無。
師云。 聖明天子畔。一任展宗風。
僧曰。九品蓮開親見佛。百千菩薩共遨遊。
師云。不妨道著。
問。奉 勅陞堂於此日。師將何法報 君恩。
師云。雪嶺泥牛吼。雲門木馬嘶。
僧曰。恁麼則龍樓生瑞氣。鳳閣鎖祥雲。
師云。昨宵南斗上。已現老人星。
僧曰。可謂萬邦謨有道。四海賀昇平。
師云。人祝千年壽。山呼萬歲聲。
僧曰。若然者。非但黎民陶聖化。釋門從此轉光輝。
師云。皇天無親。惟德是輔。
問 仙遊忽遠。鸞駕難追。未審祖意西來。如何舉唱。
師云。到頭霜夜月。任運落西山。
僧曰。祖意已蒙扶往駕 大行神御化何方。
師云。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 國恩。
僧云。諸佛出世。天雨寶花 吾皇即位。有何祥瑞。
師云。上苑百花發 皇家萬事新。
僧曰。若然者 帝日與佛日增暉。 皇風並祖風永扇。
師云。萬國已歡心。
師云。人天正眼。處處分明。佛祖妙心。堂堂顯露。玉池春水。澄湛法身。金殿香氤。含容妙體。龍樓聳峻。普賢家風。鳳閣穹崇。文殊寶界。御溝柳綠。盡顯真如。上苑花紅。全彰般若。重重交映。杳杳難思。瑞氣凝空。祥烟遍界。毗盧花藏。與此無殊。慈氏園林。何曾有異。到斯境致。各請觀瞻。頓悟自心。同登佛刹。還委悉麼。 前佛已滅 今佛出現。放無量光。照無量國。遇斯光者。悉獲清涼。所以對 御闡揚。報 皇恩德。使舜日佛日明徹乾坤。堯風祖風均和法界。敢問 皇恩佛恩如何即是。遂顧視大眾

云。如天普覆。似地普擎。有如是威權。有如是覆載。既然如是。作麼生報。

良久。云。泥牛吼處山河靜。木馬嘶時日月明。臣僧惟白伏奉 勅旨。就 大行皇帝靈御前陞座。舉揚般若。上資 仙駕。恭想 大行皇帝出為 聖主。十有六年。垂衣九重。恩霑四海。崇際三教。子育萬方。一旦 上仙。闔國悲慟。時光迅速。五七俄臨。今日廣集緇徒。興揚佛事。伏願 大行皇帝睿性圓明。千光顯著。聖身自在。萬德莊嚴。快樂土中。蓮華捧足。率陀天上。銖衣遶身。復振神威。保佑邦國。恭惟 我皇帝陛下。受如來記。現如來身。得如來智。作如來事。一登 寶位。萬國歡心。天下生民。忻逢瑞世。域中禪律。獲際 昌時。伏願 統七聖靈基。千千億歲。踐百王功業。萬萬 餘春。玉葉騰芳。金枝挺秀。 皇太后力扶 聖嗣。同理政機。伏願 萬年松壽。千歲鶴齡。道贊 明君。功資帝業。

皇太妃 皇后。昔日靈山授記。今朝同贊 皇家。伏願各悟本心。即如如佛。

親王國族。宮禁嬪妃。一聞般若正因。同圓金剛種智。久瀆 聖聰。伏惟珍重。

四月二十二日。百日入內。再奉 聖旨。就 福寧殿 大行皇帝靈御前陞座。 聖旨令五院長老問話。師拈香云。此香從 天降下。因地所生。非因象藏龍宮。宛勝雪山牛首。今遇 國家興隆佛事。焚向爐中。普熏法界。遍為祥瑞。伏願 大行皇帝。巍巍佛相。隨諸佛下生。落落 天姿。同天人自在。遂敷座。 華嚴長老出眾云。 福寧殿上。選佛場開。幸對 聖人前。不免通箇消息。

師云。來風深辨。

問。世尊三轉法輪於大千。其輪本來常清淨。今日追薦 大行皇帝。請師當轉法輪。

師云。萬里浮雲消散盡。一輪紅日正當軒。

老曰。金輪與法輪齊轉。 帝道與祖道光輝。

師云。三宮有道安盤石。萬國歸心用老臣。

老曰。言言斬釘截鐵。句句玉轉珠回。

師云。山河王國土。水月佛家風。

老曰。恁麼則觸目對揚真般若。山河共顯法王機。

師云。且領前話。

老曰。馮師一句語。千古作流通。

師云。天下已知。

褒親長老問。不省遮箇意。修行徒苦辛。如何是遮箇意。

師云。言中須辨的。
老曰。遮箇已蒙師指示。未審那箇又如何。
師云。句下自明機。
老曰。恁麼則却於言外薦。不向意中求。
師云。何不當機問。
老曰。未審 大行皇帝祇今向什麼處去。
師云。金烏已是明當午。玉兔還須照別天。
老曰。若然者。翠栢風搖心地印。日華光映舍那身。
師云。直往鷲峯陪聖眾。不來人世逐浮華。
淨因長老問。雲從龍。風從虎。未審虛空從箇什麼。
師云。目前驗取。
老曰。莫將名利垢。染污祖師心。
師云。驗人端的處。下口便知音。
老曰。不唯上達 君王耳。四海如今已盡知。
師云。一任流通。
慧林長老問。相逢不拈出。舉意便知有。作麼生是知有底事。
師云。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
老曰。遮箇猶是古人底。
師云。長老作麼生。長老擬議。
師喝云。掣電之機。徒勞佇思。
智海長老問。香煙起處。大施門開。正令當行。如何舉唱。
師云。臨濟當機用。雲門向上關。
老曰。祇如今日一會又且如何。
師云。用賢彰 帝業。崇佛見天心。
老曰。未審 大行皇帝生何報土。
師云。去去西天路。迢迢十萬餘。
老曰。萬字光中同帝釋。千花座上禮牟尼。
師云。大家讚歎。
左街首座妙覺大師纔出云。劒逢劒客須呈劒。禪遇 君王好問禪。
師云。正好施設。
問。帝里禪居。昔日 神宗之所建。佛祖禪機。今朝 二聖之親聞。向上宗乘。分明舉唱。
師云。三乘教法秋天迴。一片禪心月色高。
座曰。莫便是向上宗乘也無。
師云。領取當機語。不用別追求。
座曰。若然者。頭頭是道。句句明心。
師云。現成法爾。普請承當。

座曰。古者道。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萬物得一以生。 二聖得一為天下正。如何是得一之道。

師云。梧桐枝上看。已產鳳凰兒。

座曰。离明繼照三邊肅。聖得重光四海清。

師云。已傳 天子令。萬國賀昇平。

師乃云。佛佛授手。祖祖相傳。且道傳箇什麼。還相委悉麼。蓮眸一顧。正法眼藏流通。寶鉢親持。少室宗風大扇。遂有竺乾四七。震旦二三。續燄聯芳。分枝列派。不由異轍。直指當人。言下明心。句中見性。稱機稱理。亘古亘今。獨運靈光。潛符密證。棒頭薦得。明月千溪。喝下承當。白雲萬里。金鷄唱曉。芻犬吠明。石女投梭。木人舞袖。象王驟步。師子奮威。虎嘯風生。龍吟霧起。卷舒自在。超越聖凡。本無去來。何有生滅。既然如是。且道 大行皇帝祇今在什麼處。

良久。云。此去西天路。迢迢十萬餘。臣僧惟白恭想 大行皇帝二十五歲 現帝王身。一十六年富有華夏。忽棄四海。頓捨萬民。追仰 聖容。杳然何在。向當五七。已集僧徒。今辰百日。又興佛事。臣僧惟白兩荷 聖恩。勅令演法。此蓋 今上皇帝陛下。寶月智光如來示身為金輪聖王。 登大寶位。布大恩庥。率土歡呼。普天稱慶。 聰文睿武。頓掩百王。 恭儉仁慈。繼揚七聖。蒸蒸大孝。統御華夷。翼翼小心。撫安民俗。

復遇 皇太后四十年間。母儀天下。 四朝萬世。 德冠宮中。 道合無疆。 功資有截。保祐 聖嗣。同理萬機。追念 先皇。崇斯法會。 皇太妃· 皇后共展孝心。用資報土。遂使禪流則舉唱宗乘。法師則闡揚教義。集其殊利。上助 仙遊。伏願 大行皇帝聖心明徹。 神鑒照然。 天表如生。諦聞舉唱。觀音前引。勢至後隨。 坐寶蓮華。遍登佛刹。放白毫瑞。現金相身。運大慈悲。又安宗廟。不忘願力。普利生民。久瀆 聖聰。伏惟珍重。

師於建中靖國元年二月十七日。 大行皇太后五七。奉 聖旨就慈德殿陞座。師拈香云。雞林貢到。枉涉於鯨波。鷲嶺馳來。徒經於沙勒。蛇婆入進。未足於清芬。燕水遠投。不全於旖旎。爭如此香是 炎宋大國。現在佛心地中生。滿天馥郁。諸菩薩性海內出。遍界氤氳。今日對斯 玉陛。焚向金爐。不唯助薦 大行皇太后仙游。亦乃上祝 皇圖永固。便焚香。敷座。

問。慈德參天。想 仁風而猶在。 聖心至孝。念親愛以何之。茲日薦嚴。憑何妙旨。

師云。龍樓新燕語。御柳野鶯啼。

僧曰。恁麼則不動步而登夜摩天。不動步而昇彌勒樓閣。

師云。祖燄續時光燦燦。覺花開處葉重重。

僧曰。一人有慶。萬古歡心。
師云。九重 城裏千花秀。五鳳樓前萬姓歌。
僧曰。若不伸此問。爭顯我師機。
師云。更進一句。方得話圓。
問。少室峯前。壁立千仞。曹溪路上。水泄不通。未審法雲門下又
且如何。
師云。芻犬吠時天地合。木鷄啼處祖燈輝。
僧曰。可謂一句了然超百億。句句分明在目前。
師云。龍吟春霧起。虎嘯暖風生。
僧曰。圓音一剖周沙界。佛國光中轉更新。
師云。讚歎又爭得。
僧曰。分去直教沙界廣。收來應是不容針。
師云。何可當機問。
僧曰。請師當機答。
師云。且領前話。
問。堯風遐布。舜日當天。道被萬方。德崇三教。敢問教外別傳一
句作麼生道。
師云。龜毛長萬丈。兔角聳千尋。
僧曰。一句直超三教外。廓然全露祖師心。
師云。萬里浮雲盡。九衢春色多。
僧曰。五七薦嚴 皇太後。未知 仙馭往何方。
師云。六宮遺訓在。一月下遙天。
僧曰。步步金蓮生極樂。時時寶界禮彌陀。
師云。三朝為聖后。千古作規模。
僧曰。西祖之道蒙師指。南山祝壽又如何。
師云。曾到祝融峰頂上。萬年松帶雪霜青。
僧曰。七十二峰連碧漢。堪祝 吾皇萬萬春。
師云。山僧即不恁麼。
僧曰。和尚又作麼生。
師云。 七聖崇基歸有道。百王功業合無為。
僧曰。學人則無計上酬 天子德。唯憑朝夕一爐香。
師云。普請報 皇恩。
僧曰。拔萃優曇唯佛國。馨香別是一家春。
師云。不須人事。
問。三世諸佛說不到處。六代祖師搆不著底。 君王面前。請師施
設。
師云。祖月凌空圓聖智。佛燈光照 宋山河。
僧曰。飲光得處曾微笑。少室騰芳直至今。

師云。但能踏得曹溪路。了知生死不相干。
僧曰。一念不生全體現。歸源無處不通津。
師云。今日當機又且如何。
僧曰。祖意已蒙師指示。祝堯一句望稱揚。
師云。但看庭外栢。便是萬年枝。
師乃云。觀大海者難為水。登聖人門者難為言。且道今日登聖人門。說箇什麼即得。還委悉麼。適來惠林舉臨濟風規。淨因唱雲門機要。法雲到遮裏。試說見在佛家風。且作麼生是見在佛家風。恭以國朝以聖繼聖。安民養民。含育萬方。崇闡三教。所以窮孔子要道。則本仁祖義。潔行修身。於國於家。盡忠盡孝。俯仰高堅之冥象。顧瞻前後之樞機。學老君之道。則收視旋聽。養氣怡神。閉智塞聰。解紛挫銳。跳壺中之日月。藏瓢裏之乾坤。究如來至道。則大智發明。真源澄湛。修因契果。悟法了人。入七覺之茂林。行八正之徑路。
參祖師妙道。則頓悟自心。頓證本性。融和根境。透脫死生。即於一念之中。超越千聖之表。是以登孔子之門者。文場選官。遊老君之門者。神府求仙。入如來之門者。覺場選佛。升祖師之門者。雪庭悟心。而龍象蹴踏。人天開覺。六通自在。三德圓明。且道今日六院禪師。百餘雲眾。登聖人之門。作箇什麼。
良久。云。共將西祖傳來印。同助仙遊上寶方。此日大行皇太后五七之辰。臣僧惟白伏奉聖旨。舉揚宗風。憑此禪機。上薦仙馭。恭惟國家百五十年。建立太平。三千國土。齊心克順。八聖繼統。四后臨朝。坤德相高。母儀各勝。
且章獻明肅皇太后輔政仁宗皇帝四十餘年。萬方寧肅。休牛歸馬。偃武修文。三代未可比擬。兩漢何足所論。仁君仁心。盡善盡美。慈聖光獻皇太后輔政神宗皇帝。一登寶位。百度皆新。啟聖道之淵源。揚經術之旨義。聖明超於五帝。睿智掩於三皇。大振禪宗。廣崇佛刹。有家有國。未見未聞。宣仁聖烈皇太后輔政哲宗皇帝。十年保佑。一物不私。示天下以公正之明。訓宮庭唯儉素之節。撫綏萬姓。鎮靜四夷。天成地平。遐安邇肅。大行皇太后輔政今上皇帝陛下。切掩百王。德隆七聖。一言定冊。萬國歡心。生民胥戴於明君。夷夏喜逢於聖主。含和坤道。俾助乾儀。雖周時三母。未足比其勳謀。漢朝二后。詎可方其輔翼。又能勇退宮中。忽歸天上。自古希有。在今即無。恭想此德此恩。何思何報。我皇帝陛下堯仁自得。舜孝天資。自皇太后去冬服藥。至於元正。不出宮闈。躬瞻侍奉。旰食而春鶯已囀。宵衣而更漏愈長。藥餌親嘗。晝夜忘寢。凱風扇於區宇。琴韻洽於普天。昔聞有天子之大孝。今見陛下如斯之能行。所謂佛言得未

曾有。奈何 皇太后壽年已定。數不可移。掩質浮華。真歸佛土。 皇帝陛下哀情篤厚。聖孝始終。深思定冊之功。欲報生成之重。度僧尼道。精崇法會。 勅選禪眾。舉揚禪宗。集斯勝緣。上資 仙馭。

昔摩耶夫人。生我佛如來。升金剛之寶座。踞菩提之道場。作三界之人師。為四生之慈父。摩耶夫人却還天宮。與天自在。今 大行皇太后。立 今上皇帝陛下登金輪之寶位。居重屋之明堂。為千界之獨尊。作萬民之元首。 皇太后亦還天宮。與天自在。若也如是。今古同途。相續無間。如斯舉唱。還相委悉麼。其或未然。臣僧不免重說偈言。法筵龍象眾徘徊。遠想仙游不可陪。長樂宮中云逝去。率陀天上見歸來。七重欄楯隨雲步。九品蓮花簇寶臺。至竟要知何處是。裕靈山色起崔嵬。久瀆 聖聰。伏惟珍重。開堂日。問。為 國宣揚闡祖闡。九重城裏顯光輝。人人聳聽真消息。未審如何贊萬機。

師云。千歲鶴鳴華表柱。萬年松在祝融峯。

僧曰。恁麼則不忘昔日靈山記。祖道重興出 帝心。

師云。一爐香火僧家事。此日將醞 聖主恩。

問。梵王請佛。蓋為群生。大主請師。合談何事。

師云。昨日長空雨。今朝天地清。

僧曰。喜氣遠將和氣合。爐煙分作瑞煙浮。

師云。須彌橫海上。卓爾壽山高。

僧曰。願將此日興隆事。為潤為霖報 主恩。

師云。恩深轉無語。懷抱自分明。

師乃云。鷲峯山頂。燄續千燈。熊耳巖前。花開五葉。燈燈互照。葉葉騰芳。明徹古今。馨香遍界。所以闡揚宗旨。各稟師承。談經者。克明因果。詮顯真乘。秉律者。洞達開遮。堅持軌則。演論者。研窮妙理。剖判淵微。習禪者。頓悟本心。提佛祖印。即證解脫。透出根塵。然雖如是。本分衲僧總不恁麼。還會麼。雲門木馬。日日嘶風。雪嶺泥牛。時時吼地。吹無孔笛。韻出青霄。彈勿絃琴。音聞碧落。綿綿不漏。杳杳彌綸。妙性靈機。言思路絕。若能如是。真大丈夫。轉妙法輪。助 聖明化。如斯舉唱。誰為證明。

良久。云。將此深心奉塵刹。今日分明報 國恩。惟白生逢瑞世。出際昌時。遭逢 皇帝陛下垂衣寶位。統御金輪。啟佛大智。日應萬機。運佛大慈。澤及萬物。證佛妙心。含容萬法。明佛知見。統攝萬方。

故禪林講肆。繼祖傳宗。緬思自古。無如今日。天下禪門。孰不欣幸。即將此日開堂。舉揚般若勝利。上延 皇帝聖筭無窮。玉葉含

春。金枝挺秀。越國大長公主。大尉留後。發菩薩心。修菩薩行。
淨菩薩慧。起菩薩願。
奏聞 神宗皇帝建此梵宇。十五餘年。三招宗匠。舉揚大事。誠非
小緣。授佛摩頂。遂致如斯。伏願 道性純明。真機濬徹。壽山增
峻。福海汪洋。 諸王天眷。內外宰僚。各各運 聖人籌策。佐
天地權衡。永護祖風。不忘佛記。在會檀那。隨喜法眾。一聞舉
唱。永悟心宗。不待龍華。便成佛果。久立眾慈。伏惟珍重。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七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杭州佛日山智才禪師法嗣

澧州夾山靈泉自齡禪師

姓周氏。宜興人也。受業於本州福聖寺。十八具戒。志慕參遊。造佛日才禪師法席。悟明心要。乃為執侍。才既遷化。復歷諸方。潭州大溈山真如禪師請為座元。初住興化。出世闡揚。

問。金雞啄破瑠璃殼。玉兔挨開碧海門。此是人間光影。如何是祖師機。

師云。針筭不入。

僧曰。祇如朕兆未生已前作麼生道。師舉起拂子。

僧曰。如何領會。

師云。斫額望扶桑。

問。混沌未分時如何。

師云。春風[颶-台+弗][颶-台+弗]。

僧曰。分後如何。

師云。春日遲遲。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一年三百六十日。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撥開天眼。按下雲頭。

僧曰。出世後如何。

師云。四海波濤靜。一輪天地寬。

問。如何是時節因緣。

師云。秋池月寫樓臺影。滿檻風傳鼓角聲。

僧曰。恁麼則嶽麓峰前雲鬢鬣。澧陽江內浪滔天。

師云。一任鑽龜打瓦。

上堂。良久。云。不須辨妄求真。不用避喧取靜。人人杲日當空。處處玄機獨迴。瞿曇不守本分。獨坐妙峰孤頂。廣說海藏言詮。一如擔雪填井。更云法眼衣盂。分付頭陀守領。西天四七綿綿。東土

二三永永。秀師拂拭塵埃。大似臨嫁醫癭。老盧半夜三更。著忙走過東嶺。至今子子孫孫。一半瞌睡未省。

上堂云。儼老當頭擊鼓。沙彌捧鉢作舞。南泉打破粥鍋。走了狸奴白牯。參。

上堂。良久。顧大眾云。日裏走金烏。誰云一物無。趙州東壁上。挂箇大葫蘆。參。

上堂。良久。畫一圓相云。大眾。五千餘卷詮不盡。三世諸佛讚不及。令人却憶賣油翁。即忙走下繩床立。參。

上堂云。列祖風規。毫釐靡虧。明明有據。落落無依。大眾。竿頭直須進步。盡餅不可充飢。豈不見香嚴擲磔。頓發真機。可笑今年貧更殺。失却舊年錐。參。

上堂云。便乃忘機守默。已被金粟占先。擬欲展演詞鋒。落在瞿曇之後。離此二途。作麼生是衲僧透脫一路。良久。云。好笑南泉提起處。刈茆鎌子曲彎彎。參。

上堂。喝一喝。云。是什麼時節。日暖風和。三春二月。家家門戶大開。處處百花鬪發。王老擡眸。靈雲漏泄。

師復舉起拳云。大眾。爾把取西瞿耶尼。還我北鬱單越。拍禪床一下。

東京惠林禪院若冲覺海禪師法嗣

東京永興華嚴佛慧禪師

諱智明。姓史氏。常州人也。及冠為僧。即慕參遊。緣契慧林覺海禪師。眾請出世。哲宗皇帝上仙百日入內。特賜佛慧禪號。

開堂日。問。知師久佩毗盧印。願開寶藏濟勞生。

師云。舉頭若具金剛眼。無限清輝盡屬君。

僧曰。今日小出大遇。

師云。未開口已前作麼生。

僧曰。却請和尚道。

師云。鷓子過新羅。

問。如何是華嚴境。

師云。重重無盡。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覲面相呈。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將謂是金毛師子。

問。魚龍難辨。玉石未分。祖意西來。如何指示。

師云。點。
僧曰。點鐵為金。一場富貴。
師云。莫將庭際栢。喚作路旁蒿。
僧曰。恁麼則迷來宛似蛾投火。悟去還如鶴出籠。
師云。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
問。彈指此心即不問。知音相見事若何。
師云。披蓑側笠千峯下。引水澆蔬五老前。
僧曰。恁麼則泥牛弄月波濤裏。石女吹笙火燄中。
師云。爾分上作麼生。
僧曰。學人若也通消息。祇恐難為碧眼胡。
師云。山僧今日失利。
問。相逢不擊出。舉意便知有。
僧提起坐具云。如今提起了也。和尚作麼生。
師云。謝爾布施。
僧曰。此是學人底。那箇是和尚底。
師云。將謂是衲僧。
僧曰。不但宗眼分明。亦乃師承有據。
師云。縮却舌頭。
師云。此一大事因緣。非神通之所到。非智慧之所詮。三世諸佛祇言自知。一大藏教譬喻不及。今人不了。妄涉塵勞。見惑由存。是非鋒起。殊不知法界融通。靈然不昧。包含萬有。觸處光輝。清風與明月交參。森羅共乾坤並秀。寒松古栢。不用思量。翠竹黃花。何須卜度。於斯薦得。上報佛恩。亦資國祚。良久。云。竟日不干清世事。一爐香篆祝堯年。珍重。
上堂云。春光燦燦。暖氣飄飄。萬木含烟。千花競秀。白雲散處。樓閣門開。碧霧收時。妙峰頂露。且道妙峰頂上一句作麼生道。良久云。共僧巖上坐。見客海邊行。
上堂云。若論此事。在天則列萬象而齊現。在地則運四時而發生。在人則出沒卷舒。六根互用。且道在山僧拄杖頭上又作麼生。良久。卓一下。云。高也著。低也著。

常州廣福曇章法照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春來花自發。
僧曰。學人未曉。
師云。秋至葉先凋。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頭角分明。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
師云。一二三四五六七。
僧曰。意旨如何。
師云。萬物皆從遮裡出。

鎮府水泰智航禪師

問。靈山微咲即不問。天鉢親傳事若何。
師云。花不亂墜。石不點頭。
僧曰。休說永嘉宿覺。不若立雪神光。
師云。鐵牛耕破嶺頭雲。
上堂云。散為器者。乃道之漓。適於變者。為法之弊。靈機不昧。亘古亘今。大用現前。何得何失。雖然如是。忽遇無孔鐵槌。作麼生話會。拈拄杖云。穿過了也。
上堂云。干將在手。縱奪臨時。主令全提。群魔膽裂。烟雲路斷。凡聖絕蹤。樓閣門開。知音何在。乃召大眾云。高著眼。
上堂云。龍騰碧漢。變化無方。鳳翥青霄。誰知蹤跡。可行則行。不出百千三昧。可止則止。寧亡萬象森羅。所以道。取不得。捨不得。不可得中祇麼得。且道得箇什麼。良久。云。莫妄想。

常州江陰壽聖子邦圓覺禪師

問。學人上來。請師說法。
師云。海底紅塵起。
僧曰。乞師方便。
師云。山頭白浪生。
問。祖意教意拈放一邊。如何得速成佛去。
師云。有成終不是。是佛亦非真。
僧擬議。師叱云。話頭道什麼。

真州長蘆崇福應夫廣昭禪師法嗣

滁州瑯琊山宗初禪師

問。朝宰請師陞寶座。如何方便示西來。
師云。多少分明。
僧曰。恁麼則法雨高霑了了堂。

師云。貧無達士將金濟。病有閑人說藥方。
僧曰。雲散始知江月白。座間方見老盧機。
師云。別處人事。
問。如何是瑯琊境。
師云。紅日照成金色界。秋烟染出碧瑠璃。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擡頭山萬朵。伴手一枝筇。
師云。若據祖宗門下。舉目則千山萬水。低頭乃十萬八千。更若展露言鋒。尋言究妙。譬若敲冰求火。緣木取魚。徒費精神。遠之遠矣。如斯語話。猶涉化門。且問諸人。不落化門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句無私。應之萬里。

滁州龍蟠山道成禪師

問。鎮海明珠初出水。今日當場欲借看。
師云。白雲收海面。紅日上天心。
僧曰。恁麼則一輪光彩照無窮。
師云。爍破羶體。
問。聞師已得黃梅旨。一法如何指示人。
師云。花開千朵秀。風動一江寒。
僧曰。瘦竹有高節。雲閑無定蹤。
師云。一曲楚歌愁殺人。
問。陽春已發。覺木初榮。寶座既登。請師說法。
師云。岸柳迎風舞。
僧曰。學人未曉。
師云。溪花向日開。
問。如何是龍蟠境。
師云。雲散千山翠。烟深隔兩鍾。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柳[木*栗]一條。衲衣三事。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瞌睡漢。
師云。信手拈來。無非妙用。靈知自性。歷劫常如。動靜隨緣。猶谷答響。分身百億。曲徇群生。灑甘露。沃蕉芽。布慈雲。談實相。咸歸至道。今古湛然。更須打辨精神。分明看取。諸仁者。還見麼。良久。云。秋水一泓長見底。澗松千尺不生枝。

真定府洪濟禪院宗蹟禪師

姓孫氏。洛州永年人也。少習儒業。稟性超然。滿禪師勉令奉佛。投圓通禪師出家。未幾。祝髮披緇。參廣照禪師。屢扣宗猷。未有開發。足方躡堦。忽然悟道。投機頌曰。
舉足上甄堦。分明遮箇法。
黃楊木畔笑呵呵。萬里青天一輪月。
遂陳其所悟。照乃可之。待制楊公畏命師出世。曾魯公宅奏賜椹服。
問。台星臨寶座。祖意願宣揚。
師云。萬里不挂片雲。
僧曰。恩深轉無語。
師云。唯有好風來席上。更無閑語落人間。
僧曰。千古淳風特地清。
師云。真師子兒。善師子吼。
問。四眾臨筵。請師說法。
師云。須彌山。大海水。
僧曰。我聞一唱三疑息。青蓮啟目視頭陀。
師云。畢鉢巖中如何話會。
僧曰。杲日當空。清風滿座。
師云。祇道得一半。
問。如何是古佛家風。
師云。祇覺春風吹我寒。不知明月為誰白。
僧曰。學人特伸請益。
師云。相逢秋色裡。此意與誰同。
問。達磨面壁。此理如何。師良久。僧禮拜。
師云。今日被遮僧一問。直得口啞。
上堂云。冬去寒食。一百單五。活人路上。死人無數。頭鑽荊棘林。將謂眾生苦。拜掃事如何。骨堆上添土。唯有出家人。不踏無生路。大眾。且道向什麼處去。還會麼。南天台。北五臺。參。
上堂云。鎮府蘿蔔頭。聲名播天下。雖則諸方老宿盡力提撕。然而多口衲僧齧嚼不破。先住禪師放下。又分付山僧。如今劈柈將來。奉為普通供養。良久。云。莫嫌冷澹無滋味。聊表禪家一片心。
上堂云。金風澹蕩。物景蕭條。葉落庭臯。雲飛嶺上。不逃暑而暑自退。無意涼而涼自來。正當恁麼時。若謂唯心境界。正是頭上安頭。若言一切平常。大似斬頭覓活。
上堂云。新羅別無妙訣。當言不避截舌。但能心口相應。一生受用不徹。且道如何是心口相應底句。良久云。焦軛打著連底凍。參。

歙州普滿明禪師

問。一佛出世。各坐一花。師今出世。為什麼却陞此座。
師云。一片紅雲起。千山地布金。
僧拈起坐具云。且道遮箇是什麼。
師云。不用皂絲麻線。
問。覲面相逢即不問。腦後神光略借看。
師云。不借看。
僧曰。為什麼不借看。
師云。賊是小人。
問。遠涉江山即不問。西來祖意事如何。
師云。摩憐西歸辭震旦。至今猶自笑兒孫。
僧曰。恁麼則諸聖入廬。殊無利濟。
師云。面壁九年空費力。得皮得髓太無端。
上堂。顧視大眾云。牙齒一把骨。耳朵兩片皮。從始至于今。禪人猶未知。諸仁者。祇恁麼會得。便是出塵羅漢。英靈丈夫。若也未然。江北江西問王老。一狐疑了一狐疑。參。
上堂云。吾祖家風豈涉途。失宗隨照用心麤。一言為報知音者。近日南能不姓盧。
上堂。顧視云。鐵牛不喫欄邊草。丫角牧童互相報。放在高坡臥白雲。任渠七顛與八倒。阿呵呵。債有頭。冤有主。拾得要打寒山老。參。
上堂。顧視大眾云。一佛手。二驢脚。生緣各各自斟酌。日出東方夜落西。甑頭太厚瓦子薄。錯。錯。前三三與後三三。莫道文殊對無著。參。

和州褒禪溥禪師

問。幸遇今朝登祖位。師將何法示迷情。
師云。獨耀無私。對揚有準。
僧曰。曇花纔綻。徧界馨香。
師云。爾分上作麼生。
僧曰。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
師云。且緩緩。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牡丹須是三春拆。
僧曰。學人未曉。
師云。黃菊還他九日開。
僧曰。恁麼則便是和尚為人處也。
師云。錯。

上堂云。洪機纒剖。大施門開。輝慧日於鋒前。啟驪珠於句後。全開寶藏。特決群疑。徑截千途。心隨萬化。現自在力。闡大威光。使一燈分照於十方。現片月流光於萬水。為凡聖之根本。作迷悟之源由。演唱一音。頓除疑網。包含萬有。密付群機。心眼既開。圓明自顯。智窮幽鑑。應用千差。舒卷現前。無非妙用。諸仁者向遮裡薦得。吼師子之音。奮象王之勢。祛差別之異見。了縛脫之殊途。為苦海之津梁。掌法王之寶印。權衡在手。明鏡當臺。可以摧邪輔正。可以去偽存真。現一道而清虛。僻群邪而體妙。圓光匪外。顯出一靈。豁開萬化之源。直示真空之理。諸仁者。還會麼。良久。云。皎然天地無私照。一道光明處處通。珍重。

滁州寶林禪院輝禪師

丹丘人也。幼歲從師。早登具戒。首依講肆。聽習台宗。續參長蘆廣照禪師。心眼通明。遂獲印證。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大海道底。

僧曰。為什麼燈燈相續。

師云。遞相鈍致。

問。水出高原。如何解會。

師云。古今流不竭。

僧曰。學人未曉。

師云。界破青山色。

僧曰。海底紅塵生。山頭白浪起。

師云。淹殺爾。

問。淺聞深悟尋常事。達磨迷逢意如何。

師云。頭戴天。腳踏地。

僧曰。忽遇三家村裏人。如何祇對。

師云。憂則共感。樂則同歡。

僧曰。若不上來。焉知如是。

師云。不得草草。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湯餅。

僧曰。見後如何。

師云。水罐。

僧曰。學人未會。

師云。世情看冷暖。人事逐高低。

問。和尚未見長蘆時如何。

師云。雲生古嶠。

僧曰。見後如何。

師云。水出高原。

僧曰。見與未見。相去多少。

師云。水流終到海。雲起必為霖。

問。刀山劍樹上成等正覺時如何。

師云。劈腹剜心。

僧曰。和尚何得如此。

師云。心不負人。

上堂云。步步登高。衲僧意氣。心心放下。達士忘懷。意氣不居佛祖之位。忘懷常遊悲智之門。有念盡成功。無知方大利。良久。

云。瑞草生嘉運。林梅放早春。參。

上堂云。智水瑩清。心珠獨輝。萬象煥然。十方朗照。眼見無影樹子。耳聽沒絃琴調。若是本分衲僧。不覺低頭吟笑。且道笑箇什麼。無孔鐵鎚。

真州靈巖山志願禪師

問。山間林下。頗稱道人家風。綠水庭邊。還他了事衲子。此猶是無風起浪。不涉波瀾。請師答話。

師云。雲橫遠岫。雨滴懸崖。

僧曰。數聲清磬是非外。一箇閑人天地間。

師云。石人拊掌。木女呵呵。

僧曰。高臥虛堂無別事。任他今日與明朝。

師云。四海晏清王道泰。何須更用苦切切。

問。六六三十六。春風動脩竹。新斲勿絃琴。請師彈一曲。

師云。不落宮商角徵羽。

僧曰。一聲鳴歷歷。十指起清風。

師云。若不鍾即鑿。還同野舍薪。

僧曰。恁麼則不聞聞底事。大眾皆聞。

師云。知音者少。

上堂云。看看。雲山疊疊。同萬卉以青蒼。烟渚依依。共孤舟而閨寂。樓臺聳峻。殿塔交光。法法無私。古今冥貫。正當恁麼時。還相委悉麼。良久。云。不在低頭。思量難得。參。

上堂云。山家活計無多事。直下分明不用猜。敷座豈容知與見。任他烏兔去還來。諸人還委悉麼。若委悉得去。心猿罷跳。性海無波。白雲青嶂之內。任運翛然。紫陌紅塵之中。隨緣豁暢。其或未

曉根源。切忌尋玄討妙。直饒討得個儻分明。敢保斯人未徹。且道作麼生是未徹。良久。云。任教滄海變。應不對君通。參。
上堂云。霧卷雲收。日上月落。林間幽鳥語呢喃。嶺上樵夫歌間錯。東西南北本來人。咄。莫向外邊生卜度。參。

潭州等覺法思禪師

問。梵王請佛。蓋為群生。安撫請師。當為何事。
師云。月映千江白。雲開萬谷明。
僧曰。恁麼則一句無私。
師云。古今無異路。達者共同途。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燈籠挂露柱。
僧曰。學人未會。
師云。佛殿對三門。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大海若知足。百川應倒流。
師良久云。若也於斯薦得。上無攀仰。下絕己躬。靈光現前。耀騰今古。遇知音而隨緣佛事。在山野而別構清規。亦可竿木隨身。逢場作戲。然雖如是。且道最初一句作麼生道。顧大眾云。切忌當頭。

壽州壽春廣慧法岸禪師

問。為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報君恩。
師云。香烟靄靄。瑞氣飄飄。
僧曰。恁麼則達磨舊時花葉。而今信手重拈。
師云。寒山拊掌。拾得呵呵。
僧曰。學人今日小出大遇也。
師云。乞兒見小利。
師云。若論法體。本絕言詮。應用無虧。威光烜赫。英靈上士。相共證明。後學初機。徒勞佇思。雖然如是。事無一向。山僧今日不惜眉毛。與諸人說破。良久。云。人從陳州來。不得許州信。

真州定山真如文彥禪師

上堂云。堤邊柳綠。默演真空。嶺上猿吟。明談法要。若向遮裡薦得。頭頭圓覺。步步道場。其或未然。且待別時。分明說破。珍

重。

荊南府護國紹通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一餅一鉢。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拄杖子。

僧曰。若不上來。爭知如是。師便打。

僧曰。錯。

師云。僧自口喃喃。

南京法寶德一禪師

問。大眾雲臻。請師說法。

師云。諦聽。諦聽。

僧曰。一回聞得一回新。

師云。爾作麼生會。

僧曰。諦聽。諦聽。

師云。也是殘羹餽飯。

問。如何是睢陽境。

師云。車馬門前有。塵埃堂上無。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時延三島客。長接五湖僧。

池州乾明禪院寶慧禪師

上堂。拈起袈裟角示眾云。此乃佛佛授手。祖祖相傳。今日更不覆藏。普示諸人。還會麼。良久。云。若也未然。且待別時重新說破。

北京天鉢重元文惠禪師法嗣

衛州元豐院清滿禪師

姓田氏。滄州鹽山人也。幼而不戲。長以孝聞。母喪出家。剃落稟戒。詣青州元禪師叢席。入室咨參。一日山行。取葉淨手。豁然契悟。投機頌曰。

大奇大奇。動用還迷。

更問如何。驀口便槌。

山居苦行。絕粒七年。太守錢公請師出世。團練李公崇師道行。奏賜命服。遷化將臨。一日辭眾。弟子請頌。師乃瞬之。跌坐而逝。問。禪關創闢。祖道重興。千聖靈機。願師舉唱。

師云。秋觀黃葉落。

僧曰。千聖靈機蒙舉唱。我師關捩意如何。

師云。冬見萬林枯。

僧曰。恁麼則木馬嘶時花徧地。泥牛行海雲凝。

師云。也須會始得。

問。如何是祖師印。

師云。地靜天寧。

僧曰。如何是心印。師拍膝一下。

僧曰。佛祖心印相去幾何。

師云。言淺理深。

問。如何是衲僧得力處。

師云。月上青天。

僧曰。未審有何憑驗。

師云。莫瞌睡。

師喝云。徒言五位。三要三玄。九帶唯心。韶陽數句。誠謂無途轍中勒成途轍。無名言中強立名言。如是教壞兒孫。發於宗旨。據遮幾箇漢。若教山僧見伊。先與敲了牙齒。然後斬為三段。拈起拄杖云。山僧過患更是彌天。卓一下。

上堂。橫按拂子云。要扣玄關。須是有節操。極慷慨。斬得釘。截得鐵。剝剝地漢始得。若是隈刀避箭。碌碌之徒。看即有分。擊禪床。下座。

上堂。召大眾云。無異思惟。諦聽。諦聽。昨日寒。今日寒。抖擻精神著力看。著力看。看來看去轉顛預。要得不顛預。看。參。

上堂云。千家門。萬家戶。貧底貧。富者富。其或未瞥地。三塗不是苦。擊拂一下。

上堂云。人人獨耀。箇箇極則。祖印如斯。說話非常。有損有益。乃拊掌一下。云。噫。又復引人入荊棘。喝一喝。下座。

上堂云。潭中皓月。嶺上白雲。達磨西來。莫如此說。拈拄杖云。也大奇。拄杖解說不思議。擊香臺。下座。

上堂云。堪作梁者作梁。堪作柱底作柱。劄利衲僧便知落處。驀拈拄杖云。還知遮箇堪作什麼。打香臺一下。云。莫道無用處。復打一下。參。

上堂云。看看。堂裏木師伯被聖僧打一擱。走去見維那。被維那打兩擱。露柱呵呵笑。打著遮師伯。祖印路見不平。與爾雪正。拈拄杖云。來。來。然是聖僧。也須喫棒。擊香臺。下座。

西京善勝真悟禪師

問。進一步則太過。退一步則不及。祇如不進不退時如何。

師云。謝闍梨供養。

僧曰。恁麼則萬般施設不如常。

師云。千鄉萬里。

僧曰。未明佛法千般境。悟了心中萬事無。

師云。勿交涉。

上堂云。揚聲止響。不知聲是響根。弄影逃形。不知形為影本。以法問法。不知法本非法。以心傳心。不知心本無心。心本無心。知心如幻。了法非法。知法如夢。心法不實。莫謾追求。夢幻空花。無煩地捉。若到遮裏。三世諸佛。一大藏教。祖師言句。天下老和尚路布葛藤。盡使不著。何故。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恩州祖印善丕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通上徹下。

僧曰。如何是法。

師云。徹下通上。

師乃云。通上徹下。徹下通上。迷有千差。悟無兩樣。咄。

廬山賢棲遷禪師法嗣

杭州南山法雨惟鎮禪師

問。如何是法雨境。

師云。竹寺門相並。湖山路接連。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芳草和花種。修篁帶雨移。

師顧大眾云。還知麼。南山嶺頭。白雲丹丹。西湖岸上。綠柳依依。一時驗取。不用針錐。喝一喝。下座。

舒州王屋山崇福燈禪師

上堂云。天不能蓋。地不能載。一室無私。何處不在。大眾。直饒恁麼會去。也是鬼弄精魂。怎生說箇常在底道理。良久。云。金風昨夜起。徧地是黃花。

上堂。良久。云。一也不成。二也不是。張三作群。李四成隊。上下混成。俱為一塊。直饒龍舒把斷要津。爭柰有傍不肯底。任是釘觜鐵舌。也須惱裂粉碎。喝一喝。

潭州東明惠遷禪師

初住南源。問。如何是南源境。

師云。五嶺侵霄漢。三株鎖碧烟。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焚香開卷霞生砌。卷箔冥心月在池。

上堂云。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大眾。且道識箇什麼。良久。云。露柱是木頭作。珍重。

和州褒禪冲會圓智禪師法嗣

杭州臨安居潤禪師

問。為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利人天。

師云。將謂伶俐。

僧曰。一炷名香祝 聖恩。

師云。今日事作麼生。僧無語。

師云。氣急殺人。

問。清淨本然。徧周沙界。庵內人為什麼不見庵外事。

師云。合恁麼。

僧曰。特伸請益。

師云。有甚相孤。

上堂云。大眾但看。從上古聖挑囊負鉢。出一叢林。入一保社。若不得箇入處。晝夜不捨。參問知識。築著磕著。忽然瞽地。始知刀是鐵作。一時放下。便乃天台普請。南嶽遊山。左之右之。不居惑

地。諸仁者。古人既恁麼會。今人欠少箇什麼。良久云。多慮不如少實。

台州瑞巖子鴻禪師法嗣

台州佛窟昌國可英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一輪纔出海。萬彙盡霑恩。

僧曰。學人不會。

師云。祇為分明極。翻令所得遲。

問。如何是佛窟境。

師云。春歸一徑巖前秀。雪盡數峰雲外寒。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錫杖夜敲霜嶠月。銅餅晨漱碧潭煙。

師乃云。春風澹蕩。萬物含芳。林間野老謳歌。江上漁人舉棹。岩花列秀。岸柳垂陰。鶯囀喬林。獸鳴幽谷。白雲綻處。千峰而疊疊。崔嵬。萬派朝宗。浩渺而波瀾。涵月。森羅普現。萬象齊觀。南北東西。交橫互映。重重帝網。百億垂形。海印發光。大千普赴。如斯語話。無不盡知。且道迷身一句作麼生道。良久。云。天上忽雷驚宇宙。井底蝦蟇不舉頭。參。

明州岳林寺曇振禪師

上堂。斂衣坐定。云。今日布袋頭開。還有買賣者麼。

僧出曰。有。

師云。不作貴。不作賤。作麼生躋價。僧無語。

師云。山僧今日失利。

問。寶座既登於此日。箇中消息請宣揚。

師云。颯颯和風。飄飄細雨。

僧曰。言前超有路。句下越毗盧。

師云。也不消得。

問。知師解接無根樹。妙手能挑海底燈。學人上來。請師一接。

師云。堤柳乍開金眼細。嶺梅初綻玉苞香。

僧曰。圓音纔剖。大眾霑恩。

師云。劄利人難得。

上堂云。若論此事。不在僧之與俗。男之與女。賢之與愚。貴之與賤。悉皆具足。曾無欠少。良由根有利鈍。見有差殊。向聲色裏轉

却。何以知之。豈不見道。名言滯於心首。恒為緣慮之場。實際居於目前。翻成名相之境。且作麼生是目前事。還知麼。良久云。眼裡無筋一世貧。

汀州開元智潭禪師法嗣

汀州開元宗祐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扁舟衝雪浪。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一葦渡金陵。
師乃云。祖師庭下。水泄不通。佛事門中。風行草偃。於斯見得。暢快平生。擬議思量。千山萬水。

虔州慈雲慶璫禪師法嗣

虔州廣慈道傳禪師

問。如何是梅川境。
師云。金精嶷嶷凌霄漢。梅水滔滔貫巨洋。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閑庭子賤鳴琴化。百里生民歌復謠。
僧曰。向上宗乘。如何指示。
師云。南斗七。北斗八。

金陵蔣山法泉佛慧禪師法嗣

滁州幽谷壽聖寺祐禪師

問。如何是和尚為人處。
師云。未免拖泥帶水。
僧曰。如何得不拖泥帶水去。
師云。好喫棒。
僧曰。學人有什麼過。師便打。

鄂州太平興國法雲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踏破草鞋。

僧曰。學人未曉。

師云。直下承當。

衢州九峰殊甫禪師

問。靈蛇在手。一任卷舒。寶鑑當軒。是何光境。

師云。一輪皎皎。萬里霑恩。

僧曰。萬丈白雲藏不得。

師云。於爾分上得箇什麼。

僧曰。休將三寸舌。調弄五湖僧。

師云。山僧罪過。

善果懷演庵主法嗣

潭州玉池光教寺冲儼禪師

問。以心傳心。無說可說。無說即不問。如何是可說。

師云。石笋逢時長。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葵花向日開。

問。如何是祖師的的意。

師云。泥牛不喫欄邊草。

僧曰。和尚向何處安身立命。

師云。直向孤峰頂上眠。

廬山歸宗通禪師法嗣

襄州資福廣照素月禪師

問。如何是古佛心。

師云。不著中間。去却兩頭。

僧曰。如何是和尚的的為人處。

師云。張公喫酒張公醉。

問。如何是佛。

師云。頂後無圓相。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和風發嫩蘂。
問。如何是真常道。
師云。著衣喫飯。
僧曰。學人不會。
師云。真常道。
僧曰。莫謾學人。
師云。想若不識朝官體。祇識皮鞋不識鞞。

郢州子陵辯禪師

問。四眾雲臻。願聞法要。
師云。夜雨日晴。
僧曰。意旨如何。
師云。曬。
僧曰。一言纔了悟。千古為流通。
師云。也不消得。

廬山同安崇勝禪院慶通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燕子不離舊窠。
問。世尊未成佛時如何。
師云。佛。
僧曰。成佛後如何。
師云。佛。
僧曰。畢竟如何。
師云。佛。

江陵福昌禪院信禪師法嗣

安州法興期禪師

問。學人無問。請師不答。
師云。鯨有吞舟騰巨浪。人無消息過滄溟。
僧曰。恁麼則落二落三。
師云。饒君解致千般問。空自言多道轉賒。

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八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四世

廬山東林興龍寺常總照覺禪師法嗣

洪州泐潭山寶峯禪院應乾禪師

姓彭氏。袁州萍鄉人也。受具之後。徧歷諸方。晚到照覺禪師法席。屢陳所見。覺未可之。乃示鳥窠吹毛因緣。初不曉解。一日。因事感激。豁然大悟。乃成頌云。

潦倒忘機是鳥窠。西湖湖上控煙蘿。

布毛吹去無多子。鐵眼銅睛不奈何。

覺乃可之。自此推為上首。道行大播。照覺受命東林。師繼法席。

開堂日。上首白槌罷。師直上覷。又直下覷。云。啞。好箇消息。

其柰話墮了也。若有人知落處。寶峯出世事畢。其或未然。第二義中通箇消息。

問。一佛出世一花開。如何是一佛出世。

師云。分明看取。

僧曰。如何是一花開。

師云。何處不光輝。

僧曰。牧童歌嶺上。林下道人權。

師云。禮拜著。

問。向上一路。千聖不傳。和尚從何而得。

師云。碧眼胡僧笑點頭。

僧曰。不從人得去也。

師云。具眼者道。

問。大義開田千萬頃。子孫從此得耕耨。香巖五立卓錫地。鋤耰功勞甚處施。

師云。全承渠力。

僧曰。牧童撒手青霄外。水牯無繩得自由。

師云。拽脫爾鼻孔。擊碎爾觸髅。僧便喝。

師云。未有眼在。僧又喝。師便打。

問。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什麼處。

師云。踏著石頭硬似鐵。
僧曰。還許學人進也無。
師云。點鐫依前落二三。
問。得旨忘言。歸家穩坐。未審到家一句作麼生道。
師云。閑看白雲生碧落。靜聽流水過青山。
僧曰。玉見火時光轉潤。蓮華在水葉長乾。
師云。更須高著眼。
問。孤貧赫赤。一物俱無。還識渠麼。
師云。不識。
僧曰。每日上來下去。為甚不識。
師云。渠無面目。
僧曰。與和尚同參去也。
師云。同參事怎生。
僧曰。學人到遮裏却不會。
師云。直須與麼。
問。佛身無為。不墮諸數。那箇是真佛。
師云。殺好一問。
僧曰。銅鐵之像且致。今日浴那箇佛。
師云。煮煤不爛。
問。金毛踞地。百獸潛蹤。學人上來。乞師指示。
師云。腦裂。
僧曰。學人未曉。
師云。猶自不知休。
僧曰。謝師指示。
師云。大眾笑爾。
問。春風[飈-台+弗][飈-台+弗]。春鳥關關。香巖竹方翠。靈雲花未殘。正當恁麼時如何。
師云。千峯競秀。萬壑爭流。
僧曰。時節既彰。祖意教意如何顯異。
師云。基法師鼻孔。
僧曰。馬駒踏殺天下人。居士吸盡西江水。
師云。須是具眼。
上堂云。寶峰左源。迴是一天。山長帶雪。路亘漫煙。黃石高峙。雲峯擁前。狸奴白牯。清水良田。遠車馬喧雜。任歲月推遷。信知本色住山人。所得幽棲息世緣。
上堂云。天上月圓。地下月半。吞兮吐兮。知君錯筭。昨夜清風落太虛。珠璣迸灑蒼崖面。霰雪交飛竟若為。少林從此露風規。咄。

上堂云。金風振野。古佛嘉猷。玉露垂珠。道人活計。溪邊漁父。盡唱無生。嶺上石人。時敲布鼓。殊不知月裏麒麟看北斗。楚王城畔水東流。住。住。是什麼。二三四。七八九。拈得鼻孔失却口。參。

師紹聖三年九月庚子示疾。沐浴淨髮。寫偈云。
鋒鋌點的休相許。目病空花徒指注。
六十三年浮世人。蹈翻海嶽重歸去。
言畢而逝。

廬山開先華藏禪院廣鑑禪師

諱行瑛。桂州永福縣人。姓毛氏。本州菩提寺受業。懷橘之年。投師出家。採李之年。策試圓具。賦性明敏。學問精到。壯齒遊方。愈益超卓。所至法席。諮道有儀。心契閑師。燈續照覺。一住開先。十更年月。德風既振。緇素欽承。官保李侯特奏章服。師號。開堂日。上首白槌罷。師顧視云。會麼。八臂那吒鑄鐵券。須彌頂上運金槌。若也不會。華藏世界久萃驪龍。幸遇風雷。何妨奮躍。時有僧問。法筵大啟。使旆光臨。祖意西來。請師舉唱。

師云。擁扇仁風蘇萬物。隨車甘雨灑千山。

僧曰。瀑流生瑞氣。漱玉起清風。

師云。最好書為清浮國。更堪畫作太平圖。

問。香煙起處。大眾雲臻。向上宗乘。請師指示。

師云。南山雲。北山雨。

僧曰。一句無私。

師云。堪笑亭前紅菟菜。年年生葉不生花。

僧曰。煙雲出幽谷。日月耀乾坤。

師云。多遮兩句。

僧曰。和尚又作麼生。

師云。退身有分。

僧曰。何得龍頭蛇尾。

師云。饒人非弱。

問。如何是道。

師云。良田萬頃。

僧曰。不會。

師云。春不耕。秋無望。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君山點破洞庭心。

僧曰。意旨如何。

師云。白浪四邊繞。紅塵何處來。
問。少林面壁。意旨如何。
師云。人定。
僧曰。孤負古人。
師云。罕遇知音。
問。古鏡未磨時如何。
師云。古鏡。
僧曰。磨後如何。
師云。古鏡。
僧曰。謝師指示。
師云。三十年後。
問。法輪工已畢。推轉意如何。
師云。活鱗鱗地。
僧曰。法不孤起。仗境方生。
師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僧畫一圓相。
師云。爭柰諸聖眼何。
問。有人問我解何宗。拈起拂子劈口打。意旨如何。
師云。糊孫入布袋。鐵筋擊烏龜。
僧曰。不覩雲中鴈。爭知沙塞寒。
師云。千眼大悲觀不得。無言童子暗嗟噓。
僧曰。為什麼如此。
師云。祇為如此。
師云。談玄說妙。譬如畫餅充飢。入聖超凡。大似飛蛾赴火。一向無事。敗種蕉芽。更若馳求。水中捉月。乃以拂子拂一拂。云。適來許多見解。拂却了也。作麼生是諸人透脫一句。良久。云。鐵牛不喫欄邊草。直上須彌頂上眠。擊禪床。下座。
上堂云。和風習習。白日遲遲。山花灼灼。礪草離離。紫鷺雙飛大野。黃鸝對語高枝。衲僧到此如凝滯。無限春光付與誰。咄。
上堂。喝一喝。云。三月春過強半。溪山雨散雲飛。庭花自開自落。梁燕雙飛雙歸。復云。木中有火。不鑽不出。砂中有金。不淘不得。心中有道。不學不悟。遊方行脚。喚作道人。還曾悟道麼。良久。云。白日莫空過。青春不再來。
上堂云。彎石鞏弓。架輿化箭。運那羅延力。定爍迦羅眼。不射大雄虎。不射藥山鹿。不射雲巖師子。不射象骨獼猴。且道射箇什麼。良久。云。放過一著。
上堂云。水不洗水。金不博金。獨露一心。撥開萬象。大教幾張拭不淨故紙。從上古佛一隊多知解阿師。自茲截斷眾流。更不百城遊歷。還有與麼衲僧麼。良久。云。點即不到。

上堂云。有人說得一丈。一寸也行不得。有一人行得一丈。一寸也說不得。有一人說得行得。有一人說不得行不得。此四人中。華藏欲覓一人為師。明眼衲僧試請揀看。

上堂云。登山須到頂。入海須到底。學道須到佛祖道不得處。若不如是。盡是依草附木底精靈。喫野狐啼唾底鬼子。華藏恁麼道。譬如良藥。然則苦口。且要治疾。阿唧唧。

上堂云。一鎚便成。猶為鈍鐵。千割不斷。豈是神鋒。良馬尚不待鞭影而行。上士又何假言詮而曉悟。靈龜已涉周遮。問答一場狼藉。擊禪床一下。

廬山萬杉禪院紹慈禪師

俗姓趙氏。桂州人也。十八受具。十九遊方。參總禪師。因侍立次。問。世尊付金襴外。別傳何物。總舉起拂子。

師云。畢竟作麼生。總以拂子驀口打。師擬開口。總又打。師自此有省。遂奪拂子便禮拜。

總云。汝見何道理便禮拜。

師云。拂子屬某甲了。

總云。三十年老將。今日被小卒折倒。自此玄風大振。惟為東林上首。

開堂日。上首白槌罷。師顧視左右云。若向遮裏明得去。麗水一星金。流沙混不得。其或未然。向沙水不分處置將問來。

問。明主恩光重。賢侯惠澤深。既登師子座。願振海潮音。

師云。木馬已嘶秋草露。鐵牛還吼暮山雲。

僧曰。恁麼則袖裏神鎚光燦爛。八方擊處響如雷。

師云。神鎚在什麼處。

僧舉拳云。分明在目前。

師云。祇恐不是玉。是玉也大奇。

問。然香祝 聖人皆委。擊鼓談玄意若何。

師云。一音纔剖露。萬法自齊彰。

僧曰。若然者。山河并大地。寶印在其中。

師云。打開戶牖通千界。百億毗盧處處分。

僧曰。箇中千聖眼。特地好乾坤。

師云。到頭通一路。始見本來人。

問。解接無根樹。能挑海底燈。意旨如何。

師云。特地光輝。

僧曰。兔角點開千聖眼。龜毛拂盡九衢塵。

師云。寒山拊掌。

僧曰。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射紅心。
師云。闍梨還接得也未。
僧曰。蓮社老師親得旨。人間天上盡蒙恩。
師云。蹉却話頭。
問。朱明方啟候。衲子又安居。未審九旬之內如何履踐。
師云。松筠有高節。
僧曰。恁麼則清音長不盡。洗却眼中塵。
師云。還因霜雪後。始見歲寒姿。
僧曰。靈苗有地人皆委。鐵眼無私莫點玄。
師云。須知向上路。不許夜行人。
僧曰。忽遇傾湫倒嶽底又作麼生。
師云。鞵空鐵網。誰敢出頭。
問。千聖共傳無底鉢。曹溪路上許誰同。如何是無底鉢。
師云。千人越不出。
僧曰。萬里遊滄海。忻逢倒嶽波。
師云。不是弄潮人。
問。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正當恁麼時。印即是。不印即是。
師云。看取爐中鐵彈子。
僧曰。忽然打破又作麼生。
師云。須知痛痒。
僧曰。今日得遇和尚。
師云。語脉裡轉却。
上堂云。先行不到。若順彌立乎巨川。末後太過。猶猛士發乎狂矢。或高或下。未有準繩。以是還非。遭人點檢。且道如何得相應去。良久云。紅爐燄裡重添火。烜赫金剛眼自開。咄。
上堂云。陽鳥啼春。觀音戶啟。清泉照月。毗盧界彰。鶴鳴峯頭。聲聲不別。散珠亭上。顆顆圓成。乍隱乍彰。不撥自轉。還有收得者麼。試呈似看。良久。云。可笑猿猴探水月。不知真箇有蟾蜍。下座。
上堂云。我祖別行最上機。縱橫生殺絕猜疑。雖然塞斷群狐路。返躑順還師子兒。眾中還有金毛烜赫。牙爪生獐者麼。試出哮吼一聲看。良久。云。直饒有。也不免玉溪寨主撩鈎搭索。參。
上堂云。赤水之珠。清江之月。猿猴競探。徒爾迷蹤。罔象無心。超然自得。所謂視之有餘光。攬之不盈手。世沒無窮。去來無際。然雖如是。下坡不走。快便難逢。乃喝一喝。拍一拍。云。赤水之珠。清江之月。瓦解冰消。眾中還有英靈變豹者麼。出來救取一半。良久。云。可憐此意無人會。却使陶潛更皺眉。
上堂云。玉溪不會禪。祇識諸方病。驀下霹靂散。轉殺也不定。

左丞蔡公卞讚師真。靈光頭頭顯現。獼猴亦背一面。若人欲識師真。打破鏡來相見。

東京褒親旌德禪院佛海禪師

諱有瑞。姓陳氏。興化軍仙遊縣人也。幼異塵俗。默坐終日。父母奇之。即許出家。依東京景德寺重全上人為師。比試圓具。首造黃龍南禪師法席。南曰。汝為人事來。為佛法來。

師云。為佛法來。

南云。若為佛法來。即今便分付。遂打一拂子。

師云。和尚也不得惱亂人。南即器之。

後依泐潭山總禪師。深悟玄奧。巾侍久之。眾推道首。初住安州太平。觀察李侯先奏章服。

哲宗皇帝五七入內。賜大覺師名。百日入內。又賜佛海禪號。開堂日。問。不越百城之遠。肯飛一錫而來。寶座既登。竚聽法要。

師云。鳥窠吹起布毛心。

僧曰。謝師方便。

師云。從苗辨地。因語識人。

問。朝賢旌旆來筵上。師將何法報君恩。

師云。玉磬乍敲金殿響。紫檀煙鎖玉樓春。

僧曰。巾地風生。

師云。特地使人觀。

僧提起坐具曰。爭柰遮箇何。

師云。指南為北。識得遮賊。

問。驗人端的處。下口便知音。祇如維摩一默。以何為驗。

師云。不勞再勘。

僧曰。打麪還他州土麥。唱詞須是帝鄉人。

師云。同道者方知。

問。祥煙起處。杲日當空。一句無私。請師全道。

師云。拄杖橫穿日面佛。衲衣斜搭少林風。

僧曰。一言勘破威音佛。千聖須教立下風。

師云。玉殿光含千界月。

僧曰。黃金雖至寶。點著是空花。

師云。方便多門戶。心通一道歸。

師云。問得亦好。不問亦強。一問若不達。翻成戲論法。問若有旨。答亦隨機。為什麼。宗乘道著。千聖退步。寶杖敲時。三乘失

轍。蓋為此事。似秦鏡當臺。千里邪心自怖。如鑊錮在袖。百億魔軍膽碎。

直得大聖不說說。迦葉絕聞聞。大底祇要諸人回光返本。斂念收心。善惡都莫思量。自然得人。心體湛寂。妙用恒沙混同。直饒有人便於此承當得。又屬抱橋柱澡洗。及乎捨之。似萬里望鄉關。執之。墮在魔王境界。喚作迷時人逐法。悟後法隨人。蓋無私法要。千古同規。一句當機。唯人自鑒。到遮裡若會得。便見終始一如。古今齊致。至於趙州庭栢。清風長在。若不會得。便見雲門凳子。天地懸殊。

於是不得已。便乃琉璃殿上日午打更。無影林間秋行春令。何也。妙體雖然無異。妙用蓋有多門。是故釋主能仁應迹迦維。弘悲沙界。神通妙力不可思議。所以蓋為群生。日用三昧而不覺。業識茫然而莫返。遂致前境紛紜。本源錯雜。繇是金僊久默斯要。於不二境作大佛事。入寂光土經營三界。道洽大千。化均百億。言滿法界。撈籠群生。敷玄籍以曉果因。垂天真以育情性。無何機有大小。乘分頓漸。故使資糧者。可以推微達著。尋端見緒。然後為散亂者。誠之以定慧。著諸樂者。示之以無常。樂小法者。導之以大方。計諸見者。諭之以無動。泥名相者。開不二門。此豈不以因言入道。藉教明真。一心既皎。萬德咸著。良為於此。末後却曰。如標月指。空拳喻實。

噫。如此興慈。大似有過無功。未如我金色頭陀隨身活計。瑠璃鉢盂傳來無底。任是千眼大士。莫窺其狀。達磨所有生涯。大庾嶺頭擲下。設有萬夫之勇。提之不動。後來風幡事起。捲簾義彰。佛手難藏。驢脚自露。

所以兒孫固不得已。曲順人情。放一線路。便有紹續門風。聯輝祖燄。然後佩無我印。開不二門。致有向上金雞。銜米一粒。徧濟十方。真如廐內。良駒獨出。踏殺群魔。所以人人盡道。摩竭令嚴。承當者少。支那玄響。應之者稀。大眾。若據如斯見識。一何少哉。祇如知滋味。識痛痒。豈無一二。聆至音。決勝負。寧無一箇半箇。且道能如此者。是什麼人。良久云。禪關已得裴公達。祖意寧無謝守評。參。

上堂云。有佛世界。以一塵一毛而作佛事。令見一法者而具足一切法。故權為架閣。有佛化內。以忘言寂默為大佛事。使其學者離一切相。即名諸佛。故好與三下火抄。有佛土中。以黃花翠竹而為佛事。令覩相者見色即空。故且付與彌勒。有佛寶剎。以法空為座而示佛事。俾其行人不著佛求。故勘破了勾下。有佛道場。以四事供養而成佛事。使知足者斷異念。故可與下載。有佛妙域。以一切語

言三昧作其佛事。令隨機入者不捨動靜。故為渠裝載。大眾。且道於中還有優劣也無。良久。云。到者須知是作家。參。

南嶽福嚴寺惟鳳禪師

問。如何是福嚴境。

師云。千里一堆青。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坐斷祝融峯。

師乃云。般若臺前聊舉目。周回八百里方圓。高低層級渾無縫。出自當時磨底甑。復云。靈源一派。亘古緜今。曾無間斷。所以朝宗有據。潤物無虧。精通者。善別波瀾。泛濫者。難窮彼岸。直饒窮得別得。了了無差。敢問諸人。還有衲僧巴鼻也無。若有。不免和泥合水。若無。不可斬頭覓活。向上一路。作者共知。其或未明。逢人但恁麼舉。

南嶽衡嶽寺道辨禪師

問。拈槌舉拂即且致。和尚如何為人。

師云。客來須接。

僧曰。便是為人處也。

師云。麤茶淡飯。僧禮拜。

師云。須知滋味始得。

廬山圓通可僊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騎牛覓牛。

僧曰。爭柰學人不曾。

師云。參取不曾底。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寸釘牛力。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向下會取。

上堂。良久。云。恁麼散去。早是不著便。那堪長老鼓兩片皮。搖三寸舌。說東道西。指南言北。轉勿交涉。何故如此。說則乾坤大

地。該括微塵。収則纖芥無差。絲毫不露。苟或獨超象外。量等太虛。便乃終日說事。不為事所礙。古今三世。儼爾目前。曲直條然。是非有辨。便能和光同塵。隨邪逐惡。恁麼說話。也大無端。忽有箇傑出叢林**烜**赫禪者。為眾竭力。出來掀倒禪牀。喝散大眾。將長老推向階下。也許他有些氣息。有麼。既無。老僧倒行此令。拄杖打禪牀。下座。

臨江軍慧力院可昌禪師

問。佛力法力即不問。如何是慧力。
師云。踏倒人我山。扶起菩提樹。
僧曰。菩提本無樹。向什麼處下手。
師云。無下手處。正好著力。
僧曰。今日得聞於未聞。
師云。莫把真金喚作鎊。
問。一念萬年。十方坐斷。學人特伸請益。
師云。先付德山。後與臨濟。
僧曰。悔伸一問。師便打。
問。祖意西來。請師舉唱。
師云。達磨當年無如是事。
僧曰。和尚莫教話墮。
師云。却被上人勘破。
僧曰。爭柰文彩**已**彰。
師云。向爾道。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一點水墨。兩處成龍。
僧曰。恁麼則寒潭浪靜蒼龍宿。玉葉婆娑彩鳳棲。
師云。先記摩騰。後思盧老。
問。摩竭正令。此日全提。如何是摩竭正令。
師云。喝散白雲。擊破虛空。
僧曰。恁麼則衝開法王陣。打破祖師關。
師云。更須著力。
僧曰。若然者。讓老馬駒初出廐。存師聖箭乍離絃。
師云。也不消得。
僧曰。酌然水灑不著。
師云。誰肯便回首。
師云。法王行處。草木生輝。大海騰波。須彌岌岌。玄機未發。祇恐眠雲不深。大用纔彰。便出白蓮社裏。所謂隨方作主。寧類守

株。把住放行。自由自在。縱有連天瀑布。不來耳畔生喧。任他雙劍峯高。免向眼前為礙。時行則行。時止則止。動靜不失其時。其道光明大矣。大眾且道那箇是光明底事。良久。云。禾山打鼓聲猶在。自此廬陵米價低。以拂子擊禪牀。

上堂云。菩提無相。相覆大千。法性無言。言滿天下。所以觀音從聞得道。彌勒因見悟心。祖師門下有何境界。便得動止無疑。良久。云。國師不見客。侍者出山門。

廬陵禾山甘露志傳禪師

問。一等無絃琴。請師彈一曲。

師云。山僧耳聾。

僧曰。學人請益。

師云。去。

僧曰。慈悲何在。

師云。自有諸方眼。

問。禾山嘉境即不問。自牧庵前事若何。

師云。豈不曾避。

僧曰。恁麼則山連三峽秀。水出五峯前。

師云。隨流得妙。

問。師子窟中豈藏頭角。

師云。特地尖新。

僧曰。已泄真機。

師云。傍觀者哂。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天上月輪非一二。水中光影任東西。

僧曰。子孫盡究生緣處。祖父元來不出門。

師云。何不過遮邊。

師云。牛頭沒。馬頭回。劍輪飛處絕纖埃。南北東西無異路。休言南嶽與天台。所以未離廬阜。祇見五峯勢嶮。三峽聲雄。自牧庵中。隨緣度日。便道涅槃城裏坐致太平。解脫坑中未可安身立命。乃到禾山。也見凌霄峯上。雲自卷舒。羅漢洞前。溪聲浩渺。三門佛殿。無異諸方。厨庫僧堂。仍皆舊轍。便好拗折拄杖。高挂鉢囊。與諸禪德跨露地白牛。遊壺中天地。物外山川。唱村田樂。且恁過時。假使諸佛出興於世。地搖六震。天雨四花。終不能管得。也不疑著渠。且道山僧有何長處便恁麼道。良久。云。白雲乍可來青嶂。明月那教下碧天。

上堂云 聖人出興。允膺嘉運。所以祥光燭地。紫霧盈庭。萬國歡呼。百靈叶慶。巍巍大寶。端拱無為。四海肅清。八紘奉化。堯年舜日。可樂太平。野老謳歌。昆蟲受賜。載天覆地。咸沐君恩。故我沙門仰遵佛勅。精持貝字。毗贊 宸嚴。祇如古人道。人人盡有一卷經。文須我英靈禪客。豹變衲僧。不落三科。非關吾故。若以報恩。無恩不及。若以利物。無物不利。若是尋文究墨之流。非唯不能報恩。亦乃不能自利。然雖如是。畢竟是何義理。良久。云。石人拖梵夾。一字不成行。

黃州栢子山棲真院德嵩禪師

問。如何是顯露底法。

師云。高著眼。

僧曰。法不孤起。

師云。露柱上薦取。

僧曰。若不得流水。還應過別山。

師云。知心有幾人。

上堂云。天地一指。絕諍競之心。萬物一馬。無是非之論。由是魔羅潛迹。佛祖興隆。寒山拊掌欣欣。拾得呵呵大笑。大眾。二古聖笑箇什麼。良久。呵呵大笑云。曇花一朵再逢春。

廬山東林思度禪師

上堂云。東西不辨。南北不分。瓊樓玉殿。照耀乾坤。普賢作伴。文殊作賓。不徒打草。祇要蛇驚。古聖尚乃如此。豈況今時衲僧。諸禪。諸禪。休要擬議著眼聽。聽什麼。雨來山色暗。雲出洞中明。若向遮裏會得。便是一切現成。參。

蘄州白雲山廣教德方禪師

問。和風乍扇。選佛場開。架起紅爐。要分玉石。

師云。且饒廣教。

僧曰。早是瑕生。

師云。雪峯道底。

泉州同安雙林道基禪師

問。覺花綻處。正遇明時。學人上來。請師速道。

師云。雲生嶺上。
僧曰。學人未曉。
師云。水出高原。
僧曰。嘉音已播寰中去。一輪明月照同安。
師云。好事不出門。
問。欲明今日事。識取本來人。如何是本來人。
師云。乾坤収不得。歲月豈能遷。
僧曰。未審此人即今在什麼處。
師云。渠無國土。處處逢渠。

江州德安無相繼才禪師

問。欲離無垢丈室。將屆無相道場。兩種是無。如何是有。
師云。孤明宇宙。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獨露乾坤。
上堂云。禪無私授。有相皆真。諸人還見無相寶塔吞却佛殿三門麼。良久。嗔。是何言歟。以拂子擊禪牀。下座。

東京褒親旌德禪院諭禪師

問。泥多佛大。水長船高。不犯清波。請師別道。
師云。靈龜已透青霄。
僧曰。恁麼則不居本位。別透波瀾。
師云。四海盡為雨。
僧曰。踏破澄潭月。穿開碧落天。
師云。底事更由誰。
問。劫火洞然起。大千非究竟。所有作業人。如何安性命。
師云。佛手遮不得。人心似等閑。
僧曰。恁麼則脚手忙然。如落湯鼈。
師云。喚不回頭爭奈何。
僧曰。不唯一身塗炭。亦乃萬劫塵勞。
師云。自是時人不肯休。
僧曰。衲僧分上又作麼生。
師云。高揖釋迦。不拜彌勒。
上堂云。新羅打鼓。大宋上堂。庭前栢子問話。燈籠露柱著忙。香臺拄杖起作舞。臥病維摩猶在牀。遮老漢。我也識得爾病。休訝郎當。咄。

上堂云。駕鐵牛。耕巨海。探驪頷之珠。獲珊瑚之寶。枝枝撐月。光射斗牛。神鬼知貴而不知價。謂得之於心。應之於手。家榮國富。受用無窮。且道是誰。良久。云。將軍自有嘉聲在。

潭州鹿苑景深禪師

上堂云。和風初扇。柳眼分眉。嶽展如屏。山花似錦。簷頭鶻噪。鶴宿喬松。澗水清冷。魚龍游泳。居林下者。足可歡娛。雖無絲管之音。亦有山家之態。諸仁者。且道畢竟作麼生。良久。云。一任流通。咄。

饒州妙果院法喜禪師

問。如何是佛。
師云。一字兩頭垂。
僧曰。學人未曉。
師云。丁字橫挑脚。
僧曰。如何是向上事。師云。萬里無片雲。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風清底際栢。
上堂。示眾云。休。休。得抽頭處且抽頭。莫。莫。底事難教閑處著。白日常催快活人。黃金難買神仙藥。參。
上堂云。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且道是什麼。良久。云。人平不語。水平不流。下座。

安州壽寧院成則禪師

問。西來密旨真消息。今日當筵願舉揚。
師云。牛頭沒。馬頭回。
僧曰。一句超三界。萬彙盡霑恩。
師云。赫日光中斗柄垂。
僧曰。一輪明月照。萬里遠山青。
師云。且得領話。
師云。二千年前公案。今日已為重提。八萬四千法門。與渠一時畫斷。若向威音王已前薦得。丈夫自有衝天志。七佛已後明宗。幾箇男兒氣宇豪。若據祖師西來。真箇壓良為賤。而今到此。有理難伸。事不獲已。祇得土上如泥。隨風倒垛。把定放開。臨機生殺。若也把定。祖佛出來。性命不存。若也放開。便與諸人大家拍和。

舉起胡家曲。共唱木人歌。清風明月生遙夜。玉笛關山吹薜蘿。迦葉作舞鍾馗拍。潮海齊生咂咂波。龍王怒劍誰敢顧。遏定鯁魚不敢過。

明州岳林崇福院圓明禪師

問。為 國開堂於此日。先將何法報 君恩。
師云。千山頂上一輪月。萬里江波徹底明。
僧曰。恁麼則群生皆舉目。箇箇謝無私。
師云。吾皇自有千生化。何必勞君賀太平。
僧曰。若然者。堯舜清風萬古新。
師云。皇天無親。唯德是輔。
問。利人一句。請師速道。
師云。走馬入長安。報道太平年。
僧曰。此猶在金峯窠裏。和尚如何指南。
師云。鐵牛吼處千江月。木馬嘶時徧地春。
問。如何是不動尊。
師云。走馬趁不及。
僧曰。此猶是動底事。如何是不動底事。
師云。清風拂雲飛。白日不曾移。
上堂云。惠日騰空。輝光烜赫。摩尼在掌。燦爛圓明。應現臨機。纖毫難隱。眾中莫有拘麒麟角。坐祖師頭者麼。出來相見。良久。云。若無。山僧今日縮却舌頭。

真州資福懷寶禪師

問。如何是向上事。
師云。問取向下事。
僧曰。向下事如何。
師云。隨語漢。
問。如何是佛。
師云。猶自不識。
僧曰。祇遮便是。
師云。錯。
問。路逢猛獸時如何。
師云。似他逢爾。
問。孤峯獨宿時如何。
師云。高枕無憂。

上堂云。鴈叫長空氣象清。園林草木盡彫零。庭前唯有趙州栢。枝葉婆娑特地榮。大眾。遮栢樹子。在天則同天。處人則同人。在城郭與花柳渾居。在山林與煙雲作伴。祇如在資福門中。又作麼生。良久。云。一朝權在手。看取令行時。下座。

洪州興化院以弼禪師

問。近離興龍。將屆歸宗。龍即不問。如何是珠。
師云。鸞溪劈箭急。
僧曰。莫便是珠否。
師云。曉夜響潺潺。
僧曰。不入洪波裏。爭見弄潮人。
師云。珠在什麼處。僧提起坐具。
師云。閑家具。

泉州清化院從璉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燕金趙璧。
僧曰。是何宗旨。
師云。賣金須遇買金人。
僧曰。恁麼則釋主瞬眸呈妙用。飲光微笑露真機。
師云。依稀越國。髣髴揚州。
上堂云。千峰積翠。萬壑含煙。澗柳迎風。山花嘯日。可以陶情滌慮。可以送目遣懷。如是則高謝人寰。氣衝霄漢。真所謂臥雲深處。鼻孔遼天。名利不干壤。財帛不為念。恁麼過時。且道有佛法道理也無。良久。云。時挑野菜和根煮。旋斫生柴帶葉燒。

洪州西山龍泉夔禪師

問。如何是向上事。
師云。須彌頂上擊金鍾。
僧曰。洪音一振。韻出青霄。
師云。作麼生聞。
僧曰。聲聲無欠少。不見打鍾人。
師云。大眾笑爾。
上堂。眾集定。師乃云。祇恁麼便散去。不妨要妙。雖然如是。早是無風起浪。釘橛空中。豈況牽枝引蔓。說妙談玄。正是金屑眼中

翳。衣珠法上塵。且道拂塵出屑是什麼人。卓拄杖一下。

襄州西禪萬壽院智圓禪師

問。因緣遇會。試舞一場。

師云。賺却多少人。

僧曰。恁麼則龍吟隨處祥雲起也。

師云。見箇什麼。

僧曰。春色惹開群木秀。清風吹綻祖花新。

師云。大眾一時看。

師云。飲光門下。妙旨奚宣。毗耶杜辭。已成多事。摩竭掩室。不令而行。西天四七高僧燈燈續燄。東土二三諸祖印印聯芳。自古及今。祖宗傳授。所以得於無得。證於無證。應無所住而住。了無所了而了。其有達者。便能方寸之池。流出無窮之寶。潤澤生靈。皇恩佛恩一時報足。雖然如是。莫有報不得者麼。良久。云。粉骨碎身未足酬。一句了然超百億。喝一喝。

建州護國禪院康禪師

問。梵剎纔興。十方有分。學人還有分也無。

師云。誰敢道無。

僧曰。學人今日有賴。

師云。登門如掛搭。入室許燒香。

僧曰。功不浪施。

師云。事不厭細。

上堂云。護國門下。豹變英靈。握驪頰之明珠。秉金剛之寶劍。九旬禁足。三月安居。外息諸緣。內弘高見。所謂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敢問諸仁者。未審緣何道理。便乃心空及第歸。還有人道得麼。良久。云。化龍三級浪。震地一聲雷。

建州景福院惟潔禪師

師於紹聖丁丑正月二十七日請諸寺長老僧眾。遂上堂。有翠微長老問。四山相逼。和尚從什麼處去。

師云。渠儂得自由。

微云。竹密不妨流水過。山高豈礙白雲飛。

師云。劄利衲僧。

微云。畢竟事作麼生。師良久。微便喝。
師云。臨行之際。休更怛怛。復云。惟潔^忝住當山。首尾三年。若論住持。都無所補。其間好惡。口議紛紛。是亦何是。非亦何非。四十二年。一場妄想。近日^已來。風火相違。四大分散。大丈夫漢。有何顧惜。要行便行。伏惟珍重。言畢而逝。

南康軍兜率院志恩禪師

上堂云。落落魄魄。居村居郭。莽莽鹵鹵。何今何古。不重^已靈。休話佛祖。扭定釋迦鼻孔。揭却觀音耳朵。任他雪嶺輞毬。休管禾山打鼓。若是本色衲僧。終不守株待兔。參。

福州興福院康源禪師

問。如何是學人底事。
師云。自家驗取。
問。久負勿絃琴。請師彈一曲。師拍一下。
僧曰。還許學人和也無。
師云。不是知音者。徒勞話歲寒。
師云。山僧有一訣。尋常不漏泄。今日不囊藏。分明為君說。良久。云。寒時寒。熱時熱。

泉州崇福德徽禪師

問。如何是新年頭佛法。
師云。元正啟祚。萬物咸新。
僧曰。謝指示。
師云。老僧失利。
上堂云。煙飛澹澹。柳色依依。莫將庭柏作真機。若問靈雲不疑事。桃花滿樹正芳菲。

泉州開元寺真覺大師

諱志添。姓陳氏。本州人也。幼住庵巖。依師圓具。徧參祖席。尋訪東林總禪師之堂。一日。室中示吹布毛因緣。師於言下豁然開悟。乃呈頌曰。
老師曾把布毛吹。舉處分明第一機。
欲識箇中端的趣。嶺頭遙指白雲飛。

至元祐初。游於京師。徐國大王未契禪宗。聞師道風。一日。遣使召師入宮。小參。示眾云。毗盧遮那實性。與汝等諸人本性無別。從曠劫來。輪轉法界。於受生中。無本無末。無去無來。無性無相。無古無今。纖塵不立。毫髮難存。無正法而可分。何像末之為間。故知法界眾生無成無壞。等性本源是佛。然雖如是。若據衲僧門下。天地懸殊。何也。既有生而有滅。復有去而有來。正像末法既無差。性相照然而可觀。於其中間。無有成佛。無不成佛。於般若藏。無所間然。直饒三世諸佛。六大祖師。天下老和尚。神通過於鶩子。辯智勝於滿慈。到這裏也須結舌亡鋒。良久云。國令已傳清宇宙。人人各賀太平年。王續問。如何是佛法底事。師云。見性即是。王曰。如何得見性去。師云。不離十二時中。行住坐臥皆是古佛道場。王遂悟玄旨。密契宗風。即命四禪入宮陞座。復求印可。飯千僧。閱大藏。以為慶讚。及奏太皇。賜磨衲袈裟。時遇今上皇帝御寶題金環條[金*菊]云。賜真覺道者。當來同成佛果。復奏佛印禪號。堅辭不受。諸宮屢賜紫衣。四十餘道迴奏諸方禪律。神宗皇帝上仙。於福寧殿賜真覺大師。建中靖國續燈錄卷第十九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四世

舒州海會守端禪師法嗣

潭州雲蓋山智本禪師

姓郭氏。筠州人也。依本州慈雲院受具。即慕參遊。造海會端禪師法席。投機開悟。眾所推仰。初住舒州龍門。樞密曾公請住南嶽法輪。高臺道林。晚遷雲蓋。

開堂日。陞座。顧視云。會麼。南嶽山高。瀟湘水綠。千仞壁立。萬派朝宗。久參先德。相共證明。後進初機。有疑請問。

問。香烟馥郁。大眾臨筵。為國開堂。如何舉唱。

師云。片雲生嶽頂。

僧曰。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師云。孤月舊團圓。

僧曰。祝延 聖筭蒙師指。向上宗乘事若何。師拍禪牀一下。

僧曰。逢人分明舉似。

師云。早見錯舉。

問。諸佛出世。天雨四花。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千聞不如一見。

僧曰。見後如何。

師云。瞎。

問。如何是佛。

師云。釋迦。彌勒。

僧曰。便恁麼會時如何。

師云。腦後擎拳。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琉璃餅子。僧擬議。師便喝。

問。庭前栢樹人知有。先師無語意如何。

師云。真鍮不換金。

問。異類擬生全是兆。機鋒兼帶意如何。

師云。脫却襪衫提席帽。相逢不說那邊來。

問。如何是清淨法身。

師云。家無小使。不成君子。
問。目瞪口呆。如何話會。
師云。傍觀者醜。
問。將心覓心。如何覓得。
師云。波斯學漢語。
問。如何是學人出身處。
師云。雪峯元是嶺南人。
問。素面相呈時如何。
師云。一場醜拙。
問。起坐相隨。為什麼不識。
師云。相逢雖語笑。背后切無端。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薄剌明月。
僧曰。祇遮箇。別有在。
師云。細切清風。
問。人人盡有一面古鏡。如何是學人古鏡。
師云。打破來。向爾道。
僧曰。打破了也。
師云。胡地冬生笋。
問。如何是齧人師子。
師云。五老峰前。
僧曰。遮箇豈會齧人。
師云。今日捨得性命。
問。古人道。說取行不得底。行取說不得底。未審行不得底作麼生說。
師云。口在脚下。
僧曰。說不得底作麼生行。
師云。蹈著舌頭。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一隊衲僧來。一隊衲僧去。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場略借看。
師云。適來恰被人借去。
問。王道與佛道相去多少。
師云。和尚褊衫闊。措大白襪寬。
上堂云。去者鼻孔遼天。來者腳踏實地。且道祖師意向什麼處著。
良久。云。長恨春歸無處覓。不知流入此中來。
上堂云。後詞一訣。對面直說。若到諸方。不得漏泄。稍若商量。
金剛腦裂。遂拍一下。

上堂云。高臺巴鼻。開口便是。若也便是。有甚巴鼻。月冷風高。水清山翠。

上堂云。以楔出楔。有甚休歇。欲得休歇。以楔出楔。喝一喝。

上堂。高聲喚侍者。侍者應喏。師云。大眾集也未。

侍者曰。大眾已集。

師云。那一箇為什麼不來赴參。侍者無語。

師云。到即不點。

上堂云。滿口道不出。句句甚分明。滿目覷不見。山山疊亂青。鼓聲猶不會。何況是鐘鳴。喝一喝。

上堂云。祖翁卓卓拳拳。兒孫齷齷齷齷。有處藏頭。沒處露角。借問衲僧。如何摸[打-丁+索]。

上堂云。雞作雞鳴。犬作犬吠。不用教招。自然如是。本分衲僧。却不瞥地。

上堂云。眼若朱紅。面如潑墨。婆婆娑娑。頤頤索索。一口齧破鐵饅頭。馨香直到新羅國。

上堂。橫按拄杖云。牙如刀劍面如鐵。眼放電光光不歇。手把蒺藜一萬斤。等閑敲著天邊月。卓一下。

蘄州五祖演禪師

問。擣筇領眾。祖令當行。坐斷要津。師意如何。

師云。西風吹渭水。落葉滿長安。

僧曰。四面無門山嶽秀。今朝且得主人歸。

師云。路頭在什麼處。

僧曰。對面蹉却。

師云。且喜到來。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人貧智短。馬瘦毛長。

問。如何是白雲為人親切處。

師云。裂轉鼻孔。

僧曰。便恁麼去時如何。

師云。不知痛痒。

問。達磨面壁。意旨如何。

師云。計校未成。

僧曰。二祖立雪時如何。

師云。將錯就錯。

僧曰。祇如斷臂安心又作麼生。

師云。煬帝開汴河。

問。如何是道。
師云。始平郡。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赤心為主。
僧云。未審道與道中人相去多少。
師云。名傳天下。
問。如何是極則事。
師云。何須特地。
問。百尺竿頭。如何進步。
師云。快走始得。
問。如何是臨濟下事。
師云。五逆聞雷。
僧曰。如何是雲門下事。
師云。紅旗閃爍。
僧曰。如何是曹洞下事。
師云。馳書不到家。
僧云。如何是洙仰下事。
師云。斷碑橫古路。僧禮拜。
師云。何不問法眼下事。
僧曰。留與和尚。
師云。巡人犯夜。
問。如何是白雲一滴水。
師云。打碓打磨。
僧曰。飲者如何。
師云。無著麪處。
問。天下人舌頭盡被白雲坐斷。白雲舌頭甚麼人坐斷。
師云。東村王大翁。
問。盡力撥不轉時如何。
師云。特石。
僧曰。一撥便轉時如何。
師云。轆鑽。
師乃云。適來思量得一則因緣。而今早忘了也。却是拄杖記得。乃拈拄杖云。拄杖子也忘了。遂卓一下。云。同坑無異土。咄。
上堂云。幸然無一事。行脚要參禪。却被禪相惱。不透祖師關。如何是祖師關。把火入牛欄。
上堂云。恁麼恁麼。蝦跳不出。不恁麼不恁麼。弄巧成拙。軟似鐵。硬似泥。金剛眼睛十二兩。衲僧手裡稱頭低。有價數。勿商量。無鼻孔底將什麼聞香。

上堂云。難難幾何般。易易沒巴鼻。好好催人老。默默從此得。過遮四重關。泗州人見大聖。

上堂云。若要七縱八橫。見老和尚打鼓陞堂。七十三八十四。將拄杖驀口便築。然雖如是。拈却門前上馬臺。剪却五色索。方始得安樂。

上堂云。有一則奇特因緣舉似諸人。欲說又被說礙。不說又被不說礙。欲舉山河大地。又被山河大地礙。從教頭上且安頭。真金不博鎗。丈夫意如此。快樂百無憂。

滁州瑯琊山開化寺永起禪師

襄陽人也。鷲嶺興化禪院受業。參白雲端禪師以出世。住持二十年。都尉張侯敦禮奏以椹服。

問。口欲談而詞喪。心欲緣而慮忘。去此二途。請師速道。

師云。一片白雲無盡處。被風吹去又吹來。

僧曰。此猶是學人問處。

師云。爾問處作麼生道。

僧曰。棒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裡看。

師云。山僧罪過。

僧曰。知即得。

師拊掌一下。云。也不得放過。

問。淺聞深悟。不捨一法。深聞不悟。不受一塵。上是法堂。下是塔。作麼生是迷逢達磨。

師云。終日相見。何消如此。

僧曰。迷逢達磨蒙師指。迷悟雙忘事若何。

師云。喚作露柱。

僧曰。前頭底如金似玉。后頭底轉見光輝。

師云。今日不著便。

問。年窮年盡烹露地白牛。寸刃未施。請拈出完全底頭角。師良久。

僧曰。凡聖難測。誰喚作牛。

師云。錯。

僧以手點云。雪落在什麼處。

師云。猶自不知。

僧曰。敢道諸方不到。

師云。少賣弄。

問。千手大悲提不起。無言童子暗嗟吁。既是千手大悲。為什麼却提不起。

師云。白雲無縫罅。
僧曰。仰之彌高。鑽之彌堅。
師云。頭頭顯露。
僧曰。為復神通妙用。為復法爾如然。
師云。放過一著。
問。菴內人為什麼不見庵外事。
師云。東家點燈。西家暗坐。
僧曰。如何是庵內事。
師云。眼在什麼處。
僧曰。三門頭合掌。
師云。有甚交涉。
師乃云。五更殘月落。天曉白雲飛。分明目前事。不是目前機。既是目前事。為什麼不是目前機。良久。云。此去西天路。迢迢十萬餘。
上堂。良久。拊掌一下。云。阿呵呵。阿呵呵。還會麼。法法本來法。遂拈拄杖云。遮箇是山僧拄杖。那箇是本來法。還定當得麼。卓一下。

英州大溶山保福殊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顧視大眾云。會麼。若也不會。第二杓惡水潑去也。
時有僧問。萬緣俱蕩盡。一衲任逍遙時如何。
師云。暝猿啼古木。
僧曰。學人不會。
師云。寒霧鎖幽林。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清溪三日一回虛。
僧曰。未審其中事若何。
師云。東頭買貴。西頭賣賤。
僧曰。還當也無。
師云。看物酬價。
問。諸佛未出世時如何。
師云。山河大地。
僧曰。出世後如何。
師云。大地山河。
僧曰。與麼則一般也。
師云。敲甌打瓦。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一徑杉松滿面風。
僧曰。如何曉了。
師云。白楊青草雨蒙茸。
問。如何是無心道人。
師云。林下高眠。春秋不記。
僧曰。若然者。更無蹤跡到人間。
師云。蓬茅多長雨。松竹不凋霜。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椀大椀小。
僧曰。客來將何祇待。
師云。一杓兩杓。
僧曰。未飽者作麼生。
師云。少喫。少喫。
問。如何是大道。
師云。鬧市裡。
僧云。如何是道中人。
師云。一任人看。
問。如何是衲僧氣息。
師云。熏天炙地。
問。如何是佛。
師云。巧畫不似。
僧曰。如何是法。
師云。巧說不出。
僧曰。如何是僧。
師云。鬚頭跣足。
問。言語道斷時如何。
師云。舌落三分。
僧曰。心行處滅時如何。
師云。肚高三尺。
問。孤峯獨宿時如何。
師云。林下長伸兩脚眠。
問。如何是禪。
師云。秋風臨古渡。落日不堪聞。
僧曰。不問遮箇禪。
師云。爾問那箇禪。
僧曰。祖師禪。
師云。南華塔外松陰裡。飲露吟風又更多。

問。如何是大道之源。
師云。一路入烟草。
僧曰。如何得達去。
師云。千山啼子規。
問。不落言詮。不落意想。閉却唇吻。請師分付。
師云。拄杖不在手。
僧曰。一片孤雲點太清。
師云。重疊關山路。
問。西風悽悽。師意如何。
師云。草枯唯長菊。木落祇留松。
僧曰。四時心不變也。
師云。看看又是一陽生。
僧曰。畢竟如何。
師云。天長地久。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巢知風。穴知雨。
僧曰。恁麼則同也。
師云。禽宿巢。狐守塚。
問。如何是真正路。
師云。出門看埃子。
師乃云。釋迦何處滅俱尸。彌勒幾曾在兜率。西覓普賢好慚惶。北討文殊生受屈。坐壓毗盧額汗流。行築觀音鼻血出。回頭摸著箇匾擔。却道好箇木牙笏。遂喝一喝。
上堂云。烏雞帶雪。當人未決。黑牛臥水。是誰知委。是誰知委。師婆祭鬼。當人未決。鼻孔著楔。相逢休更問如何。措大襴衫千百結。
上堂云。百草頭上薦得。鈍致群芳。鬧市裡識來。羞慚眾面。離名離相。徧體瘡疣。無事無為。周身桎梏。便脫灑去。笑殺他人。不與麼來。孤負自己。行脚本分。請道將來。良久。云。失錢遭罪。擊禪牀一下。
上堂云。杲日麗天。形影相雜。清風照膽。睽兆交萌。且道透脫一路作麼生。良久。云。龜毛莫擬將為拂。恐動泓溟浪裡塵。

金陵保寧仁勇禪師法嗣

鄂州月掌山壽聖智淵禪師

問。立雪殷勤事已彰。少林衣鉢付神光。那時得底真消息。今日如何為舉揚。

師云。鐵牛吼處須彌轉。木馬嘶時地軸搖。

僧曰。恁麼則古蘭臺畔揚宗旨。白雪樓前萬姓歌。

師云。相識滿天下。知心有幾人。

問。祖意西來即不問。如何是一色。

師云。目前無闍梨。此間無老僧。

僧曰。既不如是。如何曉會。

師云。領取鈎頭意。莫認定盤星。

問。如何是月掌山。

師云。手中擎月。

僧曰。如何是月掌山中人。

師云。背上負海。

僧曰。敗闕了也。師便喝。

問。承聞和尚為保寧燒香。是否。

師云。昨朝餛飩。今日酸謙。

僧曰。某甲不問遮箇。

師云。無底鉢盂吞却了。一生飽足永忘飢。

僧曰。泊不問過。

師云。今日失利。

師乃云。凡有問答。一似擊石迸火。流出無盡法財。三草二木普霑其潤。放行也。雲生谷口。霧罩長空。把定也。碧眼胡僧。亦頂罔措。壽聖如斯舉唱。猶是化門。要且未有衲僧巴鼻。敢問諸人。作麼生是衲僧巴鼻。良久。云。布針開兩眼。君向那頭看。

湖州烏墩壽聖楚文禪師

問。新斲一張琴。不是凡間木。學人捧上來。請師彈一曲。

師云。無遮閑功夫。

僧曰。空生不解巖中坐。引得天花滿座前。

師云。也知行履不易。

僧曰。心不負人。面無慚色。

師云。莫相鈍致。

師乃云。巍巍堂堂。有紀有綱。灿灿赫赫。自明白白。濟鏘鏘。唯忠唯良。慷慷慨慨。能梗能槩。如斯之者。可重可貴。可愛可惜。莽莽鹵鹵。無規無矩。冒冒草草。非理非道。郎郎當當。不隱不藏。顛顛預預。無識無端。如斯之者。遠之又遠。不足可觀。然

雖如是。也未免事屬兩宜。且道如何得無彼此。良久。云。大眾。甜瓜徹蒂甜。苦瓜徹蒂苦。

上堂。拈拄杖云。華藏木槲[木*栗]。等閑亂拈出。不是不惜手。山家無固必。點山山動搖。攪水水波溢。忽然把定時。事事執法律。要橫不得橫。要屈不得屈。驀召大眾云。莫謂棒頭有眼明如日。上面光生盡是漆。隨聲敲一下。

上堂云。有一人滿口道不得。滿眼覷不見。滿耳聽不聞。此人堪與祖佛為師。有一人口啞能言。眼盲能視。耳聵能聽。此人却與人天為師。有一人辨瀉懸河。眼明掣電。耳聽幽微。此人自救不了。大眾。山僧與諸人一注破。可謂露骨傷筋。且道不動毫毛一句作麼生道。乃云。好彩。

上堂云。一杈一筍。著骨連皮。一搦一擡。黏手綴脚。電光石火。頭垂尾垂。劈箭追風。半生半死。撞著磕著。討甚眉毛。明頭暗頭。是何眼目。總不恁麼。正在半途。設使全機。未至涯岸。直饒淨裸裸。赤灑灑。勿可把。尚有廉纖。山僧恁麼道。且道口好作什麼。良久云。嘻。留取喫餅。

信州靈鷲山寶積宗映禪師

問。提綱舉要。還他本分宗師。不涉離微。請師速道。

師云。五袴歌中槌法鼓。百花城外發清音。

僧曰。恁麼則龍吟虎嘯尋常事。順信壺中別有天。

師云。未在。更道看。

僧曰。漏泄機關人未識。江南地暖隴西寒。

師云。半生半熟。

問。靈然一句超今古。朝旆光臨事若何。

師云。千里漁樵歌道泰。萬家風月照樓臺。

僧曰。若然者。攜藻玉堂歸未晚。百花開赴御筵時。

師云。國清才子貴。師橫按拄杖云。大眾。到遮裡。無親無疎。自然不孤。無內無外。縱橫自在。自在不孤。清淨毗盧。釋迦舉令。彌勒分疎。觀根逗教。更相回互。看取承天拄杖子。黑漆光生。兩頭相副。阿呵呵。是何言歟。良久。云。世事但將公道斷。人心難與月輪齊。卓一下。

越州寶嚴道倫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胸題萬字。頂放珠光。

僧曰。如何是法。
師云。玉軸寶函。金書銀字。
僧曰。如何是僧。
師云。方袍圓頂。鶴貌雲心。
僧曰。請師別道。
師云。詞多無後益。語亂足悲生。

洪州景福日餘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九年面壁無人會。隻履西歸天下聞。
僧曰。學人未曉。
師云。要會普通年遠事。不從葱嶺帶將來。
問。如何是道。
師云。天共白雲曉。水和明月流。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先行不到。末後太過。僧出眾畫一圓相。師以手畫一畫。僧作舞歸眾。
師云。家有白澤之圖。必無如是妖恠。師拈拄杖云。無量諸佛向此轉大法輪。今古祖師向此演大法義。若信得及。法法本自圓成。念念悉皆具足。若未信得及。山僧今日因行不妨掉臂。更為重說偈言。卓一下。

湖州上方日益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云。白槌前觀。一又不成。白槌後觀。二又不是。到遮裡。任是鐵眼銅睛。也須百雜碎。莫有不避危亡底衲僧。試出來看。時有兩僧齊出。
師云。一箭落雙鷗。
僧曰。某甲話猶未問。何得著忙。
師云。莫是新羅僧麼。僧擬議。
師云。撞露柱漢。便打。
問。瞎驢滅却法眼藏。意旨如何。
師云。土曠人稀。相逢者少。
僧曰。祇如今日又作麼生。
師云。捏轉鼻孔。
問。如何是臨濟家風。
師云。電光裡走馬。

僧曰。如何是雲門家風。
師云。爛泥中有刺。
僧曰。和尚畢竟是誰家之子。
師云。一任鑽龜打瓦。
問。神光得髓。意旨如何。
師云。徹皮徹骨。
僧曰。恁麼則龍門無宿客。
師云。不許夜行。
問。如何是未出世邊事。
師云。井底蝦蟆吞却月。
僧曰。如何是出世邊事。
師云。鷺鷥踏折枯蘆枝。
僧曰。去此二途。如何是和尚為人處。
師云。十成好箇金剛鑽。攤向街頭賣與誰。
問。道吾既不道。和尚為什麼却道。
師云。有口不可啞却。
問。如何是多年水牯牛。
師云。齒疎眼暗。
問。如何是露地白牛。
師云。雪堆上看取。
問。盡力跳不出時如何。
師云。愁人莫向愁人說。
僧曰。早知今日事。悔不慎當初。
師云。說向愁人愁殺人。
問。鬧市相逢事若何。
師云。東行買賤。西行賣貴。
僧曰。忽若不作貴。不作賤。又作麼生。
師云。鎮州蘿蔔。
問。少林面壁。意旨如何。
師云。無人得相見。
僧曰。為復是遇賤即貴。遇明即暗。
師云。惜取當門齒。
問。毗耶杜口。意旨如何。
師云。有理說不得。
問。丹霞燒木佛。意旨如何。
師云。物出急家門。
僧曰。為什麼院主眉鬚墮落。
師云。傍觀者醜。

問。一切含靈俱有佛性。既有佛性。為什麼却撞入驢胎馬腹。
師云。知而故犯。
僧曰。未審向什麼處懺悔。
師打云。且作死馬醫。
問。覲面相呈時如何。
師云。左眼半斤。右眼八兩。
僧提起坐具云。遮箇響。
師云。不勞拈出。
師左右顧視云。黃面老周行七步。脚跟下正好一錐。碧眼胡兀坐九年。頂門上可惜一筍。當時若有箇為眾竭力底衲僧下得遮毒手。也免得拈花微笑。空破面顏。立雪齊腰。翻成轍迹。自此將錯就錯。相樓打樓。遂有五葉芬芳。千燈續燄。向曲[糸*頁]木裡唱二作三。於柳[木*栗]杖頭指南為北。
直得進前退後。有問法問心之徒。倚門傍牆。有覓佛覓祖底漢。庭前指柏。便喚作祖意西來。日裡看山。更錯認學人自己。殊不知此一大事。本自靈明。盡未來際。未嘗間斷。不假修證。豈在思惟。雖鶩子有所不知。非滿慈之所能辨。不見馬祖一喝。百丈三日耳聾。寶壽令行。鎮州一城眼瞎。大機大用。如迅雷不可停。一唱一提。似斷崖不可履。正當恁麼時。三世諸佛祇可傍觀。六代祖師證明有分。大眾且道今日還有證明底麼。良久。云。筍。
上堂云。向黃蘗山前。捋下破撲頭。鳳凰臺下。卸却膩脂帽。將謂赤灑灑地。於五湖四海作箇閑人。飄然如不繫之舟。豈知被一陣業風吹到白蘋洲上。進退無門。而今也不免向仙潭溪裡作箇把梢底去也。若是從南來者。與伊下載。若是從北來者。與伊上載。上載下載。猶是中流語。且道到岸一句作麼生道。若道不得。便請洗脚上船。擲拄杖便起。
上堂云。拾得般柴。寒山燒火。唯有豐干巖中獨坐。且道豐干有什麼長處。良久。云。家無小使。不成君子。

洪州黃龍山祖心寶覺禪師法嗣

洪州黃龍如曉禪師

問。有客遠方來。示我徑寸璧。如何是徑寸璧。
師云。千峯排翠色。
僧曰。便恁恁時如何。
師云。萬卉長威稜。
問。如何是黃龍境。

師云。山連幕阜秀。水瀉洞庭清。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形容雖醜陋。出語更成章。
問。語默涉離微。如何得不犯。
師云。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
僧曰。謝答話。
師云。向道莫行山下路。分明祇在路傍生。
師乃云。煙雲綻處。樓殿撐天。水月松蘿。交光相映。人和境照。柳眼乍青。佛法人事。無欠無少。雖然如是。不落時機一句作麼生道。良久。云。少林雖面壁。年老也心孤。
上堂云。白雲風卷。宇宙豁清。月印長天。形分眾水。若恁麼散去。便道山僧無折合。更或謔風詠月。又成起浪生風。正當恁麼。如何即是。良久。云。幽鳥不嫌山勢闊。魚龍爭厭碧潭深。

洪州雙嶺化禪師

問。急急相投時如何。
師云。渴鹿趨陽燄。
僧曰。恁麼則知時別宜也。
師云。劊利人難得。
問。如何是道。
師云。掘地深埋。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銅頭鐵額。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老僧舌頭短。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雲散家家月。
僧曰。出世後如何。
師云。春至百花開。
僧曰。未審即今在什麼處。師便喝。
上堂云。翠竹黃花非外境。白雲明月露全真。頭頭盡是吾家物。信手拈來不是塵。遂舉拂子云。會麼。認著依前還不是。擊禪床一下。
上堂云。聞聲悟道。見色明心。文殊·普賢在鐘鼓裡藏身。釋迦·彌勒向百草頭上顯現。塞却諸人見聞覺知。向聲色外道將一句來。良久。云。擬議思量。白雲萬里。

泗州龜山水陸禪院曉津禪師

問。如何是賓中賓。
師云。巢父飲牛。
僧曰。如何是賓中主。
師云。許由洗耳。
僧曰。如何是主中賓。師便喝。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禮拜了退。

韶州雲門寶宣禪師

問。雲門一曲。不屬宮商。請師舉唱。
師云。聽者須是其人。
僧曰。恁麼則流通去也。
師云。三十棒翻為一百五十。
師乃云。朕兆未生。風恬浪靜。朕兆纔舉。文彩互陳。且道互陳底事。諸人還知落處也無。良久。云。世有知音者。方當話歲寒。

澧州夾山靈泉院曉純禪師

師遊方。聽習經論。后至黃龍。因點燈看經次。舉洞山麻三斤因緣大悟。心禪師云。傳吾道者甚眾。要如純者鮮矣。出世先住洪州延恩。鄂州黃龍。澧州洛浦。次至夾山。
師將木刻作一象。師子頭。牛足。馬身。每有僧至。遂指問云。喚作師子。即是馬身。喚作馬。却是牛足。且道畢竟喚作什麼。
又常示眾云。有箇漢子病。病后死。死后臃脹。爛壞蛆出。扛去燒成灰颺。却灰。成空一靈性。往別處受生。佛說本自不生。今亦不滅。爾作麼生會。

鄂州黃龍延禧智融禪師

問。為 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報 君恩。
師云。煙雲生宇宙。瑞氣滿乾坤。
僧曰。君恩且如是。祖意又如何。
師云。六六三十六。
問。停舟辨水通滄海。不挂孤帆事若何。
師云。南海波斯入大唐。

僧曰。恁麼則出沒卷舒。與師同用也。
師云。有人別寶好商量。
僧曰。爭柰東行不見西行利。
師云。或時遇賤。或時遇貴。
僧曰。手執夜明符。背負須彌去。
師喝云。脫空謾語漢。
師云。幻人說幻法。幻法度眾生。山僧幻說法。諸人幻來聽。且道
幻從何來。法從何起。良久。云。一句坐中得。片心天外來。

杭州顯明道昌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錦袋盛簫管。誰人辨正音。
僧曰。龍峯嫡子。黃蘗兒孫。
師云。師子齧人。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人離鄉賤。物離鄉貴。
僧曰。莫便是西來意也無。
師云。天台。南嶽。
僧曰。將謂少林消息斷。誰知今日宛然存。
師云。道聽途說。

漳州淨眾本權禪師

問。萬彙同霑物外春時如何。
師云。許闍梨具眼。
問。寶座既登於此日。宗風演唱嗣何人。
師云。太陽正照。萬物含輝。
僧曰。若然者。星郎不謾朝車至。滿筵黑白盡霑恩。
師云。風行草偃。雲散月明。
問。道無橫徑。立者皆危。如何是道。
師云。海底烏龜。深山大蟲。
僧曰。莫祇遮便是麼。
師云。見錢買賣不曾賒。
師云。新年頭。新長老。說新禪。新鮮言句動春暄。百卉萌芽花吐
蘂。新鷲初囀弄吟聲。頭頭泄漏真如理。句句分明摩竭令。諸禪
德。且作麼生是摩竭令。良久。云。東君已報陽春信。萬物含輝謝
太平。

潭州南嶽雙峯景齊禪師

上堂。拈拄杖示眾云。橫拈倒用。諸方虎步龍行。打狗撐門。雙峯掉在無事甲裡。因風吹火。別是一家。以拄杖靠肩。顧視大眾云。喚作無事。得麼。良久。云。刀尺高懸著眼看。誌公不是閑和尚。卓拄杖一下。

上堂云。止動歸止。止更彌動。雲門一棒打殺悉達太子。不是好心。臨濟再思黃蘗蒿枝。真箇屈(衢物切)強。大眾。古人關捩。今人話端。前車既翻。後車改轍。乃舉起拳頭云。諸人不見。雙峯罪過。別有商量。如或悄然。雙峯隱身無路。

杭州慈雲道清禪師

示眾云。箭鋒相拄底。應機乃絲髮無差。邊方人語不相諳。如何辨他子細。又云。格外明機底。問南則以北為訓。飢餒人急切相投。未審將何賑濟。又云。妙用縱橫底。臨機辯若懸河。毗耶城彼上人來。未審若為訓對。又云。寒灰枯木底。到遮裡無言。家中給侍之人。日用如何指授。

洪州景德惠英禪師

上堂。良久。忽擲拄杖。喝云。大眾。是什麼。錦鱗赤尾尋常事。莫把金鈎度與人。

洪州翠巖廣化悟新禪師

問。如何是心。
師云。半夜不須敲玉戶。
僧曰。如何是法。
師云。天明鳳子笑含華。
師云。清珠下於濁水。濁水不得不清。念佛投於亂心。亂心不得不佛。佛既不亂。濁水自清。濁水既清。功歸何所。良久。云。幾度黑風翻大海。未曾聞道釣舟傾。

廣州集福寶巖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今日不答話。

僧曰。為甚麼不答。
師云。知時別宜。
僧曰。學人未曉。
師云。華嶽三峯頭指天。
問。言詮不到。請師垂示。
師云。不從人得。
僧曰。未審從何而得。
師云。爾試道看。僧擬開口。師便打一拂子。
問。皈源性無二。方便有多門。如何是歸源底道理。
師云。天台普請。南嶽遊山。
僧曰。還有向上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則是。
師云。拄杖子。

舒州太平興國惟清禪師

問。靈山一會。迦葉親聞。今日一會。學人聞不。
師云。未是與麼人。
僧曰。漏泄不少。
師云。爾見箇什麼。僧便喝。
師云。不信道。
問。雷音既震。法雨願傾。
師云。孰非霑足。
僧曰。幾年獨滯朝宗勢。今日方騰出谷聲。
師云。何勞特地。乃云。知識不知智到處。唯己自知。因緣和合時。與人共用。所以把住則當機絕迹。千聖難窺。放行則應物現形。四生可辨。且道即今把住好。放行好。良久。云。要知萬派流無盡。全在靈源一脉深。

鄂州黃龍延禧禪院智明禪師

饒陽人也。棄儒從釋。經試華嚴。衣披方褐。具戒參遊。造心禪師丈室。香烟起處。豁然契悟。淘汰古今。密洞淵奧。提刑胡公師文為方外交。翰林學士張公商英請師出世。尚書豐公稷為語錄序。灌溪·寂照·黃龍三刹。提唱宗風。為世所仰。
問。世尊出世。魔界傾摧。和尚開堂。有何祥瑞。
師云。一夜落華雨。滿城流水香。

問。大庾嶺頭為什麼提不起。

師云。臨崖看虎眼。特地一場愁。

僧曰。恁麼則悔不慎當初也。

師云。是什麼面目。

居士胡公巡按過荊南之公安。問二聖寺僧云。梁武帝問達磨。如何是聖諦第一義。磨云。廓然無聖。今日公安因甚却有二聖。僧無對。

後舉似師。師云。一點黑水。兩處成龍。

上堂云。向上一路。衲僧罔措。求妙求玄。邯鄲學步。

上堂。眾纔集。師云。不可更開眼說夢去也。便下座。

上堂云。南山一訣。斬釘截鐵。切忌商量。翻成途轍。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岳懷讓禪師第十四世

雲居山元祐禪師法嗣

東京大相國寺智海禪院佛印禪師

諱智清。姓葉氏。泉州同安人也。賦性明敏。博學典雅。年未及冠。依鹿苑寺慧儒上人出家。一侍巾餅。五載圓具。夙機啟發。徧參知識。祐師一見。深印可之。初住五祖。名動四方。朝野欽聞。奉詔住持。

哲宗皇帝百日入內。特賜佛印禪號。

師於建中靖國元年二月十七日。大行皇太后五七。奉 聖旨就 慈德殿陞座。師拈香云。此一瓣香。奉為 大行皇太后。爇向金爐。大興佛事。伏願香雲芬馥。導塗山之仗而來入道場。法雨清涼。沃 文母之心而頓登佛地。乃斂衣陞座。云。古佛堂前。隨時施設。 慈德殿上。今日舉揚。諸人且道是同是別。還有道得底麼。試出來道看。

問。萬派殊途。同歸巨海。無邊妙德。咸出此宗。未審如何是此宗。

師云。傳來佛佛垂洪範。悟去心心徹太虛。

僧曰。憑師一味清涼雨。四海為霖報國恩。

師云。只消一滴曹溪水。洗盡群生萬古塵。

僧曰。堯風舜日增祥瑞。樵唱漁歌賀太平。

師云。一言該至化。千聖自同歸。

僧曰。若不登樓。爭知海闊。便禮拜。

師云。更須前進。

問。曹源問。大智海中必有鎮海明珠。今日當場。請師拈出。

師展兩手云。看看。

僧曰。昔日仰山。今朝和尚。

師云。罔象到時光燦爛。離婁行處浪滔天。

僧曰。與麼則釋迦頂上天然別。龍女持來更不殊。

師云。團團透徹三千。皎皎含容萬有。

僧曰。太後承恩超淨土。我皇聖壽萬年春。

師云。唯此甚分明。曾無有移動。
問。佛地三千金世界。仙家十二玉樓臺。未審摩耶夫人即今在什麼處。
師云。妙體本來無處所。通身何更有蹤由。
僧曰。與麼則紫金蓮捧千輪足。白玉毫迎萬德身。
師云。須知佛國三千界。祇在吾皇一化中。
僧曰。祇如吾皇化內。還許學人露箇消息也無。
師云。皇天不礙閑雲點。杲日何妨爍火光。
僧曰。九衢百萬人煙裏。祇見燒香賀太平。
師云。一氣無私。群生有賴。
問。法具隨身。逢場佛事。不施三拜。不唱一喏。置問得也無。
師云。禮可興。不可廢。
僧曰。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選佛場開。如何舉唱。
師云。覺花綻處千林秀。佛日圓時萬像融。
僧曰。金鷄啼子夜。芻狗吠天明。
師云。爾道什麼人知音。僧合掌白看。
師云。不妨惺惺。
僧曰。力扶聖嗣傳洪業。本望千秋慶太平。限盡難留今五七。請師說法悼仙靈。
師云。始隨玉兔光中去。又逐金烏影裏來。
僧曰。至理一言資素識。未知仙馭在何方。
師云。王舍城中日。祇桓會上時。
僧曰。水流元在海。月落不離天。
師云。已是第二月。
問。華嚴教云。菩薩現身作國王。於世位中最無等。福德威光勝一切。普為群萌興利益。且道當今皇帝是什麼菩薩。
師云。蕩蕩莫能名。
僧曰。大悲願力為人主。日用佛心治萬民。
師云。知恩始解報恩。
問。三乘十二分教則不問。如何是聖諦第一義。
師云。雲盡日月正。風和天地春。
僧曰。與麼則功流萬世而長存。道通百劫而彌固。
師云。含容巨細堯天闊。照燭高低舜日長。
僧曰。若然者。蕩蕩無為。元元自化。
師云。威光振大千。巍巍主中主。
僧曰。可謂梵天一會。今日重新。
師云。摩尼寶殿中。千古無私照。
僧曰。千載一時。謝師答話。

師云。謝子問話。

師云。適來淨因禪師云。最初說法者。不知末後句。末後說法者。不知最初句。臣僧今當末後說法。却奉為 大行太后演最初句。還知麼。靈源湛寂。物我皆如。佛性精真。聖凡同體。明妙彌綸。千古圓澄。廓徹十虛。本絕去來。何嘗生滅。祇為昧之者。情存知解。見有我人。認十界為家鄉。執一身為自己。所以妄生憎愛。強起貪嗔。恣業識而造苦因。徇報緣而依輪轉。

從此纏綿積劫。不知思返本之方。淪溺諸流。未省發還源之念。既背違真際。當困踣昏途。縱憶光明。莫能捨離。諸仁者。如斯弱喪。誰可哀憐。還知麼。唯吾佛釋迦如來。為此因緣故出現。所以四十九年住世。度群生而轉根本法輪。雙林樹下真歸。命高第而付毗盧密印。

由是佛祖相承之後。古今授手而來。雖廣設方便化門。唯指此一心妙法。大矣哉。妙法也。非智慧辯才所能議。非神通修證所能為。不可以有心知。不可以無心得。悟之。祇消一言洞達。當處便脫死生。儻迷之。縱爾歷位進修。到底不離虛妄。祇如今日。人天交接。幽顯普臨。 皇風習習以和春。帝日遲遲而育物。萬乘正登於舜殿。六禪齊仰於堯天。奉為 大行太后建此法筵。須明指古佛妙心。要其開悟。

乃舉起袈裟角云。還見麼。三世如來在遮裏。坐寶蓮臺。放光現瑞。諸大祖師盡在遮裏。據師子座。入定安禪。 大行太后若於斯見得。則不離當處。頓悟自己本心。不動道場。坐登自己佛地。便見生者滅者。未嘗有滅有生。即此說人聽人。未嘗有聽有說。所以適來適去。宛爾全真。在昔在今。更無別體。

以至朱樓玉殿。重重現清淨法身。金闕瑤池。處處露本來面目。縱有塵刹神通三昧。無作而自成。河沙微妙法門。不行而自到。 大行太后若如是了達得。始笑他娑竭龍少女。待往南方而成佛。未是作家。韋提希夫人願向西土而受生。徒為妄想。諸人且道 大行太后悟處。如何便得恁麼猛利。要會麼。唯佛與佛同證同知。非彼常情所能測度。

臣僧智清以此舉揚般若功德。無邊妙利。謹進莊嚴。惟為 大行太后上資 仙馭。恭惟 太后內政齊家。厚德載物。勤儉著於中外。明哲邁於古今。方 聖政之惟新。繫 母儀而是託。夫何閻浮報盡。安養果成。拋 慈德之故宮。遊光嚴之淨土。歎二輪迅速。丁五七斯臨。 聖心敬竭於孝誠。佛事欽修於永日。命諸禪而陞座。大敷闡於宗猷。冀憑佛法之殊勳。上薦 神仙之化路。伏願 大行太后諦聞般若。解脫塵緣。深悟本心。入佛知見。更冀錫茲福祉。佑 宗社於靈長。使 我國家躋民於仁壽。

臣道行無取。名實全虛。今辰遭遇 聖恩。賜此舉揚祖令。自惟蹇淺。益負震驚。此蓋伏遇 今上皇帝陛下。神智淵深。天慈溥博。嗣 登寶位。不變時雍。潛通三寶之妙心。密運萬機之神政。但是昆蟲草木悉沐 恩波。乃至蠻貊戎夷咸歸德化。實千載昌運。乃一遇 聖時。

臣傾茲方外之誠。効彼封人之祝。恭願 皇帝陛下南山比壽。增聖壽以無疆。北海為年。資卜年而更遠。金枝騰茂。玉葉彌芳。 覆育群生。興隆正法。

皇太妃 皇后 皇子。伏願 德合天地。上扶 君父之明。壽等山河。下慰黎元之望。

伏念臣本山林槁木。巖谷微僧。忝領智海禪徒。奉事 國家香火。自量山野。累受 聖恩。斯日伏遇 皇帝陛下撫念禪林。特回天睭。令臣等於 慈德殿陞座。舉揚般若。禪門從此萬載光輝。念荷 聖恩。無以為報。臣不揆萬死。敢陳 佛法數言。願補 陛下萬機一二。所以道。三界愛河浪闊。四生苦海波深。要得解脫出離。須是悟明佛法。然而佛法非由心外而得。亦不從他傳。全是陛下清淨聖心。本來佛性。圓明洞徹。日用全彰。但一念相應。則無時不現。

昔西竺波羅提尊者。常開示一國王佛性云。王若作用。八處出現。何謂八處。在胎曰身。處世曰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遍現俱該沙界。收攝在一微塵。悟之者。謂之真如佛性。迷之者。謂之妄想精魂。彼國王聞之。即時開悟。

今 我皇帝陛下。但自己回光。即便同本得。所以日應萬機。而無非是 陛下佛性三昧。云為千變。而無非是 陛下佛性光明。以至動容周旋。見聞覺知。頭頭顯現。一一圓明。無不具足。如昔 仁宗皇帝。在宥四十餘年。深窮禪理。洞了淵源。每萬機之暇。常召大覺禪師懷璉。圓明禪師道隆於後苑陞堂。交相問難。唱和偈頌。敷演宗乘。流布迨今。禪林取則。又元豐初年。 神宗皇帝為求聖嗣。乃革相藍律院。分為兩禪。一曰惠林。一曰智海。召南方圓照禪師宗本。正覺禪師本逸領徒住持。開堂說法。嘗從容召對。問佛法宗猷。而禪考聖心益深有悟達。

自祖師到中國而來。亦未有如本朝崇重之盛遇。 仁宗皇帝 神宗皇帝皆肯迴 聖心研機顧問。建立禪林。則知佛法至尊至貴。至妙至神。所以教云。若在帝釋梵王。帝釋梵王中尊。而為說法此法。若在國王大臣。國王大臣中尊。而說此法。若在皇后嬪妃。皇后嬪妃中尊。而說此法。若在皇親太子。皇親太子中尊。而說此法。若

在內臣宰官。內臣宰官中尊。而說此法。乃至在僧在俗。在物在人。悉皆等平。而說此法。

佛法既有如是勝妙。有如是尊嚴。願陛下萬機之餘。能留聖意。一念開悟。觸處現前。方知本自圓成。不從外得。所謂一言了萬化。堯舜誠無為。臣輒課山頌一章。普告人天大眾。使其知我皇帝陛下是現在諸佛。以大悲願力。順天應人。覆育蒼生。護持佛法。臣無任瞻天荷聖。激切屏營之至。頌曰。佛有多身是處分。人間天上化凡倫。要知昔日靈山老。現作中華聖宋君。臣舉揚荒鄙。塵瀆天聰。伏惟珍重。

開堂日。哲宗皇帝遣中使降香。師謝恩畢。登座拈香。祝延聖壽罷。乃敷坐。法雲大通禪師白槌竟。師左右顧視云。乾坤廓落。日月暉華。四民子來。群芳輻輳。比比法門宏啟。欲視之。則眼病花浮。重重心印炳彰。擬執之。則形枯臂斷。諸人到此。合作麼生觀。還知麼。除是超方上士。不向眉上畫眉。其如晚路初機。且就水中洗水。

問。名香天賜爇金爐。為瑞為祥舉世無。如是君恩恩最重。師將何法贊皇圖。

師云。日月光天德。山河壯帝居。

僧曰。恁麼則金枝長白秀。玉葉永彌芳。

師云。一句既流通。群生皆稽首。

僧曰。若然者。堯風與祖風並扇。舜日與佛日齊明。

師云。寒山拊掌。拾得謳詞。

問。先帝首更禪苑。今皇紹聖。重扇宗風。莫大之恩。將何補報。

師云。爐上檀煙起。空中瑞氣浮。

僧曰。恁麼則君恩師已報。祖意又如何。

師云。長記在蓮岳。多年看白雲。

僧曰。今日得聞於未聞。

師云。聞箇什麼。

僧曰。九重城畔祥雲起。五鳳樓前瑞氣生。

師云。好箇真消息。宜須子細看。

僧曰。從此平分霄漢月。冷然相照若團圓。

師云。瞻仰有分。

問。帝業興隆。睿潭潤無邊之境。宗風普扇。優曇開上國之春。直截根源。請師速道。

師云。石渠清夢嶽。金殿冷吟霜。

僧云。一言已祝南山壽。八表無私賀太平。

師云。祝壽一言從爾曉。太平底句又如何。

僧曰。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師云。思量塵世人。幾箇知恩德。
僧曰。若不上來。焉知如是。
師云。早回頭看。
師拈拂子。召云。大眾還見麼。手中拂子層層為諸人放百種寶光。
復擊禪牀云。還聞麼。坐下猊臺句句為諸人演一乘了義。諸人若向遮裏悟得。則曠大劫來我人業識。當體煙滅灰飛。現前身世根境塵勞。徹底冰融雪泮。便見靈山正法眼藏。昭昭溢目全彰。少室涅槃妙心。晃晃通身獨露。譬演若悟鑑中面目。元來只是己頭。猶力士獲額上圓珠。到了不從他得。如斯則無量神通三昧。塵塵本爾圓成。恒沙諸佛法門。念念一時具足。諸仁者。有能恁麼搆去。便謂立證無生。不待僧祇即登正覺。如今要見無生麼。
良久。云。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臣僧道無兼濟。行不遠聞。灰木身心。分守塞巖之下。鹿麋疎跡。何堪輦轂之游。遠承明詔下臨。固欲竊逃寧敢。但念食國王之水乳。佩至德難任。受天地之生成。荷大恩曷報。故雲趨波涌。而赴海從龍。此蓋伏遇皇帝陛下。以等妙覺心。現為人主。揚佛祖正道。丕紹先基。
故茲苾草之微芳。叨被蓼蕭之寵渥。臣敢不策勤香火。警肅緇流。力傳真寂之風。仰贊無為之化。謹將茲辰開堂介善。上祝皇帝陛下。伏願德光堯舜。道邁羲軒。資景運於萬年。保瑤圖於百世。風調雨順。物阜民康。臣請祝誠深。言詮靡罄。久立眾慈。伏惟珍重。

廬山羅漢禪院系南禪師

本汀州人。俗姓張氏。少依城下金泉寺出家。識性純淡。志節高遠。披緇受具。徧歷叢林。參道林祐禪師。密契心地。後歸廬山。出世住持。道譽遠播。四方學者皆謂小南。
開堂日。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後五日看。
僧曰。恁麼則黃龍兒孫。羅漢嫡子。
師云。錯下名言。
問。世尊出世。地涌金蓮。師今出世。有何祥瑞。
師云。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
僧曰。昔日世尊。今朝和尚。
師云。氣衝牛斗。

問。聲色不到。病在見聞。言詮不及。過在唇吻。此一理二義。請師直指。

師云。一字不著畫。

僧曰。古溪澄水迎新月。舊嶺寒松再遇春。

師云。二字不成雙。

僧曰。半夜彩霞籠玉像。天明峰頂五雲遮。

師云。好箇真消息。

問。師子兒。眾隨後。三年便能大哮吼。未出林一句作麼生道。

師云。頭破額裂。

僧曰。出林後一句作麼生。

師云。腦門著地。

僧曰。不出入時如何。

師云。進前退後。

僧曰。且道落在什麼處。

師云。大眾有眼。

上堂云。道應無私。力不可敵。如風行草偃。似春至花開。佛手不能遮。人心寧可遏。順之則物物光輝。逆之則頭頭失色。不逆不順。任方任圓。呼召隨聲。高低自爾。臨鏡而像。彼此情忘。現如幻神通。成如幻正覺。直得廬山萬疊共轉法輪。鄱水千尋同宣密義。便與麼金雞啄破琉璃殼。玉兔挨開碧海門。擊禪牀一下。

上堂云。畫角紅樓報曉春。萬家齊賀物咸新。誰知庭際青青栢。便是當時問法人。無身可身。無歲可歲。始終不變。往復常存。四時遷而不遷。一氣動而非動。百年生死若浮雲。十世古今如電影。情超象外。道契寰中。不有絲毫。虛空同壽。但向見聞覺知識取本來面目。良久云。玉兔沉西嶺。金烏出海東。

上堂云。日輪離海。月魄沉空。騰輝古今。盤礴西東。不覺紅顏客。翻為白頭翁。靈然無改變。只在語言中。咄。設使大虛爛壞。此喝長存。若知落處。一任橫行。咄。

上堂云。不假一鎚成大寶。太阿出匣冷光寒。為君截斷羚羊角。釘就虛空碧玉盤。好拈掇。更須看。翻來覆去黑漫漫。擊禪床一下。

上堂云。山堂今日已開爐。黯澹寒雲雪未鋪。撥火任若譚冷煖。不知誰解喚司徒。古聖求人向熱灰裏。諸佛行道在猛燄中。便見剝剝塵塵皆同自己。心心念念盡合他宗。便與麼會。轉不相當。何以故。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

上堂云。暗而忽明。迸曦光於海上。斷而復續。奏天樂於空中。師曠聽之不聞。離婁視之不見。唯有無神通菩薩。拍拍相高。願得東風齊著力。一時吹入我門來。擊禪床。下座。

上堂云。天地為爐鞴。日月作鉗鎚。烹清風兮成佛成祖。鍊白雲兮有法有儀。圓光頂佩。萬字胸題。阿呵呵。知不知。倒騎師子座。[跳-兆+孛]跳上須彌。

上堂云。一夏九十日。日日無差。一日十二時。時時不異。猶如黃金之黃。碧天之碧。其色其高。不變不壞。安一名。著一字。與吾靈覺何相似。便乃修習空花萬行。宴坐水月道場。降伏鏡裏魔軍。證得夢中佛果。今朝法歲已圓。勘破了。良久。云。移身搖太華。掬汗灑醍醐。

上堂云。物我兩如。是非一氣。雲無心而解聽龍吟。充天塞地。風無迹而能聞虎嘯。拔木鳴條。道無根而善應諸緣。分緇列素。忽然一念合風雲。不知誰是我。行無所行。住本無住。大笑呵呵。希逢罕遇。

上堂云。禪不禪。道不道。三寸舌頭胡亂掃。昨夜日輪飄桂花。今朝月窟生芝草。阿呵呵。萬兩黃金無處討。一句絕思量。諸法不相到。

上堂云。欲揚大法。須藉其人。借與便風。便好揚帆舉棹。昔日僧問趙州。學人乍入叢林。乞師指示。州云。喫粥了未。僧曰。喫粥了。州云。洗鉢盂去。其僧豁然大悟。

師云。今朝鳴鐘之後。陞堂已前。人人喫粥。飽即便休。若也嚼得破。礙塞人。若也嚼不破。却許伊。羅漢今日倒騎鐵馬。逆上須彌。踏破虛空。不留蹤迹。諸人還見麼。夜來風起滿庭香。吹落桃花三五樹。師歸方丈。趺坐示寂。

潭州慈雲彥隆禪師

上堂。舉。玄沙示眾云。盡大地都來是一顆明珠。時有僧便問曰。既是一顆明珠。學人為什麼不識。沙云。全體是珠。更教誰識。僧曰。雖然全體是。爭奈學人不識。沙云。問取爾眼。

師云。諸禪德。遮箇公案喚作嚼飯餒小兒。把手更與杖。還會麼。若未會。須是扣己而參。直要真實。不得信口掠虛。徒自虛生浪死。參。

郢州子陵山自瑜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中九下七。

僧曰。乞師慈悲。

師云。百歲翁翁學順朱。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老作少難。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好事不如無。
問。如何是金峰境。
師云。一重山一重雲。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鐵骨羅漢。
問。如何是古佛心。
師云。赤脚趂泥冷似冰。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休要拖泥帶水。
問。泗州大聖為什麼楊州出現。
師云。業在其中。
僧曰。意旨如何。
師云。降尊就卑。
僧曰。謝和尚答話。
師云。賊是小人。智過君子。
上堂云。大眾還會麼。祖師關捩子。都不在言詮。若更重宣說。特地隔西天。

舒州白雲山海會守從禪師

問。藥山一句人皆委。白雲今日事如何。
師云。逼塞虛空。
僧曰。誰知今日裏。明月鎖舒城。
師云。斫額望扶桑。
問。曹溪一滴。普洽大千。白雲出山。如何利物。
師云。橫鋪洞口。歸鳥迷巢。
僧曰。指南一路又且如何。
師云。鐵蛇當大道。通身黑如煙。
上堂云。指呼四聖。號令六凡。統三界作大伽藍。以十虛為解脫門戶。山河大地是古佛之心源。爐炭鑊湯乃眾生之覺地。於一微塵上現恒沙諸佛之全身。於一佛心現無邊眾生之世界。若能如是。即心心無知。全心即佛。全佛即人。人佛無異。始為道矣。然雖如是。不落化門一句作麼道。良久云。九年喫菜粥。此事少人知。

洪州東山景福省悅禪師

上堂云。十二時中跛跛挈挈。且與麼過。大眾。利害在什麼處。良久。云。聽諸方斷看。擊禪床一下。下座。

台州天台山寶相元禪師

問。如何是寶相境。
師云。石上無根樹。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心藏無價珍。
僧曰。向上宗乘。若何指示。
師云。文殊笑點頭。
問。祖意西來即不問。楞嚴意旨事如何。
師云。七處徵心心不有。八還求見見還無。
僧曰。如何領解。
師云。千手大悲徒著力。却慚舜若眼眉羸。
僧曰。圓覺意旨又且如何。
師云。桂輪孤朗於碧天。
僧曰。只如三世諸佛皆從此經中出。如何是此經。
師云。長時誦不停。非義亦非聲。
僧曰。如何受持。
師云。若欲受持者。應順用眼聽。
問。今日月圓。請師速道。
師云。碧琉璃月。
僧曰。畢竟如何。
師云。光照娑婆。僧禮拜。
師云。咦。

泉州長興德寶禪師

上堂云。天無私覆。地無私載。四時無私行。日月無私照。且道衲僧無私。還得與麼也無。若無與麼。十二時中在甚處安身立命。若有與麼。又祇是常徒。汝諸人到遮裏。作麼生明辨。若明辨得。許汝通一線道。若明辨不得。盡被老僧勘破。

泉州南峯永程禪師

上堂云。始自雞峯繼燄。少室流芳。大布慈雲。宏開佛日。教分三藏。直指一心。或全提而棒喝齊施。或縱奪而主賓互設。或金剛按

劍。或師子翻身。或照用雲奔。或機鋒掣電。無非翦除邪妄。開廓玄微。直下明宗。到真實地。諸仁者。到此方可許一線道與爾商量。苟或未然。盡是依師作解。無有是處。

福州賢沙明惠文禪師法嗣

福州廣慧果禪師

住賢沙院日。示眾云。佛為無心悟。心因有佛迷。佛心清淨處。雲外野猿啼。

問。如何是佛。

師云。毛頭雙尺八。

僧曰。如何是心。

師云。錐尾兩尋三。

僧曰。佛心兩無痕也。

師云。逼塞宇宙。

僧曰。為什麼如此。

師云。把耳扣磬。

湖州報本元禪師法嗣

蘇州承天永安院傳燈禪師

諱元正。鄆州平陰縣人。姓鄭氏。受業本州太平興國寺。禮藏智為師。比試得度圓具。後聽習教論。徧參諸方。晚到蘇州萬壽元禪師法席。因看庭前栢話。發明心地。有偈曰。

趙州栢樹子。去處勿人知。

拋却甜桃樹。尋山摘醋梨。

元禪師印可。命住此寺。德行孤高。眾所欽仰。都尉張侯敦禮奏賜師名。

問。我師再集人天會。願示西來掣電機。

師云。煙雲霧鎖。

僧曰。還有西來意也無。

師云。空生懊惱。

僧曰。臨濟宗風一枝獨秀。

師云。不可有兩箇也。

僧曰。是處是慈氏。無門無善財。

師云。都來七八年。遊遍百餘城。

問。桃花楊柳共談真如。如何是談真。
師云。嶺上梅花白。溪邊柳眼青。
僧曰。未審是什麼人境界。
師云。非汝境界。
問。實除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如何是一法。師拈拄杖一擊。
僧曰。一衲橫披高座上。爐煙起處太分明。
師云。不是遮一法。
僧曰。賣金順遇買金人。
師云。遮箇是鑰石。
上堂云。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大眾。有一人道。我不承佛恩力。不居三界。不屬五行。祖師不敢定當。先佛不敢安名。爾且道是箇什麼人。良久。云。倚石巖前燒鐵鉢。就松枝上掛銅跏。
問。安撫台光得得臨。請師為鼓勿絃琴。
師云。囉囉哩。
僧曰。遮般格調。須遇知音。
師云。曲終人不見。江上數峯青。
僧曰。江月照時琴影現。松風吹處語聲清。
師云。一夜寒溪雪到明。梅花漏泄春消息。
僧曰。木人聞作舞。石女聽高歌。
師云。且道是何曲調。
僧曰。伯牙若在。恥見永安。
師云。難遇知音。
僧曰。只如盡乾坤大地是一面琴。和尚如何下手。
師云。拍拍是令。
僧曰。而今台旆光臨。還許露箇消息也無。
師云。許。
僧曰。莫言只有庭前栢。又得甘棠壯祖宗。
師云。千里同風。
師乃云。若於棒下論其得失。德山是明教底罪人。更去喝裏分其主賓。臨濟是法門中魔王。永安恁麼說話。若無明眼人證據。盡大地墮坑落壑。大眾。且道那箇是明眼人。行則如昂如斗。坐如蹲龍。詩正有周南召南。論道乃莊子老子。恁麼說話。也未是明眼人。還識明眼人麼。永安與諸人指出。良久云。巨鼈莫負三山去。留取蓬萊頂上眠。

湖州鳳凰山仁王院得亨禪師

上堂。僧出眾曰。還委悉麼。
師云。何用論心事。相呈即便知。
僧曰。既開鋪席。買賣無妨。
師云。一任索喚。
問。鐘鳴鐸響。錦綉交加。文殊·普賢在什麼處。
師云。貶上眉毛。
僧曰。便與麼去時如何。
師云。見箇什麼。
僧曰。滿目香煙真瑞氣。此時消息共誰論。
師云。朗月當空掛。乾坤勢自分。
問。學人上來。請師垂示。
師云。紅霞飛碧漢。白日遶須彌。
僧曰。學人未曉。
師云。頭上漫漫。
僧曰。脚下漫漫又作麼生。
師云。切忌蹈著。
問。向上宗乘。願聞舉唱。
師云。金雞抱子歸霄漢。
僧曰。學人不會。
師云。玉兔懷胎入紫微。

楊州建隆寺昭慶禪師法嗣

荊門軍玉泉山善超禪師

問。去却拄杖子。語默動靜。未審如何為人。師畫一圓相。
僧曰。此猶是葛藤。
師云。了。師良久。召大眾云。妙性圓明。絕諸名相。縱使恒沙諸佛逞七辯。無以談其名。今古宗師具五眼。無以窺其相。心如瓦礫牆壁。方有少分相應。諸仁者。若能回光返照。照本靈源。常光現前。塵勞頓歇。歇即菩提。聖淨明心。本周沙界。不從人得。敢問諸人。且道從什麼處得。良久。云。年年春柳年年綠。二月桃花二月紅。

蘇州報恩泗州院用元禪師

師於慶禪師會下。一日。請益。臨濟在黃蘗。三回問佛法大意。三回被打。意旨如何。語猶未了。被打一拂子。頓領宗旨。

問。祖佛撈籠不得底人。和尚如何收拾。
師云。試呈伎倆看。僧便喝。
師云。驚殺人。
問。不用如何若何。請師直指心源。
師云。縮却舌頭。
僧曰。一言已出。駟馬難追。
師云。兩重公案。
僧曰。恁麼則都不許商量也。
師云。猶嫌少在。
問。剪斷聖凡。為什麼落在無事甲裏。
師云。誰不如此。
僧曰。如何得免。
師云。把將無事甲來。
僧曰。却無覓處。
師云。即此無覓處。
問。四眾雲臻。請師說法。
師云。有眼無耳朵。六月火邊坐。
僧曰。一句截流。萬機頓息。
師云。聽事不真。喚鐘作瓮。
問。朝參暮請。成得什麼邊事。
師云。祇要爾歇去。
僧曰。早知燈是火。飯熟也多時。
師云。爾鼻孔因甚著拄杖子穿却。
僧曰。拗曲作直又爭得。
師云。且教出氣。
上堂云。一二三四五。火裏唧螻吞却虎。六七八九十。水底泥牛波
上立。一日一夜雨霖霖。無孔鐵鎚灑不入。灑不入。著底急。百川
汹涌須彌岌。八臂那吒撞出來。稽首讚歎道難及。咦。
上堂。橫按拄杖。顧視大眾云。今日平地上喫交。

洪州黃龍山元肅禪師法嗣

袁州仰山清簡禪師

問。優鉢羅花今日現。願將花藥接迷情。
師云。但得雪消去。自然春到來。
僧曰。一聞千悟。立證圓通也。
師云。心不負人。面無慚色。

問。二十年來方外客。今朝出世事如何。
師云。雲從龍。風從虎。
僧曰。萬丈白雲藏不得。一輪明月耀青天。
師云。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
問。集雲峰下分明事。請師分付四藤條。
師云。趙州八十方行脚。
僧曰。得恁不知時節。
師云。行到南泉即便休。
問。風雲會合時如何。
師云。好日多同。
僧曰。若然者。不離當處常湛然。
師云。賺會了也。
上堂云。乍臨勝席。實慰靈靈。昔日聞說千端。不如一日得到。僧歸山舍。人返郡城。事有遷移。理無改易。何也。湘水直連秀水。出山還入一山。動靜去來。豈妨湛寂。群峯列岫。常露自己家風。夾道青松。直透長安大路。煙雲橫野。殿閣凌空。不移跬步之間。頓入華嚴世界。入則不無。還見善財麼。遂垂下一足云。久棲上士。已自知歸。乍到禪人。立地一時搆取。
上堂云。新律纔分。霞光報曉。天色欲暖還冷。氣候似冬忽春。蓋鴻蒙之象初升。乃嚴凝之寒未退。時雖頃刻。已屬東君。物此為榮。共稱得歲。剛有一人不在斯限。天地無由蓋載。寒暑豈得推遷。日月莫諧照臨。陰陽卒難變易。若教此人受歲。終是不甘。時節到來。又爭諱得。且道受歲人與不受歲人兩家相見。如何作賀。良久。云。寒隨一夜去。春逐五更來。

筠州百丈山維古禪師

問。如何是佛。師垂一足。
僧曰。如何是佛向上事。師乃收足。
僧曰。真善知識。
師云。爾作麼生會。僧禮拜。師便打。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杳無消息。
僧曰。出世後如何。
師云。頭戴天。脚踏地。
問。覲面相呈。猶是鈍漢。和尚如何為人。
師云。蹉過也不知。
僧曰。那裡是蹉過處。

師云。瞌睡漢。

上堂。大眾集定。拈拄杖。示眾云。多虛不如少實。卓一下。便起。

上堂云。普天布地。綿綿密密。若是道中人。步步知端的。然雖如是。也不得詐明頭。三十年後一場懨懨。

上堂云。祖令當行。十方坐斷。聖凡路絕。水洩不通。放一線道。有箇商量。良久。云。不得相孤。

衢州石門山雅禪師法嗣

衢州璩源山善政禪院普印禪師

問。學人進步向前。願聞師子一吼。

師云。木人夜半穿鞵去。石女天明戴帽歸。

僧曰。今日得聞於未聞。

師云。雖曰未聞事。聞來也是閑。

僧曰。若然者。伯牙與子期豈是閑相識。

師云。藍田射石虎。悞殺李將軍。

問。昔日須達請佛。地布黃金。分日尊官請師。有何祥瑞。

師云。香煙起處。日月齊明。

僧曰。恁麼則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

師云。口中雖道得。心裏黑漫漫。

僧曰。今日小出大遇。

師云。笑殺傍觀。

師乃云。奔流度刃。不是作家。石火電光。皆為鈍漢。撥著七穿八穴。貶向二鐵圍山。點著十字縱橫。合入無間地獄。何故。此事猶崖頽石裂相似。無提掇處。無湊泊處。良由非語默而可窮。豈計較而能及。智惠超越鶩子。甚處思量。神通勝過目連。何妨用得。應須自家看取。莫向他人所求。

不見道。如人上山。各自努力。如人飲水。冷暖自知。然雖如是。其柰渡河三獸。根器不同。摸象眾盲。見解差別。故不免曲施方便。廣演門庭。籠古罩今。該天括地。一切生靈。無始至今。一大事緣何曾欠少。神通妙用不假修成。智慧光明本來具足。

蓋由妄興一念。喚作無明。障翳靈臺。如雲蔽日。諸法唯心所現。無法從外而來。本性皆空。妄執為實。違順不作而作。憎愛無生強生。交結虛妄業因。輪回五道生死。諸佛慈悲廣大。為此出現世間。巧說種種法門。令其各各開悟。

諸仁者。若也回光返照。直下忘懷。五道停輪。如利劍斫於枯木。四生絕迹。如猛火燎於荒山。如此則念念當處圓成。法法現前具足。如斯言話。路布教乘。出格道人。如何趣向。良久。云。不如緘口過殘春。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一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岳懷讓禪師第十四世

潭州大瀉山密印禪院懷秀禪師法嗣

潭州大瀉山祖璿禪師

姓吳氏。福州候官人也。出家圓具。參大瀉秀禪師。契悟祖意。道行高潔。糲食羶衣。介性不群。處眾無撓。命住鹿苑。次遷岳麓。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何不問此中意。

僧曰。如何是此中意。

師云。處處抱孫和淚語。晚身猶值太平年。

僧曰。太平一句請師道。

師曰。風不鳴條。雨不破塊。

僧曰。畢竟事作麼生。

師云。南畝耕人不識名。

僧曰。豈無姓字。

師云。鹽菜如泥。

僧曰。此是行市數。

師云。爾也少喫。

問。如何是密印。

師云。今朝漏泄。

僧曰。意旨如何。

師云。鳳凰展翼地。裴相捨莊田。

問。如何是瀉山家風。

師云。竹有上下節。松無古今青。

僧曰。未審其中人飲噉何物。

師云。飢飡相公玉粒飯。渴點神運倉前茶。

上堂云。插鋤為井。今古澄清。趙州石橋。往來皆渡。山頭水牯。

純熟不犯靈苗。嶽麓野人。剛被遷移法席。不犯靈苗即且致。遷移

底事作麼生。良久。云。猿抱子歸青嶂後。鳥嚙花落碧岩前。

上堂云。山攢碧玉。地絕紅塵。樓閣相高。松杉鬱翠。東連廬阜。

西接峨嵋。耶舍。普賢共談般若。香巖。大仰俱聽法音。聽即不

無。作麼生是般若。良久。云。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乃笑云。向下文長。

上堂云。道無定亂。法離見知。言句相投。都無定義。自古龍門無宿客。至今鳥道絕行蹤。欲會箇中端的意。火裡唧螻吞大蟲。咄。上堂云。天台華頂。迥拔群峰。南岳石橋。斜飛數丈。輕行重蹈度無疑。俯仰璿璣觀不足。且道箇中有強弱也無。金不博金。水不洗水。良久。云。切忌當頭。

上堂云。昔賢示徒曾無語。一曲臘月二十五。叢林幾處盡商量。不離宮商角徵羽。日中絲竹應難入。月下琵琶休巧取。要識雲門一曲親。南山起雲北山雨。以拂子擊繩床。

上堂云。雨下堦頭濕。晴乾水不流。鳥巢滄海底。魚躍石山頭。眾中大有商量。前頭兩句是平實語。後頭兩句格外談。若如是會。祇見石磊磊。不見玉落落。若見玉落落。方知道寬廓。咦。

南岳山福嚴文演禪師

問。如何是佛。師當面一唾。

師乃云。當面一唾。切忌蹉過。幽谷猿啼。喬林鵲噪。鬧市紜紜。相頭買帽。白日同歸。不知幾箇。

上堂云。日面佛。月面佛。馬師一別經年。誰辨銅頭鐵額。百丈耳聾。未為埋沒。臨濟喫棒。莫言受屈。三聖瞎驢。能始能卒。興化帳中。拋[殺/米]將來。不是驪龍頷下之物。上根不動干戈。自然清風[颱-台+弗][颱-台+弗]。中下恰恰用心。落在無生窠窟。

上堂云。野花飄盡古城根。漸漸蟬鳴湘水渡。霏霏梅雨洒高空。而地薰風滿庭戶。三十三兮老古錐。象轉龍蟠曾顯露。曾顯露。成點污。謹白參玄人。光陰莫虛度。

上堂云。秋聲嘹唳。暑氣未衰。群木將落。鴻鴈南飛。稼穡似雲南畝盛。新月如鉤碧落垂。是何消息。切忌針錐。

上堂云。眼裡也滿。耳裏也滿。唐土不收。五天不管。前佛後佛。猶尚難措一詞。若賢若聖。安能是非長短。今朝更作死馬醫治。免便長夜不安。看看。北斗西移。南斗東轉。

上堂云。百花落盡春光老。六合薰風來浩浩。誰謂南能去不還。寶林枝榦未枯槁。咄。

南岳西林院常賢禪師

問。大眾臨筵。願聞舉唱。

師云。滿川月色和雲白。

僧云。學人未曉。
師云。遙望瀟湘一派清。
問。如何是利物心。
師云。因事長智。
僧曰。也好消息。
師云。錯。
師乃云。瀟湘江水明如鏡。數座寒星徹底清。敢問曹溪溪上客。等閑無事出蓬瀛。還有出蓬瀛底客麼。良久。云。三人岳陽人不識。高吟飛過洞庭湖。

南岳後洞方廣寺有達禪師

問。學人上來。便請相見。
師云。袖裡金鎚腦後看。
僧曰。破一作三又作麼生。
師云。惜取眉毛。僧便喝。
師云。放過即不可。
僧曰。瞎。師便打。
上堂。拈拄杖云。諸禪德。展無礙手。和雲折取。帶雪將來。對眾拈出。瞻之不足。翫之有餘。遂畫一畫。云。早晚散為霖。草木滋天下。
上堂云。離四句。絕百非。便恁麼。息狂機。不恁麼。轉狐疑。離此憑何旨。趙州東院西。還委悉麼。頭戴天。腳踏地。動用之中論不二。一字妙門著眼看。鎮州蘿蔔知滋味。咄。

南岳南臺允恭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眼睛突出。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阿難合掌。迦葉擎拳。
師乃云。稀逢難遇。正在此時。何謂釋迦已滅。彌勒未生。拈拂子云。正當今日。佛法盡在遮箇拂子上。放行把住。一切臨時。放行也。風行草偃。瓦礫生光。拾得。寒山點頭拊掌。把住也。水洩不通。精金失色。德山。臨濟飲氣吞聲。當恁麼時。放行即是。把住即是。良久。云。後五日看。

袁州仰山偉禪師法嗣

襄州谷隱山靜顯禪師

問。觀面相呈事若何。

師云。清風來不盡。

僧曰。通上徹下。絲毫不納也。

師云。明月照無私。

問。文彩既彰。願聞舉唱。

師云。巡海夜叉頭戴角。

僧曰。龍吟霧起。虎嘯風生。

師云。天外那吒獨把梢。

僧曰。祇園五葉花開處。不待東君別是春。

師云。重疊關山路。

問。一鏟破三關即不問。道人相見時如何。

師云。賊身已露。

師乃云。三日一風。五日一雨。時清道泰。譎謠滿路。釋迦掩室謾商量。淨名杜口休更舉。要知極則本根源。識取南莊李胡子。敢問諸人。祇如李胡子有甚長處。會麼。今年必定有來年。不如剩種來年粟。

上堂云。晷運推移。日長一線。且道佛法長多少。自云。九九八十一。諸人還會麼。若無人會。山僧為爾重說偈言。九九八十一。日南長至日。晷運既推移。大家相委悉。非為世諦流布。且要膺時納祐。參。

上堂云。今朝正月五。大眾明看取。火上更加熱。苦中更加苦。堪笑谷隱太無端。空谷巖前說寐語。咄。

上堂云。語默視瞬皆說。見聞覺知盡聽。香積世界。餐香飯悟無生。極樂國中。聽風柯悟般若。遂拈拄杖云。若將耳聽終難曉。眼處聞聲方得知。卓一下。

潭州龍王山善隨禪師

問。如何是龍王境。

師云。水晶宮殿。

僧曰。如何是龍王如意寶珠。

師云。頂上髻中。僧禮拜。

師云。莫道不如意。

上堂云。人人皆拜歲。山僧不賀年。山僧不賀年。諸人皆肯然。良久。云。若是依時及節。也少他元正啟祚。萬物咸新不得。

上堂云。奇哉皮鼓響。大眾盡來參。既善知時節。龍王不再三。

筠州黃蘗山祇園永泰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鐵鑄就。僧擬議。

師云。會麼。僧禮拜。

師云。何不早如此。

師乃云。祖師妙訣。不妨徑截。非風幡動。多少漏泄。且道甚麼處漏泄。乃云。莫是仁者心動麼。且不要錯會。

廬山慧日明禪師

上堂云。不用求真。唯須息見。三祖大師雖然迴避金鉤。殊不知已吞紅線。慧日又且不然。不用求真。倒騎牛兮入佛殿。牧笛一聲天地寬。稽首瞿曇。真箇黃面。

洪州泐潭山洪英禪師法嗣

南嶽法輪院齊添禪師

問。學人上來。乞師指示。

師云。適來聞鼓聲麼。

僧曰。聞。

師云。還我話頭來。僧禮拜。

師笑云。令人疑著。

上堂。喝一喝。云。師子哮吼。又喝一喝云。象王嘖呻。又喝一喝云。狂狗趁塊。又喝一喝。云。鰕跳不出斗。乃云。此四喝。有一喝堪與祖佛為師。明眼衲僧試請揀看。若揀不出。大似日中迷路。上堂。良久。云。性靜情逸。乃喝一喝云。心動神疲。遂顧左右云。守真志滿。拈拄杖云。逐物意移。驀召大眾云。見怪不怪。其怪自壞。

潭州大瀉山齊恂禪師

問。玉兔不懷胎。犢牛為什麼却生兒。

師云。著槽廠去。

僧曰。牧牛坡下。

師云。莫教落草。

僧曰。步步蹈著。

師云。草裏漢。

師乃云。頭角未生時薦得。早犯山僧苗稼了也。更待擎頭戴角。異類中來。生兒養犢。其何以堪。不見仰山云。一回入草去。一回把鼻牽。然雖如是。不免犯人苗稼。且道如何得不犯。良久。云。鐵牛不喫欄邊草。直上須彌頂上眠。

上堂云。青山疊疊水茫茫。猿愛巖邊果熟香。更有一般堪羨處。誰知別有好思量。

袁州仰山友恩禪師

上堂。以柱杖擊禪牀一下。云。佛令祖令。瓦解冰消。半字滿字。千山萬水。衲僧門下。草偃風行。然雖如是。官不容針。私通車馬。有一則奇特因緣舉似大眾。良久。云。達磨九年空面壁。西歸羞見洛陽人。

上堂云。煙雲開處。日月齊明。影落千江。光含萬象。頭頭顯煥。無非自己家風。物物全影。盡是祖師活計。於斯明得。則點頭嚙唾。於斯未明。且擺臂搖頭。恁麼說話。大似傍若無人。若有一箇出來。咳嗽一聲。山僧退身三步。

南岳方廣懷紀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有時登陌嶺。南北兩頭垂。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八十老翁策杖行。

僧曰。未審向上更有事也無。

師云。面南看北斗。月裏有麒麟。

泉州永春慧明院雲禪師

問。般若海中如何為人。

師云。雲開銀漢迴。

僧曰。畢竟又如何。

師云。榛頭見血。

問。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意旨如何。

師云。醜拙不堪當。

僧曰。忽然當又作麼生。

師云。半錢也不直。

僧曰。如何即是。

師云。趙州南。石橋北。僧禮拜。師擊禪牀三下。

上堂云。少室遺風。曹溪要旨。黃蘗收來。臨濟扶起。三玄戈甲競頭分。四揀開遮何指比。定宗乘。立綱紀。當機驗取廬陵米。更從升合定高低。爭似備師封白紙。象骨提。心暗喜。同風今古播叢林。切忌扣牙驚著齒。

上堂云。雪峯鼈鼻。瀉山水牯。臨濟三玄。雲門一普。勸君一一透將來。捉取大雄山下虎。

潭州寶蓋山自俊禪師

上堂。以拄杖卓一卓。喝一喝。云。同聲相應。同氣相求。築著鼻孔。撐著眼睛。啞却能言。聾却能聽。東西不辨。南北不分。黑煖煖(倉聿反)地。鬼惡人憎。翻笑香巖去年貧。未是貧。今年貧。始是貧。去年貧。無卓錫之地。今年貧。雖也無。是何言歟。噫。好箇阿師又恁麼去也。

南岳上封行瑜禪師

問。如何是上封境。

師云。北望洞庭千里浪。南觀石廩萬波煙。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脚踏古壇千片石。手攀松樹萬年枝。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雖然身在青冥裏。心出青冥人不知。

東京智海禪院慕喆真如禪師法嗣

潭州道吾山汝能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毀著不嗔。

僧曰。如何是法。

師云。讚著不喜。

僧曰。如何是僧。

師云。剃除鬚髮。

上堂云。三轉法輪於大千。其輪本來常清淨。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未得妙。因什麼如此。為在爾諸人眉毛上轉大法輪。放光動

地。爾等諸人不曾。所以未得其妙。若言一切智智清淨。又未有衲僧氣息。山僧今日為眾竭力。禍出私門。還會麼。對牛彈琴。不入牛耳。呬。

師遷住大滄山。不經兩月。沐浴淨髮。趺坐而逝。

興國軍永安院妙喜禪師

問。如何是國師三喚侍者。師召大德。僧應喏。

師云。鈍根阿師。

僧曰。向上還有事也無。

師云。汝看虛空還曾開口麼。僧契悟。禮謝。

師與一頌。

虛空開口喚須彌。聲隱春雷蟄者知。

若不仙陀徒擬議。負吾負汝自風移。

潭州中峯山羅浮院希聲禪師

問。為 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報 君恩。

師云。庭前瑞雪落紛紛。

僧曰。 君恩祇如此。祖意又如何。

師云。且領前話。

僧曰。恁麼則金枝永茂。玉葉長芳。

師云。一任眾人看。

上堂云。雲生大野。霧鎖長空。百草百木師子吼。露滴庭莎。盡逞無邊妙相。猿吟鳥噪。皆談不二圓音。乃拈拄杖云。無邊妙義。盡在山僧拄杖頭上。若也會得。可謂應時應節。若也不會。萬年松在祝融峰。卓一下。

師於紹聖四年二月八日無疾坐終。茶毗。諸根不壞。舍利求者可掬。

潭州中峰山智源禪師

問。如何是本來法。

師云。滿目青山。

僧曰。言無展事。進步者何。

師云。禮繁即亂。

僧曰。祇遮便是。為當別有。

師云。南岳石橋。

問。如何是城裏佛。
師云。截耳臥街。
僧曰。如何是村裡佛。
師云。牽犁拽杷。
僧曰。如何是山裡佛。
師云。釣魚取柴。

安州大安山興教惠淳禪師

開堂日。上首白槌竟。師云。未白槌已前。喚作什麼。白槌已後。喚作第一義諦。莫有不甘底僧。出來相見。

問。未白槌前請師道。

師云。方丈裏。

僧曰。白槌後又如何。

師云。法座上。

僧曰。謝師指示。

師云。勿交涉。

問。如何是第一句。

師云。脚下。

僧曰。如何是第二句。

師云。口裏。

僧曰。如何是第三句。

師云。腦上。

師乃云。靈山會上。迦葉親聞。五祖堂前。老盧得旨。至今累及兒孫。血脉不斷。豈是多學多知。負能負勝。人人具英雄志氣。各各出自己胸襟。不取他人處分。便可出生入死。方為報佛恩德。如斯舉唱。取笑傍觀。還有同死同生底漢麼。良久。云。若無。山僧今日失利。

舒州靈泉普濟道堅禪師

問。如何是祖意。

師云。金雞飛去。石馬還來。

僧曰。如何是教意。

師云。海墨書不盡。

廬陵隆慶慶閑禪師法嗣

潭州安化啟寧聞一禪師

問。意智不到處。特地好商量。未審是什麼人境界。

師云。張三李四。

僧曰。木人把板雲中拍。石女嚙筍水底吹。

師云。亂走作什麼。

僧曰。也要和尚識得。

師云。西天此土。

上堂。拈花微笑虛勞力。立雪齊腰枉用功。爭似老盧無用處。却傳衣鉢振真風。大眾。且道那箇是老盧傳底衣鉢。莫是大庾嶺頭提不起底麼。且莫錯認定盤星。以拂子擊禪床。

蘄州開元琦禪師法嗣

饒州薦福道英禪師

問。佛未出世時如何。

師云。琉璃餅貯花。

僧曰。出世後如何。

師云。瑪瑙鉢盛果。

僧曰。未審和尚今日是同是別。

師云。趨倒瓶。拽轉鉢。

上堂云。據道而論。語也不得。默也不得。直饒語默兩忘。亦勿交涉。何故。句中無路。意在句中。無意無不意。非計校之所及。若是劈頭點一點。頂門豁然眼開者。於此却有速疾分。若低頭向意根下尋思。卒模[打-丁+索]不著。是知萬法無根。欲窮者錯。一源絕跡。欲返者迷。看他古佛光明。先德風彩。一一從無欲無依中發現。或時孤峻峭拔。竟不可構。或時含融混合。了無所覩。終不椿定一處。亦不繫係兩頭。無是無不是。無非無不非。得亦無所得。失亦無所失。不曾隔越纖毫。不曾移易絲髮。

明明古路。不屬玄微。覲面擎來。瞥然便過。不居正位。豈落邪途。不踏大方。那趨小徑。騰騰兀兀。何住何為。迴首不逢。觸目無對。一念普觀。廓然空寂。此之宗要。千聖不傳。直下了知。當處超越。是知赤洒洒處。恁麼即易。明歷歷處。恁麼還難。不用沾黏點染。直須剝脫屏除。若是本分。手脚放去。無收不來底。一一放光現瑞。一一削跡絕蹤。機上了不停。語中無可露。徹底攪不渾。通身撲不碎。且道畢竟是箇什麼靈通。得恁麼奇特。得恁麼堅確。

諸仁者。休要識渠面孔。不用安渠名字。亦莫覓渠所在。何故。渠無所在。渠無名字。渠無面孔。纔起一念追求如微塵許。便隔十生五生。更擬管帶思惟。益見紛紛叢雜。不如長時放教自由自在。要發便發。要住便住。即天然非天然。即如如非如如。即湛寂非湛寂。即敗壞非敗壞。無生戀。無死畏。無佛求。無魔怖。不與菩提會。不與煩惱俱。不受一法。不嫌一法。無在無不在。非離非不離。

若能如是見得。釋迦自釋迦。達磨自達磨。于我什麼碗。恁麼說話。衲僧門下。推勘將來。布裙芒屨。不免撩他些些泥水。豈況汝等諸處更道。遮箇是平實語句。遮箇是差別門庭。遮箇是關楨巴鼻。遮箇是道眼根塵。遞相教習。如七家村裡人傳口令相似。有什麼交涉。無事。珍重。

廬山雙溪寶巖允光禪師

上堂云。阿呵呵。也大差。不捲簾兮見天下。神光得髓是誰云。達磨不曾來東夏。西江一口吸易乾。中原至寶難酬價。也大差。令人轉憶老興化。咄。

黃蘗積翠永庵主法嗣

廬陵清平楚金禪師

問。祖祖相傳。未審和尚傳箇什麼。

師云。兩手擡不起。

僧云。能有幾人知。

師云。知底事又作麼生。

僧曰。放過一著。

師云。迢迢十萬餘。

問。與麼不與麼。學人上來。請師與麼。

師云。洪州腰帶。

僧曰。請師不與麼。

師云。陝府鉄牛。

僧曰。和尚與麼。學人即不然也。

師云。不消拈出。

上堂。以拄杖卓一下。云。祇遮是錯。事無一向。出家人當為何事。良久。云。自知較一半。乃歌曰。人悄悄。鼓鼕鼕。特地陞堂話祖風。千般說。萬般喻。特地翻真却成偽。分別緇素與色空。扶

籬摸壁路難通。休尋南北與西東。山僧拄杖太無端。吞却十方剎界中。剎界中。細推窮。三十年後幾多白頭翁。靠却拄杖云。珍重。上堂云。祖意齊彰。真機自立。分明蟾彩。彼我無差。出海紅光。老婆心切。如斯境界。悟則頭頭顯露。非取捨之功。迷則物物塵勞。難明妙理。更若即色明空。正是敲甌打瓦。說有說無。又是夢中說夢。未免覺來一場懨懨。

上堂云。明眼人前若論斯事。如鹽在水。祇瞞得鼻孔。若是舌頭上。一點也瞞不得。何故。三世諸佛。從上祖師出現於世。祇是狸奴白牯一箇注脚。拈槌舉拂。下喝敲牀。盡是露柱注脚。以拄杖卓一下。云。山僧與露柱注脚。遮裡看得出。非但許儂救得兒孫。亦許儂見狸奴白牯。然後可以出生入死。若看不出。自救不了。何故。功夫不到不方圓。言語不通非眷屬。喝一喝。

南岳高臺佛印禪師法嗣

潭州龍興師定禪師

問。如何是瀟湘境。

師云。猿到夜深啼岳麓。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相逢不下馬。各自有前程。

問。如何是道。

師云。花街柳巷。

僧云。如何是道中人。

師云。語笑呵呵。

上堂云。秋風數夜漸寒。衲僧早覺身冷。通宵不睡思量。耐耐祖師亂走。不知念念釋迦出世。步步彌勒下生。恁麼忽然撞著。盡是自己神光。怎生說得箇自己神光。良久。云。一輪明月照瀟湘。咄。

上堂云。白雲峰頂。昔年嘗到。朝參暮請。依師學道。鬧市紅塵。煎熬不少。逐日忙忙。貪生至老。咄。遮皮袋臭穢易壞。貪欲貪樂不解厭。學佛學祖總不會。慚愧寒山老。眠雲枕石睡。思量捨得奇。愛住深岩內。蓑衣為被褥。箬笠作冠蓋。祇如山僧恁麼舉唱。還有佛法也無。良久。云。無為無事人。超出紅塵外。咄。

杭州慶善宗震禪師法嗣

杭州慶善普能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當官莫在前。作客莫向後。

僧曰。恁麼則西堂嫡子。臨濟兒孫。

師云。天台柳[木*栗]木。

師乃云。事不獲已。與汝諸人葛藤。一切眾生只為心塵未脫。情量不除。見色聞聲。隨波逐浪。流轉三界。汨沒四生。致使正見不明。觸途成滯。若也是非齊泯。善惡都忘。坐斷報化佛頭。截却凡聖途路。到遮裡。方有少許相應。直饒如是。衲僧分上也未為奇特。何故如此。纔有是非。紛然失心。咄。

上堂。拈拄杖云。未入山僧手中。萬法宛然。既入山僧手中。復有何事。良久。云。無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卓一下。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二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四世

洪州泐潭山真淨禪師法嗣

洪州分寧兜率從悅禪師

姓熊氏。虔州人。少依普圓院崇上人出家。未冠圓具。首習經論。次慕參問。緣契洞山真淨禪師。

開堂日。白槌罷。師云。住。住。五眼難觀。佛佛相傳。默然自照。西天諸祖謾說異端。唐土宗師強生文彩。英靈衲子一點難瞞。直下分明。臨機脫活。縱橫南北。出沒東西。於平地上涌起波瀾。向虛空中倒翻筋斗。今朝座下那箇惺惺。便請出來開人眼目。

問。親聞洞裡真消息。今日新豐事若何。

師云。山橫嫩翠。溪瀉寒光。

僧曰。不因風卷浮雲盡。爭見涼天萬里秋。

師云。不妨奇特。

問。如何是兜率境。

師云。一水挪藍色。千峰削玉青。

如何是境中人。

師云。七凹八凸無人見。百手千頭祇自知。

師乃云。溪上桃花爛熳春。倚筇閑看笑靈雲。抽枝抽葉尋常事。有悟無疑亦強分。諸禪者。既疑悟之強分。何玄旨而可定。但得凡情淨盡。自然聖解都忘。如此則何是非而有。何得失而論。何動靜而取。何彼此而分。到遮裏。直得妙體虛明。大用縱橫。都無揀擇。好醜一如。還有人承當得麼。若承當得。兜率與爾拄杖子一任橫行。若也未然。不免自家受用去也。良久。云。撥落葉開苔蘚色。卓穿冰放野泉聲。卓拄杖一下。

上堂云。阿呵呵底時節。仲夏初殘梅雨歇。寥寥物外自清涼。擾擾人間方酷熱。諸禪客。一種含靈。為什麼世界有異。良久。云。天闊雲無礙。風高海自澄。

上堂云。耳目一何清。端居幽谷裡。秋風入古松。秋月生寒水。衲僧於此更求真。兩箇獼猴垂四尾。喝一喝。

上堂云。龍安古路堂堂。往來未嘗間隔。嶺頭風動松聲。岩下溪流月色。上無一點紅埃。內有祖師窟宅。到此方得心休。自解橫吹玉笛。諸禪客。要識不涉程途底句麼。良久。云。直須透過遮機關。不用敲開無縫鎖。咄。

上堂云。雪意連連作。春寒每放參。到頭真實處。不在口喃喃。上堂云。兜率都無辨別。却喚烏龜作鼈。不能說妙談真。祇解搖唇鼓舌。遂令天下衲僧覩見眼中滴血。莫有翻嗔作喜。笑傲烟霞者麼。良久。云。笛中一曲昇平樂。算得生平未解愁。

上堂云。衲僧袖裡神鋒。截斷有句無句。隨宜獨立真規。處處清風滿路。更知結角羅紋。始解針來線去。

上堂云。始見新春。又逢初夏。四時若箭。兩曜如梭。不覺紅顏翻成白首。直須努力別著精神。耕取自己田園。莫犯他人苗稼。既然如是牽犁拽杷。須是雪山白牛始得。且道鼻孔在什麼處。良久云。叱。叱。

潭州報慈開福進英禪師

問。遠涉長途即不問。到家一句事如何。

師云。雪滿長空。

僧曰。此猶是時人知有。轉身一路又作麼生。師便喝。

上堂云。雪鋪銀世界。別是水晶宮。瑞氣紛紛動。何人住此中。拍禪牀一下。云。清泰橋邊。今人勝樣。報慈堂上。古佛家風。橫擔柳[木*栗]入門來。便把草鞋跟截斷。華藏海中遊戲。會春園裡逍遙。信乎朝入伽藍。暮成正覺。雖然如是。正令行時。猶較一著。敢問大眾。作麼生是坐致太平底事。還知麼。提起拂子云。一掉秋風江上月。數枝春色洞中天。擊禪牀一下。

上堂云。報慈有一公案。諸方未曾結斷。幸遇改旦拈出。各請高著眼看。遂趯下一隻鞋云。還知遮箇消息也無。達磨西歸時。提攜在身畔。

上堂云。今朝四月八。我佛降生辰。頭頭金相現。處處法幢新。不洗體。不洗塵。灌沐如來妙色身。誰信二千年後事。優曇重長一枝春。擲拄杖云。釋迦老子重下閻浮。為大事因緣故。出現於世。開佛知見。示佛知見。悟佛知見。入佛知見。已為諸人說了也。且作麼生入。乃拍禪牀云。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

上堂云。與麼上來。猛虎出林。與麼下去。驚蛇入草。不上不下。日輪杲杲。喝一喝。云。瀟湘江水碧溶溶。出門便是長安道。

上堂。擲下拄杖。却召大眾云。拄杖吞却祖師了也。教什麼人說禪。還有救得也無。喝一喝。

上堂。驀拈拄杖示眾云。三世一切佛。同人遮窠窟。衲僧喚作遼天鷓。卓拄杖一下。

上堂云。山門寂寞。無可祇待。諸禪德。夜來思量。得一段因緣奇特。準擬今日供養大眾。及乎陞座。忽然忘却。如今卒作不辨。且望大眾智不責愚。不為笑怪。

桂州壽寧寺善資禪師

問。如何是廣南境。

師云。地連南嶽千峰秀。水接西川一派清。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腰間曾墜石。鏡上本無塵。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車若何。

師云。一棒一痕分痛痒。獨許泥牛木馬知。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以手反覆示之。

僧曰。不會。

師云。好箇消息。

師乃云。若論此事。如鴉啄鐵牛。無下口處。無用心處。更向言中問覓。句下尋思。縱饒卜度將來。終成戲論邊事。殊不知本來具足。直下分明。佛及眾生。纖毫不立。尋常向諸人道。凡夫具足聖人法。凡夫不知。聖人具足凡夫法。聖人不會。聖人若會。即同凡夫。凡夫若知。即是聖人。然則凡聖一致。名相互陳。不識本源。迷其真覺。所以逐境生心。徇情附物。苟能一念情忘。自然真常體露。良久。云。便請薦取。

上堂云。諸禪德。釋迦老子不言。以手指天指地。須菩提不言。帝釋動地雨花。達磨大師不言。二祖乃云得髓。維摩居士不言。文殊讚歎不二。遂拈起拄杖云。拄杖子不言。成得箇什麼。良久。云。扶過斷橋水。伴歸無月村。

上堂云。諸方五日一參。壽寧日日陞座。莫怪重說偈言。過在西來達磨。上士處處逢渠。後學時時蹉過。且道蹉過一著落在什麼處。舉起拂子云。一片月生海。幾家人上樓。

永州元豐太平寺安禪師

問。賢侯啟請。願師舉唱。

師云。陌上桃花雪裡紅。

僧曰。一言纔舉唱。四眾盡霑恩。

師云。霑恩底事作麼生。

僧曰。是處有芳草。何山無白雲。
師云。劔利人難得。
問。如何是太平境。
師云。帶郭有山兼有水。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憧憧道上往來人。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明月清風也笑人。
師以拄杖卓一下。云。還會麼。空王佛已前之事。太平今日一時漏泄了也。還委悉麼。一大藏教未當切脚。佛之一字尚污心田。豈況其餘。若也未然。且聽太平葛藤去也。擲拄杖。下座。
上堂云。有利無利。莫離行市。鎮州蘿蔔頭極貴。廬陵米價甚賤。爭以太平遮裡。時豐道泰。商賈駢闐。白米四文一升。蘿蔔一文一束。不用北頭買賤。南頭賣貴。自然物及四生。自然利資王化。又怎生說箇佛法道理。良久云。勸君不用鑄頑石。路上行人口似碑。

廬山歸宗杲禪師

問。為國開堂於此日。師將何法樂昇平。
師云。堯風蕩蕩。舜日輝輝。
僧曰。君恩將此報。祖意又何如。
師云。雲生嶺上。雨滴巖前。
問。如何是歸宗境。
師云。重重看不盡。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箇箇眼眉橫。
師乃云。西來祖印。教外別傳。非大根器。不能證入。其證入者。不被文字語言所轉。聲色是非所迷。亦無雲門。臨濟之殊。趙州。德山之異。所以唱道須明有語中無語。無語中有語。若向遮裡薦得。可謂終日著衣。未嘗挂一縷絲。終日喫飯。未嘗齧破一粒米。直是呵佛罵祖。有什麼過。雖然如是。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喝一喝。
上堂。拈拄杖云。歸宗會斬蛇。禾山解打鼓。萬象與森羅。皆從遮裏去。擲下拄杖云。皈堂喫茶。

南嶽祝融峰上封寺慧和禪師

問。師唱誰家曲。宮商何調中。

師云。不落五音。

僧曰。不屬韶陽調去也。

師云。且喜有知音。

師乃云。未陞猊座已前。盡大地人成佛已畢。更有何法可說。更有何生可利。況菩提煩惱。本自寂然。生死涅槃。猶如春夢。門庭施設。誑謔小兒。方便門開。羅紋結角。於衲僧面前。皆為幻惑。且道衲僧有甚長處。拈起拄杖云。孤根自有擎天勢。不比尋常曲[(彖-(彖-豕)+(ㄣ@一))*頁]枝。卓一下。

上堂云。祝融峯上。瑞氣騰空。行道壇前。祥雲拂地。林間衲子。信步經行。嶺上樵夫。謳歌拍乎。把針巖畔。音樂鳥聲。懶攢菴前。風生虎嘯。說甚透聲透色。休論達磨迷逢。莫是真假有無。俱不可得麼。若恁麼會。未免眼中添屑。總不恁麼。又作麼生。良久。云。此境此時誰得意。極目千山入望來。

衢州超化院靜禪師

上堂云。箇中之源。無歸者久。祇為言泉亂派。語脉混流。一波始生。萬波隨往。生而不止。往而不休。遂使洪波浩渺。白浪滔天。今日山僧不免挽泥帶水。卓拄杖一下。

上堂云。聲前認得。已涉廉纖。句下承當。猶為鈍漢。電光石火。尚在遲疑。一點不來。橫屍千里。良久。云。有甚用處。喝一喝。

筠州五峰淨覺院本禪師

問。寶座高陞。願聞舉喝。

師云。雪裡梅花火裡開。

僧曰。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井底紅塵已漲天。

問。同聲相應時如何。

師云。鶉鳩樹上啼。

僧曰。同氣相求時如何。

師云。猛虎巖前嘯。

問。一進一退時如何。

師云。脚在肚下。

僧曰。如何是不動尊。

師云。行住坐臥。

師乃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諸人作麼生會。直下會得。不妨奇特。更或針錐。西天此土。

上堂云。五峰家風。南北西東。要用使用。以槩釘空。咄。

蘄州五祖常禪師法嗣

蘄州月頂延福寺倫禪師

問。如何是蘄州境。

師云。白雲堆裡神仙秀。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紫閣筵中鼎鼐材。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涼風却退簷前暑。

問。止宿庵中即不問。途中受用事如何。

師云。落花鋪地錦。流水映天心。

僧曰。忽遇向上人來又作麼生。

師云。劔有七星君可度。琴無五線客難尋。

問。如何是宗乘向上事。

師云。古符常照夜堂明。

師良久云。舍利塔前。金蘂花開吐艷。毘盧藏畔。綠毛龜戲池中。霧卷山堂。雲藏佛閣。老鶴盤空。青羅翳目。足可與諸人內助其機。外揚其道。又何必山僧出來指點。然雖如是。也須的當始得。且道的當底事作麼生。多謝寶陀巖上月。舒光常得到松門。

上堂云。重陽何物助僧家。籬菊枝枝盡發花。不學故侯將伴飲。為君泛出趙州茶。祇此一杯醒大夜。盧仝七椀謾矜誇。良久。云。便請。卓拄杖一下。

上堂云。時雨頻過比屋涼。師田昆甲盡同光。禪家高臥無餘事。贏得林梢磬韻長。正當恁麼時。誰是知音者。良久。云。子期別後空千載。月上落崖流水寒。

蘄州南烏崖壽聖楚清禪師

問。如何是黃梅消息。

師云。不許夜行。

僧曰。如何為人。

師云。投明須到。

問。亡僧遷化向什麼處去。

師云。靈峰水急。

僧曰。恁麼則不去也。

師云。蒼天。蒼天。

師乃云。見成公案。已涉多岐。佇思稽遲。遼天迸鶻。苟喪目前。實為苦屈。敢問諸人。且作麼生是目前底句。良久。云。燈籠拊掌。露柱呵呵。

江陵護國禪院月禪師法嗣

江陵護國惠本禪師

問。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未審是甚麼物。

師云。一鉞墨。

僧曰。恁麼則耀古照今去也。

師云。作麼生是耀古照今底。僧便喝。師便打。

師乃云。一切法是佛法。糞掃堆頭。丈六金身。猪肉案上。十身調御。還會麼。師顰象顧已多端。切忌韓獺空逐塊。喝一喝。下座。上堂云。塵劫來事。盡在如今。滿目風光。十方無礙。山遙水遠。地厚天高。剎剎見成。頭頭顯著。直饒恁麼會得。衲僧眼睛未曾夢見。且喚什麼作衲僧眼睛。還會麼。穿過須彌。

上堂云。好箇時節。誰肯承當。苟或無人。不如惜取。良久。云。彈雀夜明珠。

上堂云。去處與來時一般。來時與去處不別。有人聞著點頭。有人聞著不肯。且道肯即是。不肯即是。也是鞏縣茶瓶。

杭州淨土思禪師法嗣

杭州靈鳳山萬壽法詮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針筭不入。

僧曰。石照嫡子。臨濟兒孫。

師云。錦溪一派。盡向東流。

問。佛法流通。如何指示。

師云。上天下地。

僧曰。學人也恁麼見。

師云。錯。

問。如何是佛。

師云。抱椿打拍浮。

僧曰。如何是法。

師云。莫泥彈子。
僧曰。如何是僧。
師云。剃除鬚髮。
僧曰。三寶外。還別有為人處也無。師舉起一指。
僧曰。不會。
師云。指在唯觀月。風來不動幡。
師乃云。靈光洞耀。妙體昭然。動寂真常。隱顯無二。六凡皆覺。強自云迷。四聖還源。謾稱開悟。苟能返照。一念無差。不用思量。便請搆取。還有薦得底麼。良久。云。靜處薩婆訶。
上堂云。德山棒。臨濟喝。盡是無風波咄咄。燈籠[跳-兆+孛]跳過青天。露柱魂驚頭腦裂。然雖如是。大渴食鹽加得渴。喝一喝。

杭州慶善守隆禪師

問。諸佛出世。為一大事。如何是一大事。
師云。不同小事。
僧曰。唯此一事實去也。
師云。棒打石人頭。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扁舟過剡溪。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當筵略借看。
師云。多少分明。
僧曰。師子吼時全露現。文殊仗劍又如何。
師云。驚殺老僧。
問。千佛出世。各有奇祥。和尚今日以何為驗。
師云。木人把板雲中拍。
僧曰。意旨如何。
師云。石女拈笙水底吹。
師乃云。問同攢花簇錦。答也土上加泥。彼此氣宇衝衝。何須聽人處分。可謂如石含玉。不知玉之無瑕。似地擎山。不知山之孤峻。如斯舉唱。蓋為初機。明眼人前。一場笑具。且道作麼生是明底眼。良久。云。穿過髑髏。
上堂云。無手人一拳打破虛空。無舌人一喝喝翻巨海。驚起娑竭龍王。變作柳[木*栗]拄杖。為諸人說法。乃拈起拄杖云。不更指東畫西。便與直下分付。卓拄杖一下。
上堂云。花簇簇。錦簇簇。鹽醬年來是事足。留得南泉打破鍋。分付沙彌煮晨粥。晨粥一任諸人飽喫。洗鉢盂一句作麼會。多少人疑著。

潭州石霜山琳禪師法嗣

鼎州德山靜照菴什菴主

問。如何是庵中主。

師云。從來不相許。僧擬議。

師云。會即便會。本來底安名著字不得。僧擬開口。師便打出。

師室中常以拂子示眾云。喚作拂子。依前不是。不喚作拂子。特地不識。汝喚作什麼。

因僧請益。師頌答之。

我有一柄拂子。用處別無調度。

有時桂在松枝。任他頭垂脚露。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三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南嶽懷讓禪師第十四世

南嶽福嚴慈感禪師法嗣

明州育王山廣利寺寶鑑禪師

諱法達。饒州浮梁人。姓余氏。卅歲厭俗。剪愛離塵。嚴承師訓。長通經業。比試輦下。落髮天清。求道南遊。初歷浙右。未獲開悟。復回江西。次造南嶽福嚴法席。感師一見。觀器印心。安撫何公嚮師名望。命居太平。少卿王公次遷廣利。都尉郭侯特奏章服師名。

問。此事唯己自知。為什麼眾生隨類得解。

師云。眼見耳聞。

僧曰。兵隨印轉。

師云。德山。臨濟。

問。寒凝古寺。雲鎖千峯。如何是無寒暑處。

師云。爐中添硬炭。身上挂綿衣。

僧曰。此猶是時節因緣。

師云。何得掩耳。

問。僧俗交參時如何。

師云。風穴道底。

僧曰。謝師答話。

師云。甜瓜徹蒂甜。

僧曰。學人今日虛伸此問。

師云。適來道什麼。

僧曰。打草蛇驚。

師云。分付海山無事客。夜深相共釣鯨鼈。

問。如何是極則處。

師云。清風生竹戶。

僧曰。學人不會。

師云。明月照松窓。

問。不落階級處。請師道。

師云。蠟人向火。

僧曰。畢竟如何。

師云。薄處先穿。

問。末後一句。今日願聞。

師云。昨日有人問我。直得杜口。

僧曰。為什麼如此。

師云。不於湘水捉明月。且向天童看白雲。

問。無根樹子今日還解生苗也無。

師云。擬待答話。又恐孤負闍梨。

問。作者相逢時如何。

師云。平出。

僧曰。學人有疑在。師便打。

僧曰。不伸三拜。焉得周旋。

師云。別處即得。

師乃云。一法雖彰萬法無。到頭何必用工夫。目前十字縱橫也。自是時人落半途。大眾。作麼生是究竟一句。設使潛神守智。猶是止宿草菴。假饒息念觀空。亦成守株待兔。虛生浪死。祇為懷寶迷邦。滯殼迷封。良由貪程太速。直得言語道斷。心行處滅。於衲僧分上著什麼來由。假使心法雙亡。兩頭截斷。亦是按牛頭喫草。爭似耳聞目覩。口說心思。千山萬水目前分。南北東西路頭在。若也失之於旨。魚魯刁刀。若也得之於心。渾金璞玉。流出三教。皆指一心。左右逢源。萬物皆備。到遮裏。說什麼仁義禮智。元亨利貞。說什麼菩提涅槃。常樂我淨。直須拈放一邊。且看山僧執金剛王寶劍。把定要津。以文殊為先鋒。以普賢為殿後。觀音。勢至掩耳偷鈴。彌勒。釋迦吞聲飲氣。直得 皇風蕩蕩。舜日明明。天下衲僧誰敢向鬼窟裏作活計。還信得及麼。良久。云。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

上堂云。半接城隍半倚村。一溪流水半山雲。寂寥滋味有誰得。萬世金輪王子孫。所以見聞覺知。思量分別。一見便見。無第二月。堯天舜日。誰能夜泛孤舟。白月清風。何必冬行春令。門當戶對。極目無限青山。鳥叫猿啼。縱步從佗差路。栗蒲吞了。更無一物礙人。古鏡重磨。不離舊時光彩。日日共虛空招手。時時與古佛對談。堪嗟多少飢人。却去飯籬裏餓殺。育王恁麼道了。有三十棒本合自當。賴遇眾人不知。且教拄杖子含聲飲氣。

上堂云。居山日少出山多。惹得問若孰柰何。爭似白雲深處坐。野猿幽鳥任高歌。大眾。拈華示眾。空自點胸。微笑破顏。落第二月。少林面壁。傍若無人。半夜渡江。貪程太速。更乃說佛說祖。頭上安頭。演妙談真。泥中洗土。攢花簇錦。口是禍門。寂爾無

言。守株待兔。總不如是。無孔鐵鎚。行道之人。如何即是。還會麼。白雲雖是無心物。到頭還是戀青山。

成都府南禪光澡禪師

問。如何是南禪境。
師云。一高一低。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頭面相似。
僧云。向上宗乘事若何。
師云。嘉州石佛。陝府鐵牛。
僧曰。如何是成都境。
師云。瑞氣一千里。和風十萬家。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賜紫金魚袋。切忌犯威風。

南嶽懷讓禪師第十五世

廬山羅漢寺南禪師法嗣

南岳雲峯景德惠昌禪師

問。高提祖印即不問。覲面相呈事若何。
師云。不勞拈出。
僧曰。不因漁父引。爭得見波濤。
師云。酌然。
僧曰。言前道破無妨礙。物引全提有象遷。
師云。獨許闍梨。
僧曰。橫身三界外。誰是出頭人。
師云。爭不足。讓有餘。
僧曰。學人東西不辨。南北不分。
師云。自生退屈。
問。如何是雲峯境。
師云。昨日乍到此。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灰頭土面。
僧曰。人境已蒙師指示。為人一句又如何。
師云。將謂知音却不知。

上堂云。禹溪流水如藍染。雲密峯巒畫不成。山色水聲全是體。不知誰解悟無生。悟無生。彼此自忘情。更擬求奇妙。笑殺嶺南能。上堂云。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雪嶺鞦韆。趙州庭栢。不落見聞。亦非聲色。擬問如何。攔顛一擲。

上堂云。非不非。是不是。達磨西來。惑眾顯異。梁王勘破。渡江入魏。九年面壁向嵩丘。接得神光轉失利。大眾。欲得不失利麼。廉纖梅雨蔽千家。蕭灑薰風吹萬類。若作佛法商量。墮在野狐群隊。

上堂云。佛祖傳心。西天此土。得之者。如日如月。照耀乾坤。失之者。如盲如聾。不辨西東。雲峯遮裏。得失是非一時放却。無禪可參。無道可學。猖獗狂狂。蹈乎大方。且道佛祖傳心。傳箇什麼。良久。云。窗開雲霧生衣上。簾捲山泉入鏡中。

舒州浮山德宣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天長地久。

僧曰。學人未曉。

師云。年老病生。

僧曰。同生同死事又作麼生。

師云。喚闍梨作佛。得麼。

上堂云。雙井峯。錦綉谷。南北東西難圖錄。縱爾僧繇巧筆端。爭如一到心中足。拈起拂子云。還見麼。良久云。雲居。羅漢。擊禪牀。下座。

上堂云。諸佛不出世。四十九年說。祖師不西來。少林有妙訣。若人識祖佛。當處便超越。遂拈拂子云。遮箇是浮渡拂子。且道祖佛在什麼處。良久。云。雖是善因。而招惡果。

江陵護國慧本禪師法嗣

岳州君山崇勝普淨禪師

問。如何是君山境。

師云。寺居煙島上。四野盡波瀾。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望南看北斗。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檻外清風起。湖中白浪生。

僧曰。謝答話。
師云。老僧罪過。
上堂。拈拄杖云。看看拄杖。拄杖生在懸崖石上。如今拈向人前。須是生風起浪。乃拋下。
上堂云。摩竭掩室。淨名杜口。飲光微笑。達磨壁觀。雪老鞦韆。禾山打鼓。祕巖一拄。青平拽石。此一隊漢。各逞伎倆。總不措一言。教後人如何摸[打-丁+索]。莫怪山僧不會說禪。祇是修造院門。一粥一飯。接待往來。若是說禪說道。自有諸方。

洪州泐潭山乾禪師法嗣

廬州西天王興化可都禪師

問。祖意西來即不問。為人一句請師宣。
師云。片雲歸後洞。隻鶴舞清虛。
僧曰。與麼則興化得人。群生有賴也。
師云。鳥啄古林木。山橫今日雲。
師乃云。如來大法。諸佛妙道。真源湛寂。了無生滅。設使千聖出來。亦乃難尋縫罅。興雲吐霧。普徧河沙。縱橫有準。妙應無疑。把定放行。卷舒自得。起人天眼目。擴佛祖心源。諸法見前。更無欠少。所謂人人具足。箇箇圓成。不用纖毫心力。自然壁立千仞。良久。喝一喝。

潭州道吾山楚方禪師

問。昔日道吾云。生也不道。死也不道。和尚今日為什麼却道。
師云。官不容針。私通車馬。
僧曰。真箇泐潭無異水。清風宛爾不同常。
師云。劄利衲僧。點一知二。
上堂云。諸人十二時中不要錯用心好。頭上是天。脚下是地。朝明夕晦。水綠山青。物象分明。亘今亘古。若也恁麼承當去。早是無事起事。那更言中求玄。句裏尋妙。正是埋沒自己。不如歸堂喫茶去。

袁州崇勝密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莫寐語。

問。如何是一法。

師云。早落第二。

上堂。大眾集。師云。已是團圓。不勞雕琢。歸堂喫茶。

廬山圓通僊禪師法嗣

溫州永嘉淨居了威佛日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一宿二宿程。千山萬山月。

僧曰。意旨如何。

師云。朝看東南。暮看西北。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人心難滿。溪壑易填。

問。時節因緣即不問。惠超佛話事如何。

師云。波斯彎弓面轉黑。

僧曰。意旨如何。

師云。穿過髑髏笑未休。

僧曰。學人好好借問。

師云。黃泉無邸店。今夜宿誰家。

師乃云。問一答一。谷響鐘聲。隨扣隨徵。故無窮盡。本分事中。離諸問答。直下無私。昭然應物。所以道。唯一堅密身。一切塵中現。乃舉拂子云。看看。拂子是塵。且道堅密身在什麼處。

良久。云。於斯見得。無量神通三昧本自圓成。恒沙諸佛法門自然具足。是故吾佛大聖人便以此法付囑國王大臣。令其守護。流通不絕。付囑之意。今古共聞。且道作麼生是流通底事。乃顧視左右云。萬家喜氣參差動。千里恩波特地新。

婺州明招山文惠禪師

問。百尺竿頭。如何進步。

師云。南天台。北五臺。

僧曰。處處逢歸路。時時達本源。

師云。對面若無青白眼。相識猶如不相識。

僧曰。爭奈學人有轉身一路。

師云。切忌喪身失命。

上堂。良久。云。便與麼散去。早自落七落八了也。俯為初機。不免重重話會。今朝五月五。為汝等諸人舉箇父母未生底句。光明^烜

赫耀乾坤。且是無今亦無古。三世諸佛彊猜量。六代祖師徒指注。殿上迦葉謾擊拳。門外金剛眉卓豎。師拊掌呵呵大笑云。笑箇什麼。笑燈籠入露柱。

東京褒親旌德有瑞佛海禪師法嗣

安州應城壽寧道完禪師

問。雲從龍。風從虎。未審和尚從箇什麼。
師云。一字空中畫。
僧曰。得恁麼奇特。
師云。千手大悲提不起。
問。十方國土中。唯有一乘法。如何是一乘法。
師云。斗量不盡。
僧曰。恁麼則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
師云。作麼生是悄然機。僧舉頭看。師舉起拂子。僧喝一喝。
師云。大好悄然。
上堂云。古人見此月。今人見此月。此月鎮常存。古今人還別。若人心似月。碧潭光皎潔。決定是心源。此說更無說。咄。
上堂云。覺城東畔。五眾雲臻。古佛廟前。人人得旨。壽寧門下。草偃風行。為什麼如此。良久。云。箇中須是箇中人。
上堂云。諸禪德。三冬告盡。臘月將臨三十夜。作麼生吐支準。良久。云。衣穿瘦骨露。屋破看星眠。

潭州雲蓋智本禪師法嗣

潭州南嶽山承天禪院自賢禪師

問。大眾已集。仰聽雷音。猊座既登。請師剖露。
師云。刹竿頭上翻筋斗。
僧曰。恁麼則嶽麓山前祥霧起。祝融峰下瑞雲生。
師云。紫羅帳裏[殺/米]真珠。
上堂。拈拄杖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打禪牀一下。云。與君打破精靈窟。簸土颺塵無處尋。千山萬山空突兀。復敲禪牀一下云。歸堂。參。
上堂云。一身高隱唯南嶽。自笑孤雲未是閑。松下水邊端坐者。也應隨例說居山。咄。

上堂云。五更殘月落。天曉白雲飛。分明目前事。不是目前機。既是目前事。為什麼不是目前機。良久。云。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上堂云。佛祖不能正觀。天地不能蓋載。且道為什麼如此。良久。云。人人有箇皮袋。

潭州南嶽承天慧連禪師

問。如何是承天境。師拈起拂子。

僧曰。如何是境中人。師擊禪牀一下。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挂拂子於舊處。

上堂云。湖南近日稍別。小雪應時及節。但管積嶺堆山。勿論春寒秋熱。阿呵呵。真可悅。庭下黃柑香不徹。

上堂。舉扇子云。犀牛扇子古今揚。七十峯前九夏長。二六時中如可用。分明頭角好商量。且問諸禪德。商量箇什麼。良久。云。任爾千般巧。終無兩樣風。乃放下扇子。

上堂。拈拄杖云。諸供養中。法供養最勝。所謂法供養者。山供養水。水供養山。僧堂供養佛殿。佛殿供養僧堂。諸人供養老僧。老僧供養諸人。良久云。供養已畢。念普供養真言。老僧忘却。且教拄杖子念與諸人。卓一下。云。靜處薩婆訶。

上堂云。鬧市裏識取古佛。百草頭上薦取老僧。鬧市裏古佛且致。百草頭上老僧作麼生薦。乃云。不是逢人誇好手。大都品格合風流。喝一喝。

廬陵定香山惟德禪師

問。登師子座。作師子吼。

師云。退後三步。

僧曰。忽遇文殊來又作麼生。

師云。列在下風。

上堂云。獨坐草菴中。空生直未委。天龍殊不知。花雨從何墜。摩竭徒掩室。毗耶空日閉。睡起一杯茶。別是箇滋味。咄。

上堂云。難。難。絲毫猶隔萬重山。易。易。剎那便到無生地。堪嗟文殊與維摩。兩箇紛紛談不二。山僧即不然。良久云。難。難。揀擇明白君自看。喝一喝。

南嶽草衣巖治平慶時禪師

問。如何是治平境。

師云。石室夜深霜月白。草衣歲久敗蒲寒。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攜筇尋遠水。洗鉢趨朝齋。

僧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水馬嘶風。泥牛渡海。

上堂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與君放出遼天鶻。還見麼。清風月下守株人。良兔漸遙春草綠。喝一喝。

上堂云。終日茫茫。那事無妨。且道那事如何。良久。云。落葉知流水。歸雲識舊峯。

洪州兜率從悅禪師法嗣

洪州龍安山兜率惠照禪師

開堂日。上首白槌竟。師顧視云。還觀得麼。若觀得去。便能卷舒無礙。隱顯自由。若觀不得。第二義門出來相見。

問。如何是第一義諦。

師云。槌下分付。

僧曰。第二義門請師舉唱。

師云。千家簾幕春光在。幾處園林日色明。

僧曰。學人未曉。

師云。勞而無功。

僧曰。爭柰分付了也。

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問。法鼓纔聲。大無雲集。學人上來。乞師指示。

師云。天靜不知雲去處。地寒留得雪多時。

僧曰。學人未曉。乞師端的。

師云。一重山背一重人。

師乃云。龍安山上。道路縱橫。兜率宮中。樓臺重疊。雖非天上。不是人間。到者心安。全忘諸念。善行者不移雙足。善入者不動雙扉。自能笑傲煙蘿。誰管坐消歲月。既然如是。向上還有事也無。良久。云。莫教推落巖前石。打破下方遮日雲。以拂子擊禪牀。

上堂。舉拂子云。端午龍安亦鼓撈。青山雲裏得逍遙。飢餐渴飲無窮樂。誰愛爭光奪錦標。却向乾地上划船。高山頭起浪。明椎玉鼓。暗展鐵旗。一盞菖蒲茶。數箇沙糖粽。且移取北鬱單越來。與南閩浮提鬪額看。擊禪牀一下。

上堂云。兜率都無伎倆。也教諸方榜樣。五日一度陞堂。起動許多龍象。禪道佛法又無。到此將何供養。須知達磨西來。分付一條拄杖。乃拈起云。所以道。爾有拄杖子。我與爾拄杖子。爾無拄杖子。我奪爾拄杖子。且道那箇是賓句。那箇是主句。若斷得去。即途中受用。若斷不得。且世諦流布。乃拋下拄杖。

袁州楊岐山子圓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如何是上座意。

僧曰。比為請益。

師云。老僧答爾不少。

上堂云。楊岐無異路。到者皆省悟。若也更求玄。驢年得休去。珍重。

黃州栢子山嵩禪師法嗣

黃州東禪惟資禪師

上堂云。信手招來。無非佛事。何故。頭頭顯理。物物皆宗。念念釋迦出世。步步彌勒下生。若信得及。把得住。便請坐斷報化佛頭。高步毗盧頂上。招拄杖云。且道拄杖子有何長處。良久。畫一畫。云。能殺能活。能縱能奪。更有一般堪羨處。不風流處也風流。卓一下。

澧州夾山純禪師法嗣

澧州欽山乾明普初禪師

上堂。良久。云。舉揚宗旨。上祝 皇基。伏願祥雲與景星俱現。醴泉與甘露雙呈。君乃堯舜之君。俗乃成康之俗。使林下野夫不覺成太平曲。且作麼生是太平曲。無為而為。神而化之。灑德雨以霧霏。鼓仁風而雍熙。民如野鹿。上如標枝。十八子知不知。哩哩囉囉羅哩。拍一拍。下座。

東京智海智清佛印禪師法嗣

蘄州四祖仲宣禪師

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銜花獻。
師云。看風使帆。
僧曰。見後為甚麼不銜花。
師云。相頭買帽。
僧曰。祇如學人今朝與和尚相見。又且如何。
師云。彼一時。此一時。
師乃云。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祖師西來。直指人心是佛。凡聖本來不二。迷悟豈有殊途。非涅槃之可欣。非死生之可厭。但能一言了悟。不起坐而即證無生。一念回光。不舉步而徧周沙界。如斯要徑。可曰宗門。山僧既到遮裏。不可徒然。
乃舉拂子云。看看。山河大地。日月星辰。若凡若聖。是人是物。盡在拂子頭上一毛端裏出入遊戲。諸人還見麼。設或便向遮裏見去。倘儻分明。更須知有向上一路。且問諸人。作麼生是向上一路。良久。云。六月長天降大雪。三冬嶺上火雲生。

泉州乾峯圓慧禪師

上堂云。達磨正宗。衲僧巴鼻。堪嗟迷者成群。開眼瞌睡。頭上是天。脚下是地。耳朵聞聲。鼻孔出氣。敢問雲堂之徒。時中甚處安置。還見麼。可憐雙林傅大士。却言祇遮語聲是。咄。
上堂云。春風蕩蕩。幽鳥關關。山青水碧兮羅空亘野。為報諸人兮慎勿顛預。勿顛預。好自看。十方三世趨團圓。以拄杖擊禪牀一下。

臨江軍慧力院可昌禪師法嗣

臨江軍瑞筠山慧力洞源禪師

上堂云。佛祖不立。雨落街頭自濕。凡聖何依。晴乾自是無泥。方知頭頭皆是道。法法本圓成。休說趙州七斤衫。曹源一滴水。須彌頂上浪滔天。大洋海底紅塵起。咦。是何道理。參。

袁州分宜福聖常極禪師

上堂云。和風習習。春日遲遲。牧童拋掌。石女生兒。壠上爭先種植。田中急切扶犁。鳥窠凍醜。布毛莫吹。天皇老漢。餬餅充飢。休言即心即佛。莫問得髓得皮。松窻石室。兀坐支頤。祇知今日明日。誰顧果滿三祇。以拂子擊禪牀。

廬山開先行瑛禪師法嗣

廬山開先華藏海評禪師

上堂云。始見山前麥熟。滿田又插新秧。東村人帶水拖泥。西家裏
謔聲一片。所謂苦中有樂。眾生日用而不知。唯有寒山呵呵大笑。
諸禪德。且道寒山子笑箇什麼。還會麼。不覺日又夜。爭教人少
年。參。

洪州上籃希肇禪師法嗣

洪州大寧文廣禪師

問。如何是大寧境。
師云。此地更無塵一點。城居宛若似山居。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入門便見。

饒州薦福英禪師法嗣

福州等覺普明禪師

開堂日。上首白槌罷。師良久。普視大眾云。奇哉。妙哉。是諸人
還於此觀得麼。若實於此觀得。盡十方世界更無微毫許法可與為見
為聞。亦無纖芥許法可與為對為待。可謂露裸裸。赤灑灑。若觀不
得。定是根塵結縛未解。凡聖情量不脫。終日只在是非得失裏轉
倒。有什麼用處。眾中莫有超然獨脫灑落底衲僧麼。無妨出來。與
爾證明。

問。當年裴相參黃蘗。笑指高僧問有因。府帥憲車臨祖席。其中消
息若為陳。

師云。彼一時。此一時。

僧曰。可謂風清八郡魚龍躍。明耀千家日月心。

師云。剗利衲僧。

僧曰。門外沙隄聞再築。即承天詔駕歸驂。

師云。當頭道著。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鄱陽湖裏。白浪滔天。

僧曰。薦福一枝今獨秀。釣螺江上月分輝。

師云。衲子難瞞。
僧曰。向上還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幸遇海眾。何妨指出。
師云。高著眼。
問。如何是奪人不奪境。
師云。風清月白。
僧曰。如何是奪境不奪人。
師云。灰頭土面。
僧曰。如何是人境俱不奪。
師云。海晏河清。
僧曰。如何是人境兩俱奪。
師云。水泄不通。
問。如何是賓中賓。
師云。伶俜更苦辛。
僧曰。如何是賓中主。
師云。問處甚分明。
僧曰。如何是主中賓。
師云。垂手入紅塵。
僧曰。如何是主中主。
師云。寶劍當胸。
僧曰。賓主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
師云。且待別時來。

師乃云。休。休。直饒問若聯珠。答如瓶瀉。若也於道。遠之遠矣。何謂也。若論此事。一大藏教更不能詮。三世諸佛唯是自得。輝今耀古。忘見絕知。彌滿十虛。寧有方所。祇為情生知隔。想變體珠。於日用間不能自覺。所以勞佗先德迴首塵勞。開方便門。示真實相。方便門已八字打開了也。還有人得底麼。若向遮裏入得。便能持實相印。建大法幢。出沒縱橫。卷舒自在。直饒到此。猶落建化門底。未為衲僧徑要一路。作麼生是徑要一路。良久。云。肯重不得全。卸却方為妙。珍重。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四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四世

東京法雲禪寺善本大通禪師法嗣

婺州雲黃山寶林寺寶覺禪師

諱果昌。姓時氏。安州人也。自幼出家。精通貝葉。弱冠試度。遂慕南宗。遠造寶林大通禪師席。入室。聞舉遊山翫水因緣。豁然大悟。乃獲印可。復遊淮甸。徧扣宗師。孤節介性。超然獨異。擔板自稱。名播叢席。緣終示疾。沐浴更衣。索筆為頌。跌坐而逝。

問。朝宰臨筵。願聞舉唱。

師云。聞似不聞。

僧曰。恁麼則得聞於未聞也。

師云。不聞似聞。

僧曰。一句流通。清風雨地。

師云。一似不曾聞。

問。昔日保壽開堂。三聖推出一僧。保壽便打。學人今日不推自出。未審和尚如何下手。

師云。尊官在此。

僧曰。不干他事。

師云。前令已行。

僧曰。丈夫未盡平生志。特地挑燈把劍看。

師云。識甚痛痒。

僧曰。祇如放開捏聚一句作麼生道。

師云。猶自不甘。

問。如何是寶林境。

師云。雲黃山。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傅大士。

僧曰。祇如向上宗乘。若何指示。

師云。貪觀天上月。失却手中橈。

問。如何是佛。

師云。堯眉八彩。
僧曰。乞師再指。
師云。舜日重瞳。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釘椿搖艣。
僧曰。畢竟如何。
師云。把纜放船。
提刑楊公傑入寺。因寫七佛殿額。乃問。七佛重出世時如何。
師云。一回相見一回新。
又同問山次。刑拈起大士飯石。問。既是飯石。為什麼齧不破。
師云。祇為太硬。
刑云。猶涉繁詞。
師云。未審提刑作麼生。
刑云。硬。
師云。也是第二月。
上堂云。千般巧說。不離昔日門風。萬種施為。祇是舊時光彩。蟬鳴高柳。普應十方。葉落孤峰。一時可驗。顧視左右云。還見麼。若言有見無見。未出斷常。若言非有非無。乃存戲論。喝一喝。云。快須薦取。更若意思交馳。便見白雲萬里。
上堂云。正月孟春猶寒。叉手人人舉過。青山隱隱如藍。誰道迷逢達磨。參。
上堂云。天高地厚。自古及今。西落東生。何曾間斷。清風明月。而地普天。畧塞虛空。逃之無處。恁麼說話。且逗初機。驀拈起拄杖云。佛殿上鴟吻。吞却雲黃山。見爾諸人不會。却吐在舊處了也。參。
上堂云。山僧作事無限。凡百不曾預辨。凌晨隨例餐糜。齋時伴眾喫飯。日月任渠遷。四序從佗變。且道為人在什麼處。良久云。兩箇五百。合成一貫。
上堂云。一即一。二即二。鯤著直是無香氣。驀拈拄杖。卓一下。云。識得山僧柳[木*栗]條。莫向南山尋鼈鼻。
師於紹聖三年五月十日辭世云。遮箇關楨。非難非易。四象相催。吾難住世。昨夜三更星斗移。一片虛空撲落地。

杭州淨慈寶印禪師

諱楚明。姓張氏。越州人也。早窮教旨。復慕禪宗。參大通禪師。初住越州承天。次遷淨慈。左丞蒲公宗孟奏以師名。問。法不孤起。仗境方生。如何是淨慈境。

師云。目前朵朵之山。耳畔潺潺之水。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閑向湖邊看魚躍。歸來林下毳禪衣。
僧曰。人境已蒙師指示。西來祖意又如何。
師云。白石有消日。清聲無盡年。
僧曰。謝答話。
師云。家賊難防。
問。黃梅半夜。心印相傳。惠日峰前。如何指示。
師云。湖水連天碧。山花映日紅。
僧曰。西來密意蒙師決。當機一句又如何。
師云。回首細思量。
上堂云。看看。山花山鳥各轉無盡法輪。湖水湖波共演祖佛心印。塵塵互說。法法同宣。耳目觀聽難明。情識思量莫及。當須自照。唯證相應。
上堂云。祖師心印。非長非短。非方非圓。非內非外。亦非中間。且問大眾。決定是何形貌。拈拄杖云。還見麼。古篆不成文。飛帛難同體。從本自分明。何須重特地。擊禪牀一下。
上堂云。出門見山水。入門見佛殿。靈光觸處通。諸人何不薦。若不薦。淨慈今日不著便。
上堂云。雲門餬餅。非麪所成。趙州喫茶。口行人事。諸人還相委悉麼。若也委悉。方信古人是截鐵之言。如或未入玄關。且在荊棘林裏。
上堂云。若論此事。得之則絕毫絕釐。用之則如山如嶽。迎之則無背無面。隨之則無厚無薄。如斯語話。諸人還委悉麼。若委悉去。方信寒暑不能遷。生滅不曾易。日月鎮長新。歷劫光一色。大眾。如何是一色底光。良久。云。天下衲僧跳不出。

越州承天滋須禪師

姓黃氏。單州人也。受業東京恒興寺。深窮論旨。精持律行。參大通禪師。言下契悟。
問。太守光臨於法席。祖意西來願舉揚。
師云。一人有慶。
僧曰。大眾咸聞。
師云。聞底事作麼生。
僧曰。怪來昨夜清風起。今日靈山事宛然。
師云。瞻之仰之。
問。今朝朝旆光臨。如何相見。

師云。此心能有幾人知。

僧曰。一言歸大道。四海盡知音。

師云。合。

師云。若論此事。體之則神。敬之則靈。觀之則眼似眉毛。聽之則泥牛哮吼。言之則縮却舌頭。齟之則塞却鼻孔。觸之則一棒一條痕。思之則針筍不入。當此之際。謂之智不到處。心言絕處。亦謂之無事人安樂處。直饒千聖出興。當頭亦道不著。昔日淨名居士對諸菩薩前。曾露遮箇消息。次有達磨大師於少室峰前。九年為眾說。唯有二祖親聞。自後法流沙界。承天今日向知有底人前有箇說處。良久。云。見麼。百味盆羅明祖意。一意之下報深恩。

上堂。拈起拄杖云。見麼。明如鏡。平如秤。四七二三。親行此令。有眼底辨取。擊禪床一下。

蘇州吳江聖壽法晏禪師

問。祖意西來即不問。今日開堂事若何。

師云。雲生碧嶂。

僧曰。學人不會。

師云。月落寒潭。

上堂云。山頭浪起。水底塵飛。結果空花。生兒石女。如今即不恁麼。三年一閏。九月重陽。冬天日短。春天漸長。寒即向火。熱即取涼。良久云。且道佛法在什麼處。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喝一喝。

越州天衣寺惠通禪師

姓沈氏。錢塘人也。早年具戒。聽習台教。尋慕參問。詣大通禪師席下。契悟宗猷。

問。師子未出窟時如何。

師云。藏牙伏爪。

僧曰。出窟後如何。

師云。群狐屏迹。

僧曰。恁麼則青莎窟裏威風振。秦望山前露爪牙。

師云。爾試哮吼看。

僧曰。放過一著。

師云。吐不出。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青松倒影垂幽徑。

僧曰。學人不會。
師云。綠竹寒聲夾亂流。
僧曰。學人從此更無疑也。
師云。且緩緩。
師乃云。今日囊錫既露。不免帶水拖泥。顧視大眾云。有麼。然祖師心印。直下圓成。恁麼會得。少分相應。若以言詮取證。徒自疲勞。馳騁詞鋒。欲繼真乘。無有是處。祇如達磨未來一句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良久。云。鐵牛昨夜三更走。石女溪邊喝便回。
上堂云。鳴鐘一扣。響振妙峰。玉燭騰輝。大千普照。觀音菩薩到遮裏。無處藏身。更問如何若何。鐵圍山畔。更過三千。

湖州天聖齊月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胡地冬生筍。
僧曰。乞師再指。
師云。波斯不繫腰。
僧曰。三十年後專為流通。
師云。西來意作麼生。僧拊掌一下。
師云。早是亂統。僧禮拜。師便打。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魚行水濁。
僧曰。恁麼則淨慈一箭直射翠峯也。
師云。卦是天門。筭來五兆。
僧曰。驗人端的處。下口便知音。
師云。一任摸[打-丁+索]。
師乃云。祖師心印。迴脫根塵。妙體非形。徒然測度。若乃心存知解。識滯見聞。祖師徽猷。如何得到。今日直須一念情盡。內外見亡。大智圓明。方能洞曉。便及隨機應用。好醜齊觀。觸處皆渠。更無別理。山河舉唱。孰是知音。水鳥談真。何人善聽。然雖如是。知者方知。更若心眼未開。切忌承虛接響。以拄杖卓一下。

鄭州資福法明寶月禪師

問。法身清淨。報應無垢。為什麼香湯浴佛。
師云。今朝四月八。
僧曰。既然無垢。浴箇什麼。

師云。不因入水。爭見長人。

僧曰。忽若撞著雲門老子又作麼生。

師云。快便難逢。便打。

上堂云。資福別無所補。五日一參擊鼓。何曾說妙談玄。祇是羸言直語。甘草自來甜。黃連依舊苦。忽若鼻孔遼天。逢人切忌錯舉。參。

上堂云。風柯月渚。並可傳心。煙島雲林。咸提妙旨。現成公按。不在思量。更說碧眼西來。單傳直指。大似平地生波。而今還有相悉底麼。良久。云。石頭大小連雲翠。栢短松長帶靈青。便下座。

上堂云。若論此事。譬如伐樹得根。灸病得穴。若也得根。豈在千枝徧斬。若也得穴。不假六分全燒。以拄杖卓一下。云。遮箇是根。那箇是穴。咄。是何言歟。

杭州徑山承天禪院常悟禪師

姓李氏。本州光化寺受業。參大通禪師。發明己事。出世闡揚。禪眾宗仰。初住龍華。駙馬都尉張侯敦禮奏以章服。

問。一棒一條痕。一擱一掌血。有箇末後句。請師分明說。

師云。有功者賞。

僧曰。一言金石談來重。萬慮鴻毛脫去輕。

師云。手把白玉鞭。殷勤贈三百。

問。達磨未來時如何。

師云。省得草鞋錢。

僧曰。來後如何。

師云。重疊關山路。

僧曰。來與未來相去多少。

師云。伸脚在縮脚裏。

師良久云。佛法至論。非辨口利辭之所為。非神通修證之所得。直饒盡乾坤大地。情與非情。各致百千問難。祇贏得一場戲論。去道轉遠。何故如是。靈山會上。世尊拈花。迦葉微咲。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分付於汝。大眾。還知釋迦老漢憐兒不覺醜麼。山僧當時若見。三十棒一棒也較不得。為什麼如此。祖禰不了。殃及子孫。

上堂云。至道無難。迷於巧會。說神說通。著凡著聖。而今見山是山。見水是水。飢即餐。困即睡。且道將什麼消他供養。良久。

云。更請一甌茶。

越州延慶可復禪師

問。一言道合時如何。
師云。清風明月。
僧曰。不假一言時如何。
師云。南北東西。
僧曰。直下便會時如何。
師云。藏頭露影。
問。如何是事不遷。
師云。江山不改舊。風月自依然。
僧曰。如何是理不迂。
師云。曉月收松影。春池解凍冰。
僧曰。事理異同。如何得歸一去。
師云。浪花不待春風發。雲葉寧隨秋露凋。
上堂云。胡來胡現。漢來漢現。忽然胡漢俱來時如何祇準。良久。
云。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參。
上堂云。日暖春將暮。桃華落澗紅。靈雲時不遇。隨水自西東。
參。

溫州永嘉雙峰山普寂宗達佛海禪師

問。如何是永嘉境。
師云。華蓋峰。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一宿覺。
上堂。驀拈拄杖橫按膝上云。苦痛深。苦痛深。碧潭千萬丈。那箇是知音。卓一下。
上堂。眾集定。喝一喝。云。冤有頭。債有主。珍重。
上堂云。孤嶼峰前太直。不費纖毫心力。入門兩手分付。更聽青天霹靂。喝一喝。下座。

郴州宣章圓明希禪師

上堂云。天地無四壁。日月有四時。暑往寒來。風恬浪靜。古今天地。古今山河。情與無情。皆承恩力。不用南詢諸祖。北見文殊。古佛廟前。此時參畢。見箇什麼。良久。云。也是迷逢達磨。

越州五峰山子琪禪師

問。學人上來。乞師垂示。

師云。華開千朵秀。
僧曰。學人不會。
師云。雨後萬山青。
僧曰。謝指示。
師云。爾作麼生會。僧便喝。
師云。未在。僧又喝。
師云。一喝兩喝後作麼生。
僧曰。也知和尚有此機要。
師云。適來道什麼。僧無語。師便喝。
上堂云。秋風清。秋月明。蕭灑景。稱閑情。時聽斷崖流水聲。

通州狼山文惠禪師

問。和尚未見淨慈時如何。
師云。鐵牛生角。
僧曰。見後如何。
師云。石馬懷胎。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海雲生嶽頂。
僧曰。學人不會。
師云。楊子水朝東。

西京韶山雲門道信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千年古墓虵。今日頭生角。
僧曰。莫便是和尚家風也無。
師云。卜度則喪身失命。
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無人識者。
僧曰。如何得脫灑去。
師云。爾問我答。
師乃云。直饒言言諦當。句句精通。人天眾前。暖熱法席即可。何故。是法非法。離見聞緣。至道非道。絕諸戲論。直得文殊仗劍。殺活臨時。秘魔擎杖。事不獲已。百丈竿頭進步。未是全身。撒手千聖那邊。豈唯分外。自爾泥牛入海。氣似雲奔。木馬嘶風。聲如雷吼。英靈禪德宜自參詳。妙悟不忘。無有休日。珍重。

舒州投子山修顯證悟禪師法嗣

壽州資壽灌禪師

問。朝宰臨筵。請師舉唱。

師云。翠竹搖風。寒松鎖月。

僧曰。祇如威音王已前又作麼生。

師云。無角鐵牛眠少室。生兒石女老黃梅。

僧曰。三十年後此語盛行。

師云。切忌錯舉。

上堂。良久。云。便恁麼散去。已是葛藤。更若喃喃。有何所益。以拂子擊禪牀。

西京白馬山崇壽寺江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開堂略借看。

師云。不借。

僧曰。為什麼不借。

師云。賣金須是買金人。

上堂云。若言說佛說祖。未斷生死根源。直饒不立纖塵。也是心常附物。敢問諸人。作麼生恰好去。拈起拄杖云。看看。拄杖吞却虛空。虛空何曾知覺。

鄧州香巖長壽知月禪師

師顧視云。好諸禪德。霧卷長空。雲收大野。女郎臺下。何殊雞足峰前。西湖岸頭。不異曹溪路上。漁歌短艇。鶯囀喬林。野草含烟。汀花泣露。大眾還相委悉麼。良久。云。頭頭垂示處。子細好生觀。

上堂云。吾家寶藏不慳惜。覲面相呈人罕識。輝今耀古體圓時。照地照天光赫赫。荊山美玉奚為貴。合浦明珠比不得。借問誰人敢酬價。波斯鼻孔長三尺。咄。

潤州金山善寧法印禪師法嗣

秀州禪悅知相禪師

上堂云。或住城隍或住山。任緣無事可相關。有時默座令人笑。却是閑時又不閑。且問諸人。為什麼却成不閑。大眾。還會麼。良久。云。昨朝霜冷盡。今日孟冬初。參。

上堂云。祖師心印。格外清規。更問如何。伏惟伏惟。

婺州普濟子淳圓濟禪師

問。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如何是珠。

師云。不撥自轉。

僧曰。如何是藏。

師云。一撥便轉。

僧曰。轉後如何。

師云。把不住。

問。如何是普濟境。

師云。任是王維手。都盧畫不成。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李四雖擡手。張三不舉頭。

僧曰。忽遇客來。如何祇待。

師云。煮茶敲破石池冰。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猶自不知。

問。如何是道。

師云。秋收冬藏。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拖泥帶水。

問。諸佛說不到底。請師說。師良久。

僧曰。覲面無私。對揚有準。

師云。莫將泥彈子。認作夜明珠。

上堂云。難。難。思量猶隔萬重山。易。易。剎那便到無生地。維摩昔日與文殊。兩箇相逢談不二。敢問諸人。作麼生說箇不二底道理。良久。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

上堂云。竹林飼虎。猶尚鮮血霧流。靈山說法度人。至今聲音嘹唳。且道少室峰前一句作麼生道。良久。云。紅霞穿碧落。白日遶須彌。

上堂云。曉天時靜亂雲深。寂寂開軒對碧岑。為報五湖參學者。休言見色便明心。

上堂云。雨過山青。雲開月白。帶雪寒松。搖風庭柏。山僧恁麼說話。還有師祖意也無。其或不然。良久云。看看。

秀州鹿苑道齊禪師

上堂云。君論此事。直下無私。輝騰今古。不離當處。應現無虧。更逞詞鋒。徒勞側耳。門庭敲磕。不別千差。到遮裡。維摩老漢祗可傍觀。達磨九年看即有分。良久云。參。

廬山開先心印禪師法嗣

廬州延昌寺熙詠禪師

問。少林面壁。意旨如何。

師云。慚惶殺人。

師乃云。衲僧家直須橫身宇宙。裂破面門。把住放行。總由遮裡。放行也。千花競秀。萬木迎春。把住也。水泄不通。纖塵不立。且道山僧為人在什麼處。良久。云。可知禮也。

金陵保寧子英禪師法嗣

廬山承天羅漢勤禪師

問。今朝已受賢侯請。未審如何顯祖機。

師云。甚處得此問頭。

僧曰。因師置得。

師云。道什麼。

問。學人上來。合談何事。

師云。水出崑崙。

僧曰。意旨如何。

師云。天高地厚。

僧曰。畢竟如何。

師云。步步向前。

上堂云。羅漢有一句。擬議成露布。直下便承當。歸堂喫茶去。

上堂云。月生一。三世如來跳不出。月生二。直下分明休擬議。月生三。凜凜霜風徹骨寒。遂拈拄杖子。過去不可得。現在不可得。諸仁者作麼生會。向遮裡辨得。羅紋十字。一任橫行。苟或未然。切忌亂走。擊禪床一下。

廬山羅漢善修禪師

問。直截之機。請師速道。

師云。翦鐵湛盧寒照雪。

僧曰。未是直截之機。

師云。目前可驗。

師乃云。一氣不言。群芳競吐。烟冪冪兮水綠山青。日遲遲兮鶯吟鷺語。桃花依舊笑春風。靈雲別後知何許。驀拈拄杖云。見麼。良久。云。鼻孔眼睛一時穿却。卓拄杖一下。

秀州本覺法真一禪師法嗣

福州越峰粹珪妙覺禪師

閩縣人也。姓林氏。少業儒。應鄉書不振。三十四落髮于大善寺。受具後一年。杖錫遊方。至本覺。入室。聞舉言下合無生。遂陳悟旨。法真印之。

一日。告以京洛之行。法真書頌為送。曰。

騰蘭昔東來。京洛始知佛。寥寥千載餘。白馬瘞遺骨。

吾祖傳佛心。九年居少室。斷臂得神光。高風在今日。

之子七閩士。昔學綴文筆。厭為章句佛。勇往事超逸。

壞服從我游。出處造禪窟。遽壞西洛行。去意不可屈。

丈夫宜慨然。萬事所當忽。毋為塵跡留。君看是何物。

自此京淮廬阜。遍歷叢林。俄還鄉曲。會太守工部溫侯益崇敬佛法。命師出世。開堂日。問。撥草瞻風即不問。一曲還鄉事若何。

師云。溪畔老婆呼舊字。

僧曰。恁麼則踏著本家田地穩也。

師云。飛猿嶺外有知音。

問。擊鼓昇堂今日事。未委宗風嗣阿誰。

師云。金雞一唱千峰曉。

僧曰。[橘-矛+佳]李亭前曾得意。越王峯下遇知音。

師云。多少離人昌暗行。

問。賢侯請命。當為何事。

師云。光拭床。淨掃地。

僧曰。還當佛法也無。

師云。不用奴。安使婢。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瘦田損種。

僧曰。未審如何領解。

師云。刈禾鎌子曲如鈎。

問。機關不到時如何。
師云。抱甕灌園。
僧曰。此猶是機關邊事。
師云。須要兩霖頭。
問。祖意教意。是同是別。
師云。驢著槽。馬著廠。
僧曰。爭奈學人未會何。
師云。蘆花翠地白絲鞭。
問。寶劍未出匣時如何。
師云。豐城價重。
僧曰。出匣後如何。
師云。雷煥名高。
師乃云。釋迦出世。石火裡現身。四方七步。從何而起。達磨西來。雷聲中說法。一華五葉。甚處得來。邇後緣空鑿隙。逐惡隨邪。便有惠山。臨濟。洙仰先曹。平地上撒起葛藤。寶器裏停儲餽飯。使南來北往者牽手絆脚。倚門傍戶者嚙唾吞精。且饒有一箇半箇眼尾朔地跳得出來。若到衲僧門下。不消一筭。喝一喝。下座。

福州壽山本明禪師

開堂曰。問。李相當年參藥嶠。雲在青天水在瓶。府帥請師匡上席。未知祖意若為明。
師云。今古應無墜。分明在目前。
僧曰。將謂壽山無透路。元來方外有知音。
師云。今之古之一句作麼生道得。
僧曰。伯牙與子期。不是閑相識。
師云。又被風吹別調中。
問。如何是壽山境。
師云。三山長在目。一徑是杉松。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閑持柳[木*栗]木。笑問往來人。
僧曰。向上宗乘事若何。
師云。龍吟霧起。虎嘯風生。
問。知師久蘊吹毛劍。作麼生是吹毛劍。
師云。清風八面。
僧曰。中下之機如何曉解。
師云。切忌當鋒。
僧曰。恁麼則今日用去也。

師云。快便難逢。

師乃云。過去諸佛已過去。未來諸佛猶未來。正當空劫之際。佛法委在何人。若也一念迴光遍照。十世古今不離於當念。豈有前後去來之際。直饒諸聖出興如恒河沙數。未有一人半箇當頭指出。是以釋迦老子四十九年說不盡。三乘十二分教又是黃葉止啼之說。泊乎靈山會上。不得已而拈示眾。迦葉破顏而笑。便道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

自此之後。翻成途轍。西天此土。遞相傳授。莫不以心印心。以印印定。實無一法與人。直指當人分上。真機絕朕。包千古以無窮。大智冲虛。亘十方而無盡。圓光不離於目前。法界豈從他得。舉足下足。無非真實道場。一卷一舒。豈離繁興大用。草木叢林。皆現色身三昧。山河大地。盡轉根本法輪。若能如是。方解報佛深恩。上資皇圖之永固。珍重。

上堂云。四面青山列畫屏。誰知身世與雲平。松風水月淡相對。別占壺中一片清。所以白雲影裏。古佛巖前。青松翠栢。盡彰古佛之家風。傑閣雄樓。何異天宮之世界。既到遮裏。不用彈指。樓閣門開。說甚天台與南岳。為什麼如此。壽嶽凌霄漢。紅塵不到門。

睦州廣靈希祖佛印禪師法嗣

睦州烏龍山廣堅禪師

上堂。良久云。明珠在掌。別者還稀。寶鏡當臺。何人委悉。鋒前一路。截斷眾流。言下千差。隨波逐浪。是以道。棒頭取正。喝下承當。擬議之間。新羅國裡。如斯舉唱。曲為初機。若是明眼高流。不在鑽龜打瓦。珍重。

處州縉雲仙岩懷義禪師

問。如何是佛。

師云。自屈作麼。

僧曰。如何是道。

師云。爾道了。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無。

僧曰。恁麼則小出大遇也。

師云。祇恐不恁麼。

僧曰。也是。

師云。却恁麼去也。

睦州清溪西禪智誠禪師

師云。庭凋一葉之梧。普天秋色。雲過數行之鴈。市地寒聲。忽薦西風。頓清野水。頭頭顯露。物物全彰。有眼底總見。有耳底總聞。且道佛法在什麼處。良久。云。多少分明。

壽州資壽圓澄岩禪師法嗣

鼎州武陵彰法嵩禪師

有僧脫鞋戴頭上出來。師云。趙州猶在。僧拈下鞋呈起。

師云。果然。僧提鞋歸眾。

師云。猶較些子。

上堂。拈拄杖云。行坐常持兔角杖。應用全施龍虎狀。乳峯猶許老韶攬。後代商量幾般樣。有方圓。有拯濟。打著鐵牛隨棒起。須教不怯萬年藤。畫斷兩頭休擬議。亦不大。亦不小。拄地撐天常咬咬。拈來卓向眾人前。萬象乾坤都一照。卓一下。

婺州寶山公遠禪師

問。如何是聲。

師云。分明聽取。

問。如何是色。

師云。分明看取。

僧曰。更有事也無。

師云。言猶在耳。

岳州乾明惠覺禪師法嗣

嶽州平江長慶圓禪師

上堂云。寒氣將殘春日到。無索泥牛皆[跳-兆+孛]跳。築著崑崙鼻孔頭。觸倒須彌成糞掃。牧童兒。鞭棄了。懶吹無孔笛。拍手呵呵笑。歸去來兮歸去來。煙霞深處和衣倒。良久。云。切忌睡著。

上堂云。此道徑截。祇遮無別。要休便休。要歇便歇。還歇得麼。喫茶去。

上堂云。長慶有箇消息。生緣本在江國。逢人不敢相謾。面赤不如語直。

岳州平江寶積清及禪師

問。如何是實際理地。

師良久云。會麼。

僧曰。不會。

師云。可惜實際理地。

上堂云。左一盼。右一顧。萬象森羅體全露。且道露箇什麼。顧視大眾。下座。

上堂。拈拄杖。喝云。德山。臨濟不解我語。諸人還會麼。乃卓一下。又喝一喝。云。咩。未夢見德山。臨濟在。

上堂云。看看。輝輝紅日上欄干。更饒清風吹我寒。咄。

真定府洪濟滿禪師法嗣

相州長興宗朴禪師

上堂云。我有一訣。逢人便說。雨下天陰。炎天普熱。大眾還會麼。爾若會得。眼中著屑。爾若不會。今朝敗闕。不見道。別。別。韶陽老人得一橛。

上堂云。臘月正嚴寒。草木盡枯乾。幾多名利客。見處黑漫漫。咄。

東京法雲惟白佛國禪師法嗣(向下八人語錄禪學僧希式錄)

潤州金山龍游寺佛鑑禪師

諱惟仲。汀州人也。早圓戒品。遊廬山。淮浙。徧扣宗師。至龜山。摳衣入室。聞舉庭前栢樹因緣。言下契悟。

出世磁州慧果。未幾。參侍佛國禪師。住東京法雲。為眾領袖。元符三年春。

哲宗皇帝上仙。五七入內。簾賜章服。相國曾公布聞師道風。奏以師名。浙漕金部程公之元。潤州州牧大監傅公燮。遣使具儀。請住金山。

師於建中靖國元年四月十一日入寺開堂。中宮皇后遣中使降香。恭為今上皇帝祝延聖壽。師謝恩畢。登座祝聖罷。乃敷坐。

上首白槌竟。師顧左右云。還會麼。師子奮迅。象王回旋。於斯明得。不妨省力。其或不然。有疑請問。

問。選佛場開當此日。師將何法答 皇恩。

師云。萬年松在祝融峰。

僧曰。若然者。祇如大監臨筵。如何補報。

師云。漁樵千里樂昇平。

僧曰。飄來新雨露。洗出舊樓臺。

師云。說道理。

僧曰。祇如泛洪舟衝雪浪。到家一句又作麼生。

師云。三門頭合掌。佛殿裏燒香。

師云。法本無說。隨事應機。心本無形。遇緣即現。古今如是。凡聖同途。蓋眾生迷妄不知。遂成流轉。故能仁頓忘情見。了達根源。不從外求。亦非內得。所以佛佛授手。祖祖相傳。道貫一乘。宗分五派。臨濟則賓主互換。韶陽乃顧鑒全抽。為仰則父子相投。曹洞乃君臣會合。清涼法眼直指唯心。建立門風。各張鋪席。包含萬象。該括大千。

冥冥不混於色聲。蕩蕩豈妨於語默。把定則十方坐斷。虎踞龍蟠。放行則千聖出興。風行草偃。助堯仁政化。祝 睿筭延鴻。降伏眾魔。普利群有。然雖恁麼。猶涉程途。且道正令當行。如何理論。良久。云。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建中靖國元年四月十三日 皇后教旨。遣中使降香。為 皇子韓國公頭碎之辰設齋。請陛座。祝延 聖筭。問。天香遠降。慶 皇子之令辰。中使臨筵。願聞法要。

師云。好風來不盡。紅日照無涯。

僧曰。一句迥超今古外。松蘿不與月輪齊。

師云。於斯如曉了。不在別追求。

僧曰。箇中奇特事。鑪爇御香清。

師云。木人吹玉笛。聲入紫微宮。

師云。妙高臺畔。龍象駢闐。化城閣前。聖會賢合。正是 我皇植福之地。乃為禪流選佛之場。洞啟法門。廣開要路。悟之者。頭頭顯道。物物明心。高蹈大方。圓融至理。迷之者。重重昧性。句句乖宗。空自精勤。終無了達。苟能於斯一致畫斷。兩邊不離。當人便同正覺。真可謂金輪統御。玉燭遐明。萬國賓從。八方寧靜。虬龍出穴。丹鳳來梧。野老謳歌。行人讓路。堯風與祖風並扇。舜日共佛日齊明。奔波遊子徑歸家。是處高人遊佛國。然如是。且道龍生龍子底句又作麼生。良久。云。非但天神來密祐。更資遐筭助吾皇。

問。如何是佛。

師云。高聲問著。
僧曰。如何是道。
師云。脚下薦取。
僧曰。如何是禪。
師云。舌拄梵天。
僧云。學人今日小出大遇去也。
師云。爾遇得箇什麼。
僧曰。不可重說偈言。
師云。勘破了也。
師云。如是之法。亘古亘今。一切現前。不勞心力。上至諸佛。下及傍生。妙湛真如。恒常有異。蓋群情而棄本逐末。展轉輪回。苟聖種而捨妄歸真。頓超彼岸。所以菩提達磨遠屆此方。直指人心。見性成佛。少林九年冷坐。不措一言。唯有座主神光。俄然瞥地。便乃求安心之旨。了不可尋。即於言下承當。從此紹隆祖位。末後門庭大啟。枝派遙分。石人舞出玄關。玉女吹成妙曲。如斯舉唱。已徇機緣。後學初心。直須薦取。久參高德。同為證明。且道截斷兩頭底句又作麼生。良久。拍禪牀。下座。
上堂云。今朝二月十五。慧果陞堂擊鼓。召集四海禪人。大家商量佛祖。寒山聞說呵呵。拾得起來作舞。直饒碧眼胡僧。也須點頭相許。還相委悉麼。歸堂喫茶去。
上堂。顧視大眾云。春光漸老。山色方融。桃華栢上噴馨香。楊柳岸邊垂裊娜。大醫嶺下。水聲終夜響潺湲。慧果門前。雲影暮天鋪爛熳。鸞啼嶺上。蝶舞華前。法法現成。不勞心力。參。
上堂云。大眾盡是雲外高士。徧歷諸方。扣問宗師。求其悟解。還知人人自有一段光明。十二時中在汝諸人面門出入。未嘗有絲毫許欠少。未嘗有絲毫許間隔。未究得者。切須究取。比來行脚。圖箇什麼。若於此見得歷歷分明。猶是生死岸頭事在。更須知有衲僧家超佛越祖。向上一著。敢問諸人。作麼生是向上一著。良久。云。月明深夜後。猿叫亂峰前。

興元府中梁山乾明禪院永因禪師

本府人也。初住法濟。都尉張侯敦禮奏賜章服。問。建律為禪。非無所以。學人上來。乞師便道。
師云。分明一句。作者猶迷。
僧曰。漢水祇應流到海。月輪直上最高峰。
師云。且得領話。
問。世尊出世。地涌金蓮。和尚出世。有何祥瑞。

師云。昨日雨。今日晴。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東西南北。上下四維。
師乃云。信哉此事。孰不承恩。大似日輪處虛空界。但能反照。即自圖明。不假多聞。本來具足。堂堂應用。歷歷見前。廓落情塵。徧周法界。虛空上下。不在思量。大地山河。有誰間隔。乃拈起拂子云。前佛已滅。後佛未生。正當而今。諸人何不省悟。若能悟去。便乃不除煩惱。即證菩提。不離死生。便成正覺。假饒碧眼胡僧。也添減[糸*系]毫不得。雖然如是。敢問諸人。作麼生是添減不得底事。良久。云。斬新樓殿佛家天。律去禪居豈偶然。底事不曾添減得。任從天下與人傳。

婺州智者山壽聖禪寺紹光禪師

潭州人也。出世楚州勝因。後遷智者山。都尉張侯敦禮奏賜章服。問。遠離楚寺。來屈金華。如何是不動尊。
師云。卸帽穿雲去。披簑帶雨歸。
僧曰。未審是同是別。
師云。莫向意中求。
僧曰。爭柰遠涉程途。
師云。有請不背。
問。擊大法鼓。演大法義。學人上來。乞師垂示。
師云。寒生水面。
僧曰。向上還有事也無。
師云。有。
僧曰。如何是向上事。
師云。日上天心。
上堂云。千手千眼。不礙施呈。一信不通。玄關永隔。且道過在什麼處。十年歸不得。忘却來時道。參。
上堂云。根塵同源。縛脫無二。不動絲毫。十方游戲。紫胡犬子雖獐。爭似南山鼈鼻。師高聲云。大眾。看脚下。
上堂云。團不聚。撥不散。日曬不乾。水浸不爛。等閑掛在太虛中。一任傍人冷看取。

泗州大聖普照禪寺法最禪師

問。為國開堂於此日。請師演法報君恩。
師云。萬里白雲。一輪紅日。
僧曰。恁麼則我皇有道日無私。
師云。鐵樹華開好春色。龜毛點出太平年。
僧曰。祇如截斷眾流一句作麼生。
師云。板齒生毛則向汝道。
上堂云。瓦礫爭光。摩尼失色。若也承虛接響。應在聲前。設使眼見耳聞。未免盲聾啞。咄。
上堂云。箭過新羅。錫飛舊隱。迷逢達磨。作者方知。具眼之流。應機如電。參。

和州靈湯惠濟禪院普虔禪師

問。假大導師。傳正法眼。祇如盡十方世界是沙門一隻眼。未審作麼生傳。
師云。痛杖且待別時。
僧曰。恁麼則鐵牛哮吼。石鼓喧轟。
師云。非公境界。
師云。法身無相。應物現形。般若無知。對緣而照。致使虛空霹靂。旱地爆雷。南山起雲。北山下雨。且作麼生會。良久云。溪澗豈能流得住。終歸大海作波濤。

楚州勝因崇愷禪師

姓劉氏。廣州人也。依蒲澗山出家。受具遊方。參佛國禪師。出世住持。都尉張侯敦禮奏賜章服。
問。菩薩人見性。如晝見日。聲聞人見性。如夜見月。未審和尚見性如何。
師云。一筆勾下。
僧曰。未審意旨如何。
師云。萬里無雲。千峰壁立。
僧曰。謝師指示。
師云。錯。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雲舒北闕。月印南溟。
僧曰。恁麼則佛國嫡子。
師云。拋第五兆。

師乃云。祖宗正令。今古全提。函蓋乾坤。把定世界。直得天輪左轉。地軸右旋。夜月流光。朝曦耀彩。四方炳煥。八顧恢張。不隱微毫。無遺纖芥。山青水碧。鷓白烏玄。霧起郊原。龍吟城際。風生檻外。虎嘯亭前。木童撞出幽關。石女擘開金鎖。衝斷三重戈甲。撥散五位槍旗。石鞏·秘魔弓又放下。德山·臨濟棒喝休施。何須擊鼓般泥。不用毬毬拽石。任爾道理俱盡。己鼻全無。點檢將來。直是未在。既若如然。爾且道超宗越祖底事作麼生。良久。云。大地載不起。乾坤藏亦難。

沂州馬鞍山福聖院仲易禪師

問。如何是驚人一句。師便喝。
僧曰。幾年雖不言。一語便驚人。
師云。道什麼。
問。如何是最初一句。
師云。看脚下。
僧曰。蹈破澄潭月。衝開碧落天。
師云。祇恐不恁麼。乃云。一塵纔起。大地全收。一令當行。群魔失色。一人當御。萬國來賓。一月在天。千江映徹。雖然如是。祇遮一點。諸人還知落處麼。良久。云。千山攢翠色。萬古碧巖前。

磁州二祖元符禪寺璿果禪師

問。如何是佛。
師云。天上天下。
僧曰。如何是法。
師云。海藏龍宮。
僧曰。如何是僧。
師云。遊山翫水。
僧曰。三寶已蒙師指示。衲僧相見又若何。
師云。鷓子過西天。
問。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如何是法王法。
師云。薰風來席上。
僧曰。蟾彩乍開金殿冷。法王陞座玉窓寒。
師云。紅日正當軒。
僧曰。斬釘截鐵須是本分鉗鎚。
師云。法王法又作麼生。
僧曰。猶握金鞭問歸客。夜深誰共御街行。

師云。不妨劔利。

師乃云。一二三四五。陞堂擊法鼓。簇簇齊上來。一一面相覩。秋色滿虛庭。秋風動寰宇。更問祖師禪。雪峰到投子。咄。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五世

婺州寶林果昌寶覺禪師法嗣

袁州木平山興化德觀禪師

問。如何是和尚為人處。

師云。月上松添影。

僧曰。學人未曉。

師云。鐘聲和白雲。

問。雲門直下法嗣何人。

師云。圓光沼畔清風起。

僧曰。雲黃嫡子也。

師云。飼虎巖前別是春。

天台護國妙機禪師

問。渴憶洞庭霜後橘。困思天竺雨前茶。橘則不問。如何是茶。

師云。與爾一盞。

僧曰。學人今日已知香味。

師云。也是畫餅充飢。

上堂云。昨日晴。今日雨。此是觀音示門戶。門戶開。今朝特地上高臺。敢問大眾。且道觀音即今在什麼處。良久云。不須更向寶陀山。

上堂。師乃召大眾。眾舉頭。復云。便恁麼去。已是周遮。更若遲疑。白雲萬里。參。

杭州淨慈楚明寶印禪師法嗣

溫州靈巖德宗禪師

問。人天列請。覺樹華開。猊座既登。願師說法。

師云。一葉金風墜。千巖素月圓。

僧曰。非但人天有賴。湖山泉石光輝。

師云。火雲風捲去。秋色雨飄來。
僧曰。蛟龍不是泥中物。須向人間作雨雷。
師云。謝爾證明。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五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對機門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九世

鄧州大陽山警延明安禪師法嗣

舒州投子山義青禪師

姓王氏。青州人也。師始誕生。父喪母病。無以育養。遂遺之道左叢莽間。有異人過。聞其聲。乃驚歎曰。此兒他日當得道果。遂收養之。八歲。依本州妙相寺文秀上人出家。比試圓具。首聽百法諸論。次習大經。不俟終軸。洞曉其旨。緇素命講。法侶雲臻。

後聞南宗。棄席參問。抵浮山圓鑑禪師法席。鑑知其法器。即許入室。示外道問佛因緣。一日。巖間坐次。因舉前話。忽聞板聲。豁然開悟。歸求印證。鑑印可之。乃曰。吾昔受明安禪師真像并直裰皮履。令求法器。以繼其宗。觀汝所解。無墜前芳。乃示識偈。題其首曰。代吾續大陽宗風。

偈云。

羊廣山頭草。憑若待價純。異苗翻茂處。深密固靈根。

以海會虛席。堅命主之。出揚大事。次遷投子。復應慈濟禪師塔紅再來之記。

開堂日。問。和尚適來拈香祝 聖。且道當今年多少。

師云。月籠丹桂遠。星拱北辰高。

僧曰。南山直聳齊天壽。東海洪波比福源。

師云。雙鳳朝金闕。丹松古韻高。

僧曰。 聖壽已蒙師指示。治化乾坤事若何。

師云。不如緘口退。却是報 皇家。

問。多子塔前。預聞記莝。白雲峰下。願聽雷音。

師曰。紫鳳階前舞。金鷄對日啼。

僧曰。若然者。五山高鎮地。百谷遠朝宗。

師云。雲外千峰翠。溪聲一樣寒。

僧曰。一片白雲舒世界。普天無處不垂陰。

師云。龍吟碧澗。霧起霜華。

問。昨離舒郡太平。今到白雲海會。如何是不動尊。

師云。白雲來往青山外。嶺上寒松帶月高。

僧曰。恁麼則不離此處。徧至他方。

師云。休問山前路。孤猿啼處深。

師乃云。若論此事。豈在高陞法座。下列明賢。問答主賓。以為出世。況千賢塞口。萬聖絕言。古今佛祖分雪無門。三藏五乘指諭不及。然雖如是。不可一向弓折箭盡去也。所以道。千峯鎖色。萬木凝條。古巖月照風生。幽洞雲開四面。龍吟枯木。鳳轉青霄。石牛吼斷長空。木馬嘶開金戶。靈苗競發。瑞草爭春。日月同明。千江共澍。直得如斯。猶是出世邊事。落在今時。諸仁者。如何得不落今時去。良久。云。萬年石逕千雲鎖。一帶青煙半夜封。

上堂云。魚遁深淵。必招釣客。玉埋荆谷。何逆求人。所以荆足楚城。烟波渭水。蓋不守平常。致其如是。白雲滿谷。綠水浮烟。瑞鳥驚晨。山光眩目。觸事無私。有何不可。然雖如是。更須無手能遮日。釣魚不犯竿。

上堂。見大眾集定。以拄杖卓一下。良久。云。一陽生也。所以道。古佛路外。千聖不遊。今祖流芳。傳衣表信。自曹溪之後。列派分枝承師。各就於一宗轉換。共揚於斯事。此日一陽屆候。萬物含靈。巖風吹綻於雞巖。玉兔挨開於碧落。龍生鳳子。虎抱麒麟。靈苗帶雪生暉。瑞草和雲徧地。然雖如是。且道妙在體前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氣纔生天地後。萬靈何處謝無私。

上堂云。天垂彩露。地涌祥雲。千江澄萬頃煙波。四塞賀堯風舜化。山連碧漢。木起清風。瓊林花綻於瑤池。御柳鶯啼於玉苑。星分紫閣。辰拱天輪。千邦賀誕聖之辰。萬國祝南山之壽。直得山川擁秀。海嶽呈輝。金雞報天外之聲。玉辰受千春之貴。諸仁者。正當恁麼時。且道君臣道合一句作麼生道。良久。云。道泰君臣清宇宙。時豐齊賀堯舜年。

上堂云。紅爐燄裡。共守寒冰。水石聲中。寂寥宴坐。霜凝月色。松鎖青烟。鴈回半夜過長空。星轉天輪正一色。諸仁者。作麼生是一色邊事。良久。云。半夜雲橫嶺。天明霜滿溪。

上堂云。宗乘若舉。凡聖絕蹤。樓閣門開。別戶相見。設使捲簾悟道。豈免傍觀。春遇桃花。重增眼病。所以古人道。向上一路。千聖不傳。諸仁者。既是不傳。因甚陝府鐵牛走過新羅國裏。乃喝一喝。云。達者須知暗裡驚。

上堂。以拄杖卓一下。良久云。大眾還委悉麼。春殘景暮。氣序漸暄。高低花綻於千峰。遠近煙蒙於四野。鶯啼谷響。鶴舞鸞翔。耕人賀堯舜之豐。漁父樂昇平之道。月生雲際。日照長空。金雞嚙鳳子歸巢。玉兔渡星河起浪。靈苗競發。枯木迎春。白雲綻一帶青山。流水貫千江合派。直得如是。猶是遮邊事。落在今時。諸仁

者。作麼生是那邊事。良久。云。萬年松徑雪深處。一帶峯巒雲更遮。元豐五年五月初一日夜。索袈裟自覆。援筆留偈云。
兩處住持。無可助道。
珍重諸人。不須尋討。
闍維。獲舍利。鳥獸悲鳴。靈應非一。

西川雲頂山鵬禪師

問。教意與祖意。是同是別。
師云。達磨逢梁武。摩騰遇漢明。
問。如何是疑底人。
師云。畢鉢羅巖中面面相覷。
僧曰。如何是不疑底人。
師云。如是我聞。須彌粉碎。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世

舒州投子山義青禪師法嗣

郢州大陽山楷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金鳳夜棲無影樹。峯巖纔露海雲遮。
問。寂柱峯頭一朵秀。優鉢羅花火裡開時如何。
師云。言無展事意。人迷語路中。
僧曰。莫便是為人處也無。
師云。文彩未彰全體現。太陽輝後却迷人。
僧曰。喏。喏。
師云。且禮拜著。
問。胡家曲子。不墮五音。韵出青霄。請師吹唱。
師云。木雞啼夜半。鐵鳳叫天明。
僧曰。恁麼則一句曲含千古韻。滿堂雲水盡知音。
師云。無舌童子能斷和。
僧曰。作家宗師。人天眼目。
師云。禁取兩片皮。
問。夜半正明。天曉不露。如何是不露底事。
師云。滿船空載月。漁父宿蘆花。
問。如何是曹洞家風。

師云。繩牀風雨爛。方丈草萊侵。
問。如何是直截根源。
師云。足下已生草。舉步落危坡。
問。如何是無縫塔。
師云。白雲籠嶽頂。終不露崔嵬。
問。如何是默時說。
師云。幻人看月色。
僧曰。如何是說時默。
師云。鐵狗吠石牛。
僧曰。不默不說時如何。
師云。相逢不相識。君東我向西。
問。如何是透法身句。
師云。龍門無宿客。龜鶴自成仙。
問。一色難分明。如何。
師云。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
問。如何是大紅爛底人。
師云。通身近不得。
問。如何是兼帶之語。
師云。妙用全施該世界。木人閑步火中來。
問。如何是正位。
師云。言前不布彩。一句是非前。
僧曰。如何是偏位。
師云。萬仞峯前卓五彩。
僧曰。如何是正中偏。
師云。夜半不須開戶牖。暗中誰辨往來源。
僧曰。如何是偏中正。
師云。天曉便藏無影木。依稀兆象霧雲遮。
僧曰。如何是兼中到。
師云。他家自有通心在。曲新終不落今時。
問。如何是大闡提底人。
師云。佛祖盡攢眉。
問。如何是無底鉢。師云。漏盡無遺香積飯。塵塵剎剎盡無餘。
問。如何是退步就己。
師云。從來不出戶。折屋覓應難。
問。如何是無影樹。
師云。天然無相子。不挂出塵衣。
問。黑白未分時如何。
師云。夜半不須敲玉戶。

問。如何是道。

師云。勿角泥牛犇夜欄。

問。如何是古鏡。

師云。醜婦從來耻見明。

上堂云。晝入祇陀之苑。皓月當天。夜登靈鷲之山。太陽溢目。烏鷄似雪。孤鴈成群。鐵狗吠而凌霄。牛泥牛鬪而入海。正當恁麼時。十方共聚。彼我何分。古佛場中。祖師門下。大家出一隻手。接待往來知識。諸仁者。且道成得箇什麼事。良久。云。剩栽無影木。留與後人看。

上堂云。諸禪德。直饒爾肚裡踏破脚。亦且向遮裏休去好。古殿風清。回廊人靜。青青庭柏。善說真如。隱隱石魚。能談法要。燈籠側耳。露柱點頭。若也於斯薦得。慶快平生。若也未明。山僧不免說破。還會麼。口似鼻孔。

上堂云。月白風清。水遙山遠。樓臺聳翠。殿閣生涼。大地山河。森羅萬象。盡與諸人說了也。切莫自生退屈。更去問佛問祖。說道說禪。却恐埋沒諸人去。還相委悉麼。良久。云。已落第二月也。

上堂云。臘月三十日已前即不問。臘月三十日事作麼生。諸仁者。到遮裡。佛也為爾不得。法也為爾不得。祖師也為爾不得。天下老和尚也為爾不得。山僧也為爾不得。閻羅老子也為爾不得。直須盡却今時去。若也盡却今時。佛也不奈他何。法也不奈他何。祖師也不奈他何。天下老和尚也不奈他何。山僧也不奈他何。閻羅老師也不奈他何。諸人且道如何是盡却今時底道理。還會麼。明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西京少林恩禪師

問。九鼎澄波即不問。為祥為瑞事如何。

師云。古今不墜。

僧曰。遮箇且拈放一邊。向上還有事也無。

師云。太無厭生。

僧曰。作家宗師。

師云。也不消得。

問。達磨九年不敢正眼觀瞻。未審和尚出世如何舉唱。

師云。遮邊是僧。那邊是俗。

問。天不寒不暖。日不長不短。和尚出世。當為何事。

師云。知時別宣。

僧曰。若不上來伸此問。焉能得見法王機。

師云。龍頭虵尾。

僧曰。恁麼則木人夜半穿鞵去。石女天明戴帽歸。
師云。真師子兒。
問。久飄客路。罕遇知音。今日上來。請師一接。
師云。有眼無耳朵。六月火邊坐。
僧曰。頂門不具金剛眼。幾逐流鶯過短墻。
師云。白雲千里萬里。
問。一箭一群即不問。一箭一箇事如何。
師云。中也。
僧曰。還端的也無。
師云。同聲相應。同氣相求。
僧曰。恁麼則石鞏猶在。
師云。非但一箇兩箇。
僧曰。好事不如無。
師云。穿却了也。
問。三玄三要即不問。五位君臣事若何。
師云。非公境界。
僧曰。恁麼則石人拊掌。木女呵呵。
師云。杓卜聽虛聲。熟睡饒嚼語。
僧曰。若不上來伸此問。焉能得見少林機。
師云。放過即不可。隨後便打。
問。祖師西來。九年面壁。最初一句。請師舉唱。
師云。面黑眼睛白。
僧曰。三十年後專為流通。
師云。山僧未有語在。
上堂。良久。云。若向遮裏說即心即佛。大似頭上安頭。若說非心非佛。何異迷頭認影。賞箇名。安箇是。立箇非。向甚麼處見達磨祖師。然雖如此。放一線道。別有商量。諸仁者。是復誰是。非復誰非。是非杳絕。分明萬機。還會麼。前是官不容針。後是私通車馬。於斯明得。晝見日。夜見星。於斯不明。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蠹君福。
上堂云。如斯話會。誰是知音。直饒向一句下千眼頓開。端的有幾箇是迷逢達磨。諸人要識達磨祖師麼。乃舉手作捏勢云。達磨祖師鼻孔在少林手裏。若放開去也。從教此土西天說黃道黑。欺胡謾漢。若不放過。不消一捏。有人要與祖師作主。便請出來與少林相見。還有麼。良久云。果然。果然。
上堂。拈起拄杖云。昔日德山。臨濟信手拈來。便能坐斷十方。壁立千仞。直得冰河迸起。枯木花芳。諸人若也善能橫擔豎夯。徧問諸方。苟或不然。少林倒此令去也。擊禪床一下。

上堂。橫按拄杖云。便與麼休去。已落二三。更若忉忉。終成異見。既到遮裏。又不可弓折箭盡去也。且衲僧家遠則能照。近則能明。乃拈起拄杖云。穿却德山鼻孔。換了臨濟眼睛。掀翻大海。撥轉虛空。且道三千里外誰是知音。於是明得。大似杲日照天。苟或未明。不免雲騰致雨。卓一下。

上堂。良久。云。直下明得。更不用如何若何。便請休去歇去。其或未然。三十年後忽然於糞掃堆上斬新拾得舊時物。方知少林今日已為諸人打破畫瓶。還信得及麼。人人鼻孔頭。豈是無消息。

上堂云。十方共聚。同此安居。既在少林。還委少林家風也未。若委悉得去。石城山下。今古同風。若未相委。但見雲生碧嶂。焉知月落寒潭。君不見古人道。行路難。行路難。時上眉毛若自看。

滁州龍蟠山壽聖寺廣禪師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陽廣山頭雲靄靄。月華菴畔栢青青。

僧曰。恁麼則投子嫡子。大陽兒孫也。

師云。未跨鐵牛。棒如雨點。

僧曰。今日已知端的。

師云。一任敲甄打瓦。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一世

鄂州大陽山楷禪師法嗣

西京龍門乾元寺南禪師

問。蓮華未出水時如何。

師云。覷不見。

僧曰。出水後如何。

師云。清香徧界。

僧曰。真善知識。

師云。何必如此。

雲居山道齊禪師法嗣

蘇州翠峰山洪禪師

問。如何是翠峰境。
師云。祇聞鶯鳥語。不見報春來。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堪嗟立雪僧。

明州金鵝山盧白禪師

問。如何是直截一路。
師云。鳥道羊腸。
問。如何是一體師子。
師云。駝驢猪狗。
僧曰。恁麼則四生六道去也。
師云。啞。

洪州上藍普禪師

相國夏公靖問。百骸俱潰散。那箇是長老主人公。
師云。前月二十日離蘄陽口。

杭州承天義海禪師

問。法同法性。入諸法故。此理如何。
師云。汝還見香爐麼。
僧曰。還有不入者無。
師云。賺殺人。
問。如何是正法眼。
師云。覷破一切。

廬山萬杉院太超廣知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山家祇如此。
問。如何是西來的的意。
師云。大眾總聞。
問。寂默為宗時如何。
師云。謾語。
問。如何是徑截一路。
師云。迂迴多少。

問。如何是最先一句。
師云。此問在後。
問。世尊拈華。意旨如何。
師云。爾還薦得麼。
僧曰。學人不會。
師云。多少分明。
問。世尊三昧。迦葉不知。如何是世尊三昧。
師云。何處得遮消息。
問。瑞雲滿庭。從何而降。
師云。莫泄真機。
問。如何是無價寶。
師云。甚處得來。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盡言隻履歸西去。
問。古人捲席。意旨如何。
師云。何不禮拜歸堂。
問。如何是文殊門。
師云。千聖皆從此入。
僧曰。入後如何。
師云。想爾不識。僧禮拜。
師云。酌然。
師乃云。世尊良久。迦葉起來白槌。馬師纔陞座。百丈便出來捲席。可謂摩竭陀令已行。不可更教山僧重下注脚。然雖如此。久參高士莫訝周遮。後學上座也須著些精彩。更若繁詞恐不及。珍重。

南康軍羅漢行林祖印禪師法嗣

福州古田靈峰道誠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那箇古人恁麼道。
僧曰。祇如道吾有正法眼藏付囑迦葉。又作麼生。
師云。不妨具眼。
僧曰。千聖不傳方是的。一言合道未為真。
師云。早是不合也。

真州長蘆贊禪師

問。拈槌舉拂即不問。如何是喝散白雲底意氣。

師云。喫棒。

僧曰。爭奈人天大眾何。

師云。罪不重科。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老僧奉 聖旨開堂。

僧曰。恁麼則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

師云。知恩方解報恩。

問。一棒打破虛空時如何。

師云。費力。

僧曰。恁麼則百雜碎。

師云。莫費力。

問。終日驅驅。如何得入。

師云。祇為終日驅驅。

師乃云。起動大眾。若於佛法中。也無可得伸剖。諸人盡是久參先德。達佛知見。不可更教遮裏談禪說道。實為舉足動步。不離道場。乃至林間宴坐經行。無非佛事。良久云。參。

袁州崇勝道珍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更向什麼處覓。

僧曰。莫祇遮是。

師云。勿交涉。

綿州富樂山智靜禪師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六耳不同謀。

僧曰。意旨如何。

師云。逢人但恁麼舉。

越州天衣山昭愛禪師

問。如何是佛。

師云。牛兒不識虎。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臂長衫袖短。

僧曰。忽遇客來。如何。
師云。離中虛。坎中滿。

袁州仰山太平興國寺擇和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君子不發游言。
問。如來藏中以何為佛事。
師云。香風吹菱花。
僧曰。皆因今日也。
師云。更雨新好者。
問。如何是佛。
師云。真書梵字。
師示眾云。法本不生。今則無滅。無滅無生。眼中金屑。古佛家風。青天明月。

廬州棲賢澄湜禪師法嗣

湖州西余山寧化體榮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神光曾斷臂。
僧曰。來審還當得也無。
師云。粉骨碎身未足酬。
上堂云。一人把火。自燼其身。一人把冰。橫死於路。進前。觸途成滯。退後。噎填胸。不進不退。直得上天無路。入地無門。而今不奈何也。良久。云。待得雪消去。自然春到來。

南嶽福嚴省賢惠照禪師

問。如何是福嚴境。
師云。畫也畫不及。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且子細。
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
師云。不因汝問。我也不說。
僧曰。恁麼則寶覺分枝去也。
師云。莫亂道。

袁州仰山智齊禪師

師參蔄禪師。蔄問。汝是甚處人。
對曰。安州人。
蔄曰。汝為什麼却不安。
對曰。今日轉見病源。
蔄曰。且莫強惺惺。
師遂禮拜。有頌云。
有口不能言。無舌能解語。
惺惺猶是夢。何處有佛祖。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二世

杭州靈隱文勝禪師法嗣

杭州靈隱山蘊聰惠照禪師

問。如何是和尚家風。
師云。索喚即有。
僧曰。未審有箇什麼。
師云。天台柳[木*栗]。
問。古路重修時如何。
師云。平高就下。

杭州南院清禪師

問。西祖傳來。請師通信。
師云。汝道傳什麼來。
僧曰。恁麼則不通信去也。
師云。不妨劊利。

江寧府保寧宗禪師

問。如何是佛。
師云。更問什麼。
僧曰。莫祇遮便是也無。
師云。且莫虛頭。

江寧府清涼舉內慈化禪師

問。一法本無。萬法何有。未審和尚說箇什麼。
師云。汝說得分明。
僧曰。恁麼則一切不存去也。
師云。也不信汝。

越州新昌石佛有邦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布髮掩泥人盡委。
僧曰。恁麼則靈隱一枝。南明獨秀也。
師云。杓卜聽虓聲。

杭州龍華悟乘禪師法嗣

溫州鴈蕩山靈巖惠瑞宣密禪師

問。優鉢華拆人皆委。祖令親行事若何。
師云。識法者懼。
僧曰。施行有據去也。
師云。人小膽大。

明州瑞巖山義海禪師法嗣

明州大梅文慧禪師

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
師云。少人定當得。
僧曰。報本嫡子也。
師云。適來向汝道什麼。
問。如何是大梅境。
師云。看。
僧曰。如何是境中人。
師云。喫茶去。

明州翠巖嗣元禪師

問。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見錢賣買不曾賒。
僧曰。向上更有事也無。
師云。好不信人直。

明州大梅保福居照禪師法嗣

婺州智者嗣如禪師

問。如何是佛。
師云。量才補職。
僧曰。補職後如何。
師云。天台杖子。
問。如何是真實之體。
師云。今日好寒。
僧曰。意旨如何。
師云。千山萬山雪。

洪州章口昭達禪師法嗣

蘇州萬壽守堅法印禪師

問。如何是道。
師云。誰不履踐。
僧曰。如何是道中人。
師云。來千去萬。

廬陵清原山行思禪師第十三世

婺州智者山嗣如禪師法嗣

婺州浦江華藏虛外禪師

問。知師久蘊囊中寶。今日臨筵欲借看。
師云。剔起眉毛。
僧曰。見後如何。
師云。多少分明。

辭世云。少年石女握金環。獨角犀牛入華山。波旬撫掌呵呵笑。碧眼胡兒渡鐵關。言畢。趺坐而逝。

婺州淨土可嵩禪師

辭世頌云。
靈木無根。北斗有柄。
大海波瀾。是余壽命。
八尺丈六。誰凡誰聖。
若問去處。春行秋令。
珍重諸賢。形端表正。
言畢。趺坐而逝。

婺州承天澄月禪師

問。如何是道。
師云。殘陽戀幽草。
問。如何是佛法大意。
師云。今年柴米貴。辭世頌云。
去也何之。住兮何所。
去住何從。超然絕侶。
臨歧一句向誰舉。銀漢夜白孤蟾吐。

廬陵青原山行思禪師第十四世

婺州承天澄月禪師法嗣

婺州承天仲顏禪師

問。梵王請佛。蓋為群生。今日史君請師。當為何事。
師云。大眾知恩。
僧曰。恁麼則人天交接去也。
師云。不妨具眼。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六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拈古門

明州雪寶山重顯明覺禪師二十則

舉。德山示眾云。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有僧出禮拜。山便打。僧曰。某甲話也未問。山云。爾是甚處人。僧曰。新羅人。山云。未踏船舷。好與三十棒。法眼拈云。大小德山話作兩橛。圓明道。大小德山龍頭蛇尾。

師云。二老宿雖善裁長補短。捨重從輕。要見德山亦未可。何故。德山大似握闔外威權。有當斷不斷。不招其亂底劍。諸人要識新羅僧麼。祇是撞著露柱底瞎漢。

舉。百丈再參馬祖。侍立次。祖以目視禪牀角頭拂子。丈云。即此用。離此用。祖云。爾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丈取拂子舉起。祖云。即此用。離此用。丈掛拂子於舊處。祖便喝。百丈直得三日耳聾。

師云。奇怪諸禪德。如今列其派者甚多。究其源者極少。總道百丈於喝下大悟。還端的也無。然刁刀相似。魚魯參差。若是明眼漢。瞞他一點不得。祇如馬祖道。爾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百丈舉起拂子。為復如蟲禦木。為復啐啄同時。諸人要會三日耳聾麼。大冶精金。應無變色。

舉。香巖坐語云。如人上樹。口嚙樹枝。手不攀枝。脚不踏樹。樹下有人問西來意。不對。則違他所問。若對又喪身失命。當恁麼時。作麼生即是。有虎頭上座云。上樹即不問。未上樹請和尚道。巖呵呵大笑。

師云。樹上道即易。樹下道即難。老僧上樹也。致將一問來。

舉。僧問雪峰。古澗寒泉時如何。峯云。瞪目不見底。僧曰。飲者如何。峯云。不從口入。僧舉問趙州。州云。不可從鼻孔裏入。僧却問趙州。古澗寒泉時如何。州云。苦。僧曰。飲者如何。州云。死。雪峰聞舉。云。趙州古佛從此不答話。

師云。眾中總道。雪峯不出遮僧話。所以趙州不肯。如斯話會。深屈古人。雪竇即不然。斬釘截鐵。本分宗師。就下平高。難為作者。

舉。欽山一日上堂。舉起拳。又開云。開即為掌。五指參差。復握云。如今為拳。必無高下。還有商量也無。一僧出眾。舉起拳。

山云。爾祇是箇無開合漢。
師云。雪竇即不然。乃舉拳云。握則為拳。有高有下。復開云。開則成掌。無黨無偏。且道放開為人好。把定為人好。開也造車。握也合轍。若謂閉門造車。出門合轍。我也知爾向鬼窟裡作活計。

舉。洞山到雲門。門問。近離甚處。山云。查渡。門云。夏在甚處。山云。湖南報慈。門云。甚時離彼。山云。去年八月。門云。放汝三頓棒。山至來日。却上問訊。昨日蒙和尚放三頓棒。不知過在什麼處。門云。飯袋子。江西。湖南便溜麼去。山於此大悟。

師云。雲門氣宇如王。拶著便冰消瓦解。當時若據令行。子孫也未到斷絕。

舉。國師三喚侍者。點即不到。侍者三應。到即不點。將謂吾孤負汝。誰知汝孤負吾。瞞雪竇不得。

雲門道。作麼生是國師孤負侍者處。會得也是無端。

師云。元來不會。

作麼生是侍者孤負國師。粉骨碎身未報得。

師云。無端。無端。

舉。師祖問南泉。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如何是如來藏。云。王老師與爾往來者是藏。

師云。草裡漢。

祖云。不往不來者。云。亦是藏。

師云。雪上加霜。

祖云。如何是珠。

師云。嶮。百尺竿頭作伎倆。不是好手。遮裏著得箇眼。賓主互換。便能深入虎穴。或不溜麼。縱饒師祖悟去。也是龍頭蛇尾漢。

舉。馬大師令智藏馳書上徑山。山接書開。見一圓相。於中下一點。國師聞舉。云。欽師猶被馬師惑。

師云。徑山被惑且致。若將呈似國師。別作箇什麼伎倆。免致惑去。有老宿云。當時坐却便休。亦有道。但與畫破。若與麼。祇是不識差。敢謂天下老師各具金剛眼睛。廣作神通變化。還免得麼。雪竇見處也要諸人共知。祇遮馬師當時畫出。早自惑了也。

舉。南泉山下有一庵主。行僧經過。謂庵主云。近日南泉和尚出世。何不去禮拜。主云。非但南泉。直饒千佛出興亦不能去。泉聞。令趙州去看。州見便禮拜。主亦不管。州從西過東。主亦不管。州又從東過西。主亦不管。州云。草賊大敗。拽下簾子便行。歸。舉似南泉。泉云。從來疑著遮漢。

師云。大小南泉。趙州被箇擔板漢勘破了也。

舉。僧問智門和尚。如何是般若體。云。蚌含明月。僧云。如何是般若用。云。兔子懷胎。

師云。非唯把定世界。亦乃安貼邦家。若善能參詳。便請丹霄獨步。

舉。僧禮拜雪峯。峯打五棒。僧云。某甲有甚麼過。峯又打五棒。師云。雪竇不曾與人葛藤。前五棒日照天臨。後五棒雲騰致雨。爾若辨得。也好與五棒。

舉。僧問巴陵。祖意教意。同。別。陵云。雞寒上樹。鴨寒下水。僧問睦州。祖意教意。同。別。州云。青山自青山。白雲自白雲。

師云。問既一般。答亦相似。其中有利他自利。瞞人自瞞。若點檢分明。管取解空第一。

舉。睦州示眾云。我見百丈不識好惡。大眾方集。以拄杖一時打下。復召大眾。大眾回首。丈云。是什麼。有甚麼共語處。黃蘗和尚。大眾方集。以拄杖一時打下。復召大眾。眾回首。蘗云。月似彎弓。少雨多風。猶較些子。

師云。說什麼猶較。直是未在。若據雪竇。眾集。一時打下便休。或有箇無孔鐵鎚為眾竭力。善能擔荷。可以籠罩古今。乾坤把斷。驀拈起拄杖云。放過一著。

舉。南泉示眾云。王老師賣身去也。還有人買麼。一僧出眾云。某甲買。泉云。不作貴。不作賤。作麼生買。僧無語。臥龍代云。和尚屬專甲。禾山代云。是何道理。趙州云。明年與和尚作領布衫。

師云。雖然作家競買。要且未解輸機。且道南泉還肯麼。雪竇也擬酬箇價。直令南泉進也無門。退也無地。不作貴。不作賤。作麼生買。別處容和尚不得。

舉。夾山與定山同行言話次。定山云。生死中無佛。則無生死。夾山云。生死中有佛。則不迷生死。互相不肯。同上大梅。相見了。具說前事。夾山問。未審那箇是親。那箇是疎。梅云。一親一疎。山又問。那箇親。梅云。且去。明日來。夾山至來日又問。未審那箇親。梅云。親者不問。問者不親。夾山後住云。我當時在大梅失却一隻眼。

師云。夾山不知換得一隻眼。大梅老漢當時聞舉。若以棒一時打出。豈止畫斷兩人葛藤。亦乃為天下宗匠。

舉。為山問仰山。甚處來。云。田中來。為山云。田中多少人。山插下鋤子叉手而立。為云。南山大有人刈茆。山拈得鋤子便行。玄沙云。我當時若見。與踏倒鋤子。鏡清云。不柰船何。打破辱

斗。僧問明招。古人意在鍬子處。叉手處。招喚某專甲。僧應喏。招云。還曾夢見仰山麼。師云。諸方老宿咸謂插鍬話奇特。也大似隨邪逐惡。若據雪竇見處。仰山被滄山一問。直得草繩自縛。去死十分。舉。雪峯示眾云。望州亭與汝相見了也。烏石嶺與汝相見了也。僧堂前與汝相見了也。保福問鵝湖。僧堂前且致。望州亭。烏石嶺什麼處相見。鵝湖驟步歸方丈。保福便入僧堂。師云。二老宿是即是。祇知雪峯放行。不見雪峯把住。忽有箇衲出問。未審雪竇作麼生。豈不是別機宜。識休咎底漢。還有望州亭。烏石嶺相見底衲僧麼。良久。云。擔板禪和。如麻似粟。舉。德山一日飯遲。自掌鉢至法堂上。雪峯見云。遮老漢。鐘未鳴。鼓未響。托鉢向什麼處去。德山便迴。峰舉似巖頭。頭云。大小德山不會末後句。山聞舉。令侍者喚巖頭至方丈。問。汝不肯老僧那。巖頭密啟其意。山至來日上堂。與尋常不同。巖頭到僧堂前。撫手大笑云。且喜得老漢會末後句。他後天下人不奈何。雖然如此。祇得三年。明招代德山云。咄。咄。勿處去。勿處去。師云。曾聞說箇獨眼龍。元來祇具一隻眼。殊不知德山是箇無齒大蟲。若不是巖頭識破。爭得今日與昨日不同。諸人要會末後句麼。祇許老胡知。不許老胡會。舉。古云。眼裏著沙不得。耳裏著水不得。忽若有箇漢信得及。把得住。不受人瞞。祖佛言教是什麼熱椀鳴聲。便請高掛鉢囊。拗折拄杖。管取一員無事道人。又云。眼裡著得須彌山。耳裡著得大海水。一般漢受人商量。祖佛言教如龍得水。似虎靠山。却須挑起鉢囊。橫擔拄杖。亦是一員無事道人。復云。溜麼也不得。不溜麼也不得。然後勿交涉。三員無事道人中。要選一人為師。

洪州黃龍山南禪師二則

舉。臨濟問寺主。什麼處去來。主云。州中糴黃米去來。臨濟以拄杖面前畫一畫云。還糴得遮箇麼。主便喝。濟便打。典座至。濟乃舉前話。典座云。寺主不會和尚意。濟云。爾又作麼生。典座便禮拜。濟亦打。師云。喝亦打。禮拜亦打。還有親疎也無。若無親疎。臨濟不可盲枷瞎棒去也。若是歸宗即不然。寺主下喝。不可放過。典座禮拜。放過不可。又云。臨濟行令。歸宗放過。三十年後有人說破。

舉。僧問大覺和尚。忽來忽去時如何。覺云。風吹柳絮毛毬走。進云。不來不去時如何。覺云。華嶽三峯頭指天。
師云。大覺祇解箭鋒相拄。理事相投。殊不知趁得老鼠。打破油甕。

東京淨因懷璉大覺禪師三則

舉。雲門大師有時聞白槌聲。乃云。妙喜世界百雜碎。汝等諸人擎鉢向湖南城裏喫飯去。
師云。大小雲門也似事顛倒。山僧遮裏。祇是維那白槌。首座施食。山僧展鉢。行者行益。與麼說話。一任諸方裁斷。
舉。睦州有時云。忽然。忽然。山僧道。不然。不然。何也。夜烏啼曉月。玉女打鞦韆。
舉。肇法師云。會萬法為己者。其唯聖人乎。石頭和尚因看到此。乃以手拊几一下。云。聖人無己。靡所不己。
師云。大小石頭祇向泥裏洗土塊。山僧即不然。良久。云。常愛川原幽隱處。滿園花木撼春風。

滁州瑯琊惠覺廣照禪師四則

舉。臨濟示眾云。但有問訊。不虧欠伊。總識伊來處。與麼來者。恰似失却。不與麼來。無繩自縛。一切時中。莫亂斟酌。會與不會。都來是錯。分明與麼道。一任天下人貶剝。
師拈云。作麼貶。作麼剝。良久云。垂鈎四海。為釣驪龍。格外玄談。蓋尋知己。喝一喝。
舉。百丈見趙州來參。百丈云。甚麼處來。州云。南泉來。丈云。南泉近日有何言句示徒。州云。今時人直教悄然去。百丈云。悄然且致。茫然一句作麼生道。州近前三步。百丈咄之。州作縮頭勢。百丈云。大好悄然。趙州拂袖便出去。
師拈云。趙州老人向師子窟裏換得牙爪。
舉。臨濟上堂。有僧出禮拜。濟便喝。僧云。老和尚莫探頭好。濟云。爾道落在什麼處。僧便喝。又僧問。如何是佛法大意。濟便喝。僧禮拜。濟云。爾道好喝也無。僧云。草賊大敗。濟云。過在什麼處。僧云。再犯不容。臨濟乃云。要會臨濟賓主句。請問取適來問話二禪客。
師拈云。真金須入火。
舉。水潦參馬祖。師問。如何是祖師西來意。被馬大師一踏踏倒。起來拍手呵呵大笑。當下大悟。便承嗣馬大師。住後有僧問。如

何是祖師西來意。水潦云。自從馬師一踏後。直至如今笑不休。師拈云。大眾。爾道水潦還曾悟也未。

雲居山曉舜禪師三則

舉。石霜遷化。眾請首座住院。虔侍者曰。夫續先師住持。須會先師意。祇如先師道。休去。歇去。寒灰枯木去。直似一條白練去。未審首座作麼生會。首座云。先師意。明一色邊事。虔侍者云。與麼會。又何會夢見先師意。首座乃焚香云。某甲若會先師意。香煙盡處脫去。若不會先師意。香煙盡處脫去不得。良久。香煙盡。首座脫去。虔侍者曰。坐脫立化即不無首座。要且未夢見先師意。

師云。爾等諸人且作麼生會。諸人會處。便道首座與麼說。是說道理。所以虔侍者不肯伊。大愚道。虔侍者盡平生見解。祇具一隻眼。

舉。趙州問南泉云。明頭合。暗頭合。南泉便歸方丈。趙州云。遮老子。尋常口吧吧地。被我問著。杜口無詞。首座云。莫道和尚無語。自是上座不會。趙州便掌首座。云。遮一掌合是堂頭老子喫。首座便休。

師云。爾諸人作麼生會。諸人會處。便道首座落佗趙州圈櫝。與麼會又爭得。大愚道。趙州大似傍若無人。

舉。鄧隱峯去訪丹霞。山下逢見丹霞。乃問。丹霞山在什麼處。霞云。青黯黯處。峯近前便扭住云。莫祇遮箇便是。霞云。真師子兒。一撥便轉。峯便休。

師云。大愚道。丹霞祇知衫穿。不覺鞋綻。

婺州承天簡禪師五則

舉。法燈禪師問僧。禪客相逢祇彈指。此心能有幾人知。作麼生會。僧彈指一下。燈云。恁麼會又爭得。僧云。未審和尚尊意如何。燈彈指一下。

師拈云。將謂眾生苦。更有苦眾生。

舉。玄沙和尚到三斗菴主處。三斗乃云。住山年深。不怪無坐具。沙云。庵主來在那。後法燈別三斗語云。當時但觸禮。

師拈云。玄沙不解作客。勞煩主人。法燈大似將甄換玉。

舉。南泉和尚有書與茱萸和尚。書中云。理隨事變。寬廓非外。事從理變。寂寥非內。茱萸看了。呈起問大眾云。誰能與山僧作得迴書。乃有僧問。如何是寬廓非外。茱萸云。問一答百也無妨。

僧曰。如何是寂寥非內。茱萸云。覩對顏色不好手。僧又問長沙和尚。如何是寬廓非外。長沙閉目良久。僧曰。如何是寂寥非內。長沙開目視之。僧又問趙州和尚。如何是寬廓非外。州作喫飯勢。僧曰。如何是寂寥非內。州作拭口勢。僧便舉似南泉。泉云。此之三人。不謬為吾嫡子。

師拈云。此三人。一人得皮。一人得肉。一人秦不収。魏不管。舉。僧問大顛和尚。不昧本來人。請師高著眼。顛低頭。僧曰。大顛法道。今日親曉。未審靈山事若何。顛舉頭。僧曰。一等勿絃琴。唯師彈得妙。顛合掌。僧展兩手。顛云。賴遇老僧。僧禮拜。顛便皈方丈。僧云。弄巧成拙。

師拈云。遮僧雖能掉鬪。不解理兵。大顛大似生錢放債。舉。有一梵僧來參仰山。仰山於地上畫一半月相。僧添成圓月相。乃以脚抹却。山展兩手。僧云。此土有小釋迦出現。

師拈云。仰山大似啞子喫苦瓜。

洪州翠巖山可真禪師一則

舉。僧問巴陵。如何是道。陵云。明眼人落井。又問寶應。如何是道。應云。五鳳樓前。又問首山。如何是道。山云。脚下深三尺。

師云。此三轉語。一句壁立千仞。一句陸地行船。一句賓主交參。

東京智海慕喆真如禪師二則

舉。雲巖掃地次。道吾云。何得太區區生。巖云。須知有不區區者。吾云。恁麼則有第二月也。巖舉起掃帚云。遮箇是第幾月。吾便休。後玄沙云。我當時若見。向伊道。正是第二月。雲門云。奴見婢慙慙。

師云。將勤補拙。此三句語。一句可以定乾坤。一句可以驗衲僧。一句可以接初機。諸人還揀辨得麼。若揀辨得出。許儂親見惠光。若辨不出。莫道慧光山勢嶮。隔江遙望碧雲開。

舉。夾山在瀉山作典座。一日。瀉山問。今日喫甚麼菜。夾山云。二年共一春。瀉山云。如法修事著。山云。龍宿鳳巢。

師云。夾山雖逞家風。美即美矣。善即未善。慧光即不然。尋常茶飯。隨家豐儉。或有人問。今日喫甚麼菜。向道。不是茄子。便是菘菜。如法修事著。五味不少。且道夾山是。慧光是。

廬山東林廣惠常總照覺禪師一則

舉。汾州昭禪師。僧問。如何是接初機底句。州云。汝是行脚僧。如何是辨衲僧底句。州云。西方日出卯。如何是正令行底句。州云。千里特來呈舊面。如何是立乾坤底句。州云。北俱盧洲長粳米。食者無貪亦無嗔。汾州復云。老僧將此四轉語驗天下衲子。師云。驗則驗矣。爭柰有箇人不肯。寶峰今日對大眾前。敢別汾州四轉語。

如何是接初機底句。

師云。無底鉢盂光**烜**赫。

如何是辨衲僧底句。

師云。天台柳[木*栗]黑鱗皴。

如何是正令行底句。

師云。戴盆鑠腹三千里。

如何是立乾坤底句。

師云。人問天上一般春。師復云。汾州與麼驗天下衲子。寶峰與麼辨海上禪流。

南嶽雲峯文悅禪師五則

舉。玄沙一日見長生。乃作一圓相。生云。一切人出遮箇不得。沙云。情知爾向鬼窟裡作活計。生云。某甲祇如此。和尚又作麼生。沙云。一切人出遮箇不得。生云。某甲適來與麼道。為甚不得。和尚恁麼道。為甚却得。沙云。我道得。爾道不得。

師云。道得。道不得。總在玄沙圈裏。如今還有出得底麼。

舉。雪峯示眾云。盡乾坤大地撮來如粟米粒大。拋向面前。漆桶不會。打鼓普請看。

師云。雖然比上不足。翠巖更與爾葛藤。拈拄杖云。還見雪峯麼。

舉。雲門示眾云。佛法也大有。**祇**是舌短。

師云。雲門與麼道。也是秦州來。

舉。汾州示眾。識得拄杖子。行脚事畢。

師拈起拄杖云。遮箇豈不是拄杖子。阿那箇是爾行脚事。復云。

柳[木*栗]橫擔不顧人。直入千峯萬峰去。

舉。五洩初參石頭。纔到門。便云。一言相契即住。一言不契即去。石頭踞坐。洩拂袖便行。頭遂召闍梨。洩回首。頭云。從生至死。**祇**是遮箇。回頭轉腦作什麼。因而有省。

師云。石頭老人坐不定。把不住。似遮般擔板漢。從教去便休。又喚他回頭來。被他茶糊一上。道我向遮裏有箇悟處。驢年夢見。

潭州大漚懷秀禪師一則

舉。仰山夢往彌勒所。令居第二座。有尊者白槌云。今當第二座說法。仰山起。白槌云。摩訶衍法。離四句絕百非。諦聽。諦聽。師云。仰山依文解義即不無。忽然彌勒會中有箇作者。纔見伊道摩訶衍法。便云。合取兩片皮。非唯止絕仰山寐語。亦免後人夢中說夢。

越州天衣義懷禪師三則

舉。脩山主問僧。甚處來。僧云。翠巖來。主云。翠巖有甚麼言句示徒。僧云。和尚尋常道。出門逢彌勒。入門見釋迦。主云。恁麼道又爭得。僧便問。和尚又如何。主云。出門逢阿誰。入門見什麼。僧於言下有省。

師乃云。雖得一場榮。別却一雙足。且道在賓家分上。主家分上。若定當得出。憂則共感。樂則同歡。山僧則不然。出門則吳山楚水。入門則佛殿行廊。或有箇衲僧出問。師意如何。許伊具一隻眼。

舉。雲門頌云。上不見天。下不見地。塞却咽喉。何處出氣。笑我者多。哂我者少。

師云。雲門恁麼道。不覺弄巧成拙。山僧即不然。仰面看天。低頭覷地。口裏喫飯。鼻孔出氣。心不負人。面無慚色。

舉。趙州送僧。舉起拂子云。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三千里外逢人莫舉。僧云。恁麼則不去也。州云。摘楊花。摘楊花。師云。趙州非但走得遮僧脚底皮穿。亦乃啞却遮僧口。口若不啞。為什麼逢人便舉。

廬山開先善暹禪師二則

舉。明招云。今日風頭梢硬。歸暖處說話去來。大眾隨入方丈。招云。纔到暖處。便見瞌睡。乃以拄杖一時趕散。

師云。停囚長智。當時待伊道。今日風頭梢硬。歸暖處說話去來。但拊一掌。各自歸堂。教遮老漢一場懨懨。

舉。進山主問澄源云。山河大地。從何而有。源云。從想有。進云。學人擬想一鎚金。還得也無。源無語。師拈云。澄源老漢將謂想澄成國土。殊不知問者如蟲禦木。答者偶爾成文。山僧即不然。待他道。學人擬想一鎚金。得也無。但痛與三十棒。何故如此。賣金遇與買金。

湖州上方齊岳禪師二則

舉。疎山示眾云。山僧咸通已前。明得法身邊事。咸通已後。明得法身向上事。雲門在眾。出問云。如何是法身邊事。疎云。枯椿。如何是法身向上事。山云。非枯椿。門云。還許學人說道理也無。山云。許汝說。門云。枯椿豈不是明法身邊事。山云。是。門云。非枯椿豈不是明法身向上事。山云。是。門指淨瓶云。法身還該箇麼。山云。闍梨。莫向淨瓶邊會。門云。喏。喏。師云。疎山總是戰爭收拾得。却因歌舞破除休。雲門舌上有龍泉。舉。雲居膺和尚示眾云。孤迥峭巍巍。却問僧云。會麼。僧云。不會。居云。汝面前案山子也不會。師拈云。雲居大似按牛頭喫草。

江寧府蔣山法泉佛惠禪師三則

舉。本淨和尚云。道體本無修。不修自合道。棄却一真性。來入鬧浩浩。若逢修道人。第一莫向道。師云。山僧愛與古人厮拗。若逢修道人。第一切向道。且道向道箇什麼。陝府鐵牛渾是鐵。隴西鸚鵡解人言。舉。脩山主云。風動心搖樹。雲生性起塵。若明今日事。暗却本來人。師云。脩山主雖甚奇怪。祇解抱橋柱澡洗。山僧即不然。雲生洞裏陰。風動林間響。若明今日事。半斤是八兩。舉。香巖示眾云。我有一機。瞬目揚眉。有人不會。別喚沙彌。師云。香巖雖然慈悲廣大。豈知恩多怨深。山僧即不然。我有一機。電掣猶遲。有人不會。腦後金鎚。

雲居山了元佛印禪師一則

舉。南泉· 歸宗· 麻谷三人同去禮拜國師。至中路。泉於地上畫一圓相。云。道得即去。歸宗於圓相中坐。麻谷作女人拜。南泉云。恁麼則不去。歸宗云。是何心行。師拈云。歸宗· 麻谷。氣宇如王。落在南泉圈裏。當時見佗畫圓相。拂袖便行。直饒南泉更有神通。也較三千里。

杭州佛日智才禪師二則

舉。臨濟持鉢到一婆子門前云。家常。婆子開門云。太無厭生。濟云。飯猶未曾得。何責人無厭。婆子閉却門。師拈云。婆子雖然機智縱橫。也是自損。臨濟出。不當時過著此人。翻在闔外。若要臨濟口閉。直須將飯與伊。

舉。南泉垂語云。喚作如如。早是變也。今時人須向異類中行。趙州云。異則不問。如何是類。南泉兩手托地。趙州便與一踏。歸涅槃堂云。悔。悔。首座問云。悔箇什麼。州云。悔不更與兩踏。師拈云。父不慈。子不孝。作之在前。悔之在後。明眼衲僧難緘其口。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三則

舉。僧辭歸宗。宗問。甚處去。僧云。諸方學五味禪去。宗云。我遮裏有一味禪。爾何不學。僧云。如何是和尚此間一味禪。宗便打。良久。云。會麼。僧云。會也。宗云。爾試道看。僧擬祇對。宗又打。黃蘗聞舉。云。馬大師出八十四人善知識。問著更阿轆轤地。祇有歸宗老猶較些子。師拈云。黃蘗禪師也是愛忘其醜。忍俊不禁。歸宗老漢禪精一味。不覺傷鹽傷醋。遮箇師僧將赤肉抵他乾棒。蓋為有求皆苦。更有一箇。且聽諸方斷看。

舉。德山和尚不安。有僧問。還有不存病者也無。山云。有。僧云。如何是不病者。山云。阿耶。阿耶。師拈云。作家宗匠。語不浪施。如人解射。百發百中。山僧即不然。如何是不病者。傷寒鼻涕流。

舉。汾州和尚以拄杖示眾。識得拄杖子。行脚事畢。三角和尚云。識得拄杖子。入地獄如箭射。師拈云。二老宿。一出一入。半合半開。猶是干戈相待。山僧即不然。識得拄杖子。畫月冷光在。指雲秋片移。

杭州承天傳宗禪師二則

舉。僧問南泉。百尺竿頭。如何進步。泉云。更進一步。僧復問鹽官。官云。百尺竿頭。用進作什麼。僧不肯。拂袖便出。官便打。

師拈云。若參南泉。須進一步。若參鹽官。須退一步。明眼底辨取。

舉。仰山到東寺。問云。相看。寺云。已相見了也。不用上來。山云。與麼相見。莫錯麼。寺便入方丈閉却門。仰山後歸。舉似滄山。山云。是什麼心行。仰山云。若不與麼。爭識得伊。

師拈云。仰山識得東寺。強說道理。設使滄山親去。也未能與東寺相見。

東京慧林德遜佛陀禪師一則

舉。百丈和尚問僧。從什麼處來。僧云。山下來。丈云。還曾逢著人麼。僧云。不曾逢著。丈云。為甚不逢。僧云。逢著即舉似和尚。丈云。甚麼處得遮箇消息。

師拈云。山下不曾逢著則且致。山上還曾逢著麼。若逢著。即汾陽消息流布諸方。若不逢著。什麼處去來。

台州瑞巖子鴻禪師二則

舉。曹山問僧。佛真法身。猶若虛空。應物現形。如水中月。且作麼生說箇應。僧云。如驢覷井。山云。子祇道得八成。僧云。請師全道。山云。如井覷驢。

師云。遮僧始道一半。曹山方得八成。要得全道麼。如井覷井。

舉。陳操尚書問同參僧云。有一事與老兄商量。得麼。僧云。合取狗口。書自擲口一下。云。某甲罪過。僧云。知過必改。書云。恁麼。乞與老兄口喫飯。

師拈云。陳操却解髑髏前揮劍。腦蓋後放光。遮僧雖入虎穴不得虎子。

東京法雲法秀圓通禪師四則

舉。茱萸示眾云。汝等諸人莫向虛空裏釘橛。有靈虛上座出眾云。是虛空。是橛。茱萸便打。虛云。和尚莫打某甲。茱萸放下拄杖。便歸方丈。

師拈云。茱萸祇知瞻前。遮僧不能顧後。子細檢點將來。兩箇總好喫棒。且道過在甚麼處。具眼者辨取。

舉。藥山參石頭。問。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承聞禪宗直指人心。見性成佛。未曉此理。乞師指示。石頭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

師云。石頭好箇無孔鐵鎚。大似分付不著人。藥山雖然過江悟去。爭柰平地喫交。有甚扶策處。

舉。法眼云。識得凳子。周巾有餘。雲門云。識得凳子。天地懸殊。天衣云。識得凳子。椽楠木作。棲賢即不然。識得凳子。四脚著地。其間一出一沒。半合半開。有得有失。有親有疎。具眼禪人。一任檢點。

舉。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

師云。直饒大地普請成佛。亦未夢見山僧脚跟在。

法眼道。若見諸相非相。即不見如來。

師云。雖然如是。未免塚根。先師云。若見諸相非相。眼在什麼處。此語有兩負門。若檢點得出。許爾具擇法眼。

師召眾云。會麼。前面千尋古澗。後面萬仞高山。若也不見。為爾諸人重新注破。瘦竹有高節。閑雲無定心。

衛州元豐清滿禪師二則

舉。法眼問修山主。毫釐有差。天地懸隔。子作麼生會。主云。毫釐有差。天地懸隔。法眼云。恁麼會又爭得。主云。某甲祇恁麼。師兄作麼生。法眼云。毫釐有差。天地懸隔。主便禮拜。

師云。噫。許大修山主被泥彈子換了眼睛。還知麼。復云。後面禮拜。也是停因長智。

舉。雪峯示眾云。南山有鼈鼻虵。汝等諸人切須好看。

師乃橫按拄杖云。更看山僧為虵畫足。

東京淨因惟岳佛日禪師一則

舉。教云。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山僧即不然。今日要與釋迦老子爭鋒。別為諸人通箇消息。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若道雲月是同。如來禪即許師兄會。若道溪山各異。祖師禪未夢見在。

秀州資聖盛勲禪師二則

舉。疎山到投子處。投子問。近離甚處。山云。延平。投子云。還將得劔來麼。山以手指地。投子便休。山便出去。投子至晚。令侍者請山喫茶。侍者云。早來已去。子云。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子撲。

師拈云。此二人還有得失也無。試請斷看。良久。云。得便宜是落便宜。

舉。欽山問德山。天皇也與麼道。龍潭也與麼道。未審德山作麼生道。德山云。爾試道天皇。龍潭底看。欽山禮拜。德山便打。祖峯拈云。德山祇會打死欽山。不會打活欽山。資聖即不然。若據欽山。合喫三頓棒。天皇也與麼道。龍潭也與麼道。未審德山作麼生道。遮裏合喫多少。爾試舉天皇。龍潭底看。欽山禮拜。又亦放過。更有一頓。落在甚處。良久。云。遮一頓。三十年後好作點眼藥。

廬山栖賢遷禪師三則

舉。大禪佛到仰山。問仰山。西天二十八祖也與麼。唐土六祖也與麼。和尚也與麼。某甲也與麼。仰山下繩床。打四棒。大禪佛後到諸方。自云集雲峰下四藤條天下大禪佛參。

師云。且仰山打伊四藤條。是何道理。莫是打伊不會。莫是打伊說道理。若恁麼會。何曾夢見。山僧道。若瓠連根苦。甜瓜徹蒂甜。

舉。維摩詰有病。世尊令文殊師利詣彼問疾。文殊云。是疾從何而起。是身病也。是心病也。於四大中。何大病也。維摩云。我此病者。亦非有也。亦非無也。非是身病。非是心病。非四大病。不離四大。由眾生病故。而我亦病。眾生病瘥。我病亦瘥。

師云。看他維摩如斯懊惱。作却遮病。山僧病。諸人還知麼。祇為當初不忌口。

舉。僧問曹山。抱璞投師。請師雕琢。山云。不雕琢。僧云。為甚不雕琢。山云。須知曹山好手。

師云。山僧即不然。為甚不雕琢。澗底松寒。

江寧府清涼和禪師一則

舉。舍利弗入城。見月上出城。弗問云。什麼處去。女云。如舍利弗與麼去。弗云。我入汝出。何言同去。女云。汝住何所。弗云。當住涅槃。女云。我如汝去。

師拈云。一出一入。何云同去。會麼。拈起拄杖云。舍利弗。月上女盡在山僧拄杖頭上。若也會得。去路無差。其或不然。一任出入。

澧州夾山自齡禪師三則

舉。天王如來會中。有女子於世尊前入定。佛勅文殊出此女子定。文殊遂彈指一下。乃以手托上梵天。出此女子定不得。世尊云。下方有網明菩薩出得此定。須更。網明至。彈指一下。女子出定而去。

師云。遮公案無不委知。文殊為甚出不得。網明為甚出得。諸人儻具奔流度刃底眼。非但見遮一隊漢敗關。乃至河沙祖佛出來。也被作家覷破。其或青黃不辨。邪正不分。祇管去覓女子出定。玄沙道底。

舉。南泉示眾云。文殊。普賢。昨夜三更每人與二十棒趨出院了也。趙州出眾云。和尚棒教誰喫。泉云。王老師過在甚處。州便禮拜。

師云。南泉一期逞俊。爭柰平地生堆。趙州雖則覷面投機。不免腦門著地生。

舉。趙州見院主送生飯與鷓子。忽總飛去。州問。鷓子見爾為甚飛去。主云。怕某甲。州云。甚是語話。主云。請師代語。州代云。為某甲有殺心在。

師拈云。是甚語話。忽有人問山僧。祇云渠却劔利。

廬山開先心印禪師一則

舉。僧問投子。歷却來來無盡燈。不曾挑剔鎮長明時如何。投子云。歷劫來來無盡燈。不曾挑剔鎮長明。

師拈云。問既如斯。答亦相似。為甚東家點燈西家暗坐。明眼禪人。試請辨看。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七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頌古門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二十則)

舉。梁武帝問達磨大師。如何是聖諦第一義。達磨云。廓然無聖。帝曰。對朕者誰。達磨云。不識。帝不契。遂渡江至魏。武帝舉問志公。志公云。陛下還識此人否。帝曰。不識。志公云。此是觀音大士傳佛心印帝悔。遂遣使取。志公云。莫道陛下發使去取。闔國人去。他亦不回。

聖諦廓然。何當辨的。對朕者誰。還云不識。因茲暗渡江。豈免生深棘。

闔國人追不再來。千古萬古空相憶。休相憶。清風巾地有何極。師顧視左右云。遮裏還有祖師麼。白云。有。喚來與老僧洗脚。

舉。趙州示眾云。至道無難。唯嫌揀擇。纔有語言。是揀擇。是明白。老僧不在明白裏。是汝諸人還護惜也無。時有僧問云。既不在明白裏。護惜箇什麼。州云。我亦不知。僧云。和尚既不知。為什麼道不在明白裏。州云。問事即得。禮拜了退。

至道無難。言端語端。一有多種。二無兩般。

天際日上月下。檻前山深水寒。

觸髓識盡喜何立。枯木龍吟消未乾。

難。難。揀擇明白君自看。

舉。雲門大師垂語云。十五日巳前不問汝。十五日巳後道將一句來。自代云。日日是好日。

去却一。拈得七。上下四維無等匹。

徐行踏斷流水聲。縱觀寫出飛禽跡。

草茸茸。煙冪冪。空生巖畔花狼籍。彈指堪悲舜若多。

莫動著。動著三十棒。

舉。肅宗帝問忠國師。百年後所須何物。國師云。與老僧作箇無縫塔。帝曰。請師塲樣。國師良久云。會麼。帝曰。不會。國師云。吾有付法弟子耽源却諳此事。請詔問之。國師遷化後。肅宗帝詔耽源問此意如何。源云。湘之南。潭之北。(師云獨掌不浪鳴)

中有黃金充一國(山形拄杖子)無影樹下合同船。(海晏河清)琉璃殿上無知識。(拈了也)。

無縫塔。見還難。澄潭不許蒼龍蟠。

層落落。影團團。千古萬古與人看。

舉。龍牙問翠微。如何是祖師西來意。微云。與我過禪板來。牙取禪板與翠微。微接得便打。牙云。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又問臨濟。如何是祖師西來意。濟云。與我過蒲團來。牙取蒲團與臨濟。濟接得便打。牙云。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

龍牙山裏龍無眼。死水何曾振古風。

禪板蒲團不能用。祇應分付與盧公。

復云。遮老漢亦未勦絕在。

盧公付了亦何憑。坐倚休將繼祖燈。

堪對暮雲歸未合。遠山無限碧層層。

舉。雪峯示眾云。南山有一條鼈鼻蛇。汝等諸人切須好看。長慶出云。今日堂中大有人喪身失命。

僧舉似玄沙。沙云。須是稜兄始得。然雖如此。我即不與麼。僧曰。和尚作麼生。沙云。用南山作麼。雲門以拄杖攬(倉鬱切)向雪峯面前。作怕勢。

象骨岩高人不到。到者須是弄蛇手。

稜師備師不奈何。喪身失命有多少。

韶陽知。重撥草。南北東西無處討。

忽然突出拄杖頭。拋向雪峯大張口。

大張口兮同閃電。剔起眉毛還不見。

如今藏在乳峯前。來者一一看方便。

師高聲喝云。看脚下。

舉。僧問雲門。樹凋葉落時如何。門云。體露金風。

問既有宗。答亦攸同。三句可辨。一鏃遼空。

大野兮涼颼颼。長天兮疎雨濛濛。

君不見少林久坐未歸客。靜依熊耳一叢叢。

舉。南泉參百丈涅槃和尚。丈問。從上諸聖還有不為人說底法麼。泉云。有。丈云。作麼生是不為人說底法。泉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丈云。說了也。泉云。某甲祇與麼。和尚作麼生。丈云。我又不是善知識。爭知有說不說。泉云。某甲不會。丈云。我大殺為汝說也。

古佛從來不為人。衲僧今古競頭走。

明鏡當臺列象殊。一一面南看北斗。

斗柄垂。無處討。拈得鼻孔失却口。

舉。定上座問臨濟。如何是佛法大意。濟下繩床擒住。與一掌便托開。定佇立。傍僧云。定上座。何不禮拜。定方禮拜。忽然大悟。

斷濟全機繼後蹤。持來何必在從容。

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
舉。槃山垂語云。三界無法。何處求心。
三界無法。何處求心。白雲為蓋。流泉作琴。
一曲兩曲無人會。雨過夜塘秋水深。
舉。僧問雲門。如何是清淨法身。門云。花藥欄。僧云。便與麼
去時如何。門云。金毛師子。
華藥欄。莫顛顛。星在稱兮不在盤。
便與麼。太無端。金毛師子大家看。
舉。陸巨大夫與南泉話次。云。肇法師道。天地同根。萬物一
體。也甚奇怪。南泉指庭前華召大夫云。時人見此一株華。如夢
相似。
聞見覺知非一一。山河不在鏡中觀。
霜天月落夜將半。誰共澄潭照影寒。
舉。僧問洞山和尚。寒暑到來。如何回避。山云。何不向無寒暑
處去。僧云。如何是無寒暑處。山云。寒時寒殺闍梨。熱時熱殺
闍梨。
垂手還同萬仞崖。正偏何必在安排。
琉璃古殿照明月。忍俊韓獹空上階。
舉。鏡清問僧。門外什麼聲。僧云。雨滴聲。清云。眾生顛倒。
迷己逐物。僧云。和尚作麼生。清云。泊不迷己。僧云。泊不迷
己。意旨如何。清云。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
虛堂雨滴聲。作者難訓對。
若謂曾入流。依前還不會。
會不會。南山北山轉霧霏。
舉。馬大師與百丈行次。見野鴨子飛過。大師云。是什麼。丈
云。野鴨子。大師云。什麼處去也。丈云。飛過去也。大師遂扭
百丈鼻頭。丈作忍痛聲。大飛云。何曾飛去。
野鴨子。知何許。馬祖見來相共語。
話盡山雲海月情。依前不會還飛去。
欲飛去。却把住。道。道。
舉。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外道讚歎云。
世尊大慈大悲。開我迷雲。令我得入。外道去後。阿難問佛云。
外道有何所證而言得入。佛云。如世良馬。見鞭影而行。
機輪曾未轉。轉必兩頭走。
明鏡忽臨臺。當下分妍醜。
妍醜分兮迷雲開。慈門何所生塵埃。
因思良馬窺鞭影。千里追風喚得回。喚得回。鳴指三下。

舉。鹽官一日喚侍者。與我將犀牛扇子來。侍者云。扇子破也。
官云。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侍者無對。投子云。不辭將
出。恐頭角不全。
師拈云。我要不全底頭角。
石霜云。若還和尚即無也。
師拈云。犀牛兒猶在。
資福畫一圓相。於中書一牛字。
師拈云。適來為什麼不將出。
保福云。和尚年尊。別請人好。
師拈云。可惜勞而無功。
犀牛扇子用多時。問著元來總不知。
無限清風與頭角。盡同雲雨去難追。
師復云。若要清風再覆。頭角重生。請禪客下一轉語。
問云。扇子既破。我還我犀牛兒來。
時有僧出云。大眾。參堂去。
師云。拋鉤釣鯤鯨。釣得箇蝦蟆。
舉。世尊一日陞座。文殊白槌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
尊便下座。
列眾叢中作者知。法王法令不如斯。
會中若有仙陀客。何必文殊下一槌。
舉趙州示眾三轉語。
泥佛不度水。神光照天地。立雪如未休。何人不雕偽。
金佛不度爐。人來訪紫胡。牌中數箇子。清風何處無。
木佛不度火。常思破竈墮。杖子忽擊著。方知孤負我。
舉。肅宗帝問忠國師。如何是十身調御。師云。檀越踏毗盧頂上
行。帝云。寡人不會。師云。莫認自己作清淨法身。
一國之師亦彊名。南陽獨許振嘉聲。
大唐扶得真天子。曾踏毗盧頂上行。
鐵鎚擊碎黃金骨。天地之間更何物。
三千剎海夜澄澄。不知誰入蒼龍窟。

潭州石霜楚圓慈明禪師(三則)

舉。僧問雲門。如何是超佛越祖之談。門云。餬餅。
超佛越祖若何宣。充齋餬餅恣情飡。
湖南展鉢新羅齧。大食波斯索渡船。
舉。僧問。如何是佛。明云。水出高原。
水出高原也大奇。禪人不會眼麻彌。

若也未明泥水句。燈籠露柱笑怡怡。

舉。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
趙州庭前栢。天下走禪客。
養子莫教大。大了作家賊。

洪州黃龍慧南禪師三則

舉。臺山路上有一婆子。凡有遊僧問。臺山路什麼處去。婆以手指云。驀直去。僧方去。又云。好箇師僧。又恁麼去。趙州聞舉。云。來日上堂。我已勘破遮婆子。

傑出叢林是趙州。老婆勘破有來由。
而今四海清如鏡。行人莫與路為讎。

舉。忠國師三喚侍者。侍者三應。師云。將為吾孤負汝。元來汝孤負吾。

國師三喚侍者。打草祇要蛇驚。

誰知澗底青松。下有千年茯苓。

國師有語不虛施。侍者三喚無消息。

平生心膽向人傾。相識不如不相識。

舉。趙州問僧。曾到此間麼。僧云。曾到。州云。喫茶去。又問僧。曾到此間麼。僧云。不曾到。州云。喫茶去。

趙州驗人端的處。等閑開口便知音。

覲面若無青白眼。宗風爭得到如今。

相逢相問知來歷。不揀親疎便與茶。

翻憶憧憧往來者。忙忙誰辨滿甌華。

東京智海慕喆真如禪師(二則)

舉。瀋山和尚示眾云。老僧百年後向山下作一頭水牯牛。左脇書五字云。瀋山僧某甲。此時喚作瀋山僧。又是水牯牛。喚作水牯牛。又云瀋山僧。喚作什麼即得。

蹄角分明觸處周。不勞管帶不勞收。

但知不犯佗苗稼。水草隨時得自由。

舉。岩頭漢陽作渡子。江南江北各懸木板。索渡者扣板一下。一日。婆子抱一孩兒扣板索渡。岩頭於草舍中舞棹而出。婆便問。呈撓舞棹即不問。婆婆手中一子甚處得來。岩頭以棹便打。婆云。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祇遮一箇。也不消得。遂拋向水中。

親兒棄了更無親。撒手歸家罷問津。

呈橈舉棹波中客。休向江頭覓渡人。

筠州洞山真淨文禪師(一則)

舉雲門大師抽顧。
雲門抽顧。自有來由。
不點不到。休休休休。

舒州海會守端禪師(二則)

舉。僧問洞山。如何是佛。山云。麻三斤。
斤兩分明不負君。眼中瞳子莫生嗔。
百年三萬六千日。得欣欣處且欣欣。
舉。僧問楊岐。少林面壁。意旨如何。岐云。西天人不會唐言。
天高地迴人離見。水闊山重不易論。
萬古八風吹不入。西天人不會唐言。

廬山東林常總照覺禪師(一則)

舉船子和尚接夾山後。踏覆船。
夾山橈下悟心休。何患身名踏覆舟。
今古華亭垂釣者。烟波江上使人愁。

江寧府保寧仁勇禪師(五則)

舉。六祖問讓和尚。甚處來。讓云。嵩山安和尚處來。六祖云。
什麼物恁麼來。讓云。說似一物即不中。六祖云。還假修證否。
讓云。修證即不無。污染即不得。六祖云。即此不污染。是諸佛
之護念。吾亦如是。汝亦如是。西天二十七祖般若多羅讖佛法從
汝邊去。已後出一馬駒。踏殺天下人去在。
戴角披毛恁麼來。鐵圍山嶽盡衝開。
閻浮踏殺人無數。驀鼻深穿拽不回。
舉。龐居士問馬祖。不昧本來身。請師高著眼。馬祖直上覷。居
士云。一種勿絃琴。唯師彈得妙。馬祖直下覷。居士禮拜。馬祖
歸方丈。居士隨後云。弄巧得拙。
浩浩擎山戴岳來。撐天拄地勢崔嵬。
從教弄巧翻成拙。撒手前行更不回。

舉。南泉示眾云。道非物外。物外非道。趙州出問。如何是物外道。南泉便打。趙州接住云。和尚莫打某甲。已後錯打人去在。南泉擲下拄杖云。龍蛇易辨。衲子難瞞。輭纏藏鋒入陣來。畫時擒下眼瞳開。死生一決英雄士。文武雙行將相才。舉。石頭問長髭。甚處來。長髭云。嶺南來。石頭云。大庾嶺頭一鋪功德。成就也未。長髭云。成就久矣。祇欠點眼。石頭云。莫要點眼否。長髭云。便請。石頭垂下一足。長髭便禮拜。頭云。見箇什麼。長髭云。如紅爐上一點雪。一鋪大悲千手眼。十分圓就未開光。君看筆下神通現。更有靈蹤在上方。舉。芭蕉示眾云。爾有拄杖子。我即與爾拄杖子。爾無拄杖子。我即奪爾拄杖子。爾有面前拈取去。爾無背后奪將來。可憐黑漆光生底。擊著千門萬戶開。

蘇州定慧超信海印禪師(七則)

舉。石霜普會遷化。眾定首座住持。虔侍者曰。首座若會先師意。方可住此。先師道。休去。歇去。一念萬年去。古廟裏香爐去。如一條白練去。且道先師意作麼生。座曰。祇是明一色邊事。侍者曰。首座不會先師意。座曰。裝香來。香烟斷處。我若不脫去。即不會先師意。香烟纔絕。首座便脫去。侍者於背上拊一下。曰。去即不無。要且不會先師意。張家養得數箇兒。大者敦爺冶家業。中有一男藝最精。氣宇如王威猛烈。別。別。踏翻海底。不顧驪龍珠。喝散白雲。豈羨長天月。舉。太原孚上座參雪峯。至方丈前。顧視雪峯。便下看知事。來日。入方丈云。昨日觸忤和尚。峯云。知是般事便休。李廣將軍。古今無對。深入虜庭。全身遠害。不動干戈贏小捷。到今邊塞嘉聲在。舉。臨濟辭黃蘗。蘗問。什麼處去。濟曰。不是河南。便是河北。蘗便打。濟約住棒。遂打一掌。蘗大笑。喚侍者。將先師禪板。拂子來。濟云。侍者將火來。蘗云。雖然如此。汝但將去。已后坐却天下舌頭去在。師資敘別意非遙。禪板持來命火燒。佛祖已靈猶不重。信行餘長孰擎挑。

舉。瑯琊廣照問舉和尚。近離甚處。舉云。兩浙。照云。船來。陸來。舉云。船來。照云。船在甚處。舉云。胡步。照云。且坐喫茶。舉云。喏。喏。
漁翁蕭灑任東西。蘆管橫吹和不齊。
夜靜月明魚不食。扁舟臥入武陵溪。
舉。滄山示眾云。有句無句。如藤倚樹。後疎山問云。樹倒藤枯時如何。山呵呵大笑。歸方丈。
樹倒藤枯伸一問。呵呵大笑有來由。羚羊掛角無尋處。直到如今笑未休。
舉。僧問舉和尚。如何是佛。舉云。蘆芽穿膝。
信手拈來如掣電。全機大用疾如風。
放行一句通消息。後夜猿啼在亂峯。
舉。耽源辭國師曰。某甲往南方。忽有人問極則事。如何祇對。
師云。幸自可憐生。須要箇護身符子作什麼。
不重已靈猶未可。護身符子更那堪。
為君旨外通消息。秋月無雲落碧潭。

東京慧林德遜佛陀禪師(二則)

舉。趙州問僧。喫粥了也未。僧云。了也。州云。洗鉢盂去。粥了令教洗鉢盂。初心往往更心羸。
直饒到此分明了。已是平生不丈夫。
舉。僧問雲門。不起一念。還有過也無。門云。須彌山。問答隨機或淺深。雲門終是飽叢林。
如今競逐須彌走。無限平人被陸沉。

舒州投子山義青禪師(四則)

舉。僧問洞山。如何是祖師西來意。山云。待洞水逆。即向汝道。
古源無水有何聲。滿岸西風一派新。葱嶺罷詢熊耳夢。雪庭休說少林春。
舉。僧問石霜。如何是石霜深深所。霜云。無鑄銷子兩頭搖。
三更月落兩山明。古道程遙苔蘚生。
金鎖搖時無手把。碧波心月兔常行。
舉。僧問夾山。如何是夾山境。山云。猿抱子歸青嶂後。鳥銜華落碧岩前。
月皎青松鶴夢長。碧雲丹柱挂羚羊。

高岩壁仞千峯雪。石筍生條半夜霜。
舉。僧問曹山。佛未出世時如何。山云。曹山不如。僧曰。出世後如何。山云。不如曹山。
月隱青山瑞氣高。梧藏丹鳳覩無遼。
無端石馬潭中過。驚怒泥龍翻海潮。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六則)

舉。雲門一日僧堂前見直歲喫餠餅次。乃問。喫得幾箇餠餅。歲云。五箇。門云。露柱喫得幾箇。歲云。請和尚茶堂裏喫茶。門便歸方丈。
韶陽門下足英明。直歲之才又哲英。
雲華堂前凹凸處。不勞心力一齊平。
舉。外道問佛。今日說何法。佛云。說定法。來日又問。今日說何法。佛云。說不定法。外道云。昨日定。今日為什麼不定。佛云。昨日定。今日不定。
靈山會上如來禪。問答何曾別是玄。
今日不定昨日定。借婆裙子拜婆年。
舉。昔日有老宿經夏不為師僧說話。有一僧歎云。我祇麼空過一夏。不敢望和尚說佛法。得聞正因兩字也得。老宿聊聞。告云。闍梨莫[斯/言]速。若論正因一字也無。溜麼道了。自扣齒云。適來無端溜麼道。隣壁老宿聞之。云。好一釜羹。被兩顆鼠糞污却也。
一夏調和一釜羹。傅巖猶未許爭衡。
莫言污了無人見。鄰壁禪翁隻眼明。
舉。二祖于少林立雪斷臂而問。諸佛法印。可得聞乎。林云。諸佛法印。匪從人得。祖云。我心未寧。乞師與安。林云。將心來。與汝安。祖云。覓心了不可得。林云。為汝安心竟。
斷臂難於立雪難。覓心無處始心安。
誰知萬頃蘆華境。一一漁翁把釣竿。
舉。僧問香林。如何是衲衣下事。林云。臘月火燒山。
僧問衣下事。師云。火燒山。
佛手遮不得。人心似等閑。
舉。僧問佛岩。如何佛向上事。岩云。螺是髻子。如何是佛向下事。岩云。蓮華座。
螺紋頂髻蓮華座。香象嘖呻師子吼。
流落人間三百年。塞斷天下衲僧口。

太平州隱靜山守儼禪師(二則)

舉。藥山和尚初參石頭。密領玄旨。一日座次。石頭見。汝在遮裏作什麼。山云。一切不為。頭云。恁麼則閑座也。山云。閑座即為。頭云。汝道不為。不為箇什麼。山云。千聖亦不識。
石頭打草要蛇驚。密護玄機絕彙情。
迅句追風須辨的。報云千聖不知名。
舉。為山一日坐次。仰山與香巖侍立。為山云。如今總恁麼者少。不恁麼者多。香巖從東過西。仰山從西過東。為山云。遮箇因緣。三十年後如金擲地相似。仰云。也須和尚提唱始得。香巖云。即今亦不少。為山云。合取口。
為山垂語辨龍蛇。一對驪珠絕點瑕。
師子窟中無異獸。嘉聲動地徧天涯。

雲居山了元佛印禪師(四則)

舉。僧問六祖。黃梅意旨什麼人得。祖云。會佛法人得。僧云。師還得也無。祖云。我不得。僧云。和尚為甚不得。祖云。我不會佛法。
當日黃梅傳意旨。會佛法人如竹葦。
麟龍頭角盡成空。盧老無能較些子。
舉。思禪師問六祖。當何所務得不落階級。祖云。曾作什麼。思云。聖諦亦不為。祖云。落何階級。思云。聖諦尚不為。何處有階級。祖云。如是。如是。汝善護持。
聖諦從來尚不為。更無階級可修持。
至今盧大猶舂米。和穀和糠付與誰。
舉。僧問南泉和尚。百年后遷化向什麼處去。泉云。山前檀越家作一頭水牯牛去。僧曰。學人隨去得也無。泉云。爾若來。啣一枝草來。
行履從來異類中。不知頭角與誰同。
若啣水草來相見。擺尾搖頭四野風。
舉。僧問龍牙和尚。十二時中如何著力。牙云。如無手人行拳始得。
無手人拳力最多。龍牙曾打杜禪和。
直饒用得工夫盡。不似陶家壁上梭。

虔州慈雲圓照禪師(二則)

舉。白馬和尚尋常叫快活。臨終時叫苦苦。院主問。和尚尋常叫快活。如今何得如此。和尚拈起枕頭云。汝道當時是。如今是。院主無語。

甜甜徹帶甜。苦苦連根苦。
拈起枕頭時。新羅夜打鼓。

舉。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欄中失却牛。
欄中失却牛。有問即有訓。
更若求玄妙。獼猴築氣毬。

東京淨因惟岳佛日禪師(二則)

舉。僧問投子。如何是第一月。子云。孟春猶寒。如何是第二月。子云。仲春漸暄。
孟春猶寒第一月。仲春漸暄第二月。
若無閑事掛心頭。便是人間好時節。
好時節。江南并兩浙。春寒又秋熱。
舉。僧問雲門。如何是祖師西來意。門云。日裏看山。
日裏看山好。清風掃白雲。
夜來何處火。燒出古人墳。

福州大中智德禪師(四則)

舉。僧問岩頭。孤帆不掛時如何。頭云。後園驢喫草。
孤帆不掛事如何。後園驢兒喫草多。
直至如今閑放下。誰知平地有般訛。
舉。僧問雲門。如何是大修行底人。門云。一榼在手。
手中一榼絕痕瑕。道聽途傳轉見賒。
作者至今拈不起。依前獨自挈歸家。
舉。僧問報慈。情生智隔。想變體殊。情未生時如何。慈云。
隔。僧曰。祇如情未生。隔箇什麼。慈云。梢子。爾未遇人在。
隔。青天無雲轟霹靂。叢林衲子如稻麻。不知幾箇仙陀客。
舉。僧問玄沙。如何是學人自己。沙云。是汝自己。
是汝自己。莫相鈍置。衲子兩兩三三。祇道早眠晏起。

岳陽乾明慧覺禪師(二則)

舉。僧問。鴈過長空。影沉寒水。水無沈影之心。鴈無遺蹤之意。意旨如何。師云。事向無心得。

鴈過長空豈遺影。影沉寒水水無心。
但能體得無心處。不用無心自道深。
舉。僧問投子。如何是露地白牛。子云。叱。叱。僧曰。飲噉何物。子云。喫喫。
露地白牛起問端。隨機叱叱齒牙寒。
不知飲噉是何物。喫喫直教滄海乾。

越州天章元善禪師(一則)

舉。雲居和尚聞僧誦維摩經。問云。念什麼經。僧曰。維摩經。
師云。不問爾維摩經。念底是什麼。其僧有省。
問經不問念維摩。念底分明見也麼。欲入塵沙法門海。一言演出不須多。

湖州上方日益禪師(三則)

舉。楊岐在九峯受請。陞座罷。九峯勤和尚把住云。今日喜得箇同參。岐云。同參底事作麼生。峯云。九峰牽犁。楊岐拽把。岐云。正當恁麼時。揚岐在前。九峯在前峯。擬議。岐拓開云。將謂同參。元來不是。
一拽把。一牽犁。平田淺地且相隨。
恰到飢時無草料。放開頭角便東西。
老楊岐。老楊岐。盡道從來解弄蹄。
舉。大隨菴前有一龜。僧指問。一切眾生皮裹骨。遮箇眾生為什麼骨裹皮。大隨脫一隻鞋安龜背上。
骨在外。皮在裏。靈於人兮不靈己。
直饒背上卦分明。九九翻成八十二。
舉。僧問忠國師。如何是本身盧舍那。國師云。與老僧過淨餅來。僧將餅來。國師云。安舊處著。僧復問。如何是本身盧舍那。國師云。古佛過去久矣。
兩手分明過淨瓶。不知身己在隍城。
直饒便具金剛眼。也較為山半月程。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八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偈頌門

蔣山法泉佛惠禪師(三十四首)

釋迦牟尼佛

四顧無人法不傳。鹿園鶴樹兩茫然。朝朝大士生浮世。處處明星現碧天。
迦葉捧衣眉已皺。金棺將火足猶懸。誰知摩竭當年事。落日雙林噪暮蟬。

一祖大迦葉尊者

曾把珠金結淨因。九十一劫異常身。涅槃會上仙陀客。糞掃衣中無事人。
妙舞憑誰知此意。綠巖孤坐自移春。世尊無說聲聞處。千古金園躍瑞麟。

二祖阿難尊者

娑羅林下涅槃門。獨授金襴眾處尊。寶蓋摧時先有約。剎竿倒處舊無根。
羣仙請證離山麓。二主哀號露血痕。誰謂真身已圓寂。常河風急浪華奔。

三祖商那和修尊者

非法非心會得麼。六年身後出娑婆。先生受記青林在。弟子投機白髮多。
胎久膺香草服瑞。梵宮高占火龍窠。方今徒與還憍慢。好向南山更一過。

四祖優波鞠多尊者

化行無間復無親。攝彼唯將定力熏。籌室晚拋逢的子。花鬢重獻怖魔軍。
不依佛法非常道。若著身心未出群。付却本來無底物。舊山歸去臥閑雲。

五祖提多迦尊者

摩迦當夕誕神軀。異夢曾將昔讖符。杲日升騰開黑暗。王泉噴涌救焦枯。
八千修習因非正。六劫分攜事豈虛。今日班茶山頂上。牛車鶴駕盡同途。

六祖彌遮迦尊者

勤求祖裔惜年光。雉堞金雲熠熠翔。觸負淨時猶旅舍。識非我處近家鄉。
傳燈預記百年後。舊姓纔呼遠事彰。從此五天不歸去。火中遊戲類金剛。

七祖婆須密尊者

汗衣糲食恣遊行。甘露常擎一點清。強調傳心心豈有。欲求論義義難成。
慈緣現相雲無著。陋巷狂歌月自明。翻憶山中來客少。一壺春酒為誰傾。

八祖佛陀難提尊者

頂珠高聳自欣然。滿寺清風壯祖垣。接引勞生春力重。對訓雄辯海濤翻。
喻徒無說知真器。向己求心賴至言。老老門生人不識。白光盡處笑騰軒。

九祖伏馱蜜多尊者

閔却年光半百春。可憐嫌富不嫌貧。祖佛非道求何道。父母不親誰更親。

七步豈勞蓮捧足。無言須信鑑生慶。禪門自古牢關鑰。漏洩家風是此人。

十祖脇尊者

身非凡器預聞仙。獨號難生豈偶然。苦海浪停全象在。昏衢光散一珠圓。
言宣非佛幽人悟。地變黃金大法傳。脇席遺風千古在。今人多向日高眠。

十一祖富那夜奢尊者

莫訝從前得法悒。寥寥玄路絕離微。悟迷不有晦明盡。隱顯元無一二非。
問佛不知非別道。還家無住是真歸。徒言弟子縱橫辯。木義纔標盡息機。

十二祖馬鳴尊者

功成高度死生流。有作無為已共修。極物形分群馬戀。歸雲路斷小蟲憂。
金龍過雨危山動。性海無風駭浪休。唯有日輪垂滅相。至今猶掛亂峯頭。

十三祖迦毗摩羅尊者

遣文不許王宮住。掛錫還忻石窟深。寒岫孤征雲撲撲。毒龍將近樹森森。
寧知枉足相逢地。便是拈華付囑心。老蟒何期千載後。塵緣脫盡震雷音。

十四祖龍樹尊者

悲深曾解髻中珠。我慢先摧福業徒。但得死生常了了。都來聲色盡如如。
幻師已類春冰散。佛性還同海月孤。欲識涅槃無住相。大千沙界一毗盧。

十五祖迦那提婆尊者

休言無路出樊籠。迷即山河悟即空。報施園林生木耳。投機天地共針鋒。

八光盡處漚歸海。異論興時雪灑松。巴弗城邊人去後。赤幡依舊起清風。

十六祖羅睺羅多尊者

運應千年豈謬悠。光連五佛助勒求。井金鍛去絕纖鑛。河水乘來徹上流。

無我為師明了義。擎盃分坐示同修。門人不信曾三果。香飯空持過幾州。

十七祖僧伽難提尊者

生已能言少悟空。肯將寶位苦羈籠。不知祖域當傳道。謾把禪多擯出宮。

悲世幾憐紅日落。開懷因望白雲重。從來嗣法人難得。何惜攜筇過一峯。

十八祖伽耶舍多尊者

七日經胎即誕神。肌膚淨照雪山春。月氏已悟千年事。童子何驚百歲身。聽去風鈴非別物。攜來寶鑑自無塵。區區曾入寬閑舍。喚出三天舊主人。

十九祖鳩摩羅多尊者

路在諸天孰可攀。祇緣悲重入塵寰。一靈寂寂死生外。三界悠悠夢幻間。

容易豈教忘妙偈。慇懃更為倒疑山。重門自昔敲門後。直至如今不著關。

二十祖闍夜多尊者

垂手因傷失道真。象王縱步有誰憐。祇將言下無生義。喚起林間長坐人。

至道不求非散亂。急茲將斷為悲辛。當時不覲羅城會。勤苦徒勞數劫塵。

二十一祖婆修槃頭尊者

念昔拳拳扣德音。幻泡無礙旨還深。雙珠夢去忘明晦。一法傳來非古今。
失果寧知月淨記。在胎因得眾賢欽。臨行踏破虛空處。不是男兒豈易尋。

二十二祖摩拏羅尊者

愚智嘗因辯塔分。出塵岐路感時君。施檀引喻人多劫。聽偈飛鳴鶴一群。
性溜(呼潰切)山河但窅窅。心生毫芥盡紛紛。誰知異域香焚日。曾把青烟破白雲。

二十三祖鶴勒那尊者

鄉落皆呼聖子賢。摧頽廟貌未童年。罹憂虹貫乾坤外。問法人歸日月邊。
無我無為非是道。有功有作未忘筌。身分舍利重來後。奇特還如火裏蓮。

二十四祖師子尊者

即心知見絕消詳。五眾何人敢校量。童子有緣驚展手。嚬珠無類惜潛光。
蘊空已得身如幻。臂斷徒誇劍似霜。光首何須憂法墜。窅堵波上有斜陽。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

道塗多難意潛宣。無我先摧印帝前。神劍夢符應網斷。祖衣焚驗法幢堅。
食來毒藥曾無著。諫去因人亦可憐。三昧火中何處有。一輪明月在青天。

二十六祖不如蜜多尊者

祖堂冥合繼清芬。儲貳摧邪駭眾聞。長爪豈能為巨蠹。化山空欲礙高雲。
東王超悟終何得。聖嗣重歸豈易群。付囑強名心地藏。更無頭尾可呈君。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應變乘時善舉揚。問珠求裔旨何長。三春果滿菩提樹。一夜華開世界香。
但切傳燈悲物化。寧憂仙水走年光。翻嗟未見蜜多日。幾度行吟效建狂。

二十八祖菩提達磨大師

運智隨緣肯自安。遊梁涉魏幾何般。穿雲錫掛草堂靜。為法人忘雪夜寒。
開葉開華皆不實。得皮得髓謾多端。空留隻履嵩陽寺。後代兒孫著脚難。

二十九祖慧可禪師

峯前孤坐眼慵開。佛祖非遙偶自諧。頂骨換來山忽聳。風痾馱去露先摧。
潛興訕謗真堪惜。晚過屠沽更莫猜。回首鄴都城下路。春風無限長蒼苔。

三十祖僧璨禪師

嘗因吾道苦陵遲。十載藏珠臥翠微。華地無生聊密付。法門求解使知非。
羅浮海近凭欄久。山谷雲深振錫歸。名氏不言休更問。手攜席帽舊麻衣。

三十一祖道信禪師

勤苦遺風邁昔賢。沙彌聞法尚髫年。重城解盜神兵至。古路求人佛性圓。

白氣已膺分派後。紫雲猶記破頭邊。塢開真相堂堂處。留與禪家萬古傳。

三十二祖弘忍禪師

誰言相闕紫金身。盡性高談絕四隣。聖果高推僧上座。衣盂自與嶺南人。
三更已付何曾付。七百相親豈易親。堪嘆當年奔逐者。至今猶拂鏡臺塵。

三十三祖慧能禪師

今古曹谿一派寒。師來因為起波瀾。攜囊庾嶺人空逐。負石黃梅眾識難。
頓悟心田華馥郁。欲歸鄉社葉凋殘。風幡辨的真猷在。試向剎竿頭上看。

越州天衣義懷禪師(三首)

投機

一二三四五六七。萬仞峯前獨足立。驪龍頷下奪明珠。一言勘破維摩詰。

色空

色空空色色空空。闕却潼關路不通。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中。
東西南北。十萬八千。空生罔措。火裏生蓮。

東京淨因淨照臻福師(十五首)

百丈再參

一喝分明守死灰。青天赫日起風雷。傍人撫掌呵呵笑。唯有知音吐舌來。

百丈卷席

高登猊座已圓成。大智仙陀卷便行。師子嘯呻猶似可。象王回首更堪驚。

外道問佛

特地慇懃問有無。因風應不費工夫。迷雲縱得開令人。未免區區在半途。

靈雲悟桃華

春暖桃花帶露開。靈雲一見悟靈臺。玄沙諦當傳千古。誰解雌黃息眾猜。

趙州勘婆

趙州勘破老婆禪。語脉分明在目前。近日五湖參學者。剛於岐路走如煙。

不見一法是大過患

不見一法是過患。雨餘郊野雲收漢。中秋午夜月輪高。幾處人登樓上看。

不見一法即如來

不見一法即如來。南有天台北五臺。江上雪消春已暖。岩華凌曉露中開。

百丈野狐

問來答去盡因緣。流落寰區數百年。自古自今諸衲子。一人傳了一人傳。

四賓主

賓中賓。寥寥度日好愁人。捨父佗方空役役。平生受盡苦兼辛。
賓中主。攜筇入市無儔侶。縱然覲面便相呈。爭奈自家不能覩。
主中賓。權掛垢衣混俗塵。頭頭應接殊無倦。悲智雙嚴最上人。

主中主。獨坐巍巍金殿宇。五湖四海樂昇平。處處修文盡偃武。

因僧請益三訣以示之

第一訣。衲僧猶未瞥。更擬問如何。棒頭須見血。

第二訣。南北行人絕。非但迦葉兄。文殊也結舌。

第三訣。祖令隨機設。臘月嶺頭梅。滿枝香吐雪。

舒州浮山法遠圓鑑禪師(一首)

禪將交鋒歌

禪將交鋒看作家。還同敬德遇金牙。機鋒迅速人難辨。縱橫擒縱智徒誇。

善藏鋒。巧回互。把斷要津誰敢指。香象咆哮海嶽摧。師子嘖呻凡聖懼。

或探竿。或把火。照耀乾坤驗作者。擬議之時賓主分。閃電之間換甲馬。

勢如龍。健如虎。左旋右轉奪旗鼓。臨機照破鐵門關。決烈衝開金鎖戶。

文彩彰。風骨露。設使全提未為據。撒星佩印落荒郊。點的嚙齧涉西土。

看作家。終不悞。任是鋌刀解遮護。吹毛晃耀七星分。金鏡光霞八方顧。

影草中。藏部隊。雨地風雲迷向背。單刀透出萬機前。雙明送入千峯會。

載趨蹌。重管帶。疋馬單槍呈作解。雖然帶甲上橋來。早被定唐批急褰。

按鎔錙。全舉令。照用同時誰敢並。忿怒那吒失却威。騫馱佉羅口目瞪。

立股肱。贊元首。解定乾坤平萬有。畫鼓連搥兩陣收。拍馬將軍唱好手。

福州地藏顯端禪師(十首)

玄唱

地藏一琴。誰是知音。岩松百尺。瀑布千尋。是何之琴。虎嘯龍吟。
地藏一箭。本非磨鍊。射徧十方。群魔膽戰。是何之箭。風和柳綻。
地藏一句。禪徒罔措。不墮聖凡。豈沉迷悟。是何之句。清平過渡。
地藏一訣。隨宜施設。擬問如何。頭破額裂。是何之訣。春寒秋熱。
地藏一道。經行坐臥。有意難尋。無心易到。是何之道。松風浩浩。
地藏一拂。打祖打佛。暑往寒來。天晴日出。是何之拂。蕭何定律。
地藏一錫。敲空擊色。勦絕三賢。屏除六賊。是何之錫。曲不藏直。
地藏一機。細雨霏霏。揚眉瞬目。涉水拖泥。是何之機。禮別尊卑。
地藏一山。峻不可攀。華浮水淥。石鎖苔斑。是何之山。形直影端。
地藏一水。清冷甘美。汪洋大千。魚龍任止。是何之水。許由洗耳。

東京法雲法秀圓通禪師(六首)

祖意

涉嶺登山得得來。少林不意口難開。任是虛空須喫棒。當鋒誰敢振雲雷。
凜凜清風何處來。誰云枯樹却華開。岩松自有凌雲勢。不藉陽春二月雷。

幻身

千頭百頭祇一頭。天生肌體飽脂膏。眠雲臥水人休覓。不在貧家與富豪。
幻本元真不用逃。順緣水草育脂膏。六凡四聖皆同體。頭角何須競富豪。

心印

祖祖從來不識心。森羅萬象此中沉。崑崙鼻孔長三尺。南海波斯莫亂斟。
成塊成團亘古今。五湖四海盡浮沉。鐵牛鎖斷黃河水。聽審之流莫亂斟。

江寧府蔣山贊元覺海禪師(三首)

三要

第一要。當鋒誰敢道。千聖一時興。那能窮此妙。
第二要。明鏡當臺照。胡漢盡皆沉。透匣青蛇斗。
第三要。須知遮一竅。進步問如何。拊掌呵呵笑。

東京法雲善本大通禪師(五首)

述旨

學道道無得。修心心本空。本空無得處。勿謂出樊籠。
言中無異路。妙旨若為尋。海底紅塵起。山頭白浪深。
佛魔不到處。今古有誰知。霧卷千峯出。雲收片月移。
掣電機輪轉。當風不立塵。欲尋言下旨。一箭過西秦。
不是無言說。言多轉見猜。九年雖兀坐。聲震五天雷。

南岳谷泉大道禪師(八首)

大道歌

狂僧性本落魄。到處隨緣棲泊。都來些子行裝。棹下誰能管著。
曲竹杖。凹木杓。獨行獨坐還獨酌。時人不會狂僧意。將謂狂僧虛造作。
布直裰。紙衲帔。破綻誰能管得伊。禪客相逢皆哂笑。律師遇著大不喜。
迎風坐。向日睡。也勝時人蓋錦被。騰騰兀兀且延時。落落魄魄長如醉。
面懶洗。頭懶剃。行住更無些濟濟。不但千峰與萬峰。恣意縱橫去還止。
或姪妨。或酒肆。拍手高歌更無慮。人人咄罵遮狂顛。莫怪顛狂祇如是。
遊方廣。入聖寺。半千小兒皆罔措。祇解觀空臥白雲。爭似

狂僧豁神思。
時人更問有也無。低頭拈箇山棗子。
頌曰。
落落魄魄。居山居郭。莽莽鹵鹵。是今是古。拍手大奇。顏回彭祖。

落魄歌

狂僧性且無拘束。落魄縱橫隨處宿。有時狂歌歌一場。驀地起來舞一曲。
禪子云。甚奇特。到了依前六十六。阿呵呵。為君述。豐干老漢騎虎出。
路逢拾得笑哈哈。却被寒山咄咄咄。

巴鼻頌(六首)

禪師巴鼻。有利無利。碧岳崔嵬。龍行虎勢。
衲僧巴鼻。坐具尺二。休問短長。風高雲起。
座主巴鼻。懸河無滯。地涌金蓮。手擎如意。
大道巴鼻。問著瞋瞋。背負葫蘆。狂歌遊戲。
山童巴鼻。煮茶鼎沸。客問如何。遠來不易。
散聖巴鼻。逢場作戲。東涌西沒。南州北地。

東京智海本逸正覺禪師祖室聯芳(十二首)

雞峰至曹谿

吾道提綱者。東西三十三。別傳一句子。突出少人諳。

靖居思

吾道提綱者。廬陵米價奇。年年田大熟。行市莫嫌遲。

石頭遷

吾道提綱者。衡山踞石頭。光陰莫虛度。恩大固難酬。

天皇悟

吾道提綱者。天皇廕子孫。一枚餠子。千載耀吾門。

龍潭信

吾道提綱者。師資會遇難。龍潭滅燭夜。德嶠觸體乾。

德山鑑

吾道提綱者。常思古德山。一尋鉄作棒。坐斷武陵關。

雪峯存

吾道提綱者。難忘是雪峰。望州烏石嶺。無處不相逢。

雲門偃

吾道提綱者。無私是至談。充齋餠子。佛祖未相諳。

雙泉郁

吾道提綱者。韶陽好子孫。雙泉分一派。甕甕出雲門。

德山遠

吾道提綱者。鐵門路嶮巖。少林人過後。南北自多岐。

開先暹

吾道提綱者。開先古佛先。宗風誰的嗣。一月在長天。

總頌

吾道正提綱。令行誰敢當。龍泉橫智海。三尺刃如霜。

潭州道林智本禪師(一首)

快活歌

山僧山裡得優游。衲衣餅鉢外無求。閑來縱步時迷經。倦即和雲倚石頭。
快活歌。歌快活。松韻蕭蕭泉聒聒。野花芳草不知名。岩上落花紅一抹。
任疎慵。忘禮節。時就潺湲弄明月。箇中消息若為傳。回頭笑共青山說。

潭州石霜楚圓慈明禪師(六首)

三訣

第一訣。大地山河泄。維摩纔點頭。文殊便饒舌。
第二訣。展拓著時節。語默豈相干。夜半秋天月。
第三訣。山遠路難涉。陸地弄舟船。眼中挑日月。

三句

第一句。天上他方皆罔措。俱輪顛倒論多端。巍巍未到尼拘樹。
第二句。臨濟德山涉路布。未過新羅棒便揮。達者途中亂指注。
第三句。維摩示疾文殊去。對談一默震乾坤。直至而今作笑具。

蘄州白雲山廣教景雲禪師(二首)

曹洞玄旨

然燈那畔祖師行。信是無功道自呈。石女拈華千界動。木童汲水萬波傾。
金田有樹雲生葉。玉洞無燈日照明。善化羣機偏得妙。龜毛拂子掌中擎。
閑將芥子納三千。古聖神通任自然。每使牧童來座畔。時教石女去岩前。
玉輪輾破珊瑚殿。金杖敲開碼碯船。曹洞家風誰得旨。青山脚下向陽眠。

北禪慧雲昇禪師(八首)

嘉禾一竅。把定三要。臨濟德山。呵呵大笑。是何之竅。雲生嶽嶠。

嘉禾一宗。萬象該通。釋迦慈氏。齊立下風。是何之宗。黃昏打鐘。
嘉禾一言。千聖共傳。不存意思。切忌聲前。是何之言。天晴道乾。
嘉禾一路。行人無數。踏着超然。西天此土。是何之路。虔州麻布。
嘉禾一脉。休問寬窄。地獄天堂。絲毫不隔。是何之脉。青黃赤白。
嘉禾一曲。五音具足。格調難陳。知音共續。是何之曲。二八十六。
嘉禾一門。凡聖齊奔。雖無關鎖。包裹乾坤。是何之門。水出崑崙。
嘉禾一印。大千普振。舉措施為。且無鄙吝。是何之印。誰敢通信。

洪州龍安山兜孃從悅禪師(六首)

歸根

笑把寒山手。相將過野橋。水邊同坐石。林下各攀條。
日到天心盛。雲歸谷口消。寥寥人界外。何處不逍遙。

得旨

寓跡千峰裡。閑心絕萬緣。短筇橫膝坐。塊石枕頭眠。
就火烹新茗。臨溪汲冷泉。幽林華又發。渾不計流年。

冥契

寂寂浮埃外。溪山相稱深。水流元有勢。雲萃本無心。
翠鳥溪邊立。青猿洞口吟。倚筇回望處。紅葉下霜林。

寂照

二六時中事。何嘗不一如。雲收青漢迴。月落碧潭虛。崔瀑聲無盡。
春山翠有餘。誰能忘世累。向此樂閑居。

應機

高著何曾筭。誰為敵手人。神仙看有分。黑白鬪無因。
緊向當頭捺。寬從四角伸。若於盤上覓。猶未出常倫。

設變

握土成金法。非因巧口傳。水中元有火。妙外更無玄。
海上遊三島。松間會八仙。幾回明月夜。長嘯亂峰前。

廬山萬杉紹慈禪師(六首)

通玄頌

祖意無方莫問西。曠然那許定交知。更來石火光中覓。燎却當門一聚眉。
至理無私不用猜。豈從天竺付將來。塵中有路君須辨。頂上金剛鐵眼開。
靈苗無影勿云高。尋葉尋枝轉更勞。若蹈箇中根蒂穩。大千沙界一絲毫。
法戰從來兩不傷。應機隨順入彊場。金刀纔舉魔軍伏。統得群原共一鄉。
大道淵玄絕謂稱。暫將譬喻一提評。君看枝上紅桃子。顆顆元來祇混成。
透出玄關遮不得。却來深處泛漁船。竿頭不掛多般餌。接得盲龜是有緣。

廬州興化仁岳禪師(十首)

深岩藏白額

白額從來出獸群。且藏威勢向崑崙。夜深嘯對岩前月。無限風光清膽魂。

五天銀燭輝

銀燭舒光燄熾然。五天交照一何鮮。明月透映未為妙。轉却輝華始透玄。

金針去復來

密用金針不出頭。往來無問若還流。繡衣不假虛玄手。爭得條條線路周。

妙談不干舌

口口稱揚舌本無。無中演妙作明謨。君臣唱和通玄旨。天下同歸絕異途。

秦宮映膽輝

圓明照膽徹心寒。好醜纔分足異端。碧眼臨臺須撲破。免他光境兩俱完。

鐵鋸吹三臺

萬象森羅本祖心。頭頭無不演圓音。[齒*查]齧鋸下三臺唱。絲竹笙簧和此吟。

死蛇驚出草

荒草深藏不記時。一朝新活動聞知。吐無噴霧仍收卷。那叱南山鼉鼻兒。

錦帳無夜衾

明月堂前錦帳垂。無衾覆蓋有誰知。撥開合縫華光裏。全露非因造化為。

解針枯骨吟

垢衣披掛入廬中。應病施方助道風。枯骨一吟音韻發。聲聲無處不圓通。

袖裏青蛇吼

袖裏青蛇本自藏。偶然哮吼揭真常。門前驚散三千客。那有莊生恃己長。

饒州薦福承古禪師(一首)

知見謠

莫莫莫。大丈夫。何大錯。
無端咀嚼野狐涎。滿肚知音無處著。
縱然成現夢還家。物外超然謾斟酌。
重玄權要騁縱橫。逆順機鋒過電爍。
恰如狂鬼亂心神。又似良人中毒藥。
審須聽。急吐却。熱病覺來方索索。
不論日本與西天。說甚須彌頭倒卓。
徒將管見自欺謾。枉把禪流眼睛[翟*支]。
忠言逆耳為童蒙。作者聞之任貶剝。
莫莫莫。開口向君早是錯。
又更問莫莫莫。瑠璃餅貯穢惡。甘露味變毒藥。
莫莫莫。荊棘林裏野狐狸。走出荒郊又被縛。
淨地上死屍橫路著。邪魔外道頭卓朔。
莫莫莫。三世諸佛鼻孔長。六代祖師眼皮薄。
屎上加尖尖更尖。一任嘍囉空戲謔。
十萬八千踰繕那。爭似儂家莫莫莫。

東京淨因惟嶽佛日禪師(四首)

古劍

倚天靈刃自吹毛。非假耶溪更淬磨。生殺交馳機若電。八方從此偃干戈。

古琴

亦無徽軫亦無絃。一弄宮商徧大千。旦暮水聲長在耳。古今山色自橫天。

古鏡

本自圓成鑄必難。靈光千古逼人寒。胡來漢現雖無隱。誰敢當前正眼看。

古潭

一片寒光鑒一團。萬重山脚管秋天。波心得此澄清後。曾印銀蟾幾度圓。

饒州薦福道英禪師(十首)

十要頌

談迷說悟竟如何。迷豈無人悟頗多。迷去固非新世界。悟來還是舊山河。
根門賊黨皆歸歛。陰界魔軍盡倒戈。從此晏然居我國。謂言堯舜亦如它。
佛性圓融處處談。就中端的少人諳。應機岐路分千萬。造到根源絕二三。
葉落亂蟬鳴遠樹。雲收孤月印澄潭。尋枝逐派堪憐愍。特地斯言為指南。
豁然言下忽逢伊。頗類真金出鑛時。入冶更須精鍛鍊。上砧方耐重鉗鎚。
得皮得髓終由己。傳法傳衣亦是誰。管見庸聞何足道。謾增人我長愚癡。
漸遠家鄉轉不如。勸君早早慕歸歟。遨遊平地無高下。運動玄機有卷舒。
妙矣三平胸著箭。奇哉萬卷腹藏書。不能了了明根蒂。畢竟還同死水魚。
道眼分明真可難。法身埋沒轉堪哀。衣衫脫去全身露。枕簟離來兩眼開。
開處更無魔境界。露時那有佛形骸。文殊一念纔差互。也到鐵圍山下來。
投師不正亦徒勞。去就吾今勸爾曹。但取道純兼德懿。休論名重與年高。
直須下意求心要。莫祇虛頭事氣豪。無事身緣兩浮脆。擬憑何法作堅牢。
見成公案莫疑猜。先覺分明點破來。便可學能無伎倆。不應如秀拂塵埃。
親疎休苦窮它語。與奪仍須運己財。大底欲歸何處去。石橋巖嶮在天台。

就中尋覓知偏遠。向外馳求轉覺賒。柳綠華紅全漏泄。鴉鳴雀噪已周遮。
何須得得論心境。不用嗷嗷辨正邪。生死涅槃知夢幻。莫將夢幻強分拏。
無相無名亘古今。豈教寒暑浪吞侵。到頭不許稱為佛。垂手何妨指作心。
即見即聞非易覓。離聲離色轉難尋。可憐認得昭昭底。也道傳衣繼少林。
弊垢衣纏小化身。了無一法為君陳。衣中有寶年年在。眼裏無筋世世貧。
芻狗生成金翡翠。木鷄啗破玉麒麟。盡言玄妙如坑塹。過得翛然有幾人。

秀州資聖盛懃禪師(五首)

西來意

君問西來意。春深雨水多。熊山藏隻履。赤腳過流沙。
君問西來意。春風依舊寒。欲行千界外。舉步細須看。
君問西來意。雲深差路多。暖風吹曉谷。明月照烟蘿。
君問西來意。巧會隔新羅。直饒便恁麼。鶴人鳳凰窠。
君問西來意。迢迢十萬程。舉頭看北斗。磊磊一天星。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五首)

宗門五派

法眼一宗枝。玄沙是祖師。直須明自己。不可闕修持。
問裏分賓主。言中絕路岐。若論端的事。打瓦了鑽龜。
雲門嗣雪峯。機與睦州同。理出千差外。言歸一句中。
九秋殘葉雨。三月落花風。常見波斯說。蝦蟆齧大蟲。
偏正互縱橫。迢然忘十成。龍門須要透。鳥道不堪行。
石女霜中織。泥牛火裏耕。兩頭如脫得。枯木一枝榮。
瀋山與仰山。機暗獨言難。飛鳥開雙翼。明珠轉一盤。
方圓雖可並。起坐不相干。手舞暨足踏。徒勞逞舌端。
臨濟好兒孫。多將棒喝論。不能明妙用。祇是學空言。
欲動先攜杖。臨行又撲盆。便超斯見解。野鴨裏餛飩。

荊門軍玉泉山承皓禪師(一首)

布袋歌

布袋生來落魄。縱性受居城郭。笠如秋後蓮荷。袴似多年盤絡。
草鞋不見成雙。毳衲唯留線索。有時若醉如癡。有時露胸袒膊。飢
來信手拈飧。困即街心伸脚。天晴穿履荒忙。頃刻雲生碧落。
春霖洗足奔走。須臾日輝山閣。生涯祇箇布袋。盛貯不拘好弱。
驀然抖擻向人。中下安能湊泊。鐵鈔便言鐵鈔。木杓直言木杓。
低頭不覺呵呵。憊憊一時放却。或乃拊背求知。轉腦張眸驚愕。
展手乞我一錢。何啻膏肓覓藥。彼此失利重重。未審阿誰大錯。
不知入水入泥。盡謂風狂戲謔。有時喜怒縱橫。不選言詞好惡。
訶罵十聖三賢。大罵志公婁約。誰言斷妄趣真。誰言棄苦求樂。
更言不生不滅。平地強生溝壑。智者反自籌量。愚者從他卜度。叵
耐李老莊周。剛把虛空捫摸。更有呂望黃公。謾說六韜三略。
被人撈問元由。不免低頭喏喏。白雲堂下漁人。望風亭上仙鶴。

婺州寶林果昌寶覺禪師(一首)

擔板庵歌

此箇茆蓬。外實內空。恒沙妙用。盡在其中。
背靠青山淥水。面觀翠竹長松。任你風寒霜雪。幾經春夏秋冬。
指天罩地。為法界宗。禪人遊賞。默默相逢。看取題目。水洩不
通。

建中靖國續燈錄卷第二十九

東京法雲禪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集

偈頌門

明州雪竇山重顯明覺禪師(十首)

讚佛

甘蔗流苗應剎塵。覺場高發利生因。紫金蓮捧千輪足。白玉毫飛萬德身。
孤立大方資定慧。等觀含類捨怨親。挨星相好中天主。帀地名聞出世人。
螺髮右旋仙島碧。眉月斜印海門新。鸞翔鳳舞非殊品。象轉龍蟠絕比倫。
瓔珞聚中騰瑞色。華鬢影裡奪芳春。慈儀戀望知何極。梵德言辭莫可陳。
胸字杏分無量義。頂珠常照百由旬。雙林孰謂歸圓寂。坐斷乾坤日見真。

讚法

後得智生功德聚。大悲留演潤禽魚。貫華雖自科千品。標月遷歸理一如。
過量劫應期廣布。剎那心合未忘書。四衢道內拋紅燄。五欲波中綻白蕖。
排斥眾魔登壽域。引携諸子上安車。義天星象熒熒也。辭海波瀾浩浩歟。
違背此恩難拯拔。遭逢末世豈躊躇。聞來半偈須相敷。惜去金身莫共居。
飛辯恨曾虧激問。蹟幽欣且免長嘘。生生頂奉輝心鏡。廓照塵勞信有餘。

讚僧

方袍圓頂義何宣。續燄千燈豈小緣。華雨座前猶滯相。虎馴庵畔尚稽詮。

岩栖豕宿難依望。鶴貌雲心迴灑然。寶杖夜鳴寒嶠月。銅瓶秋漱碧潭烟。
名標練若澄誼猗。迹念昏衢警睡眠。林下雅為方外客。人間堪作火中蓮。
情高不是超三際。道在非同人四禪。浮世勉誰知逝水。深峯甘自聽飛泉。
苾芻草馥僧祇後。玳瑁盂傳古佛先。珍重覺皇有真子。坤維高步列金田。

兔角拄杖

少室傳來兔角杖。千聖護持為頂相。虎踞龍蟠勢未休。雲影山形冷相向。
有時閑倚在虛堂。寥寥市地凝秋霜。有時大作師子吼。德嶠臨濟何茫茫。
今日提來還不惜。分明普示諸知識。解拈天下任橫行。高振風規有何極。

名實無當

玉轉珠迴祖佛言。精通猶是污心田。老盧祇解長春米。何得黃梅萬古傳。

問緣生義

義列緣生笑未聞。孰呈布鼓向當門。金剛鐵券諸方問。報道三千海岳昏。

道貴如愚

雨過雲凝曉半開。數峯如畫碧崔嵬。空生不解岩中坐。惹得天花動地來。

大功不宰

牛頭峯頂鎖重雲。獨座寥寥寄此身。百鳥不來春又過。不知誰是到庵人。

至人不器

誰當機。舉不賺。亦還稀。
摧殘峭峻。銷爍玄微。重關曾巨闢。作者未同歸。
玉兔乍圓乍缺。金烏似飛不飛。盧老不知何處去。白雲流水共依依。

為道日損

三分光陰二早過。靈臺一點不揩磨。貪生逐日區區去。喚不迴頭爭奈何。

廬山東林常總照覺禪師(八首)

文殊妙智門

文殊何處不文殊。豈止清涼山頂居。今古未嘗時隱顯。聖凡何必論親疎。
非言七佛為師祖。是與群生作楷模。直下若能明妙得。般柴運水現毗盧。

普賢妙德門

普賢亞聖實稱賢。銀色光中照大千。法法現成何過惡。塵塵具足或方圓。
善財一念全軀露。普眼慇懃敵體偏。好行本來無處所。峨嵋權且示人天。

觀音妙力門

觀音妙力處煩籠。動靜融融法界中。萬籟未鳴嘗演暢。一聲纔剖理何窮。
陳那有聽翻成礙。賢喜無聞遠近通。好是文殊能妙揀。圓通從此勿西東。

都頌

妙智妙行與圓音。共顯毗盧古佛心。一旨得來無異趣。三門從此見幽深。

清涼海岸休佗覓。華藏峨嵋莫外尋。彈指圓成猶特地。那堪擬議隔千峰。

理真事妄

理無動轉。事有去來。一念二種。永劫輪迴。輪迴既息。理事平懷。法爾何爾。途轍安排。

違佗認己

實悟無心。有心有以。叱古存今。非佗是己。法本圓明。道何彼此。更若雕鑄。遠之遠矣。

內心外境

內心外境。迷頭認影。摘果空華。充飢畫餅。三界茫茫。四生袞袞。心境頓忘。萬法根本。

心生滅見

祖道東流。枝分派列。要旨千途。群機萬轍。萬轍本虛。千途由設。不統宗源。紛紜生滅。

東京惠林德遜佛陀禪師(七首)

物不遷旨

物物本無遷。年來復一年。人從山北去。鷺到還南邊。春樹生還謝。銀蟾缺復圓。未明肇公意。對北盡忙然。

不真空觀

不真方謂真。年年二月春。桃花開綠野。柳絮送行人。物物殊非物。塵塵不是塵。了然亡所得。迢遞隔西秦。

般若無知

船若號無知。相逢話所之。去年初夏月。今日暮春時。

臨水精神健。登山氣力衰。慇懃話消息。眉上更生眉。

涅槃無名

涅槃絕名稱。如來悲願深。何嘗生覺樹。豈是滅雙林。
慧澤無高下。曇華亘古今。岩間宴坐者。終日漫沉吟。

真空妙境

真空本不空。日日日生東。流水隨方異。青山到處同。
雨滋芳草秀。烟淡野華紅。觸目毗盧境。門門道路通。

理事無礙

理事各無礙。南州又北州。蹄輪非紫陌。歌筦動青樓。
行客忙應甚。遊人醉未休。牧童笑歸去。吹笛倒騎牛。

周徧含容

周徧曰含容。頭頭法界重。誰言德雲老。不下妙高峰。
靜坐嵩陽石。閑聽岳寺鐘。善財迴首處。塵外絕行蹤。

泉州資壽捷禪師(十首)

華嚴頌

華嚴真境統三千。香社隨方種白蓮。松徑雪消泉韻遠。石樓風靜磬聲圓。

雲凝古殿爐烟澹。日轉幽庭樹影偏。翻憶五臺多秀麗。異華鋪地軟如綿。

華嚴真境極寰區。雲散長空雨點無。千器碧淵雖等降。一輪明月豈差殊。

青山綠竹輪僧舍。瓊苑瑤華屬帝都。劫劫波波迷已士。漂沉六趣即須臾。

華嚴真境豈勞尋。萬彙紛紛孰不任。彩鳳夜寒歸畫閣。黃鶯春暖轉芳林。

須知古佛唯心造。自是當人本性沉。盡日倚欄細思審。等閑持論亦幽深。

華嚴真境廣通津。萬戶千門處處親。一坐化城彌勒閣。四方瞻仰善財身。

雲收日現誰無分。虎嘯風生自有因。轉大法輪人罔測。區區屈己坐微塵。

華嚴真境顯群機。雨漲江湖浪渺瀾。匪進匪修超十地。無聞無得越三祇。

中秋玉兔團團盛。半夜圭桐旋旋虧。入海波斯貪不已。擬將瓷器換摩尼。

華嚴真境絕枯榮。觸處堂堂耀眼睛。紅燄爛中秋藕折。碧波潭底夜燈明。鴈飛寥廓雙排直。雪布長空一樣平。可笑世間迷路者。墮坑落壑祇橫行。

華嚴真境海雲開。船子何因戀釣臺。上接下流偏屈曲。東遊西岸轉迂迴。漸離有相雖憑教。頓悟無生豈用媒。不得毗盧真旨趣。枉參知識去空來。

華嚴真境普形彰。識得西來路不長。合進趣時宜進趣。非思量處勿思量。

默然未必降金粟。微笑何須讚飲光。為報五湖諸上德。休馳言句錯傳揚。

華嚴真境祇雷同。擬道無功却有功。八聖道支雖易顯。萬波羅蜜即難窮。

危簷冷拂微微雨。幽室涼生凜凜風。深欲善財投猛燄。妙哉猶且樂其中。

華嚴真境四時周。殘臘冰河凍不流。石虎有牙非可懼。鐵牛無鼻豈能収。

金園柳暗春將暮。玉井桐疎景乍秋。遶座奇峰觀不足。徘徊猶止水邊樓。

潤州金山曇穎達觀禪師(四首)

佛教

始從鹿苑亦拘尸。四十九年垂軌儀。迦葉撞鐘招結集。阿難陞座示傳持。

金言已是煎殘藥。藏教空排著了碁。若論諦當一句子。三更打鼓弄波斯。

經

西天貝葉貫華編。梵語傳來此土翻。十二部中非易演。五千卷裏固難言。
說三未免行斜道。第一何曾契上根。信受奉行如了得。生生不墮葛藤村。

律

世尊律藏付波離。滅向尸羅慎所譏。身口意根須善護。貪瞋痴亦在防微。
祇容朝夕唯持鉢。不許經遊暫失衣。未達導師方便旨。猶如鳥欲避空飛。

論

迦旃延以論標空。經意論量盡得通。冀引千龍歸大海。不留百鳥滯虛空。
依佗作解非為上。本自圓成未得中。起信瑜伽唯識外。曹溪誰有馬鳴功。

黃龍山祖心寶覺禪師(三首)

大藏經

一毫穿眾穴。眾穴一毫收。雲自帝鄉去。水歸江漢流。

傳燈錄

九十芳春日。遊蜂競採華。香歸蜜房盡。殘葉落誰家。

信心銘

縱饒窮到底。還是涉風波。自古貧堪笑。一身猶恨多。

蘄州四祖山演禪師(四首)

四時般若

三月花開笑暖天。浮雲飄颺自牽連。無端下取經旬雨。引得青苔到座前。

夏日輝輝爍太虛。當斯誰敢上擡眸。涼風偏善時人意。襲襲輕飄出玉壺。
秋來何事得人憐。海月騰騰上碧天。無限清光耀心目。與誰相共話團圓。
朔風和雪振溪林。萬物潛藏恨不深。唯有嶺梅多意氣。臘前吐出歲寒心。

蘇州崑山元禪師(四首)

般若四題

般若劍。不露鋒鈿何所驗。太平天子坐寰中。邊方永息狼烟燄。
般若山。遊人終日競躋攀。須超絕頂通玄處。切莫栖蹤半壑間。
般若體。恢廓十方須見底。却於觸處現全身。免使伊人遙頂禮。
般若用。閑把勿絃琴品弄。擬操一曲達知音。清淨自有松風送。

東京智海清佛印禪師(五首)

華嚴合論

金色分明世界寬。箇中誰謂始心安。園林秋晚葉爭墜。雨雪夜深天帶寒。
佛刹不須論遠近。行花何處有彫殘。欲知無限重重境。但向毛頭國土看。
覺城東際起初因。南去詢求五十人。行海幽深雖徧涉。義天空闊不容塵。
寒松帶雪影長在。脩竹含風韻轉新。若向此中能擺脫。也應閑却主城神。
華嚴真境本來周。譬比滄溟納眾流。六道四生纖芥攝。十方三世刹塵収。
頭頭盡是妙峯頂。步步無非慈氏樓。堪笑善財多費力。區區南去更何求。
刹海滔滔莫問津。十方何處有纖塵。曾經塞北三冬雪。却憶江南二月春。
河渚到來成底事。刀山投去謾勞神。如今老向千峯下。誰是當年主稼神。
華嚴真境絕纖埃。老去那能學善財。鳥外烟霞長自在。海邊樓閣為誰開。

等閑坐石看流水。無事携筇遶綠苔。寄與寒岩舊知己。相逢休作象王迴。

益州甘露舒禪師(八首)

覺樹

雲根不植凡間玉。秀實全資真界風。秋雨秋颺零萬物。森森獨茂法王宮。

覺花

惠澤真颺習習回。春生覺樹覺花開。芬芬性地誰能識。郁郁香飄徧九垓。

法鼓

一擊隆隆徧九垓。雲奔雨驟盡趨來。須知不是尋常韻。惺得人天醉眼開。

法幢

真界巍然匠莫窮。指佗迷者出樊籠。幾多邪黨思殘毀。爭那金人不朽功。

忍草

真颺惠澤沃情田。和氣融融忍草鮮。雪壓霜凌終不變。青青莫問植何年。

心珠

無象無思無物同。圓明廓照不空空。離婁喫話無因得。如信徒云耳目聰。

定沼

無象非因疏鑿成。境風不起自澄清。虛涵皎皎覺天月。照破群迷大夜明。

慈航

愛水堤邊盡日橫。帆開忽喜惠風生。滔滔無限迷津者。渡去寧辭浩渺程。

雲居山了元佛印禪師(四首)

牧牛

初學看牛日。人牛盡力爭。愛從荒草去。不向坦途行。轉鼻繩難拽。加鞭眼轉生。勿教犯苗稼。猶貴及時耕。驀地轉頭來。胸腰黑漸開。出欄羗笛引。歸晚野歌催。見鬥情猶憤。逢羣日尚擡。良由鞭索在。心地漸成灰。且喜全軀白。安眠露地中。身心如土木。聞見似盲聾。一朵雲生谷。成團雪墮空。皎然無異色。翻與眾牛同。已白仍迴黑。還君自在牛。亂山閑放去。千古更無憂。赫赫當中日。騰騰不繫舟。超然凡聖外。誰敢向前收。

安州圓明寺著禪師(四首)

廣照空有

廣照雙非妙體融。百千沙界一心中。有情有取真還滯。無念無求事未通。遠嶠青松音歷歷。長天白日印空空。分明獨露如何說。春至桃花依舊紅。

離微體淨

離微體淨妙心宗。此體凝然窅莫窮。絕相絕名三界外。同塵同境四生中。堂堂真有元非有。蕩蕩玄空本不空。一點靈源何所示。夜來夜檜起清風。

本際虛玄

本際虛玄妙絕倫。無方應用體全真。圓明似日周沙界。清淨如空徧色塵。
鶴唳岩松迎暖日。鶯鳴谷口送殘春。遊人到此堪回首。休更尋源去問津。

宗本義旨

宗本兼條玄義賒。朔風吹斷暮烟霞。祇因五性窮無異。致使三乘見有差。
迷去盡同雲裡月。悟來方信眼中花。雖然語路分迷悟。法界明明共一家。

潤州金山瑞新禪師(四首)

從真起妄

法身三際不留蹤。三際還將實相同。一念忽生真性內。片雲來點太虛中。

滅妄歸真

從真起妄有三緣。緣境門門本寂然。雲滅推尋無內外。豈言風雨暗山川。

真妄不二

大千國土一漚中。漚體觀來與水同。水若真空無萬法。須知萬法是真空。

真妄不存

病在咸希藥有靈。病消休詫藥如神。德天黑暗同魔佛。真妄寧存有智人。

劔門關慈雲重謚禪師(一首)

衣中寶

衣中寶。衣中寶。歷劫隨我是處到。今日輝光出衣中。烜赫分明當古道。
真空藏。光杲杲。此寶居中絕世好。三賢十聖盡同途。拊掌齊聲相告報。
窮子曉珠在醉衣。龍女成佛年不老。應受用。得自在。大千沙界常不昧。十字街頭婆子家。光明迸出破布袋。

福州法海明慧禪師(十首)

迷

底事朝朝宛似癡。鏡中眉面却生疑。長衢走徧狂初歇。門掩春風不語時。

妄

勞生擾擾汨天真。終日忙忙趣妄因。流浪此時遮海水。更疑東海起紅塵。

意

意存諸見理還迷。滿眼空花不露枝。空果未成心未息。一狐疑了一狐疑。

識

根根分別眾塵蒙。暗逐光陰去莫同。好箇頂門無入處。青山流水謾相通。

情

去去來來渾未知。幾番迴首忍分離。長橋野店猿啼後。一過秋風一雨時。

想

日夜猜疑暗動時。百年行處爾嘗知。春花未折香猶在。蝴蝶雙雙透舊枝。

智

智明千古號靈通。日日都忘決斷功。天地水雲俱是眼。四園松竹起清風。

慧

慧光臨照勿高低。向此都無一法迷。多謝東君漏消息。滿園春色鷓鴣啼。

覺

根境識三都了了。了空空外亦無非。滄江萬里山重疊。一片孤雲自在飛。

悟

悟盡凡心截眾疑。此心能有幾人知。當時祇道花拈去。今日依前紅滿枝。

隨州大洪山恩禪師(四首)

聲

枯木龍吟大地秋。最初一句謾輕酬。少林山叟笑無語。靜聽松風暗點頭。

色

極目寥寥絕謂情。十方塵刹共澄明。石城山下無根草。一度春來一度青。

無價香歌

我祖無價香。調和匪今日。萬種同收蒼蘊林。九煉須是波羅蜜。

名兮實兮絕真妄。知兮見兮何得失。
說牛頭。言象藏。優曇末利多般狀。天人善應獲圓通。鬼神正受成
無上。
奇哉戒定燒塗丸。利樂群生法界寬。為雲為臺相可觀。應根應器誰
能觀。
此歌妙通香積國。端的開熏須斷惑。德藏門開慧炬然。清風散去有
何極。

還鄉謠

任落魄。任落魄。生老病死已^紅是錯。五常三寶使精魄。一性六根弄
輕薄。
遇緣生。欲若縛。盡是無名不著度。祇知烟帶繫虛空。不覺光明出
樓閣。
休已^紅休。作無作。祇麼隨緣心已^紅樂。還鄉一路報人知。獨駕白牛離
繩索。
廓然無限清風生。不勞天地為棺槨。
建中靖國續燈錄卷第三十(終)

No. 1556-B 上書。筓子。付受節次。附于卷後

參學賜紫僧 希式 錄

上皇帝書

七月十五日。法雲寺住持傳法佛國禪師。(臣)惟白謹昧死上書 皇
帝陛下。(臣)聞 天地崇高博厚。所以覆載萬物也。 日月麗明而
騰照。所以輝華萬方也。孔孟本仁而祖義。所以教養萬俗也。 佛
祖運智而含悲。所以開覺萬有也。若此四者。古今罕有齊其功者
也。
恭惟 皇帝陛下。德普天地。 明逾日月。道超孔孟。 性侔佛
祖。自 丕承大業。一日而天下歸仁。儒釋道俗。草木禽魚。霈然
霑其大恩大澤。沿古抵今。未有如 陛下能齊其功也。(臣)緇林一
草芥耳。兩歲中三遇陛下詔闡宗風。實千載一時之幸會。(臣)所以
捫膺忖心。將何以報。(臣)定外竊觀 真宗皇帝踐祚。改元景德。
吳中僧道原集禪門宗師心要語句三十卷進上。蒙 詔翰林學士楊億
為序。是曰景德傳燈錄。 仁宗皇帝踐祚。改元天聖。駙馬都尉李
遵勗亦集禪門宗師心要語句三十卷 進上。蒙御製序文。是曰天聖

廣燈錄。皆勅隨大藏。傳布天下。開悟機器者。數如河沙。然妙道雖不以言。須假言而顯於妙道也。自天聖至今。將八十年。未有集錄者。(臣)今遇陛下踐祚改元。謹集禪門宗師心要語句三十卷。目為建中靖國續燈錄。昧死上進。伏望陛下特降朝廷。依傳燈廣燈錄例。賜序文。下印經院。編入大藏目錄。隨藏流行。使佛燄祖燄光明而無盡。則陛下聖祚國祚綿遠而何窮也。

(臣)嘗思元豐五年。歲在壬戌。朝廷無事。瑞應有感。海宇肅清。邊陲靜息。是時。神宗皇帝宴然無為。留神禪悅。建法雲禪宇。詔圓通禪師法秀開闡宗風。招延禪眾。實陛下誕聖之年。若此興崇。良有以也。(臣)今所以區區集斯語要。少贊陛下金輪垂裳。佛行仁慈之化。而報神宗皇帝創禪林莫大之恩也。(臣)竊原國朝祖宗已來。以聖繼聖。未嘗不以佛祖妙道資以周孔仁義而化成天下也。所以聖人之事。必待聖人而後可行。無上法印。今日正賴陛下不忘佛囑。以永傳布。則(臣)死生之大幸。天下禪門之大幸。所有建中靖國續燈錄三十卷。目錄三卷。隨書昧死上進。干黷冕旒。(臣)無任瞻天望聖。激切屏營之至。(臣)惟白誠惶誠恐。昧死謹言。

上皇帝劄子

(臣)今有法雲寺住持傳法佛國禪師惟白投書於臣。乞臣繳進所集建中靖國續燈錄三十卷并上皇帝書一封。(臣)竊考惟白所集。其例甚著。其名甚美。其利甚博。其報尤深。例之著。引真宗踐祚改元而有景德傳燈錄。仁宗踐祚改元而有天聖廣燈錄。皆熙朝盛典。例之著也。名之美者。夫燈續則傳。燈續則廣。傳之與廣。具在續燈。相續無盡。名之美也。利之博者。凡四十八世。千七百餘人。使悟機器者。當數如河沙。天下受其賜。利之博也。報之深者。其大意舉以密嚴睿筭。幽贊皇圖。追報先帝為本。潛心為國。報之深也。

(臣)亦自念。元豐初年。寢被先帝道德之澤。祈創禪林于輦下。時歲在壬戌。適丁上聖挺生之期。先帝留神曲成。賜法雲之名。有請皆從。至於詔選傳法名僧。來學者常逾數百。上資寶祚。代不乏人。今惟白之住持。次當第三。而際會風雲。翱翔宮禁。獨陞猊座。三對龍顏。海潮之音。師子之吼。人天響震。佛祖光生。且謂知恩報恩。莫如佛法。佛法之要。其在祖燈。佛燄祖燈。既光明而無盡。則帝齡國祚。將綿遠而何窮。欲報之心。大變類此。

(臣)又恭覲 仁宗皇帝御製廣燈錄序有云。法雲滋蔭。又云。續千燈而罔窮。豈非先有所開。囑有所在。乃至以 神功而暢真諦。真宗皇帝以稽古而繹宗風。神宗皇帝閱意最深。儲精益專。以大明而研性理。此蓋 國家以 聖繼 聖。兼資妙道。化成天下之遺則也。恭惟陛下。道自生知。性由天縱。聰文日益。聖學淵深。孝述 祖宗。必留宸念。(臣)儒術之暇。粗探禪詮。惟最上乘。乃第一義。不立文字。豈踐階梯。直拄箭鋒。旁加鞭影。投針非妙。掣電猶遲。道固無言。因言顯道。道既顯矣。悟之者多。今惟白所集之文。蓋教外別傳之旨。近標契理之句。廣引發光之機。詳其筆削之公。審其論議之密。包舉八十年之知識。緝熙千萬偈之因緣。苟非其人。孰能與此。何但有大功 闕典。誠為豈小補於 明時。其所集錄。并所 上書。臣今未敢便行繳 進。欲望 聖慈。特賜 宣取。恭願 陛下。時忘 萬機。游意法樂。暫垂 聖覽。如有 可采。乞降朝廷。依傳燈錄等例。 賜序入藏。流布天下。取進止。

七月十五日集慶軍節度觀察留後駙馬都尉臣張敦禮劄子。

付受次第

七月十五日。通進司投 進劄子。當日蒙差閣子下楊太保日言傳 聖旨。就寺 宣取建中靖國續燈錄并上 皇帝書。佛國禪師望 闕跪 進。續蒙差閣子下黃太保勉傳聖旨。承受入內。上進 御前。至八月二十六日。蒙 聖恩差降中使閣子下李太保敏奉聖旨。就張敦禮宅。 詔法雲寺住持佛國禪師惟白。賜建中靖國續燈錄三十卷。目錄三卷。仍賜 御製御書序一軸。銷金複帕等。公主望關受賜。仍與闔寺大眾等。迎引入寺。就法堂供養奉安訖。即時陞座。舉揚般若。稱謝聖恩。祀嚴 聖壽。尋具語續并 謝恩表。附中使李太保賈入 內。進呈 是日佛國禪師陞堂語錄。 師登座。拈香云。佛祖相傳。經無量劫。龍天護祐。遂有今時。若也聖賢嗅著。品類聞知。三十四心斷結。五分法身頓圓。如今拈出。焚向鑪中。伏願皇帝陛下。道高堯舜。德邁羲軒。七十二峯聳為壽嶽。百千巨海流貫福河。次拈香云。伏願 中宮皇后。 皇太妃。 兩宮皇后。 皇太子。 諸王天眷。懋肅宮闈。聲高啟頌。崇顯三寶。永贊萬機。便敷坐。 問 帝澤霽流 御製文。顯揚祖道賜禪門。續燈從此傳千古。師將何法報 皇恩。 師云。高提法印歸 皇化。大續真燈助 帝明。 僧曰。若然者。今佛一言光古佛。開發九州禪悅心也。 師云。祇將一滴曹溪水。四海為霖報我皇。

僧曰。可謂是字字燕金滿目。言言趙璧盈山。
師云。祇道得一半。
僧曰。遮一半請禪師道。
師云。龍章并鳳藻。玉畫與金鈎。
僧曰。箭鋒相拄禪家用。鞭影齊施又若何。
師云。皇帝道了。
僧曰。恁麼則少室因茲增道價。法雲堂上轉光輝。
師云。知恩報恩。
問。承師有言。唯憑一滴曹溪水。四海為霖報我皇。祇如 帝恩已
降。祖道重彰。如何即是。
師云。三十年來。罕逢此問。
僧曰。過去燈明佛。本光瑞如此。
師云。龍出洞時雲片片。鳳栖梧處葉青青。
問。承 皇帝序云。直指性宗。單傳心印。可得於眉睫。可薦於言
前。如何是直指性宗底句。
作家 君王方恁麼道。
僧曰。廓然全露真消息。恭覽 今朝御製文。
師云。一言妙契寰中旨。千古淳風特地清。
問。四海禪宗。今朝光顯。學人上來。請師舉唱。
師云。靜為天地本。動合聖賢心。
僧曰。雷音一剖乾坤肅。御筆纔揮萬象明。
師云。五雲生嶽頂。一氣鎮寰中。
僧曰。寒松露滴澄潭月。秋菊新開萬葉香。
師云。知時別宜。
問 御書新降。 帝澤初霑。正當此時。請師說法。
師云。 聖文輕世寶。 宸筆帶天香。
僧曰。祖燄續時光燦燦。覺花開處葉重重。
師云。不妨道著。
問。清梵一炷玉鑪烟。上祝 吾皇壽萬千。佛燄祖燈從此盛。請師
高唱太平年。
師云。禪林生瑞氣。梵剎起祥雲。
僧曰。祝 聖一句又作麼生。
師云。近聞南岳僧來說。融頂萬年松倍高。
師乃云。佛心量廓。明明洞照於十方。祖意淵冲。杳杳冥通於三
際。少室而花開萬朵。鷲峰而燄列千燈。芬馥滿於寰區。光華徹於
沙界。或調根而授法。或疏派以鑿源。聳榦垂枝。騰光潛耀。統歸
於一致。分立於五宗。所以天台智者。指以一心。通乎三觀。蓮華
談於一妙。薰風盡於九旬。文句交羅。法性澄湛。作兩朝之師表。

為千古之規模。賢首國師趣舉一毫。七處九會齊彰。剖折一塵。百門萬行備足。圓融具德相包容。啟頓初心。便成正覺。慈恩法主。寶劍垂袖。悟徹於一心。援筆臨文。疏成於百本。六釋義而廣明。三無性以澄辯。橐籥人天。笙簧宗教。南山律師具三千威儀。持八萬細行。演十誦妙旨。唱五分律文。洞曉開遮。深明軌範。布三番之羯磨。作四果之初因。王臣瞻依。天人侍衛。達磨祖師單傳佛印。直指人心。自悟自明。自通自證。潛光資於實行。密旨契於宗風。十聖那知。三賢罔測。

若臨機而大用。固不拘於小慈。擡眸則青嶂千重。擬思則白雲萬頃。全體分付。覲面相呈。德山一棒。則血濺星飛。臨濟一喝。則風生霞散。雲門顧鑒。分明函蓋乾坤。雪嶺提撕。便見光輝日月。趙州栢翠。靈雲桃花。拂握龜毛。頭頭指示。杖橫兔角。物物全提。輪動般若神鋒。八萬寧靜。磨礪智慧寶劍。四海宴清。迴超心識之端。透出語言之表。由斯性海明珠。光光而滿目。形山大寶。涌涌而現前。放去全機。拈來受用。然雖如是。正當今日。如是話會。竊思佛法付授國王。囑以威惠護持。使之流布沙界。

恭惟皇帝陛下。聰明文思。為三千大千之尊。睿哲英謀。作百億四洲之主。是真菩薩。現為明君。故能頓悟佛心。頓明祖意。頓圓知見。頓徹性源。運大等慈。不忘授記。降聖文於覺苑。灑宸翰於禪河。詔行續燈。助明國祚。非謂釋門一時之幸。實為禪宗萬古之光。瞻望天庭。不勝感荷。以此舉揚。上延睿筭。伏願皇帝陛下。智若日月燈佛。洞照大千。壽如山海慧王。永延長劫。

師復云。恭承聖序云。箭鋒相拄。鞭影齊施。直指性宗。單傳心印。可得於眉睫。可薦於言前。諸禪德。若此消息出在威音王佛已前。超過釋迦老子一著。明眼高人。同為證明。伏惟珍重。

恭發願文

越國大長公主妾·集慶軍節度觀察留後上柱國駙馬都尉臣張敦禮。偕發虔誠。嚴備已俸。謹就杭州選工。鏤板摹印建中靖國續燈錄三十卷。目錄三卷。以御製序冠其首。以臣惟白上皇帝書。臣敦禮上皇帝劄子并蒙恩付受節次錄附于後。流布天下。所集勝利。並為上贊皇圖。祝嚴聖壽。永永萬年。無窮無盡。法界有情。同霽般若正因。共獲金剛種智。

建中靖國元年十月天寧節日臣張敦禮恭題

都勾當藏主沙門靈肇

同勾當住聖泉寺傳法沙門紹登

都勸首住持傳法沙門 普明
前都勸首住持傳法惠空大師 沖真
勸首應賢食方正能直言極諫科陳賜
朝請大夫知福州軍州兼管內勸農事
充福建路兵馬鈐轄柱國借 紫
請主參知政事元絳
證會 靈應侯王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前往捐款](#)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